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CLOTHING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의생활

ㅅ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의생활

ㅅ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34699)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❷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f Basic Necessities

CLOTHING

발행일
2017년 12월 19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141

발행인
천진기

총괄
이관호

기획
강경표

편수원
백민영, 은현정, 김혜영, 류건욱, 손동기

윤문·교열
도서출판 평사리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263-01

ISBN
978-89-289-0176-0 91380 : 비매품
978-89-289-0172-2 (세트)

9 788928 901760 91380

한국 의식주 생활 사전

의생활

ㅅㅇㅈㅊㅋㅌㅍㅎ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환기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여섯 번째 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 '의생활 편' 사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전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여 전승되어 내려온 의생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해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은 2002년부터 시작된 사전편찬 사업을 통해 이미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을 발간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의 민속을 집대성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발간될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식생활·주생활 편>, <한국생업기술사전> 그리고 <한국민속사회사전>까지 이 모두가 지금까지의 한국 민속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 하는 계기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또 다른 창조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사전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위원, 감수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 그리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우리 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민속을 크게 8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주제인〈한국세시풍속사전〉전5권을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하였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한국민속신앙사전〉편찬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 '무속신앙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편'(1·2권)을 발간하였다. 2012년에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설화편'(1·2권), 2013년에 '민요편'과 '판소리편'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제4주제인 <한국일생의례사전>(1·2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에는 제5주제인 <한국민속예술사전>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민속극편'과 '민속놀이편'을 발간하였고, 2016년에는 '음악·농악·무용·민화편'을 발간하였다. 올해는 제 6주제인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 편찬사업을 시작하여 첫 결실인 '의생활 편(1·2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편'은 표제어 448항목, 원고 6,000여 매, 사진 820여 장으로 구성하였다. 사진자료는 집필자로부터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사진, 타 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 사전은 관내·관외의 의생활 연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의 적합성을 검증 받았고,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 받는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의생활 분야를 전공한 74명의 연구자가 원고를 집필하였다.

수합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검수를 받은 후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쳤다. 최종 원고는 각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쌓은 외부 학자의 감수를 거쳤으며 감수위원단이 문제점을 제기한 원고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사전은 의생활을 크게 모자, 상의, 하의, 겉옷, 속옷, 대, 신발, 장신구, 머리모양, 화장, 일습, 직물, 염색, 무늬, 용어로 구분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으로 구성하였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집필자란을 마련하여 필자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의생활 편>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의식주생활사전 : 의생활 편>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모자, 상의, 하의, 겉옷, 속옷, 대, 신발, 장신구, 머리모양, 화장, 일습, 직물, 염색, 무늬, 용어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표제어는 관내외 자문회의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여 선정하였다.
4.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야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차례의 경우는 각 분야 안에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표기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를 밝혔다.

분야별 도판

분야별 도판을 수록하여,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는 순서로 의생활 관련 사진과 그림, 물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속담·관용구

의생활 관련 속담과 관용구를 정리·제시하여 의생활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제공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간송미술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경찰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수목원, 국립여성사전시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눈빛출판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돌실나이,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아일보, 명동성당, 부산시립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성주 이씨 대종회,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앙드레김 아뜰리에, 어진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영월책박물관,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우리들의 벗, 원불교역사박물관, 육군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일조각, 자연염색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조선일보, 중앙여자고등학교, 진주 강씨 백각공파 종친회, 천안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현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미사진미술관, 합천박물관, 해남 윤씨 대종회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1. 관내 자문위원은 김영재, 최은수가 맡았다.
2. 관외 자문위원은 고부자(단국대), 금기숙(홍익대), 김명자(안동대), 김문식(단국대), 김문자(수원대),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남경미(원광대), 박성실(단국대), 송미경(서울여대), 윤양노(중부대), 이경미(한경대), 이문현(한국고전학연구소),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은주(안동대), 장인우(인천대), 조효숙(가천대) 교수가 맡았다.
3. 감수위원은 강순제(가톨릭대), 박성실(단국대), 유송옥(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가나다순

차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기역 ㄱ

가리마 20
가사 21
가죽 23
가죽버선 24
가체 25
간단복 27
갈모 28
갈무리 30
갈옷 32
감물 34
감발 35
감투 36
갑사 37
갑신의제개혁 39
갑오의제개혁 40
갓 42
강사포 46
개구멍바지(풍차바지) 709
개두 48
개량복 49
개량한복 51
개신교복 52
개오기 53
개짐 54
거들치마 55
건 56
건귁 57
견마기(곁마기) 63
경대 58
경사 60
경찰복 61
곁마기 63
계 65
계례복 65
고 66
고깔 67
고단 68
고무신 69
고사 70
고의 71
고이댕기 71
고쟁이 72
곤룡포 73
곤충무늬 76
공단 77
공복 78
공정책 80

과대 81
과두 82
과실무늬 83
관례복 86
관사 87
관자 88
광목 89
광사 90
괘자(쾌자) 676
괴화 91
교복 92
교힐 96
구군복 96
구두 98
국민복 100
국사 101
굴레 102
궁녀복 103
궤계 105
귀고리 106
규 109
금동신발 110
기녀복 112
기저귀 115
기하무늬 116
길짐승무늬 118
까치두루마기 120
까치저고리(색동저고리) 457
꼭두서니 121

니은 ㄴ

나막신 122
나사 123
나일론 124
난삼 125
날실(경사) 60
날염 127
날짐승무늬 128
남바위 130
남전 131
납힐 132
너울 133
넥타이 134
노리개 135
노방주 137
노파리 138
녹피혜 139
농악복식 139
뉴똥 143
능 143
능목면 144

디귿 ㄷ

다듬이질 145
다리미질 147
다리속곳 148
다회 148
단 150
단령 151
단발령 155
단발머리 157
단삼 158
단속곳 159
닭의장풀 160
담복 161
답호 162
당의 164
당항라 166
당혜 166
대 167
대구 169
대륜식입식관 170
대삼 173
대수 173
대슘치마 174
대자 176
대창의(창의) 648
대한제국의제개혁 177
댕기 179
더그레 181
도롱이 182
도토리 184
도투락댕기 184
도포 186
돌띠 188
돌복 189
동곳 191
동구니신(멱신) 220
동다리 192
동달이(동다리) 192
동동구리무 193
동의대 194
동자무늬 194
동파관 196

두건 197
두렁치마 198
두루마기 199
뒤꽂이 201
등거리 202
땋은머리 203
떠구지 204
떨잠 206

리을 ㄹ

라 207
레이온 208

미음 ㅁ

마고자 208
마미두면 209
마전 211
말군 211
말뚝댕기 213
말액 214
망건 214
매염 216
맥고모자 217
먹물 218
메리야스 219
멱신 220
면류관 220
면복 222
면사 226
면주 227
명반 228
명주 228
모단 230
모던걸 230
모던보이 233
모란무늬 234
모본단 236
모슬린 236
모시 237
모자 239
모직물 246
목걸이 247
목공단 249
목도리 250
목판댕기 251
목화 252
몸뻬 254
몽두리 255
몽두의(몽두리) 255
몽수 256
무명 257
무복 259
무지기치마 262
문관대례복 263
문관복장규칙 265
문자무늬 267
물푸레나무 269
미용실 270
미투리 271

비읍 ㅂ

바느질 272
바지 275
박가분 277
반물 278
반비 279
반지 280
방건 282
방립 283
방심곡령 285
방염 286
배냇저고리 286
배씨댕기 289
배자 290
백라관 292
백반 293
백의 293
백일옷 294
버선 295
벙거지 296
벨벳 297
변형모 298
보(흉배) 758
보배무늬 300
복건 302
복두 303
복식금제 305
볼끼 307
봉지 309
봉황무늬 309
비녀 311
빗 313

시옷 ㅅ

사 432
사계절꽃무늬 433
사군자무늬 434
사규삼 436
사모 437
사방관(방립) 283
사선 439
산동주 440
삼베 440
삼팔주 442
삿갓 443
상 443
상관 445
상모 446
상복(喪服) 447
상복(常服) 450
상장 452
상투 453
상투관 455
새앙머리 456
색동저고리 457
색복장려운동 459
생고사 461
생머리(새앙머리) 456
생활한복 462
서양사 463
석 464
석회 465
선매염 466
선염 466
설빔 467
설피 468
세조대 469
세탁 470
소고의 472
소골(변형모) 298
소방목 473
소창의 474
속옷 475
속적삼 476
속치마 477
송낙 478
수의 479
수화주 483
숙고사 484
스란치마 485
승복 486
시계 488
시복 490
신발 491
신식군복 493
심의 496
쌍계 498
쓰개치마 499
씨실(위사) 553

이응 ㅇ

아얌 501
안경 502
안경집 503
애체(안경) 502
액주름포 505
앵삼(난삼) 125
야자대 506
양관 507
양말 509
양복 510
양복점 513
양장 514
양태 517
어깨허리(조끼허리) 617
어사화 518
어여머리 519
얹은머리 520
연꽃무늬 523
연미복 525
연지 526
염색 527
염의 532
오매 532
오목버선(타래버선) 679
오미자 533
오방장두루마기(까치두루마기) 120
오배자 534
옥대 534
옥사 535
옥양목 536
와이셔츠 537
왜사 538
왜증 539
외투 539
요질 541
용무늬 541
우덮기 543

운동화 544
운혜 545
울금 546
원불교복 547
원삼 549
원유관 551
웨딩드레스 552
위사 553
유 554
유건 555
유혜 557
융 558
융복 558
은조사 559
을미의제개혁 560
이발소 563
이엄 564
익선관 565
인견 566
인염 567
입(갓) 42

지읒 ㅈ

자락치마 568
자미사 569
자연산수무늬 570
자초 572
잠 573
잠녀옷(해녀복) 724
잠방이 575
장갑 575
장도 576
장삼 577
장신구 579
장옷 582
장화 583
재봉 585
잿물 587
저고리 588
적관 591
적삼 592
적의 593
전 597
전대 598
전립 599
전모 601
전복 602
전행웃치마 603
절풍(변형모) 298
정 604
정동벌립 605
정자관 606
제복(制服) 608
제복(祭服) 611
제비부리댕기 615
조끼 616
조끼허리 617
조바위 618
조복 619
조우관 622
족두리 624
주 625
주립 626
주머니 627
주사 629
주의(두루마기) 199
중단 630
중산모 631
중절모 632
중치막 634
직령 635
직물 638
진주사 642
짚신 643
쪽 645
쪽머리 647

치읓 ㅊ

창의 648
책 650
챙머리 651
처네(천의) 653
천담복(담복) 161
천의 653
천주교복 655
철릭 657
첩리(철릭) 657
첩지 658
첩지머리 659
초립 660
최상 661
최의 662
추석빔 664
출토복식 665

충정관 669
치마 671
치자 673
치포관 674
침염 675

키읔 ㅋ

콩즙 676
쾌자 676
큰댕기(도투락댕기) 184
큰머리 678

티읕 ㅌ

타래버선 679
탈춤복식 680
탕건 683
태사혜 684
털벙것 686
토시 687
토주 688
통천관 688
통치마 689
투혜 691

피읖 ㅍ

파마머리 692
팔사단 693
팔찌 693
패랭이 696
패옥 696
팬티 697
편복 698
평천관(면류관) 220
폐슬 700
포 701
포목점 703
포선 705
포플린 705
폴리에스테르 706
푸새(풀먹이기) 706
풀먹이기 706
풍뎅이(풍차) 708
풍차 708
풍차바지 709
플란넬 710

히읗 ㅎ

하부다이 711
하이칼라머리 711
하피 713
학창의 715
한랭사 716
한복 717
한삼 721
합사주 723
항라 723
해녀복 724
행전 728
행주치마 729
향갑 730
혁대 731
협힐 732
혜 733
호건 736
호박단 737
호슬 737
혼례복 739
홀 742
홍화 743
화 745
화관 747
화장법 749
화장재료 750
활옷 751
황련 754
황벽 754
회염 755
후수 756
휘양 757
흉배 758
흑피화 762

분야별

차례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가리마 20
갈모 28
감투 36
갓 42
개두 48
건 56
고깔 67
공정책 80
굴레 102
남바위 130
너울 133
대륜식입식관 170
동파관 196
두건 197
마미두면 209
말액 214
망건 214
맥고모자 217
면류관 220
면사 226
모자 239
몽수 256
방건 282
방립 283
백라관 292
벙거지 296
변형모 298
복건 302
복두 303
볼끼 307
사모 437
사방관(방립) 283
삿갓 443
상관 445
상모 446
상투관 455
소골(변형모) 298
송낙 478
쓰개치마 499
아얌 501
양관 507
원유관 551
유건 555
이엄 564
익선관 565
입(갓) 42
장옷 582
적관 591
전립 599
전모 601
절풍(변형모) 298
정동벌립 605
정자관 606
조바위 618
조우관 622
족두리 624
주립 626
중산모 631
중절모 632
책 650
처네(천의) 653
천의 653
초립 660
충정관 669
치포관 674
탕건 683
털벙것 686
통천관 688
패랭이 696
평천관(면류관) 220
풍뎅이(풍차) 708
풍차 708
호건 736
화관 747
휘양 757



견마기(겯마기) 63
겯마기 63
과두 82
까치저고리(색동저고리) 457
당의 164
동의대 194
등거리 202
배냇저고리 286
색동저고리 457
소고의 472
와이셔츠 537
유 554
장갑 575
저고리 588
적삼 592
조끼 616
최의 662
토시 687



개구멍바지(풍차바지) 709
거들치마 55
고 66
두렁치마 198
말군 211
몸뻬 254
바지 275
봉지 309
상 443
스란치마 485
어깨허리(조끼허리) 617
자락치마 568
잠방이 575
전행웃치마 603
조끼허리 617
최상 661
치마 671
통치마 689
풍차바지 709
행전 728
행주치마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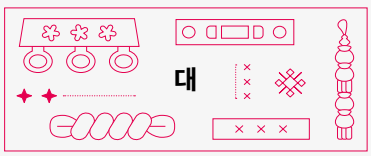
호슬 737



가사 21
강사포 46
곤룡포 73
괘자(쾌자) 676
까치두루마기 120
난삼 125
단령 151
단삼 158
담복 161
답호 162
대삼 173
대창의(창의) 648
더그레 181
도롱이 182
도포 186
동다리 192
동달이(동다리) 192
두루마기 199
마고자 208
몽두리 255
몽두의(몽두리) 255
반비 279
배자 290
사규삼 436
소창의 474
심의 496
액주름포 505
앵삼(난삼) 125
염의 532
오방장두루마기(까치두루마기) 120
외투 539
원삼 549
장삼 577
적의 593
전복 602
주의(두루마기) 199
중단 630
중치막 634
직령 635
창의 648
천담복(담복) 161
철릭 657
첩리(철릭) 657
쾌자 676
포 701
학창의 715
활옷 751



개짐 54
고의 71
고쟁이 72
기저귀 115
다리속곳 148
단속곳 159
대슘치마 174
대자 176
메리야스 219
무지기치마 262
속옷 475
속적삼 476
속치마 477
팬티 697
한삼 721



과대 81
대 167
대구 169
돌띠 188
세조대 469
야자대 506
옥대 534
요질 541
전대 598
혁대 731



가죽버선 24
감발 35
고무신 69
구두 98
금동신발 110
나막신 122
노파리 138
녹피혜 139
당혜 166
동구니신(멱신) 220
멱신 220
목화 252
미투리 271
버선 295
석 464
설피 468
신발 491
양말 509
오목버선(타래버선) 679
운동화 544
운혜 545
유혜 557
장화 583
정 604
짚신 643
타래버선 679
태사혜 684
투혜 691
혜 733
화 745
흑피화 762



고이댕기 71
관자 88
귀고리 106
규 109
넥타이 134
노리개 135
다회 148
댕기 179
도투락댕기 184
동곳 191
뒤꽂이 201
떠구지 204
떨잠 206
말뚝댕기 213

목걸이 247
목도리 250
목판댕기 251
반지 280
방심곡령 285
배씨댕기 289
보(흉배) 758
비녀 311
사선 439
시계 488
안경 502
안경집 503
애체(안경) 502
어사화 518
잠 573
장도 576
장신구 579
제비부리댕기 615
주머니 627
첩지 658
큰댕기(도투락댕기) 184
팔찌 693
패옥 696
폐슬 700
포선 705
하피 713
향갑 730
홀 742
후수 756
흉배 758



가체 25
건귁 57
궤계 105
단발머리 157
대수 173
땋은머리 203
상투 453
새앙머리 456
생머리(새앙머리) 456
쌍계 498
어여머리 519
얹은머리 520
쪽머리 647
챙머리 651
첩지머리 659
큰머리 678
파마머리 692
하이칼라머리 711



경대 58
동동구리무 193
박가분 277
빗 313
연지 526
화장법 749
화장재료 750



구군복 96
개신교복 52
경찰복 61
계례복 65
공복 78
관례복 86
교복 92
궁녀복 103
기녀복 112
농악복식 139
돌복 189
면복 222
무복 259
문관대례복 263
백일옷 294
상복(喪服) 447
상복(常服) 450
수의 479
승복 486
시복 490
신식군복 493
양복 510
양장 514
연미복 525
원불교복 547
웨딩드레스 552
융복 558
제복(制服) 608
제복(祭服) 611
조복 619
잠녀옷(해녀복) 724
천주교복 655
탈춤복식 680
편복 698
해녀복 724
혼례복 739



가죽 23
갑사 37
계 65
고단 68
고사 70
공단 77
관사 87
광목 89
광사 90
국사 101
나사 123
나일론 124
노방주 137
뉴똥 143
능 143
능목면 144
단 150
당항라 166
라 207
레이온 208
면주 227
명주 228
모단 230
모본단 236
모슬린 236
모시 237
모직물 246
목공단 249
무명 257
벨벳 297
사 432
산동주 440
삼베 440
삼팔주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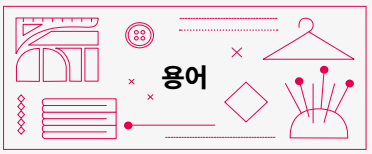
생고사 461
서양사 463
수화주 483
숙고사 484
옥사 535
옥양목 536
왜사 538
왜증 539
융 558
은조사 559
인견 566
자미사 569
전 597
주 625
주사 629
직물 638
진주사 642
토주 688
팔사단 693
포플린 705
폴리에스테르 706
플란넬 710
하부다이 711
한랭사 716
합사주 723
항라 723
호박단 737



감물 34
개오기 53
괴화 91
교힐 96
꼭두서니 121
날염 127
남전 131
납힐 132
닭의장풀 160
도토리 184
마전 211
매염 216
먹물 218
명반 228
물푸레나무 269
반물 278
방염 286
백반 293
석회 465
선매염 466
선염 466
소방목 473
염색 527
오매 532
오미자 533
오배자 534
우덮기 543
울금 546
인염 567
자초 572
잿물 587
쪽 645
치자 673
침염 675
콩즙 676
협힐 732
홍화 743
황련 754
황벽 754
회염 755



곤충무늬 76
과실무늬 83
기하무늬 116
길짐승무늬 118
날짐승무늬 128
동자무늬 194
모란무늬 234
문자무늬 267
보배무늬 300
봉황무늬 309
사계절꽃무늬 433
사군자무늬 434
연꽃무늬 523
용무늬 541
자연산수무늬 570



간단복 27
갈무리 30
갈옷 32
갑신의제개혁 39
갑오의제개혁 40
개량복 49
개량한복 51
경사 60
국민복 100
날실(경사) 60
다듬이질 145
다리미질 147
단발령 155
대한제국의제개혁 177
모던걸 230
모던보이 233
문관복장규칙 265
미용실 270
바느질 272
백의 293
복식금제 305
상장 452
색복장려운동 459
생활한복 462
설빔 467
세탁 470
씨실(위사) 553
양복점 513
양태 517
위사 553
을미의제개혁 560
이발소 563
재봉 585
추석빔 664
출토복식 665
포목점 703
풀먹이기 706
푸새(풀먹이기) 706
한복 717

사
紗

정의 익조직搦組織을 사용하여 제직한 얇은 견직물의 통칭.

내용 '사紗'는 한자로 '실 사絲'와 '적을 소少' 자가 합쳐진 회의문자로 '실이 적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성근 체에서 유래한 '사沙'라는 문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紗는 성글고 가볍고 얇은 것이 특징이다. 『재물보才物譜』에 의하면 사는 경증輕繒, '가벼운 견'이라는 의미이며 비단 중에서도 가벼운 것이라는 뜻이다. 사는 현대까지도 계승되는 우리나라 전통직물로 제직법, 무늬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의 제직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 원래 중국 한대漢代에 쓰였던 사는 평직으로 성글게 직조한 직물이다. 그런데 평직으로 성글게 짠 직물을 사용하다 보니 경사經絲와 위사緯絲의 교차점 결합이 약해서 견뢰도堅牢度(굳고 튼튼한 정도)가 낮은 단점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인접한 두 올의 경사를 서로 꼬아 주면서 그 사이에 위사를 위입시켜 움직임을 방지하는 익조직의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사직물은 실제로 현미경 없이 얼핏 보면 인접한 두 올을 꼬아 준 경사가 마치 한 올같이 보이므로 성근 평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사가 서로 꼬여 위사와 튼튼하게 엮이고, 꼬임 옆에 틈이 생겨 반투명하게 비치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익조직으로 제직한 사는 중국에서는 송대宋代부터 활성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기의 유물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사는 익조직으로 제직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고대 평직 사직물의 흔적은 20세기 초에 많이 유행하였던 관사·추사·아사·서양사 정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었다. 무늬가 없는 소사素紗·무문사無紋紗가 하나이며, 무늬가 있는 것은 대부분 문사紋紗·화문사花紋紗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조선 전기 유물 중에서 사 종류의 옷감은 적은 비중을 보인다. 변수邊修(1447~1524)의 단령과 철릭, 해평 윤씨(1660~1701)의 당의·치마·속바지의 연화문사가 있고, 김여온(1596~1665)이나 이응해(1547~1626)의 운문사로 만든 직령이 있으며 주로 춘하절기 옷감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가 되면 얇은 사 종류의 옷감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유행하였다. 궁중 의복과 옷감을 기록한 각종 「궁중발기」에는 춘하절기 복식 이외에도 사철 입는 예복이나 두루마기, 배자, 속옷까지 숙고사·생고사·갑사·화문사·도류사·순인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를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말기 문헌에는 위에서 언급한 명칭 이외에도 많은 사 종류가 기록되었다. 주사·광사·은조사·저우사·생수갑사·길상사·생슈사·슈사·도류사·도리사·별문사 등 그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한복 소재로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사·숙고사·생고사·진주사·갑사·순인·은조사 정도이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 기록된 조선 말기 견직물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색상이나 무늬의 유무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단·사·능·초·주의 순으로 가격이 높았는데, 단직물 다음으로 사직물 종류가 비쌌던 이유는 사가 비교적 얇은 직물임에도 익조직으로 직조하는 공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징 및 의의 사는 대부분 익조직을 기본으로 제직한 견직물로 인접한 두 올의 경사를 꼬아 주면서 위사를 위입하였다. 인접한 두 올의 경사가 교차된 부분에 방형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투공透孔 효과가 나타나서 직물의 물성은 반투명하며 얇게 느껴진다. 또한 경사의 꼬임으로 인해 까슬까슬한 촉감을 주기 때문에 주로 봄가을과 여름용 한복감으로 사용된다.

사직물 중에 무늬가 없는 은조사는 확대경 없이 언뜻 육안으로 보면 전체가 성근 평직처럼 보일 수 있다. 바탕과 무늬의 제직 방법에 따라 갑사·생고사·숙고사·자미사·은조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사용된 무늬에 따라 세부 명칭을 다시 구분하기도 한다. 모란·연꽃·매화·난초·국화·대나무·사계화 등의 꽃무늬와 복숭아·석류·불수감·호리병박·포도 등의 과실문, 학·용·봉황·나비 등의 동물문, 수壽·복福 등의 길상문자문, 구름·보배 등의 자연문 등 다양한 종류의 무늬가 시문되었다. 무문사는 단순하게 익조직으

로 짜면 되지만 화문사는 위와 같은 무늬를 넣기 위하여 바탕조직을 평직 또는 익조직으로 짜고, 무늬 부분에는 평직·능직·수자직·익조직 등 여러 조직의 조합을 이루어 무늬를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才物譜, 度支準折, 궁중발기,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조효숙(趙孝淑)

사계절꽃무늬

정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꽃을 도안화한 무늬.

내용 사계절꽃무늬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네 가지의 꽃을 도안화한 무늬를 뜻하며 '사계화문四季花紋'라고도 불렀다.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사계절꽃무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 따르면 1504년(연산군 10)에 "사양화문저사만금선四樣花紋紵紗滿金線 30척을 오는 3월 안으로 짜서 들이라."라는 기록이 있어 조선 초기에 사계절꽃무늬를 '사양화문'이라고도 불렀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외에 조선에서도 이러한 무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사계절꽃무늬를 '사계화四季花'라고 기록한 사례도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1456년(세조 2) 중국에서 하사한 의복 명칭 중에 해당사계화 무늬의 단삼[海棠四季花團衫]이, 1476년(성종 7) 중국에서 보낸 직물 중에 사계화무늬의 대홍금선[四季花大紅金線]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사계절꽃무늬를 도안한 비단으로 단삼을 만들기도 하고, 금사로 사계화무늬를 넣은 직금 직물을 생산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老乞大』에서 상인이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20종류의 저사紵絲와 사紗, 라羅 중에 '백지록사계화栢枝綠四季花'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를 '디튼 초록 비체 ᄉᆞ계화문 ᄒᆞᆫ 비단'이라고 언해하였고, 『역어유해譯語類解』의 「직조」에 기록된 무늬 이름 중에 '사계화'라 쓰고 발음 그대로 '사계화문'으로 언해한 기록이 있다. 중국 문헌인 『중국의관복식대사전中國衣冠服飾大辭典』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사계화는 명·청대에 유행하였으며 매화·난·국화·하화·동백·백합·수선화 등 각 계절에 피는 꽃들로 구성되며 사계장춘四季長春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사계절꽃무늬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조선 전기(15~16세기)에는 네 종류 작은 꽃무늬가 C자형의 덩굴에 달려 있거나 짧은 가지에 달려 있다. 처음에는 꽃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꽃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어려운 세화무늬 형태의 사계절꽃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꽃의 크기가 커지고 꽃의 정체성이 보인다. 예를 들면 파평 윤씨(?~1566)의 저고리 옷감에서는 3~4㎝ 정도의 모란·연꽃·국화·매화꽃이 나타나고, 평산 신씨(1526~1593)의 치맛감에서는 모란·연꽃·국화·동백꽃이 금사로 시문된 금선단을 사용하였다.

17세기에는 여자 의복은 물론 남자 복식에서도 사계절꽃무늬 유행이 절정에 달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사대부층 자연에 대하여 가지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유학자들은 우주의 원리를 자연현상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내면으로 향하던 사고 방향을 선회하여 사물, 특히 자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확장하였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러한 자연주의 사상과 함께 사시사철 변화하는 자연 풍광과 그 속에 피어나는 꽃을 관찰하면서 자연현상의 조화를 깨닫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회화에서도 화조도·화훼도가 유행하였고, 선비의 생활에서도 원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런 분위기가 옷감 무늬에도 이어져 사계절꽃무늬의 옷감을 애호하였다고 생


여흥 민씨 묘 출토 장옷 중 부분

사계절꽃넝쿨무늬 | 경기도박물관


여흥 민씨 묘 출토 [illegible] 부분

사계절꽃넝쿨무늬 도식 | 국립문화재연구소

각된다. 주로 저고리·치마·장옷 등 여자의 복식에 사용되었지만, 이응해 장군(1547~1626)이나 신경유(1581~1633)와 같은 남자 복식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신경유는 단령과 도포, 중치막을 모두 사계절꽃무늬 옷감으로 만들었다. 17세기는 워낙 사계절꽃무늬가 유행했던 시기이므로 구성 방법에서 회화풍 구도, 산점 구도, 충전 구도의 사계절꽃무늬가 모두 나타난다. 회화풍 구도로는 신경유 단령에 시문된 무늬를 들 수 있다. 매화·국화·석류·월계의 사계절꽃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여백에는 꽃가지를 입에 물고 날아가는 새와 벌을 배치하여 마치 한 폭의 사생화와 같이 서정적이며 아름답게 표현했다. 산점 구도는 동래정씨(1586~1644)의 옷감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난초·모란·동백·복숭아꽃 등 네 종류의 꽃을 자그마한 단위무늬로 도안한 후 산점 구도로 드문드문 배열한 것이다. 단순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대부분의 사계절꽃들은 회화풍 구도나 산점 구도로 도안되었으나, 여흥민씨(1586~1656)의 장옷과 같이 모란·연꽃·동백·국화의 사계절꽃무늬가 C자형의 덩굴에 연결된 충전 구도로 도안된 것도 있다.

18세기는 사계절꽃무늬의 쇠퇴기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구도에서 변화를 준 복합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계절과 상관없는 각종 길상무늬가 사계절꽃무늬의 구성요소로 들어오기도 하고 원형의 복합무늬가 나타나는 등 기본 틀이 깨지면서 점차 사계절꽃무늬는 사라지고 대신 사군자무늬 등의 길상무늬로 변화된다.

특징 및 의의 사계절꽃무늬와 같이 네 종류의 작은 꽃을 도안한 무늬는 일찍이 태사묘에 소장된 고려 말기의 직물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출현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특히 17세기에 들어와서는 매우 유행하면서 꽃의 표현도 사실적으로 변화되었다. 사계절꽃무늬에 사용된 꽃 중에 봄을 상징하는 꽃으로는 모란·작약·복숭아꽃이 있으며, 여름을 상징하는 꽃으로는 연꽃·백일홍·석류꽃이 있고, 가을을 상징하는 꽃으로는 국화·추해당, 겨울을 상징하는 꽃으로는 매화·동백·난초 등이 있다. 조선시대 복식 유물을 조사해 보면 사계절을 나타내는 꽃의 조합은 다양하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히 봄에는 모란, 여름에는 연꽃,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매화가 가장 선호되었다. 따라서 모란·연꽃·국화·매화의 조합이 가장 많았다.

참고문헌 閨閣叢書, 老乞大, 老學庵筆記, 朝鮮王朝實錄,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中國吉祥圖像大觀(左漢中, 湖南美術出版社, 1988), 中國衣冠服飾大辭典(高春明, 史書出版社, 1996).

필자 조효숙(趙孝淑)

사군자무늬

정의 매화·난초·국화·대나무의 의미를 군자의 인품에 비유하여 도안화한 무늬.

내용 조선시대 사군자무늬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가 상징하는 특별한 장점을 군자, 즉 덕과 학식을 갖춘 선비에 비유하여 부르는 무늬 명칭이다. 사군자는 원래 중국 북송北宋 대의 문인화文人畵에서 비롯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훨씬 이전부터 문학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의 의미를 각각 설파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대나무와 매화가 지조와 절개를 지닌 군자로 비유되면서 수묵화의 소재로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회화뿐만이 아니라 도자기와 나전칠기, 직물과 같은 공예품에서도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네 식물을 엮어 '사군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는 명대明代부터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부터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선비 문화가 중심이 되어 사군자무늬는 더욱 사랑을 받았으며, 청화백자를 비롯하여 선비들의 벼루, 필통과 같은 문방용품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무늬가 되었다. 도자기의 무늬로 사군자가 출현한 것은 15세기 후반에 매죽무늬 청화백자에서였다. 도자기 역시 사군자무늬가 한꺼번에 사용된 것은 아니고 대나무와 매화, 국화와 난초와 같이 두 가지씩 짝을 지어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는 네 종류의 사군자무늬가 한꺼번에 사용된 사례가 많이 보인다. 이들 식물의 조합은 특별한 명칭도 부여되었는데, 매화와 대나무를 함께 '쌍청이아雙靑二雅'라 하였으며, 여기에 소나무를 더하여 '세한삼우歲寒三友'라고 불

렀고, 여기에 국화나 난초를 또 추가하여 '사군자四君子'라 불렀다.

직물에서도 사군자무늬는 처음 시작할 때 네 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시문되지는 않았다. 고려 말기에 대나무와 매화무늬가 시문된 매죽문단이 처음 보이나 다른 무늬에 비하여 그다지 선호하던 소재는 아니었다. 조선 중기까지 직물에 나타난 네 가지 종류의 식물 조합은 주로 매화와 대나무[梅竹紋], 매화와 까치[梅鵲紋], 매화와 난초[梅蘭紋]와 같이 두 가지씩 조합하여 도안한 것이 많았다.

파평 윤씨의 저고리와 안동 권씨(1664~1722)의 치마, 최원립(1618~1690)의 전복 등 남녀의 성별이나 의복의 품목에 상관없이 사용되었다. 매화와 까치는 예로부터 '희작답매喜鵲踏梅' 혹은 '희작등매喜鵲登梅'라고 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남녀의 좋은 인연을 상징하므로 여성을 위한 장식으로 많이 애용되어 화문단에 많이 시문되었다. 매화·난초·국화·대나무의 네 가지 종류가 모두 갖추어진 사군자무늬가 출현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청화백자에서의 사군자무늬 선호가 직물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특이하게도 조선 말기의 직물 중에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의 사군자무늬에 모란을 추가한 독특한 다섯 가지 식물의 조합도 많이 나타난다. 조선 말기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별히 장수와 부귀, 건강과 평안을 염원하는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옷감 무늬에 수壽·복福·희囍 자와 같은 길상문자무늬가 유행하였고, 더 나아가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무늬를 선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박함과 절제를 추구하는 선비의 취향과 상충되는 모란을 사군자무늬에 추가하여 도안한 것을 보면 이 무렵 사군자무늬가 상징하는 본연의 선비 정신은 상실되어 가는 듯하다.


영왕비 부금무복 당저고리 중 부분

사군자무늬 | 국립고궁박물관


안동 김씨 묘 출토 직물 중 부분

사군자와 모란무늬 | 온양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매화는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추위를 이기고 잎도 나지 않은 메마른 고목에서 꽃을 피운다고 하여 새로운 시작, 봄, 장수와 회춘의 상징이었다. 또 이른 봄에 홀로 핀 고고한 자태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로도 비유되었다. 직물에서 매화무늬는 19세기 사군자무늬가 출현하기 전부터 이미 단독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난초는 숲속에서 자라지만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향기를 풍기지 않는 일이 없고, 군자는 곤궁함을 이유로 학문의 지조를 바꾸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군자의 교제는 마치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향기롭다고 하였다. 직물에서 난초무늬는 조선 중기부터 출현하였는데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군자의 하나로 나타나든지, 17세기의 동래 정씨 이불에서와 같이 여러 종류의 길상무늬들과 함께 표현되었다. 난초무늬는 얇고 긴 잎과 작은 꽃, 심지어는 뿌리까지도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다.

국화는 동양의 관상식물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 중의 하나로, 늦은 서리를 견디고 꽃을 피운다 하여 고고한 기품과 높은 절개를 상징하였다. 특히 도연명陶淵明이 국화를 예찬한 데서부터 군자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의義를 지켜 꺾이지 않는 선비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은일화隱逸花'로 불리며 속세를 떠나 숨어 사는 은자隱者에 비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국화는 삼국시대 이래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늬로 활용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의 골호骨壺와 고려시대의 청자, 나전칠기, 금속공예품 등에도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매화·난초·대나무와 함께 사군자의 하나로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에 비유되어 애용되었다. 직물에서의 국화는 주로 사용하는 무늬로서 단독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주로 연꽃·모란·매화·난초·대나무 등 다른 종류의 초화무늬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사용되었다.

대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강하고 유연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사계절 내내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군

자의 품격이나 지조, 절개를 상징하였다. 또 번식력이 강하고 늘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영생永生과 불변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2-도자기(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조효숙(趙孝淑)

사규삼
四揆衫

정의 조선시대 남자 아이들이 상복常服으로 착용한 소매가 넓은 포.

내용 사규삼은 조선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 아이들이 착용한 소매가 넓은 포이며, 양옆 겨드랑이와 뒷중심이 트여 있다. 사규삼이란 명칭은 뒷중심과 양옆의 겨드랑이가 트여 있어 옷자락이 네 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겼다.

조선 후기 편찬된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사규삼은 결과복缺骻服이라고도 하며 남색의 견絹 또는 주紬로 만든다. 깃은 맞대어 있고 소매는 둥글며, 갓을 트고 뒤를 갈라놓았다. 금錦으로 깃 및 소매 끝과, 옷자락 양 갓과 밑에 선襈을 둘러 도련 양쪽과 끝을 가지런히 한다. 동자의 상복이지만, 세속의 중치막과 같아 대용할 만하다."라고 했다. 또 남자아이는 "머리는 쌍계雙紒를 하고 사규삼을 입고, 늑백勒帛(행전)을 치고 채극彩屐(무늬 있는 나막신)을 신은 옷차림으로 관례에 임한다."라고 했다. 또한 "사규삼을 남자 아이의 상복으로 입을 때는 머리에 복건 내지 입자笠子를 썼다."라고 기록되었다.

사규삼의 형태에 대해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서도 "소매가 넓은 광수이며 양옆과 뒷중심이 트여 있어 활동하기에 편한 겉옷으로, 남색 비단이나 명주로 만들며, 옷깃이 맞대어 있고 둥근 소매에 옆과 뒤가 트인 것이다. 무늬 있는 비단으로 깃, 소매끝, 옷자락 양쪽 가장자리와 아랫자락에 연緣을 두른 것으로 남자 아이의 평상복이다."라고 기록되었다.



사규삼 | 길이 51.5 품 32 화장 34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의 문헌에 기록된 사규삼은 견, 주, 비단, 명주 등의 견직물을 소재로 하며, 소매는 통이 넓은 광수에 깃은 서로 마주 본다. 양옆 겨드랑이가 트여 있어 네 폭이며, 깃과 소매끝, 도련 등 옷의 가장자리는 검은색 견직물로 선을 둘렀다. 옷의 구성상 앞뒤 길이 네 폭으로 되어 있어 남자 아이들이 활동하기 편리하다. 남자아이의 상복인데, 관례 때는 예복으로도 입었다.

관례란 결혼하지 않은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통과의례로 땋았던 머리를 빗어 올려 상투를 틀고 관을 씌우는 의식이다. 관례를 치르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인 대우를 받았다. 관례의 절차는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차에 따라 각기 다른 관을 갈아 씌우고 옷을 갈아입힌다. 우리나라의 관례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예교와 함께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관혼상제의 예를 국법으로 정할 정도로 예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왕실뿐만이 아니라 사가仕家에서도 관례를 행했다. 그러나 조혼의 풍습이 성행하고 상류층에 국한되었으며, 과도한 경비가 소요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점차 행하지 않게 되었다.

조선시대는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동자의 평상복인 사규삼을 착용하였다. 이때 착용하는 남견藍絹으로 된 사규삼의 색상은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양의 특성

을 상징하고, 깃의 가장자리 선에 금박한 문양은 부귀광명하고 수명장수하라는 염원을 상징한다.

조선시대의 유물로 영친왕이 10세경 착용했던 분홍색 생고사生庫紗로 지어진 사규삼은 『사례편람』과 『증보사례편람』에 뒷중심이 트여 있다는 기록과 다르게 뒷중심이 막혀 세 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깃, 도련, 소매 끝에 흑색 선을 둘렀으며, 각 선에는 장의자손長宜子孫이나 수복강녕壽福康寧 외에 여러 가지 길상어문吉祥語紋을 금박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는 원수문圓壽紋을 금박했으며, 선의 모서리에는 복을 상징하는 박쥐 형상의 편복문蝙蝠紋을 금박했다.

특징 및 의의 사규삼은 조선시대 남자아이들이 착용하는 포의 한 종류로 평상복이지만 관례나 돌 등의 행사에는 예복으로도 착용했다. 사규삼은 견·주·비단·명주 등의 견직물로 만들고 양옆과 뒷중심을 터서 네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어린아이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깃, 도련선, 소매끝 등 옷의 가장자리는 검은색 선을 둘렀다. 선에는 길상어문과 편복문(박쥐문양) 등을 금박하여 자손이 건강하고 부귀를 누리며 복을 받기를 기원했다.

대한제국 시기 영친왕이 10세경 착용했던 왕실의 유물인 분홍색 사규삼은 뒷중심이 막혀 세 폭으로 구성된 점을 제외하고 그 외의 부분은 문헌상의 제制와 동일하다. 현대에도 사규삼은 조선시대 문헌상의 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남자 아이들의 돌복으로 착용한다.

참고문헌 四禮便覽, 增補四禮便覽, 관례의 절차·복식에 내재된 의미(이윤정,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선조말기 왕실복식(김영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한국문화사대계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78), 한국의 복식문화(백영자, 경춘사, 2000).

필자 유효순(柳孝順)

사모
紗帽

정의 문무백관이 관복에 착용하였던 관모.

내용 사모紗帽는 복두幞頭에서 파생되어 나온 관모로,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문무백관이 관복에 착용하였던 것이다. 고려 말기 백관의 상복용 관모로 처음 사용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상복이나 시복時服에 쓰이다가 점차 공복과 예복용 관모로 확대 착용되었다.

사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말 1387년(우왕 13) 3월 명明에 사신으로 갔던 설장수偰長壽가 명 태조로부터 사모와 단령을 하사받고 돌아와 1387년 6월부터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관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조선시대에는 1417년(태종 17) 12월 예조와 의례상정소에 의하여 갓 대신 사모를 쓰고 외출을 하게 되었다. 1426년(세종 8) 2월 관복 제정 때는 평상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고, 시복에도 사모를 착용하였으며, 공복에 쓰던 복두도 사모로 대신하였다. 또한 고종 때 실시한 복제개혁 때에도 대례복과 소례복에 사모를 착용하게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상복에 사모를 착용하는 것은 1품에서 9품까지 동일하나 사모에 딸린 관자貫子와 입영笠纓은 품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1품의 관자와 입영은 금옥金玉으로 하고, 입식立飾은 은을, 대군은 금을 사용하였다. 2품과 정3품 당상관의 관자, 입영은 금옥이며 입식은 은을 사용하였다.



사모 | 지름 17 높이 16.5 | 조선



백사모 | 지름 19 높이 16.5 | 조선

사모 | 국립민속박물관

한편 조선 후기부터 혼례 때에는 서민들도 사모를 착용하였다. 즉, 서민 남자에게도 혼례 때 사모관대의 착용이 허용된 것이다. 사모관대는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상복차림으로, 사모와 관대, 단령을 함께 착용하였으며 품계에 따라 흉배의 문양에 차이가 있다. 혼례 시에 사모관대 구성은 문관 당상관의 흉배인 쌍학흉배를 부착한 단령을 입고, 각대, 목화, 사모를 함께 착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총각이 결혼할 때는 사모뿔을 두 개 달고, 재혼의 경우에는 하나를 떼어 재혼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사모 유물로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 중인 다수의 흑사모 중 하나와 백사모를 살펴볼 수 있다. 흑사모는 높이 16.5㎝, 지름 17㎝이며,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 모정부帽頂部(머리 부분)에 뒤에는 꽂이 걸이와 두 개의 각이 붙어 있다. 뒷면의 각이 빠지지 않도록 실끈을 감았고, 속에 구멍을 뚫어 대모를 달아 고정시켰다. 내부에는 통풍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주위를 종이로 보강하였으며, 두 개의 각은 두 겹의 검정 사로 제작하였다. 다음 백사모는 높이 16.5㎝, 지름 19㎝이며,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 모정부를 이루고 뒷면에는 각이 있다.



사모 | 경기도박물관

특징 및 의의 사모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관복에 사용된 대표적인 남자용 관모이다. 일반적으로는 흑사모를 착용하였으며, 백사모는 상사喪事 때 썼다. 왕은 검은색의 오사모를 썼다는 기록도 있다.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의하면 사모는 원래 당대唐代의 두건에서 유래하였는데, 원대元代에는 끈 둘을 아래로 늘어뜨렸으며, 그 후 대나무를 대거나 철을 넣어 빳빳하게 펴지게 하였다고 한다. 겉부분은 죽사竹絲와 말총으로 짜고 그 위를 얇은 비단인 사포紗布로 씌우는데, '사모'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의 형태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의 모정부를 이루며, 뒷면에는 각角을 달고 있다. 두 부분으로 층이 진 형태인 모정부는 복두에 비해서 둥글둥글한 편이며, 뒤에 달린 두각의 형태와 모정의 높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여말선초麗末鮮初의 것은 모정이 낮고 좌우 양각의 끝이 둥글고 길며 아래로 처진 모습이었으나, 점차 좌우 수평으로 뻗으며 넓어진 양상을 보인다. 즉 초기의 사모는 낮은 모정부와 검은 댕기를 드리운 것과 같은 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1600년대 후반에는 일반적으로 모정이 매우 높고 양옆 수평으로 뻗은 양각의 형태로 좁고 긴 모습이었다. 1700년대는 다시 넓어지면서 각의 끝을 둥글게 굴렸고,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 모정이 낮아지면서 모체는 길어졌으며, 짧아진 양각은 점차 모체를 감싸는 듯이 길이도 짧아지고 앞으로 숙인 형태로 굽어진 모습으로 변화하여 조선 말기까지 계속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머리부터 발끝까지(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2004),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조우현(趙又玄)

사선
紗扇

정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로 일종의 부채.

내용 혼례 때 신랑이 말을 탈 때, 걸을 때 예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리개이다. 보통 부채보다 크고 손수건 크기의 네모 형태인데, 사紗(얇은 비단)로 만들었다. 천의 양쪽에 손잡이 대를 끼워서 두루마리처럼 양쪽을 말아 쥘 수 있고, 이것을 펼치면 가리개가 된다. 사선紗扇은 별선에 속하는 차면선遮面扇의 일종인데, 별선이란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특별한 재료와 모양을 가진 부채를 가리킨다. 부채는 일반적으로 방구부채·접선·별선으로 분류되는데, 별선에는 차면선·혼선婚扇·파초선·윤선·팔덕선·무선·드림부채 등이 있다. 차면선은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데, 청색과 홍색 두 가지가 있고, 이 중 청색 차면선을 사선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채는 사계절에 여러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된 일상용품이었다. B.C. 3~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남도 창원 의창 다호리 고분에서 출토된 옻칠된 부채자루와 그 외의 안악 3호 고분벽화, 고려 불화 등에서 나타나는 부채 그림에서, 부채 사용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방구부채는 기본적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선면(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의 면)의 모양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양과 문양에 따라 각각 이름을 달리한다. 접선은 부챗살과 부채 가장자리의 갓대를 결합하여 접었다 폴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하여 쥘부채라고도 한다. 방구부채는 서민적인데, 접선은 귀족적 취향의 부채이다. 접선은 주로 양반 계층에서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한 모선毛扇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유서類書인 『송남잡지松南雜識』 집물류什物類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사대부들이 서로를 꺼려 집에서 길을 나설 때 비단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것을 사선이라고 하였다我國辛壬之際士夫多嫌 家路次以紗障面謂紗扇."라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사선은 별선에 속하는 차면선의 일종이다. 차면선은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며, 청색과 홍색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색 중 청색 차면선을 사선이라 한다. 사선은 청색의 얇은 명주나 비단의 양쪽 가장자리에 손잡이 대를 끼워 만든다.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게 했다. 양반들이 걷거나 말을 타고 갈 때 사용했으며, 일반적으로 혼례 때 신랑이 사용했다. 홍색 차면선은 그 모양이 사선과 같지만, 홍색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들어진다. 과거급제 시 임금이 어사화와 함께 하사하였다.

주로 양반 계층에서 사용하던 모선毛扇·포선布扇·사선류紗扇類를 응용하여 혼례 때 사용하는 포선을 만들었다. 이는 햇빛이나 눈부심을 막기 위한 차광용遮光用이 있고, 겨울에 바람을 막기 위한 것, 대면하기 싫은 사람을 피하기 위한 것 또는 상제가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한국부채의 연구(최상수, 정동출판사, 1981), 한국의 부채(연세대학교 박물관, 1995), 단오절선물부채전(전통공예관, 1991), 전통부채(금복현, 대원사, 1994),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① 사선


② 나들이


③ 신랑전안

사선 | ① 길이 42 너비 46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③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산동주
山東紬

정의 위사에 슬러브사slub yarn를 사용하여 가로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군데군데 마디가 나타나는 평직의 견직물.

내용 산동주山東紬는 지역명이 붙여진 주의 종류 중 하나로, 중국 산둥성山東省에서 생산된 견직물에서 유래된 것이다. 산탄, 샨퉁실크, 견주繭紬라고도 한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의하면 1706년(숙종 32), 1809년(순조 9)에 각각 제주濟州, 전남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등지에 표류한 중국 산둥성 출신 한인漢人들이 타고 온 배에 견주를 싣고 있었으며, 한인들은 산둥성 지방의 토산물이 산견주山繭紬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또한 1760년(영조 36)에는 나주羅州 자은도慈恩島에 표류된 복건성福建省 출신 한인들도 산동 지방에서 견주를 구매하였다고 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15년에 발행된 『조선휘보朝鮮彙報』에는 요시나가吉永彦太郎가 8년 동안 수집한 직물의 명칭과 특징을 정리하여 기록한 「조선향염직물명칭류휘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라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산동주는 견주繭紬라고도 하며 작잠사柞蠶絲로 직조된 직물이다. 작잠사는 야잠사野蠶絲의 일종으로, 야생의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잎을 먹고 자란 야생 누에의 고치에서 뽑아낸 실을 뜻한다. 또한 해동주海東紬가 산동주과 같은 직물이나 한국산韓國産이라는 기록이 있음을 볼 때 국내에서 생산된 유사한 직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 및 의의 산동주는 위사에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슬럽사를 사용하여 직물의 가로 방향으로 마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 표면이 약간 거칠고 촉감이 빳빳하며 두께감이 있다.

참고문헌 備邊司謄錄, 朝鮮彙報,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우리 옷감 이야기103(강순제 외, 교문사, 2012).

필자 이은진(李銀眞)

삼베

정의 대마의 껍질을 벗겨 가늘게 찢어 실로 만들어서 짠 직물.

개관 삼베는 무명[綿布], 모시[苧布], 명주明紬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직물이다. 삼베는 대마大麻를 재배하여 껍질을 벗겨 가늘게 째서 실로 만들어 여러 공정을 거친 후에 베틀에서 짠 직물이다. 따라서 동물성 직물인 명주와 달리 삼베는 무명, 모시와 마찬가지로 식물성 직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베는 가장 오래된 직물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직조되고 활용된 직물이다.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이 1490년에 펴낸 『조선부朝鮮賦』에서 '포이직마布而織麻', 곧 조선의 포(직물)는 마로 만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용도상으로 보면 삼베는 모시와 마찬가지로 통기성이 좋아서 기본적으로 여름철 옷을 만드는 직물이었고, 또한 상례에도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공장제 직물이 보급되면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1976년에 대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삼베를 생산하는 곳이 제한되었다. 오늘날 삼베는 극히 부분적으로 하절기 외출복 재료로 쓰이고, 대부분 수의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내용 삼베를 직조하기 위해서는 대마 농사에서부터 베틀로 짜기까지 긴 공정을 거친다. 대마 농사를 지은 후 전체 공정을 총칭하여 '삼베길쌈'이라고 부른다. 먼저 봄에 대마씨를 빽빽하게 파종하여 대마가 곧고 가늘며 키가 크게 자라도록 한다. 초여름에 대마를 베어서 단으로 묶어 '삼굿'(삼구덩이라는 뜻, 광복 이후 초대형 철제 솥을 이용)에 눕혀서 증기로 익힌(이런 과정을 '삼굿한다'고 함) 다음 껍질을 벗긴다. 증기로 익히는 것은 대마의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껍질을 가늘게 째면 실처럼 되는데, 여기서부터 삼실을 잇는 삼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삼베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삼삼기를 한 후에 잿물에 익혀서(숙성시켜서) 생산하는 익냉이삼베[熟布]이고, 다른 하나는 잿물

에 익히지 않고 생산하는 생냉이삼베[生布]이다. 여기서 '냉이'는 '낳이'에서 온 말인데, '낳이'는 낳은 것, 생산한 것이라는 뜻이다. 익냉이의 경우 삼삼기를 할 때 대마의 껍질 가운데 섬유질이 없는 겉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삼삼기가 끝난 후에 물레로 돌려서 삼실을 꼰 다음, 삼실을 잿물로 익혀서 물에 씻으면 겉껍질이 제거된다. 반면 생냉이는 대마의 겉껍질을 처음부터 벗긴 다음 속껍질만 갖고 삼삼기를 하고, 날실[經絲]을 삼을 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비벼서 꼰다. 하지만, 생냉이를 직조하기 위한 씨실[緯絲]을 삼을 때는 비벼서 꼬지 않는다. 익냉이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삼베이며, 생냉이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안동포가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에 전국에서 명성이 있었던 삼베는 함경도의 육진 지역에 해당하는 종성, 온성, 경원, 길주, 명천 등지에서 생산하던 세칭 북포北布였다. 서유구徐有榘(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보면 함경도 삼베가 워낙 고와서 한 필이 대나무 통에 들어간다고 하여 통포筒布라고 하였다. 이는 삼베 한 필이 주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바리포[鉢內布]와 마찬가지로 고운 삼베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북포 이외에도 영남의 삼베를 영포嶺布, 강원도 삼베를 강포江布라 하였으니, 이런 지역에서 양질의 삼베가 다량으로 생산되었다는 뜻이다. 19세기 말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지는 가사집 『한양가漢陽歌』에는 서울 육의전六矣廛의 베전[布廛]에 함흥咸興 오승五升 심의포褥衣布, 육진장포六鎭長布, 안동포安東布, 해남포海南布, 영춘포永春布, 길주吉州 명천明川 가는 베 등이 진열되었음을 노래한다.

삼베의 고운 정도는 새수[升數]로 표현되는데, 한 새는 날실 80올로 이루어진다. 새수에 관계없이 같은 너비의 바디(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약 35~38㎝)에 날실을 꿰어서 직조하는데, 새수가 높을수록 바디의 구멍이 촘촘하여 실이 가늘고 곱다. 그럼에도 사람이 삼실을 가늘게 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삼베 보름새(15새, 날실 1,200올)를 최고로 쳤다. 지역에 따라 고운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일상용 삼베옷은 6~7새 정도, 외출용 삼베옷은 7~8새 정도의 삼베로 지었다. 그런데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짜는 삼베는 대개 상례용이므로 4~5새에 불과하며, 안동포의 경우에는 주로 7새이다. 20세기에 전국적으로 고운 삼베의 표본은 안동포였다. 1912년에 안동에는 안동마포개량조합이 결성되어 개량안동포 직조법을 교육하기 위해 전라북도까지 가서 강습회를 열었던 사실이 신문에 실렸다. 이런 기사로 보아 안동포의 개량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안동 지역에서 생산한 익냉이는 새수가 낮았지만, 생냉이 즉 안동포는 20세기 후반에도 다수의 부녀자가 7~9새 정도로 직조하였다. 2016년에 사망한 경북 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 기능보유자 김점호와 박봉금은 2000년대에도 보름새 삼베를 짰다. 최근에 와서는 안동 지역에서도 솜씨 좋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주로 7새 삼베를 짜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삼베를 생산하는 곳은 전남 곡성·보성, 전북 무주, 경북 안동·봉화·청도, 경남 거창·남해, 충남 당진·예산·홍성, 강원 정선 등지이다. 곡성의 돌실나이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안동포짜기, 청도삼베짜기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거창삼베길쌈 등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 안동에서는 과거에 생산했던 익냉이는 짜지 않고, 오로지 생냉이만 직조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익냉이로 생산한다. 안동에서 생냉이는 익냉이보다 훨씬 더 곱고 매끈하고 빳빳한 고급 직물이다.

삼베는 주로 하절기의 일상복과 외출복, 홑이불을 만드는 데 쓰였고, 계절에 관계없이 상포喪布, 염포殮布 등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명주가 대량 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하자 수제 삼베의 가격이 상승하여 20세기 중반부터 삼베 수의가 부상하였고, 안동포처럼 고운 삼베로 만든 수의는 고급 수의로 자리 잡았다. 전통적으로 명



삼베 | 국립민속박물관



대수장군 | 길이 129 품 60 화장 89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주 수의를 최고로 쳤는데, 삼베 수의가 부상한 것은 삼베가 항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서 명주보다 깨끗하게 썩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삼베 수의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등장하였다는 설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삼베는 전통적으로 모든 직물 가운데서 일반적이면서 서민적인 직물이었다. 명주는 비단으로서 고급 직물이었고, 모시는 날씨가 추워지면 부서질 정도로 질기지 못하였으며, 무명은 목화를 재배한 이후에 등장한 직물이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삼베는 실용적 차원에서 여름철 옷이나 홑이불처럼 무더운 여름철을 나기 위한 직물로 사용되었다. 삼베는 의미적 차원에서 상례용으로 널리 쓰였는데, 그것은 예서에 염포·상포·상복을 삼베로 짓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서민적인 직물인 삼베로 상례를 치러야만 모든 사람들이 상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고, 새수가 낮은 삼베로 상복을 만든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불효 탓이고, 불효자는 곧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죄인 형상을 취하기 위해서이다. 삼베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사라진 직물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삼베를 생산하는데, 산업사회에서 귀한 직물, 고급 직물로 부상하였다. 전통적인 무명은 광목으로 대체되었고, 명주는 기계직으로 대체되면서, 공장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삼베는 상대적으로 수제품의 전통을 이어왔으므로, 다른 직물에 비해서 가치가 상승하였다.

참고문헌 무주삼베의 생산과정과 전승양상(고부자,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보성삼베 연구(고부자, 복식문화연구12-1, 복식문화학회, 2004), 삼베짜기 전승현황 및 지역별 특성(심연옥·금다운, 한복문화19-3, 한복문화학회, 2016), 안동포 전통의 형성과 변화(배영동, 안동삼베연구, 안동대학교박물관, 2002), 안동포의 근대화와 우월적 가치 확립(배영동, 동아시아의 근대와 민속학의 창출, 민속원, 2008), 국가무형문화재4-공예기술1(문화재연구회, 대원사, 1999), 현행 삼베수의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연구(최연우, 한복문화20-2, 한복문화학회, 2017).

필자 배영동(裵永東)

삼팔주
三八紬

정의 중국에서 처음 생산한 견직물의 하나.

내용 삼팔三八은 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 척尺으로 38척이라는 뜻이다. 평직 견으로 제직 후 정련한 것을 삼팔주三八紬, 정련하지 않은 것은 생삼팔주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1924년 사치품 관세 실시로 인해 중국 수입이 끊기자 일본산 삼팔주를 수입하게 되었으며, 또 1925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게 되었다. 고종高宗의 국상國喪 때 착용한 대렴의대大斂衣襨에 저고리의 안감으로 백삼팔주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일본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조 궁중복식 유물 중 소례복으로 쓰인 저고리 대부분의 안감이 삼팔주이며, 영친왕가英親王家의 「의대발기衣襨件記」 중에도 바지의 소재로 삼팔주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예로 보아 조선 후기에서 개화기 사이에 걸쳐 삼팔주가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직물의 특징은 날·씨실 모두 생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한 후 정련한다는 점에서 평견직물에 속한다. 대부분의 삼팔주에는 무늬가 없으며, 명주와 비슷하지만 명주보다는 폭이 더 넓고 올이 고우며 윤이 나고 감촉도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영친왕가에서 전해지는 유물은 보통 33~38㎝의 소폭이었지만, 일본에서 수입된 것은 40.6㎝로 폭이 더 넓다. 정련하지 않은 생삼팔주와 백색의 백삼팔주가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한 삼팔주도 있다. 주로 두루마기·저고리·바지·치마·속옷 등의 안감에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20세기 전반기의 한국 견직물 연구(장현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조선조말기 왕실복식(김영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內地に於ける鮮人向絹織物の生産に就て-續(稅田谷五郎, 朝鮮總督府, 1925).

필자 장현주(張賢珠)

삿갓

정의 갈대나 대를 엮어 만든 원추형의 서민 모자.

내용 삿갓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입자笠子 중 하나이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쓰인 고유 관모이며, 개화기 이후 근대까지 서민들이 착용했던 모자이다. 머리 정수리는 뾰족하게 위로 솟았고, 육각이나 둥근 모양으로 된 둘레는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다. 안에는 머리를 받칠 수 있도록 미사리를 넣었다. 대우(모자의 원통 모양 부분)와 양태凉太(모자 밑의 둥글넓적한 부분)의 구분 없이 모자 꼭지부터 아래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원추형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햇볕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에 용이하다.



삿갓 | 높이 21.5 지름 63.7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광이 든 남자 | 1900년대 초반



삿갓 쓴 여인 | 일제강점기

삿갓 | 국립민속박물관

삿갓은 갈대를 쪼개 말린 삿을 엮어 만든다. 삿을 일정한 너비로 다듬어 끝이 뾰족하게 꼭지를 얽고, 점차 벌어지게 엮으면 사람 얼굴이 가려질 만한 길이에 이르는데 이때 배접하여 마무리한다. 삿갓의 종류는 재료, 용도 등에 따라 나뉘는데, 특히 승려용 삿갓은 길이가 길고 너비가 넉넉하며 대나무를 이용해 만들어 '대삿갓'이라고도 하였다. 일상에서는 대개 농민이 작업용으로 많이 써서 '농립農笠'이라고 불렸으며, 상을 당하여 슬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릴 때는 '상립喪笠'으로도 불렸다. 얼굴을 가리기 용이하여 방랑객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부녀자들이 외출을 할 때 얼굴을 가리는 차면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여성용은 더 섬세하게 만들어져서 '세細대삿갓'이라고도 하였지만, 대개 삿갓은 서민 남자들의 모자로 애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삿갓은 고유 관모 양식인 변형弁形을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한국 복식의 역사와 함께했다. 상류층이나 관료 계급에 편중되었던 전통사회의 입제笠制 중 햇빛이나 비를 효율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쓰임과 용도가 매우 다양한 서민의 모자로 명맥을 이어 왔다. 또한 자연에서 쉽게 재료를 채취하여 제작할 수 있었고, 상을 당했을 때나 부녀자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회규범에 적합하여 개화기 이후 근대까지 애용되었다.

참고문헌 관모와 수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1993),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신혜성·이은진·홍나영, 교문사, 2011), 역사 속의 우리 옷 변천사(김은정·임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이미량·한석홍, 열화당, 2003), 한국 복식문화사(김문자·유희경, 교문사, 1981).

필자 임린(任潾)

상
裳

정의 허리 아래에 둘러서 아랫도리를 가리는 치마 형태의 옷.

내용 상裳은 '장障', 즉 '가리다'는 의미이다. 『석명釋名』「석의복釋衣服」에서는 "아랫도리를 상裳이라 한다. 상은

장障으로, 스스로 가려서 덮기 때문이다下曰裳, 裳, 障也, 所以自障蔽也."라고 하였다.

상은 치마 형태의 옷으로, 남녀가 모두 입는다. 남자는 주로 예복을 갖출 때 입고, 이 경우 '하상下裳'이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여자의 상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의 도용 등을 통해 삼국시대에는 귀부인들이 땅까지 끌리는 긴 치마를 입고, 신분이 조금 낮은 여인들은 발목 정도까지 닿는 치마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상의가 길어서 엉덩이를 덮었기 때문에 치마는 허리에 둘러 입는 형태였다. 종류는 아래가 퍼지는 일반 치마도 있고, 주름치마와 색동치마가 흔히 보인다. 긴 상의와 허리에 둘러 입는 치마는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 이어진다.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 저고리가 짧아지자 치마는 일자말기를 가슴에 둘러 입는 형태로 바뀐다. 치마 안에는 속옷을 여러 벌 입어서 치마의 실루엣이 항아리형이 된다. 왕실과 귀부인들은 땅에 끌리는 긴 치마, 앞 중심을 걷어 올려 앞을 짧게 하고 뒤를 길게 한 치마, 무릎 부분 전체를 걷어 올린 치마, 앞 중심과 무릎 부분을 동시에 걷어 올린 치마, 스란을 댄 치마 등 다양한 형태를 입었다. 스란은 한자어 '슬란膝襴, 膝欄'에서 온 것으로, 무릎[膝] 부분 전체에 가로로 난간[欄]처럼 줄무늬를 두 줄 두르고 그 사이에 각종 무늬를 표현한 것이다. 무릎 부분에만 스란단이 한 줄 있으면 '스란치마', 아랫단까지 두 줄 있으면 '대란치마'라 구분하기도 한다. 또 궁중에서 예복을 갖출 때는 홍색치마와 남색치마를 동시에 착장하기도 했다. 근대에는 조끼 형태의 말기와 짧은 통치마가 등장한다. 이 밖에도 궁중에서 예복을 갖출 때 치마 위에 입는 전행웃치마[前香上裳]가 있는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앞은 짧고 양쪽 옆은 길며, 남색이며, 스란단 두 줄을 표현한다. 전행웃치마는 남자 예복의 하상이 앞에 두르는 전상前裳과 뒤에 두르는 후상後裳을 구분하고, 전상은 3폭으로 하고 후상은 4폭으로 하는 것을 모방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 궁중에서 입는 웃치마[上裳]가 있다. 웃치마의 의미는 치마를 두 벌 겹쳐 입을 때 안에 먼저 입는 치마라는 견해와 겉에 입는 치마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남자의 하상은 고려·조선·대한제국에서 황제·황태자·왕·왕세자·왕세손의 면복冕服, 통천관복通天冠服, 원유관복遠遊冠服에 썼고, 관원의 면복(고려에 국한), 조복, 제복에 썼다. 이들 예복의 하상은 앞에 두르는 전상과 뒤에 두르는 후상으로 분리하며, 전상은 세 폭으로 하고 후상은 네 폭으로 해서 합계 일곱 폭으로 만든다. 전상 세 폭은 전前—천天—양陽—홀수[奇數]로 연계되는 우주의 이치를 반영하고, 후상 네 폭은 후後—지地—음陰—짝수[偶數]로 연계되는 우주의 이치를 반영한다. 고대에는 전상과 후상을 완전히 분리되도록 따로 만들어 허리말기와 끈을 각각 달아서 입었는데, 이때 후상을 먼저 두른 후 전상을 둘렀다. 후에 간편하게 입기 위해서 전상과 후상을 따로 만들되 허리말기와 끈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 번에 둘러 입을 수 있게 했으며, 명대明代 세종 연간에 전상과 후상을 분리하지 않고 치마처럼 만들어 입었다. 그러나 이때도 총 일곱 폭으로 해서 전상 세 폭과 후상 네 폭의 전통은 남긴다. 조선시대에는 명 전기에 보내온 전상과 후상을 분리해서 하나의 허리말기를 달아 제작한 형태가 말기까지 유지된다. 또 하상의 허리에는 무수히 많은 주름을 잡고, 양쪽 옆 가장자리와 밑단에는 가선[純]을 대는데, 양옆의 가선은 '벽裥'이라 하고 밑단의 가선은 '석緆'이라 한다. 가선의 너비는 1.5촌寸으로 하고, 3촌으로 재단하여 겉과 안에 절반씩 댄다.



어양태수 | 덕흥리 고분 | 고구려

면복은 상의·하상·중단中單·혁대革帶·대대大帶·폐슬蔽膝·패옥佩玉·후수後綬·버선[襪]·석舃·방심곡령方心曲領·규圭 등으로 구성되고, 가장 겉에 상의와 하상을 입는다. 상의는 하늘을 상징하는 현색玄色(검은색)을 쓰고, 하상은 땅을 상징하는 훈색纁色(붉은색)을 쓴다. 훈색은 옷감을 붉은색 염료에 3번 담가서 얻어지는 옅은 붉은색이다.

면복이 다른 옷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

나는 상의와 하상에 12종류의 무늬, 즉 12장문章文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12장문은 일日·월月·성신星辰·산山·용龍·화火·화충華蟲·종이宗彝·조藻·분미粉米·보黼·불黻이다. 12장문을 모두 표현한 12장복은 대한제국 황제가 입었고, 상의에 일·월·성신·용·산·화충의 6장을 표현하고, 하상에 화·종이·조·분미·보·불의 6장을 표현했다. 9장복은 조선의 왕과 대한제국 황태자가 입었고, 상의에 용·산·화·화충·종이의 5장을 표현하고, 하상에 조·분미·보·불의 4장을 표현했다. 7장복은 조선의 왕세자가 입었고, 상의에 화·화충·종이의 3장을 표현하고, 하상에 조·분미·보·불의 4장을 표현했다. 5장복은 조선의 왕세손이 입었고, 상의에 종이·조·분미의 3장을 표현하고, 하상에 보·불의 2장을 표현했다. 12장복을 제외하면 상의에 5와 3의 홀수, 하상에 4와 2의 짝수로 무늬를 표현해서 홀수는 하늘과 양陽, 짝수는 땅과 음陰을 형상화했다. 또 상의에 무늬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림[繪畫]이고, 하상에 무늬를 표현하는 방식은 자수刺繡이다. 그림은 양을 상징하므로 상의의 무늬를 표현할 때 쓰고, 자수는 음을 상징하므로 하상의 무늬를 표현할 때 쓴다. 또 상의의 무늬를 표현할 때 색을 배색하는 원칙은 '회차繪次'라 한다. 오방색에서 반대 방향, 즉 대방對方의 색끼리 배치한다는 것으로, 동쪽 청색은 서쪽 백색과 배색하고, 남쪽 적색은 북쪽 흑색과 배색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상의 무늬를 표현할 때의 배색원칙은 '수차繡次'라 한다. 오방색에서 옆 방향, 즉 비방比方에 있는 색끼리 배치한다는 것으로, 동쪽 청색은 남쪽 적색과 배색하고 서쪽 백색은 북쪽 흑색과 배색하는 등의 방식이다.

통천관복과 원유관복은 모두 윗옷으로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아래에 하상을 입는다. 형태는 면복과 같지만 무늬가 없다. 색은 홍색이다. 관원의 조복과 제복은 구성품과 형태가 거의 같고, 상의 색만 다르다. 붉은색 하상도 공용으로 착용하였다. 조복은 상의와 하상을 모두 붉은색으로 하고, 제복은 상의를 검은색으로 하고 하상을 붉은색으로 한다. 조선 전기부터 17세기까지는 하상의 위에만 주름을 잡아 여자치마처럼 아래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A자형이었다. 이에 따라 상의도 품에서 도련 쪽으로 가면서 넓어져 하상 위에 입었을 때 불편함이 없게 했다. 그러나 17세기 말 즈음하여 하상의 주름을 위에서 아래로 고르게 눌러서 고정하여 일자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상의도 거의 일자형에 가깝게 변하였다. 주름을 잡고 가선을 대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가선을 먼저 붙이고 가선까지 함께 주름을 눌러 잡았는데, 19세기에 들어 주름을 먼저 잡고 그 위에 가선을 붙여 고정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 외, 조선 후기에 착장의 편의를 위해 하상의 말기 위쪽에 매듭단추를 달아 안에 입는 중단의 허리 부분에 붙인 고리에 꿸 수 있게 하였다. 의례를 행할 때 하상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특징 및 의의 하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자용이라는 것이다. 남자의 각종 예복에 입는 하상은 고대 인류가 생식기 가리개를 착용하던 습속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변화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하상의 형태, 색, 무늬의 종류와 수, 무늬 표현방식 등에 천지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각종 함의를 압축시켰다. 예복의 하상은 단순한 '가리개'에서 나아가 온갖 유교적 상징성을 압축하게 되었다. 또 조선시대의 변화 과정을 보면 좀 더 착장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國朝續五禮儀補, 國朝五禮儀, 尙方定例, 禮記, 元宗禮葬都監儀軌, 周禮, 대한제국-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최연우, 국립고궁박물관, 2010), 면복-군주의 덕목을 옷으로 표현하다(최연우, 문학동네, 2015), 의문의 조선1-옷(경기도박물관, 2016), 조선 후기 관원 조복의 구성과 형태 연구(최연우, 한복문화18-3, 한복문화학회, 2015),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中國歷代帝王冕服硏究(崔圭順, 東華大學校出版社, 2007).

필자 최연우(崔然宇)

상관
喪冠

정의 상중에 상주喪主가 착용하는 쓰개.

내용 상주가 착용하는 관冠은 나비가 세 손가락만 한 포布의 뒤쪽에 종이를 배접하여 뻣뻣하게 하고 세 개의 주름[襞積]이 지는 굴건屈巾과 굴건을 머리에 고정시킬 수 있는 수질首絰이 연결된 형태로 무굴관武屈冠이라



굴건 | 길이 48 너비 17



수질 | 길이 95.5

상관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고도 한다. 주름을 만드는 법은 한쪽으로부터 7푼 반을 재고 그 이외에 또 7푼 반을 반으로 접어서 골을 만든다. 이와 같이 하기를 세 번 한다. 나머지를 또 7푼 반으로 하여 주름 잡으면 너비가 3촌이 된다. 혹은 너비 5촌 2푼 반의 감으로 일곱으로 나누어 표시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가운데를 접어서 골을 만들면 그 법대로 된다.

상관의 아래에는 두건頭巾을 쓰고 이를 효孝를 나타내는 의미로 효건孝巾이라고도 한다. 두건은 『의례儀禮』, 『가례家禮』 등 중국 예서禮書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선의 국속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이 두건의 제도가 예에 어긋나기는 하나 국속에 따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기록이 있다. 제작법은 포布를 한 폭을 머리에 맞게 접어서 합봉合縫하고, 그 합봉한 선이 머리 뒤의 중심으로 가게 한다. 양 모서리를 접어 안으로 넣고 그 위를 봉합하여 뒤집는데, 앞에서 보면 모가 난 관과 비슷하다. 상관, 즉 굴건屈巾과 의상衣裳 등의 일습을 굴건제복屈巾祭服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대표적으로 상주의 상복喪服을 의미한다.

특징 및 의의 상관은 의상보다 조금 더 고운 베를 사용한다. 삼년상에는 잿물을 쓰지 않고 누이고[生布] 일년상 이하에는 잿물을 써서 누인다[熟布]. 굴건의 주름 3개를 접는 방향은 참최斬衰·재최齊衰·대공大功시에는 오른쪽이고, 소공小功·시마緦麻시에는 왼쪽이다. 수질에 다는 끈[纓]으로 참최斬衰에는 승영繩纓, 재최齊衰에는 포영布纓으로 하되, 소공小功 이하는 없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조선시대 사가의 상복에 관한 연구(이정옥·김희숙, 민족문화논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7).

필자 조우현(趙又玄)

상모
象毛

정의 전립氈笠의 정수리 부분에 매다는 술 혹은 끈 모양의 장식, 또는 전립과 장식을 합한 쓰개.

개관 농악대원들의 쓰개에는 고깔과 전립氈笠이 있다. 호남 우도농악의 대원들은 주로 고깔을 쓰고, 호남 좌도농악이나 웃다리농악의 대원들은 대부분 또는 전원이 전립을 쓴다. 전립은 전모氈帽, 전립戰笠 또는 벙거지(벙치)로도 불린다. 전립은 조선시대 무관이 착용했던 구군복의 관모인데 전립의 정수리에 달린 장식을 상모라고 부른다. 농악대원들은 전립에 달린 상모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상모놀이를 발전시켰는데, 이 상모놀이가 농악을 대표할 만큼 중요해지면서 상모는 전립과 장식을 합한 쓰개 전체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된다.

내용 상모象毛의 어원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순수한 우리말인 듯하다. 고려 후기에 쓰인 『노걸대老乞大』에는 '홍영紅纓'이라는 입식笠飾이 나타나는데,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서는 이를 '상모'로 풀이했다. 이로 미루어 상모가 순수한 우리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纓'은 쓰개 아래쪽으로 늘어뜨린 띠나 꼭대기의 술을 말하는데, 그것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홍영紅纓'이라고 했다. 조선시대에는 한자음을 취하여 상모를 상모象毛 또는 삭모槊毛로 표기했다. 소리가 나는 가죽과 실을 모자에 달고 돌림으로써 적을 현혹시켰다는 목적에서 봤을 때, 상모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여 유희적 목적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악대원들의 전립은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하급 군졸이나 관예官隷의 쓰개인 전모(벙거지)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다. 이는 농악이 지방 관아와 밀접한 관련을 맺었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모가 농악의 쓰개

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립의 정수리 부분에는 <춘향가春香歌>에서 군노 사령을 묘사한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공작의 꼬리로 만든 부포털을 달았다. 이러한 전립의 장식에서 농악의 상모가 발전되어 나왔고, 따라서 농악의 상모가 과거에는 짧은 끈에 술을 매다는 단순한 형태였을 것이라고 본다. 이후 농악이 전문 연희집단에 의해 연행되면서 상모의 길이도 길어지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오늘날 농악에서 사용되는 상모의 형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상모는 크게 끈 모양의 '채상모'와 술 모양의 '부포상모'로 나눌 수 있다. 채상모는 전모의 꼭대기에 금속, 옥석, 나무 등으로 만든 정자(정자는 '진자', '징자'로도 불리는데, 정약용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정자가 올바르다고 고증한 바 있다.)를 달고, 그 정자에 다시 끈을 매달아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형태의 상모를 말한다. 끈에는 구슬을 꿰어 달기도 하는데 이를 '구슬' 또는 '적자'라 한다. 이처럼 끈에 구슬을 다는 이유는 상모를 돌릴 때 원심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 구슬이 끝나는 끈의 중간 부분에 다시 작은 부포를 달기도 하는데, 이를 '중등 부포'라 한다. 오늘날 채상모의 끈은 대부분 한지로 된 띠(상모지)를 사용한다. 채상모는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는데, 긴 것은 열두 발에 이른다(열두발 상모놀음용).

부포상모는 새털 등으로 만든 부포를 매단 형태의 상모를 말한다. 부포를 매달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결 부분이 필요하다. 이 연결 부분을 '물채'라 하는데, 그것이 딱딱한 것이면 '뻣상모', 부드러운 것이면 '부들상모(지역에 따라서는 개꼬리상모)'라 한다. 뻣상모는 단단한 물채를 사용하여 뻣뻣하게 서도록 만든 것인데, 커다란 부포를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부들상모는 부드러운 물채를 사용하여 처지도록 만든 것으로 물채 끝에 작은 부포를 단다.



길이 42 | 20세기



채상모(평택농악)



부포상모(김제농악)

상모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쓰개에는 새 깃을 몇 개 꽂거나 새털을 한 움큼 꽂는 장식이 흔하게 나타난다. 농악의 상모는 이러한 쓰개 장식에서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농악의 상모는 외부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양식에서 발전한 것이다. 상모의 초기 형태는 수수하고 단순했을 것이다. 농악이 공연예술로 발전해 가면서 점차 화려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오늘날의 상모로 정착되었다.

참고문헌 老乞大, 전립 농악의 상모(이보형, 한국민속학29, 한국민속학회, 1997), 한국 농악복식에 관한 연구(추은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추은희(秋銀姬)

상복
喪服

정의 상중喪中에 있는 상주喪主와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

역사 우리나라의 상복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전통적 상장의례喪葬儀禮에 유교식 상장의례가 전해 내려와 혼합된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상복에도 영향을 주었다. 『수서隋書』 고구려조高句麗條에는 "부모와 지아비의 상에는 상복 3년, 형제는 3개월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주

서周書』 이역전異域傳 백제조百濟條에는 "부모와 남편의 상에는 상복 3년을 입으나 나머지 친족은 장례를 마치면 바로 복을 벗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상복 착용 기간이 유사하였음을 볼 수 있다. 『북사北史』 동이전東夷傳 신라조新羅條에 따르면 신라는 지증왕智證王(재위 500~514) 대에 상복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는데, 임금이나 부모, 처자의 상에 모두 상복 1년을 착용하여 고구려나 백제의 3년 복제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는 문무왕文武王(재위 661~681)대에 이르러 죽은 사람과의 친소親疎에 따라 상복의 경중輕重을 가려 그 기간을 달리하였다. 신라는 불교 도입으로 인해 시체를 땅에 매장하는 토장에서 불교식 화장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상복 착용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려 초에는 불교의 융성으로 인해 이전 시대와 유사한 상복제喪服制를 유지하였다. 성종成宗(재위 981~997)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하였고, 상복과 상기喪期를 죽은 사람과 친족 관계에 따라 정한 오복제도五服制度를 반포하여 상복제도를 성문화成文化하였다. 또한, 이를 권장하기 위해 관리들에게 죽은 사람과의 친족 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휴가를 주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후의 왕들도 지속적으로 휴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1391년(공양왕 3)에는 『대명률大明律』의 제도를 본떠 복제服制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유교식 상장의 제정 반포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에만 한정되어 시행되었다. 일반적인 복제는 백일상을 행하였고, 민간의 상장에는 전래적 요소가 강한 무불식巫佛式 상장이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시행되었다. 민간에게 상제 의례가 보급된 것은 고려 말 주희朱熹의 『가례家禮』가 전래된 이후이다. 조선 초기 정부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통한 유교식 상장의례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반 민가에서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성종成宗(재위 1469~1494) 대에 편찬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오복제도를 규정하였고, 중종中宗(재위 1506~1544) 대 이후 상제에 대한 예법이 사대부에게 철저히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중기의 상제는 예론화되어 정착되었으며, 상복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에게도 삼년상이 점차 일반적인 장례가 되었다. 상례 절차와 복식제도가 다양하게 분화되었는데, 지금도 '가가례家家禮'라고 불릴 정도로 지방별, 집안별로 상장제례喪葬祭禮가 서로 다른 것은 조선 중기의 예론에 기인한다.

개항 이후 서구 기독교식 의례의 도입 및 확산과 더불어 가족과 촌락을 중심으로 거행되었던 전통적 상장의례에서 나아가 연합장과 사회장의 출현이 이루어졌으며, 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규칙이 변화함에 따라 상례복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상례복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1934년 「의례준칙」, 1936년 「의례궤범」, 1969년 「가정의례준칙」과 같이 국가의 개입에 따른 상복의 간소화에 있다. 1973년에 들어 새로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의하면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검은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근래의 상복에 남은 전통적인 요소는 굴건·행전·완장 등 몇 가지 뿐이며, 대부분 양복류로 대체되고 있다.

내용 상복은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殮이 끝난 다음 날, 즉 사망한 지 4일째 되는 날 주인·주부·유복자有服者가 성복成服을 입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유복자들의 친소원근親疎遠近과 존비尊卑의 신분에 따라 참최斬衰·재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오복五服을 착용하였다. 오복 중에서 대공 이상은 친親, 소공과 시마는 소疎가 되는데, 친소에 따라서 상복을 입는 기간은 참최·재최 3년, 재최장기齊衰杖朞·재최부장기齊衰不杖朞 1년, 대공 9개월, 재최오월齊衰五月·소공 5개월, 재최삼월齊衰三月·시마 3개월 등으로 각기 다르다. 단 재최오월·재최삼월은 상복의 착용 기간이 짧지만, 복服을 기준으로 볼 때는 대공 이상이므로 중복重服이다. 참최(제일 중한 복服으로 부父·부夫·적장자嫡長子·시부媤父 등을 위함)는 가장 성글고 굵은 생포生布, 재최(모母·조모祖母 등을 위함)는 그 다음으로 굵은 생포, 대공(종형제從兄弟·종자매從姉妹 등을 위함)은 발이 굵은 숙포熟布, 소공(종조부從祖父, 종고조從高祖의 형제·자매를 위함)은 좀 가는 숙포, 시마(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 등을 위함)는 매우 가는 숙포로 만들었다. 질絰의 경우 참최는 저마苴麻(씨 있는 삼), 재최 이하 소공 이상


경북 안동 학봉종택


경남 김해

상복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은 시마枲麻(씨 없는 삼), 시마는 숙마熟麻(누인 삼)를 쓰고, 대帶는 참최는 저마, 재최 이하는 포布(베)를 사용하였다. 남자 상복은 관冠·의衣·상裳·중의中衣·행전行纏·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상장喪杖·리履로 구성된다. 여자 상복은 소素족두리 또는 개두蓋頭·대수장군大袖長裙·전계箭笄(비녀)·수질·요질·교대·상장·리로 구성된다. 동자童子는 어른과 같은데 관·수질·상장·리가 없다. 상인喪人의 출입복은 방립方笠·포선布扇·포직령布直領·교대絞帶이다.

망자를 보내는 슬픔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상례와 그 예복인 상복 역시 신분의 구분이 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이 입는 왕실 상복의 형태와 구성 또한 일반의 상복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삼년상을 기본으로 하는 유교식 상례를 왕실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국왕이 3년간 상을 치르면서 생길 수 있는 권력과 국정의 공백 때문이었다. 이를 염려하여 왕실에서는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를 채택하여 상복을 입는 기간을 줄였다. '역월제易月制' 또는 '단상제短喪制'라고도 하는 이일역월제는 한漢 문제文帝의 유조遺詔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27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유교식 삼년상을 달[月]을 날[日]로 바꾸어 27일 만에 끝낼 수 있게 상기를 줄인 것이다. 이를 통해 국왕의 승하와 다음 국왕의 즉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왕위 계승과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왕권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러한 단상제는 고려 제4대 임금인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조선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심상心喪이라 하여 최복衰服을 입지 않고 상제喪制로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삼년상을 치르게 하였다. 『예기禮記』「단궁상檀弓上」에 의하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치르며, 임금의 상도 부모의 상에 준하여 삼년상을 치르고, 스승의 상에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삼년상을 치른다고 하였다. 심상 3년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비록 최복을 입지는 않으나 상주가 지녀야 할 책임과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상복은 중국의 예서인 『의례儀禮』, 『예기禮記』의 복술服術에 근거하여 그 원리가 조직되었다. 또한 『가례家禮』에 기록된 상복에 대한 개념은 유교의 종법사회宗法社會 중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한 계세사상繼世思想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오복제도를 매체로 하여 대가족제도의 형성 및 그 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다. 상복을 입을 수 있는 오복친五服親은 유복친有服親이라고 하여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의 공고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오복친을 통해 장자상속長子相續이라는 재산 상속제도와 제사라는 조상숭배 행위는 그 구체적인 친족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오복의 등급에 따라 가족 간의 친소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족사회 차원에서의 상복의 기능은 점차 발전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조상숭배와 천도天道를 숭배한다는 이념 아래 봉건적·정치적 수단으로 쉽게 이용되었다. 결국 차별등급적인 오복제도는 그대로 확대되어 국가의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유교 국가의 체제 유지 수단이 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상복은 생자生者의 심리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표현적 도구 역할을 한다. 임종臨終에서 길제吉祭에 이르는 상례의 전체 과정에서 사절변화四節變化의 우주조화宇宙調和에 따라 상복이 거상 기간의 단계별로 애도지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복은 혈족관계에서 친소원근에 따라서 애도지정을 감성공학적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그 구조를 구현하였다. 즉, 오복제도에 맞춰 상복의 소재·디자인·바느질 방법·시접 방향 등에 차이가 있다. 또한 신분제도가 철저한 조선시대에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초월해 오복제도에 맞춰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經國大典, 國朝五禮序例, 北史, 四禮便覽, 三國史記, 喪禮備要, 1常變通攷, 隋書, 禮記, 儀禮,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조우현(趙又玄)

상복
常服

정의 조선시대 왕의 시사복視事服이나 왕세자의 서연복書筵服, 왕세손의 강서복講書服, 또는 문무백관의 집무복 또는 예복과 같은 관복의 한 종류.

내용 조선시대 왕은 일상적으로 집무를 볼 때, 또는 진연이나 진찬 등과 같은 작은 의례에 참여할 때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로 구성된 상복常服을 입었다. 이를 흔히 '익선관복'이라고 하는데 영조 대의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는 '시사복'이라고도 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의 기록을 보면 태종 때부터 익선관복을 입기 시작했다고 짐작된다. 1444년(세종 26) 3월에 사은사謝恩使 유수강柳守剛이 명나라 황제의 칙서와 가지고 돌아온 관복은 면복 일습과 상복 세 건이었다. 이때의 상복이 명나라에서 보내온 유일한 왕의 상복이며, 조선시대 익선관복 제도의 기본이 되었다. 왕의 익선관복은 익선관과 다홍색 곤룡포, 용무늬 조각 장식이 있는 옥대玉帶, 흑화黑靴, 흑화 속에 신는 버선인 정精, 淸으로 구성되었다. 익선관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이단 구조의 모자인데 뒤쪽 좌우에 하늘을 향한 크고 작은 두 겹의 뿔을 꽂았다. 다홍색 곤룡포에는 금수오조원룡보金繡五爪圓龍補를 가슴과 등, 양어깨에 장식하고 안감으로 남색 내공을 사용하였다. 왕세자의 상복은 '서연복'이라고 하였는데 왕의 시사복과 유사하나 일부 차이가 있었다. 아청색 곤룡포에는 가슴과 등, 양 어깨에 금수사조원룡보金繡四爪圓龍補를 달고 안감으로 다홍색 내공을 사용하였다. 허리에는 조각 장식이 없는 옥대를 둘렀는데 이를 '독옥대禿玉帶'라고도 하였다. 왕세손의 상복은 '강서복'이라고도 하였는데 관례 전에는 쌍동계雙童髻에 공정책空頂幘을 쓰고 관례 후에는 익선관을 썼으며 왕세자의 곤룡포와 같은, 다홍색 직령 내공을 받친 아청색 곤룡포를 입고 수정대水晶帶를 둘렀다. 곤룡포에는 금삼조방룡보金三爪方龍補를 가슴과 등에만 달았다. 그 외는 왕이나 왕세자의 시사복 구성과 동일하였다.

곤룡포는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였다. 겨울철에는 운문단雲紋緞으로 만들어 착용하였고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에 백양모정白羊毛精을 신었다. 여름철에는 운문사雲紋紗로 만든 곤룡포를 착용하고 흑사피화黑斜皮靴에 백당피양정白唐皮凉精을 신었다. 곤룡포 안의 받침옷으로는 일반 사대부의 평상 예복을 착용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초록색 철릭에 남색 답호를 겹쳐 입었고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반에는 철릭 대신 초록색 도포를,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초록색 대창의를 착용하였다. 1880년대 이후에는 두루마기와 전복을 받침옷으로 입었다. 한편 문무백관의 상복常服은 사모紗帽, 단령團領, 품



남구만 초상 | 18세기 초반 | 국립중앙박물관

대品帶, 흑화로 구성되었으며 고려 말 정몽주가 명나라에서 백관의 관복으로 사모와 단령을 가져오면서 관복으로 입기 시작하였다. 세종 대에 서민의 단령 착용을 금하면서 단령은 확실하게 관리들의 관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모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이단 구조의 모자로 뒤쪽에 좌우로 수평의 뿔[角]을 꽂았다. 당상관이 사용한 뿔은 무늬가 있었고 당하관의 뿔에는 무늬가 없었다. 모자와 뿔의 세부 형태는 착용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사모 좌측 관자 부위에는 연향 때 나눠주는 수공화首拱花를 꽂을 수 있도록 구리철사로 만든 화공花孔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단령은 깃이 둥글기 때문에 깃 자체를 단령이라고도 하지만 그 깃이 달린 옷도 단령이라고 하였다. 깃 너비나 깊이, 소매 너비, 무의 구조 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에 단령 유물의 편년 설정에서 단서가 된다. 단령은 색상에 의해 용도가 규정되었다. 홍단령은 검소함을 상징하는 집무복이었다. 흑단령은 당상관 이상에게는 문단紋緞이나 문사紋紗가 허용되었고 품계에 따른 흉배를 부착하였던 장식적인 옷이며, 의례복으로 사용되었다. 품대는 품계에 따라 띠돈 재료와 테두리 재료와 유무가 달랐다. 즉 서각을 띠돈으로 장식한 서대犀帶(1품), 조각판에 금테 두른 띠돈을 장식한 삽금대鈒金帶(정2품), 조각 없는 판에 금테 두른 띠돈을 장식한 소금대素金帶(종2품), 조각판에 은테 두른 띠돈을 장식한 삽은대鈒銀帶(정3품), 조각 없는 판에 은테를 두른 띠돈을 장식한 소은대素銀帶(종3품~4품), 그리고 검은 흑각을 띠돈으로 장식한 흑각대(5품 이하) 종류가 있었다. 흑화는 신목이 있는 장화형 신발로 신발부리가 위로 들린 것이 특징이며 바닥에는 하얀 분칠을 하였다. 시대에 따라 신목의 길이나 신울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영조 때까지는 신목이 높았으나 그 이후 신목이 낮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신발 안에는 정精 또는 청淸이라고 하는 모직 또는 가죽으로 만든 전용 버선을 신었다. 또 추울 때나 비 올 때는 분투分套라고 하는 가죽 덧신을 겹쳐 신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초기에는 상복과 시복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관리들이 입는 관복 단령을 모두 시복 또는 상복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세종 대에 상참常參이나 조참朝參 등과 같은 의례 때 흑단령黑團領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예복禮服'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록에서도 상복과 시복의 구분은 없었다. 색상의 제한 없이 입을 수 있었던 상복은 점차 녹색과 홍색으로 단순해졌고 결국 성종 대 이후로는 홍단령 하나만 입게 되었다. 용도별로 단령의 색상이 정착되면서 명칭이 분화되었다. 명칭이 분화된 것은 성종 대 말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기록은 『중종실록中宗實錄』의 1520년(중종 15)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의례복으로 착용하던 흑단령을 시복이라 하고 집무복으로 착용하던 홍단령을 상복이라 하면서 홍단령의 검소함을 중시하였다. 당상관과 당하관 모두 무늬 없는 초綃나 주紬로 만든 상복인 홍단령을 착용하였다. 흉배도 물론 부착하지 않았다. 명종 대 이후 당하관의 홍단령 색상이 짙어지게 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명나라 원군은 임금과 신하의 옷 색상이 같다고 비웃었다. 그러한 이유로 홍단령을 없애고 시복 흑단령을 입도록 하였으나 사치로 인해 다시 상복으로 홍단령을 부활시켰다.

홍단령을 상복이라고 부른지 120여 년이 지난 1610년(광해군 2) 5월 19일, 『오례의五禮儀』 기록에 근거하여 의례복 흑단령을 상복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상복이었던 홍단령은 시복이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임진왜란 등으로 전대의 제도를 모두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제도의 혼란이 생기자 『오례의』의 기록에 근거하여 상복을 흑단령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17세기 초 상복이 된 흑단령은 본래 아청색이었으나 17세기 후기 숙종 대에 이르러 현록색玄綠色으로 변했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현록색은 유록색柳綠色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짙은 초록색을 말한다. 당상관은 운문단이나 운문사로 만든 상복 흑단령을 착용하고 당하관은 초·주로 만든 무늬가 없는 흑단령을 착용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만 흑단령에 흉배를 부착하였으나 숙종 대에는 6품까지 흉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초상화나 출토되는 흉배 유물을 보면 문관의 경우, 공작흉배와 운안흉배, 백한흉배, 노사흉배, 운학흉배 등 다양한 흉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 대에는 흉배 사용을 9품까지 확대하였는데 1746년



상복 차림의 사대부들 | 기영회도 중 부분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속대전續大典』에 당상관은 운학흉배를, 당하관은 백한흉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정조 대 이후로는 당상관 쌍학흉배와 당하관 단학흉배 제도가 정착하였다. 무관은 17세기 초에는 호흉배, 해치흉배 등이 사용되다가 18세기 영조 대에는 사자흉배와 호흉배가 사용되었고 정조 대에는 사자흉배에서 점차 쌍호흉배, 단호흉배로 변화하였다. 한편 1884년 갑신의제개혁으로 시복 홍단령을 폐지하고 흑단령에 통합하였으며 넓은 소매를 줄여 착수흑단령을 입도록 하였다. 착수흑단령에 흉배 탈착으로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별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는 있었으나 대한제국 시기까지 흑단령 제도는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國朝五禮儀補序例, 續大典, 樂學軌範, 朝鮮王朝實錄,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이은주·조효숙·하명은, 민속원, 2005), 날짐승흉배의 감정을 위한 기준 설명(이은주·하명은, 한복문화10-3, 한복문화학회, 2007),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이은주, 복식58-5, 한국복식학회, 2008),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과 상복 제도 변천(이은주, 복식55-6, 한국복식학회, 2005).

필자 이은주(李恩珠)

상장
喪杖

정의 상중에 쓰는 지팡이.

내용 상장喪杖은 상중에 쓰는 지팡이로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따르면 '참최저장소최삭장斬衰苴杖疏衰削杖'이라 하여 참최斬衰의 저장苴杖은 대나무이며, 재최齋衰의 삭장削杖은 오동나무[桐]이다. 상장의 높이는 심장과 나란히 하며, 나무의 밑동을 아래로 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 흉례서례凶禮序例 상복喪服에 의하면 참최에 아버지를 위하여 대나무 상장을 짚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이니, 대나무가 둥근 것은 하늘의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안팎에 마디가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안팎의 슬픔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나무는 사계절을 통해 변하지 않으니,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애통해함이 추울 때나 따뜻할 때나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최에 어머니를 위하여 오동나무 상장을 짚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를 위하여 동桐을 사용하는 것은 동同(오동나무는 아버지와 같음)을 말함이다. 속마음으로 슬퍼함이 아버지의 경우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밖에 마디가 없는 것은 집안에서는 두 분을 모두 높일 수 없고, 밖에서는 지아비[夫]에게 굴종屈從함을 본뜬 것이다. 이를 깎아서 아래가 네모나게 한 것은 어머니[母]가 지방地方을 상징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무릇 지팡이라 하는 것은 모두 밑둥치가 아래에 있으니, 그 나무의 성질을 따르기 때문이다. 높고 낮은 것은 각각 그 목심木心에 가지런하게 하고, 그 크고 작은 것은 요질腰絰과 같게 한다." 즉 아버지를 위하여 상장으로 대나무를 사용한 것은 대나무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여 아버지를 가리킨 것이고, 오동나무 지팡이가 모가 난 것은 땅을 상징하여 어머니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 천지부모天地父母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참최의 저장은 대나무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상장으로 사용하여 그 슬픔이 가장 큼을 상징하며, 재최의 삭장은 오동나무를 깎아서 곱게 다듬어 상장으로 사용하여 참최에 비해 재최의 슬픔이 덜함을 상징한다. 또한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따르면 오동나무 지팡이가 없으면 버드나무로 대신 만들어 쓴다고도 한다. 여기서 버드나무[柳]는 아버지와 닮음[類]을 의미한다. 『예기禮記』 상복소기喪服小記에도 '상장의 길이는 요질腰絰과 똑같이 한다[杖大如絰].'는 구절이 있으며, 이에 대한 주는 다음과 같다. "요질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상장은 가슴으로부터 아래에 있는바, 요질과 같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지팡이는 병든 몸을 부축하기 위한 것인데,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팡이



상장 든 상주들 | 경북 안동 학봉종택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의 높고 낮음을 가슴으로써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뿌리 부분을 아래로 하는 것은 그 본성에 순응한 것이다. 『가례家禮』 저장苴杖의 도를 보면 여섯 마디로 되어 있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도 여섯 마디로 되어 있는데 김장생金長生의 『의례문해疑禮問解』「상례喪禮」에는 꼭 여섯 마디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따르면 왕실에서는 면상免喪한 뒤에 최질과 상장은 으슥한 곳에 둔다고 하며,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태운다.

특징 및 의의 『예기』에 따르면 상주가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효자가 부모를 잃으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수가 없고 근심과 괴로움으로 삼년상을 나니 몸은 병들고 메마르기 때문에 지팡이로 병든 몸을 부축하는 것이다. 곧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감히 지팡이를 짚지 못하니 높은 어른이 있기 때문이요. 당상에서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니 높은 어른의 처소를 피하는 때문이며, 또 상당에서 바쁜 걸음을 하지 않는 것은 허둥지둥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함이다. 이는 효자의 뜻, 인정의 열매이며 예의의 본보기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인정일 따름이다." 즉 상주가 상장을 짚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효를 상징하는 한편, 그 슬픔으로 삼년상을 지내면서 의려倚廬에 거처하고, 죽을 먹고, 거적에서 자고, 흙덩이를 베어 몸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며, 상주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星湖僿說, 疑禮問解, 朝鮮王朝實錄,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조선시대 관혼상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한국민속의 세계2-일상생활·의례생활(윤사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조우현(趙又玄)

상투

정의 관례나 결혼 후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끌어올린 후, 정수리 위에서 틀어 감아 높이 세우는 성인 남자의 대표적 머리모양.

내용 상투는 결혼한 남자가 땋은머리를 풀고 자신의 머리를 모아 빗어 올린 머리모양으로 머리 위에서 묶은 머리모양이 추와 비슷하다고 해서 '추계'라고 하였다.

『사기史記』에는 조선왕 만滿이 연燕나라 사람이며 연나라에서 망명해 무려 천여 명을 모아 머리모양을 추계椎髻로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동쪽의 요새를 벗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 '괴두노계魁頭露紒', 즉 관모를 쓰지 않는 날상투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구당서舊唐書』의 "춤추는 네 사람은 뒤쪽에 추계를 하고 붉은 수건을 이마에 두르고 …… "라는 기록에서 오래전부터 남자의 머리모양이 상투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삼실총三室塚과 무용총舞踊塚 벽화에 그려진 서역인은 큰상투로 빗고 있으며, 깊고 큰 눈과 높은 코로 보아 서역에서 온 사람이다. 무용총의 주인과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의 선인은 자신의 머리카락만으로 올린 상투머리를 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상투의 모양은 커다랗고 둥근 것, 작고 둥근 것, 쌍상투가 있다. 큰 상투는 관모를 쓰지 않은 장사도壯士圖나 역사상力士像에 많고, 작은 상투는 관모를 쓰는 귀인층에서 볼 수 있다. 신라시대의 상투는 경주 금령총金鈴塚 출토의 도기로 만들어진 기마인물에 잘 나타나고 있다.

고려시대는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왕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冠·건巾·복두幞頭를 썼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관모들이 상투 위에 쓰기 적합한 모양이다. 1278년(충렬왕 4) 충렬왕의 개체령에

의하여 모든 관료층에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만 남기고 뒤통수에서 묶어 길게 땋아 내린 몽골의 개체변발開剃辮髮을 하였다. 개체변발은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만 남겨 놓고 뒤로 길게 땋아 늘어뜨리며 겁구아怯仇兒라고 하며, 몽골식 변발辮髮을 의미하는 몽골어 kegul의 음차音借 표기이다. 충렬왕과 왕족 및 신하들이 개체변발로 바꾸었으나 일반 백성들까지 개체변발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1389년에 공민왕은 변발호복辮髮胡服이 우리의 제도가 아니라는 신하의 말에 곧 변발을 풀었다고 한다. 공민왕의 중흥 정책 이후에는 다시 상투로 돌아갔다.

조선시대는 초상화나 풍속화를 통하여 계층을 막론하고 상투 튼 모습을 볼 수 있다. 상투를 틀 때는 '배코치다.'라고 하여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깎아내고 나머지 머리만을 빗어 올려 틀게 된다. 많은 머리카락이 정수리에 모이면 열이 발산하기 어려워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이후 조혼早婚 풍습이 퍼지면서 10세 안팎의 소년이 관례冠禮를 치르고 상투를 틀어 올리면 머리가 무겁고 머리 밑이 당겨 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상투는 하나만 트는 것이 보통이지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쌍상투를 하기도 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혼인한 사람과 혼인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격한 차별을 두어 어린 아이라도 장가가면 상투를 틀고 성인 대접을 받았고, 나이가 많아도 혼인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댓말을 썼다. 그래서 혼인한 것처럼 보이려고 상투를 틀기도 하였는데 혼인 절차를 밟지 않고 상투를 트는 것을 건상투라고 하였다. 상투 꼭지의 정상에는 장식을 위하여 금, 은, 동 등으로 만든 동곳을 꽂았고, 머리카락이 얼굴로 흘러내리지 않게 이마 둘레에 망건網巾을 썼다. 망건 앞이마 부분에는 갓을 고정하기 위해 풍잠風簪을 달고, 그 위에 다양한 관모를 썼다. 상민常民은 망건 대신 수건을 동이기도 하였다.

1895년(고종 32) 11월 16일 조칙에 "국민들에 앞서 내가 먼저 단발하니 백성들은 내 뜻을 받들어 만국과 병립할 수 있는 대업을 성취케 하라."라는 단발령斷髮令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어 상투를 자르게 하였다. 『조광早光』에 단발령에 관한 기사가 있다. "머리를 깎는 것은 위생에 이롭고 일을 하는 데 편리하므로 왕이 정치 개혁과 나라의 부강을 도모하시는 이때 먼저 친히 단발을 하여 모범을 보이셨다고 한다. 내부대신內部大臣 유길준兪吉濬은 고시告示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상투 베기를 권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순검을 풀어서 가위를 들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보배와 같이 생각하고 생명과 같이 귀한 상투를 할 일 없이 가위가 한번 움직이는 바람에 추풍낙엽과 같이 땅에 떨어지니 그 형상이 진실로 참담하였다."라고 전해진다. 유건儒巾을 쓴 선비들은 상투를 베는 것은 오랑캐의 풍속이니 단발령을 걷으라는 상소를 올렸으며, 그 밖의 백성들은 죽으면 죽었지 상투는 놓지 못하겠다고 죽기를 무릅쓰고 반대하



방건 속 상투 | 윤집 초상 중 부분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상투 튼 남자들 | 씨름 중 부분



날상투 | 점심 중 부분

상투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였다. 민심을 진정시키고 상투를 베는 것의 이해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알리기 위하여 단발령을 내린 다음 해에 고종이 한 번 더 영을 내리었지만 민심을 진정시키지는 못하였다. 완강한 상투 옹호자들은 만일 국법으로 한다면 무서운 반역자로 상투 대신에 목이 베일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황현이 쓴 『매천야록梅泉野錄』의 단발령과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상투를 자르지 않으려고 낙향하거나 잘린 상투를 주머니 속에 넣고 통곡하며 성을 나갔다고 한다. "삭발한다는 말이 점차 일어나더니 10월 중에 일본 공사가 왕을 위협하여 조속히 머리를 깎도록 하였으나 왕은 명성황후의 장사를 치룬 뒤로 미루었다. 마침내 그때가 되자 유길준과 조희연 등이 일본군을 인도하여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언하니 고종은 긴 한숨을 들이쉬며 정병하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경이 짐의 머리를 깎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정병하는 가위를 가지고 손을 놀려 왕의 머리를 깎았으며 유길준은 왕태자의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하고 노해서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 하여 대기시켰으며,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또한 인가에 들어가 조사해서 찾아 헤매니 깊숙하게 숨지 않고서는 머리를 깎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에 손님으로 왔다가 상투를 집어서 주머니 속에 감추고 통곡을 하며 성을 나갔다. 머리를 깎인 자는 빡빡 깎지 아니하고 상투만 자르고 머리털은 남겨 놓아 장발승 같았는데 오직 부인네와 어린아이들만 깎이지 않았다. 학부대신 이도재는 반박하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했다."

상투 싸움은 정치 문제로 번져 친러시아파가 중심이 된 반대파에게 음모할 기회를 주어 개화당 내각은 또다시 비운을 겪는다. 1895년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내려졌으며, 10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의 전통을 고집하고 머리 깎기를 거부하였으며, 머리를 깎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까까중'이라고 하면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거나 학교 당국에서 삭발을 요구하면 자퇴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상투는 고대부터 단발령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된 성인 남자의 대표적인 머리모양으로 관례나 혼인 후 자신의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정수리 위에서 틀어 감아 높이 세우고 동곳을 꽂아 고정하였다. 한국에는 머리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상毁傷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에서 유래하였다. 단발령이 내려지자 많은 선비들은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발頭髮을 자를 수는 없다."라고 분개하여 정부가 강행하려는 단발령에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총독정치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단발이 단행될 때까지 상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상투(백화랑, 조광2-5, 조광사 1936),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김용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복식사연구(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7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용문(金容文)

상투관

정의 상투를 덮는 관.

내용 상투관은 성인 남자들이 정수리 중앙에 상투를 튼 후 덮던 작은 관이다. 머리카락을 빗어 올려 틀어 맨 상투만을 덮기 때문에 '속발관束髮冠'이라고도 한다. '치포관'도 상투관의 일종이다. 유교 사회에서 맨상투를 드러내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므로 상투관을 썼고, 이는 상류층의 전용물이었다.

고대에 어린아이들은 정수리 양옆에 봉긋하게 머리를 틀어 올려 끈으로 묶었다. 이를 '동계童髻'라 하고, 두 개이기 때문에 '쌍동계雙童髻'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변발辮髮 문화로 인해 뒤로 한 가닥을 땋아서 드리웠다. 미성년자의 머리는 성인식인 관례冠禮를 할 때 풀어서 빗으로 빗어 정수리 중앙에 하나로 모아서 묶는다. 즉, 정수리에 묶은 한 개의 상투는 어른임을 상징한다. 이렇게 묶은 상투는 이후 일생 동안 일상생활에서 상투관으로 덮게 된다.



상투관 | 높이 60~68 지름 50~7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임매 초상 중 부분 | 1777 | 국립중앙박물관

상투관의 몸체는 진시황릉 병마용의 인물에서 보듯 고대 중국에서는 끈을 달아 턱 아래에서 매는 형태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끈 없이 작은 비녀를 꽂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상투관에는 세로줄 무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상투 크기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기도 했다. 재료는 은銀·백동白銅·서각犀角·우각牛角·나무를 쓴다. 삼베[麻布]나 두껍게 배접한 종이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든 상투관은 흔히 '치포관'이라 한다.

특징 및 의의 상투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관모이다. 고대의 인류가 머리를 묶어 천으로 덮던 것이 고정된 형태의 관모로 정착하였다. 상투관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관모로 변용된다. 통천관·원유관·양관·진현관·충정관·와룡관(제갈건)·장포건 등이 모두 상투관이 변용되어 독립된 관모가 된 것이다. 또 상관喪冠으로 쓰는 굴건屈巾은 고대 원시 인류가 최초로 쓰던 상투관을 잊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관모와 수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3), 명선-중(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복식류명품도록(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치포관 연구(박길수,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치포관 연구(박길수·최규순, 복식 61-5, 한국복식학회, 2011).

필자 최연우(崔然宇)

새앙머리

정의 궁중의 나인, 의녀와 반가의 규수들이 정초나 동지에 문안으로 입궐할 때 하던 머리모양.

내용 '생'이란 문헌에는 '사양絲楊'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남자아이들의 쌍상투雙童髻에 해당한다. 머리를 뒤에서 두 가닥으로 나누어 땋아 내린 뒤, 각각 밑에서부터 9㎝ 정도의 길이로 말아 올려 목 뒤에서 같이 묶어 나란히 세워서 묶으면 마치 두 개의 갸름한 족과 같은 모양이 된다. 새앙머리는 다리 한 쌍을 각각 땋아 처음에는 약 17~18㎝ 길이로 가지런하게 묶고 중간을 매개 댕기로 맨 후 본인의 머리와 함께 계급을 표시하는 댕기로 맸다. 여기에 봉이나 나비 등이 조각된 떨잠이나 뒤꽂이를 꽂고 윗부분에 석웅황石雄黃 등을 장식하고 금박을 찍은 댕기를 하였다.

새앙머리는 조선시대 지체가 높은 집안의 미혼녀가 임금을 알현할 때나 궁중의 소녀 나인들이 하였다. 관례 전의 나인을 '생각시'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새앙머리는 소녀 나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밀·침방·수방繡房 소속에 나인들만 하였다. 그 밖의 처소에 속하는 어린 나인들은 여염집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닥으로 땋아 늘였다. 댕기는 꽃자주색으로 겨울에는 무늬 있는 비단을, 여름에는 갑사를 사용하였다.

1788년(정조 12) 가채신금지목加髢申禁止目 중에 "대체지식代髢之式 낭자쌍계娘子雙髻 사양계絲陽髻 계시가전지제係是嫁前之制 부가용지不可用之."라고 하여 낭자쌍계娘子雙髻와 사양계는 결혼 전의 제도이므로 사용하면



① 새앙머리 | 1850 ② 나인복

새앙머리 | 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권오창

안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새앙머리는 주로 미혼녀의 머리모양이었고, 조선 후기에는 주로 궁중 아기나인들이 하던 머리모양이었다.

특징 및 의의 새앙머리는 미혼녀의 머리모양으로 조선 후기 궁중 아기나인의 머리모양이다. 일반적으로는 새앙머리용 다리 한 쌍을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두 덩이가 되도록 중간을 자주댕기로 묶어 뒤통수에 낮게 고정한 머리모양을 말하기도 한다. 반가班家에서는 정초正初나 동지冬至 문안으로 규수들이 입궐할 때 새앙머리에 석웅황을 장식한 댕기를 하거나 떨잠이나 뒤꽂이를 꽂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김용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여속사(김용숙, 민음사,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용문(金容文)

색동저고리

정의 여러 가지 색상의 옷감을 이어 만든 색동소매가 달린 어린아이용 저고리.

내용 색동저고리는 어린아이가 입는 저고리로, 형태는 성인의 저고리와 같으나 소매를 색동으로 만들어 달았다. 저고리는 우리 옷의 가장 기본적인 상의로 길·소매·섶·깃·동정·고름으로 구성되며 시대에 따라 저고리의 형태가 조금씩 변해왔다. 남녀 저고리의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동일하나 저고리의 길이와 크기에 차이가 있고, 색상이나 소재 등으로 구분이 된다. 어린아이의 저고리는 구조가 성인의 것과 거의 유사하고 저고리의 색상은 흰색, 옥색, 보라색 등으로 성인의 저고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색상 이외에 노랑색, 진분홍색, 연두색 등의 밝은 색상을 사용한 예도 많았다. 깃과 고름의 색상을 달리하여 남아와 여아의 구별을 두기도 하였는데, 남아용 저고리의 깃과 고름은 남색 계열, 여아의 경우는 홍색 계열로 만들었다. 색동저고리를 좀 더 호사스럽게 하기 위해 겉섶에 색색의 삼각형 옷감을 연결하거나 잣물림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아동 한복은 옷의 조각마다 색상을 달리하거나 여러 색상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색동'이다. 색동은 여러 색의 옷감을 잇대거나 혹은 그러한 모양으로 옷감을 짠 것을 말한다. 색동이 시작된 정확한 연원을 알기는 힘드나 삼국시대의 벽화에서 색동치마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아이들의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소매부분에 색동이 많이 사용되었고, 섶부분을 색동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그 밖에 원삼, 활옷 등의 여성의 예복을 비롯하여 무당의 무복巫服이나 여령의 무복舞服 등의 소매에 부분적으로 색동이 장식되었고, 책집의 포장이나 교명敎命에도 사용하였다.

색동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유로 몇 가지 설을 들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시대 승려들이 그들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하여 색동으로 된 옷을 입히기 시작한 것이라는 설이다. 그 밖에 길상의 의미를 담아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음양오행설에 따라 오방색을 이어 붙여 사용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옷감이 귀한 시기에 옷을 만들고 남은 옷감 조각을 모아서 색동을 만들어 활용했다고 보기도 한다. 색동으로 된 옷에는 이와 같이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어린아이의 옷에 많이 사용되었다. 색동저고리는 색동을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어린아이의 옷으로 첫돌 복식으로 입히거나 명절옷으로 만들어 입히는 예가 많았다.

색동의 구성은 주로 색색의 좁고 긴 헝겊조각을 연결하여 만드는데 색동의 폭은 일정하나 색동의 너비나 색상의 선택은 만드는 이에 따라 달라진다. 색동의 색



색동저고리 | 길이 17 화장 3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상 배열은 정해진 규정 없이 다양하게 조합하고, 여기에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오방색을 사용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조선 후기 이후 유물 자료를 살펴보면 오방색 이외의 다양한 색상의 옷감으로 자유롭게 구성한 것이 많다. 오방색은 동양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음양오행사상에서 비롯한 색상으로 청·백·적·흑·황을 정색正色으로 지정하였는데 각각 동·서·남·북·중앙을 상징한다. 다섯 가지의 오방색은 아이들 옷에 두루 사용되었는데 여러 가지 색상이 조화를 이룬 오방장두루마기에서 그 아름다움이 잘 나타난다. 음양오행의 상생원리를 적용한 오방색의 조화로운 사용은 의복을 통해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막아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도 담겨있다. 오방장두루마기를 구성하는 옷감의 색상 중 길吉에 많이 쓰이는 녹색은 음양오행사상에서 간색으로 분류된다. 녹색은 불교에서 오불五佛의 신색身色중 하나로 흑색을 대신하여 사용하는데, 아이들의 옷에서 어둠을 연상하는 흑색을 배재하고 녹색으로 대체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색동'이라는 명칭은 국말에 등장하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채綵', '채복彩服', '반의斑衣', '래복萊服', '노래의老萊衣' 등으로 표기되었다. 국말 「궁중발기」의 왕손복의 유물이나 돌옷의 기록에서도 '동다리저고리'와 '동다리 주의'를 색동옷으로 보기도 했으며, 1916년 덕혜옹주의 생일 「의복발기」에 나오는 색동관사저고리는 민간에서 입었던 색동옷과 동일한 형태로 추정한다. 어린아이가 입었던 색동저고리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부모에게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입기도 했다. 이는 춘추시대 노래자老萊子가 70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렸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와 같은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는 명절에 많이 입는다고 하여 까치저고리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때 '까치'라고 하는 명칭은 섣달그믐날인 까치설날에 입는다고 하여 붙인 명칭이라고 한다. 작은설이라고도 하는 까치설날의 '까치'의 어원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국어학계에서는 중세 국어의 '아ᄎᆞ-'가 변하여 '까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ᄎᆞ-'는 '드물다, 작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섣달그믐날' 곧 '작은설'을 지시하는 '아ᄎᆞᆫ설'이 '아치설'



색동저고리 | 석가탄신일 | 엘리자베스 키스 | 1929 | 국립민속박물관

로 바뀐 후 '까치설'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아치설'에 쓰인 '아치'의 본래의 뜻을 잊고, 비슷한 발음의 '까치[鵲]'를 떠올려 그것으로 '아치'를 대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까치'는 지혜와 부지런함을 갖춘 새로서 '설날'이 지향하는 희망적인 이미지와 부합하여 '까치설'이라는 단어가 정착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까치저고리에서도 길조吉鳥인 까치의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저고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의이자 평상복으로 아이들의 저고리도 성인의 것과 형태가 같은데 아이들의 저고리에는 겉섶 쪽에 긴 고름을 달아 가슴을 한번 둘러 입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많다. 긴 옷고름을 돌띠라고 하는데 활동이 많은 아이들 옷의 흐트러짐을 막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긴 고름에 수壽, 복福, 부귀다남富貴多男 등을 금박하기도 했으며, 직물의 끝에 수壽, 희囍, 화문花紋을 넣어 짠 부분을 이용하여 고름을 만들기도 하였다.

일반저고리에 비하여 공이 많이 들어가는 색동저고리는 조선시대 반가의 자녀들은 평상복으로 입었

고, 현대에는 첫돌 복식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조선 후기의 평생도의 첫돌 의례에 등장하는 아동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색동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색동옷이 첫돌 의례의 상징적인 복식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이후의 남아의 돌복은 두루마기 위에 남색 전복을 덧입힌 후 붉은 색의 돌띠를 묶어주고 복건 또는 호건을 씌우는 형태가 전형적인 모습이다. 남아의 전복과 쓰개에는 인仁·의義·예禮·지智·효孝·제弟·충忠·신信 등의 덕담의 내용을 금박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여아는 저고리와 치마 위에 두루마기나 당의를 입히고, 조바위를 씌우는데 아동용 조바위에는 호화롭게 수를 놓거나 금박장식을 한 경우가 많다. 금박문양의 내용은 부귀富貴·다남多男·수복壽福·강녕康寧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바위의 앞과 뒤에 호박, 비취, 마노 등의 보석 장식과 오색술 장식을 하고 꼭대기의 앞뒤에 구슬 장식이나 산호줄을 연결해서 장식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저고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전통옷으로 앞여밈을 겹쳐 입고 곧은 깃이 달리는데 성인과 어린아이의 저고리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색동저고리는 소매를 색동으로 장식한 저고리로 단색의 저고리보다 화려하여 돌이나 명절과 같은 날에 많이 입었다고 하지만 반가에서는 평상복으로 입기도 했다. 소매나 섶에 오색천을 이어 색동으로 장식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화려하고 귀하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벽사의 의미가 담겨있어 아이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기록과 유물을 통해 1900년대 이후부터는 남아와 여아의 구별 없이 왕실과 반가, 민간에 이르기까지 두루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는 색동저고리를 돌복의 구성으로 갖춰 입히는 경우가 많으며, 디자인이 아름다워 성인이 색동저고리를 입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개항기 이후 한국 아동복식 연구(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복식에 나타난 색동의 미적 고찰(최윤정,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앚-小' 계열 어휘의 어원과 의미(조항범, 국어학47, 국어학회, 2006),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김정아(金廷兒)

색복장려운동
色服奬勵運動

정의 일제강점기 때 백의 금지 대안代案으로 흑색 옷 입기를 권장하면서 벌인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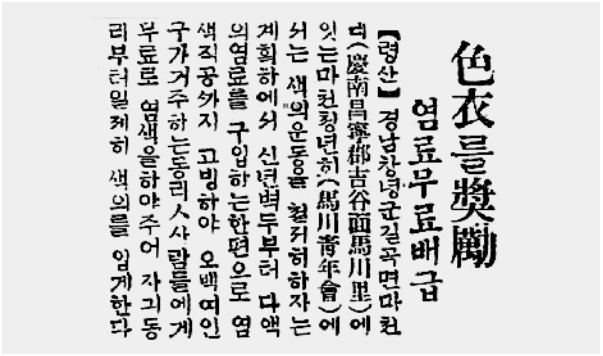
개관 색복은 '색옷', '색의色衣'라고 하며, 무색[-色]도 같은 말이다. 색이 없는 무색無色과는 다르다. 홍紅·청靑 등 색 있는 옷감을 써서 지은 옷을 말한다. 민간에서 배냇저고리에 대해 '아이들 어려서부터 무색은 쓰지 않는다. 고운 것으로 만들면 옷 욕심이 세고, 귀신이 해害코지하기 때문'이라는 풍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흑의黑衣는 조선 말 국책國策 중 하나인 '의복간소화'로 시작된다. 첫 시작은 1884년(고종 21) 갑신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이며, 당시 국운國運이 무사하지 못한 때라 번거로운 것을 버리고 간편하게 하려는 뜻에서 관리들의 관복을 '좁은 소매[窄袖]의 흑단령黑團領'으로 고친다. 그러나 관습에 젖은 관리나 백성들의 호응이 적자 1894년(고종 31)에 갑오의제개혁 당시 좀 더 강력한 대안으로 입궁할 때 통상복을 '흑색두루마기(흑색주의黑色周衣)'로 한다. 다음 해 1895년 을미개혁에는 단발령斷髮令을 내리면서 공사복公私服을 관민 상하귀천 없이 모두 검정두루마기 하나로 통일시켰다. 이후 검정두루마기는 공직자나 학생에게도 권장되어 통상예복通常禮服이 된다.

1897년 대한제국이 되면서 관복도 구미식歐美式으로, 1899년에는 외교관, 1900년에는 문관의 대례복이 모두 바뀐다. 학생복도 1886년(고종 23) 관립·기독교·사립 서양학문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서양화가 시작되었다. 민간에서는 1904년 천도교 갑진혁신운동으로 흑의단발운동黑衣斷髮運動이 시작된다.

내용 일제강점기 색복장려운동은 시기별로 구실과 강도를 달리하면서 실행되는데,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로 1907년 부인복 개량부터 시작된다. 전통적인 치마·저고리를 바탕으로 양복의 이점利點을 살리는 개량복을 제시하며 색옷를 임의로 입는 것을 권장한다. 1917년에는 흑색 견습생을 모집, 이듬해 경관·순사·견시 등 백색에서 흑색으로 변경된 경찰복을 제



色衣를奬勵

염료무료배급

【령산】 경남창녕군걸곡면마천
덕(慶南昌寧郡吉谷面馬川里)에
잇는마천청년회(馬川青年會)에
서는 색의운동을 철저히하자는
계획하에서 신년벽두부터 다액
의염료를 구입하는한편으로 염
색직공까지 고빙하야 오백여인
구가거주하는동리사람들에게
무료로 염색을하야주어 작금동
리부터일체히 색의를 입게한다

색의를 장려 염료무료배급 | 1930. 1. 13 | 동아일보



색복장려 깃발 | 색복장려운동의 구체적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료 | 일제강점기 | 국립여성사전시관

시한다.

2단계는 1920~1930년대에 생활 개선, 흰옷 폐지, 색복 입기로 강도를 높이면서 여성단체나 학교 관공서 등에서 계몽운동이 시작된다. 1924년 창단된 최초의 여성단체였던 내수단內修團은 1928년에 의생활 개선운동과 여성계몽의 일환으로 흰옷 폐지·색복 입기·단추 달기 운동을 벌인다. 농촌진흥운동 지침에 생활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색옷입기를 장려하고 각 지방에 시달했으나 성과가 부족하자 교육 후 성과보고까지 강요한다.

3단계는 1930년대로 절정기이다. 초반에는 흑색옷 장려 대안으로 염료를 무상·공동분배한다. 이에 두루마기, 군복, 세배꾼 옷에 물들이고,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성까지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적극 호응하는 한편, 평남공업시험장에서는 대동강 수질이 염색에 아주 알맞다는 선전까지 하며 대단한 성과를 자랑한다.

1931~1932년대는 관공리의 흑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며, "원색 의복 입는 것은 취미가 부족한 증거", "제도 개량보다 색의 실행 급무", "백의는 유령복", "백의는 미성복未成服", "백의를 입은 회원 등에다 '색' 자를 묵서墨書", "백의 중독자에게 각인압刻印押을 하자." 등 국민성까지 비하하면서 강력한 행동이 개시된다.

1933년부터는 함흥여자보통고등학교에서 가정주부를 소집하여 색의강습을,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좌담회를 열어 색의 안을 제시하는 등 각 기관마다 다양한 행사가 강제적인 권장에 의해 개최된다. 또한 전라남도 담양과 경기도 청평, 함경도 명천 등에서 흰옷 입은 사람에게 검은색·붉은색 물을 칠하고 시장·관공서 출입을 금지하며, 사방공사 인부채용에도 제외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강제개혁을 실시했다. 이런 '물칠'이나 '물총세례'는 민속조사에서도 "흰색 두루마기 입고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 물총이나 솔가지에 먹물이나 빨강물을 묻혔다가 뿌리곤 해서 흰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꺼먹물(조달리물)을 사다가 들여 입었다."라고 하는 등의 이야기가 이 시기 가장 많이 수집된다.

1934년에는 총독부에서 조선사람 1인당 세탁하는 시간을 통계 내고는 흰옷은 자주 더러워져서 자주 세탁을 해야 하므로 비경제적·비능률적이라는 구실로 부정해야 할 대표적인 옷으로 평한다. 흰옷은 햇볕에 자주 쐬면 자외선의 작용으로 강도가 줄어든다는 등 여러 실험결과를 제시하며 색 있는 옷의 우수성을 주장한다.

4단계는 1940년대 소강기小康期이다. 이 때는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한 전시동원기여서 '여성의 몸빼 입기 장려' 등으로 일단 위세가 꺾인다. 이런 와중에서도 1939년 강원도 강릉에서는 '색복착용 선전주간'을 설정하고 색옷의 보급에 노력함이 보도된다. 한편 검정색 강요에도 불구하고 의례나 남성의 바지저고리, 특히 여름 속옷거리는 흰색이었다. 백의 폐지와 생활 개선을 들면서도 일각에서는 백의가 위생에는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5단계는 색복장려운동色服奬勵運動이 끝이 나게 된다. 1945년 7월 22일 일제강점기 막바지 "흰색은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적기 표식 백의를 입자."라는 이승만 박사의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8월 15일 광복으로 끝난다.

특징 및 의의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1905년 대한제국 정부에서 의복개량화의 일환으로 흰옷 대신 흑의 입기를 권장하였으나, 을사늑약의 반대 시위로 백의 착용이 확산된다. 충청북도 진천에서는 단발령과 흑의 착용 훈시를 하자 영국 선교사가 "한국 종래의 관습을 고치는 것은 크게 불가하다. 학생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부당성을 지적하고 투쟁하였다.

'색복'이란 말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들어 낸 일식신조어日式新造語로 우리에게 낯선 용어이다. 이는 '색복장려운동', 즉 검정 옷 입기에 초점을 두면서 한복과 백의민족의 정통성 말살 및 탄압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선일치, 나아가 속국화의 계략까지 담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의생활민속(고부자, 금강지-하, 충청남도·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3),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이만열, 지식산업사, 1991).

필자 고부자(高富子)

생고사
生庫紗

정의 생견사生絹絲로 제직한 무늬가 있는 얇고 투명한 견직물.

내용 '고사庫紗'의 어원은 청대淸代에 궁중 수요를 위하여 조정의 창고에 거두어들이던 직물이라는 뜻에서부터 '사紗'에 '고庫'를 붙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고사의 종류에는 생고사生庫紗와 숙고사熟庫紗가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한양가>(1884)와 1882년 이전에 쓰인 『탁지준절度支準折』 등의 문헌에서 '생고사'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야 『순종실록純宗實錄』이나 「발기」 등에 그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생고사를 비롯한 고사의 사용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발기」에 기록된 사직물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면 생고사나 숙고사는 갑사나 은조사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편이다.

좀 더 구체적인 용도를 보면 『순종실록』이나 「발기」 등의 문헌에 숙고사와 생고사는 속옷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남성용의 배자·쾌자·주의와 여성용의 소고의·치마와 같이 겉옷으로만 주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매우 고급 견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기」에 기록된 생고사무늬에는 인접문과 별문이 있다. 또한 일반 생고사 외에도 '금행생고사', '별문생고사' 등의 독특한 생고사 명칭도 기록되어 있다.

「의대발기」에는 경술년(1910) 8월 황후의 생신에 남색 생고사로 겹치마 한 벌을, 양남색 생고사로 홑치마 두 벌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외에 옥색·분홍·회색의 생고사로 소고의·배자·쾌자·주의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다. 1915년에 당시의 직물을 설명한 문헌인 『조선휘보朝鮮彙報』에도 생고사 명칭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된 옷감임을 알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조선 말기 궁중 유물에도 왕의 단령과 왕비의 원삼·치마·저고리 등에 생고사를 사용한 의복들이 다수 남아 있다.

고사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얇은 견직물이다. 평직平織과 익조직搦組織을 적절히 조합하여 무늬를 제직한다. 생고사는 바탕이 익조직, 무늬가 평직 혹은 능직인 것이며, 반대로 바탕은 평직, 무늬가 익조직인 것을 '숙고사'라고 한다. 생고사는 품질이 좋은 생사生絲를, 숙고사는 품질이 좋은 정련한 연사練紗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쓴 『조선朝鮮』과 같은 문헌에서는 생고사와 숙고사 모두 경사經絲는 생사를, 위사緯絲는 연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문헌이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직 방법이나 사용한 실의 종류 때문에 생고사는 숙고사보다 더 얇고 투명하여 좀 더 시원한 하절기 직물로 여겨진다. 생고사는 견직물로 제직하였지만 촉감이 까슬까슬하고 많이 비쳐 보여서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깨끼로 옷을 지어 여름철 의복으로 많이 사



생고사 | 국립민속박물관

용하였다. 전통 유물 중에는 옷감이 얇은 점을 활용하여 안감에 어울리는 색을 받쳐 주어 혼합된 배색 효과를 연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댕기를 만들 때에 검은색 생고사 겉감을 쓰고 안감에는 홍색 명주를 넣어 자적색 효과를 냈다.

특징 및 의의 생고사는 20세기의 유물이나 현재 전통 옷감 시장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늬는 원형의 수壽 자와 덩굴에 달려 있는 호리병박무늬가 구성 된 도안된 형태이다. 이와 동일한 무늬가 시문試紋된 1940년대 옷감 유물 중 직물의 끝부분에 '별문사別紋紗'로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발기」에 기록된 별문 생고사의 무늬를 유추해볼 수 있다. 생고사는 투명해 보이는 조직과 무늬가 아름답기 때문에 현대까지도 많이 생산되고 애용되는 전통직물이다.

참고문헌 純宗實錄, 朝鮮, 발기.

필자 조효숙(趙孝淑)

생활한복
生活韓服

정의 개량한복으로부터 전개되어 1980년대에 한복의 생활화를 위해 만든 한복.

내용 생활한복生活韓服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사회적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자각하는 각성이 커진 시기에, 전통문화를 재해석하여 변화를 시도하면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 한 여성단체에서는 '한복을 생활복으로 입자'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1984년에 이리자는 '개량한복 연구 발표회'를 가지면서 '개량된 생활한복'이라 명명하여 생활한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생활한복의 시작은 이처럼 한복 패션계를 중심으로 한 '생활한복' 작업으로, 초기에는 복고 성향이 강하여 개량한복의 형태를 답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개화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점차 전통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해 나가면서 전통성과 더불어 현대미가 강조되었다. 즉,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등 과거의 다양한 스타일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시도와 더불어, 활동복, 일상복, 직장복, 종업원의 특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에 나서 한복의 생활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무렵 대학가에서도 우리 옷 입기 운동이 번지면서 시대에 맞는 '우리 옷' 개발을 전개하였다.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된 민중한복으로서의 생활한복은 1984년부터 상품화되기 시작되었고, 바지저고리와 치마가 통치마인 치마저고리로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고수하였다. 이는 이념을 강조하고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투쟁적이며 서민적인 민중복의 전통 형태에 집착한 것인데, 스타일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는 못했다.

이처럼 생활한복에는 전통복식과 유사한 복고주의적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1985년부터 시작된 창조적인 현대화 작업 역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및 개화기의 전통적인 한복 형태의 특징을 모방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중반의 생활한복은 복고풍의 영향으로 과거의 스타일을 모방하면서도 이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함만을 강조하거나 전통한복 형태를 모방하는 데 그쳐 현대적인 미적 감각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미숙하였다. 또한 서양복 업계 종사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이후 서양복 구성 요소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기능성과 다양한 변화도 있었지만, 전통미를



① 까치 차림옷 | 20세기 ② 누비 두루마기, 주름 치마 | 20세기

생활한복 | ① 우리들의 벗, ② 돌실나이

잃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생활한복은 1995년 이후 전통적인 미와 더불어 현대적인 미를 동시에 지니는 한복으로서 그 완성도를 높여 갔다. 즉, 자연주의와 복고풍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실루엣과 세부 디테일에 있어서 복고풍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통성과 현대성의 양면 가치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속옷이 겉옷으로 드러나게 하는 해체 패션,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절충하는 한편 남성성과 여성성의 양면적 가치를 표현하는 등 포스트모던 경향의 다원적 절충 현상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특징 및 의의 전통이란 옛것의 재현이나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전통으로 탄생함으로써 오늘날의 고유문화로 정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전통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요소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남아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생활한복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전통으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현대의 전통한복이 예복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한복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에 비해, 생활한복은 일상복과 예복으로 구분되어 실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착용되고 있다. 아직 종종 개량한복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개량한복이 활동성·기능성·경제성 등의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에 비해, 생활한복은 그 외에 전통적 이미지와 현대적 미의 절충을 통하여 개성을 추구하고 있어 현대 패션의 다양성 중 하나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고정민·채금석, 한국의류학회지23-5, 한국의류학회, 1999), 생활한복의 디자인 현황과 고급화 방안 연구(양정은·유송옥, 복식50-3, 한국복식학회, 2000), 생활한복의 형성 배경과 그 내용적 특성에 대한 고찰(정혜경, 복식51-2, 한국복식학회, 2001), 전통(에드워드 쉴즈, 김병서 역, 민음사, 1992),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황의숙, 복식26, 한국복식학회, 1995),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전망(김은정·안명숙·양숙향, 복식39, 한국복식학회, 1998).

필자 정혜경(鄭惠敬)

서양사
西洋紗

정의 가는 무명실로 얇게 평직으로 제직한 면직물.

내용 19세기 고종 때 상궁의 한글 편지 내용에 "서양사西洋紗 세 필과 서양목西洋木 한 통만 드려 보내 주시고 …… "라는 기록이 있다. 「무술구월아기씨돌생신의복발기」에는 영친왕의 돌복으로 아청 인문사 복건, 남송숙갑사 사규삼, 양남 별문갑사 쾌자, 분홍 삼팔주 잔누비저고리, 두록 장원주 잔누비 동다리, 옥색 수화주 저고리, 백 삼팔주 잔누비 바지, 백 삼팔주 쟁친 민바지와 함께 백색 서양사 잔누비 바지가 기록되어 있다. 1847년(헌종 13) 김재청金在淸의 딸 김씨를 경빈으로 책봉하여 가례를 올린 「의대품안」에서 조대비가 헌종과 경빈에게 내린 복식과 그리고 1893년 의화군義和君이 참봉參奉 김사준金思濬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할 때 내린 「계사시월길례시의복발기」에서 분홍·다홍·백색의 서양사와 서양목을 사용한 적삼이 기록되어 있다. 1883년(고종 20) 덕온공주의 남편인 남녕위 윤의선 회갑에 관한 「계미정월십이일남녕위대감회갑의차발기」에서 서양사 한 삼을 하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서양사는 조선 말기의 「의대발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紗의 직물들 중에 기록의 빈도가 가장 높고 수량도 많다. 「의복발기」의 경우 「의대발기」보다도 서양사의 기록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서양사는 사용 빈도는 높으나 임오년(1882) 순종 가례 때에 속바지와 단내의로 각각 200건과 100건이 사용된 것을 비롯하여 속바지·너른바지·단내의 등 속옷의 비중이 전체 수량의 82.7%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주로 속옷용이나 안감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사는 올이 가늘면서도 풀을 강하게 먹여 빳빳한 질감을 가진 얇은 평직平織의 면직물이다. 속옷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겉옷으로는 남성의 바지에도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서양사는 평직으로 제직되었음에도 명칭에 '사紗'가 붙어 있다. 일찍이 중국의 한대漢代에서부터 '사紗'는 매우 성근 평직으로 제직한 직물을 일컬었다. 가는 실로 성글게 짠 평직은 견뢰도堅牢度가 약하기 때문에 송대宋代부터는 두 올의 인접한 경사經絲를 꼬아 주면서 위사緯絲를 위입한 오늘날의 익조직과 같은 직물도 '사'라고 호칭하기 시작하면서 평직의 사직물과 익조직의 사직물이 혼용되어 왔다. 익조직으로 제직하였지만 실제 직물의 외관은 마치 성근 평직 같이 보이므로 점차

견뢰도가 약한 성근 평직의 사직물은 생산이 줄어들고 익조직의 사직물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의 자료는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익조직의 사직물이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직물은 익조직의 직물로 호칭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초기에 사용된 서양사를 비롯하여 아사·추사·관사·왜사 등의 일부 직물 명칭에서는 성근 평직으로 제직하였지만 '사'라고 호칭하는 옛 관습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적삼에 관한 연구(박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조효숙(趙孝淑)

석
腊

정의 흙이나 습기로 인해 젖지 않도록 바닥에 나무를 댄 겹바닥 신.

내용 '석'이라는 명칭은 '말리다'라는 뜻의 '석腊'의 의미이다. 후한後漢 말 유희劉熙가 『석명釋名』에서 "석舃은 석腊이다. 예禮를 행할 때 땅에 오래 서 있어서 진흙이 묻거나 습기가 차기 때문에 바닥을 겹으로 해서 마르게 한다舃, 腊也. 行禮久立地, 或泥濕, 故複其末下, 使乾腊也."라고 하였다.

신은 볼을 감싸는 신울과 바닥으로만 구성된 형태와 종아리를 감싸는 신목까지 달린 형태로 대별된다. 전자는 '리履'나 '혜鞋'로 통칭하고, 후자는 '화靴'로 통칭한다. 신울만 있는 리는 다시 바닥 구조를 겹으로 한 것과 홑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홑바닥 신은 일반 명칭인 '리'라 하고, 겹바닥 신은 특별히 '석'이라 한다.

석은 의례를 행하기 위해 특정 예복을 갖출 때 신는 전통시대 최고 등급의 신이다. 의례를 행할 때 땅에 오래 서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바닥에 나무를 대어 땅에서 한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한 것이다. 석을 비롯한 리에는 억繶·준純·구絇·기綦 등의 장식이 있다. 억은 신울과 신창을 꿰맨 솔기 위에 올린 끈이고, 준은 신 입구에 두르는 가선이며, 구는 신코이다. 기는 발뒤꿈치에 다는 끈으로, 구에 관통시켜서 묶는다.

석은 신울의 색에 따라서 명칭을 정한다. 예를 들어, 붉은색 신울의 석은 적석赤舃, 푸른색 신울의 석은 청석靑舃으로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석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평양 낙랑 유적지에서 나무 바닥을 댄 신이 발견되었고, 문헌에는 고려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고려시대 석은 왕과 신하의 면복(제례 때 착용한 관복), 왕의 원유관복(신하들의 하례를 받을 때 착용하는 복장), 왕비의 적의(왕비와 왕세자빈을 비롯하여 왕실 적통의 여성 배우자들이 착용하는 법복) 기록에서 나타난다. 면복에는 적석, 원유관복에는 흑석, 적의에는 청석을 신었다.

조선시대에는 왕·왕세자·왕세손·대비·왕비·왕세자빈·왕세손빈이 신고, 대한제국시대에는 황태후·황제·황태자·친왕·황후·황태자비가 신었다. 예외적으로 사도세자의 배우자인 혜경궁 홍씨와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여흥 부대부인이 신은 기록이 있고, 대한제국시대에 순헌황귀비 엄씨가 신은 기록이 있다. 황제와 왕 등 남자들은 면복과 원유관복을 입을 때 공통적으로 적석을 신었다. 여자용 석은 적의를 입을 때 신는 것이 기본이지만, 1718년 이후에는 상례喪禮의 습襲 절차에 장삼長衫을 입을 때도 사용했고, 조선 말기에는 원삼圓衫과 노의露衣에도 착용하는 등 변용 양상이 나타난다. 조선의 대비는 자색 적의에 적석, 왕비는 대홍색 적의에 적석, 왕세자빈과 왕세손빈은 아청색 적의에 흑석, 혜경궁 홍씨는 천청색天靑色 적의에 흑석, 대한제국 황후와 황태자비는 심청색 적의에 청석을 신었다. 습에 장삼과 함께 쓴 석은 적석과 흑석이 있다. 이 외, 여흥부대부인은 홍색 노의에 흑석을 썼고, 엄귀비는 1903년 황귀비 책례 시 홍색 원삼에 청석을 쓰고 1911년 사망 시 장삼에 적석을 썼다.

석의 형태는 본래 신목이 없이 신울만 있어야 하지만, 중국 송나라 조정에서 관원들이 화와 리를 번갈아 신다가 1171년(효종 건도 7)에 양자의 특징을 결합하여 신목이 있고 억·준·구·기 등의 장식이 달린 신을 만든다. 또 바닥도 나무를 대지 않는 형태로 정착한다. 조선시대 석도 1403년(태종 3) 명나라에서 신목이 있는 형태가 들어와 계속 사용되었다. 그 후, 정조와 순조 때



영친왕비 청석 | 길이 25 높이 5.9



영친왕비 청말 | 길이 33

석·말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에 신목이 없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순조 이후 신목이 없는 형태가 정착된다. 바닥은 나무가 없는 구조가 계속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형태와 명칭에 있어 특징을 보이는 것은 영조·정조·순조 연간이다. 이 시기 석은 위쪽에 고리를 달아 끈을 꿰는 형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신목을 없애고 신울만 남기면서 그 고리와 끈은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각 부분의 명칭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본래의 명칭과 조선에서 만들어진 명칭이 혼용되었다. 후기의 석은 겉, 안, 끈, 끈을 꿰는 작은 고리, 도리와 술, 창昌 누빔 등으로 구성되고, 그 명칭은 겉과 안은 '표리表裏', 끈은 '영자纓子' 혹은 '기綦', 작은 고리는 '소구자小彄子', 도리는 '회이回伊' 혹은 '준純', 술은 '소올蘇兀' 혹은 '수아綬兒', 실로 바닥[昌]을 누빈 것은 '눌비음訥非音' 즉 '누빔'이라 했다.

남녀의 석은 기본 형태가 같지만, 여자용에는 발등 장식이 추가된다. 중국 금나라 때부터 발등에 진주 장식이 등장하는데, 조선에서는 한쪽에 3알씩 총 6알을 올린다. 또 진주 아래에 오색 혹은 홍색과 녹색실로 만든(17세기 전반까지 오색실, 이후 홍색과 녹색실) '국화동菊花童'이라 부르는 넓적한 술장식을 받친다. 이 국화동과 진주는 영조 때 『국혼정례國婚定例』와 『상방정례尙方定例』 편찬 이전까지는 상황에 관계없이 같은 형태였다가 정례 편찬 이후 혼례·제례·상례에는 국화동만 올리고, 존숭尊崇과 진연進宴에는 국화동과 진주를 모두 올리는 것으로 바뀐다. 대한제국시대에는 진주와 국화동 장식이 없어지고 남자와 같은 방울술 장식을 올린다.

석의 재료는 주로 겉감과 가선장식에 단緞, 안감에 라羅나 증繒, 겉감과 안감 사이의 배접은 종이[糊紙], 국화동과 창누빔은 견사繭絲를 썼다.

석을 신을 때는 안에 버선, 즉 말襪을 신는다. 적석에는 붉은색의 적말赤襪을 신고, 대한제국시대 황후와 황태자비는 청석에 푸른색의 청말靑襪을 신었다.

현재 석 유물은 대한제국시대 황제의 적석 한 쌍(엘칸토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청석 한 쌍(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영친왕비의 청석 한 쌍(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이 있다. 버선은 영친왕비 청말 두 쌍(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석은 본래 신목 없이 신울만 있는 형태이지만, 오랜 역사적 변천 속에 때로 신목이 있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예학禮學의 심화와 함께 고례의 형태대로 신울만 있는 형태로 회복되었다. 이 시기 구조와 명칭 등에 있어서도 조선만의 특징을 지닌 국속화國俗化가 나타나기도 한다. 석이 일반 신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닥을 겹으로 하고 그 사이에 나무를 댄다는 것인데, 이 역시 후대에 나무가 없는 구조로 정착되어 조선에서도 계속 사용된다.

전통시대에는 의례와 예복의 등급에 따라 신의 등급을 차별화했고, 석은 그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신이었다. 등급이 높은 석은 특수층에서만 착용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왕실의 특수 신분에만 국한하여 착용되었다. 즉 석은 의례와 예복의 종류 그리고 신분에 따른 엄격한 차별이 존재하는 신이었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尙方定例, 儀禮, 周禮, 국화동에 진주 올리고(최연우, 이화여자대학교 담임복식미술관, 2016), 대한제국시대 석의 고찰 및 한국 석의 형태적 특징의 유래(최연우, 복식63-8, 한국복식학회, 2013), 면복-군주의 덕목을 옷으로 표현하다(최연우, 문학동네, 2015), 석에 적용된 회차와 수차의 배색원칙(최연우, 복식64-6, 한국복식학회, 2014), 조선시대 석 연구(최규순, 복식63-2, 한국복식학회, 2012), 中國歷代帝王冕服硏究(崔圭順, 東華大學校出版社, 2007).

필자 최연우(崔然宇)

석회
石灰

정의 생석회(산화칼슘, CaO)와 소석회(수산화칼슘, Ca^{OH}_{2})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염색할 때 쓰는 재료.

내용 조개·굴·꼬막껍질을 가마에 넣고 1,200℃ 이상

에서 3~5일 정도 구워 가루로 만들어 염색에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껍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주성분인 칼슘의 순도가 높아진다. 이 고순도 칼슘은 흡수력이 강하고, 이온화 경향도 강하다. 또한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천연 염색을 할 때 반응성이 좋아진다. 주성분은 수산화칼슘이다.

특징 및 의의 쪽 염색을 할 때 불용성 색소 인디고를 분리하여 침전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흡수력이 강한 석회가루가 쪽 염료를 머금고 앙금이 되어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염색을 하기 위해 잿물을 첨가하는데, 석회가루는 이온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잿물과 반응하면서 머금었던 염료를 다시 방출한다.

참고문헌 전통 속에 살아 숨 쉬는 첨단 과학 이야기(교학사, 2012),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선매염
先媒染

정의 염색하기 전 피염물인 천이나 실 등에 염료에 맞는 매염제를 선택하여 따뜻한 물에 녹여 매염을 미리 하는 방법.

내용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꼭두서니는 "꼭두서니 나무뿌리[茜根]를 쇠를 대지 말고 찧어 반礬을 섞어서 포백을 물들이면 매우 선명하면서 오래되어도 변색되지 않는다.紅色 茜根勿犯鐵搗研和礬 染布帛甚鮮而經久不瀹."라는 기록에서 전통적으로 선매염을 했다는 근거를 알 수 있다.

염료와 섬유 사이에 염착력이 부족할 때 선매염을 한다. 『규합총서閨閤叢書』나 『임원경제지』, 『상방정례尙方定例』의 염색 근거를 보면 자초뿌리와 꼭두서니 염색은 잿물[灰汁] 선매염을 하였다. "토주염색吐紬染色에는 매 필당 지초 8근, 황회목 20근, 매실 1근으로 한다. 사염색絲染色에는 매 필당 지초 13근, 황회목 1동同(한아름)으로 한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황회목(노란재 나무)을 태워서 선매염한다는 의미이다.

염료가 섬유에 결합력이 약하거나 물들여도 계속 염색물이 빠질 때는 선매염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매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선매염을 하는 염료는 상기의 자초, 꼭두서니 이외에 소방목·코치닐(연지충)·자광Lac은 명반 등의 알미늄 매염제를 천 무게의 5~1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리 피염물을 온탕에 담갔다가 명반을 따뜻한 물에 녹인 후, 그 액에 피염물이 충분히 담길 정도의 용액에 30분 정도 처리한 후 충분히 수세한 다음 건조한다. 선매염에 쓰는 매염제로 명반이나 잿물을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오배자나 석류, 뽕나무 뿌리 추출액이나 감물을 선매염으로 사용한 후, 다른 염료와 상염(우덮기)으로 복합염을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尙方定例, 규합총서(정양완, 보진제, 1975), 임원경제지(서유구, 보경문화사, 1983), 한국전통식물염색(김지희, 영남전통식물염색 보존회, 1993).

필자 김지희(金芝希)

선염
先染

정의 색천이나 색실을 생산할 때 원료 상태에서 물들이는 일로, 원단을 만들기 전에 원사를 염색해서 제작하는 방법.

내용 선염은 한자로는 先染, 渲染으로 표기하는데, 뜻이 각각 다르다. 선염先染은 천을 물들이기 전 솜이나 실을 염색하는 것이다. 선염渲染은 바림이라도 한다. 이 선염법의 뜻은 색의 농담이나 짙은색을 칠하는 그림 기법 중 하나이다. 그리는 방식은 화면이나 천에 물을 뿌리거나 또는 칠한 후 채 마르기 전에 채색해서 몽롱한 묘미를 나타내는 법으로, 영어로는 그러데이션gradation이라 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기술하는 선염先染은 원료의 특성에 따라 면은 사염뿐이고, 모직물은 모염毛染·톱염·사염絲染으로 염색하는 것이다. 양모인 앙고라와 캐시미어는 선염을 통해서만 염색이 가능하다. 선염은 후염보다 균일한 염색이 가능하고, 염색 견뢰도도 강하다.

선염은 염색할 시기에 직물을 짜기 전, 즉 섬유의 원료 상태나 모, 솜인 톱top 상태와 실 상태에서 염색하

는 것을 말한다. 선염한 실로 직물을 제직하는 경우, 무지無地뿐만 아니라 줄무늬나 교차무늬를 모두 제직할 수 있다. 섬유를 짜기 전에 염색하는 일로 즉 섬유 염색, 실 염색 방법, 단색천이나 색실을 생산할때 원료상태에서 물들이는 것을 말한다. 섬유 염색일 때는 청지인·데님·깅엄(깅감gingham, 격자무늬 등 바닥무늬가 짜여진 무명)·줄무늬직물·체크무늬직물, 무늬용 씨실이나 날실을 사용한 문양 직물이 될 수 있다. 실 염색으로 짜면 줄무늬·격자·무늬직 등이 된다. 실의 단계에서 염색한 원사를 사용하여 짠 직물은 색채가 다양한 배색이 가능해 고급품이 많다.

선염에 비해 후염은 천에 날염·방염·공예염 등의 후염으로 선염보다 견뢰도는 낮으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한지염이나 양모 펠트염인 경우 한지는 한지죽으로 선염하여 닥풀(촉규화뿌리)을 이용해 종이를 뜨거나 형을 만들어 용기형의 입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양모인 경우 톱 상태에서 선염한 후 비누를 이용하여 압축·축융하여 펠트상의 양탄자, 벽장식, 의상, 입체물을 제작한다.

참고문헌 고부가가치 천연염색 문양직물개발(김지희 외, 산업지원부, 1966~1999), 날염디자인(김지희·정이상, 조형사, 2002), 색채용어사전(박연선, 국립국어원, 2007).

필자 김지희(金芝希)

설빔

정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새로 단장하여 입는 명절 옷.

개관 설빔을 언제부터 입었는지 확실한 역사를 알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 세시기에 나타난다. 유득공柳得恭(1748~1807)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 "남녀가 모두 새 옷을 입는데 이를 세장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김매순金邁淳(1776~1840)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새로 만든 의복 한 벌을 입는데 이것을 세비음이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가장 후대에 나온 홍석모洪錫謨(1781~1850)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남녀 어린이들은 모두 새 옷으로 단장하는데 이것을 세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세 편의 세시기 내용은 거의 같은데 다만 『동국세시기』에는 남녀 어린이들이 입었다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설빔이 점차 어린이들의 전용처럼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논거는 없다.



음력세모풍경: 설빔감 뜨는 광경 | 1931. 2. 15 | 동아일보

이처럼 조선 후기 자료에 설빔에 대한 기록이 있음은 이미 그전에도 설 명절이면 설빔을 입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근대에도 남녀노소가 설빔을 입는 풍속은 오래 지속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간간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사한 색옷은 어린이와 젊은 여자들이 즐겨 입었다.

내용 설빔을 한자음으로 세장歲粧 또는 세비음歲庇蔭이라 한다. 여기 세歲는 새해를 의미하는 말이며 비음은 한자 옥편에 따르면, 차양이나 나무 그늘이 비와 이슬을 막아주듯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싸서 보호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뜻이 어떻게 옷과 관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설빔은 설과 비음이란 말이 합쳐진 말이다. 원래 비음은 사전적인 해석과 달리 명절이나 잔치 때 새 옷으로 치장하는 일을 일컫는 말인데, 이 '설비음'이 줄어서 설빔이 되었다고 한다. 곧 설빔은 설날에 새 옷을 차려입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 뜻이 점차 변화되어 명절에 입는 새 옷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삼국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정조正朝에는 신년하례를 하는 등 각별하게 보냈으니 새 옷을 입거나 또는 입던 옷을 깨끗하게 다듬어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장, 곧 설빔이란 용어는 후대에 붙여

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설빔하면 우선 여자들이 입는 색깔 고운 한복이 연상된다. 예전에는 설빔을 비롯하여 일상의 옷은 모두 집에서 장만했다. 설빔은 한해가 시작되는 설날에 입는 옷이라 그 준비도 각별했다. 주부들은 밤을 새워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해서 섣달그믐 무렵이면 설빔 준비를 끝낸다. 설날은 정월로, 계절상 봄이지만 아직 겨울 날씨여서 겨울 옷감을 쓴다. 상류층에서는 비단을, 서민들은 무명에 물감을 들여 만들었을 것이다. 설날 아침이면 이렇게 만든 설빔을 갖춰 입고 조상 차례를 지낸다. 근대사회 들어 '비단 저고리에 뉴똥 치마'는 여자 설빔의 대표가 되기도 하였다.

설빔으로 남자 어른은 바지와 저고리, 두루마기, 여자 어른은 치마와 저고리 그리고 두루마기를 준비한다. 남자들은 덧저고리, 여자들은 배자를 함께 하기도 한다. 젊은 여자들은 노랑저고리 또는 녹색저고리에 붉은 치마와 같이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 호사를 했다. 여자 어린이들의 색동저고리는 설빔을 대표하는 옷이었다. 색동은 음양오행과도 관련되어 길상吉祥을 상징한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성성을 지녀야 하는 혼례복이라든가 아이의 돌복, 무복巫服과 같은 의례복에서는 색동을 쓴다. 설빔도 일종의 의례복이어서 벽사辟邪의 의미도 담고 있다. 설빔은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뿐 아니라 버선, 그리고 신발에 이르기까지 일습을 갖춘다.

근대 이후 만들어진 노래 중 윤극영尹克榮(1903~1988)이 1924년에 작사·작곡한 <까치 까치설날은> 동요는 설빔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까치 까치설날은 어저께구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들이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 받기 좋아하셔요."

특징 및 의의 설빔은 설 명절을 맞아 입는 명절복이면서 일상의 옷과 구별되는, 신성한 의례복이다. 따라서 설빔이라는 의례복은 길상을 상징하면서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묵은해를 소거하고 경건한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1000가지(이재운·박숙희, 예당, 2013), 한일영 겸용 대자원(장삼식, 집문당, 1984), 한중일영 한자옥편사전(임광애, 민중서관, 2004).

필자 김명자(金明子)

설피
雪皮

정의 눈 위를 다닐 때 눈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발에 고정하여 신는 덧신.

내용 설피雪皮는 '살피', '눈신'이라고도 하며 눈 위에서 신는 신발의 일종이다. 함경도, 강원도 등 강설량이 많은 산간 지역의 사람들이 눈이 많이 내린 곳이나 비탈에서 빠지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신발에 덧대어 신었다. 특히, 설피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려 멧돼지 등 수렵에 나설 때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 수렵꾼들이 신었다. '설피'는 노간주, 물푸레, 굴밤나무, 참나무 등의 나뭇가지에 열을 가해 타원형으로 휜 다음 그 가운데 다래덩굴을 이二 또는 정井 자 모양으로 엮어 발판을 만든 것이다. 착용 방법은 설피를 지면에 놓고 그 위에 신발을 올려 삼베 끈이나 소가죽, 나무껍질 등을 감아 고정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설피는 10년쯤 자란 물푸레 또는 노간주나무로 만든다. 이들 나무는 잘 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설피를 만드는 데 제격이며, 산간 지역 주변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설피용 나무는 껍질을 벗기고 다듬은 다음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불에 쬐어 천천히 힘을 주어 가며 구부려 타원형으로 만든다. 나무를 물에 담그는 것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잘 휘어지기



길이 42 너비 29.5 | 1950년대 가로 43 세로 16.5

설피 | 국립민속박물관

때문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부러진다. 타원형으로 만들어지면 겹치는 곳을 칼로 다듬은 다음 싸리가지 껍질을 쪼개어 겹친 곳의 두 부분에 가로질러 붙들어 맨다. 그다음 삼베 등의 끈으로 둥근 테 복판을 엮어 매고 신발 끈을 설피에 부착한다. 설피의 일반적인 크기는 길이가 40㎝, 폭은 20㎝ 내외 정도이지만,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설피가 큰 것이 좋다. 눈과 닿는 접촉 부분을 넓게 해서 눈 속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피는 볼이 크고 넓어 안정성이 높 은 반면, 발을 벌려 '之' 자로 걸음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든다. 설피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시베리아, 북미 선주민들도 사용하였다. 형태는 다르지만 서양의 아이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겨울철 눈과 세시풍속의 전승양상(장정룡, 강원민속학28, 강원도민속학회, 2014), 산촌(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정연학(鄭然鶴)

세조대
細條帶

정의 실을 엮어 끈을 짜서 만든 것으로 얇고 좁으므로 세조대라 하며, 도포나 전복, 창의에 착용하는 가느다란 다회多會를 쳐서 만든 실띠.

내용 세조대의 형태는 가는 실띠의 양끝에 딸기술이나 봉술을 매단 모양이며, 조선 초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도아, 세조아, 세도대, 사대라고도 불렀다. 계급에 따라 당상관堂上官은 홍색 또는 자색을, 당하관堂下官은 청색 또는 녹색을 사용하여 품위를 가렸으며, 서민은 흑색을, 상제喪制에는 백색을 사용하였다. 왕도 평상시에 도포를 입을 때는 금사세조대金絲細條帶를 하였다. 1743년(영조 19)에는 구제면복舊制冕服과 강사포絳紗袍에 큰 띠와 함께 작은 띠로 심청深靑세조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편복便服 포袍에 사용되었던 세조대는 한말에 이르러 도포, 창의 등 광수의廣袖衣가 폐지되고 두루마기가 일반화하면서 사용이 줄어들어 도포와 함께 가제家祭의 제복祭服에만 사용되었다. 세조대



세조대 | 조선 | 경기도박물관



권기수 초상 | 국립전주박물관

의 길이는 370~400㎝ 정도이며, 끈목의 양쪽 끝에 딸기술이 달렸는데 왕이나 왕세자·왕세손은 금사세조대를 하였다.

세조대는 여러 겹으로 합사한 명주실로 짜서 만든 것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짠 것을 다회라고 한다. 둥글게 짠 동다회와 폭이 넓고 납작하게 짠 광다회廣多繪가 있다. 광다회는 주로 군복으로 사용되었던 철릭이나 도포, 전복 위에 착용했으며 대개 양쪽 끝을 풀어 술을 만들었다. 동다회는 주로 노리개·유소·주머니 끈 등을 맺

는데 사용하였다. 세조대는 이러한 방법으로 짠 다회 중에서 특히 좁게 짠 것을 지칭한다. 광다회가 띠 모양인데 비하여 세조대는 끈 모양이다.

세조대의 모습은 초상화에서도 확인되는데, 초상화는 색상이 남아 있고 착용법까지 확인할 수 있어 좋은 자료다. 초상화에서 확인한 세조대는 모두 편복便服차림에 착용하였다. 색상은 붉은색, 자색, 흑색이 있고, 술은 심득경沈得經(1673~1710)의 초상화에서 방망이술이, 홍선대원군과 권기수의 초상화에서 딸기술이 확인되었다. 강세황姜世晃(1713~1791)의 자화상에서 보이는 술은 현재 전해지는 전통 술 중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이 술은 봉술머리의 봉 부분이 상하로 길어진 형태로도 보이며, 그 굵기가 점차 가늘어져 끈목과 연결된다. 유물에서는 딸기술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외의 다양한 술이 장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리에 두를 때는 고를 만들지 않고 매듭지어 늘어뜨리거나, 고를 한 개, 또는 두 개 만드는 모습이 보였다. 남은 가닥을 늘어뜨릴 때는 양쪽 가닥의 길이가 같게 나란히 늘어뜨린 것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허리띠의 일종으로 사대에 속하며 실띠, 술띠라고도 한다. 도포의 허리 부분에 둘러서 앞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묶는 띠로 양쪽에 술이 달려 있어서 술띠라고도 한다. 계급을 구별하여 다양한 색상의 가느다란 실로 만들어서 허리에 찼다. 세조대는 원다회圓多繪·광다회·각대角帶·요대腰帶 등과 함께 면복이나 도포·전복 등에 착용하던 띠로 품계에 따라 색을 달리하였다. 끝에 딸기술이나 봉술을 매달아서 마무리했다.

세조대는 조선시대 남자들의 겉옷을 여미는 데 사용했던 사대 중 하나이다. 대개 허리보다는 높게 가슴 부분에 매어 입었다. 길이는 짧은 것은 190㎝ 정도에서 긴 것은 4m 이상 되기도 한다. 허리 부분이나 가슴에 둘러매고 끝부분에 딸기술이나 봉술을 매달아 앞가슴에 길게 늘어뜨렸다.

참고문헌 우리옷 이천년(유희경 외, 미술문화, 2001), 조선시대 조대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법에 관한 연구(김시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안명숙(安明淑)

세탁
洗濯

정의 의복의 착용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한 더러움을 없애 깨끗하게 만드는 일.

역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하천에서 세탁을 하였다.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풍부하고 질 좋은 수자원으로 인해 세탁 용수의 보급에 문제가 없어 의복을 청결히 하는 습속이 있었다. 특히 하얀 옷을 즐겨 입었던 우리나라는 유색옷에 비해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과 조선조에 특히 강조된 청결을 중시하는 관습이 결합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복 관리법을 발전시켰다.

20세기 초반까지도 겨우내 빨랫감을 모았다가 날이 풀리면 강가나 냇가에 나가서 빨래를 했다. 물이 좋고 빨래하기 좋은 강가나 냇가에는 어느 곳이나 '마전터'가 있었다. 서울 성북동 골짜기는 마전(표백)이 성행했으며, 지금도 이 일대를 마전터라고 부른다. 이곳이 마전터가 된 것은 1765년(영조 41) 영의정 홍봉환이 서울 각 시전市廛에서 파는 포목을 표백하는 권리를 이곳 주민에게 주도록 왕에게 건의하면서부터였다.

1920년대부터는 30~40전의 삯을 받고 남의 빨래를 해주는 '빨래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내용 세탁은 위생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옷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행해졌다. 전통적인 세탁 방식은 의복의 색채, 의복의 종류, 오염의 종류 및 소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세제의 종류와 오염 제거 방식 등 다양한 세탁 방식이 있다. 때에 찌든 빨랫감은 잿물에 삶아 빤 후에 여러 번 물에 적시면서 햇볕에 널어 바랜다. 빨 때에는 돌 위에 빨래를 놓고 빨래방망이로 두드리고 발로 밟아 빠는데, 방망이를 너무 힘껏 두들기면 빨랫감이 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두들겼다. 깨끗하게 헹군 빨랫감을 양손으로 비틀어 힘껏 짜서 탈수가 되면 널어 말린다. 명주나 모시는 비틀어 짜지 않고 손으로 눌러 짠다.

빨래한 뒤 건조하는 장소는 근처의 바위나 땅, 산자락에 널기도 하고, 마당에 매어 놓은 빨랫줄에 널기도 했다. 대부분 빨래는 햇볕에 말리기 때문에 빨래는 날


① 김홍도 | 빨래 중 부분 | 조선 후기


② 청계천 빨래터 | 1930

세탁 | ① 국립중앙박물관, ② 국립민속박물관

이 맑을 때 널며, 빨랫줄의 중간에는 바지랑대를 세워 빨래가 늘어지는 것을 막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야 한다. 빨래는 낮에만 널어놓고 말리며 낮 동안에 채 마르지 않은 빨래는 걷어서 방이나 마루의 한쪽 구석에 두었다가 다음 날 다시 말린다.

큰 빨래를 할 때, 특히 무명이나 광목을 희게 바래거나 삶을 때는 솥을 걸어 놓고 장작불을 지피면서 하였다. 삶아서 빨 경우는 처음에 대강의 때를 먼저 없앤 후 소죽을 쑤는 큰 가마솥에다 삶은 후 개울에서 방망이질하여 때를 없앤다. 의복의 종류별로 각각 다양한 방법과 세제를 사용하였는데, 소재가 모두 다르고 걸쳐지는 신체 부위에 따라 생기는 때와 얼룩의 성분이 차이가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1. 세제: 세제는 자연에서 얻었는데 잿물·오줌·쌀뜨물·풀잎 등이 사용되었다. 초가집 추녀에서 받은 빗물은 걸레나 덜 더러운 옷을 빠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잿물은 식물(볏짚, 콩짚, 메밀대 등)을 태워 만든 것으로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때의 성분인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잿물은 재료도 귀하고 만들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빨래거리를 많이 모았다가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만들어 사용하였다. 잿물 내리는 방법은 먼저 큰 자배기 위에 막대기를 두어 개 얹고, 그 위에 시루를 올려놓고, 시루 속에 짚을 깐다. 그 위에 태운 재를 넣고 재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잿물이 자배기에 고인다. 물을 여러 번 부어 잿물을 계속 받는다. 처음 내린 잿물은 '애물' 또는 '초물'이라 한다. 애물은 독하므로 따로 받아 두었다가 때가 잘 빠지지 않은 것을 빨거나 삶을 때 사용하였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양잿물은 서양의 의미를 담은 '양洋'을 붙인 것으로 일제강점기 때 등장하여 사서 썼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 잿물과는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알칼리성분이 너무 강해서 옷감과 피부가 상한다고 하여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다. 주로 삼베·무명·광목 등에 사용되었다. 또 이 양잿물로 쌀겨와 반죽하여 굳힌 고형비누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색이 꺼멓기 때문에 '꺼먹비누'라고 불렀다. 녹두를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 껍질을 벗기고 불린 다음 뭉쳐 두었다가 필요한 때마다 개어서 썼다고 하는데, 세안용 또는 모시 빨래용으로만 사용했으며 매우 아껴 썼다.

백색옷의 경우 백창포·무·토란·붉은 팥 등 식물의 꽃이나 열매, 잎, 줄기를 물에 우려내어 세탁에 이용하였다. 유색옷의 경우 단순히 옷에 묻은 때와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하거나 엷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식물 외에도 소가죽 아교 같은 동물성 재료나 사람의 오줌 내지는 요리에 쓰이는 식초나 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썩은 오줌은 세척력이 좋아 작업복의 찌든 때나 여성들의 서답(생리대)을 빨 때 사용했는데, 빨래거리를 오줌 속에 담가 두었다가 빨면 때도 잘 빠지고 하얗게 되었다. 견직물 같은 귀한 직물을 세탁할 때는 콩·녹두·팥·쌀뜨물·두부순물 등을 사용하였다. 조상의 지혜에서 나온 천연세제들은 근래에 와서 친환경 천연세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잿물 이외에 식물이나 해조류를

세탁 재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2. 세탁용구: 빨래바구니는 함지박이나 오지그릇(자배기)을 사용하였고,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로 옷감을 두들겨 때를 뺐다. 손목의 힘을 이용해 빨래를 주물러 빨거나 빨랫감을 물이 담긴 통에 넣고 막대로 휘휘 젓는 방법을 사용하는 서양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빨랫돌은 냇가에 고정시켜 놓고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 세탁장소: 주로 마을 근처의 흐르는 냇가나 강가나 도랑, 우물가였다. 서울 사람들의 빨래터로 유명한 곳은 자하문 밖 세검정 주변이었다. 현재 경복궁 근처의 북촌 사람이 이용하였고, 청계천변은 서울 사람의 가장 큰 빨래터였다. 한편 특수한 경우로 제주에서는 바닷물이 썰물일 때 물이 빠져나간 갯가의 용천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임시 빨래터가 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유료로 운영되는 공동세탁장이 생겼으나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지역사례 빨랫방망이는 다듬잇방망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둥글고 긴 형태인데, 제주도 지역은 그 형태가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빨랫방망이를 '서답막개', '물막개'라 불렀다. 서답막개는 나무를 넓적하게 깎아 만드는데, 그 형태는 탁구채와 유사하다.

빨래와 관련된 속설은 크게 장례와 제례에 관련된 속설, 빨래와 건조하는 시기에 관련된 속설로 나뉜다.

1. 장례와 제례에 관련된 속설
   초상 때에는 흰 옷을 널지 않는다. / 초상이 나면 빨래를 하지 않는다. /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우물 뚜껑을 닫고 빨래를 걷는다. / 제삿날에는 빨래를 걷는다.

2. 빨래와 건조하는 시기에 관련된 속설
   묵은 빨래는 해를 넘기지 않는다. / 아침 일찍이나 해가 넘어갈 때에는 빨래를 하지 않는다(아침 일찍은 소년의 죽음, 해가 넘어갈 때는 청년 죽음이 생긴다). / 이월 영동 때에는 여자가 또랑에 나가 방망이질을 하면 쟁기를 부러뜨린다. / 갓난 젖먹이 아기 옷을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빨면 아기가 놀란다(제주). / 밤에는 빨래를 널어 두면 남편이 바람피운다(사람이 죽었을 때 널어놓는 흔적삼 보는 것 같아 섬뜩하기 때문). / 어린아이의 옷은 밤이슬을 안 맞힌다. / 여자의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나쁘다(제주). / 덜 마른 옷을 입으면 억울한 소리 듣는다. / 칠월에 빨래를 삶으면 벼가 삭는다(전라도).

특징 및 의의 순전히 여성들의 노동력으로만 했기에 이를 배려해 명절 또는 산후 등에는 빨래를 금기시했다. 여성들이 시냇가를 빨래터로 선택한 것은 용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 시냇가의 빨래터는 가정에서 해방되는 장소이자 대화의 공간으로 여성들이 위로받는 곳이었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의식주(경기도박물관, 2001),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의복 관리법 연구(한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2012),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필자 윤지원(尹智媛)

소고의
小串衣

정의 궁중에서 쓰이는 왕비와 왕세자빈의 저고리 명칭.

내용 소고의는 왕비나 왕세자빈 저고리의 높임말이다. 궁중에서 주로 쓰이는 명칭으로 당고의[唐古衣, 唐串衣]나 견마기를 입을 때 안에 입기도 하였다. 대부분 조선 말기 기록인 궁중발기류의 물목에 나오는 명칭이다. 1632년 『인목왕후빈전도감의궤仁穆王后殯殿都監儀軌』에 솜소고의[襦小串衣], 겹소고의袂小串衣, 누비소고의[衲小串衣] 등의 명칭이 확인되는데, 이때 기록도 왕비 저고리의 높임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때 소고의는 색상은 유록·초록색·자적색·남색·청색·백색이 사용되었다. 옷감은 금선金線·필단匹段과 향직鄕織·견絹·초綃·화사주花絲紬·토주吐紬·주紬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궁중발기」의 기록에서 볼 때 여성의 저고리에 대해, 왕비와 왕세자비는 소고의로, 후궁이나 공주 등은 의복 또는 저고리로 칭하여 신분 차이를 보였으나 이러한 명칭의 차이가 정례화된 것은 아니었다. 「발기」의 기록에서 소고의 색상은 대부분 송화색과 분홍색이며, 그 외 남송 소고의와 옥색 소고의도 있다. 특히



영친왕비 화문장미사 삼회장 저고리 | 길이 29 품 49.5 화장 69.5



영친왕비 명주 속저고리 | 길이 28.5 품 48.5 화장 68

소고의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당고의나 견마기를 입을 때는 송화색 소고의와 분홍색 소고의를 반드시 갖추어 입었다. 옷감은 갑사·장원주·설한단·수화주·숙갑사·화방주·삼팔주·화사주·숙사·숙고사·공단·왜단·장춘단 등이 사용되었으며, 홑·겹·쟁·잔누비·납작누비·오목누비·즌쥬누비 등 다양한 구성법으로 만들어 입었다. 특별한 경우로 『병술납월빈궁마마관례시의대건기丙戌臘月嬪宮媽媽冠禮時衣襨件記』(1866)에는 송화색의 금수복자金壽福字 소고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고의는 일반 저고리와 달리 왕비나 왕세자빈이 입은 옷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저고리와 비교했을 때 옷감의 소재가 뛰어나고 종류도 많으며 구성법도 다양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궁중에서 왕비와 왕세자빈의 저고리를 특별히 높여서 부른 명칭으로 소고의만을 입을 때는 송화색 소고의 안에 분홍색 소고의를 갖추어 입었다. 당고의나 견마기를 입을 때는 그 안에 송화색과 분홍색 소고의를 갖추어 입는다. 신분에 따른 명칭의 차이는 정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왕실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명칭도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참고문헌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황유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필자 이명은(李明恩)

소방목
蘇枋木

정의 콩과에 속하는 상록교목常綠喬木으로 홍색이나 황색을 물들일 때 사용하는 염료.

내용 학명은 Caesalpinia sappan. L.이며, 원산지는 동인도, 말레이반도이고 아시아의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Sappan Wood'라고도 한다. 높이 5~9*m* 정도로 자라며 수간樹幹에는 작은 가시가 있다. 잎은 2회 우상복엽羽狀複葉으로 우편羽片은 마주 나고 장원형이다. 5~6월에 황색꽃이 피며 9~10월에 열매를 맺는다.

한방에서는 행혈行血·지혈·구어혈驅瘀血·진통·소종消腫의 효능이 있어 심재心材를 약재로 사용한다. 혈액血液의 순환을 돕고 어혈瘀血을 없애며, 부은 것을 내리고 통증痛症을 완화할 때 사용한다.

적황색 목재 부분은 홍색계 염료로 쓰이고, 뿌리는 황색 염료로 쓰인다. 목재의 횡단면은 나이테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3세기경 중국으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소방전蘇芳典이라는 염색기관이 있었으므로 이미 이때 소방목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태조 때는 남만南蠻에서, 또 1431년(세종 13)에는 유구琉玖에서 소방목을 공물로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세종 때는 9년간 7만여 근이 수입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일본의 아스카시대에 전해졌다. 17세기 초에는 유럽으로 전해졌으며, 아닐린 염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인도 지방에서 다량 수입하였다. 유럽에서는 한때 포도주를 착색할 때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그 생산지가 소방국蘇枋國이라 하여 소목으로 불렀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소방목의 목재를 브라질레brasile라고 불렀으며, 적색 염료로 사용하였다. 소방목의 색소 성분은 브라질레인brazilein인데, 심재에 포함된 브라질린이 산화하여 생긴 것이다. 그 목편이 붉은 빛을 띠고 광택이 없는 것은 염재로 사용하기에 좋지 않다. 소방목의 심재는 황적갈색을 띠는데, 이것을 잘라서 물로 추출하면 적색계의 색





소방목 | 국립민속박물관

소가 얻어진다. 이것으로 염색한 홍색을 목홍木紅이라고 한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소방목을 끓인 물에 명반과 오배자를 넣어 목홍색으로 염색한다고 기록하였다. 그 외에 회즙매염으로는 적자색, 명반매염으로는 적색, 철매염으로는 자색이 염색된다. 조선시대에는 홍의 염색에 주로 충당된 염료이다. 일광에 변질되기 쉬운 결점이 있으나 염색법이 단순하고 쉬워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는 다색성 염료이다. 소방목은 황갈색이 강하고 광택이 있는 것이 염색도 잘되고 화려한 홍색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헌,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소창의
小氅衣

정의 곧은 깃에 소매가 좁고 옆자락에 트임이 있는 긴 저고리 형태의 편복포便服袍.

내용 소창의小氅衣는 창옷이라고도 한다. 저고리보다 길이가 길고 도포나 창의, 중치막과 같은 통상예복에 비해 짧고 품과 소매가 좁다. 양옆에 트임을 준 간편한 형태로 왕실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착용되었다. 소창의는 대창의大昌衣와 비교되는 명칭이나 형태는 소매가 넓고 양옆에 트임이 있는 중치막中致莫과 유사하다. 최남선은 『조선상식朝鮮常識』(1948)에서 창옷을 소창옷, 중치막을 큰창옷이라 하였다.

소창의 기록은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1809~1830) 수의(습의襲衣) 일습에 옥색별문단玉色別紋緞 소창의小氅衣가 포함되어 있고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서인복의庶人服議에서 진사는 심의深衣, 거인擧人은 창의氅衣, 일반인은 소매가 좁고 길이가 긴 협수장유夾袖長襦, 속명俗名으로 소창의小氅衣를 겉옷으로 입는다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명령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 하였다. 한편 박규수朴珪壽는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1841)에는 동자복童子服 도상으로 '장유長襦'라 하고 착수 형태에 양옆에 트임이 있는 소창의 형태의 그림을 제시하였다. 19세기 <한양가>에는 육주비전에서 '큰창옷에 갓을 쓰고 소창옷에 한삼 달고 사람 불러 흥정하니'라고 묘사되어 있다. 고종 18년(1881)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은 『일사집략日槎集略』에서 박람회에 진설된 조선 물품 가운데 명주, 춘포, 북포 등과 함께 백립白笠, 백혜白鞋, 창의, 소창의, 행전, 토수 등이 있는데 질이 낮은 등급으로만 골라서 진열한 의도가 괴이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반면 소창의 유물은 창의나 중치막, 도포와 같은 외출용 편복포의 소매너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17세기 중반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오위장五衛將 김여온(1596~1665) 묘 출토복식 중에 창의 1점, 중치막 11점, 소창의 1점이 있다. 중치막의 소매너비가 평균 40㎝ 전후일 때 소창의 소매너비는 26㎝로 진동선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진 착수窄袖이다. 양옆에는 두루마기와 같이 삼각형 긴 무가 달려있으며 옆선이 반 정도 트여있다. 당시로서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옷이었다.



소창의 | 이진숭 묘 출토 | 길이 128 품 58 화장 96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18세기에 이르면 삼각형 무가 없어지고 더욱 간편해지면서 광수廣袖 중치막과 착수 소창의로 구분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남오성(1643~1712) 묘 출토복식 가운데 중치막 8점, 소창의 15점, 경기도박물관 소장 전주 이씨 의원군義原君(1661~1722)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밀창군密昌君(1677~1746) 묘에서도 다수의 중치막과 소창의가 출토 되었다. 밀창군 출토복식에는 중치막 4점, 소창의 14점이 출토되었고 단령과 창의, 중치막, 소창의, 고의와 적삼을 수의로 입고 있었다. 수의는 생전의 옷차림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고리를 대신하여 소창의를 중치막 아래에 입은 것이다. 소창의 수량이 상당히 많아 당시 착용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소창의는 창의나 중치막에 비해 작게 만들었으며 누비나 솜옷이 주류를 이룬다. 소매너비는 좁고 양옆의 긴 삼각무는 없어져 도련쪽으로 약간의 곡선을 이루며 겨드랑이 가까이까지 트여있다. 이후 의원군의 5대손 예조판서 이연응李沇應(1818~1879) 습의(수의) 중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왕실에서는 영조, 정조, 순조 국장시 염습의와 재궁의대梓宮衣襨에 장의長衣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장의는 여성용 쓰개와는 무관하며 장유長襦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색상은 초록색, 옥색이 많고 남색, 보라색, 자적색이 일부 보인다.

양반들은 통상예복으로 외출할 때 도포나 창의 속에 입었으며 집 안에서도 저고리 위에 입어 위의를 갖추었다. 반면 서민들은 겉옷으로 입었으며 특히 누비옷이나 솜옷으로 만들어 방한용으로 널리 착용되었다. 1895년(고종 32) 관민이 모두 통상복으로 흑색 두루마기를 입도록 하므로서 복식을 통한 반상의 구분이 폐지되자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남자 복식은 여러 가지 형태의 편복포가 발달하여 외출시는 물론 양반들은 집 안에서도 웃옷을 입어 위의를 갖추었다. 소창의는 긴저고리[長襦]와 유사하여 길이가 짧고 품과 소매도 좁게 함므로써 불필요한 여유를 없애고, 양옆에 길게 트임을 주어 편복포 가운데 가장 간편한 형태이다.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양반들은 저고리 대신 입거나 저고리 위에 입어 속옷으로 착용한 반면 서민들은 겉옷으로 널리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居家雜服考, 茶山詩文集, 承政院日記, 日槎集略, 朝鮮常識, 朝鮮王朝實錄, 漢陽歌, 17세기 무관옷 이야기(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남오성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04), 전주 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1), 한국복식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박성실(朴聖實)

속옷

정의 겉옷 안에 입는 옷.

내용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겉옷 안에 겹쳐 입고 여름에 땀받이용으로 착용한 속옷은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무명으로 만들었으며, 개화기 이후에는 면을 주로 사용했다. 속옷의 또 다른 용도는 겉옷의 맵시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주로 치마 아래에 입는 여자의 속바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속바지를 지을 때는 무명을 비롯해 명주, 숙고사, 모시와 노방, 삼베 등 다양한 옷감을 사용했다. 치마 바로 아래에 입는 것일수록 명주나 비단, 항라 등의 고급 옷감으로 전체를 만들거나 바짓단에서부터 무릎까지 넓게 단을 덧대었다.

여자의 속옷인 허리띠는 조선 후기에 짧아진 저고리와 허리에 입는 치마 사이에 드러나는 가슴과 속살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다. 허리띠를 만들 때는 솜을 넣어 누비거나 무명을 겹 또는 홑으로 꿰매고 양쪽에 끈을 달아 치마를 입은 후 가슴께에 둘러 묶었다. 허리띠를 두른 후에 상의上衣는 속적삼과 속저고리, 저고리의 순서로 입었다.

여자의 속옷 하의는 다양한 형태의 바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속곳과 바지, 단속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지는 밑 트임 여부에 따라 밑이 열린 '개당고開襠袴'와 밑이 막힌 '합당고合襠袴'로 나뉜다. 겹으로 짓거나 솜을 둔 것은 '바지', 홑으로 밑을 터 만든 것을 '고쟁이'라고 한다. 속속곳과 단속곳은 모두 바짓부리가 넓고 밑이 막혀 있다. 다만 단속곳은 치마와 속치마 아래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속속곳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고 좋은 옷감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지 전체 혹은 일부를 누비거나 홑으로 짓는 등 계절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재질의 속바지를 여러 겹 입

음으로써 조선 후기 항아리 모양의 하후상박下厚上薄 실루엣이 형성되었다.

개화기 이후 여자의 속옷은 조선옷 개량 움직임에 따라 한층 간소화되었다. 바지를 여러 개를 겹쳐 입는 대신 반바지 형태의 사루마다さるまた나 긴 속바지를 착용했다. 속치마 역시 얇고 가벼운 인조견이나 면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어깨허리를 달아 개량했다.

남자의 속옷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바지(또는 고의)와 적삼, 속저고리 정도였다. 개화기 이후 근대화의 영향으로 양복을 수용하면서 속옷 하의는 일본식 사루마다나 서양식 짧은 사각형 팬티로 일원화되었다. 일상복으로 셔츠를 입는 남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속옷 상의 역시 소매 없는 러닝셔츠와 목선이 둥근 반소매 셔츠로 바뀌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여자들은 다양한 재질의 여러 겹 속바지를 겹쳐 입었는데, 모두 말기를 묶어 여미는 방식이었다. 말기는 바지의 개수와 상관없이 가슴께에 둘러 감아 고정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조선옷 개량론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이런 착장법은 조선 여자들의 발육을 저해하고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학교에서는 조끼 모양의 어깨허리를 단 속치마를 만들어 입도록 했다.

서양식 블라우스와 치마 등을 착용하는 신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잡지와 신문에 서양식 속치마인 슬립slip과 개량형 속바지 제작법이 소개되었다. 비슷한 시기, 아동의 일상복과 통학복이 양복으로 전환되면서 그에 맞춰 속옷을 개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20년대에 신문사가 주최하고 재봉틀 판매회사가 후원한 양재봉洋裁縫 강습회에서는 아동용 속옷으로 상하의를 하나로 연결한 서양식 콤비네이션combination과 짧은 바지 블루머bloomers 제작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참고문헌 근대적 복식 유행의 출현과 사회적 수용(조희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식민지 시기 생활개선 논의와 의생활강습회의 역할(조희진, 민속학연구34, 국립민속박물관, 2014),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조희진(趙熙眞)

속적삼

정의 땀이 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고리 안에 입는 속저고리.

내용 속적삼은 홑옷으로 만든 속저고리이다. 속적삼은 저고리 안에 입어 살에 닿는 옷이므로 땀이 배어들기 때문에 땀받이적삼, 즉 한삼汗衫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국장國葬 기록 가운데 하나인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에 염습의대斂襲衣襨는 생전에 입었던 옷을 기록하였다. 선조宣祖의 왕비 의인왕후(1600)와 계비 인목왕후(1632)의 염습의대에 백색 저포(모시)로 만든 소적삼과 한삼(소한삼, 장한삼)이 있다. 또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국혼國婚인 가례嘉禮 복식 기록에 활한삼濶汗衫과 삼아衫兒가 있다.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 삼아는 일명 '땀받이적삼'으로 언해되었고, 『동문유해同文類解』에도 삼아가 적삼으로 언해되었다. 이와 같이 적삼과 한삼, 삼아는 저고리와 함께 안에 입는 홑으로 된 속적삼으로 기록되어 있다. 1819년 이후 기록인 「궁중발기宮中撥記」에도 의대나 「의복발기」에 속저고리인 적삼과 한삼이 있다.

「궁중발기」에는 저고리가 송화색저고리와 분홍색저고리를 일작一作으로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분홍색



① 길이 37 품 44 화장 65 | 광복 이후



② 길이 33.5 화장 69 | 1940~1950년대

속적삼 | ① 국립민속박물관, ②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저고리는 소고의小古衣로 속저고리이다. 이 속저고리는 분홍색 주紬나 사紗로 만들어 속적삼 위에 입는데 속적삼보다 넉넉하고 겉저고리보다는 약간 작게 한다. 보통 겹저고리로 하지만 추울 때는 얇게 솜을 넣기도 하였다. 이것은 영친왕비(1901~1989) 유물 저고리 일작一作에서도 분홍색 속저고리가 확인된다.

특징 및 의의 속적삼은 해평 윤씨(1660~1701) 출토복인 속적삼처럼 홑옷으로 저고리보다 약간 작게 만들며 동정과 고름을 달지 않았다. 조선 말기 전세 유물 속적삼 가운데에도 홑으로 되어 동정과 고름이 없고 어깨와 겨드랑이 밑 등 터지기 쉬운 부분에 바대를 대고, 매듭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품에는 앞길을 맞깃으로 하여 매듭단추로 여민 근대유물이 있으며, 20세기 유물 가운데는 진동에 이음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뒷 중심선에서 수구까지 온폭으로 재단했다. 또 깃 대신에 너비 1㎝의 레이스로 깃을 달아 맞깃으로 여미고 수구와 도련도 레이스를 달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의한 속적삼의 색과 소재(의차, 옷감)를 보면, 『상방정례』에서 활한삼과 삼아는 백초·백저포·백숙초·백정주로 하였으며, 「발기」에서는 적삼과 한삼을 백색과 분홍색의 저포苧布·세저포·저항라와 사紗 등으로 하였다. 19~20세기의 전세 유물에서도 적삼과 한삼의 색상은 보통 흰색, 옅은 분홍색이며 옷감은 여름용으로 모시나 삼베, 봄·가을용으로 주아사나 생고사, 인조견, 겨울용으로는 무명·옥양목·견직물 등을 사용하였다. 개화기 이후에는 서양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래로 민간풍속에 혼례 때는 팔자가 시원하다는 속신俗信이 있어서 겨울에도 분홍모시로 된 속적삼을 입었다고 한다.

발기류의 기록과 궁중유물에서 확인되는 송화색 겉저고리와 일작을 이루는 속저고리[小古衣]는 색상이 분홍과 보라색으로 겹저고리 또는 얇게 솜을 둔 솜저고리로 계절에 따라 입었으며, 고름과 동정이 달려 있다.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尙方定例,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옛 속옷과 침선(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6), 조선조 궁중복식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필자 안애영(安愛英)

속치마

정의 겉치마 안에 받쳐 입는 통치마로 된 속옷.

내용 개항과 더불어 여자 복식에도 변화가 나타나 긴 저고리와 짧은 치마처럼 활동에 편한 옷을 입게 되고, 1920년대 메리야스(셔츠) 속옷이 들어오면서 겹겹이 입던 전통적인 속옷(속곳)들이 사라진다. 치마 속에 입던 단속곳을 대신해서 새로 생긴 속옷이 통치마 모양의 속치마이다. 이 속치마는 겉치마보다 길이와 품이 약간 작으며, 치마의 모든 폭을 이어 준 통치마에 허리말기를 달아 주었다.

현재 전세 유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의 속치마가 여러 박물관에 다량 소장되어 있다. 유물을 보면 통치마에 주름을 잡아 허리말기를 달아 주는데 여러 방법이 시도되었다. 속치마 앞에 트임을 주어서 허리말기를 달고 말기 끝에 끈을 달아 여미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앞트임에 허리말기를 달아 작은 끈이나 단추를 달아 여미고 가는 어깨끈을 달아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속치마는 앞트임을 주고 어깨허리(조끼허리)를 달아 끈이나 단추로 여며 주었다. 색상은 소색이나 백색이 많지만, 색이 있는 속치마도 있다. 유물 가운데 뉴똥으로 만든 분홍색 속치마와 속저고리, 옥색 속치마와 속저고리가 있다. 이와 같이 속치마와 속저고리를 같은 옷감으로 만드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다고 한다. 인조견이 등장한 20세기 초에는 인조견 2폭으로 통치마를 만들어, 면이나 옥양목으로 만든 어깨허리를 달고 앞에서 끈이나 단추로 여며 준 유물이 많다.

특징 및 의의 신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옷에서도 활동성이 좋은 짧은 치마를 입게 되면서 속곳·속바지·단속곳 등 겹겹이 입는 속옷을 대신해서 짧은 개량속바지(고쟁이)와 어깨허리를 단 통치마 모양의 간편한 속치마를 입게 되었다. 어깨허리는 1912년경 이화학당의 미스 월터 교장이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편리한 조끼허리를 권장하면서 입기 시작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도 보급되었다. 그 후 어깨허리는 속치마뿐만 아니라 겉치마



① 속치마 | 광복 이후



② 영친왕비 진주사 속치마 | 근대



③ 속치마 | 1950년대

속치마 | ① 길이 95 허리 93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89.5 허리 87 | 국립고궁박물관, ③ 길이 118 품 43 | 국립민속박물관

에서도 이를 이용하게 되었다.

속치마의 구성은 홑치마로 일명 통치마이며, 겉치마의 실루엣에 따라 치마폭이나 주름나비를 정한다. 허리말기의 나비는 겉치마보다 넓게 하며, 조끼허리의 경우에는 조끼허리 길이를 저고리 길이보다 더 길게(3~5㎝ 정도) 한다. 이는 저고리 아래로 보이는 겉치마의 주름이 들뜨지 않고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속치마의 어깨허리는 가슴을 잘 여며 주도록 신축성이 적은 옷감으로 옥양목(면)을 사용하며 마름질에서도 식서 방향을 이용한다.

속치마의 어깨허리 구성은 대부분 홑으로 하여, 치마주름을 넣어 허리를 다는 밑(아래)부분에는 안단을 대고, 앞 중심 트임 부분에는 여밈단을 넣어 여밈이 단아하게 해 준다. 치마 길이는 겉치마보다 3~5㎝ 정도 짧게 하여 겉치마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하며, 앞 중심에는 20㎝ 내외의 트임을 주어 입고 벗기 편하게 해 준다. 치마폭은 옷감의 너비에 따라 다르나 완성된 치마폭이 200㎝ 내외로 하여 통으로 이어 준다. 주름은 겉치마보다 간격을 넓게 하며, 주름나비도 겉치마보다 조금 넓게 한다. 옷감은 주로 흰색의 면과 인조견을 사용하는데, 전세 유물에도 색이 있는 속치마가 많이 있듯이 겉치마의 색이나 재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참고문헌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옛 속옷과 침선(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6), 조선시대 여성의 속옷 종류와 조형적 특징(박성실, 어머니의 유산, 국립여성사전시관, 2017), 조선조 궁중복식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한복 만들기-속옷(안애영·심해진, 미진사, 2011),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필자 안애영(安愛英)

송낙

정의 송라松蘿로 만들어 승려가 평상시에 착용하는 관모.

내용 송낙은 승려의 여러 관모 중 하나로, 송라립松蘿笠이나 승립僧笠이라고도 한다. 대우(모자의 원통 모양 부분)와 양태凉太(모자 밑의 둥글넓적한 부분)의 구분 없이 정수리가 뾰족한 원추형인데, 이러한 형태의 관모는 우리 민족이 상고시대부터 착용해 온 고유의 변형弁形 관모로 볼 수 있다. 소재를 송라에서 저마포苧麻布로 바꾸면 승려의 또 다른 고유 관모인 고깔이 된다.

송낙의 재료는 늙어 죽은 소나무의 겨우살이 기생목인 송라를 사용한다. 위는 촘촘하게 엮지만 아래로는 15~20㎝ 정도 엮지 않고 그대로 두며, 꼭대기를 완전히 막지 않고 작은 개방구를 두어 뾰족하게 완성한다. 자연 소재인 송라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은 노란색에 가깝다. 햇빛을 가리고 비를 피하는데 용이하여 승려의 일상복인 납의納衣(버려진 천을 이어 만든 옷)와



① 승립(송낙) | 1850



② 고깔과 송낙 쓴 승려 | 조선 후기

송낙 | ① 높이 18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김홍도 | 시주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함께 착용하였다. 또한 자연에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검소하고 청빈하나 아울러 누추하거나 남루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승려는 수도승으로서 금욕적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 대중을 대면하거나 탁발할 때 송낙과 납의를 주로 착용하였으며, 실제로 송낙은 수도와 공부에 몰입해야 하는 하급 승려의 관모로 애용되었다. 송낙을 착용한 탁발승의 모습은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송낙은 승려의 관모로 한국 고유의 관모 양식인 변형을 띤다. 변형 관모를 승관僧冠으로 착용하는 풍습은 불교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중국에서 함께 전래된 승복의 외래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 머리를 깎아 관모 착용이 제한된 승려에게 송낙은 납의와 함께 수도승으로서 검소하고 청빈한 종교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송낙은 자연의 재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관모 고유의 기능적 측면과 함께 한국의 자연에서 재료를 쉽게 채집하여 제작,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 측면도 가진다.

참고문헌 관모와 수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1993), 역사 속의 우리 옷 변천사(김은정·임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강순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이미량·한석홍, 열화당, 2003), 한국 복식문화사(김문자·유희경, 교문사, 1981).

필자 임린(任潾)

수의
壽衣

정의 상례喪禮를 치를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과 부속품[殮襲具]을 가리키나, 좁은 의미로는 시신에게 입히는 옷.

내용 수의는 장례를 치를 때, 입관의 절차 가운데 시신에 입히는 옷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신을 싸는 여러 가지 도구(염습구殮襲具)를 포함하기도 한다.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인 상례에는 여러 절차가 있다. 죽음이 임박하면 초혼하고 시신을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습襲, 2일째가 되면 시신을 옷과 이불 등으로 싸는 소렴小殮, 3일째가 되면 다시 옷과 이불로 시신 싸서 입관하는 대렴大斂을 하면서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는 장례를 할 준비가 끝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옷은 다시 습의襲衣, 염의殮衣, 보공의補空衣로 나눈다. 습의는 시신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습에 사용되는 복식을 일컫는다. 염의는 소렴과 대렴의 과정에서 시신을 감싸는 옷을 말하고, 보공의는 대렴 후에 관의 빈 공간을 채우는 옷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의壽衣는 시신에게 갈아입히는 새 옷 즉 습의襲衣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습의와 염의 그리고 보공의와 습이나 입관 때 사용하는 여러 부속물인 염습구를 포함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수의襚衣' 또는 '수의壽衣'로 표현된다. 수의襚衣는 초상이 났을 때 친구나 가족 또는 왕이 부의賻儀로 보내는 옷을 뜻하기도 한다. 수의(습의)는 망자의 옷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염의는 부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1584년(선조 17) 『선조실록宣祖實錄』에는 율곡 이이李珥의 졸기卒記에 "초상이 났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친구들이 수의襚衣와 부의賻儀를 보내어 상을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왕이 신하에게 수의를 보낸 기록도 있다. 수의壽衣의 기록은 1776년(영조 52) 『영조실록英祖實錄』에 영조가 승하하였을 때 "수의대壽衣襨를 장만하여 둔 지 이미 오래 되었다. 대내에서 장만하여 둔지 오래 되었다. 문단도 있는데 이미 문단을 금지하였으니, 습렴하는 제구에 쓸 수 없으므로 고쳐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 궁중에서는 수의대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의대衣襨는 옷을 가리키는 궁중용어이다. 20세기 이후에는 수의壽衣

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수의는 시신을 옷으로 가리고 감쌈으로써 시신이 관 속에서 뒤틀리지 않고 곧게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수의는 바람이 들어가 시신이 붓는 일이 없도록 공기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장례기간 동안 시신을 부패에 의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감싼다.

조선시대 수의는 평상시 입던 옷 또는 생시의 예복에 해당하는 옷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시대별로 유행하는 옷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의에 사용하는 옷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형태는 달라졌다. 평상시에 입던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의의 옷감은 주로 명주나 비단 종류가 사용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영조의 수의대의 경우에는 영조가 평상시에도 무늬 있는 비단사용을 금하였기 때문에, 곤룡포만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조의 뜻에 따라 무늬 없는 옷감을 사용하라는 지시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수습하면, 낡은 옷이나 때 묻은 옷이 수습되는 데 이를 통해 평상시에 입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숙종실록』 권40 기록을 보면 1704년(숙종 30) 기록에 '백세의금百歲衣衾'이라고 하여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장수한다는 풍속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의의 크기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18세기 후기 까지는 평상시 입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였으나, 1790년대를 즈음하여 수의의 크기가 매우 커졌다.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전주 이씨(여, 1722~1792) 수의와 경기도박물관 소장 이연응(남, 1818~1879)의 수의가 그 예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후반부터 남녀 수의를 매우 넉넉하게 큰 치수로 새로 장만하는 풍습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수의가 큰 치수의 옷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옷감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여전히 대부분 비단으로 만들었다. 이는 평상시에 입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했던 것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안동 김씨 가문의 김수근金洙根(1789~1854), 김병국金炳國(1825~1904), 한산 이씨(김정규金貞圭의 처, 1915)의 상례기록 '신종록愼終錄' 에는 수의로 사용된 옷의 명칭과 옷감의 종류, 색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종록에 따르면 수의 가운데 속옷에 해당하는 것은 흰색 옷감을 사용했고, 겉옷은 다양한 색상의 옷감이 사용되었다.

수의를 구성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거나 가리는 것은 생시와 마찬가지이다. 남녀 모두 머리를 단정하게하기 위하여, 모자를 사용하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갖추어 입는다. 버선과 신도 신긴다. 딱딱한 소재와 형태는 관에 안치했을 때, 시신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假를 만들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남자의 관모의 종류인 사모紗帽는 가늘게 대나무를 결어 만들어 그 위에 비단을 발라 만들고, 망건網巾은 말총으로 만든다. 그러나 수의용 사모나 망건은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허리띠[角帶]와 신발 역시 비단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장식한다.

수의를 구성하는 옷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옷의 형태나 종류 그리고 명칭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로 사용된 출토복식을 통해 조선시대의 유행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5)』 대부사서인상大夫士庶人喪에 기록된 남자의 수의는 다음과 같다. 망건網巾, 복건幅巾, 흑단령黑團領, 대대大帶, 한삼汗衫, 철릭帖裏, 고袴, 말襪, 리履, 충이充耳, 명목幎目, 악수幄手이다. 조선 후기 의례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1746)』에 기록된 남자 수의는 망건網巾, 복건幅巾, 심의深衣, 답호褡護, 대대大帶, 조絛, 한삼汗衫, 포오袍襖:中赤莫, 단고單袴, 고袴, 소대小帶:腰帶, 말襪, 리履, 늑백勒帛, 충이充耳, 명목幎目, 악수幄手, 과두裹肚이다. 일제강점기의 『사례의절四禮儀節(1942년)』의 남자 수의는 대대, 심의, 중치막中赤莫, 포오袍襖 속칭 冬衣, 단삼單衫, 고袴, 말襪, 단임端衽, 늑백勒帛 속칭 行纏, 망건網巾, 복건幅巾, 리履, 조대絛帶, 과두裹肚, 충이充耳, 명목幎目, 악수幄手, 명건幎巾, 설면雪綿이다. 『국조오례의』에는 여자의 수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사례편람』의 여자수의는 엄掩, 리纏, 심의深衣 혹 연의緣衣 혹 원삼圓衫 혹 장오자長襖子 속칭 長衣, 대帶, 삼자衫子, 포오袍襖赤古里三稱, 소삼小衫, 과두裹肚 속칭 腰帶, 상裳, 고袴, 단고單袴, 채혜彩鞋, 충이充耳, 명목幎目, 악수幄手, 말襪, 모冒이다. 일제강점기의 『사례의절四禮儀節(1942)』에는 여자 수의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대大帶, 원삼圓衫, 저고리 삼칭赤古里 三稱, 단삼單衫, 광고廣袴, 단고單袴, 홍상紅裳, 청상靑裳, 말襪, 여모女帽, 채혜彩鞋, 과두裹肚 속칭 腰帶, 충이充耳, 명목幎目, 악수幄手, 명건幎



장옷 | 길이 123 품 62.5 화장 91 | 행주 기씨 묘 출토 | 17세기



저고리 | 길이 69 품 53 화장 80.5 | 행주 기씨 묘 출토 | 17세기



치마 | 길이 108.5 허리 112.5 | 행주 기씨 묘 출토 | 17세기



습신 | 길이 24 너비 9.8 | 조선

여자 수의 | 국립민속박물관



단령 | 길이 130 품 57 화장 121 | 남오성 묘 출토 | 18세기



철릭 | 길이 111 품 69 화장 109 | 경기 남양주 출토 | 16세기 후반



바지 | 길이 88 허리둘레 86 말기너비 10 | 경기 남양주 출토 | 16세기 후반



모자 | 길이 57 높이 21 | 변수 묘 출토 | 16세기 초

남자 수의 | 국립민속박물관

巾, 설면雪綿이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수의는 평상시와 같은 속옷과 겉옷을 사용했다. 제일 겉에 입는 옷은 망자의 가장 큰 예복을 사용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시신에 실제 입히는 옷인 수의와 달리, 염습을 할 때 시신을 감싸거나 빈 공간을 채우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를 염습구殮襲具라고 한다. 염습구에는 충이充耳, 멱목幎目, 악수幄手, 습襲신, 오낭五囊, 천금天衾, 지요[地褥], 소렴금小殮衾, 대렴금大殮衾, 염포殮布가 있다. 충이는 시신의 귀를 막는 것으로, 햇솜으로 대추씨 모양으로 단단히 말아 만든다. 멱목은 시신의 얼굴을 덮는 것으로 사각형 모양의 네 귀퉁이에 끈이 있어 시신의 머리 뒤(뒷통수)에서 묶는다. 조선시대에는 겉감은 검정색, 안감은 붉은색 천을 사용했다. 악수는 시신의 손을 싸는 것이다. 악수의 모양은 가문마다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했다. 악수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에서 중심부가 양쪽으로 파인 형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직사각형도 있다. 네 귀퉁이에는 긴 끈이 달려 있다. 조선시대에는 멱목과 마찬가지로 겉감은 검정, 안감은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악수를 이용하여 손을 감싸는 법도 가문마다 다양했다. 습신은 시신에게 신기는 신이다. 오낭은 다섯 개의 주머니라는 뜻으로, 시신을 목욕할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 치아, 손톱과 발톱 등을 구분하여 넣는다. 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살았을 때 모아 놓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으로 채워진 오낭이 수습되기도 한다. 천금은 시신을 관에 넣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덮는 이불이다. 지요는 시신을 관에 넣기 전에 관 바닥에 까는 얇은 요이다. 조선시대에는 천금과 지요와 명목이나 악수처럼 겉감은 검정, 안감은 붉은색 옷감으로 만들었으며 형태는 대부분 직사각형으로 만드나, 때로는 관의 모양처럼 사다리꼴로 만들기도 한다. 소렴금과 대렴금은 소렴과 대렴을 할 때 시신을 싸는 이불이다. 조선시대 상례에서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불을 소렴금과 대렴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솜이불이 대부분이다. 이불의 형태는 이불동, 이불깃, 동정을 갖춘 모양이다. 임진왜란 전후인 16세기에는 소렴금을 얇은 모시나 삼베로 사용하거나, 겹이나 솜이불로 소렴금을 사용하면서 얇은 모시나 삼베 홑이불을 하나 더 사용하기도 했다. 염포는 소렴과 대렴을 할 때, 시신을 가로와 세로로 묶는 천이다. 명주나 모시 또는 삼베로 만들며, 가운데는 그대로 두고 위아래를 길이로 세 갈래로 찢어서 사용한다. 가로를 묶는 것은 횡교橫絞, 세로를 묶는 것은 종교縱絞라고 한다. 현대 경기도 지방에서는 염포는 '매'라고 하기도 하여, 횡교는 가로매 종교는 세로매라고도 한다. 염포를 '멧베'라고도 한다. 2014년 현재 장례 관련 업체에서는 염포를 '장매'라고 부르고 있다. 조선시대 염습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색상이 있는 옷감을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수의도 소색의 삼베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염습구도 수의의 옷감에 따라 소색의 삼베를 사용한다.

2001년 사단법인 예지원과 한국출토복식연구회에서 '바람직한 상례절차와 수의문화의 정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소재의 수의를 제시하였다. 공단, 명주, 무명, 운문사, 삼베, 모시 등으로 형편에 맞는 수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옷감에는 염색을 하여 색상이 있었다. 공단수의의 예를 보면 남자는 심의, 복건, 중치막, 창의, 바지, 저고리의 구성이며, 여자는 원삼, 당의, 저고리 세 벌, 적삼과 치마이다. 남녀 공용의 염습구는 겹이불, 천금, 지요, 베개, 멱목, 악수, 오낭, 버선, 습신, 소모자이다.

2017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의는 삼베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며, 남자는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겹바지, 속저고리, 속바지이다. 여자용 수의는 삼베로 만든 홑원삼, 겹저고리, 치마, 속저고리, 속바지이다. 남녀 공용의 염습구로 삼베로 만든 홑 천금, 지요, 장메(긴 줄), 악수, 면포, 베개, 버선, 오낭이 있다.

2017년 현재 장례업체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표준수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남자수의는 두루마기, 도포, 속바지, 겉바지, 저고리, 속저고리이며 여자 수의는 원삼, 속바지, 저고리, 속저고리, 속치마, 치마이다. 남녀 공용의 용품으로 천금, 지금(요), 장매(염포), 모자, 버선, 악수, 오낭, 베개, 허리끈 등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풍습은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 같다. 20세기 들어서는 윤년과 윤달에 수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1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조사한 『경기민속지』에는 "수의는 보통 윤달이 든 해에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하지만, 돌아가시면 바로 베를 사다가 마을 아주머니들

이 상가집 마당에서 짓는데, 염하기 전까지 모두 마친다. 수의나 상복을 만들 때는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장의사를 통해 구입해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수의는 "자식이 하는 것이며 윤달 든 해에 만들어야 탈이 없는데 망자亡者의 것은 하루에 마쳐야 탈이 없고 다 만들면 돌아가실 이가 입어본다고 하며, 바느질 할 때는 온박음이나 뒷바느질, 매듭을 지어도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나 자식이 화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옷 위로 넘어 다녀도 안 되고, 매듭을 지어서도 안 된다." 이처럼 수의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금기사항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1925년 발간된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서는 중류 사회에서 보통으로 하는 수의를 표준으로 삼아 제시했다. 복건幅巾과 과두 망건網巾은 공단이고, 지요地褥과 베개는 자주와 흑색의 공릉貢綾이며, 그 외 옷들은 세포細布, 고운 삼베를 사용했으며, 색상은 백색과 분홍, 옥색, 남색을 썼다고 설명했다. 수의의 색은, 청은 청듸물, 홍은 잇다홍, 황은 회나무 열매, 자주는 짓치, 분홍은 여지로 물들이기가 원칙이나, 염색이 불편하므로 소색素色의 재료로 많이 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1920년대까지 수의는 염색을 한 색이 있는 옷이었지만, 1920년대 이후부터 색상도 없어지는 소색 삼베 수의가 일제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89년과 2001년 조사에서 보면 지방별로 수의를 만드는 옷감은 명주와 삼베 등 다양하며, 2000년대 초까지는 명주가 더 많이 사용된 것 같다. 2017년 현재 수의는 삼베로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화장火葬이 일반화되고 수의도 더욱 간략하게 변화하고 수의의 소재도 한지나 펄프로 만든 것도 등장한다.

특징 및 의의 수의는 시대를 불문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옷이다. 수의의 종류와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조선시대에는 평상용 옷으로 사용하다가, 18세기 후반에 가면 큰 옷으로 따로 장만하여 수의로 사용하는 풍습이 생겼다. 이때도 윤달에 수의를 준비하였다. 수의에 많이 사용된 옷감은 대부분 명주나 비단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삼베로 변화한 경향이 있다. 21세기에는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추세로, 수의의 형태는 한복이며 옷감은 삼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의를 시신에게 입힐 때는 저고리나 포의 깃 부분 또는 바지허리나 치마허리를 한꺼번에 꿰매어 놓아 입히기 편하게 한다.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경우에는 속옷은 3~5벌을 한허리에 꿰매어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옷을 입히는 방식도 시대와 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좌임불뉴左衽不紐의 해석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예서에서 수의(염습의)의 여밈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좌임불뉴'에 따라 시신에 입히는 수의의 여밈이나 깃을 생시와 다르게 왼쪽 여밈(좌임)을 하기도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제89호 고故 정정완은 좌임불뉴를 겉깃을 왼쪽으로 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의를 지었다.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보고서에는 습의의 경우에는 우임이지만 소렴과 대렴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여미는 것으로 '좌임불뉴'를 해석하여 상례를 치른 경우도 보고된다. 이외도 옷고름을 떼어낸 수의와 염습의의 경우 등 다양한 상례 풍습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일생의례(경기도박물관, 2002), 상장례-삶과 죽음의 방정식(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염습의에 관한 연구(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김진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한국일생의례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4), 한국의 수의문화(박성실·정종수·이은주 외, 신유, 2002).

필자 송미경(宋美京)

수화주
水禾紬

정의 품질이 좋은 주紬의 한 종류.

내용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서 수주水紬는 수화주水禾紬의 약칭이라 하였으며, 『국역만기요람國譯萬機要覽』에서도 수주와 수화주가 동일하다고 하였다. <춘향전春香傳>에서는 수주가 성천成川 지방의 특산물이라 하였는데, 『중국의관복식대사전中國衣冠服飾大辭典』에서는 수주가 산사散絲로 제직되었고, 중국 호주湖州 지방의 특산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생산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 의하면 수주의 가치가 한 척尺당 색상에 따라 4전錢에서 8전 6분分 7리里 정도로 나타난다. 백색白色 수주의 가치는 동일한 색상의 정주鼎紬, 면주綿紬와 같으며, 주紬보다는 높았다. 또, 수주의 가치는 승升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때 승은 옷감의 밀도와 관련된 용어로, 경사(날실) 80올을 1승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때의 가치는 9승 수주(9필), 8승 수주(8필), 수주(7필) 순으로 승수가 높을수록 경사의 밀도가 높고 실이 많이 사용되어 고가의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국혼정례國婚定例』에서 수화주는 대군의 단령團領, 액주름포[襦腋注音] 등과 왕자의 단령團領, 소창의[長衫兒]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되었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서도 수화주는 주로 안감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초반 궁중의 「ᄇᆞᆯ긔」에 따르면 수화주는 정주, 삼팔주三八紬 등과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직물 중의 하나로, 주로 속옷과 상의에 사용되었으며, 하의와 포, 이불 등의 침구에도 일부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度支準折,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국역만기요람(서영보·심상규, 민족문화추진회, 1971),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1920), 춘향전(이상보, 범우사, 1993), 中國衣冠服飾大辭典(周汛·高春明, 上海辭書出版社, 1996).

필자 이은진(李銀眞)

숙고사
熟庫紗

정의 정련精練한 견사絹絲로 제직한 무늬가 있는 얇은 견직물.

내용 '고사庫紗'의 어원은 청대淸代에 궁중 수요를 위하여 조정의 창고에 거두어들이던 직물이라는 뜻에서부터 '사紗'에 '고庫'를 붙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고사의 종류에는 생고사生庫紗와 숙고사熟庫紗가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한양가>(1884)와 1882



숙고사 | 치마 중 부분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년 이전에 쓰인 『탁지준절度支準折』 등의 문헌에서 '숙고사'라는 명칭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자료에만 기록되어 있어 숙고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숙고사의 가장 이른 기록은 1907년(정미년) 「정미정월이십칠일영친왕관례시의복발기」에서 분홍숙고사로 동의대를 만들고, 양남숙고사로 쾌자를, 분홍숙고사로 주의를 만들었다는 기록이다. 1915년에 당시에 사용된 직물을 정리한 『조선휘보朝鮮彙報』에도 숙고사라는 명칭이 보이는 등 대부분 1907년에서 1928년 사이에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숙고사나 생고사는 20세기 초에 유행이 시작된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발기」에 기록된 사직물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면 생고사나 숙고사는 갑사나 은조사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편이다. 좀 더 구체적인 용도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이나 「발기」 등의 문헌에 숙고사와 생고사는 속옷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남성용의 쾌자와 주의, 여성용의 치마와 같이 겉옷으로만 주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매우 고급스러운 견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기」에는 인접문과 별문의 숙고사 무늬가 기록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말기의 궁중 유물 중에 왕의 단령과 왕비의 원삼·치마·저고리 등에 숙고사를 사용한 의복들이 많이 남아 있다. 덕혜옹주의 진분홍치마와 반회장저고리의 겉감, 영친왕의 아들 진과 구 왕자의 까치두루마기·오방장두루마기·진분홍두루마기·풍차바지 등의 아동복도 별문 숙고사로 만들었다.

특징 및 의의 숙고사는 무늬가 있는 얇은 견직물의 일종으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직물의 하나이다. 고사는 평직平織과 익조직搦組織을 적절히 조

합하여 무늬를 제직한다. 숙고사는 바탕이 평직, 무늬가 익조직인 것이며, 반대로 바탕은 익조직, 무늬가 평직과 능직인 것은 '생고사'라고 한다. 숙고사는 실을 삶아서 정련한 품질 좋은 연사練紗로 제직한 반면, 생고사는 품질이 좋은 생사生絲로 제직한다. 따라서 숙고사는 생고사보다 광택이 있고 부드러운 질감을 나타낸다. 「발기」에는 별문숙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원형의 수壽 자와 호리병박, 작은 꽃무늬, 덩굴에 달려 있는 호리병박이 시문試紋된 1940년대의 직물 유물이 남아 있다. 이 유물의 직물 끝부분에 '별문사'라고 직물 명칭을 직조한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발기」에 기록된 별문숙고사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숙고사 무늬인 원형의 수壽 자와 호리병박, 작은꽃무늬, 덩굴에 달려 있는 호리병박이 구성지게 배열된 것이다.

본견 숙고사는 주로 봄·가을용 한복에 많이 사용되며, 겨울철 의복에는 얇은 솜을 살포시 두어 옷을 만들기도 한다. 현대에는 가격이 저렴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만든 화학섬유 숙고사가 생산되어 아동용 한복이나 안감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純宗實錄, 발기,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필자 조효숙(趙孝淑)

스란치마

정의 궁중이나 반가의 부녀자가 예복용 하의로 갖추어 입던 스란단이 장식된 치마.

내용 조선시대 여성의 치마는 예복용과 평상용으로 분류된다. 예복용 치마인 스란치마는 왕실의 여성이나 품계가 높은 부녀자들이 관례冠禮·가례嘉禮·길례吉禮·절일節日 같은 행사 때 적의나 원삼, 당의 등 예복 차림에 갖추어 입었던 치마이다.

스란치마는 평상용 치마보다 치마 길이가 길고 치마폭은 더해 주어 너비가 넓으며 치마의 무릎 부분과 밑단에 스란단을 배치하였다. 스란단은 무늬를 금사金絲로 짜 넣거나, 금박金箔을 직접 찍거나 금박 찍은 스란을 덧대는 형태로 장식하였다. 초기에는 동자문·봉황기린문·봉황문·화조문 등 직금織金 형태 스란에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용문·봉황문·수복화문 등을 부금付金하는 스란 형태로 변화하였다.

스란치마의 색상은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발기[件記]」 등에서 청색·남색·다홍색·자적색·양남 등으로 기록되었다. 실물 자료로는 의친왕비義親王妃의 남색 스란치마, 영친왕비英親王妃의 홍색·자적색·남색 대란치마와 남색 스란치마, 익종비 조대비가 친정에 하사하였다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자적색 스란치마 등으로 확인된다.

스란단에 관한 명칭은 쌍스란·스란·대란으로, 스란단의 수에 따라 한 단과 두 단으로 나뉜다. 조선 후기에는 스란단이 치마 아랫단으로 이동하면서 한 단일 때를 스란[膝襴]이라 하고, 치마의 무릎과 하단에 각각 한 단씩 배치되어 스란이 두 단으로 위치한 형태를 대란大襴으로 구분하였다.



영친왕비 화문단 부금 남스란치마 | 길이 133 허리 107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행주 기씨 대란치마 | 영월 신씨 죽동종중 묘 출토 | 길이 108 허리 112 | 17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스란에 관한 기록은 1504년(연산군 10) "동자포도쌍슬란童子葡萄雙膝襴과 연변蓮邊에 니금泥金으로 그린 치마감 9폭을 대궐로 들이라."라는 내용에서 보인다. 이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청주 한씨(1500년대 후반) 연화문단 동자포도문, 남양 홍씨 연화동자문 스란치마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행주 기씨(1600년대) 동자포도문 스란치마 등의 조선시대 출토 유물에서 확인된다. 출토된 치마는 두 줄의 동자무늬를 금실[片金絲]로 넣어 제직한 스란단이 치마의 무릎 부분에 위치해 있어 쌍스란의 내용을 증명한다.

경기도박물관 소장 성산 이씨(1651~1671)의 스란치마는 봉황문이 치마에 직금된 형태로 출토되었는데, 치마의 무릎과 하단에 한단씩 스란이 있다. 이는 조선 전기의 두 줄 쌍스란의 형태에서 후기로 들어서며 점차 대란치마의 형태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스란치마의 구성은 성산 이씨(1651~1671)의 수繡를 놓아 장식한 자수스란치마를 제외하면, 대부분 홑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 실물 자료는 홑·겹이 모두 보인다. 치마에 사용된 직물은 연꽃·모란문양의 문단紋緞이 보이고, 이후에는 화문花紋 등의 문단이나 문사紋紗를 사용하였다.

스란치마는 주로 왕실 여성을 비롯한 품계가 높은 여성들의 예복이었으나, 일반 사가에서는 혼례 때만 입었다. 박규수朴珪壽(1807~1877)가 1841년(헌종 7)에 저술한 복제사服制史 연구서인 『거가잡복고居家雜服攷』에는 시집갈 때 성대히 꾸미는 것 중에 스란치마[膝襴裙]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길이가 안에 입은 치마[裏裙]보다 조금 짧아서 무릎 아래에서 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고 기록하였다.

특징 및 의의 스란치마는 일반치마보다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예복으로 입을 때는 앞 부분을 신체에 맞게 거들치마 형태로 제작하거나, 겹쳐 입으면서 앞 길이를 신체에 맞게 걷어 착용하였다. 조선시대 비빈들의 복식규정을 알 수 있는 헌종 후궁 경빈 김씨의 『순화궁첩초』의 스란치마 위에 '스란웃치마'를 입은 기록과 의화군부인 「길례 발기」에 다홍 스란치마와 남색 스란웃치마의 기록이 있어, 스란치마를 겹쳐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궁중 예복으로 스란치마를 착용할 때 소례복으로 스란단을 무릎과 밑단에 두 층으로 붙인 대란치마를 한 벌 입고, 대례복에는 스란치마를 두 벌 겹쳐 입는다.

대한제국시기에는 신분에 따라 스란단의 문양을 달리하였는데 황후의 치마에는 용문, 황태자비의 치마에 봉황문, 공주와 옹주의 치마에는 화문花紋의 스란단으로 장식하였다. 반가에서는 스란단에 용문과 봉황문을 사용하지 못하고, 공주나 옹주와 같이 수복화문 부금을 장식하여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이승에서의 마지막 치장(경기도박물관, 2011),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조선시대 스란치마 연구(허정애·송미경, 한복문화17-3, 한복문화학회, 2014), 조선조 치마 재고-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박성실, 한국복식학회지30, 한국복식학회, 1996).

필자 노수정(盧洙正)

승복
僧服

정의 승려가 입는 복식의 총칭.

내용 승복僧服은 불교를 믿고 포교하는 승려가 입는 복식으로, 가사袈裟, 장삼長衫(긴 소매 저고리) 등의 의복과 송낙, 고깔 등 관모, 그 외 일체를 포함한다. 불교의 발원지 인도에서 전래된 승복은 걸쳐 입는 간편한 형식의 가사가 기본이었으나,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기후·풍토·문화 여건 및 고유복식 등의 영향을 받아 겉옷, 관모 등이 추가된 것이다. 가사와 장삼은 부처의 가르침, 불법에 따른 옷이라는 뜻에서 법의法衣라고도 하는데, 법의로서의 가사와 장삼은 승려의 급級과 법계法階에 따라 색상·재료·제작 방식이 달랐다. 가사는 규모별로 대가사·구조九條 가사·오조五條 가사·칠조七條 가사 등으로 구분되며, 홍색·갈황색·황색·흑색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장삼은 또한 자색·감청색·회색·흑색 등 승려의 신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착용되었다.

가사는 인도에서 수도자들이 세속인들이 버린 옷을 빨아 이어 만든 납의衲衣에서 기원하여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커다란 천을 끈과 고리로 여미는 간단한 의

복이었다. 하지만 후세의 승려들은 새 천으로 여러 조각을 이어 만들게 되었다. 가사는 종선縱線과 횡선橫線으로 천 조각을 이어 구성하는데, 종선을 '조條', 횡선으로 나뉜 것을 '리里'라 한다. 긴 조각인 장長은 단短의 두 배 길이가 되며, 장과 단을 엇바꾸어 이어 한 조를 짓는다. 예를 들어 오조 이장 일단五條二長一短 가사는 두 개의 긴 조각과 한 개의 짧은 조각이 종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장 일단의 종선을 한 개 조로 하여 총 다섯 개가 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조의 개수를 오조·칠조·구조 순서로 차등을 두어 승려의 급에 따라 착용하였다.

법의를 구성하는 다른 하나인 장삼은 승복으로 입을 때 가사 아래 착용하는 받침옷이자 겉옷이다. 한국의 장삼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승복은 직철直裰인데, 상의인 편삼偏衫과 하의 니원승泥洹僧(치마 형태의 인도식 법의)이 연결된 것이다. 특히 편삼은 승려가 편단우견偏袒右肩(왼쪽 어깨를 덮고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 입는 착용법)으로 가사를 착용할 때 가슴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속옷으로 입는 것에서 발생하였다.

불교는 삼국시대 한반도에 전래되어 고구려 372년(소수림왕 2), 백제 348년(침류왕 원년), 신라 527년(법흥왕 14)에 각각 정착하였고,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유한 양식으로 변형, 발전하였다. 승복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삼국시대 승복은 고구려 고분벽화 중 쌍영총과 무용총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흑색의 겉옷을 입고 있고 쌍영총에서는 홍가사를 두른 모습이 확인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선덕왕 대에 자장법사慈藏法師가 당唐에서 가져온 가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홍색 비단에 금점金點이 있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자장법사의 것으로 전해지는 구룡사九龍寺 가사에는 황색 비단에 은점銀點이 있다. 한편, 승복의 겉옷으로 장삼이 정착되기 전에는 고유복식인 직령포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법흥왕이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고 돌아갔다는 묘사와 차득공車得公도 승려의 모습을 하였다는 기록에서 직령포를 승복으로 입은 정황이 나타난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는 고려시대 승복을 가사와 편삼으로 나눠 언급하며 이 시기 가사를 홍색이나 자색 대가사·적갈색 오조 가사·괴색壞色 무첩상가사(통가사)·자색 가사·황금색 납가사로 알려진 마납磨衲으로 구분한다. 선암사仙岩寺에서 보존 중인 대각국사大覺國師(1055~1161)의 가사는 이십오조 사장 일단二十五條四長一短으로 된 대가사로, 바탕이 홍색 비단이고 각 단에 황색 실로 부처의 명호와 불경 등을 수놓았으며, 가사의 상단과 양옆에는 자색·홍색·청색의 영자纓子가 각각 두 개씩 총 여섯 개 붙어 있다. 또한 『고려도경』에서 가사 아래 겉옷으로 편삼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장삼이 승복으로 정착하기 전에는 편삼과 니원승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도경』이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긍徐兢의 기록임을 감안하면, 고유복식인 장삼과 군裙(치마의 종류)을 중국식으로 묘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보조국사普照國師(1158~1210)의 진영에는



승복 | 권오창

장삼과 군을 합철合綴(함께 꿰맴)한 직철 장삼을 확인할 수 있다. 승려의 관모로는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된 원정립圓頂笠이 있는데, 이는 일반인도 썼던 관모로 정수리가 둥글고 챙이 있는 모자이다.

조선시대의 가사는 서산대사西山大師(1520~1640), 사명대사泗溟大師(1544~1610), 환성대사喚醒大師(1664~1729)의 진영과 화엄사華嚴寺에 현존하는 서산대사와 벽암대사碧巖大師(1575~1660)의 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단[羅] 소재의 홍색 가사가 주로 착용되었고, 황홍색·자색 가사에 금점·은점이 가식되었는데, 선조宣祖가 하사하였다는 서산대사의 가사는 홍색으로 이십오조二十五條 사장四長 일단一短의 대가사이다. 벽암대사의 가사 역시 십구조十九條 삼장三長 일단一短의 황홍색 대가사이다.

조선시대 장삼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직철에서 영향을 받아 상의 저고리와 하의 치마가 연결된 형태로, 소매가 길고 홑옷이며 치마처럼 아랫 부분이 주름이 잡혀 있다. 표충사表忠寺에는 사명대사의 장삼이 현존한다. 연회색 무명으로 직령교임식直領交衽式(직선 깃에 교차하여 여밈)으로 지었으며 아랫부분에는 맞주름을 여덟 개 잡았다. 『세종실록』에는 장삼에 흑색·회색 사용을 금지하였던 기록이 있는데, 백삼은 염색하지 않은 흰장삼으로 법회나 의식이 없을 때 일상에서 입었던 겉옷이며, 승려의 상복常服으로는 고유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염색이 어려웠던 탓에 백삼 그대로 입었고, 흑색·회색으로 염색할 때는 먹물을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겉옷은 직철 형태의 장삼에서 도포道袍나 주의周衣(두루마기) 등으로 대체되었다. 『고종실록高宗實錄』에는 의복 제도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원래 승복으로, 차츰 일반인의 정복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시대 승려의 진영을 통해 살펴보면 1800년대 이후 소매가 넓은 도포와 사방이 두루 막힌 주의를 혼합한 형태의 겉옷이 승복 장삼으로 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겉옷과 관모를 함께 착용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승려도 관冠이나 입자笠子를 착용하였다. 승려의 관모 착용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확인된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별집別集」에 승려는 오복관五福冠·비로관毗盧冠을 썼는데, 하급 승려는 방립方笠이나 송낙을 썼다고 하였다. 그 외에 굴갓[屈笠], 고깔[曲葛], 삿갓[竹笠] 등을 썼다.

특징 및 의의 승복은 가사와 장삼으로 대표되는 불교복식이며, 불교의 발원지인 인도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면서 고유복식의 영향을 받아 독자성을 갖고 변화, 발전하였다. 가사는 불교가 융성하였던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그 규모가 커졌고, 비단을 소재로 한 대가사가 정착하였는데 그중 홍색 가사를 최고로 여겼다. 가사 아래 받쳐 입은 겉옷인 장삼은 조선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직철 양식으로, 상의는 길고 넓은 소매의 직령교임에 하의는 치마 형식의 주름이 연결된 형태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복식의 간소화와 함께 조선시대 포제袍制를 수용하여 도포·주의가 장삼의 역할을 하였고, 도포의 넓은 소매와 트임이 없는 주의가 합쳐진 지금의 장삼 형태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三國遺事, 五洲衍文長箋散稿, 練藜室記述, 朝鮮王朝實錄, 한국 복식문화사(김문자·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승복의 역사적 연구(김태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한국의 가사(김경숙·안명숙, 대원사, 2005).

필자 임린(任潾)

시계
時計

정의 시간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 또는 장치.

내용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계時計를 가리키는 단어로 1883년 이후 종표鍾表, 시진종時辰鐘(괘종시계) 및 시진표時辰表(손목시계), 치시계置時計, 괘시계掛時計, 자명종표自鳴鐘表, 종표鍾表 등으로 표기되었다. 한글로는 『독립신문』 1896년 5월 28일 기사에 "금 시계"가 있다. 이후 시계, 완권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계시기[計時器, time-piece]'로서의 '시계'라는 단어가 국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세기 말엽부터인 듯하다. '시계'라는 어형이 국어에 정착하기까지 한동안은 중국에서 유래한 '자명종'과 더불어 신생어 '시종時鍾·시침時針·시표時標, 時鏢, 時表·시패時牌'와 같은 어형

語形이 곳곳에 쓰이고, 19세기 말부터는 '시계'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종은 괘종시계, 시침은 오늘날의 '회중시계'나 '손목시계'를 뜻하는 단어였다. 신생어 '시계'는 일본어에서 차용되었다. 일본어에는 '시계'를 의미하는 단어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時計'라는 표기로 정착하였다. 그 발음 'tokei'는 본래 해시계를 뜻했던 고대 중국어 '土圭'의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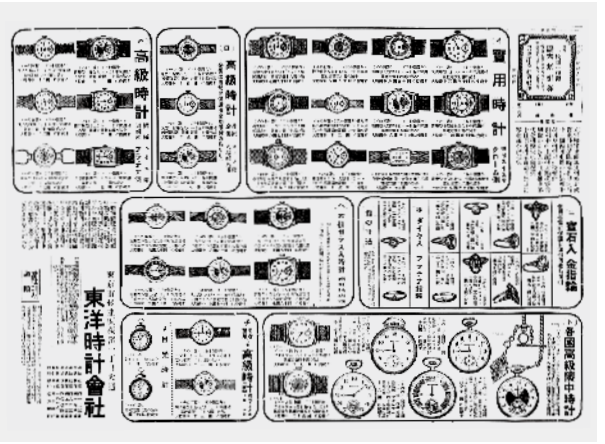
초기의 시계 광고는 대개 회중시계 광고이며, 1920년대 이후 회중시계와 함께 손목시계가 광고에 등장하였고, 그 후로는 손목시계가 시계광고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930년대 사진 자료에 잘 갖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하여 한복 바지,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고 회중시계를 늘인 모습이 있다. 1930년대에도 시계를 겉으로 드러내어 시계 소유가 자랑할 만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계는 해외에서, 특히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사치품이었다. 1930년대 휴대용 시계로는 손목시계가 유행하였으나 외국에서는 가방이나 허리춤에 차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기사도 있어 남성들이 의복뿐만 아니라 외국 유행에도 관심이 있었음을 반영하였다.

시계는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1922년 시계 광고에 "시계와 안경은 사치품이 아니라 귀중한 일용품 …… 瑞西國(스위스) 란겐회사제 腕卷時計(완권시계)"라고 광고하면서 판매를 유도하였다. 고급 시계, 실용 시계로 구분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시계는 1945년까지 여전히 사치품이었다.

시계 형태는 회중시계는 몸체는 둥글고 표면에 다양한 장식이 있으며, 길 쇠줄chain이 달려 있었다. 이후 손목시계는 몸체가 둥근 것, 네모난 것 등 다양하며 손목에 차는 시곗줄도 다양했다. 초기에는 주로 회중시계와 남성용으로 보이는 시계가 소개되었는데 차차 여성용 시계도 함께 소개되었고, 시계 판매점에서 안경, 보석을 함께 다룬 경우도 많았다.

우리 역사에서 본격적인 기계 시계로의 이행은 17세기 서양식 시계의 영향 이후에 일어났다. 1759년 홍대용洪大容이 나경적羅景績이 제작한 시계를 보고 나경적에게 부탁하여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자명종 후종



동양시계회사 광고 | 1937. 12. 7 | 동아일보

候鐘이었다. 이규경李奎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노성魯城의 윤달규尹達圭는 수종水鐘 또는 수명종水鳴鐘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민철이 만든 혼천시계와 비슷하였다. 19세기 초 시계 제작자로는 이들 이외에도 최천악崔天岳·김흥덕金興德 등이 있었다고 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 회중시계, 허리춤에 차는 시계, 손목시계 등이 소장되어 있으나 모두 광복 이후의 유물로 일제강점기의 시계 유물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서양식(기계식) 시계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기술자가 시계를 고친다는 광고는 있으나 시계를 직접 제작한다는 기사 내용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시계 생산이 시작된 것은 1959년 기계 시계가 조립 판매되면서부터였다.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수준이었던 시계공업은 그 뒤 국산화율을 높여 1977년 이후에는 전자시계 생산으로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국산 시계도 고급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징 및 의의 시계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 서양식 시계가 도입된 초기에는 일반인은 구하기 어려운 비싼 물건이어서 도둑맞는 일도 흔했고, 일제강점기 동안 시계는 사치품이었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계는 주로 서양에서 수입했는데, 우리나라에 시계를 수리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공업 분야로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처

음에는 한자로 표기되다가 일본어에서 온 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20세기 전기에는 회중시계가 주로 판매되고 그 후에는 손목시계가 판매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개항 이후 광복까지(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근대사자료집성1-요시찰한국인거동1(국사편찬위원회, 2001), 시계의 차용(송민, 새국어생활10-2, 국립국어원, 2000), 미국약조(한성순보, 1883. 12.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encykorea.aks.ac.kr).

필자 남경미(南瓊美)

시복
時服

정의 사모紗帽·단령團領·품대品帶·흑화黑靴로 구성된 문무백관의 관복.

내용 고려 말 정몽주가 명나라에서 백관의 관복으로 사모와 단령을 가져오면서 관리들이 사모·단령을 관복으로 입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세종 대에 서민의 단령 착용을 금하면서 단령은 확실하게 관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문무백관의 시복時服은 사모紗帽·단령團領·품대品帶·흑화黑靴로 구성되었다. 사모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구조의 모자로, 뒤쪽에 좌우로 수평의 뿔[角]을 꽂았다. 당상관은 무늬가 있는 뿔을, 당하관은 무늬 없는 뿔을 꽂았다. 모자와 뿔의 세부적인 형태 는 착용 시기를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게 변화하였다. 단령은 깃이 둥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깃 너비나 깊이, 소매 너비, 무의 구조 등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특히 시대에 따라 단령의 색상과 용도가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성종 대 말기 이후 1610년 5월 19일까지는 아청색 흑단령을 시복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로는 집무복인 홍단령을 시복이라고 하였다. 품대는 품계에 따라 사용하는 띠돈과 테두리의 재료가 달랐는데 서대犀帶(1품), 삽금대鈒金帶(정2품), 소금대素金帶(종2품), 삽은대鈒銀帶(정3품), 소은대素銀帶(종3품~4품), 흑각대(5품 이하) 등의 종류를 사용하였다. 흑화는 신목이 있는 부츠형 신발로 신발부리가 위로 들린 것이 특징이며 시대에 따라 신목의 길이나 신울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하였다. 신발 안에는 정精 또는 청淸이라고 하는 모직 또는 가죽으로 만든 전용 버선을 신었으며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는 분투分套라고 하는 가죽 덧신을 겹쳐 신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초기에는 관리들이 입는 관복 단령의 색상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단지 색상이 옅은 경우에는 조정의 위의威儀를 위해 짙은 색상의 단령을 입으라고 명하였다. 이 때는 상복과 시복의 구분이 없었기에 상복이라고도 하고 시복이라고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록에서도 상복과 시복의 명칭 구분은 없었다.

세종 대에 상참常參이나 조참朝參 등과 같은 의례 때에 흑단령黑團領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예복禮服'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집무 시에는 다양한 색상의 단령을 입을 수 있었으나 점차 녹색과 홍색의 단령을 입게 되었고 결국 평상시 집무복으로는 홍단령 하나만을 입게 되었다. 용도별로 단령의 색상이 정착되면서 명칭도 분화되었다. 명칭이 분화된 것은 성종 대 말로 추정되는데 확실한 기록은 1520년(중종 15) 『중종실록中宗實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부터 의례복으로 착용하던 흑단령을 시복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시복 흑단령은 아청색 단령이다. 당상관은 무늬가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착용하고 품계에 맞는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부착하였다. 반면에 당하관은 무늬 없는 초綃나 주紬로 만든 흑단령을 입었다. 흉배는 물론 사용하지 않았



① 권응수 초상 | 1604 ② 채제공 초상 시복본 | 1792

시복 | ① 권경민, ② 수원화성박물관

다. 그러나 120여 년이 지난 1610년(광해군 2) 5월 19일, 의례복 흑단령을 『오례의』 기록에 근거하여 상복으로 규정하면서 집무복으로 착용하던 홍단령을 시복이라 하게 되었다. 홍단령은 집무복이므로 당상관과 당하관 모두 무늬 없는 초綃나 주紬로 만든 홍단령을 착용하였다. 색상도 옅은 홍색이었으나 17세기 후기에 당하관의 홍단령 색상이 점차 짙어짐에 따라 당상관과 당하관의 홍단령은 담홍포淡紅袍와 심홍포深紅袍로 나뉘었다. 그러자 1757년(영조 33) 12월 16일 영조는 당하관의 시복 색상을 녹색으로 변경하도록 명하였다. 그 후 1884년 갑신의제개혁으로 흑단령으로 통합되면서 시복 제도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樂學軌範, 朝鮮王朝實錄,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이은주·조효숙·하명은, 민속원, 2005), 국립진주박물관-임진왜란(국립진주박물관, 1997),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과 상복 제도 변천(이은주, 복식55-6, 한국복식학회, 2005), 조선시대 홍단령의 변천(이은주, 한국복식3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5).

필자 이은주(李恩珠)

신발

정의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역사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과 『남사南史』 동이전東夷傳의 신라조에 '화靴'를 '신侁'이라 한 기록을 통해 '신'의 어원을 추정한다. 우리나라의 신은 목이 있는 화靴와 목이 없으며 둘레가 낮은 혜鞋와 리履로 분류할 수 있다. 화는 습기와 추위를 막아 주어 주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북방민족이 많이 신었고, 리는 농사를 짓는 남방민족이 흔히 신었다고 이여성李如星의 『조선복식고朝鮮服飾考』에서 설명하였다.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농경 문화권의 남방 지역에서는 혜와 리가, 북방의 기마유목 문화권에서는 화가 공존하면서 착용되었다.

상고시대 부여에서는 가죽신[革履]을, 마한에서는 풀을 재료로 한 초리草履와 혁교답革蹻蹋을 신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가죽과 풀을 재료로 하여 신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풀을 재료로 한 초기의 신발은 처음에는 발을 보호하는 뜻에서 신바닥을 엮은 데에 몇 개의 날을 세워 겨우 발에서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조잡하였던 것이 점차 짚신, 부들신, 지초혜紙草鞋, 마혜麻鞋, 갈피혜葛皮鞋, 세초혜細草鞋, 분혜粉鞋로 발전되었다.

고구려 때는 누런 가죽신인 황혁리黃革履, 검은 가죽신[烏皮靴], 붉은 가죽신[赤皮靴]을 신었으며, 여기에 의복과 관冠, 신을 모두 금과 비단으로 장식하였음을 기록과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인은 화려한 재료의 의복에 목이 길거나 짧은 형태의 신을 함께 착용하였다. 백제의 <양직공도梁職貢圖>에서 볼 수 있는 화와 오혁리烏革履의 기록을 통해 백제와 신라도 고구려와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와 신라의 고분에서 발견된 금동리金銅履는 삼국시대 지배계층이 신었던 특수한 신이다. 옆에 장식이나 구슬이 달려 있고 바닥에 스파이크 형태의 못이 박혀 있는 신이다. 이와 같은 금동리는 제전이나 의식 때 착용하여 지배자의 위엄을 나타내거나 부장 시 함께 신겨져 신분을 표현하는 등 상징적인 신이다. 그런데 통구通溝지역 삼실총 제2실 서벽 무사도武士圖의 무사를 보면 운두가 얕고 앞의 코가 뾰족하여 전형적인 리 형태에 바닥에는 스파이크 형태 못이 박혀 있는 신을 신고 있다. 고구려는 산과 나무가 많은 지역인 데다 겨울에는 빙설로 덮이고 산길이 미끄러워 이와 같은 쇠못이 달린 신은 실용적인 용도로도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는 화에 화대靴帶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라 흥덕왕 복식금제服飾禁制의 기록을 보면 화대의 재료는 은문백옥隱文白玉, 뿔[犀], 놋[鍮], 철鐵, 동銅 등이었다. 신목에 다양한 금속장식이 있는 화대를 달아 신을 고정하였는데 귀인부터 서민까지 규제를 두었다. 이밖에 리履는 남녀 공용으로 착용했는데 비단, 가죽, 삼 등으로 만들되, 역시 제한을 두어 착용토록 하였다. 신라는 이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당唐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외래적인 요소가 유입되었고, 이러한 개방적인 미적 풍조가 복식에 표현되면서 한층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이 착용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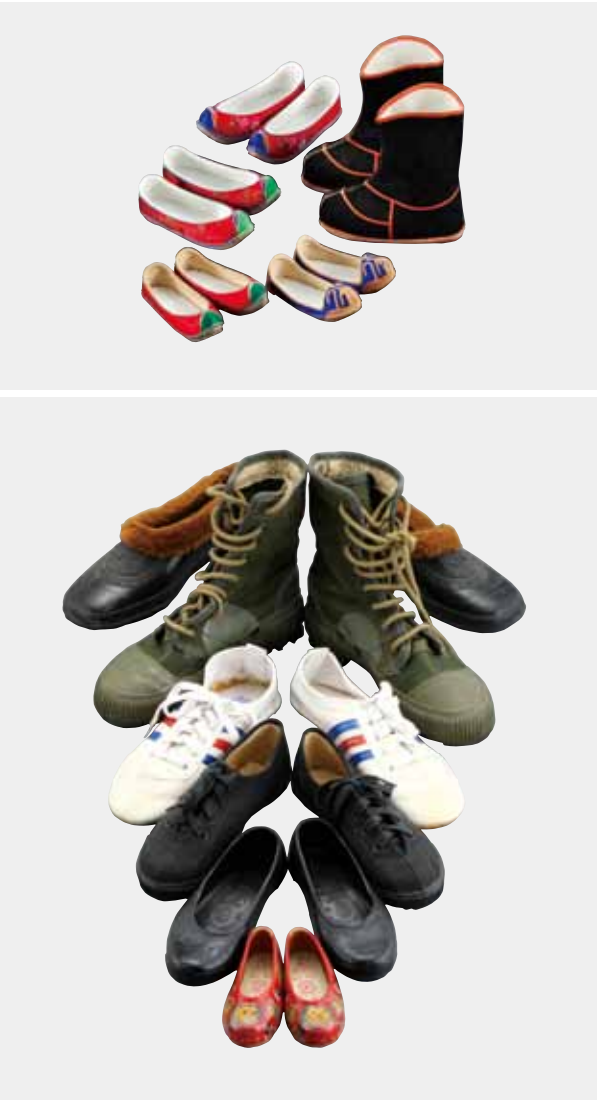
고려 초기에는 신라의 제도에 따랐다.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절 서긍徐兢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진사, 산원, 인리, 방자 등의 하급 관리는 가죽신 또는 가죽으로 만든 구리句履을 신었다고 한다. 또 고려 서민

들의 신은 혁리革履, 오혁구리烏革句履, 조구皁屨, 초구草屨(짚신)를 신었는데, 초구의 형태는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그 모양이 괴이하나, 전국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신는다고 되어 있어 고려인은 주로 네모난 형태의 짚신 또는 가죽신을 신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백관의 공복제도가 공표되어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에 흑피혜黑皮鞋를 착용하고, 공복公服에는 1~9품까지 흑피화黑皮靴를 신고, 상복常服에는 1~3품 당상관만 협금화挾金靴를 신도록 하였다. 흑색의 가죽으로 된 화는 공적 용무에 사용되었고, 혜는 평상시와 공무에 신을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죽으로 된 화는 관리들의 관복에 사용되었고, 혜는 공석과 평상시에 공용으로 신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 말기에는 목화木靴가 관복용으로 통일 대체되었다. 이 목화는 19세기에 등장하는 명칭으로 목이 있는 신의 표음 용어로 해석된다.

내용 우리나라 신발은 기능과 재료, 목적,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다. 신의 재료는 가죽, 비단, 나무, 짚, 부들, 놋쇠 등 매우 다양했으며, 재료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

가죽 또는 가죽과 비단으로 만든 '갖신', 볏짚으로 만든 '짚신'과 마, 갈대 등으로 만든 '초혜'가 있다. 여기에 부들, 종이, 가죽 등을 섞고 곱게 엮어 만들면 '미투리'라고 한다. 중인들의 '마혜'는 삼으로 엮어 만들어 마른 땅에서 신었는데, 삼실로 삼은 미투리는 '구屨'라고도 하였다. 유생이나 중인층에서 주로 신던 미투리는 여러 명칭이 있다. 생삼을 거칠게 삼았다 하여 '삼신', 거칠게 삼고 절에서 신었다고 하여 '절치', 동대문 밖 탑골에서 삼은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튼튼하게 잘 삼은 '탑골치', 쌀무리(쌀을 물에 불려 갈아서 체로 받쳐 가라앉힌 앙금)를 바닥에 먹인 '무리바닥'이 있으며, 가죽을 잘라서 총을 만들어 '가죽 미투리', 종이를 꼬아서 총을 만든 '지총 미투리', 칡넝쿨의 속과 같이 갈근섬유로 만들어 '청올치신'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초혜는 상·중·하의 품질에 따라 반가에서는 솜씨 좋고 곱게 엮은 것을 신고, 조잡하고 거친 것은 서인 또는 천인들이 신었다. 볏짚으로 만든 짚신은 재료를 구하기가 쉬워 일반 백성들이 많이 애용한 신이지만 쉽게 닳아서 먼 길 가려면 밤잠을 자지 않고 만들어야 했다. 고운



다양한 신발 | 국립민속박물관

짚신은 고급품이고, 엄짚신은 상제가 초상 때부터 졸곡卒哭(장사를 마치고 삼우제를 지낸 뒤에 무시애곡을 끝내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 때까지 신는 짚신으로 '관리菅履'라고도 한다. 나무를 깎아 파서 만든 것은 '나막신' 또는 '목극[木屐, 屐子]', '격지'라고 한다. 비 오는 날에 신는 것으로 나막신의 굽은 흙이나 빗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굽이 없는 것도 있었다.

날씨에 따라 마른날 신으로 마른신, 비 오는 날과 진땅에 신는 진신, 눈길에 신는 설피, 둥구니신 등이 있다. 마른신의 제작방법을 보면, 가죽으로 만드는 혜는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신 울타리는 모시와 삼베를 백비(헝겊이나 종이 따위를 덧붙여서 두껍게 하는 일)하

여 바탕으로 삼은 후, 겉을 비단이나 가죽으로 씌운 것으로,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했다. 조선시대 양반 남자의 신인 태사혜太史鞋나 양반 부녀자가 신은 당혜唐鞋, 운혜雲鞋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대부들의 갖신(가죽신)과 양반 부녀자들의 비단신은 마른신이면서 그 사용한 재료와 장식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다. 형태를 보면 남자들의 신은 대부분 신코가 다소 뭉뚝하지만 여자들의 신은 신코가 뾰족한 게 특징이며, 신코가 위로 들린 것은 공통적이다.

'석舃'은 왕실에서 신었던 신이다. 왕과 왕세자의 면복冕服 착용 시와 왕비와 왕세자빈의 적의翟衣 착용 시 일습一襲으로 갖추어 신었던 의례용 신이다. 석은 바닥이 목재와 가죽의 겹창으로 되어 단창과 달리 오랜 시간 땅에 서 있어도 발이 젖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왕의 석은 화 형태이고, 왕비의 석은 혜 형태이다.

서민들은 초리와 마혜麻鞋, 지혜紙鞋, 나막신을 신고, 일반 부녀자는 운혜雲鞋나 나막신[屐], 유혜油鞋(징신) 등을 신었다.

특징 및 의의 신발은 원래 짚신의 '신'과 감발에서 나온 '발'을 말한다. 감발은 '발감개' 또는 '발감개를 한 차림새'를 뜻한다. 발감개는 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 헝겊을 말하며, 짚신을 신고 감발하는 것을 '신발한다'고 하였다.

신은 걸어 다닐 때 발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목적에 충실하면서 신분을 나타내고 미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기능도 충족시키며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신발은 좌우 구분 없이 한 켤레를 만든다. 그 후 신을 착용하고 발집이 나면서 비로소 좌우의 짝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낮은 울에서 시작하여 뒤축으로 올라가는 날렵한 곡선미도 독특한 형태이다. 이러한 마른신은 땅에 딛는 발에 신는 신이면서도 비활동적으로 보일 만큼 유난히 아름다운 복식미가 있다.

상고시대 우리나라의 신은 형태에 따라 화, 혜, 리로 분류하며, 용도에 따라 마른신, 진신으로 구분하고, 착용 목적과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명칭을 붙인다. 여기에 신분에 따라 구별을 두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관복에 신는 화는 신목이 있는 형태이며, 주로 검은색으로 제복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강하다. '리'는 문무백관의 제복용으로 착용하는 흑리와 왕골, 삼, 짚으로 엮은 일반용 초리와 가죽으로 만든 혁리가 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문무관 관복도설에 흑피리는 발목까지 오는 형태이며 이는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흑피혜로 나온다. 마른신은 울타리가 낮고 딱딱한 가죽과 백비를 속에 덧대어 제작하기 때문에 팔자로 걸어야만 벗겨지지 않게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독특한 팔자걸음으로 걷는 양반의 보행문화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면 풍류를 즐기는 사대부들은 직령포에 긴 갓끈을 내려 한껏 멋을 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신을 착용하고 서 있는 자세가 팔자걸음의 연장 상태로 발이 많이 벌어진 형태를 보인다.

신발의 수를 셀 때는 '짝', '켤레', '족' 등의 단위를 사용하고, 치수를 나타낼 때는 '문文', 현대는 '밀리미터' 등의 단위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高麗史絶要, 國朝五禮儀, 三國志, 樂學軌範, 增補文獻備考, 通典, 신의 착용 문화와 복식미적 고찰(조선희, 역사민속학31, 역사민속학회, 2009),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초마혜의 모티브를 응용한 신의 디자인(장숙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인의 신발(최공호 외, 미진사, 2015), 화·혜·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화혜장(조선희, 민속원, 2007).

필자 조선희(趙鮮姬)

신식군복
新式軍服

정의 개항 이후 군인들이 착용한 서양식 군복.

내용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세계정세에서 1876년 개항한 조선은 서양화된 일본과 서양의 제도를 참고하여 개화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군사제도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변화를 시도하여 1881년에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100명으로 구성된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였다. 일본인 교관 밑에서 훈련을 받은 별기군은 한국 최초의 신식 군대였지만, 그 당시 서양식 제복은 도입되지 않았다. 별기군의 군복은 기존의 한복 바지와 저고리 위에 마고자 형태의 상의를 입고 혁대를 맸으며 머리에는 망건 위에 작은 갓을 썼다. 별기군은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구식 군대가 1882년 7월에 임오군란을 일으킴으로써 별기군은 1884년에 해산되었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였다. 조선의 군대를 개편하여 친군영親軍營을 만들었으며 청나라의 군복을 입게 했다. 청나라의 당시 군복도 서양식이 아니었고 둥근 깃의 매듭단추로 고정하는 중국식의 옷이었다. 친군영은 1888년에 폐지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주도하에 진행된 갑오개혁에서 군대를 신식으로 개편하였다. 을미년인 1895년 4월 9일에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이 발표되어 조선에서 최초로 서양식 군복이 채택되었다. 육군복장규칙은 군복을 정장正裝·군장軍裝·예장禮裝·상장常裝의 네 종류로 나누어 각 군복 종류에 따라 착용하는 구성품을 규정하였다. 이 군복은 당시 일본군이 착용했던 군복과는 디자인이 달랐다. 특히 모자의 정수리 부분이 둥근 철모형이었으며, 오얏꽃무늬의 모표를 달고 앞뒤에 작은 차양이 달린 특징이 있었다. 상의는 한 줄 단추 재킷이었고 수장袖章으로 태극무늬의 단추를 달았다.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의 을미사변과 1896년의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일본인 무관의 파면과 러시아 군사고문의 초빙으로 인해 새롭게 개편되었다.

1897년에 개정된 군복제도는 예복과 평상복이 구별되었고, 장교의 경우 모자와 상의가 두 종류가 되었다. 모자는 원통형이고 예모에는 줄 수로 계급을 나타내는 금선이 들어가며 상모에는 검은색 선이 들어갔다. 상의의 앞여밈은 일반 단추가 아니라 매듭단추였고 여밈 부분에서 좌우흉부로 매듭끈이 뻗어서 끝부분에서는 무궁화 모양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의 군복 상의를 늑골복肋骨服이라고 부른다. 예복은 검은색이고 소매에는 줄 수로 계급을 나타내는 인人 자형의 금선이 들어갔다. 상복은 순묵색純墨色이고, 소매에 들어가는 수장은 검은 선이었다. 모표와 소매의 인자형 끝부분에 오얏꽃무늬가 배치되었다. 사병의 경우 예복은 없으며 상의의 앞여밈은 매듭단추가 아니라 갈고리단추이고 소매에는 일직선의 붉은 선이 들어갔다.

1900년의 개정에서는 상의 앞여밈에 매듭단추 대신에 무궁화무늬가 들어간 금색단추를 사용하게 되었다. 예복과 상복 모두 검은색이 되었고 장교의 예복은 앞여밈 부분이 이중으로 된 더블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 재킷으로 단추 두 줄이 들어갔으나 상복은 한 줄 단추였다.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친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개입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1906년에 육군복장의 종류가 대례장·군장·예장·반예장·상장의 다섯 종류가 되었다. 1907년에는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해산이 되어 그 후 일본 군복을 착용하였다. 여기에서 대한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신식군복은 맥이 끊긴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복장은 중국과 미국 등 거점 지역의 영향을 받았다. 그때 현지의 군복을 표장만 한국식으로 바꾸어서 착용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에서는 1945년에 군인제복의 양식을 제정했다. 모표와 계급장에는 무궁화와 태극, 별무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광복군은 광복 후에 미군정 때문에 새로운 국군의 중심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광복군의 복제도 1946년 광복군의 복원선언서 이후 맥을 이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 조직인 남조선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는 군복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군복을 생산할 여력이 없었다. 대부분 병사는 일본 군복의 표장을 바꿔서 그대로 입었다. 또한 미국 군복도 들어오면서 일본 군복과 미국 군복이 혼용되었다.

1946년 후반부터는 미국 군복의 공급이 원활해져서 미군식이 많이 착용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그해 12월에 육군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국가행사 등에는 미군의 정복을 예복으로 착용했다. 사병의 제복이 생산되었지만, 곧바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여 미군식의 전투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당시의 전투복은 작업복이라고 불리며 국방색의 작업모와 작업복, 그리고 전투화로 구성되었다. 전쟁 중에는 명확한 규정도 없이 다양한 형태의 군복을 임의로 착용하였다.

1953년 7월 휴전 이후 군복제도가 점차 정비되었다. 1962년 각령 제700호의 '군인복제'는 1950년대까지 질서가 정립되지 않았던 군복제도를 정돈하고 예장과 정장, 근무장, 전투장의 형태와 착용법, 그리고 착



1897년 제식의 늑골복 형태의 육군 예장



1900년 이후 제식의 더블브레스티드 형태의 육군 예장 | 육군박물관

용 시기를 규정하였다. 그 후 개정과 보완을 거듭하여 1967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군복이 규정되었다. 형태는 더욱 간소화되고 세련되게 바뀌었다.

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함께 군복도 개정되어 미군의 영향을 벗어나 토착화를 지향했다. 정복은 1971년에 장교와 사병의 제식이 통일되었다. 개정 전에는 미군의 영향으로 동복은 흑갈색, 하복은 카키색이었는데, 이때 동복과 하복의 색상을 통일하여 녹회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80년에는 다시 흑녹색으로 바뀌었다. 정복은 목부분에서 셔츠와 넥타이가 보이는 테일러드 칼라의 한 줄 단추 재킷이다.

근무복의 경우 카키색의 와이셔츠형이었고, 1960년에는 반팔도 만들어졌다. 1962년의 개정으로 겨울은 흑갈색, 여름은 카키색으로 와이셔츠형이 계속 사용되었다. 1976년에는 장교 동복과 하복이 모두 녹회색이 되었다. 1980년에는 정복이 흑녹색이 되면서 장교의 근무복도 같은 색이 되었으며, 1981년에는 사병의 동·하복도 같은 색이 되었다. 이전 시기에 작업복이라고 불렸던 것이 1967년에 전투복으로 개칭되었다. 1990년에는 기존의 카키색에서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개정되었다.

계급장은 1954년에 장관이 별, 영관이 대나무, 위관이 마름모의 개수로 계급을 나타냈다. 1975년에는 장관의 별 아래에 무궁화가 추가되었고 1980년부터는 영관과 위관의 계급장에도 무궁화가 추가되었다. 모표는 무궁화와 태극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다. 병과를 나타내는 휘장은 초기에 미군을 모방하다가 1971년에 한국의 전통 무기 체계와 사상 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이 고안되었다. 그 외 특수 복장으로 의장복·군악대·간호복·헌병근무복·사관생도복 등이 있다.

해군의 경우는 대한제국시대에는 군복 규정이 없었다. 광복 후인 1946년에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고 1948년에 해군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1952년에 해군복제가 규정되었는데, 겨울 정복이 검은색이고 두 줄 단추의 테일러드 재킷이었다. 하복은 흰색 재킷이며 수병은 세일러복이었다.

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에 비행단 창설에서 시도되었는데,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받았다. 광복 후에는 항공 관련 인력과 지식을 모아 1949년에 공군이 정

식으로 발족했다. 공군의 군복제도는 겨울 정복이 곤색이며 비행복이 별도로 규정되었다.

전투복은 1971년에 육·해·공 각 군의 형태가 통일되었으며, 1990년에는 얼룩무늬가 도입되었다. 2011년부터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으로 바뀌었으며, 모자는 짙은 녹색 베레모로 바뀌었다.

특징 및 의의 1876년 조선이 개항한 후 도입된 서양식 군복을 신식군복이라 한다. 신식군복은 갑오개혁기인 1895년에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으로 처음 발표된 이후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될 때까지 군복의 종류, 착용 상황, 구성품 등을 규정한 육군복장규칙과 형태적 특징을 규정한 육군장졸복장제식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변화하였다. 그 형태는 예장을 기준으로 1900년 이전에는 늑골肋骨 매듭 장식이 있는 재킷이었고 이후에는 두 줄 단추의 재킷이었다. 도입기의 신식 군복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제복이라는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선, 계급장 등에 국가 이미지 무늬를 도안화하여 장식하였다. 이러한 무늬에는 오얏꽃, 무궁화꽃, 태극 등이 있었다. 특히 수장袖章에 인人자형 선線의 개수로 계급을 나타내어 같은 시기 우又자형 장식을 하였던 경찰복과 구별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복,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으로, 해군과 공군의 군복에까지 확대되었고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왔다.

신식군복은 근대 양복도입기에 가장 먼저 도입된 서양식 제복이다. 이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했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형태적 특징은 서양으로부터 도입하였지만 모자, 영장領章, 견장, 수장 등의 구성요소들에 국가 상징 이미지를 고안하고 표현함으로써 주권 국가의 군대 제복이라는 의미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상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제국의 군사제도(서인한, 혜안, 2000), 육군복제사(육군복제사편집위원회, 육군본부, 1980), 한국군복의 변천사연구-전투복을 중심으로(김정자, 민속원, 1998),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1(국방군사연구소, 1997), 한국의 군복식 발달사2(국방군사연구소, 1998).

필자 이경미(李京美)

심의
深衣

정의 유교 철학의 심원한 의미를 담았다고 하여 유학자가 주로 착용한 깊이 감싸는 형태의 의복.

개관 중국 심의深衣의 기원은 주대周代 이전으로,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와 한대漢代에 요금심의繞襟深衣 혹은 곡거심의曲裾深衣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그 후 쇠퇴하였다가 송대宋代에 사마광司馬光과 주자朱子에 의해 유학자의 의복 및 예복으로 부흥하였다. 이후 왕조와 유학의 흥망성쇠에 따라 심의의 지위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청대 이후에는 거의 착용되지 않았다. 심의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예기禮記』이지만, 여기에서도 그 제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자의 『가례家禮』에 준하여 착용하였다. 고려 말 성리학性理學이 유입되고 조선 중기 이후 예학이 발전하면서 주로 관혼상제의 사례복四禮服과 유학자의 예복으로 사용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학자들 사이에 통상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근래에는 습의襲衣로 착용했던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심의의 용도는 그만큼 광범위하여 중국에서는 천자天子 및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예복禮服 및 연복燕服, 길복吉服 및 흉복凶服으로 통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심의 제도는 『예기』 옥조편玉藻篇과 심의편深衣篇에 기록된 후 『예기』에 대한 후한대後漢代 정현鄭玄의 주注와 당대唐代 공영달孔穎達의 소疏를 단 『예기주소禮記注疏』, 사마광의 『서의書儀』, 주자의 『가례』에 상세하게 언급되었지만 이후에도 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심의 제도는 깃의 유형에 따라 직령심의直領深衣와 방령심의方領深衣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섶의 유무나 허리선의 유무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내용 심의 제도는 『예기』에서 3거袪, 임당방衽當旁, 장중계엄척長中繼掩尺, 속임구변續衽鉤邊, 십유이폭十有二幅, 곡겁曲袷 등이 주로 논의되고 다양한 형태가 제시되었다. 그 논의의 목적은 모두 『예기』에 기록된 본모습을 찾고자 하는 데에 있었지만, 모두 각각의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가례』의 심의를



심의 | 길이 133.5 품 93 화장 132.5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숭상하여 송대의 심의가 널리 착용되었으나, 실학자들은 『예기』의 심의 제도까지 비판하고, 때로는 심의 제도의 정확성 여부보다 실제 기능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가진 끝에, 나름대로 해석하여 구성상 오류를 범한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의 심의 제도는 주자의 설을 따른 것을 대표로 하여 대략 다음과 같다. 백세포白細布를 기본 재료로 하였으나 면綿과 저紵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다만 견絹의 사용 여부는 논란이 있었다. 척도는 『예기』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사마광은 이를 주척周尺(주대의 길이 단위)이라 하였고 주자는 지척指尺(손가락 길이를 기준으로 한 길이 단위)이라 하였으므로 이 두 척도가 혼용되었다. 지척은 '신체를 계산하여 옷을 마른다.'라는 비례 준칙에 따라서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를 1촌寸으로 삼아 신체에 따라 변한다. 조선시대 심의 제도 역시 지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17세기 이후부터는 주척과 포백척도 함께 사용되었다. 심의에 쓰이는 포의 폭은 2척 2촌으로 의衣의 나비와 소매 길이, 상裳 12쪽 나비 등의 치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심의를 마름질할 때 폭이 넓을 경우에는 의 2폭, 상 6폭(12쪽), 소매 2폭이 들지만, 폭이 좁을 경우 소매는 1폭에 반 폭씩을 더 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문공가례文公家禮』에 포 폭의 광이 좁아 1척 8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폭이 넓은 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중국에서 구입하거나 때로는 국내의 좁은 포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바느질 순서는 『가례』에 의하면 '의·상·소매·깃·곡거 및 속임구변·연'의 순서이며, 『문공가례』에 기록된 바느질 순서는 '의·상폭 연결·진동·배래·깃·의와 상 연결·속임구변·연'으로 비교적 상세하다. 각 부위의 바느질법을 살펴보면 의는 포 2폭을 사용하여 가운데를 구부리고, 2척 2촌 길이로 아래로 늘어뜨려 늑골 부위를 지나도록 한다. 상에 연결되는 허리 부위의 둘레는 7척 2촌이 된다. 소매는 둥글게 하여 원몌圓袂라고 하며, 포 2폭을 각각 가운데를 구부려 의 좌우에 붙인다. 소매 나비는 의의 길이와 같고 점점 둥글게 호아부리를 이루는데, 소맷부리는 1척 2촌으로 한다. 두 깃襟을 서로 여며서 임衽이 늑골 아래에 오게 하면 자연히 모난 형태를 이루어 소위 직령심의直領深衣가 된다. 하지만 옷깃을 여며 입으면 앞자락이 당겨지면서 깃이 반듯한 방형이 되지 않아 아랫단이 들려 올라가 평평하게 되지 않는 문제점이 늘 지적되었다. 상은 6폭을 12쪽으로 마름질하여 의에 붙이고 길이는 복숭아뼈에 이른다. 즉, 매 폭을 어슷하게 마름질하여 두 쪽으로 만들되, 한쪽 머리는 넓고 한쪽 머리는 좁게 하여 좁은 쪽



이재 초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이 넓은 쪽의 반이 되게 한다. 좁은 머리가 위로 향하게 하여 의 1폭에 상 3쪽을 붙이니 허리쪽은 7척 2촌, 아랫단은 14척 4촌이 된다. 연은 흑증黑繒만을 사용하므로 흑연이라 하였으며, 깃은 안팎 각 2촌, 소맷부리와 상 가장자리는 안팎 각 1.5촌이다. 소맷부리는 감의 바깥쪽으로 연을 이어 단다. 심의의 부속물로는 대대大帶가 있어 2촌의 겹으로 된 백증白繒으로 허리를 두 번 둘러 앞에서 묶어 양 귀를 만들어 늘어뜨리고 묶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3푼分의 조條로서 다시 묶고 대와 조의 길이는 치마 길이와 같게 한다. 그리고 머리에는 복건을 쓴다.

특징 및 의의 심의는 중국에서 주자가 복원한 이래, 유교문화를 꽃피운 조선시대에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수의 등에 착용 계승되는 역사적인 복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그동안 제시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심의 제도가 집대성되고, 또한 심의의 상징적 의미도 더욱 깊이 탐구되었다. 심의의 유형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양대 산맥의 학풍과 가문의 계보에 따라 이어져 내려왔으며, 깃의 형태와 깃의 구성요소를 통해 유교 경문의 본뜻을 구현하려는 의지, 그리고 실용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실학적 사고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심의 제도로 분류된다.

첫째, 『가례』의 심의 제도에 준한 것으로 2촌의 연으로 깃을 삼은 직령심의 유형이다. 검은색 연으로만 깃을 삼은 것은 주자가 검약함을 강조했다는 의미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였다. 둘째, 『가례』 중심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예기』와 고례에 따라 2촌 너비의 깃 위에 1.5촌 너비의 검은색 연을 둘러 깃을 조금 노출시킨 직령심의이다. 주로 기호학파를 중심으로 착용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심의 제도이다. 셋째, 섶이 있는 직령심의제로 편리하고 합리적인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며 입었을 때 아랫단이 가지런해져 『예기』의 본뜻에도 부합하는 제도를 추구하여 제작된 것이다. 주로 영남학파에 의해 제기되었다. 넷째, 방령심의는 실학자 한백겸이 제시한 대금형 방령심의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뿐 아니라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다. 그 후 박규수와 허전의 섶이 있는 방령심의는 조선 말기의 이항로를 중심으로 화서학파를 주축으로 한 위정척사 사상가들에게 널리 착용되었다.

성리학에서 인간을 소우주로 간주해 천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한 바와 마찬가지로 심의 구성에 담긴 상징도 우주의 원리를 담은 것이다. 즉 우주와 인간과 의복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원리인 천도天道를 본받아 인간이 행해야 할 바 인도人道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심의 속에 내포된 철학적 상징성은 유교의 중심 사상이 되는 역易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심의 구성에 사용된 상象의 상징성은 각 부위에 표현된다. 소매, 깃, 등솔, 상裳의 아랫단은 자연의 공간적 측면을 표현하는 원圓, 방方, 직直, 평平의 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이 상들은 천天(원), 지地(방), 인人(직·평)을 상징하였으므로 심의에 하나의 소우주를 담아 인간과 우주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이 네 가지 상은 각각 '원'은 무사無私를, '방'은 의義와 무사無私를, '직'은 정政과 곧음을, '평'은 안지安志, 평심平心, 평평함을 상징한다. 심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치수는 상호에 비례하며, 심의 12폭은 자연의 시간적 측면을 포함하는 1년, 4시, 12월 등 음양과 천지자연의 법칙을 상징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심의의 상징성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여 『주역』을 근거로 더욱 다양하며 심도 있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각 부위의 치수마다 수의 상징성을 더하여 형태와 치수가 다양한 심의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家禮, 家禮輯覽, 久庵遺稿, 文公家禮, 士儀, 禮記注疏, 심의(정혜경,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中國古代服飾研究(沈從文, 龍田出版社, 1981), 中華五千年文物集刊-服飾編 上·下(中華五千年文物集刊編輯委員會, 裕台公司中華印刷廠出版, 1986).

필자 정혜경(鄭惠敬)

쌍계
雙髻

정의 머리카락을 정수리를 좌우로 나누어 틀어 두 개의 상투를 세우는 머리모양.

내용 쌍계는 정수리 좌우에 두 개의 상투를 틀어 올린 머리모양이다. 고구려 감신총 벽화의 여인은 상부에 두 개의 계두鷄頭를 솟게 한 형태로 커 보이며, 덕흥리 고분


① 덕흥리 고분 | 고구려


② 평생도 중 부분 | 20세기

쌍계 | ② 국립중앙박물관

벽화의 여인들은 쌍계로 묶어 올리고 남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관례 전의 동자는 쌍계나 땋아서 늘인 머리 형태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머리를 묶어 검은색 천으로 둘렀다. 조선시대에는 쌍계로 하거나 머리를 땋아 늘인 형태로 몽골과는 달리 앞머리를 깎지 않았으며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관례를 하고 나면 관모를 쓰는데 머리카락은 상투를 틀어 올려서 고정시킨다. 관례는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교적 전통가치의 성년식이며, 상투를 틀고 관모를 씌우는 의식이 주가 된다. 관례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아이에게 행했으며, 이것이 끝난 후에야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이러한 관례의식은 고려 말 『주자가례周子家禮』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다. 쌍계는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용 태도를 보이는데, 동자의 일상적인 머리모양이며, 관례의 상징성을 지닌다.

1788년(정조 12) 10월 신묘조辛卯條에 비변사에서 올린 가체신금절목加髢申禁節目에 쌍계는 시집가기 전 낭자들이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귀밑에서 양쪽으로 묶어 아래로 늘어뜨린 형태라고 생각된다. 1648년(인조 26) 예조의 계啓에서는 "왕세손 책례冊禮 때는 쌍동계雙童髻, 쌍옥도雙玉導, 공정책空貞幘을 한다."라고 하여 책례 때 남자가 쌍계를 틀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쌍계는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총總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 머리카락을 정수리 좌우만 남기고 다른 부분은 깎아 남은 머리카락으로 양각兩角을 만든다. 주로 공예품이나 불화에서 많이 보인다. 둘째, 머리카락을 좌우 양쪽으로 나누어서 각각 묶어 작고 동그란 모양의 쌍계를 만든다. 셋째, 머리카락을 조금 양쪽에서 땋아 각각 묶어 만든 쌍계가 있다. 총이 있는 것은 선동취곡仙童吹髾에서, 총이 없는 것은 신선도에서 볼 수 있다. 넷째는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나누어 묶되, 각각의 상투가 층을 이룬 쌍계로 신선도에서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쌍계는 정수리 좌우에 틀어 올린 두 개의 상투로 삼국시대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쌍계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며, 조선시대의 쌍계는 관례 전 동자의 머리모양으로 관례의 상징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동자쌍계고(김소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모발학사전(류은주, 광문각, 2003),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김용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복식사연구(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73),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김용문(金容文)

쓰개치마

정의 조선 중기 이후 양반층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사용한 치마모양의 내외용 쓰개.

역사 한국복식에서 여성의 폐면용蔽面用 쓰개가 착용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시대부터로 추정되는데,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그러나 이 시기 사용되었던 쓰개류는 수隋와 당唐을 거쳐 전래된 몽



쓰개치마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수蒙首라는 것으로, 귀부인의 사치용 쓰개였다.

내외용 쓰개류가 일반화된 것은 조선 후기 유교의 영향이 생활 전반에 침투하면서부터이다. 남녀 간의 내외가 심해지고 여인들의 외출도 금지되자 다양한 폐면용 쓰개류가 발달하였다. 쓰개치마가 언제부터 어떠한 계층에서 내외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1526년(중종 21) 2월 양반가 부녀자의 장의 착용이 문제가 되자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너울 대신 더 간편하게 만든 것이 쓰개치마이다. 그러나 조선 말기 반상班常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장옷보다 쓰개치마의 착용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개화기 의제 개혁과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차츰 실효성을 잃게 되면서 사라졌다. 사회에 진출한 또는 개화한 일부 고관부인들은 이때 이미 쓰개를 벗고 자유로이 행동하였다.

폐면용 쓰개류에 대한 개혁은 신식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옷이나 쓰개를 벗고 얼굴을 내놓고 다닌다는 것은 오랜 습속에 젖은 당시 풍토 탓에 이들 여학생들에게도 매우 어려웠다. 쓰개치마를 벗도록 하자 이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영향으로 자퇴생이 늘었고, 학교에서는 이를 막고자 검은 우산을 얼굴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다.

1908년 이화학당에서 쓰개치마가 사라지게 되고, 같은 해 연동여학교(정신여학교 전신)에서 사라졌으며, 이어서 1911년 배화학당에서 쓰개치마가 금지되었다. 배화학당에서는 1914년 쓰개치마를 벗는 대신 우산을 하나씩 내주어 외출할 때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게 하였다. 그러나 쓰개치마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얼굴을 내놓거나 우산으로 가리기는 1940년대까지도 용납되기 어려웠다. 특히 시골에서 양반 행세를 했다는 집에서는 혼례를 치른 새댁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치마라도 뒤집어쓰고 나갔다.

내용 쓰개치마의 형태는 치마와 같으나 치마보다 길이가 30㎝ 정도 짧고 폭도 좁게 했다. 치마허리는 10㎝ 정도로 폭이 좁고, 붉은색이나 옥색의 홑치마로 만들었다. 주름을 잡아 옥양목허리를 달아서 치마허리가 이마를 덮을 정도로 둘러쓰고 허리에 달린 양쪽 끝을 턱밑으로 모아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다녔다. 머리를 둘러 손으로 쥘 수 있을 정도의 폭이지만 속주름을 충분히 넣어 머리 위로 볼록하게 올라왔으며, 뒷모습은 잔주름이 곱게 잡혀 자연스럽게 늘어진 모양이다. 주로 백색이나 옥색의 옥양목이나 명주로 만들었으며, 흔히들 옥색 옥양목 치마를 방 안에 걸어두었다가 문밖에 나갈 때 손쉽게 쓸 수 있게 하였다. 계절에 따라 겹으로 하거나 솜을 두어 방한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여름철에는 사紗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더운 날씨라도 외출할 때는 쓰개치마를 사용하였다.



쓰개치마 | 신윤복 | 월하정인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 균열된 사회신분제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유교적 윤리이념을 강화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부계중심의 사회로 전환된다. 폐면용 쓰개류는 여자만이 사용했던 것으로 유교의 남존여비사상이 깔려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주종관계로 나타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폐면용 쓰개류도 계급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너울은 궁중에서, 쓰개치마는 양반계급에서, 장옷은 중인 이하 서민계급에서 사용하였다. 쓰개치마는 장옷이나 너울에 비해 제작 및 착용이 간편하여 반상의 구분이 모호해진 후로 더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차츰 길이가 짧아지다가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여성쓰개의 역사(홍나영, 학연문화사, 1995),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이조시대 여인의 내외용 쓰개류에 대한 고찰(강태임, 안성농업전문대학논문집, 1988), 조선시대 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이선재·고미연,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숙명여자대학교 1997),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윤지원(尹智嫄)

아얌

정의 조선시대 여성이 외출할 때 머리에 쓴 것으로, 정수리 부분이 뚫려있고 귀는 덮지 않으며 머리 위만 감싸고, 모자 뒤에 큰댕기가 달려 있는 장식적인 방한모.

내용 조선시대의 방한모들은 대체로 조선 초부터 문헌에 등장하는 이엄耳掩에서 유래하였다. 아얌은 조선 말기에 여성용 방한모로 등장한 것으로 장식과 방한을 겸하고 있다. 형태는 정수리가 트여 있으며, 귀를 덮지 않고 이마만 덮는 형태이며, 드림 댕기가 달려 있다. 아얌의 한자 표기는 이마를 덮는 형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액엄額掩과 연결된다. 『아언각비雅言覺非』(1819)에 의하면, 조관朝官이 쓴 것은 높고 큰 모양으로 이엄이라 하였고, 이서吏胥가 쓴 것은 두르는[環繞] 모양으로 액엄이라 하였다.

액엄은 1796년(정조 20년) 11월에 『정조실록正祖實錄』의 기록에 동일 관직의 초계문신抄啟文臣 두 명에게 초피貂皮 액엄과 서피鼠皮 이엄을 각각 하사하였다는 내용에서 그 사용례가 처음 확인된다. 또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보면, "10여 년 전부터 말액아엄抹額兒掩 제도가 있었는데 경피獍皮를 털이 겉으로 나오게 하고 안은 주紬로 하여 둥글기는 수질首絰과 같고, 뒤에는 자그마한 끈이 둘 달렸는데, 그 끈은 검정 단緞으로 하였으며 다시 단추를 달아 갓을 벗지 않고도 겉에서 썼다 벗었다 할 수 있게 하여 착용에 편리하도록 하였고 상하 누구나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아얌과 형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국한회어國漢會語』(1895)에서 아얌에 대응되는 한자를 '蛾掩', '毛物', '額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액엄이 중국식 발음인 '아옌'과 뒤섞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음하기 쉬운 아얌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액엄'은 '말액아엄'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말 여성의 '아얌'으로 연결되면서 명칭의 변화와 함께 쓰임새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내외법이 엄격하여 여성의 외출용 쓰개는 외간 남성의 시선을 막기 위한 폐면용 쓰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아얌이나 조바위 같은 여성의 외출용 방한모는 외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조선 말기 이후에 나타나, 추위를 막기 위한 용도와 함께 간단한 예장용으로 한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얌은 조선 말기 반가와 일반 부녀자의 외출용, 장식용 난모로 사용되었으며, 기녀들이 일상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아얌 | 길이 132 너비 28 | 20세기



아얌을 쓴 어린 기생 | 1909

아얌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아얌의 형태는 머리에 쓰는 부분인 모부帽部와 뒤에 늘어지는 큰댕기 모양의 드림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띠 모양의 모자는 귀를 덮지 않고 머리 위만 감싸는 형태로 주로 검정색 비단으로 만들었다. 모부의 위 4~5㎝가량은 가로로 섬세하고 가늘게 누볐으며, 중심선은 앞이 뒤보다 짧다. 앞뒤 중심의 좌우 이음선이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모자를 착용하면 들뜨지 않고 머리에 꼭 맞는다. 모자 아랫부분의 가장자리 선 역시 앞이 뒤보다 굴곡이 심하다. 앞뒤 겉감의 상단 누빈 부분은 흑색이나 자색 비단을 썼고, 아랫부분은 검정색이나 짙은 밤색의 수달피와 같은 모피를 둘렀다. 안감은 붉은색 융을 사용하였는데, 누비지는 않았다. 모자 전후 중앙에는 붉은색 봉술을 달고, 뒤에 길게 드린 아얌드림이라고 하는 검은 자주색 댕기에는 밀화蜜花나 산호·호박 등으로 만든 매미를 장식하였다. 춘추용 아얌은 역시 모양이 같으나 단段 대신 사紗로 만들었다는 점이 다르며, 조선 말기 조바위가 등장하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國漢會語, 雅言覺非,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常識, 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에 관한 연구(강순제·김은정, 복식58-7, 한국복식학회, 2008),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 외, 열화당, 2003), 조선시대 방한모에 관한 연구(김성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한국복식명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김지연(金知娟)

안경
眼鏡

정의 눈의 굴절 이상을 보정·보호하거나 장식하기 위한 도구.

역사 현재까지 안경 기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안경이 유입된 시기 또한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호민李好閔(1553~1634)이 쓴 『오봉집五峯集』의 안경명眼鏡銘과 이수광李睟光(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을 통해 안경의 유입 시기가 추정될 뿐이다. 또한 이규경李圭景(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실린 애체변증설과 강세황姜世晃(1713~1791)의 안경眼鏡은 과거 안경 착용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쓰이고 있다.

현존하는 안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학봉 김성일金誠一(1538~1593)의 안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휴대가 용이한 접이식 실다리 대모안경(거북이 등껍질)으로 안경집은 옻칠한 피나무로 제작되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 후기 영조는 안경이 시력과 맞지 않아 탈착을 반복하였으며, 불경스러움을 이유로 사도세자의 안경 착용을 반대하였다. 또한 정조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착용하였으나 1800년(정조 2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안경을 쓰고 조정에 나가면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할 것 같아 쓰고 나갈 수 없었다는 기록을 통해 공식석상에서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왕 앞에서의 안경 착용은 금지되었으나 어의만은 안경을 착용하고 시침할 수 있었으며, 왕이나 연장자 앞에서 안경 착용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로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안경은 시력을 보완하는 편리한 물품이나 왕에게는 위엄과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이해되었으며, 나이가 어리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상대를 무시하는 결례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17세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된 안경이 존재하였으며, 경상북도 경주의 남석(수정) 안경은 우수한 품질의 수정안경으로 유명하였다. 남석 안경의 초기 제작 시기는 적어도 17세기 초반 경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주부윤慶州府尹을 지낸 민기閔機(1568~1641)가 자신의 안경을 부윤 시절(1636~1637)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결국 임진왜란(1592~1598)을 전후로 조선에 유입된 초기 안경은 세도가와 부유층에 의해 주로 착용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대중에게 보급되었고, 17세기 무렵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된 안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내용 안경은 안경테와 안경알, 안경다리로 구성된다. 초기 안경은 코에 걸쳐 착용하거나 실고리 또는 끈을 달아 착용하였다. 안경테는 안경의코걸이가 접히는 접이식 형태에서 점차 코걸이 고정식 형태로 변화하였다.

초창기 안경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실고리나 끈은 활동성과 안정성, 편리성의 요구로 인하여 안경다리로 변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착용이 용이해졌다.

조선시대 안경은 안경테를 접을 수 있는 접이식과 고정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대못안경·실다리안경·꺾기다리안경·무테안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못안경은 외알 안경 두 개의 테 사이를 대못으로 고정하고 이를 코걸이로 사용하여 옆으로 비껴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실다리안경은 안경테를 고정하는 도구로 끈이나 실을 고리형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 코받침이 있는 안경은 연결 부분에 받침대를 세워 안경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휴대가 용이한 접이식으로 제작되었다. 장시간 착용을 위해 머리 뒤나 망건 등에 묶어 착용하기도 하였다. 꺾기다리안경은 다리의 꺾임과 다리 끝부분에 부착된 원형판이 안정감을 도모하였으며, 반지형·만卍자문형·칠보문 등의 문양을 새겨 사용하였다. 대모 꺾기다리안경은 1800년대 중반에 제작되었으며, 무테안경은 180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었는데, 지위와 부의 상징물처럼 인식되었지만 잘 깨지는 결점 때문에 오래 유행하지는 않았다.



꺾기다리 안경 | 길이 13 지름 4.8 | 조선



실다리 안경 | 길이 12.5

안경 | 국립민속박물관



안경 | 김득신 | 밀희투전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조선시대 안경테의 소재는 대모·우각牛角·나무·금속 등이 있었으며, 점차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바뀌었다. 대모는 거북이 등껍질로 색상이 아름답고 견고하면서도 가벼워 안경테를 만드는 데 좋은 재료로 쓰였다. 우각테로는 속이 차지 않고 색깔이 연갈색이며 고르게 퍼진 암소 뿔을 사용하였으며, 나무테로는 재질이 단단하고 습기에 강한 대추나무를 사용하였다. 금속테안경은 금·은·동·기타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사용했으며, 순금은 다른 금속(은·구리·니켈·아연 등)과 합금하여 경도·강도를 높여 사용되거나 도금 또는 피복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안경의 발전과 보급은 안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초창기에는 안경에 대한 거부감이 컸지만 동경과 필요성에 의하여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유리 세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초기에는 무거운 수정 안경이 제작되었으나 광학 기술의 발달로 기능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안경이 대중화되면서 노출 빈도가 잦아지자 기능성 외에 활동성과 안정성, 편리성, 경량성, 심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는 안경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안경은 시력을 보정하는 기능적인 도구에서 현대인의 개성을 연출하는 기능성이 내재된 심미적인 도구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참고문헌 안경의 문화사(리차드 코손, 김하정 역, 에디터, 2003), 옛 안경과 안경집(금복현, 대원사, 199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허동화, 현암사, 2006), 전통 안경집의 구성적 특징(홍명화, 한복문화16-3, 한복문화학회, 2013), 조선시대 안경과 안경집 디자인연구(윤을요,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14-4,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4),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강명관, 휴머니스트, 2015),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소재에 따른 색채 특성(이영경·김영인, 복식58-4, 한국복식학회, 200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표준국어대사전(korean.go.kr), 초당대학교안경박물관(cdu.ac.kr), 한빛고안경박물관(hanvitland.nemocom.kr).

필자 윤을요(尹乙堯)

안경집

정의 안경의 보호 및 보관, 휴대와 장식의 기능을 목적으로 안경을 담아 두는 도구.

역사 선비, 세도가, 부호들의 안경 착용이 증가하면서 안경에 대한 동경심이 확대되고, 안경집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 예로 초기 안경집에는 안경집 끈이 없었으나, 안경 사용이 확대되면서 허리에 착용이 용이하도록 안경집에 끈을 달아 사용했다. 조선 후기 시인 이서구李書九(1754~1825)는 『안경의 내력』을 통해 안경집을 휴대한 당시의 모습을 묘사했다. 1832년(순조 32) 10월 서장관書將官으로 북경에 다녀온 김경선金景善(1788~?)은 사행기使行記 『연원직지燕轅直指』에서 사신 복색의 묘사를 통해 복식을 구성하는 소품으로 안경과 안경집이 실용적인 기능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소품임을 전하고 있다.

내용 안경집은 외형을 기준으로 합·갑·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폐 방식을 기준으로 여닫이와 미닫이로 구분할 수 있다. 원형, 타원형, 기타 자연물을 모형화한 합과 네모난 형태의 갑은 다시 여닫이형과 미닫이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 형태의 안경집은 다시 원통형과 편통형으로 나눌 수 있다. 통 형태의 안경집은 입식형의 개폐 방식으로 무게중심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해 상단부를 하단부보다 짧게 제작함으로써 개폐 시의 안정성과 미적인 비례감각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초창기 안경집은 안경을 보호하는 기능적인 역할에서 출발하였으나 선비, 세도가, 부호들의 안경 착용이 증가하면서 안경에 대한 동경심이 확대되고, 안경집의 노출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심미적인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시인 이서구李書九의 『안경의 내력』과 1832년(순조 32) 서장관 김경선金景善의 사행기使行記 『연원직지燕轅直指』 등의 문헌을 통해 당시에도 안경과 안경집이 기능적 역할과 장식적 역할을 동시에 추구했던 소품임을 이해할 수 있다.

안경집은 신분과 재산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왕실은 봉황과 용을 그리거나 상징하는 문양을 사용하였고, 중인들은 나무나 어피로 제작된 안경집을 사용하였다. 소재를 기준으로 안경집을 분류하면 피나무·은행나무·오동나무를 주로 사용한 나무안경집과 대나무로 만든 채상안경집이 있으며, 거북의 등껍질을 사용한 대모안경집과 소의 뿔을 활용한 우각안경집, 조개껍질을 장생·화조·수복壽福 글자의 문양으로 감입해 만든



가로 15.5 세로 8 | 지름 6.8 높이 2.6 | 20세기

안경집 | 국립민속박물관

나전칠기안경집과 우각을 활용한 화각안경집이 있다. 또한 상어의 껍질로 제작된 어피안경집과 동물의 가죽 안경집, 은·백동·황동(신주)·적동(구리)·주석 등으로 만든 금속안경집과 닥나무를 활용한 한지안경집, 그리고 노끈을 사용한 지승안경집이 있으며, 그 외에도 천안경집과 자수안경집 등이 있었다. 특히 자수안경집은 회화적 표현보다 그림이 내포한 상징성을 담고자 하였으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과 다산, 부부금슬,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연꽃문양과 수복자문 등이 많이 쓰였다. 아울러 조선 말기, 왕실에서는 수를 놓는 상궁을 통해 안경집을 직접 제작하게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안경 착용의 확대와 보편화는 안경집의 노출을 이끌었고, 이는 안경집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단순한 접이식 구조의 초기 안경에 안정성 및 활동성, 편리성이 부가되면서 안경집의 형태도 납작한 합이나 갑의 형태에서 통의 형태로 다양화되었다.

안경집이 갖는 문화적 의의는 안경이라는 광학기구를 담는 단순한 보관함의 역할에서 예술로 승화된 안경집 디자인에 있다. 초기 안경집은 안경을 보호·보관하고, 휴대의 용이성에 우선하여 제작되었으나 이후 장식적인 기능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다양화되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기능적 역할에서 예술적인 감성으로 착용자의 취향과 내면의 정신세계를 담아내는 도구로 승화되었다.

참고문헌 고 자수안경집 디자인 연구(윤을요,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21-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옛 안경과 안경집(금복현, 대원사, 199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허동화, 현암사, 2006), 전통 안경집의 구성적 특징(홍명화, 한복문화16-3, 한복문화학회, 2013), 조선 중·후기 안경집의 소재에 따른 색채 특성(이영경·김영인, 복식58-4, 한국복식학회, 2008),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강명관, 휴머니스트, 201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빛고안경박물관(hanvitland.nemocom.kr).

필자 윤을요(尹乙堯)

액주름포

정의 조선시대 남자가 착용했던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이 잡힌 곧은 깃으로 구성된 편복便服의 포.

내용 액주름포는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이 있는 포라는 의미이며, 문헌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처음 살펴볼 수 있다. 세종 28년 5월조(『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12)에 의정부의 「복색상정조건服色詳定條件」에서 "서인庶人·제원諸員·대장隊長·대부隊副의 일수양반日守兩班 및 공상천례工商賤隷는 단령을 없애고 철릭과 액추의腋皺衣·직령의를 입도록 하라"라는 기록이 있다. 세조 13년 10월조(『세조실록世祖實錄』 권 44)에 왕이 귀성군龜城君 이준李俊의 아내에게 초록면주유방첩아草綠綿紬襦榜褶兒, 면주겹방첩아綿布袂榜褶兒에 양옆에 주름이 있는 옷을 하사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액주름포를 '액추의'라고도 하는데, 겨드랑이 밑에 쭈그려서 주름잡은 옷이라는 뜻이다.

액주름포는 형태적으로 볼 때 길과 섶이 의衣와 상裳으로 분리되지 않고 옆에 달린 무만 따로 주름잡아 겨드랑이 밑에서 연결한 부분적인 의상연의衣裳聯衣 형태이다. 형태는 소매 형태나 트임, 길이와 고름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계절에 따라 착용되었던 평상복임을 알 수 있다. 실물자료는 조선시대 초중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현재 박물관에 소장된 액주름포는 명주·무명·목면·저포·공단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었다.

구성 방법도 소매 형태나 트임 유무와 길이, 고름의 색상과 크기가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어 기능적으로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적인 면에서도 조선시대 남자가 착용했던 포 중에서도 독특한 형태이다. 특히 액주름은 옆길 무의 상부에 잔주름을 일정하게 잡아 작은 사다리꼴 무에 바느질하고, 이것을 다시 배래와 연결한 형태이다. 이러한 사다리꼴의 무는 주름 부분이 옷의 형태나 기능 면에서 편하게 착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 액주름포에는 당襠이라고 불리는 정사각형의 무를 삼각형으로 접어 함께 연결하였다. 액주름포는 깃·소매·상하의 비율·주름의 너비·고름의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액주름포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비교해 보면, 깃의 형태는 칼깃이 주류를 이루나 목판깃이 나타나기도 한다. 액주름포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명주·목면·저포·공단 등이다. 바느질 구성방법은 홑·겹·솜·누비 등으로 제작되었다. 소매 형태는 통수형이 대부분이나 임진왜란 후에는 통수형·두리형·배래형이 나타난다. 주름 형태는 맞주름과 외주름이 공존하며 임진왜란 후에는 주름의 너비와 안주름 분량이 늘어난다. 또한 화장과 전체 길이가 다른 포제보다 짧은 편이다.

특징 및 의의 액주음의 액腋은 겨드랑이 액자이고, 주음注音은 주름이라는 우리말의 한자 표기이다. 이는 양 겨드랑이 밑에 주름이 잡혀 있는 옷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액주름포는 조선시대에 왕부터 평민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입었던 포이다. 액주름포는 조선시대 초중기에 잠시 입다가 없어진 포로 양쪽 겨드랑이 밑에 주름이 잡혀 있는 곧은 깃의 포이다. 액주름포는 조선 전기에 출토되었으나 임진왜란을 분수령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액주름포 | 길이 104 품 66 화장 99 | 16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혼란스러워지면서 융복인 철릭의 착용이 늘어나고, 실학사상이 대두하면서 도포와 창의, 심의가 널리 착용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사극 드라마 추노에 나타난 액주름연구(김초영 외, 남도민속연구23, 남도민속학회, 2011), 조선시대 액주름포에 관한 연구(이경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 본 남자포 연구(유송옥,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84),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박성실,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김은정(金垠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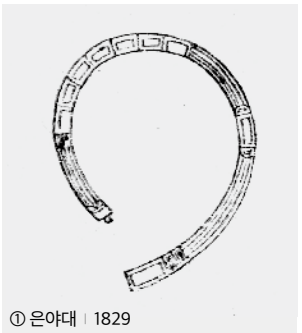
야자대
也字帶

정의 문무백관의 공복용 품대이자 전악典樂·악사樂師·악공樂工의 허리띠.

내용 야자대也字帶는 긴 길이의 일자형 허리띠이다. 띠의 머리 부분에는 버클을 달고 끝에 타미[撻尾, 銛尾]라고 하는 띠돈을 달았다. 허리띠 안쪽에는 버클의 걸쇠를 끼워 허리에 맞도록 하는 보조대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허리띠의 길이가 길고 안쪽에 보조대가 달린 것이 야자대의 특징이다. 띠 끝에는 타미가 달린 부분을 허리띠에 끼워 뒤로 늘어뜨렸으며, 보조대가 달리고 타미 부분이 뒤로 늘어지는 모양이 '也'와 비슷하여 '야자대' 또는 '야대也帶'라고 칭하였다. 이 명칭은 영조 때의 기록에서 처음 보이지만, 경상북도 안동의 태사묘太師廟에서 고려 공민왕恭愍王(재위 1351~1374)이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는 모란금대牧丹金帶(보물 제451호)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개성시 개풍군에 있는 공민왕릉(현릉玄陵, 북한 국보유적 제123호) 앞에 세워진 문석인의 공복 허리 뒤에 야자대가 늘어진 모습이 확인됨에 따라 야자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동 태사묘의 모란금대는 띠 안쪽에 달려 있던 보조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뿌리 부분만 확인할 수 있다.



모란금대 | 길이 172 | 안동 태사묘 | 14세기 | 안동민속박물관



① 은야대 | 1829



② 악공이 착용한 야자대 | 1848

야자대 | ① 진찬의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② 무신진찬도병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1426년(세종 8)에는 예조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관복 제도를 상정하여 올릴 때 공복 제도도 마련하였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공복에 청색 가죽으로 만들고 띠 끝에 타미를 달아 늘어뜨리는 '요대腰帶'를 사용하면서, 요대에 장식하는 띠돈으로 1품은 옥을 사용하고, 2품은 서각犀角, 3·4품은 금여지金荔枝, 5품 이하는 오각烏角을 쓴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1품은 서각대犀角帶, 2품 이하 정3품은 여지금대荔枝金帶, 종3품 이하는 흑각대黑角帶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성종 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었다. 그 외에 김성일金誠一(1538~1593)의 『학봉집鶴峯集』에 실린 1590년 기록에 따르면 공복에는 금金과 각角, 두 종류의 '혁대革帶'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문무백관의 공복용 야자대뿐 아니라 전악典樂과 악사樂師·악공樂工 등의 관복 허리띠로도 야자대를 사용하였다. 아악雅樂 문무무文武舞 공인工人과 정旌·둑[纛]을 드는 공인이 두르는 금동녹혁대金銅綠革帶를 비롯하여, 우방右坊 악사와 공인이 두르는 오정대烏鞓帶, 세종조 회례연 때 아악의 무무공인이 사용하던 기량대起粱帶 도식이 『악학궤범樂學軌範』에 남아 있다. 조선 후기에는 품계에 따라 야자대의 띠돈이 변화하는데,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등에 따르면 야자품대也字品帶, 야자서대也字犀帶, 야자금대也字金帶, 학정야대鶴頂也帶, 은야대銀也帶, 야자오각대也字烏角帶 등의 기록이 보인다. 대체로 상복·시복용 품대의 띠돈 종류와 일치하기 때문에 17세기 이

후 상복이나 시복용 품대의 띠돈 재료를 야자대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왕릉의 문석인 중 공복 차림의 문석인은 대부분 야자대를 착용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회화 속에서는 1817년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을 기념하여 제작한 『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帖』 <왕복도往復圖>에는 왕세자의 스승이 될 공복 차림의 박사博士가 그려져 있는데, 공복 홍포를 입고 복두를 쓰고 남색 야자대를 허리에 두르고 있다.

한편 유물로는 조선시대 것으로 알려진 야자대 두 점이 남아 있다. 하나는 대전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송종오宋鍾五(1828~1904)의 야자대인데, 송종오가 1888년(고종 20)에 장원급제했을 때 사용한 것이다. 길이는 204.5㎝, 너비는 4㎝ 정도이며, 금분을 칠한 목제 띠돈 11개로 장식된 채 청색 비단에 싸여 보관되었다. 야자대를 보관하던 통에는 금야대金也帶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한 점은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Grassi Museum für Völkerkunde zu Leipzig에 소장되어 있는 야자대로, 금색 띠돈 13개가 장식되었는데 조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2품용 삽금야자대로 보인다.

참고문헌 純祖純元王后嘉禮都監儀軌, 樂學軌範,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鶴峯集, 憲宗戊申進饌儀軌, 고려 왕릉(장경희, 예맥, 2009),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동춘당뎐(대전선사박물관, 2010), 문무백관의 공복(이은주, 월간문화재339, 2012),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이은주, 복식61-10, 한국복식학회, 2011), 조선왕실행사기록화(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태사묘 소장 유물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이은주·조효숙,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안동시, 2001).

필자 이은주(李恩珠)

양관
梁冠

정의 문무백관이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 차림에 쓰는 관모.

역사 양관梁冠은 한대漢代 유학자의 진현관進賢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며, 양관의 명칭이 일반화된 것은 명대明代이다. 우리나라에 양관이 전해진 구체적인 내용은 고려 말인 1370년(공민왕 19)에 확인된다. 조선시대에는 1416년(태종 16)에 관복색冠服色을 설치하고 문무백관의 조복제도를 정했는데, 이것은 명明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한 이등체강二等遞降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그 후 세종 대에 정비를 거쳐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완성하였으며, 양관은 조복과 제복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품계에 따라서 관 상부에 1량부터 7량까지 양梁을 부착하였는데, 이 양 때문에 '양관'이라는 명칭이 나왔다. 양의 숫자는 백관의 품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416년(태종 16)의 제도에 의하면 1품은 5량관, 2품은 4량관, 3품은 3량관, 4·5·6품은 2량관, 7·8·9품은 1량관을 썼고, 왕세자는 강사포에 6량관을 썼다.

조선 초기에는 조복이나 제복에 사용되는 옷감이나 부속품을 무역해서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비단을 사다가 조복을 제조하였다. 중종 대에는 중국에서 조복을 구해 중국의 제도에 맞추어 만들었고, 이두석泥豆錫



금관조복을 입은 관리 | 국립민속박물관

(양관을 만들 때 금빛을 내기 위해 바르는 재료) 만드는 방법을 익혀 오게 하기도 하였다. 양관의 기록은 이 시기에 가장 많으며 조형적인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38년(인조 16)에는 조복 준비가 어려워서 정사와 부사를 제외하고는 흑단령을 착용하도록 하다가, 영조 대에는 가례·길례·흉례 등 각 의례에서 4품 이상은 조복을, 5품 이하는 흑단령으로 법제화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인조 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제관이 제작되었으며, 정조 대에는 조복용 금관과 제복용 제관이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한말의 『대한예전大韓禮典』에도 제복관은 칠을, 조복관은 금관 도금으로 만들어 국말까지 준용되었다. 이후 대한제국(1897년) 때는 명明과 같이 7량 제도로 바뀌었고, 현재 종묘대제에서 제관은 5량관 또는 7량관을 쓰고 있다. 현전하는 유물은 5량관이 많으며, 정인학鄭仁學(1839~1919)의 6량관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제기악기도감의궤祭器樂器都監儀軌』에서 양관의 구체적인 기록은 실행 기록으로서 양관 전체에 먹을 칠하도록 하는 제복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관 제작 시 소요되는 의차依次로는 휴지休紙·조주皂紬·사승포四升布·저사苧絲·중철사中鐵絲·송연松烟·영다회纓多繪·가차架次·수영이垂纓二·돈모豚毛·영이팔승纓二八升·명유明油·봉縫·먹墨·탄炭·석자황石紫黃 등이 나온다. 의차의 내용만으로 양관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1651년(효종 2)에 풀 먹인 종이에 금물을 발라서 양관을 제작하라고 한 기록에서 휴지는 제관의 관무와 뒷장식판을 만드는 데 사용한 딱딱한 종이인 것 같다. 현전하는 유물에 사용된 재료는 종이 대신 죽망竹網으로 되어 있으며, 헌종 대에 실학자 박규수朴珪壽가 쓴 복식 연구서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에 조복·제복관은 죽竹으로 얽어매고 라羅로 싼다고 되어 있어 이를 증명한다. 『종묘의궤宗廟儀軌』 양관 의차에는 흑초黑綃를 사용하고 잡황雜黃으로 관의 전후 상하, 목잠의 잠두蠶頭에 금색을 그리고 있다. 즉 휴지는 풀 먹인 종이로 관무와 뒷장식판을 만들고, 청색 재봉사는 량을, 영다회는 끈을, 먹과 송연은 흑칠에 사용하고, 석자황은 양과 관무의 금칠 재료로 여겨진다. 현전하는 유물과 비교하면 휴지는 죽망으로, 먹과 송연은 옻칠로, 석자황은 니금泥金으로 대체되었으며 다른 재질은 같다. 1706년(숙종 32)에 양관 전후 상하 좌우에 잡황雜黃을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금관의 형태를 암시한다. 1794년(정조 18)에는 조복관에 금박을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제복관에는 흑칠을 하고 금으로 새겨서 만드는 것을 금한 기록이 있다.



금관 | 높이 20 지름 17.5　　제관 | 높이 21 지름 17

양관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제기악기도감의궤』, 『종묘의궤』, 『춘관통고春官通考』,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태학지太學志』, 『대한예전』의 기록과 도면을 보면 조선시대 양관의 형태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거의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대한예전』의 양관은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양관도를 옮겨 놓은 형태로, 현재 남아 있는 유물과 비교해 보면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비녀의 재료는 각잠角簪 또는 목잠木簪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관과 제관은 장영직(1861~1944)의 유품(국가민속문화재 제 241호)으로 1882년(고종 22) 통례원 정3품의 관직에 맞는 5량관이다.

특징 및 의의 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관 앞면의 이마를 두르는 넓적한 띠 모양의 사각판(관무冠武 혹은 무武), 다음 두 개의 산봉우리 모양인 뒷면 장식판, 마지막으로 관 앞의 중심에서 정수리를 덮어 뒷면 장식판에 연결된 굽은 양주梁柱이다. 관무의 앞면과

뒷면의 장식판은 문양을 투각한 한지를 죽망에 붙여서 오린 후 옻칠을 하고, 금관은 그 위에 니금을 한 번 더 칠한다. 양주는 관모골 위에서 죽사로 모양을 잡은 후 옻칠을 하여 얇은 흑색 비단(추사綯紗)으로 감싼다. 한지를 꼬아서 만든 선線은 1량부터 5량까지 품계에 맞게 양주 위에 부착한다. 이마와 뒤통수를 감싸는 관무는 뒷면 장식판 사이의 고리에 끼워서 고정하고, 관무 양끝 중앙 구멍에 끈을 꿰어서 머리 크기에 맞게 조절한다. 뒷면 장식판 좌우 양 끝의 중앙에는 비녀 구멍이 있고, 나무 비녀(목잠木簪)가 관을 가로질러서 관모를 고정한다. 목잠에는 딸기술 달린 끈을 달았는데, 금관에는 남색 술, 제관에는 흑색술을 단다. 착용할 때는 머리에 관을 쓰고 관무에 끼운 끈을 잡아당겨 머리통에 맞게 조르고 비녀에 끈을 몇 번 감아서 턱 아래에 매어 고정한다.

시대별 양관의 형태를 살펴보면, 『제기악기도감의궤』의 양관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구성이 동일하나, 뒷면 장식판 상단의 곡선 형태만 약간 다르다. 양관의 비녀는 대부분 각잠角簪이었고, 『경국대전』, 『경모궁의궤』, 『대전통편』에만 목잠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나 각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잠두의 모양은 『대명회전』에서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나, 현전하는 조선 말기의 유물은 소형의 원형이나 다각형으로 되어 있고, 목잠에는 금칠을 하여 사용하였다. 양관의 관무와 뒷면 장식판에는 당초무늬와 봉황·연꽃 등의 무늬가 관모마다 다르게 새겨져 있는데, 이것도 한지를 꼬아서 모양을 내거나 종이에 금분을 입혀서 모양을 내기도 한다. 종선의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 금관과 제관의 차이는 금관은 관무·양주·량·비녀 등에 모두 금칠을 하였는데, 제관은 경건의 뜻을 표시하여 당초무늬의 전면 중앙 부분과 목잠의 구멍 둘레만을 금칠하고 그 외는 전부 흑색으로 칠하였다. 겨울에는 관모 밑에 남바위를 받쳐 써서 추위를 피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祭器樂器都監儀軌, 관모 연구3(강순제, 생활과학연구논집16-1,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6), 대사헌 정인학의 육량관 소고(박성실, 대한가정학회지44-1, 대한가정학회, 2006),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최은수(崔銀水)

양말
洋襪

정의 편물이나 직물 등으로 만든 발에 신는 복식품.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양말洋襪의 정의는 "맨발에 신도록 실이나 섬유로 짠 것"이라고 한다. 양말은 우리나라의 버선[襪]과 대비되는 서양의 버선이라는 의미로 양말이라고 불렀다. 양말을 세는 단위는 짝·켤레·타打·죽(10켤레)이다. 양말은 형태에 따라 짧은 양말, 넓적다리까지 오는 긴 양말, 허리에서 하나로 붙어 있는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말에 대한 기록은 초기에는 수입품 관세에 관한 기록에 '말襪'로 표기하였고, 1897년 『독립신문』 광고에는 서양 의복에 신는 양말을 '보션'이라고 하였다. '양말'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광고한 기록은 1901년 『황성신문』에 등장하였다. 이후 1910년까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착용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 급여품給與品에는 포함되었다. 1908년 각종 복식 품목 의류 소재 세탁 광고에 양말도 세탁해 주는 것으로 보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착용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말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양장 입은 여성은 비단 양말을 착용하였고, 길이가 짧아진 양장과 통치마의 등장으로 1910년대에 양말, 구두가 들어왔으나 극히 일부에만 소개되었다. 민간에서 양말을 착용한 것은 구두나 고무신보다 늦었다. 당시 양말은 값이 비싸고 또 나일론 양말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약했기 때문에 일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0년대부터 구두와 양말을 많이 신기 시작했고, 학생 양말은 겨울에는 검정색, 여름에는 흰색을 착용하였다. 양말의 소재는 면綿이나 모毛였는데 각종 동물의 털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양말 생산은 천주교 선교사에 의한 것이 최초로, 손으로 짜는 기술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후 1872년(고종 9)경에는 양말을 간단한 수편기手編機로 짜내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발달하였다. 1906년 김기호가 조선인 최초로 평양에 양말 공장을 설립한 후 소규모 공장이 다수 생겼다. 1910년경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수직手織 양말기에 의한 생산이 시작되어 기업화

가 이루어졌다. 1915년 당시 서울의 직조공장으로 대표적인 것은 경성직뉴주식회사京城織紐株式會社, 김덕창金德昌의 중곡염직공소中谷染織工所, 노홍석盧洪錫의 경성염직소, 최규익崔奎翼의 한양염직공장 등이였다. 의창호양말제조병염직공장宜昌號洋襪製造倂染織工場은 경성직뉴주식회사와 김덕창의 공장 다음가는 자본규모와 설비로 운영되었다.

1919년 개성에 있는 송도고보의 실험장에서 미국산 자동 양말기를 도입한 것이 한국 메리야스 공업 자동화의 시초이다. 1920년대는 신문에 양말 짜는 기계 광고가 종종 등장하며, 유망한 업종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양말에 관한 기록은 대개 양말 공장에 관한 것이다. 평양에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임금이 싸고 면사가 오사카大阪보다 값이 헐하며 평양에 철공장과 염색공장 등 부속품 제조소가 있어 여건이 좋았다고 한다. 대성大星·평안平安·동아東亞·일신日新·세창世昌·대산大山·조선朝鮮·기성箕城·대동大同·월성月星·백화白花·삼공三共·해동海東 등이 유명한 공장이었다.

1937년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물자절약을 강조했고, 1940년 국민생활의 전시편성戰時編成으로 양말 제작 및 가격 규격을 제한하였다. 광복 후 수급이 좋지 않아서 관청에서 양말을 배급하기도 하였다. 1949년 국민의식생활개선책으로 문교부에서 실천요항으로 "여자 공무원은 봄, 가을 겨울에는 코트와 바지를 착용하고, 여름에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착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말을 폐지하고 커버만 신을 것"을 정하였다.

6·25전쟁 이후 나일론 양말이 인기를 얻었고, 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나일론 양말 공장이 설립되었다. 1954년에 기계시설 개발에 성공하여 외제에 손색없는 나일론 양말을 생산하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양말은 우리나라에서 발에 신던 버선과 같은 품목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버선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양말은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단어로,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우리의 양말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말 산업은 우리 민족자본에 의해 성장하였고, 1937년 이후 전시 체제하에 각종 통제를 받았으며, 1940년에는 국민생활의 전시편성으로 많은 제제를 받았다. 광복 이후 양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배급을 하기도 하였으나,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말은 단순히 발에 신는 것 이상으로 당시의 정치, 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품목이다.

참고문헌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패션전문자료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7),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진구화(한성순보, 1883. 12.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encykorea.aks.ac.kr).

필자 남경미(南瓊美)

양복
洋服

정의 서양식 의복.

내용 양복洋服은 서양인의 옷이라는 의미로, 일본에서 서양복, 박래복舶來服 등으로 불리다가 1870년경에 줄여서 사용한 말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규수朴珪壽(1807~1877)의 『박규수전집朴珪壽全集』에 1875년 서한에서 '양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개항하기 전에도 양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895년 11월 "외국의 의복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라는 내부고시內部告示가 반포되어 군인과 경찰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양복이 용인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양복을 착용한 예는 그 이전부터로 확인된다.

최초로 양복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1882년 특명전권공사 겸 수신사였던 박영효朴泳孝(1861~1939)이다. 박영효는 임오군란을 수습하려고 일본에 파견되어 당시 일본과 수교하던 서양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을 활발하게 만났다. 이때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접견례와 연회에 초대받아 알현하는 등 양복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이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박영효의 사진은 조선에서 복식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양복을 착용하고 단발한 것을 보여 주는 자료다. 외교활동을 위해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883년에 서양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과 수교하고

미국이 서울에 주재할 공사를 파견한 것에 답례하는 의미로 보빙사報聘使를 파견하였다. 당시 보빙사였던 민영익閔泳翊(1860~1914) 일행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알현하고 돌아오는 길에 양복을 여러 벌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박영효와 민영익이 귀국한 후 1884년 윤5월에 조선에서는 개항 이후의 첫 번째 복식제도 개혁이 발표되었다. 이를 갑신의제개혁이라 한다. 갑신의제개혁에서는 양복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양복의 도입은 을미의제개혁이 진행된 1895년 4월 육군의 군복과 경찰복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양복은 유니폼으로 먼저 도입되었고, 11월에 단발령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단발령은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철회되었기 때문에 함께 공인된 양복도 활발하게 도입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때 도입된 양복은 일상복의 개념이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할 때까지는 육군과 경찰의 제복만 양복형이었고, 대한제국이 성립한 후 황제의 양복 제복과 문관의 양복 제복이 도입되었다. 먼저 황제는 1899년에 창설된 원수부의 수장인 대원수로서 양복형의 군복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관의 복장으로는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공표된 문관대례복이 도입되었다. 문관대례복은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과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制式을 통해 제정되었는데, 서양의 코트드레스court dress와 같은 형태인 연미복형에 대한제국의 국가상징물인 무궁화를 자수하도록 하였다. 문관대례복은 산山 모양의 모자·연미복형 상의·조끼·바지·검과 검대로 일습을 이루었고, 황제에게 문안을 드리거나 궁중에서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는 등의 행사에서 착용하게 하였다.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과 함께 소례복과 상복常服도 규정하였다. 소례복으로는 서양의 연미복을 상의로 하여 실크해트silk hat·조끼·바지로 일습을 이루고 궁에서 황제를 알현하거나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하거나 상관에게 알현하는 등의 행사에서 착용하게 하였다. 상복으로는 서양의 통상복을 상의로 하여 통상모·조끼·바지로 일습을 이루고, 문관이 집무를 보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착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일상 양복이 도입된 것은 문관복장규칙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1900년부터다.

1905년에 관보의 정오正誤란에 발표된 문관복장규칙의 개정령에서는 연미복 한 가지였던 소례복을 프록코트frock coat와 연미복의 두 가지로 분화하였다. 기존에 유일한 소례복이었던 연미복은 각국 사신을 만나거나 궁중에서 베푸는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하게 하였다. 프록코트는 궁내에서 황제를 알현할 때, 사적으로 서로 예를 갖추어 방문할 때 착용하게 하였다. 연미복은 상의와 같은 색, 같은 재질의 바지와 함께 착용하고 프록코트는 상의와 다른 색, 다른 재질의 바지와 함께 착용하였다. 소례복의 개정을 통해 남성 양복 예복이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착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을사늑약 이후 1907년 군대가 해산되면서 대한제국의 군복이,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문관대례복이 유명무실해졌다. 대한제국의 제복은 더 이상 국가 정체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되었고, 일상적인 양복의 착용은 계속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양복은 곧 매국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일진회一進會가 양복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친일 행위를 서슴없이 일삼아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 일진회 회원들은 양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면으로 만든 병정의 속바지 저고리를 양복이거니 하고 사서 입고 겨울에도 밀짚모자에 다래나무로 만든 짧은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의기양양하게 다녔다. 그 당시 군수, 관



양복 | 기념사진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찰사들은 그 벌거숭이 양복쟁이들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한다. 양복의 상징이 친일이라고 해도 서양 문물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양복은 점점 더 민간에 보급되어 신사들은 프록코트와 실크해트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격식과 품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여성의 '모던걸'과 대응되는 새로운 용어로 '나카오리 신사'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이는 양복 차림의 남성을 지칭하는데, '나카오리 신사'는 서양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모습으로 묘사됐으며, 혼기에 있는 여성들은 상대방 남자가 양복을 입은 신사이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래서 양복이 귀한 시골에서는 선을 볼 때나 약혼·혼례 때 양복을 빌려 입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빌려 입은 옷이나 구두가 맞지 않아서 어설퍼도 어쩔 수 없었다.

1920년대에 들어 양복이 크게 유행하였다. 경성과 대도시에서 일본인이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조선인 관리와 상인도 곧잘 입었다. 유행을 선도하던 혼마치토오리本町通り(지금의 명동)나 무교동 일대에서는 젊은 양복 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양복 차림에는 셔츠·넥타이·넥타이핀·커프스·모자·구두·지팡이와 가죽허리띠가 기본 액세서리였으며, 때로는 바지 위쪽에 붙은 작은 주머니에 금딱지 회중시계를 넣고 수시로 꺼내 보았다.

대한제국시기를 대표했던 유행은 연미복과 같은 예복 중심의 양복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색코트·프록코트·스프링코트spring coat·모닝코트morning coat 등 다양한 형태의 양복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양복의 상하의와 조끼를 같은 천으로 만든 슈트suit가 처음 등장하였다.

양복은 모던보이, 나카오리 신사로 일컬어지는 젊은 남성만 입은 것은 아니었다. 1915년경부터 교복에도 양복이 등장하였다. 1910년대까지 저고리나 바지, 검정 두루마기를 착용하던 학생들이 겨울에 오버코트나 망토를 저고리, 바지 위에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가 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양복 형태의 교복을 입었고, 이로 인해 교복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교복은 검정색이나 회색 등의 옷감으로 만들어



최신 류행되는 남자의 가을 양복 | 1933. 9. 13 | 조선중앙일보

앞에 단추 다섯 개와 스탠드칼라를 단 획일적인 모양의 학생복이었다. 양복바지의 무릎 아래에는 편한 활동을 위해 행전이나 각반을 차고 다니기도 했다. 여러 학교가 거의 같은 형태의 교복을 입었고, 배지·모자·단추에 표시된 교표만 다를 뿐이었다.

일제강점기 양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 성장하였다. 신문과 잡지를 통해 서양의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었고, 일본과 미국의 유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멋진 양복을 입었다. 또한 양복의 유행에 일조한 것은 권번券番에 소속된 기생들의 역할이었다. 새로운 양복 스타일이 선보일 때마다 돈 많은 남성들의 양복을 주문하는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양복의 유행은 빠르게 확산해 프록코트·싱글슈트·더블슈트·인버네스코트inverness coat·트렌치코트·스프링코트·체스터코트chester coat 등 다양한 형태의 양복이 유행하였다. 1930년대 중반에는 풍성한 느낌의 볼드룩bold look과 상하가 다른 세퍼릿separate이 유행하였다. 이전의 격식 있는 형식보다는 편리하고 단순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액세서리는 단순해졌다. 중절모·스트로해트straw hat·맥고모자는 계속 썼으나 지팡이 같은 장식은 없어지는 양상을 띠었으며, 액세서리도 요란하지 않았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전쟁 야욕으로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배급제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양복지를 배급 받지 못하는 양복점들이 수선집으로 전락하였고, 1940년에 제정된 국민복으로 인해 양복은 수요가 급속도로 감소되었다

양복점
洋服店

정의 양복을 만들거나 파는 곳을 일컫는 말로 주로 남성용 수제 맞춤 양복을 취급하는 가게.

내용 양복은 서양을 일컫는 양洋과 옷을 의미하는 복服이 결합되어 서양 사람의 복장을 의미하는데, 19세기 중엽 만들어진 용어로 추정된다. 포괄적으로는 서양의 옷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나 오늘날에는 슈트suit와 코트coat, 이에 따른 액세서리를 일컫는다. 양복은 한복 또는 동양의 전통복식에 대비되는 말로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요후쿠洋服, ようふく, 세비로背広, せびろ로, 중국에서는 시주앙西装, xīzhuāng, 시푸西服, xīfú라고 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문서로 1895년 '육군복장규칙'과 1900년 '문관복장규칙'을 반포하면서 서양식 복제가 공인되었다. 그러나 양복이 공인되기 전 국내에 들어온 서양과 일본의 외교 사절이 이미 양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고종高宗이 일본에 파견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1881)의 단원 또한 일본에서 양복을 구입하여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재필徐載弼이 1894년 만든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에서는 미국, 프랑스 등의 외교관과 민영환閔泳煥, 윤치호尹致昊 같은 정부 고관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양복을 착용하였다. 이를 통해 양복이 공인되기 전에도 일부 계층에서 먼저 수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화파 인사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양복을 입은 신사로 기록되었으며, 이들의 양복은 개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종로 양복점 도구 모음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양복은 서양식 의복을 총칭하는 단어로, 1880년대부터 일부 개화를 주도한 세력이 처음으로 수용하였다. 개화파들이 착용한 양복은 색코트로, 18세기 유럽에서 스포츠복으로 등장하여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것이다. 색코트는 깃이 턱 밑으로 바싹 붙고 앞섶은 가슴에서 무릎까지 벌어졌으며, 칼라가 둥근 크라이앵 셔츠와 크라바트를 착용했다.

이후 양복은 일상복보다는 문관의 대례복·외교관복식·군복·교복 등 정부 관리의 복식이나 제복과 관련된 복식을 중심으로 법령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양복을 입었다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입는 경향이 강했고, 서민보다는 관직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먼저 착용하였다.

전통복식에서 근대복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차림새와 서양식 의복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복제 개혁은 국내 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발은 전통 의복이 단순한 입을거리가 아니라 전통적인 의식과 문화를 내포한 국가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체성으로 인식된 외관, 즉 복식을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복식을 도입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계관·복식관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과 국내에서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접해야 했던 관원은 서양식 외교상황에서 양복 착용이 절실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양복 도입을 시급한 현안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초에 도입된 양복은 서양이 주도하는 외교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려는 수단이었고, 이후에는 일상생활용 복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참고문헌 100년의 테일러 종로양복점(국립민속박물관, 2014), 각계각면 제일 먼저 한 사람(별건곤16·17, 개벽사, 1928), 개항이후 대한제국 성립 이전 외교관 복식 연구(이경미, 한국문화63,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3), 신편한국사51-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문화사, 2001), 일본의 영향을 받은 개화기 남성 복식의 서양화(이행화, 인간과문화연구20,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제복의 탄생(이경미, 민속원, 2012), 한국문화사9-옷차림과 치장의 변천(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5), 한국양복100년사(김진식, 미리내, 1990),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정민 외, 태학사, 2011).

필자 이경미(李京美)

근대 초기 개인의 양복이나 제복은 맞춤 양복점에서 제작되었는데 초창기 양복점은 대부분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운영하였다. 일본인이 개점한 하마다 양복점(1889)과 오쿠다 양복점(1894)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인韓人 양복점은 1903년 한흥양복점을 시작으로 점차 수가 늘어났으며, 1916년 개업한 종로양복점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복점이다.

여성복은 개항기 외국 선교사의 양장과 해외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의 옷차림 등 서구문화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으며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여성 양장은 남성용 양복점에서 제작되었으나, 1937년 최경자가 개점한 은좌옥銀座屋을 시작으로 여성을 위한 양장점과 양재학원이 개설되었다. 6·25전쟁 이후 1950년대 후반에는 명동을 중심으로 한양장점·국제양장사·송옥양장점·노라노 등 유명 양장점이 개설되었다. 여성 복식의 양복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1960년경에는 양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다.

특징 및 의의 광복과 6·25전쟁 이후 한국 사회가 서구화·산업화·도시화를 지향하면서 양복은 도시 근로자의 상징이 되었고, 신분과 직업에 상관없이 남성의 공식 복장으로 자리 잡았다. 양복에 대한 수요는 195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여, 1960년대 주문 양복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양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막혀 양복지의 공급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밀수하는 사례도 증가하였으며, 마카오와 홍콩 등에서 들어온 양복지로 옷을 지어 멋을 냈다는 의미에서 '마카오 신사'라는 표현이 유행하였다. 당시 좋은 양복점은 좋은 양복지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했다. 일제강점기 모직과 견직물을 판매한 가게의 명칭인 '라사羅紗'가 1950~1960년대 양복점 상호에 많이 쓰였다.

맞춤 양복점은 1970년대까지 번성하였으나, 1980년대 경제 성장 및 생산 시설의 개선, 판매 방식의 고급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에 부응하여 대기업에서 기성 양복을 대량 생산하게 되어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1983년 제일모직이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통해 고급화한 기성 양복 생산을 확장하면서 맞춤 양복점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기성 양복이 전체 양복 소비의 75%를 차지하였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아 맞춤양복점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맞춤 양복 제작 과정은 크게 재단·재봉·마무리의 3단계로 구분되며, 재단사·재봉사·마무리 전문 담당 등 최소 세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각자 임무를 맡아서 작업한다. 이외에 다림질 전문 담당이나 가봉사 등의 분야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때 작업은 속성 또는 공정별로 구분되지 않고, 상의나 하의 등으로 업무가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재단사는 '테일러tailor'라 부르며, 고객을 응대하고 채촌採寸(신체 치수 측정)하여 종이에 옷본을 그리고, 이 옷본을 바탕으로 원단을 마름질하고 시침질하여 가봉한다. 가봉한 옷으로 옷본을 수정하며 옷의 형태를 잡는다. 재봉사는 재봉을 담당하며, 상의와 바지 두 분야로 나뉘어 작업한다. 바지 담당은 조끼까지 맡아 재봉틀과 손바느질로 마무리 전 단계까지 작업한다. 마무리 담당은 재봉사가 제작한 상의나 바지에 단추 구멍을 내고, 단추를 다는 등 바느질로 마감 처리를 하여 다림질하기 전까지 작업을 한다. 다림질 담당은 마감된 옷을 납품하기 전에 다림질하여 완성한다. 다림질은 옷감에 물을 먹여 다리면서 늘이기도 하고, 선을 잡아 주는 등 옷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단계이다.

참고문헌 100년의 테일러(국립민속박물관, 2014), 제복의 탄생(이경미, 민속원, 2012), 패션 70년(최경자, 재단법인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1999), 한국양복 100년사(김진식, 미리내, 1990),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현대패션 100년(현대패션100년편찬위원회, 교문사,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encykorea.aks.ac.kr).

필자 박선희(朴宣姬)

양장
洋裝

정의 외관을 서양식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 또는 그 옷.

내용 양장洋裝은 외관을 '양식洋式'으로 '갖추어 입는다裝'는 의미가 있다. 국어사전과 일본어사전에는 양복洋服을 입는 것 또는 그 복장으로, 주로 여성의 복장을 일컫는다고 정의한다. 중국어사전에서는 양장보다는 서장西裝으로 표기되었다. 양장과 서장이라는 용어는 1880년대 서구 유럽 또는 서양西洋을 지칭하는 용어인


첫 양장여성 윤고라


순헌황귀비

양장

'양洋'과 '서西'에서 기인한다. 당시 동아시아의 근대화론을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 조선은 '동도서기東道西器',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材'라고 불렀다. 자국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은 중中, 조선은 동東, 일본은 화和를 각각 사용하였고, 유럽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국과 조선은 '서'를, 일본에서는 '양'을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양장이 여성의 서양식 정장을 지칭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여성의 양복 착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남성의 옷과 구분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양장이 여성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시기는 1950년대 6·25전쟁을 계기로 본다.

양장의 시작은 1890년대 윤치호尹致昊가 외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그 부인 윤고라尹高羅까지도 양장을 하게 한 것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윤고라 외에도 외국 교역 물품 상점을 운영하던 경옥당, 순헌황귀비(엄비)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때 양장의 공통된 특성은 깁슨걸Gibson girl 스타일·지고gigot 드레스·버슬bustle 스타일 등 S자형 실루엣으로, 대부분이 긴 플레어스커트에 트레인train이 달렸다. 머리모양은 팜프도어pompadour, ひさしがみ(챙머리)였으며, 하이 네크라인에, 레이스로 장식된 챙이 넓은 모자를 썼으며, 단화를 신고 양산을 들고 다녔다. 당시 군인 이외에는 관리들도 양복을 입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여성의 서양식 옷차림은 경이적이었으며 매우 이채로웠다.

1950년대 이전의 신여성들은 서양식 재단·재봉법인 양재洋裁를 받아들여 한복을 개량한 개량 한복(통치마 저고리)을 주로 입었다. 서양식 여성 정장인 양장은 매우 소수였다. 당시 인기 연재만화 <멍텅구리 헛물켜기>의 여주인공 옥매의 슬림한 원피스 차림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양장화는 속옷부터 이루어졌다. 속적삼·속속곳·단속곳 대신 셔츠·팬티·속치마로 바뀌었다. 내의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장화에 따르는 거부감이 적었던 데에 기인한다. 겉옷으로는 케이프와 코트가 외투로서 인기를 얻었다. 양장의 확대 및 보급은 신교육을 통해 양장과 친숙해진 신여성층의 증가와 각종 양재학교, 신문, 여성단체 등을 통한 양재 강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많은 여학교 교복과 사회단체의 제복, 체육복, 아동복이 양장으로 변화되었다. 1920년대 코트·재킷·원피스·스웨터·블라우스·스커트 등 양장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1930년대에는 양장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복의 색채와 무늬도 다양해졌다. 한복과 양장을 같이 입었고, 개량 한복에 스웨터를 입는 차림이 많아졌다. 여기에 서양식 머리모양이나 숄·양산·핸드백 등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양장은 여성적인 부드러운 스타일로 원피스나 오버블라우스에 벨트를 하여 허리선을 강조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다양한 패션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1930년대 말 일제강점기 하의 총동원 체제 하에서는 다채로웠던 양장은 사라지고 간단복이나 몸뻬 차림이 주를 이루었다.

광복 후, 전시체제에서 유행한 간단복이나 몸뻬와 같은 일본식 옷을 벗고 전통 양식인 한복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미군정시대, 해외 동포의 대거 귀국이라는 상황은 복식을 서양식으로 개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물자가 부족해 일제 말기부터 입었던 블라우스·스커트·원피스 및 밀리터리 스타일의 의복을 계속 입었다. 왜색을 탈피하자는 주장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간단복이나 몸뻬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해 한국 복식 문화의 기본이 상실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전쟁 기간에 구호의류품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양장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외국 직물인 벨벳이 들어와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며 유행하였다. 나일론은 겉옷은 물론 속옷·양말에까지 사용할 정도였으며, 기계 주름을 잡은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가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유럽에서는 프랑스 파리Paris를 중심으로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이 1947년 발표한 뉴룩New Look이 유럽 패션을 강타하였다. 이후 유럽 패션은 여성적 이미지와 A라인, H라인, Y라인 등 윤곽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에서는 전쟁의 참화가 수습되어 가는 1950년대 중반부터 여성용 정장을 '맞춤'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양장점이 명동 주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교육의 기회도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파리의 유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복제 디자인에 의한 서양 패션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에는 최경자가 명동에 국제양장사를 개업하였으며, 1956년 미국에서 돌아온 노라노가 한국 최초의 패션쇼를 열었다. 1955년 11월『여원』에는 최경자가 '가을의 유행Mode of Autum'이라는 테마로 화보를 싣기도 하였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가 섬유, 의류 제조 산업 부분의 발전에 지원함에 따라 의류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정부에서도 전통한복이나 개량한복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행동하기 간편'한 양장 입기를 홍보하였다. 1960년대에 착용 인구 면에서 양장은 한복을 능가하였으며, 일상복으로 자리를 굳혔다. 초기에는 튜뷸러형의 오버코트나 색 드레스 등의 단순한 박스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맘보바지 형태의 오드리 햅번 스타일 슬랙스가 등장하였다. 1965년 서구에서 복식의 혁명을 이루었던 미니스커트가 1967년 가수 윤복희尹福姬의 귀국과 함께 상륙하여 1968년에 유행하였고, 1970년대 초에는 스커트 밑단이 무릎 위 20㎝ 이상까지 올라갔다. 1968년에는 판탈롱이라 불리는 테일러드 팬츠슈트가 등장하였다. 1970년대 초기의 유행 경향은 미니 스타일·미디·맥시·판탈롱·핫팬츠 등 다양한 모드가 공존하였다. 1971년부터는 핫팬츠와 오버코트를 이용한 레이어드 스타일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무릎길이의 큐롯 슈트도 유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젊은 도시 여성은 양장을, 전통 지향적인 여성이나 중년층, 노년층, 그리고 농촌에서는 전통·개량한복의 착용으로 복식의 이중적 구조가 존재하였다.

1970년대에는 앙드레 김, 진태옥, 이신우, 미세스 고, 트로아 조, 강숙희 같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등장으로 양장점의 형태가 디자이너 개인의 이름을 건 소규모 부티크 살롱 형태로 바뀌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양장 여인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구미 사람들에 비해 어색하지 않게 입을 줄 알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양장보다는 '여성복'이라는 용어나 '패션'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학계에서 여성복의 흐름을 연구할 때 '양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것도 1970년대까지이다. 원영옥이「우리나라 양장의 변천」에서 그동안 한복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양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양장이라는 용어는 주로 서양식 여성복으로서 한복에 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김민자는『20세기 한국 패션사: 갑오경장 이후 서양복식의 수용과 전개과정』(1998)에서 한국복식의 양장화 과정을 아이허J. B. Eicher와 에레코시마T. V. Erekosima(1980)의 문화적 확증cultural authentication 단계로 고찰하였다. 첫째는 선택의 단계로서 서양 복식 양식을 원형 그대로 수용하고 도입하는 단계이다. 왕족, 외교관, 유학생, 외국 무역품을 다루는 여성 상인들이 서양 패션을 원형 그대로 착용하였다. 둘째는 특성 부여의 단계로 외부 복식 요소가 차용되어 사용되나 그 상징적 의미가 바뀌는 수준이다. 장갑, 구두 등과 같이 착탈이 편한 복식의 일부분이 차용되어 상류층을 암시적으로 나타냈다. 셋째는 결합의 단계로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화를 위해 복식 요소를 빌려오는 과정이다. 1920년대 한국 신여성들은 짧은 머리, 플래퍼 스타일, 흰 저고리에 짧은 통치마를 결합하여 신여성의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 스타일은 당시 신여성들



양장점 | 서울 서대문구 | 1960년대 | 서울역사박물관

의 개화된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의미했다. 넷째는 변형의 단계로 창조적 조합으로 복식의 요소가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서양 패션이 수용되는 1945년 이후에 발견된다. 서양 패션의 복제기를 지나 서양 패션이 일상복으로 정착되면서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패션 디자인 개념이 생기는 단계이다. 1980년대에는 서양 패션이 일상복으로 정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양장은 외관을 '양식洋式'으로 '갖추어 입는다[裝]'는 의미로 1950년대 이후 주로 여성의 서양식 정장을 부르는 말로 인식되었다. 양장은 1890년대 서양과 교류하였던 왕족이나 외교관·상인·유학생·상인들이 서양 패션을 원형 그대로 착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양장은 깁슨걸 스타일로 S자형 실루엣 드레스에 머리모양은 팜프도어였으며, 하이 네크라인에 레이스로 장식된 챙이 넓은 모자를 썼으며, 단화를 신고 양산을 들고 다녔다. 양장의 확대 및 보급은 신교육을 통해 양장과 친숙해진 신여성층의 증가와 각종 양재학교, 신문, 여성단체 등을 통한 양재 강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많은 여학교 교복과 사회단체의 제복, 체육복, 아동복이 양장으로 변화되었다. 전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교육의 기회도 더욱 늘어나 양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1960년대 의류 산업 발전, 근대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에 의해 양장이 보편화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 지향적인 여성들은 한복을, 젊음·도시·미래 지향적인 여성은 양장을 착용하면서 한복과 양장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1970년대 말 기성복 시대가 열리고 서양 패션이 일상복으로 정착되면서 '여성복', '패션'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2017년 현재 '맞춤식 여성 정장'이라는 의미의 양장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복에서 기성복 시장과 맞춤복 시장은 공존하고 있다.

참고문헌 1950년대 이후 한국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근대적 복식 유행의 출현과 사회적 수용 (조희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우리 옷 이천 년(한국복식문화2000년 조직위원회, 미술문화, 2001), 우리나라 양장의 변천(원영옥, 국민대학교 논문집4-1, 국민대학교, 1972), 조선일보에 나타난 복식변천과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최선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한국복식사 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여성 양장의 변천에 관한 고찰(김춘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한국여성문화사1(김은정 외, 숙명여자대학교, 2004), 한국여성문화사2(김은정 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필자 이민정(李旼靜)

양태
凉太

정의 대나무를 엮어 만든 갓의 아래쪽 차양.

내용 갓은 꼭대기에 해당되는 대우와 그 아래 넓게 햇빛을 가리는 차양인 양태凉太로 구성된다. 그 형태는 대나무로 대우와 양태를 일체형으로 만든 패랭이[平陽子]에서 비롯하여 대우와 양태를 분리한 초립草笠과 일치한다. 현재 알려진 갓의 형태는 성종 대에 완성되어 시대에 따라 대우의 높낮이와 양태의 넓이가 달라졌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연산군 대 말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대우가 낮고 양태가 넓어졌다가, 중종 대 말에는 대우는 높고 양태가 넓은 갓이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선비들의 갓 애호는 여전하여 유행을 선도하였다. 17세기 광해군 대에는 대우는 낮고 양태가 큰 갓을 선호하였다. 현종 대에는 대우가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낮으나 너비는 좁은 갓이 유행하였다.

갓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대우는 총모아장이 말총으로 만들었고, 양태는 양태장이 대나무로 만들었으며, 입자장은 이것들을 합쳐 갓을 만들었다. 이 중 양태장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상의원에 두 명이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갓을 제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장인이 부족하자 여성 양태장이 왕실이나 국가에서 사용할 양태를 제작하게 하였다. 1627년(인조 5) 소현세자의 국혼 때 가례도감嘉禮都監에 동원된 돌떡[乭德]이와 종옥終玉이 최초의 예이다. 개이介伊를 비롯하여 개금介金, 업선業先 등의 여성 양태장은 1645년(인조 23) 소현세자의 빈궁도감殯宮都監(장례 때 빈궁의 설치와 운영을 맡은 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활동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숙종 대 말부터 사회가 안정되고 관청 체계가 정비되면서 장인 조직도 완비되었다. 점차 여성 양태장의 자리에 다시 남성이 차출되었으며, 1673년(현종 14)부터 조대의趙大義와 김두견金斗見 등이 오랫동안 국역을 지며 양태를 제작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발달하자 양반 지주층과 부상대고富商大賈(많은 밑천을 가지고 대규모로 장사를 하는 상인) 등이 증가하면서 갓의 수요가 늘었



양태 | 지름 34.5 안지름 1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다. 당시 선비들이 양태가 넓은 갓을 즐겨 착용한 모습을 신윤복이나 김홍도의 풍속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19세기 들어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려 양반의 숫자가 늘었다. 이에 따라 갓의 상품화가 가속화되자 양태는 대나무 특산지에서 민간 수공업으로 대량 제작되었다. 그중 제주도에서 생산된 양태는 '제양濟凉'이라 일컬어, 한양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안성 내 갓 공방에서 완제품인 갓으로 만들어져 '입점笠店'에서 판매되었다. 한편 통제영 내 12공방에서 제작한 양태는 '통양統凉'이라는 불렸고, 이것으로 통영갓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켰다. 하지만 1895년(고종 32)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져 많은 사람들이 상투를 자르면서 갓의 수요가 줄어 양태의 제작도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일제강점기 및 근대 이후 양태를 제작하는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에 양태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하고 통영의 모만환과 제주도의 고정생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그들의 사후 2000년에 고정생의 딸인 장순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 오늘날까지 양태를 제작하는 기술이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은 의관정제를 중요시하여, 사대부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일상에서 관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였다. 그중 검은 갓[黑笠]은 흰 옷과 함께 착용해 학처럼 고고한 조선 선비를 상징하는 관모로 선호되었는데, 갓의 차양인 양태는 가늘고 얇게 쪼갠 대나무를 한 올 한 올 엮어 만들었다.

갓의 시대별 양식적 특징은 기록이나 풍속화를 통해 확인된다. 시기마다 대우의 높이와 양태의 넓이가 달라져, 대우가 높아지면 양태가 좁아지고 대우가 낮아지면 양태가 넓어지는 등 시대에 따라 조선의 미의식을 반영하였다. 18세기 말 이후에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갓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양태 또한 제주도와 통영에서 특산품으로 대량 생산되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갓일(장경희, 화산문화, 2001), 양태 및 갓 공예(이두현·정상박, 고문화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64), 의궤 속 조선의 장인(장경희, 솔과학, 2013),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장경희, 경인문화사, 2004), 조선시대 입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박형박,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선후기 여성장인의 장색과 직역 연구(장경희, 여성과역사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통제영 공방의 역사(김일룡, 전통공예의 산실 통영공방의 재조명, 문화재청·경상남도, 1999), 한국 입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강순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공공누리(kogl.or.kr).

필자 장경희(張慶姬)

어사화
御賜花

정의 조선시대 임금이 과거에 급제한 신하에게 내리는 종이꽃.

내용 조선시대에는 문과·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홍패紅牌와 어사화御賜花를 하사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사흘간 광대를 데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거리를 돌며 삼관三館, 여러 관사의 선배, 친척 등을 찾아보았는데, 이를 <삼일유가三日遊街>라 한다. 『평생도平生圖』의 내용 가운데 <삼일유가>는 과거급제하고 금의환향하는 주인공이 어사화를 꽂은 복두를 머리에 쓰고 난삼襴衫을 착용한 차림새로 말에 올라탄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난삼의 색은 연둣빛을 사용하였는데, 꾀꼬리의 색과 유사하여 앵삼鶯衫이라고도 하였다.

머리에 쓰는 관모冠帽에 장식물을 꽂는 풍습(삽식揷飾)은 상고시대부터 전해진다. 삼국시대 새의 깃털을 꽂은 조우관鳥羽冠에서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궁중 잔치 등에서 관모에 꽃을 꽂는 삽화揷花 풍습이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어사화에 대한 내용은 다수의 고서에서도 조금씩 보인다. 정약용丁若鏞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서는 "어사화 두 가닥을 머리에 꽂고頭揷雙條御賜花",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에서는 "임금이 하사한 꽃도 머리에 꽂지 않는다네君賜花枝亦不

簪.”의 구절에서 어사화의 형태와 임금이 하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문과 전시殿試에 3등으로 뽑힌 사람을 담화랑擔花郞이라고 하였는데, 방방례放榜禮를 할 때 담화랑은 임금 앞에서 모화帽花를 받아 새로 급제한 모든 사람에게 꽂아 주었다.”라고 하였다.

1602년(선조 35) 호조에서는 “국고가 고갈된 때에 수많은 사람의 관복을 관에서 지급하기는 형편상 어려워 급제자에게 지급되던 홍패와 어사화를 각자가 구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1620년(광해군 12)에는 정원政院에서 흉년에 어사화와 홍패지를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 하여 합격자들에게 마련하도록 하자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어사화는 임금이 하사하였으나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급제자가 직접 구하게 하였다. 한편, 1650년(효종 1) 기진흥奇震興(1606~1651)이 과거에 급제한 날 어사화를 개조하여 수놓은 비단으로 장식하였다는 사실로 역모의 마음을 가질 것이라 하여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할 것을 논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하는 유물로는 이세후李世垕 어사화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이만기李晩耆 어사화가 있다. 이세후의 어사화는 1726년(영조 2) 대과 급제 시 받은 것으로 길이는 약 90㎝이며, 이만기의 어사화는 1852년(철종 3)에 하사 받은 것으로 197㎝에 이른다. 1765년(영조 41) 실록의 기록을 보면 “신은新恩에게 주는 어사화御賜花가 전보다 좀 길어졌으니 지금부터는 지난 을유년에 내려 주던 어사화의 몸체와 양식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두 점의 유물 크기 차이로 보아 그 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77년(고종 14)에는 “계방桂坊의 관원 가운데 과거에 오른 사람이 있으면 방방放榜할 때 어사화는 비단으로 만들고 홍패는 종이로 하되 길이와 너비는 특별히 일반적인 홍패와 다르게 하는 것으로 규식을 정하라.”라고 하여, 조선 후기에는 재료를 종이뿐만 아니라 비단으로도 만들었음이 확인된다.


① 어사화 | 길이 165


② 김홍도 | 담와 홍계희 평생도 중 부분

어사화 | ①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어사화는 가늘게 쪼갠 댓개비 두 개를 밑부분은 함께 싸서 묶고 위쪽으로는 각각 벌어지도록 하여 청·홍·황·백색의 종이를 꽃모양으로 오려 붙였다. 한쪽 끝을 복두 뒤에 꽂고, 다른 한끝은 명주실로 잡아매어 머리 위로 휘어 넘겨서 입에 물거나 손에 든 홀에 묶어서 어사화를 고정해서 다녔다. 어사화는 홍패와 함께 문과·무과의 급제자에게만 지급되던 것으로 입신양명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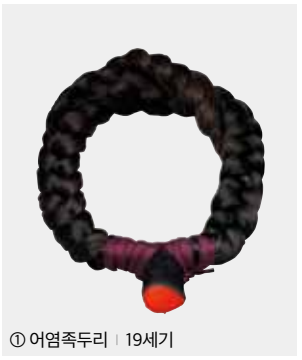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日省錄, 국역 다산시문집7(정약용, 민족문화추진회 역, 솔, 1994), 국역 명재유고(윤증, 민족문화추진회, 2006), 국역 목은집3(이색, 임정기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1), 용재총화(성현, 김남이 외 역, 휴머니스트, 2015),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2(박성실, 민속원, 2002),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노수정(盧洙正)

어여머리

정의 체발髢髮을 사용하여 머리에 둥글게 두른 조선시대 부인의 머리모양.

내용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궤䯼는 방언으로 ‘어여마니於如摩尼’라고 하는데 ‘어여’는 두른다는 뜻의 방언이고, ‘마니’는 머리의 방언이다. 즉, 머리에 두르는 것을 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여머리는 어여마니 외에 어여미於汝美·어염이於炎伊·어우미於亏味·어유미於由味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초, 이형상李衡祥


① 어염족두리 | 19세기


② 예복 차림의 순정효황후 | 근대

어여머리 | ① 길이 31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국립고궁박물관

(1653~1733)의 『병와집甁窩集』에는 '거두미擧頭美는 내명부와 혼녀昏女의 머리모양이고 어여미於汝美는 외명부 머리모양'이라고 하였다. 또 1788년(정조 12) 『정조실록正祖實錄』의 기록에도 "어유미於由味와 거두미巨頭味는 명부命婦들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반 백성들이 혼인할 때 착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어여머리는 큰머리의 받침머리로도 사용되었다. 한편 어유미가 어여머리가 아니고 국말까지 존재했던 소형 목제 큰머리라고 하는 설도 있다. 아직까지는 어유미·어여미와 어여머리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18세기에는 어여머리를 만들기 위한 가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756년(영조 32)에 영조는 가체를 금지하고 족두리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궁양을 따르면서 사용한 족두리의 사치가 또 문제였다. 부인들의 족두리에 각종 패물을 장식하다 보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 그래서 가체를 다시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가체의 폐단은 지속되었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따르면 13세 신부가 가체를 크게 올린 머리를 하고 일어나다가 가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목이 부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가체머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서 며느리를 보아도 신부가 현구고례見舅姑禮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던 중 1788년(정조 12) 10월 3일 비변사에서 <가체신금절목加髢申禁節目>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가체금령을 회복시켰다. 가체를 금하는 이유는 서로 앞다투어 과시하기 위해 크게 만들었으므로 그 값이 더욱 높이 치솟아 사치스러운 자는 가산家産이 기우는 것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는 거의 인륜을 폐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족의 처첩과 여항의 부녀자들은 가체(딴머리) 얹는 것을 일절 금하고 머리를 땋아 쪽을 찌고[編髮後髻] 흑색으로 싼 족두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얼굴을 드러내는 천한 여자[常賤女人]들은 자신의 머리카락[本髮]으로 머리에 얹는 것을 허락하였다. 궐 밖 반가 부인들의 어여머리는 금하였으나 궁중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어여머리를 예장용 머리로 사용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초 사진에서 순정효황후를 비롯한 궁중 여인들이 원삼 차림 또는 치마·저고리 차림에 어여머리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어여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목뒤에 쪽을 찌어 쪽머리를 완성한다. 정수리의 가르마 위에 아청색 공단貢緞에 솜을 두어 만든 어염족두리를 올린다. 어염족두리의 중간을 묶은 끈으로 쪽머리에 묶어 고정시킨다. 그 위에 굵게 땋아 만든 어염다래를 쪽 밑에 고정시키고 어염족두리 위로 얹는다. 어염다래 위 중앙에 옥선봉잠[玉立鳳簪]이나 옥입잠玉立簪, 옥접잠玉蝶簪 등을 꽂고 좌우에 일명 떨잠이라고 하는 옥원잠玉圓簪을 꽂아 장식하였다.

참고문헌 甁窩集, 朝鮮王朝實錄,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이은주, 복식58-3, 한국복식학회, 2008),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금용숙, 일지사, 2005), 조선후기 왕실여성의 관례복식 연구(김소현, 복식60-5, 한국복식학회, 2010),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이은주(李恩珠)

얹은머리

정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앞쪽으로 감아 올려 고정한 부인의 머리모양.

역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성종成宗 때에 사람들이 고계를 좋아하여 사방의 높이가 한 자가 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포백척布帛尺·주척周尺·황척黃尺·조례기척造禮器尺 중에서 가장 짧은 주척이 20.81㎝이므로 가체를 더한 높은 얹은머리는 최소

한 21㎝ 정도의 높이였을 것이다. 연산군燕山君 때는 중국에 체자髢子를 선물하였다고 한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가발을 얹은 머리 치장에 7~8만냥이 들며, 심지어는 나이 어린 13세 신부의 방에 시아버지가 들어오자 갑자기 일어나다 머리 무게에 눌려 목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가체를 마련하지 못한 집에서는 혼례를 치르고도 시부모 보는 예를 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영조 때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용하게 하는 가체금지령假髢禁止令을 내려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예장할 때 꾸미기 위하여 계속 가체가 사용되는 등 가체금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머리(다리머리, 트레머리)는 삼국시대부터 계속된 얹은머리에 가체를 많이 넣어서 높고 크게 한 머리모양이다. 이러한 체머리의 폐단은 날이 갈수록 극심하여 여러 번에 걸쳐 금령을 내렸다. 가체에 대한 논의는 1727년(영조 3)에서 1796년(정조 20)까지 70여 년간 계속되었다. 1749년(영조 25) 10월에 처음으로 부녀의 머리모양을 조정에서 논의하였으며, 1750년에는 체계髢髻를 날로 크게 만들어 사치가 심해졌음을 왕이 염려한 내용이 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편찬한 『추관지秋官志』에 기록되어 있다. 영조英祖 때에 체발髢髮의 양이 감소하였으며, 1756년(영조 32) 1월에 사족부녀士族婦女는 가체를 금지하고 족두리族頭里로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나 금령을 내렸음에도 잘 시행되지 않았던지 두 해 후인 1758년 1월에 다시 가체금지령이 발표되었으며, 1762년(영조 38)에 가체금지령이 다시 내렸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1757년 교지敎旨에 보면 그 뒤부터 체계는 예복에만 쓰이고 대신 족두리를 쓰고, 왕손 외에는 용봉채龍鳳釵를 금지하게 되었다. 1763년(영조 39) 11월에는 체계를 대신한 족두리의 폐단에 의해 다시 체계를 부활하도록 명하였다. 이것은 족두리의 사용이 더욱 사치를 조장했기 때문이며, 이리하여 영조의 발제개혁髮制改革은 실패로 돌아갔다. 1779년(정조 3) 나무로 된 떠구지가 궁중에서 생겨났다. 여러 차례의 논의 후 1788년(정조 12) 10월에 체머리를 비롯한 사치풍조에 대한 금령을 공포하였으나 1792년(정조 16)까지는 완전히 실시되지 않았다. 1796년(정조 20)에 금체령禁髢令이 실시는 되고 있지만 훗머리는 더욱 사치해졌다.

1788년의 가체금지절목加髢禁止節目은 다음과 같다.

1. 사족의 처첩과 여염집 부녀는 가체를 땋아서 머리에 얹거나 또는 본인의 머리카락을 얹는 제도는 일체 금한다.
2. 가체 대신 쪽머리로 하고 낭자쌍계娘子雙髻와 사양계絲陽髻는 미혼녀의 머리모양이니 하지 마라. 머리에 쓰는 것은 전과 같이 족두리로 하되 무명이나 양죽凉竹을 논할 것 없이 안팎을 다 검은색으로 싸라.
3. 어여머리·큰머리는 명부命婦들이 항상 착용하거나 민가에서는 혼례할 때는 금하지 않는다.
4. 신분이 미천한 여자들이 거리에서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것과 공사천公私賤이 본인의 머리카락을 얹는 것을 허용하나 가체를 더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각 궁 안에 있는 수사리水賜里·의녀醫女·침선비針線婢와 각 지방관청의 여기女妓들은 본인의 머리카락을 머리에 얹고 그 위에 가리마[加里乃]를 써서 신분의 등위를 구별하는 뜻을 표시해라. 내의녀內醫女는 전대로 모단冒緞을 쓰되 그 외는 흑이승黑二升을 쓰라고 하였다.


① 환계를 한 여인 | 고구려


② 어여머리 | 조선


③ 단오풍경 중 부분 | 조선 후기


④ 저잣거리 | 조선 후기

얹은머리 | ① 안악 3호분, ② 회혼례도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③ 신윤복 | 간송미술문화재단, ④ 신윤복 | 국립중앙박물관

정조 때 다시 사대부의 처첩과 여염의 부녀는 가체는 물론 본인의 머리카락에 가체를 보태는 것도 금지하고, 천한 신분의 여인은 머리를 얹는 것은 허용하되 가체를 드리거나 더 얹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금지령을 내렸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순조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라지고 쪽머리가 유행하였다. 얹은머리는 쪽머리의 유행, 단발과 퍼머넌트에 의해 점차 사라졌다.

내용 얹은머리는 고구려 무용총 벽화의 밥상을 든 여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부인의 기본 머리모양에 가체를 더하여 꾸민 얹은머리와 본인의 머리카락만으로 빗어 올린 얹은머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얹은머리는 대수大首·큰머리[巨頭味, 擧頭味]·어여머리[於由味]·트레머리·체머리·코머리·풀머리·둘레머리 등 다양한 형태와 명칭이 있으며 가체는 부녀자 수식首飾의 절대적 조건이 되었다.

대수는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으로 대례복 적의를 착용할 때 머리에 쓰는 과대하고 화려하게 꾸민 대례용 가체이다. 대수에 사용된 가체는 한 묶음의 크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50~150묶음이 사용되었다. 대수의 양식은 전면에서 보면 머리 정상은 고계高髻를 만들고 그 밑으로는 좌우 어깨까지 내려오면서 A형으로 펼쳐진다. 뒷면도 앞면처럼 고계를 이루고 좌우를 A형으로 펼친 것은 같은 양식이지만, 중간은 세로로 머리를 땋고 그 위에 비단 댕기를 묶은 것이 다르다. 대수에는 비녀를 일곱 개 꽂았는데 고계에 상하로 하나씩 칠보잠七寶簪을 꽂고 맞은편에 하나로 고정하였으며, 이마에 둥글게 내린 머리 사이로 좌우에 용잠龍簪을 꽂고 어깨에 새의 날개와 같이 펼친 머리의 좌우에는 봉잠鳳簪을 각각 하나씩 꽂았다. 또한 고계와 정수리 중간에는 옥판玉板에 각종 보석을 박은 화려한 떨잠 일곱 개를 돌려 꽂았다. 대수는 가체도 대단하였지만, 비녀와 떨잠 등으로 더욱 화려하게 꾸몄다. 1922년 순종을 배알할 때 사용했던 영친왕비의 대수는 여러 개의 비녀로 가체를 임시로 고정한 상태이다. 가체의 각 부분에는 수식품의 명칭을 붉은 종이에 써서 해당된 위치에 붙여 놓았는데, 실제 사용할 때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큰머리는 왕실이나 반가에서 의식이 있을 때 하던 머리모양으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큰머리를 얹어 놓은 것이다. 정조는 영조 때 매듭짓지 못한 체계금지를 위하여 등극하자 우선 궁중에서부터 이를 금하고 머리카락으로 만들던 것을 나무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 나무로 된 대용물이 떠구지였으므로 큰머리를 떠구지머리라고도 하였다. 떠구지머리의 양식은 앞가르마 위에 첩지를 매고 그 위에 검은색 비단에 솜을 두어 중간을 잘록하게 묶은 어염족두리를 올려놓고 다리꼭지를 땋아 뒷머리에서 머리형대로 좌우로 갈라서 어염족두리 위에 고정시키는 데 두 줄로 하였다. 그 위에 가체로서 좌우에 둥글게 구부려 만든 거대한 아계丫髻를 덧붙였으며, 수식으로는 어염족두리 정상과 머리 측면 좌우의 옥판에 여러 가지 보석을 박고 화잠花簪 등 떨잠을 꽂았다. 아계는 조선 후기 왕비 및 왕세자빈은 머리카락으로 만들고 나인들은 나무로 만들어서 까맣게 칠을 한 떠구지를 사용하였다. 떠구지는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면 무겁고 가격도 비싸므로 싸고 가벼운 나무로 모양은 같게 만들었다. 떠구지는 1779년(정조 3)에 생겨났다. 이상과 같이 떠구지머리는 어여머리 위에 아계인 가계를 덧붙이고 왕비 및 내명부가 혼인, 삼색절문안, 제사 등의 의식에 사용하던 머리모양이다.

어여머리는 궁중과 반가의 예장할 때 머리 위에 얹는 가체로 된 커다란 머리를 말한다.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언에 어여마니於如摩尼라는 말이 있다. 어여는 두른다는 뜻이고 마니는 머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른머리라는 뜻이다. 머리에 두르는 가체머리로 어여마니는 어여머리인 것이다.

어여머리는 솜이 들어 있는 어염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가체로 만든 큰머리를 얹고 떨잠과 옥판과 화잠으로 장식하며, 어염머리 또는 또야머리라고도 한다. 떠구지머리에 버금가는 궁중의 소례용 머리모양으로 반가의 부녀와 상궁 중에서는 지밀상궁만이 하였다. 어여머리는 가체 일곱 개를 같이 묶어 두 갈래로 땋아 어염족두리 위에 얹고 매개댕기로 고정한다. 조선 말기에 와서는 떠구지머리와 어여머리가 혼용되었으며, 조선 말기에는 입궐할 때 어여머리 대신 첩지머리로 대신하였다. 평민 여자도 혼례 때에는 큰머리와 어여

머리를 사용할 수 있었다.

트레머리는 큰머리 모양을 축소한 머리로 서북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상류층은 좋은 가발을 사용하여 보기 좋게 얹고 끝에는 빨간 댕기를 매었으며, 하류층은 풀머리로 초라하게 얹었다. 옆 가르마를 타고 갈라 빗은 후 머리 뒤에다 넓적하게 틀어 붙이며, 트레머리가 넓적하고 클수록 보기 좋다고 해서 속에 머리심을 넣고 빗기도 하였다. 빗어 넘긴 머리카락을 뒤에서 두 갈래로 땋아 머리를 둘러 이마 위에서 엇비켜 왼쪽 귀 뒤에서 또아리 모양으로 얽어 얹은 후 남은 끝을 한쪽으로 몰아 붉은 장식용 댕기로 고정하는 등 다양하였다. 코머리는 부녀자들의 머리모양으로 본인의 머리카락을 한 갈래 또는 두 갈래로 땋아 머리끝에 빨간 댕기를 늘이고 머리 둘레를 감아 돌려 끝이 옆으로 되게 하여 고정한다.

일제강점기의 여학생들은 머리를 한 가닥으로 굵게 땋은 후 머리 둘레에 두르는 둘레머리를 하는 등 얹은 머리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었다.

특징 및 의의 얹은머리는 고대부터 전해오는 고유한 머리모양이며, 조선시대에는 가체를 더한 높은 얹은머리에 대한 각종 금령이 내려졌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순조 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라졌다. 이는 실학사상으로 인해 여인들의 사고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김용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조선후기 비빈들의 사절복식 및 의차(김용숙, 아세아여성연구5,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66),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용문(金容文)

연꽃무늬

정의 연꽃을 도안화한 무늬.

내용 연꽃무늬만큼 오랜 역사 동안 폭넓게 사랑받은 무늬는 드물다. 연꽃은 강한 생명력 때문에 창조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이집트,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연꽃무늬 | 경기도박물관

등의 고대 문명에서도 연꽃무늬가 일찍이 사용되었으며, 동양에서는 인도에서 불교와 연관 지어 중요한 무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연꽃무늬가 삼국시대에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연화문이 보이고, 신라나 백제의 금속공예품과 와당을 비롯한 불교 건축물에도 자주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청자, 나전칠기와 같은 공예품 무늬로 즐겨 사용되었고, 불화에서도 불상이 입은 가사 장식 무늬 등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사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각종 공예품은 물론 의복의 옷감 무늬 중에 가장 선호되었던 무늬이다.

연꽃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키우던 연꽃은 '수련'의 한 종류이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뾰족한 꽃잎이 둥글게 모여 있는 탐스러운 꽃송이와 커다란 타원형의 잎사귀, 씨가 들어 있는 둥근 열매인 연방蓮房으로 이루어졌다. 연꽃의 옛 이름은 '하화荷花', '부용芙蓉', '부거芙蕖'라고도 불렀다. 연꽃은 흙탕물에서도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는 특성 때문에 유교에서는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을 상징한다. 연꽃이 갖는 유교적 상징인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원예용으로 연꽃을 선호하였다고 한다. 정원에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길렀으며, 연못을 만들지 못할 형편이면 집 뜰에 넓적한 자배기에라도 연꽃을 키웠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영향으로 연꽃무늬가 시문된 옷감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행하였으며, 특히 조선 초기인 16세기의 출토복식에는 여러 옷감 무늬 중에서 연꽃덩굴무늬

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불교에서는 진흙과 물을 초월해서 고고한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에서 환생還生과 초탈超脫, 정화淨化의 상징으로 간주하여 팔보무늬[八寶紋] 중에 하나로 정하였다. 도가道家에서도 연꽃의 고고한 특성으로 여덟 신선[八仙] 가운데 하나인 하선고荷仙姑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신령스러운 꽃으로 상징된다. 또한 『군방보群芳譜』에서는 "식물은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으나, 연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나란히 생겨난다."라고 하여 연생蓮生, 곧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를 설파하고 있어서 민간에서 연꽃이 자손 번창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출토복식 유물에서 보이는 연꽃무늬의 구성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충전형充塡形 구도로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까지의 출토복식 유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도안이다. 연꽃 주위를 만초 덩굴이 C자 형태로 둥글게 감고 있는 연꽃덩굴무늬[蓮花蔓草紋]이다. 연꽃덩굴무늬가 시문된 여백에 방승·산호·서각·금정·보주 등의 보배무늬를 넣어 충전감을 더한 것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 약 백여 년 동안에는 전 시대의 전형적인 연꽃덩굴무늬 도안에서 벗어나 연꽃과 보배무늬를 흩뿌린 산점형 구도와 사양화무늬의 일부분인 회화풍繪畵風 구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 지난 이백여 년간 복식에 전형을 이루었던 연꽃무늬의 유행은 사라진다. 단지 원삼 소매 끝에 달린 한삼이나 불경의 표지 등 의식용의 직물에서만 전수될 뿐이다.

조선시대 직물에 표현된 연꽃무늬의 조형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연꽃무늬는 연꽃송이와 연방, 잎사귀가 있다. 언뜻 보면 연꽃이 덩굴에 휘감긴 배열이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시대에 따라 이들의 형태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고려 말기 직물에서도 연꽃무늬가 간혹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마치 연꽃을 간단히 스케치하듯이 꽃잎이 뾰족한 연꽃의 측면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아직 연꽃의 주위에 전형적인 덩굴은 나타나지 않고 짧은 가지를 간단히 연결하였다. 조선시대가 되면 연꽃무늬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뾰족한 꽃잎이 둥글게 모여 있는 사실형 연꽃과 함께 중심에 연방을 삽입한 보상화풍의 연꽃 도안이 병행하여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파평 윤씨(?~1566)의 의복에서와 같이 사실적인 연꽃과 보상화풍 연꽃을 한 줄씩 배열하고 잎사귀도 사실과 다른 네 가지 형태가 강한 덩굴에 달려 있으며,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보배무늬를 넣어 여백 없이 충전감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디자인된 연꽃덩굴무늬는 16세기 후반의 옷감 무늬 중에 전형적인 무늬가 되었으며, 유물도 여러 곳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 연꽃무늬의 모습은 앞 시기의 전형적인 면모에서 벗어나 다양화된다. 연꽃송이 중심에 삽입한 연방이 더욱 화려하게 보상화풍으로 변모한 것, 정면형의 연꽃을 강한 곡선으로 여러 겹 중첩되게 묘사한 것 등 장식적인 연꽃송이가 새롭게 출현한다. 줄기에 매달린 잎사귀도 사실적인 타원형의 잎사귀와 팔메트palmette(종려의 잎을 본떠 부채꼴로 꽃잎을 배치한 무늬)형의 가상적 잎사귀가 함께 달려 있고 중간에는 연방도 삽입하였다. 이렇게 사실적 묘사에서 멀어져 보상화풍으로 변한 연꽃무늬를 중국에서는 '연보상화무늬'라고도 하며, 곡선의 느낌이 강하여 '구련화球蓮花'라고도 부른다. 즉, 연꽃무늬가 처음 도입될 때는 사실적인 형태로 도안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장식화된 보상화풍으로 변화되었다.

연꽃무늬의 옷감은 은진 송씨(1508~1572) 등 16세기 여자 출토복식의 장옷·치마·저고리에 많이 나타난다. 또한 장기 정씨(1565~1614)를 비롯한 조선 전기 여자의 예복인 단령도 연꽃무늬 옷감으로 만들었으며, 안동 권씨(1664~1722)와 같이 왕족의 출토복식인 경우에는 요대·속바지·적삼과 같은 속옷이나 과두·멱목·천금·대렴금·소렴금과 같은 염습구에도 모두 연꽃무늬 옷감을 사용하였다. 연꽃무늬 옷감은 남자의 의복에서는 여자에 비해 사용 빈도가 적어지기는 하지만, 이응해李應獬(1547~1626)의 직령, 탐릉군耽陵君(1636~1731)의 답호, 최원립崔元立(1618~1690)의 창의 등에도 연꽃무늬가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복식유물에는 남녀·예복·평상복 구분 없이 연꽃무늬가 많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는 '화문단花紋緞'으로 통칭한 기록만 있고 '연화문단' 혹은 '연화문사'와 같이 연꽃을 알리는 구체적인 옷감 명

칭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단지 1670년에 저술한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老乞大』에 '연蓮'을 '련곳문'이라 언해하였고,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우화藕花'라 쓰고 '년곳'이라 발음하며 '부용'과 같다고 한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이 연꽃무늬로 불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명나라의 황제인 신종(1573~1620)의 묘에서 연꽃덩굴무늬의 화문단을 싼 종이가 출토되었는데, 여기에 연꽃이 덩굴에 감겨 있다는 의미의 '전지연화문단纏枝蓮花紋緞'라는 묵서가 있어 중국에서의 호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전통문양(임영주, 대원사, 2004).

필자 조효숙(趙孝淑)

연미복
燕尾服

정의 남성들이 연회 때 착용한 서양 정장.

내용 연미복은 서양에서 들어온 남성 예복 중 하나로 앞자락이 허리 아래에서 수평선으로 잘리고 옆쪽에서 사선으로 떨어져서 뒷자락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지닌다. 허리 아래의 뒷자락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테일형코트로 뒷자락의 모습이 제비의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연미복燕尾服이라고 부른다.

연미복은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예복으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밤의 정식 예복으로 입었는데, 궁정의 행사 같은 공식적인 행사 때 함께 착용하는 조끼도 같은 재질로 만들었다. 연미복이라는 명칭은 영어의 스왈로우테일코트swallow tail coat에서 온 것인데, 이 외에도 드레스코트dress coat·테일코트tail coat·이브닝드레스코트evening dress coat라고도 한다.

서양에서 연미복은 19세기 초반에 싱글브레스티드single breasted 또는 더블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로 디자인되었다. 1820년대가 되면 주로 싱글브레스티드로만 디자인했는데,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낮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밤에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입는 예복이 되었다. 이 시기에 낮의 예복은 모닝코트morning coat, 밤의 예복은 연미복으로 정착되었다.

일본에서는 연미복을 1872년 통상예복으로 규정하여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에 연미복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00년 4월 17일에 발표된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으로, 제7조에서 소례복 일습의 구성품으로 진사고모眞絲高帽·구제歐制 연미복·조끼·바지로 정해졌다. 진사고모는 서양 남성 예복을 입을 때 함께 착용한 실크해트silk hat를 의미한다. 문관복장규칙 제2조에서 대례복을 착용할 수 있는 관직은 칙임관과 주임관에 한정된데 비해 소례복은 칙주판임관이 공통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연미복은 문관들이 착용하는 예복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소례복은 문관복장규칙 제4조에서 궁내에 진현할 때[宮內進見時], 공식적으로 연회할 때[公式宴會時], 상관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할 때[禮拜上官時], 사적으로 서로 축하하고 위로할 때[仕相賀慰時]에 착용하게 하였다.

이후 1905년 1월 16일 관보의 정오正誤를 통해 문관복장규칙의 개정이 있을 때 프록코트와 함께 연미복은 소례복으로 다시 정리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같은 소례복 규정이지만 프록코트를 입어야 할 때와 연미복



연미복 입은 고종황제 | 서울대학교박물관

을 입어야 할 때가 구분되었다. 프록코트는 궁내에서 왕을 알현할 때, 각국 경절에 하례할 때, 사적으로 예방할 때의 소례복으로 규정되었다. 연미복은 각국 사신을 만날 때,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 때, 외국 관인이 만찬할 때에 착용하게 하여 프록코트보다 좀 더 격식을 갖춘 자리의 소례복이었다. 연미복을 착용할 때 함께 갖춘 복식 품목으로는 진사고모, 가슴 부분에서 열린 형태로 제작된 조끼, 상의와 같은 색 재질의 바지와 구두였다.

우리나라에서 착용된 연미복의 대표적인 모습은 대한제국의 외교관으로 서양에 파견되었던 이범진의 연미복 착용 사진과 일제강점기 촬영된 것으로 전해지는 고종의 사진이다. 이를 통해 서양에서 유행하던 형태가 그대로 도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도 연미복은 남성 예복으로 여전히 외교 현장에서 주로 입는다. 일반적으로는 성악가나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연미복을 입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특징 및 의의 허리에서 앞자락이 수평으로 잘려 뒷자락과 사선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서양 남성 예복으로 대한제국때 소례복으로 도입된 이후 남성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참고문헌 舊韓國官報, 대한제국기 서구식 문관 대례복 제도의 개정과 국가정체성 상실(이경미, 복식61-4, 한국복식학회, 2011), 제복의 탄생(이경미, 민속원, 2012), Men's Garments, 1830~1900(R. I. Davis, Players Press, 1994).

필자 이경미(李京美)

연지
臙脂

정의 적색계 염료의 일종, 또는 그 색명, 화장할 때 볼에 바르는 붉은 빛깔의 안료.

내용 이마에 동그랗게 치레하는 것을 곤지라고 하는데, 이때 연지를 사용한다. 연지 화장의 최초 기록은 B.C. 1150년경 중국 은殷나라의 주왕紂王 때이므로 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닌다. 우리나라 사람이 언제부터 연지를 썼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의 여인들이 연지 화장을 하였다고 한다. 5~6세기경에 축조되었으리라



연지 | 지름 4 두께 1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추정되는 평안남도 수산리 소재의 고구려 벽화 인물상에도 볼과 입술에 발라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1500~2000년 전쯤부터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 연지 화장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다.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주색축귀朱色逐鬼 속신俗信을 신봉하여 주색금기朱色禁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부가 연지 화장을 하되, 재혼할 때는 볼과 이마에 연지를 바르지 않는 것을 보면 주색금기와 관련 지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젊음의 상징 행위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여성이 가장 젊음이 충만할 때인 14~15세에 이르면 누구든지 저절로 뺨이 홍조를 띤다. 또 힘이 왕성한 남자, 다시 말해 영웅은 입술이 붉다 못해 검붉다고 표현해왔다. 그러므로 연지화장은 젊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처녀나 신부의 연지·곤지는 처녀성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추측된다.

연지를 만드는 재료는 홍화(잇꽃)와 주사朱砂이다. 신라에서는 홍화로 연지를 만들고, 고구려에서는 주사로 만들었다. 주사로 만든 연지는 단지丹脂라고도 부르는데, 홍화연지보다 색깔이 선명한 장점이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면, 단독丹毒의 부작용이 있다. 홍화는 주사연지보다 사용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다. 홍화의 꽃잎을 여러 차례 찧어 홍색소를 분리시켜 만드는데, 환약처럼 만들어두었다가 기름에 개어 발랐다.

특징 및 의의 연지의 색소에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가 있다.

1. 식물성 연지는 홍화로 만든 홍紅을 의미한다. 즉, 홍화의 색소를 잿물로 추출하고 산으로 침전시킨 것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화장 재료인 홍紅에서 유래하였다.

염색
染色

정의 옷감, 실, 한지 등을 염료로 물들이는 일.

역사 옷감이나 실 등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염액의 추출, 침수, 매염처리 등 단계별 작업 과정과 그에 따른 크고 작은 기술이 필요하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 복식에 표현된 색, 천마총 출토 말안장에 붙어 있던 염색된 천 조각, 일본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통일신라 깔개의 색채, 삼국의 복식과 관련한 명칭에 사용한 색명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염색한 옷감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침염뿐 아니라 홀치기 기법으로 문양을 나타내는 기술과 염색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내용 우리나라 염색의 시대적 변천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소매·깃·밑단 부분에 다른 색의 옷감으로 선을 두른 옷을 입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산리水山里 고분벽화에서는 색동치마를, 각저총角抵塚과 무용총舞踊塚에서는 홀치기 기법으로 문양을 나타낸 옷을 입은 모습도 보인다.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된 삼국시대 관련 자료와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오채복五彩服·자대수포紫大袖袍·황삼黃衫·적황고赤黃袴·청금고靑錦袴·자라대紫羅帶 등은 모두 옷에 대한 명칭인데, 제각기 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염색 천으로 만든 옷임을 말해 준다.

백제의 관인官人들은 비의緋衣를 입고 자紫·조皂·적赤·청靑·황黃·백白색의 대를 띠어 계급을 구분하였다. 또 신라는 최대의 군단인 구서당九誓幢과 십정十停의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구서당의 옷깃은 위로부터 녹綠—자紫—백白—비緋—흑黑—벽碧—적赤—청靑색으로 정하고, 십정은 옷깃의 색을 위로부터 청—흑—황—녹색으로 하여 계급을 구분하였다. 이처럼 삼국시대에는 이미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색채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색을 다루는 기술을 가진 염색 장인이 전문적으로 활동하였음을

홍에 염소기름을 섞은 것으로 연燕나라의 홍이 양질이었다고 하여 연지라고 불렀다. 염색에서는 대개 편홍片紅이라고 부른다. 홍화에서 만든 연지는 본래의 연지라는 뜻으로 정연지正臙脂라고도 한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연지를 만드는 법과 염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두어 번째는 처음 보기에는 금빛이 나니 냉수를 치고, 오미자 전국을 부어 막 급히 저어 놓으면 꽃 거품이 일어나 송이지게 엉기어 누른 물은 위로 뜨고, 연지는 엉기어 가라앉거든 얇고 질긴 다듬질한 종이를 광주리 같은 데 놓고, 그릇을 곱게 기울여 웃물을 따르고, 종이 위에 쏟고 광주리 밑에 그릇을 밭여 놓아 두면 맑은 물이 흘러 빠질 것이다. 개오기는 흰 청이 나도록 빼면 이 물도 또 연지가 섞였으니 비단 밑거리를 하여도 좋다. 연지 안친 것이 물이 거의 다 빠진 후 종이를 우구려 노끈으로 다치지 않게 동여 줄에 걸고 그릇을 밭이면 물이 모조리 다 빠지고, 이튿날 아침에 보면 연지만 엉기었을 테니 정한 사그릇에 쏟으면 잇꽃 두 근에 연지가 거의 두 보시기나 되고, 종이에도 변변히 묻지 않으니 그 종이는 빼어 분홍을 들이면 좋다. 연지 덩이를 젖은 김에 되게 물에 개어 불 위에 놓아 따뜻하게 하여 비단 위에 먹이되, 물을 작게 하여 묻히듯이 들여야 한다."

2. 『천공개물天工開物』에는 "옛날에 연지를 만드는 방법에는 자광으로 면을 염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등이고, 여기에 버금가는 것으로는 홍화즙과 산유화즙이 있다."라고 하였다.

3. 중남미 원산의 연지충(학명 Coccus cacti)이라는, 선인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건조한 것으로부터 붉은 색소가 추출되는 코치닐과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생육하는 열대식물에 기생하는 락lac(연지충)의 색소를 추출하고, 이것을 크고 작은 면綿 뭉치에 스며들게 한 다음 건조한 동물성 연지도 있다. 이 동물성 연지는 생연지生臙脂라고 부른다.

참고문헌 미술대사전-용어(한국사전연구사, 1998),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헌,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두피디아(doopedia.co.kr),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알 수 있다. 특히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비해 많은 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식물의 꽃, 잎, 뿌리 등에서 추출한 염액을 이용한 침염 기술이 발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통일신라시대: 834년(흥덕왕 9)에 내려진 복식금제 중에는 색과 관련한 금령도 포함되었다. 즉 진골대등은 자황赭黃을 금하고 6두품은 자황·자자분紫紫粉·금설홍金屑紅을 금하고, 5두품은 자황·자자분·황설홍黃屑紅·비색緋色을 금하고, 4두품 이하 평인은 자황·자자분·황설비黃屑緋·홍멸자紅滅紫색을 금하였다. 삼국시대와는 전혀 다른 색명이고 또 당시 유행했던 색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색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원인은 이전 시대와는 생소한 색명과 색을 내기 위한 염료, 또는 염색된 옷감의 수입 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색명들은 단색염이 아니고 여러 단계 색차를 두고 염색했거나 중염이나 매염제를 써서 다양한 간색을 내는 염색 기술상의 발전을 의미한다. 또 당풍의 유입과 함께 중국의 염색 기술과 정보도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궁중에서의 염색은 염궁染宮·홍전紅典·소방전蘇芳典·찬염전攢染典에서 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볼 때 천마총에서 출토된 말안장에 붙어 있던 홍색과 자색의 천 조각 역시 홍전과 소방전에서 염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한편 일본은 752년 6월 15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일본의 몇몇 귀족과 왕족들이 신라사절을 통해 신라로부터 염료와 안료를 구입했는데 염료는 소방과 자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소방을 구입한 기록은 짧은 기간 동안 12건이나 되며, 1인이 적게는 20근에서 많게는 810근을 구입하였다. 당시 소방은 타이나 미얀마 등에서 생산되어 신라로 유입되었다. 신라는 국내 소비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국과 일본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염료 거래 사실은 대외 무역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 당시 일본은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아마도 이러한 귀한 염료로 염색할 수 있는 염색 장인도 일본에 보내졌다. 또한 일본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된 신라에서 만들어 보낸 색전色氈, 채전彩氈 역시 신라의 염색 문화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고려시대: 고려 방언으로 염染을 '몰체리沒涕里'라고 하는데, 염색 용액을 끓여 옷감을 담가 물들이는 침염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왕에서 백성까지 염색하지 않은 소색素色 그대로의 모시를 선호하여 염색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도경高麗圖經』(1123)에는 왕비나 부인夫人은 홍색을 고상히 여기며 가을과 겨울용 치마에 간혹 황견黃絹을 사용하는데, 어떤 것은 짙고 어떤 것은 엷다고 기록하여 다양한 색보다는 오히려 색의 농담을 살리는 침염이 유행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종 때 도염서都染署를 설치하여 염색과 염료 생산을 담당하는데 영令 한 명, 승丞 두 명, 그 밑에 여섯 명을 두고 주로 붉은색 염색을 담당하였다. 1308년에는 도염서와 잡직서를 합쳐 직염국織染局으로 통합되었다가 1310년 다시 도염서로 개칭했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고려시대 중국 무역에 필요한 어휘를 정리해 놓은 학습서인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는 의외로 색과 관련한 많은 어휘들이 수록되었다. 예를 들어 감차할·곡도숑·관록·백지록·남·남송(연한 송화색)·녹·뉴청柳靑 뉴황硫黃·다갈茶褐·다홍多紅·분홍·은홍銀紅·도홍桃紅·장색醬色·진자眞紫·침향沈香·애갈艾褐·밀갈蜜褐·대홍大紅·도홍桃紅·응배갈鷹背褐·밀갈密褐·백아白魚·사향갈麝香褐·석청石靑·섬황閃黃·소홍小紅·심청深靑·육홍肉紅·아황鵝黃·압두록·앵가록鸚哥綠·야토로·연야토록·엳가은·오烏·유록油綠·은갈銀褐·자紫·장색醬色·적색赤色·주황朱黃·천홍茜紅·형갈荊褐·명황明黃·남황藍黃·천분홍淺粉紅·심분홍深粉紅·매홍梅紅·행황杏黃·천색淺色·운벽雲碧·금홍金紅·홍매화紅梅花·홍紅·황黃 등이다.

한편 서긍徐兢의 『고려도경』을 보면 송나라 사절이 고려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힐막纈幕을 쳤는데 이 힐막은 옛 제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본래 무늬 비단으로 그 빛깔은 황색과 백색이 서로 섞여 있어 화려한 것이 볼 만하다 하였다. 힐막의 무늬 위에는 불꽃무늬[火珠]가 있고, 천막의 사방 끝은 넝쿨문양[寶網]으로 드리웠다. 또 순천관의 조전詔殿과 중국 정사와 부사의 자리, 회경전會慶殿과 건덕전乾德殿에서 공식 회합을 할 때에는 수놓은 천막인 수막繡幕을 드리우는데, 수막의 장식은 오색으로 하며 가로로 꿰매지 않고 한 폭씩 위에서 드리

운다. 드리우는 천에는 원앙새, 날고 있는 난새, 화단花團 등을 수놓았다. 또 고려의 습속에는 장막을 칠 때 10여 폭마다 수놓은 그림[繡圖]을 하나씩 걸어 둔다. 수놓은 그림은 붉은 바탕에 녹색으로 테두리를 둘렀고 오색을 섞어 산, 꽃, 놀고 있는 짐승을 수놓았다. 정교하게 수놓은 천막을 능가하고 여기에는 꽃과 대나무, 새와 짐승, 과일 등의 그림도 있는데 하나같이 살아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염색은 옷감 자체보다는 오히려 특히 많은 동식물을 마치 살아 있는 듯 수놓은 수막과 중국 사절에게 지급되는 수놓은 베개[繡枕], 연회상을 차리고 덮어 놓은 수보자기 등 주로 정교한 수를 놓기 위한 실 염색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색명들은 고려시대의 자수와 색실 염색 기술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또한 『고려도경』에서는 사절을 위한 연회에서 사용한 술의 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고려시대에는 음식재료에 곱게 물들여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을 느끼는 식문화를 누렸음을 알 수 있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다양한 직물 명칭이 보이고 대부분 색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옷의 미적 효과를 높이려고 염색이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과 전세 유물을 보더라도 조선시대 저고리는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겨드랑이 밑·고름·깃·회장·끝동 등에 다른 색 천을 사용하여 아기자기한 구성으로 여성미를 강조하고, 때로는 작은 부위에 강조색을 사용하여 리듬감과 미적 효과를 높인 것이 많다.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역품에 필요한 염색은 상의원에 소속된 청염장靑染匠 열 명과 홍염장紅染匠 열 명, 제용감에 소속된 홍염장 열 명과 청염장 스무 명의 전문 인력이 담당하였다. 한편 지방 관청 소속 외공장外工匠에는 염색과 관련한 공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궁궐 밖에서는 가내수공업 형태나 각 가정에서 염색을 직접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에 오면서 사염 장인의 수가 증가하여 1789년(정조 13)에는 관청에 소속된 염색 장인을 모두 폐지하였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오방 정색正色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였기 때문에 궁궐 밖 반가에서는 오히려 수없이 많은 간색間色을 사용함으로써 가가호호 풍부한 색채 감각과 염색술이 비법처럼 전수되었을 것이다. 한 예로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붉은색 계통의 색명이 수십여 가지에 달하고, 같은 색명이라고 해도 짙은 분홍·중분홍·옅은 분홍 등 색상의 명도와 채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로 인해 간색을 내려고 매염제를 사용하고 염색 견뢰도를 높이기 위한 후처리나 보관법 등도 개발되었다. 이러한 비법들은 『규합총서閨閤叢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탁지준절度支準折』을 비롯한 많은 문헌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염재, 매염재, 염색 방법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통 염색의 맥으로 이어진다.

5. 개항기: 갑신의제개혁과 개항은 전통 염색 기술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19세기 말 서양의 화학 염료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자국의 염색 산업을 부흥하려는 목적으로 화학 염료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오방위의 동쪽을 상징하는 청색은 우리나라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쪽염색을 못하게 저지하고 천연 염색의 낮은 견뢰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내세워 화학 염료 판매망을 넓혀 갔다. 1886년 2월 22일 『한성주보漢城周報』 4호에 실린 세창양행世昌洋行의 광고[告白]을 보면, 수입된 각종 서양 옷감들과 함께 각색 염료를 판매하는 광고가 실려 있다. 또 1892년경 광고에는 쪽염을 대신하는 인디고와 왜청이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며 꼭두서니 염액도 액상으로 추출하여 두 병에 15냥 정도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심지어 1905년 10월 흰옷은 비위생적이며 뒤진 문명의 징표라 하면서 흰옷 대신 검정색이나 색깔 있는 옷을 입으라는 법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한 1907년 6월 27일자 『만세보萬歲報』에 실린 룡표·꽃표·표물감 광고는 "빛도 곱고 들이기 쉬운 물감, 빨아도 빠지지 않고 벗지도 않는 참 좋은 물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삼국시대 이후 우리의 전통적 색 정서가 반영된 전통염색 기술은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화학 염료에 밀려 더는 발전하지 못했다.



염료 | 국립민속박물관



천연염색실 | 제15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작 | 이병찬

6. 1980년대 이후: 서양 옷감과 나일론 보급, 서양 복식 문화 유입으로 전통 소재 및 전통 염색에 대한 보급과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198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천연 염색은 마치 섬유 공예 작품을 위한 염색 수단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외 여러 나라에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우리 전통색, 천염염색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1990년대에는 전통 염색의 산업화와 활성화 그리고 표준화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었다. 천연 염색가 또는 공예가들도 염색 교육 및 전시 등을 통해 일반인도 천연 염색과 전통 염색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역마다 체험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현재 국가에서는 전통 염색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9호 홍염장을 지정하여 현대 사회 속에서 잊혀 가는 전통 염색의 맥을 잇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염색과 관련해 현전하는 기록과 기술 전승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염재 분류뿐 아니라 염색 결과 역시 오방 정색과 오방 간색의 색채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로 정색과 간색을 내는 침염이 발달한 반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염색한 천을 기본으로 그 위에 문양을 내는 문양염이 발달하였다.

전통 염색의 염색 방법, 순서, 염액 추출 등은 다른 나라와 별 차이가 없으나 잿물[灰汁]·명반明礬·철장鐵漿·식초나 오미자·조개껍질·석회石灰 등 매염제는 전통방식을 따르고 있다. 잿물은 예로부터 주로 명아주나 노린재·콩깍지·쪽대·잇대·동백나무·쑥대를 태운 재를 물에 내려 사용하였는데, 특히 명아주 태운 잿물은 잇꽃 염색에 주로 사용하며 노린재나무의 잿물은 주로 자초를 염색할 때 사용한다. 꼭두서니와 소방목으로 붉은색을 염색할 때는 명반을 사용하며 철장은 주로 검은색 계통의 색으로 염색할 때 많이 사용한다. 현미를 발효한 현미초나 오미자초, 매실은 홍색 염색에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오미자초는 홍화 염색에 많이 사용하였다. 또 석회는 쪽을 발효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꼬막 껍질을 주로 사용한다.

염색한 천이나 실을 보관할 때는 발색이나 변색을 막기 위한 풀 먹이기와 다듬이질도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로부터 풀먹이기는 대왕풀·우뭇가사리·발효풀·감자풀을 주로 많이 썼는데, 대왕풀은 일명 백급, 자란紫蘭이라는 난초 뿌리를 물에 불려 불에 얹으면 풀기가 베어 나오는데, 아교를 조금 넣으면 좋다. 『규합총서』에는 특히 쪽으로 염색한 옷감은 대왕풀을 먹이지 않으면 쪽빛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명주를 비롯한 견섬유는 우뭇가사리 풀을 먹여 보관하는데, 오래 두어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쑤는 방법은 우뭇가사리를 물에 불려 약한 불에서 끓인 후 채반 위에 고운 면주머니를 깔고 내린 물을 사용한다. 발효풀은 쌀로 풀을 쒀서 사용하면 변색되기 때문에 반드시 쌀밥을 해서 밥이 상하면 그것으로 풀을 쑤는데 발효풀은 풀 기운이 쌔고 얼룩이 지지 않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감자풀은 예로부터 충청도 지방에서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인데, 감자를 갈아 전분을 가라앉혀 물을 버리고 이것으로 풀을 쑨다. 그 외에도 생토란, 녹말풀, 계란흰자도 사용하는데 특히 계란 흰자는 충분히 거품을 내어 사용하면 광택이 나며 또 아교와 함께 쓰면 염색천이 가죽처럼 뻣뻣하다.

이처럼 풀을 먹여 보관하는 방법 외에도 다듬이질과 홍두깨질을 하면 천의 외관이 마치 코팅한 것처럼 윤기가 나는데, 소음 발생 때문에 요즘은 발효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하여 표면의 광택을 살린다. 오래된 홍화로 염색한 천은 식초 물로 수세하면 다시 선명한 색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염색한 모시 옷감은 감물 들인 종이에 싸서 보관하면 옷감의 손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三國史記, 荷齋日記, 신라수공업사연구(박남수, 성신원, 1995), 자연염색공예(김지희·정관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9), 정창원 소장품과 통일신라(최재석, 일지사, 1995),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홍희유, 지양사, 1989),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적색계 색명의 의미(남윤자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윤양노(尹良老)

염의
袡衣

정의 검은색 옷의 가장자리에 붉은 색 선(훈염纁袡)을 댄, 사대부 집안에서 착용하던 유교식 신부 예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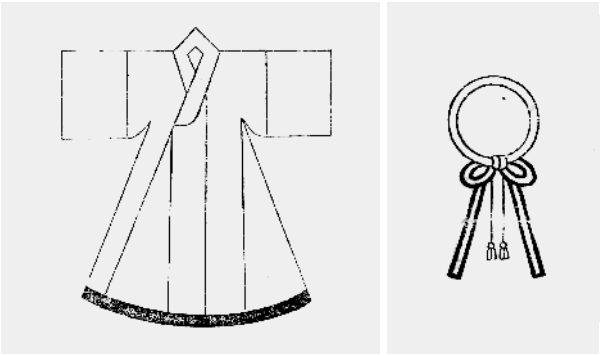
내용 유교 의례에 따르면 혼례에 신랑은 현관玄冠을 쓰고, 현단玄端에 검은 선(치이緇衣)을 두른 옷을 입으며, 신부는 사계纚笄를 하고, 소의宵衣에 붉은 선(훈염纁袡)을 두른 옷을 입는다. 현단이란 선비의 제복祭服이고, 소의는 부인의 제복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의하면 신랑 옷(상裳)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검은색 선을 둘러 이衣라고 하고, 신부 옷(상의上衣)에는 땅을 상징하는 붉은색 선을 둘러 염袡이라고 하여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였다.

여러 의례서를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에게 모두 유교적 의례복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주로 신부 의례복으로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랑은 남자의 관복인 사모와 품대를 갖추지만 여성에게는 적용할만한 관복이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유교 의례에 따르고자 했던 것이다. 염의는 유교적인 의례를 갖추려는 사대부 집안에서 특별하게 착용했을 수 있겠으나 대중적인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전통적인 혼례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예식을 치르는 남귀여가男歸女家 방식인데 유교적 혼인 의례는 신랑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친영례이다. 조선에서는 유교적 혼인 의례를 장려하였으나 전통적인 풍습이 지속되었으므로 왕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친영으로 혼례를 치렀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유교적 혼례복을 착용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염의는 상의와 하상下裳이 붙은 심의형深衣形 옷인 소의에 훈색으로 가선(연緣)을 두른 옷이다. 염이란 의衣 아래, 또는 상 아래에 연을 대는 것인데 훈색纁色(붉은색)으로 가선을 두르는 것은 음기가 옷섶으로 오르는 것을 형상함이다. 보통 때에 부인은 염을 베푼 성대한 옷을 입지 않으나 혼례 때는 이 옷을 입는다. 겉감은 검은색(현색玄色) 비단(능과 기[綾綺]), 안감은 흰색 비단(소사素紗)을 쓰며, 옷의 가장자리에는 훈색(붉은색)으로 선을 댔다. 선의 너비는 5촌 남짓이며, 소의 아랫단에 가로로 선을 두르는데 옷의 아랫단에 원래 연식緣飾이 있더라도 이중으로 선을 두르는 것이 무방하다. 혼례 후 시부모를 뵐 때(구고舅姑), 제사 때 손님을 만날 때는 모두 염을 제거하여 소의로 대신한다.

염의를 여미기 위하여 착용하는 검정색 대帶의 가장자리에는 붉은색으로 선을 둘렀으며, 양쪽으로 고리를 내어 묶고 여러 가지 색실로 짠 조絛를 대의 매듭 위에 다시 묶어 장식하였다.



염의와 대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居家雜服攷, 四禮便覽, 增補四禮便覽.

필자 김소현(金素賢)

오매
烏梅

정의 장미과 식물인 매실나무의 덜 익은 열매를 매연으로 훈증한 약재로 매염제나 색소 응집제로도 쓰인 염료.

내용 매실나무의 매梅는 예전에 매某자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열매가 나무 위에 달려 있는 모양을 뜻한다. 매某는 살구나무 행杏을 반대로 표기한 것인데, 살구류의 나무라는 뜻이다. 또한 매媒라고도 표기하는데, 이는 많은 맛을 합쳐 놓았다는 뜻이다. 국을 끓일 때 소금과 매梅만 있으면 간을 맞출 수 있다고 전해진다. 즉, 아무것이나 모두라는 의미에서 모某의 의미가 있다.

오매는 성질이 따뜻하고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이

시며 독이 없다. 담을 삭이며 구토와 갈증, 이질 등을 멎게 하고 노열勞熱과 골증骨蒸을 치료하며 술독을 풀어 준다. 약리실험에서 면역 증강 작용, 항균 작용, 자궁경부암 억제 작용이 보고되었다. 생김새는 고르지 않은 납작한 구형 또는 덩어리로 바깥 면은 쭈글쭈글한 흑색이나 흑갈색이며 윤기가 없다. 과육 속에 딱딱하고 납작한 타원형의 핵 속에 씨가 들어 있다. 오매는 크고 중과피가 두껍고 고르며 흑색인 것이어야 한다.

특징 및 의의 오매는 홍화 염색에서 색소 응집제로 알려져 있고 매염제로도 쓰였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세자궁의 대홍색 숙근초 한 필을 염색하는 데에 매실 13근, 홍화 17근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전통 속에 살아 숨 쉬는 첨단 과학이야기(윤용현, 교학사, 2012),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헌,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약재감별도감(김창민 외, 아카데미서적, 2014).

필자 소황옥(蘇晃玉)

오미자
五味子

정의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열매로 홍화 염색에서 중화 발색제로 쓰이는 염료.

내용 『규합총서閨閤叢書』에 따르면 오미자五味子는 이른 봄에 심어 8월에 열매를 따니 껍질과 살은 시고 달며 씨는 쓰고 맵고 짜기 때문에 오미자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미자는 한국, 일본, 중국 및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 자생한다. 재배 할 때는 1년에 두 번 심는데 첫 번째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심고 두 번째는 10월 중하순에 심는다. 분홍빛의 황백색 꽃은 5월에 피며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는 특징이 있다. 토질이나 기후가 생장조건에 맞을 때 암꽃이 많이 피며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비료가 많아도 수꽃이 많이 핀다. 전년도에 암꽃이 많이 피었다면 금년도에는 해거리를 한다.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해야 한다.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고 뒷면에는 잔털이 있다. 5월 말경에는 꽃이 지고 푸른색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달리고, 점차 콩알만 하게 커지면서 붉은색으로 익는다. 수확 시기는 9월 10~15일로 대부분 추석 전후에 수확을 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오미자가 너무 익어서 수확하기 어렵다. 손으로 만져서 말랑말랑할 때가 채취 시기이다.

오미자는 갈잎 덩굴나무로서 아주 고지대보다는 해발 300~500*m*대가 재배에 적당하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경북 문경, 충북 단양 등지에서는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이 많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소개될 만큼 약효가 탁월하다. 대부분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시잔드린, 고이신, 사과산, 시트르산 등의 성분이 있다. 오미자 종류로는 제주의 흑오미자, 남오미자가 있다. 약재 사용은 오미자와 거의 같다.

홍화 염색을 할 때 염색할 홍화의 수량에 맞추어 오미자초를 만든다. 홍화 꽃과는 1:1 비율 정도로 하여 날씨, 온도에 따라 염색 전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물에 담가 초를 만든다. 옛 오지독에 초를 담그면 좋다. 먼저 만든 초는 걸러서 새 독에 붓고 남은 오미자에 물을 부어 다시 초를 만들어 염색 직물에 산처리용으로 쓰면 좋다.



오미자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오미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다. 오미자는 홍화염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다. 비교적 높은 산도를 갖고 있으며 신국 초를 만들면 붉은 색소를 품고 있다. 오미자염색은 『천공개물天工開物』이나 『연희식延喜式』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고서 『규합총서』에서 소개하는 우리나라 홍화염색의 독창적인 방법이다. 또, 여름용 모

시에 염색하고 겨물에 담그면 견뢰도堅牢度가 향상되는 특성이 있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東醫寶鑑, 천공개물(송응성, 최주 역, 전통문화사, 1997).

필자 김경열(金炅烈)

오배자
五倍子

정의 붉나무에 기생하는 벌레집으로, 주로 흑색 계열색을 물들일 때 사용하는 염료.

내용 오배자는 옻나무과의 낙엽성 작은 키나무인 붉나무(학명: Rhus chinensis Mill.) 잎 날개에 진드기가 기생하여 만들어진 벌레집(충낭蟲囊)을 건조한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다. '오배자'라는 이름은 벌레집의 크기가 가을이 되면 다섯 배로 커진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이른 가을에 성충이 된 벌레가 벌레집을 뚫고 나기 전에 채취하여 증기에 쪄서 말린 후 벌레를 제거하고 벌레집을 염료로 이용한다.

오배자의 성분은 함량 50~70%의 타닌tannin산, 약간의 몰식자산, 수지, 기름이며, 타닌의 주성분은 펜타갈로일글루코스penta-m-digalloy-β-d-glucose를 함유하고 있다. 오배자는 철매염으로 등서색藤鼠色, 포도색, 자흑색, 흑상색이 되고, 회즙 또는 동매염으로 황다색이 되며, 석매염으로 연살구색이 된다. 문헌에 따르면 오배자 자체로 염색한 기록은 없으나, 검정색[玄色]을 낼 때 바탕에 쪽염색을 한 후 오배자 철매염을 한 기록이 있다.

오배자는 생김새에 따라 귀[耳]처럼 생긴 '이부자', 나뭇가지처럼 생긴 '지부자', 꽃처럼 생긴 '화부자'로 나뉘는데, 염색에는 껍질이 두꺼운 이부자가 좋다. 이른 가을에 벌레가 나가기 전에 따서 찐 오배자로 염색을 하면 금황색이나 밝은 밤색으로도 발색이 되지만 건재약방에서 구입한 것은 매염제에 의한 색상 변화는 거의 없으며 회흑색이 된다. 건재약방에서 수입 약재를 구입하면 벌레 똥이나 이물질이 많아 삶으면 걸쭉해지고 색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오배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배자


오배자로 염색한 양모

오배자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오배자로 염색한 천은 땀에 의한 변색이 심하므로 여름철 의복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오배자로 염색한 후, 철매염을 하면 보라빛이 도는 회보라색이나 흑색의 염색물을 얻을 수 있다.

민간에서 오배자는 입병, 중이염, 설사 치료에 많이 쓰였고, 옛날부터 염료로도 널리 사용됐다. 중세 일본에서는 결혼한 여자들이 아침마다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때 철장과 함께 오배자의 분말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색다른 색이야기(조미숙, 이매진, 2007), 전통염색공예(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필자 조미숙(曺美淑)

옥대
玉帶

정의 왕과 왕비, 왕세자가 두르던 옥으로 장식한 허리띠.

역사 옥대玉帶는 신라시대부터 제도화된 각대가 발달하면서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왕, 왕비, 왕세자가 착용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1429년(세종 11) 중국 사신이 도금한 벽옥대碧玉帶를 바쳤으며, 이듬해 중국에서 세자 조복의 옥대玉帶를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다. 1648년(인조 26)에는 원손의 옥대가 세자의 옥대와 구별이 없음은 맞지 않으므로, 수정대를 쓰도록 하였다. 1751년(영조 27)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는 "왕의 옥대는 아로새긴 옥[雕玉]


영친왕 옥대 | 근대


영친왕비 옥대 | 근대


고종황제 어진 중 부분

옥대 | 국립고궁박물관

으로 만들고 대홍단大紅緞으로 감싼 후 금으로 긋는다."라고 하였으며, "왕세자의 옥대는 조각하지 않은 옥으로 만들고 흑단黑緞으로 감싼 후 금으로 긋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왕비의 대는 옥을 조각하여 만들어 안은 청단으로 싸고 금으로 봉황을 그린다고 하였으며, 왕세자빈의 대는 그와 같으나 조각하지 않은 옥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상방정례尙方定例』에 "중궁전은 화옥대和玉帶, 세자빈궁은 조각이 없는 독옥대禿玉帶"라고 기록되어 있다. 왕세손은 원손元孫의 옥대가 세자의 옥대와 구별이 없어 맞지 않다는 이유로 1648년(인조 26) 수정대水晶帶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1898년(광무 2) 『예복禮服』에 기록된 왕의 면복용 옥대는 현존하는 영친왕 옥대의 형태와 거의 일치한다.

내용 옥대는 가죽, 나무, 종이 등의 띠 바탕을 비단으로 싸서 만든다. 대를 감싸는 비단은 지위에 따라 왕은 홍단, 왕세자는 흑단, 왕비와 왕세손은 청단을 사용하는데, 그 위에 5선의 금줄로 장식하였으며, 대의 안쪽 뒷허리 둘레에는 다른 색의 비단을 대었다. 대는 금속판을 서로 끼워서 만든 날름쇠로 열고 닫았다. 대에 부착하는 장식옥판을 띠돈이라 하는데, 중앙의 날름쇠를 가리는 직사각형 세 개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부착하였다. 그 종류는 앞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좌우로 각각 복숭아형 세 개, 직사각형 한 개, 좁다가 넓어지는 형의 띠돈 한 개씩이다. 띠돈 사이에는 묶음쇠와 꽃모양 금속판이 위치하며, 뒷허리 쪽에는 일곱 개의 직사각형판을 배열하였다.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도설이나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춘관통고春官通考』에서 보이는 왕의 면복 혁대는 둥근 형태이나 지금의 유물은 사각형인데, 18세기 이후 국속화로 그 형태가 바뀐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 옥대와 왕비, 왕세손 옥대를 살펴보면, 왕의 옥대는 용문양을 투각한 띠돈을 사용하였고, 왕비와 왕세자의 것은 조각하지 않은 옥을 사용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옥대는 나무틀 띠를 홍단으로 감싸고 백옥판을 달았으며, 안쪽 뒷부분은 황색단을 대었다.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옥대는 겉은 흑색, 안쪽 뒤는 비취색단으로 대를 싸고 옥판을 달았다. 조선왕실 어진과 대한제국 황실 가족사진에서 왕이 착용한 옥대를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옥은 주로 중국에서 하사품으로 내려지던 매우 귀한 물건이어서 사사로이 개인이 중국에서 사오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영조실록英祖實錄』에는 임금이 선대에 보수하여 따로 간직하였던 옥대에 관하여 듣고는 옥대명玉帶銘을 친히 지어서 내렸으며, 이것을 쓰는 신하 또한 특별히 골라 결정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옥대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고궁박물관 복원복제 제작기술서6-규, 대대, 옥대(국립고궁박물관, 2012), 조선시대 품대에 관한 연구(도보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이은주, 복식61-10, 한국복식학회, 2011), 조선조왕실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07),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김선영(金宣伶)

옥사
玉紗

정의 쌍고치실로 직조하여 직물 표면에 슬러브slub가 보이는 평견직물.

내용 옥사玉絲는 원래 두 마리 이상의 누에가 한 개의

고치 안에 들어 있는 저급의 고치에서 뽑아낸 견사를 의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옥사는 실의 굵기가 불규칙하고 '슬러브slub'라고 부르는 매듭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쌍고치사는 주로 중·하견을 혼합하여 실켜기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실켜기는 좌조기座繰機로 60중, 110중, 225중 굵기의 실을 만들기 때문에 실이 굵고 불규칙하다. 원래 천연 옥사는 중국 산둥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므로 이러한 옥사로 제직한 평견직물을 '산둥 실크'라고 불렀다.

불규칙한 슬러브로 인하여 오히려 자연스러운 멋을 보여 주는 산둥 실크는 한국 시장에서 매우 선호되었으나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현대 한복용 옷감 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느낌의 평견직물을 제직하여 '옥사'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여 왔다. 이 옷감은 천연의 쌍고치에서 뽑은 견사를 구입하기 어려우므로 인공적으로 천연 쌍고치 옥사와 같은 느낌의 견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옥사는 현재 폭 15인치, 폭 22인치, 밀도 64g/㎡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신성주단·동명주단 등 한복 옷감을 판매하는 상회에서 대부분 취급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옥사는 불규칙한 실의 굵기 때문에 광택이 적고 직물 표면이 거칠다. 자연스럽고 거친 멋 때문에 한복용 옷감 이외에 서양 의복용, 실내 인테리어용 직물로도 많이 사용된다. 현재 유통되는 상품 명칭으로는 옥견사·옥명주·옥사 등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늬가 있는 종류로는 모란당초 옥사·매화견옥사(옥견사) 등이 있다. 한 바디 구멍에 경사 2올을 끼워 평직으로 제직(2올의 경사와 1올의 위사가 상하 교대로 교차)하였다.

또한 '갈포옥사'라 하여 옥사의 특징인 가로 방향의 불규칙한 실매듭인 슬럽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옥사보다는 광택이 있고 빳빳한 느낌이 있는 직물이 있다. 현재 폭 22인치, 밀도 54g/㎡로 생산되고 있다.



옥사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우리 옷감 이야기 103(강순제 외, 교문사, 2012), 농업용어사전(nongsaro.go.kr).

필자 조효숙(趙孝淑)

옥양목
玉洋木

정의 평직으로 직조한 흰색의 면직물.

내용 옥양목은 방적사를 원료로 하여 역직기力織機로 직조한 무명의 일종이다. 표면이 옥처럼 곱고 하얀 서양무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서양목西洋木이라고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영국 제품이 전래되어 사용되었는데 재래 무명보다 얇고 하얀 특징으로 널리 애용되던 직물이다. 옥양목은 바지·저고리, 조끼, 두루마기, 고의, 적삼 등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궁중 문서인 「뎡ᄉᆞ뎡됴옹쥬아기시의복ᄇᆞᆯ긔」(1917), 「옹쥬아기시싱신의복ᄇᆞᆯ긔」(1918)에는 속바지, 겹바지 등의 속옷의 물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12년과 1915년에 순종 탄신일의 진헌 물품에 옥양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 왕실에서도 옥양목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통 방식에 의해 수방사로 만든 재래무명이 옥양목에 비해 더 두껍고 튼튼하여 내구력이 강하므로 재래무명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았다. 옥양목 가운데 품질이 낮은 것을 '옥당목'이라고 한다. 20세기 초에 옥양목과 함께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던 직물 가운데 광목이 있다. 광목은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하층민의 수요가 많았는데 옥양목은 주로 도시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1915년에 8년간 조선에서 수집했던 직물의 품종을 분류하여 정리한 「조선향염직물명칭유휘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에는 옥양목을 캘리코calico라고 명시하고 있다. 캘리코는 17세기에 인도에서 수입한 가벼운 평직의 무명으로 인도에서 직물염색을 하던 지역인 캘리컷



영친왕비 옥양목 적삼 | 길이 40.3 화장 6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Calicut, Calcutta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영국에서는 표백하거나 표백하지 않은 평직으로 직조한 흰색 무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옥양목은 방적사로 직조한 무명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고우며 색상이 매우 흰 것이 특징이다. 개화기 이후에 도입된 직물로 흰색을 좋아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에 맞아 다용도로 애용되었다.

참고문헌 붙긔, 조선면업사(조선면사포상연합회, 1929), Fairchild's Dictionary of Textiles (P. G. Tortora·R. S. Merkel, Fairchild Publications, 2003).

필자 박윤미(朴允美)

와이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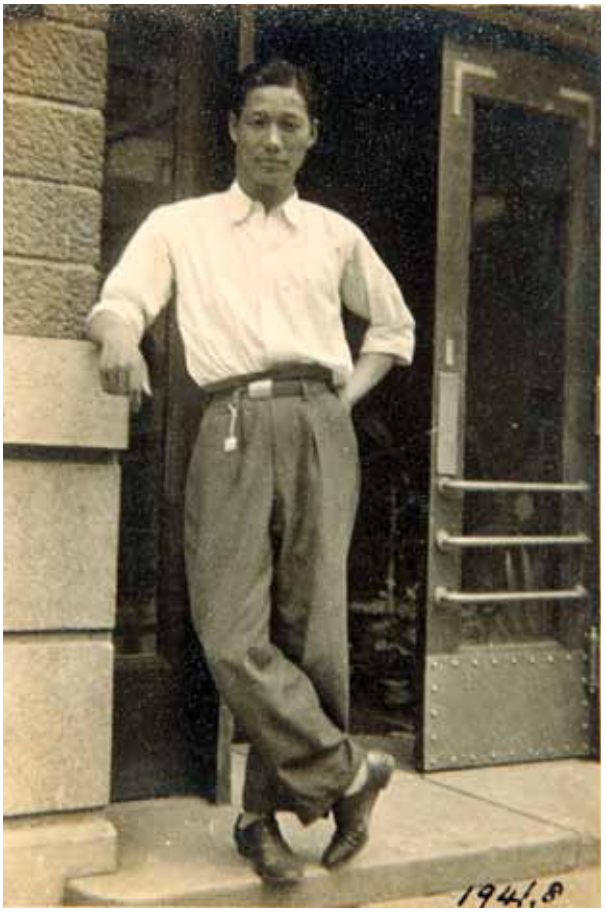
정의 재킷과 내의 중간에 넥타이를 곁들여 입는 남성용 서양식 상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1890년대 중반부터 전통복식의 근대화 과정에서 개화파 인물들을 중심으로 처음 양복을 입을 때 와이셔츠가 들어왔다. 특히 1900년에 문관복장규칙이 발표됨으로써 드레스셔츠는 대례복·소례복·통상복을 착용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복식 아이템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간에도 양복이 보급되어 1910년대 남자의 혼례복에도 모닝코트morning coat라 불렸던 턱시도 칼라의 연미복과 함께 칼라를 꺾어 내린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전해진다. 1920년대에는 양복이 확산된 시기로 외국에서 공부했던 유학생들, 일명 모던보이와 모던걸을 중심으로 양복이 성행하였다. 다소 사치스러운 양상을 보였으며, 착장의 엄격성을 보였다. 그래서 이때 와이셔츠 또한 예복용과 슈트용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형태의 와이셔츠가 면이나 실크 소재로 만들어져 착용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양복 착용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1930년대 후반 들어 경기침체와 전쟁을 거치면서 양복업계는 쇠퇴하였다. 특히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유사시에는 있는 그대로 전사戰士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1940년대 중반까지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양복이 쇠퇴해 와이셔츠 대신 국민복을 착용하였다.

내용 와이셔츠는 영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로 화이트셔츠가 일본 사람의 발음에 따라 변형된 것을 그대로 쓰다가 와이셔츠로 굳어졌다. 셔츠의 깃과 소맷부리는 재킷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큰 목적이므로 상의보다 다



와이셔츠 | 1941 | 이해주

소 길게 1㎝ 정도 나와 있는 것이 정석이다.

와이셔츠는 내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날의 와이셔츠, 드레스셔츠의 어원은 셔츠에서 파생하였다. 셔츠shirt는 고대 영어로 스키르트scyrte라고 불렸는데 그 어원은 스칸디나비아어인 스키르타skyrta라고 전해진다. 어원지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초기의 셔츠는 보온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스키르트는 대체로 1000년경부터 사용되었고, 1530년경부터 셔츠가 되었다. 그러므로 셔츠는 본래 보온용의 짧은 옷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6세기경부터는 장식을 많이 한 겉옷에 따라 셔츠도 화려해져 프릴이나 러플을 달아 착용하였다. 그 후 프랑스혁명이 의복에 큰 변화를 가져와 19세기경부터 오늘날의 와이셔츠 모양이 형성되었다.

와이셔츠는 원래 예장용 셔츠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넥타이를 매는 셔츠 전체를 가리킨다. 셔츠 칼라, 커프스, 앞 버튼 여밈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색부터 각종 색상을 가진 컬러셔츠, 무늬가 들어간 패턴셔츠 등 와이셔츠 원단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비즈니스셔츠business shirt, 세미셔츠semi shirt 또는 타운셔츠town shirt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징 및 의의 와이셔츠는 남자 정장 슈트 밑에 입는 셔츠를 총칭하는 것으로, 밴드가 달린 칼라와 단추가 달린 앞단으로 처리되어 넥타이를 곁들이는 정통 정장 슈트에 받쳐 입는 셔츠이다.

과거에는 셔츠가 상반신을 덮는 속옷의 개념으로 지금처럼 속옷이 발명되기 전에 피부에 직접 착용되어 더러워지기 쉬웠다. 겉옷 안에 입는 속옷으로서 셔츠가 팬티panty의 기능까지 하였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셔츠의 밑단 부분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과거 셔츠의 밑단 형태는 앞판의 밑단 끝에 버튼이 붙어 있고, 뒤판 밑단 끝부분에는 버튼홀button hole이 있어 잠글 수 있게 한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예전에는 반드시 겉옷의 안에 보이지 않도록 입었던 것이 점차 밖으로 노출되었다. 색깔 있는 셔츠가 등장하면서 현재는 겉옷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남성들의 신사복이나 예복 차림에서 빠뜨릴 수 없는 품목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의상의 한 가지로 인식되었다.

참고문헌 드레스 셔츠의 소비자 실태와 치수규격 연구(임혜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성인 남성의 드레스 셔츠 소비자 실태조사1(임혜원·손희순, 패션비즈니스4-4,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4, 2000),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6), 컬렉션 트렌드에 따른 드레스셔츠 디자인 제안(석은경,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양복100년사(김진식, 미리내, 1990).

필자 이경미(李京美)

왜사
倭紗

정의 견직물로 얇고 고운 사紗의 일종.

내용 왜사倭紗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평직의 얇은 생견직물이다. 일본의 후쿠이福井와 이시카와石川 일대에서 생산되던 직물이 수입되었는데 경위사에 모두 생사를 써서 제직한 직물이다. 한 폭의 길이는 25야드이며 포폭은 15인치였다.

「조선향염직물명칭유휘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에는 왜사에 대해 사호견絲好絹, 고기견高崎絹과 같이 실이 가늘고 직물의 두께가 얇은 평직의 생견生絹으로 주紬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워 수요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사는 가볍고 고와서 주로 여름용 옷감으로 사용했다. 1894년에 수입된 직물 가운데 서양사는 1자에 2냥 1전이며 왜사는 3냥 5전으로 수입 사직물 중에서 값이 싼 직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1927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여름에 유행하던 옷감으로 진주사眞珠紗, 생고사生庫紗, 라왜사羅倭紗, 왜사倭紗, 당항라唐亢羅, 생삼팔生三八, 모시 등이 있는데 2~3년 전에 비해 값이 싸져서 수요가 많다고 하였다. 당시 왜사는 진주사와 순인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다. 그러므로 왜사는 특히 하절기의 옷감으로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속옷과 겉옷, 그리고 안감 등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왜사는 일본에서 들여온 직물이며, 가는 생사로 짠 견직물로 얇고 가벼워서 하절기용 옷감으로 애용되었다. 여름철 옷감으로 주로 사용된 사직물 가운데 당항라나 진주사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수요가 많았다.

참고문헌 荷齋日記, 內地に於ける鮮人向絹織物の生産に就て(稅田谷五郎, 朝鮮127, 朝鮮總督府, 1925),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吉永彦太郎,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5), 녀름과 의복감(동아일보, 1927. 6. 24).

필자 박윤미(朴允美)

왜증
倭繒

정의 얇고 광택이 있는 견직물.

내용 왜증倭繒은 일본에서 생산되던 평직의 견직물이다. 「조선향염직물명칭유휘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에 의하면 왜증은 갑증甲繒을 말하는 것으로 갑증은 일본에서 생산된 갑비견이라고 해서 왜증과 갑증, 갑비견은 모두 동일 직물라고 설명하고 있다. 갑비견은 일본의 경장연간慶長年間(1596~1615) 이전에 네덜란드인이 싣고 왔던 견직물로 1661~1673년에 현재의 야마나시현山梨縣에 위치했던 갑비국甲斐國의 지방에서 모방하여 만든 직물에서 유래되었다. 왜증은 얇으며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조선으로 수출하는 것은 무늬가 없는 하늘색·분홍색·홍색·청색·황색·남색·백색·자주색 등이었다. 조선에서의 수요가 꾸준하자 야마나시현의 일본인이 일부 경성으로 이주하여 왜증을 판매하는 상점을 개업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불긔」에는 '왜승'또는 '왜징'이라는 명칭으로 분홍색의 핫천의와 초록색의 핫금에 사용된 기록이 있다. 1900년대 초에는 무명실로 유사하게 직조한 목왜증木倭繒이 생산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왜증은 얇고 표면에 광택이 있는 아름다운 견직물로 일본에서 수입하던 옷감이다. 주로 무늬가 없는 것으로 안감과 겉감에 모두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用織物の研究 第2券 絹物(東京織物研究會, 1930), 染織事典(中江克己, 泰流社, 1996),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吉永彦太郎,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5), 製織會社(황성신문, 1901. 2. 10).

필자 박윤미(朴允美)

외투
外套

정의 겉옷 위에 덧입는 상의.

내용 외투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추위를 막기 위하여 겉옷 위에 입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현재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또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 겉옷 위에 덧입을 때도 많다.

근대 기록에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덧입는 옷은 두루마기 또는 주의周衣로 표기한 반면, 덧입는 서양식 옷은 외투라고 적었다. 근대 복식 중 외투와 관련된 표기로 外套·오바·오바코트·오-바·오바-·오-바-·레인코-트·바바리·만또·만도·망도·케-프·케푸·모잉구·모-닌구 후록 ᄉᆞᆺ토·후로코트·合오-버·春오-바-·스프링오바·스프링고-트·オ-バ, トンビ·冬オ-バ-·冬トンビ·ジャムパ-·コ-ト·マ 서양 외투 도입 초기에는 한자로 쓰고, 그 후에 한글로 쓰다가 1930년에 일본어로 쓴 것이 늘어났다. 광복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되었다.

남성용 외투는 주로 코트coat를 의미하는데, 코트는 '오바코-트'·'오바オ-バ-'·'레인코-트'·'치에스타필드chesterfield' 또는 '락구란raglan'이라고도 표기되었다. 근


◇東亞漫畵 投稿歡迎 薄劇騎星

流行의 몃가지

女子의 치마ᄭᅳᆯ은것이 流行하는 한便으로 하이카라靑年들사이에는 덧거고리가튼 짧은外套가 流行한다 이것은 原名이 「맥긴타ᄋᆞ」리고한다 긴外套를典當局에 「맥긴타시」인지는 알수업스나 이옷은 예ᄭᅦ업시 작란軍이가입는옷이다

유행의 몇가지 중 짧은 외투 | 1924. 3. 10 | 동아일보



모닝코트 | 길이 85 품 48 화장 68 | 194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대에 소개된 코트는 인버네스·체스터필드코트·라글란·레인코트·망토 등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봄·가을·겨울용으로 착용되었다. 과거 신문에는 오바코트를 남녀 복식 모두에 해당하는 겨울에 입는 외투로 정의하였다.

외투는 양복 위에 착용하기도 하였고, 한복 위에 착용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외투가 등장하였고,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남성용 외투는 칼라·라펠·여밈 등에 따라 디자인에 변화가 있었다. 모닝코트는 체면을 유지해 주는 외투였고, 두루마기 위에 '잉바네스'를 덧입을 정도로 서양식 코트는 자랑할 만하였다. 외투의 길이에 변화는 있었지만, 대개 길이가 길었고 1920년대 중반에 길이가 매우 짧은 외투가 착용되기도 하였다. 남성용 외투는 영국식이 신사답고 멋있는 것으로 주로 소개되었고, 옷감도 영국에서 수입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겼다. 옷감의 원산지는 영국·일본·독일 등이었다.

1932년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방수 망토가 판매되기도 하였고, 그 후 1938년에 '해군방수포외투'를 판매하는 광고가 있었다. 전시체제 이후로는 절약을 강조한 차림이 권장되었다. 군복과 비슷한 복장이 착용된 것을 보면 외투도 역시 전시상황을 반영하였다.

여성 외투는 1920년대 이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1921년에는 길이가 발목까지 오다가 점차 짧아졌으며 칼라 모양도 다양하고 실루엣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1930년대에는 여우털 목도리가 유행하여 코트 칼라에 털을 댄 것이 유행하였다. 1920년대에 케이프를 입기 시작하여 널리 유행하였는데, 1930년대에도 계속 입혀졌다. 한복을 입던 여성들은 한복을 갖추어 입다가 점차 서양식 외투로 바꿔 착용하였는데, 1930년대에도 여성들은 서양식 외투를 한복 위에 착용하기도 하였다.

외투는 기성복(레듸-메-드, 레듸메-드, 긔성복), 맞춤복 등이 있었는데, 소재에 따라 가격이 달랐고 1930년대 기록으로 보아 여성이 집에서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소재와 제작 방법에 따라 외투의 가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투는 비싼 옷이어서 외투 절도 기사가 종종 등장했다.

외투의 소재는 1900년대에 나사羅紗, 모직毛織 등으로 표기되었고, 그 후 다양한 소재 명칭이 언급되었다. 면, 모 섬유로 제작되었는데 영국제 사-지, 영국제 락타-, 영국제 쓰곳치, 워스텐드, 싹소니-, 독일제 매루돈융絨이 있다. 1938년 이후로는 '스테불·파이버'를 혼용해야만 했다.

여성 외투에 대한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지역도 있었다. 1930년대 대구에서는 "부녀자의 출입옷으로 천의라는 것을 쓴다. 1년 중 늦은 봄과 여름철을 제하고는 언제나 이 천의를 안 쓰면 출입 못할 줄로 되어 있다. 만또나 외투로 행세하든 기생들까지도 한번 살림살이에 들어앉게 되면 천의 쓰기로 변하는 만큼 천의는 대구에서 볼 수 있는 부녀자의 유일한 출입옷"이었다고 한다. 대구에서 착용된 이 천의는 보통 치마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길이를 길게 하여 머리부터 덮어써서 남자의 두루마기처럼 정강이 아래로 내려오게 하여 입었다. 1930년대 일반적인 외투 착용과도 다른 일이었고, 천의라는 복식 명칭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천의와는 다른 길이가 긴 쓰개치마와 비슷한 옷이었다.

특징 및 의의 외투는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복식 중 한 품목이다. 개항 초기에는 주로 관리의 예복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 일반인의 복식으로는 각종 외투가 등장하였다. 서양식 외투는 한복보다 새로운 것, 비싼 것,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1920년대 이후 양복 착용 증가와 더불어 널리 착용되었다. 서양식 외투는 양복과 함께 착용되거나 한복과 함께 착용되기도 하였는데, 현재는 매우 다양하게 착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부녀자천의(동아일보, 1934. 1. 1), 시국을 반영한 이봄의 유행양복(매일신보, 1939. 2. 15), 올의 레인코트는 바바리가 유행(조선중앙일보, 1936. 4. 12).

필자 남경미(南瓊美)

요질
腰絰

정의 교대絞帶 위에 겹쳐서 허리에 두르는 띠.

내용 요질腰絰은 대대大帶를 본떠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양 끝을 묶어 두 끝을 길게 아래로 드리운 형태이다. 요질 아래에는 교대絞帶 즉 효대絞帶를 두르는데, 교대는 혁대革帶를 본뜬 것으로 한 끝에 구자鞮子(고리)가 있어서 다른 한쪽 끝을 구자 가운데로 꿰어서 묶는 형태이다. 『국조오례의례國朝五禮儀例』,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변통고常變通攷』에 따르면 요질의 소재와 형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참최의 요질腰絰은 저마苴麻(씨 있는 삼)로 만들고, 둘레는 7촌寸 남짓이다. 두 가닥을 서로 꼬아 양쪽 끝을 묶어 각기 삼의 밑동[麻本]을 남겨서 3척의 산수散垂(흩어 드리우는 모양)를 만들고, 서로 묶은 곳의 양쪽 곁에는 각기 가는 줄[繩]을 매어 연결한다. 재최의 요질은 시마枲麻(씨 없는 삼)으로 만드는데, 둘레가 5촌 남짓이며,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따르면 재최 이하는 베[布]를 매어 연결한다고 한다. 장기杖朞·부장기不杖朞·오월복五月服·삼월복三月服도 모두 같다. 대공大功의 요질은 둘레가 4촌 남짓이고, 소공小功의 요질은 3촌 남짓으로 재료는 재최와 같다. 시마緦麻의 요질은 숙마熟麻(누인 삼베)로 만들며, 둘레는 2촌 남짓이다.

또한 참최의 교대는 삼줄[苴麻繩](씨있는 삼줄) 한 가닥을 사용하며 크기는 요질의 반이다. 가운데를 접어 두 가닥을 각기 한 자 정도로 만들어 합하면 크기가 질絰과 같은데 허리를 둘러 왼편에서 뒤를 지나 앞에 와서 그 오른쪽 끝을 두 가닥 사이에 넣고 뒤집어 오른쪽에 꽂아서 질絰 아래로 둔다. 재최 이하의 교대는 포布(베)로 만들며, 너비가 4촌정도 되는 포布를 써서 겹쳐 꿰매어 2촌을 만들고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는 차례로 점점 좁게 하되, 모두 그 오른쪽 끝 한자 남짓을 접어서 실로 꿰매어 고리를 만든다. 포布의 승升은 각각 그 관과 같게 한다.

특징 및 의의 오복五服의 요질要絰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참최는 저마苴麻, 재최 이하는 무마牡麻, 소공·시마는 조마澡麻를 사용하며 이는 수질首絰의 제도와 동일하다. 그리고 질絰의 크기에 모두 차등이 있다. 남자는 산수를 했으나 그 꾸밈에 변화가 있다. 소렴의 요질은 삼을 흩어 드리웠다가 사흘 만에 성복成服할 때 꼰다. 소공小功 이하 및 50세 이상인 사람과 부인은 산수를 하지 않았다. 이는 50세 이상인 사람은 신체가 쇠약해져서 거상居喪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남긴 신체를 손상치 않으려는 효심에서였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序例, 四禮便覽, 喪禮備要, 常變通攷, 增補四禮便覽,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조우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필자 조우현(趙又玄)



요질 | 길이 126 | 국립민속박물관

용무늬

정의 전설상의 동물인 용을 소재로 도안한 무늬.

내용 용은 벽사와 수호의 능력을 갖춘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 왕실에서는 위엄과 권위의 상징으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영험한 동물로 인식되었다. 용의 모습에 대해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호랑이를 닮았다."라고 하여 용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으나 인간이 보아 왔던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조합하여 형상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속에서는 형태와 능력에 따라 아홉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비늘이 있는 교룡蛟龍, 날개가 있는 응룡應龍, 뿔이 있는 규룡虯龍, 뿔이 없는 이룡螭龍, 승천하지 못한 반룡蟠龍, 물을 좋아하는 청룡靑龍, 불을 좋아하는 화룡火龍, 울기 좋아하는 명룡鳴龍, 싸우기 좋아하는 용을 석룡蜥龍이라고 하였다. 이들 중 규룡을 여러 용들의 우두머리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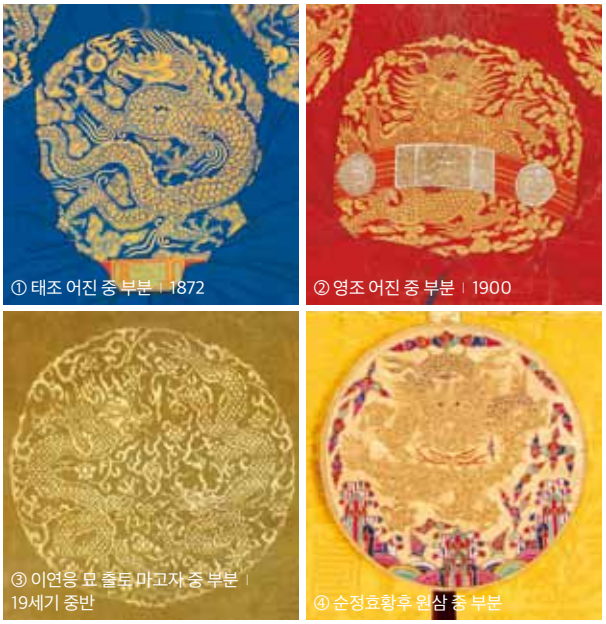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고구려 고분의 널방에 그려진 청룡과 황룡이다. 청룡은 동쪽의 수호신으로서 천장 동쪽에, 황룡은 중앙의 수호신으로서 천장 중앙에 배치되었다. 청룡은 큰 입과 긴 혀, 둥근 눈을 하고, 그 머리 위에는 두 개의 긴 뿔, 뭉뚝한 발끝에는 세 개의 발톱이 돋아 있다. 마름모 형태의 비늘이 가득한 용의 몸통은 얇은 목선을 따라 굵은 몸이 이어지고, 꼬리 부분은 점차 얇아져 앞을 향해 걷는 듯 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황룡은 중앙에 똬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용무늬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와·청동거울·청자·석관石棺 등에 장식무늬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장식할 대상의 형태에 따라 길게 또는 둥글게 말린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걷거나 뛰는 것 같은 옆모습으로도 묘사되었다. 고대 직물 중에는 용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려 말에 만들어진 불상 내부에서 불복장 직물이 발견되어 당시의 용무늬를 확인할 수 있다. 불복장 직물에서 용무늬는 도안의 규모가 작고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모두 측면의 자세로 작고 간략하게 표현되어 전체적인 형태가 불분명하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대의 용무늬와 관련하여 서울과 지방의 민서民庶들은 의복과 기물에 용봉무늬를 넣지 못하게 금지하는 대목이 있다. 이는 용봉무늬가 특별한 신분에게만 허용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용봉이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풀이되어 고려 말에 발견된 용무늬 직물과의 연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청룡 | 약수리 고분 | 고구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인천 석남동 출토 장옷에 용무늬가 있으나, 그 형태는 고려 말 직물 조각에 나타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로 발견된 용무늬 복식 자료로는 17세기 전반 유물부터 확인되며, 상류층의 의복에서 볼 수 있는 용무늬와 왕실의 상징성으로 표현된 화려한 장식의 용무늬로 구분된다. 상류층의 의복에 나타난 용무늬로는 윤선언尹善言(1580~1628) 묘에서 출토된 철릭의 고름바대에 원형의 용무늬가 있다. 안동 권씨(1664~1722) 묘에서 출토된 지요 역시 지름 4.8㎝의 원형으로 묘사된 용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안동 권씨 묘에서 출토된 용무늬는 튀어나온 입과 둥근 눈, 두 개의 뿔, 몸의 비늘과 발끝에 표현된 다섯 개의 발톱 등 17세기의 유물에 비하여 비교적 세밀하다. 큰 원형으로 도안한 용무늬는 18세기 중반 유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연응李沇應(1818~1879) 묘에서 출토된 마고자에서 용 두 마리가 지름 20㎝ 가량의 큰 원형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용무늬는 소재와 직물 조직에 따라 용문갑사·용단·별문영초라 부르며 개화기까지도 왕실과 상류층 복식에서 자주 확인된다.

왕실의 위엄과 존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용무늬로 곤룡포에 장식된 용보龍補가 있다. 용보는 가슴(흉胸)·등(배背)·어깨(견화肩花)에 장식하는 둥근 형태의 용무늬 장식을 말한다. 왕의 복식에 용보를 달기 시작한 것은 1444년(세종 26) 명나라에서 상복常服으로 곤룡포 세 건을 사여 받으면서였으며, 이는 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은 어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조 어진의 용보는 금실을 넣어 직조하였으며, 용에는 두 개의 뿔, 꽉 다문 길쭉한 입, 턱 밑의 수염 머리 뒤에 있는 다섯 가닥의 갈기가 있었다. 몸은 조개 모양의 비



용보 | ① 어진박물관, ② 국립고궁박물관, ③ 경기도박물관, ④ 세종대학교박물관

늘로 덮인 채 S자에서 C자로 굽었으며, 네 개의 발끝에는 각을 세운 다섯 개의 발톱이 있다. 영조 어진에서 보이는 조선 후기의 용보는 금실로 수를 놓은 자수 용보였으며, 용이 태조 어진의 용과는 자세와 모습이 다르다. 태조 어진의 용이 측면형으로 머리보다 몸에 비중을 두었다면, 영조 어진은 정면형으로 머리에 비중을 두었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 정면을 향해 돌진하려는 자세를 취해 보다 위협적으로 표현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개의 뿔, 좌우로 휘날리는 갈기와 수염, 입·코·눈과 눈썹·이마의 주름까지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 태조 어진에 비하여 용의 몸이 커지고 긴 몸을 말아 머리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몸에는 조개 모양의 비늘이 가득 덮혀 있고, 발끝에 각을 세운 다섯 개의 발톱이 있다. 철종 어진의 용보는 군복에 부착한 모습이다. 화재로 인하여 반 정도가 불에 타 정확한 형태 파악이 어려우나,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 군복용 흉배 도안을 통하여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철종이 입은 조끼형 옷인 전복은 구성상 앞 중심이 좌우로 나뉘기 때문에 용보 또한 반으로 나뉘어 여의주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놓여 있으며, 곤룡포의 용보와 달리 측면형에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고종의 곤룡포는 조선 말기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오른 황제의 지위에 걸맞게 황룡포이며 그 위에 황색 용보를 부착하였다. 영조 어진의 용과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의주와 해에는 색사를 넣어 자수하였고, 가장자리는 꽃처럼 곡선이며 규모는 한결 작아졌다.

1751년(영조 27)에 편찬한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서는 왕은 오조원룡보, 왕세자는 사조원룡보, 왕세손은 삼조방룡보를 사용하게 하여, 왕과 왕세자는 원형, 왕세손은 사각형의 보를 사용하고 지위에 따라 용의 발톱 수에 오조, 사조, 삼조로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왕비·왕세자빈·왕세손빈의 용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 전까지 왕실 여성 복식에 주로 봉황무늬가 사용되었다면, 이때 이후로는 적통 왕실 여성의 예복에는 원형의 용보를, 그 외 왕실 여성의 예복에는 사각형의 봉흉배가 사용되었다. 실물로 남아 있는 왕실 여성의 용보는 순정효황후와 영친왕비 적의·원삼·당의에 부착한 것이다. 왕의 보와는 형태상 큰 차이가 없으나 왕실 여성의 용보에는 금사만 사용하지 않고 색사를 함께 사용하여 수를 놓았다.

특징 및 의의 용무늬는 왕이 입는 옷인 곤룡포, 왕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인 교룡기에 사용됨으로써 왕이 곧 용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또한 우리의 민속문화 속에서도 용은 최고의 자리에 비유되어 입신출세의 관문을 등용문이라고 하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을 두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용을 건축·공예·회화·복식 등에 다양한 모습으로 장식하여 그 신령스러운 능력을 늘 가까이에 두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國朝續五禮儀補序, 本草綱目, 朝鮮王朝實錄, 우리나라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의문의 조선-무늬(민속원·경기도박물관, 2016),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인천시립박물관, 2005), 중국미술상징사전(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섭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한국직물문양 이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2006).

필자 정미숙(鄭美淑)

우덮기

정의 단일 염료로 염색한 후 다른 염료를 중복으로 물들여 염색하는 방법.

내용 화학염료가 출현하기 전에는 전통적으로 자연의 염료, 안료를 사용하여 물들이고 채색하였다. 이때 염착성이 약하고 견뢰도가 강하지 못해 매염제를 사용하여 재염再染 이상 중복, 복합 염색을 하였다. 상염上染 또는 재염이라 하며 자연 염색인 경우 일반적으로 물을 들인 후에 또 물들인다. 최하 1회 이상, 10회까지 물들이는 과정을 상염, 우덮기염이라 하는데, 먼저 염색하는 것을 하염下染이라 하고 수차 재염색하는 것을 상염, 혹은 우덮기라 한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자초 염색에서 우덮기를 열물(10회)이나 더 먹어야 곱고 꽃물(전국)은 자루가 다 먹으니 타서 들임만 못하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10회 염색하는 우덮기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대홍관록색大紅官祿色은 "괴화 달인 물에 염색하고 위에 쪽으로 들여 옅고 짙게 하는데 다 명반을 쓴다槐花煎水染藍澱盖淺深皆."라고 하였다. 또한 천청天靑 염색에 대한 기록도 보이는데, "쪽항아리(전강靛矼)에 넣어 옅게 염색하고 그 위에 소목蘇木물로 짙게 물들인다入靛缸深染, 芳木水深盖."라는 내용에서 우덮기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합염이라 하여 염료를 혼합해 사용하지 않고, 단일 염료로 여러 번 염색한 후 건조시킨다. 동일 염료를 수회 상염하면 같은 계열의 색이 농색되지만, 단일 염료를 수회 사용하여 상염(우덮기)하고 염색할 때보다, 다른 색소의 염료를 사용하여 복합 염색할 때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견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두 가지 빛이 나는 색을 얻을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덮기는 전통적인 염료 중 쪽이나 홍화·감·오배자·석류 염색에 다른 염료를 재염색할 때 묘한 색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사용되었다. 우덮기 같은 재염색을 통해 직물의 견뢰도를 높이고, 문양염 직물로 물들일 수 있었다. 오늘날 이를 활용하여 의상이나 실내장식, 공예품에 많이 쓰인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天工開物, 염색장(김지희, 국립문화재연구소·화산문화사, 2002), 전통색깔 물들임과 무늬넣기(김지희, 국립민속박물관·자연염색박물관, 2012), 전통염색공예(김지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필자 김지희(金芝希)

운동화
運動靴

정의 운동할 때 또는 평상시에 편하게 신는 신.

내용 운동화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운동할 때 신는 신. 또는 평상시에 활동하기 편하게 신는 신"이다. 근대 우리나라 운동화는 발등에 끈이 있어 묶게 되어 있고 신 바닥이 두껍지 않고 편안한 형태이다. 운동화의 소재는 바닥에 가죽이나 고무 등이 쓰였고, 몸체에는 천·고무·가죽 등이 사용되었다. 운동화는 보통 운동화와 특수용 운동화로 구분되며 특수용 운동화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운동화는 1920년대부터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구두나 운동화는 서양복식을 입은 사람이나 학생에게, 고무신은 민간인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하여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여학생 사이에 고무신이나 운동화가 유행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였다. 1922년부터 운동에 필요한 신들이 나오는데, 운동화·야구용화·축구용화·올림픽화·정구화·런닝화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운동화가 소개될 때 국내에서 생산되지는 않았고, 일본에서 수입해왔는데 192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운동화를 생산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고려운동화高麗運動靴라고 불렸고, 우익사友益社에서 제작 판매하였다. 1930년대에 각 학교 학생들의 교화로 검정 운동화가 지정되었다. 운동화 광고는 1920년대 초부터 보였는데, 그 후 운동화는 끊임없이 계속 착용되었다.

운동화도 시대 상황에 따라 소재·수급·제작 등 변화가 많았다. 1938년 런닝화는 종류별로 트랙용·필드용·마라톤용이 있다. 용도에 따라 신 바닥에 스파이크가 있는 것도 있고, 마라톤용은 스파이크가 없으며 바닥 재질은 고무이다. 런닝화 소재로 전에는 소가죽을 사용하였으나 대용품으로 말가죽·돼지가죽·양가죽·상어가죽·고래가죽 등 제품이 점차 시장에 나타나게 되었다.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구두 대신 운동화가 권장 또는 강요되었다. 전쟁 준비로 고무 원료 등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고무 관련 상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운동화 | 절후표 중 부분 | 1935 | 국립민속박물관

서 운동화를 천으로 만들기도 했다. 1940년대 경성방직의 영등포 공장에서 직포를 이용하여 운동화, 작업화도 제조했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 긴축정책의 결과 구두 대신 운동화를 착용하게 되었고, 몸빼에 운동화 착용을 강요당했다.

광복 이후 가격 폭등으로 운동화를 유상 배급하였고, 1947년 운동화 광고에는 축구화·런닝화·야구화·농구화·마라톤화·럭비화 등이 등장했다.

경제화·경편화·편리화·혁신화 등은 조선 신과 비슷한 형태로 운동화와는 다르다. 이 네 가지는 서로 같은 것으로, 조선의 신 형태였다고 한다. 바닥은 서양구두와 같고(가죽을 대고) 울은 천(무명·우단·명주 등), 가죽 등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고, 발 뒤는 조선 신과 같이 했다. 조선 가죽신과는 달리 발등에 이어진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후에 바닥에 고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뒤로는 전체를 고무로 만들기도 했다. 초기 편리화 광고에는 바닥이 보이는데, 징신처럼 울퉁불퉁하다. 신코가 올라간 것과 올라가지 않은 평평한 것이 있는데 현대 고무신에 남녀 구분이 있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경제화는 1909년 이성원이 발명하여 널리 착용하였다고 한다. 이 신을 다른 사람이 '개량조선화'로 실용신안을 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으로 보아 '개량조선화'도 경제화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25년 신문에는 편리화 직공조합이 만들어질 정도로 생산자가 많았다. 이 편리화(경제화, 경편화) 광고는 1927년 이후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1930년대 잡지의 내용에 고무경제화, 가죽경제화 등이 등장하였다.

운동화는 경제화 등이 널리 착용된 후에 나타났는데, 운동화와 경제화는 형태가 다른 신이다. 운동화는 경제화에 비하여 발등을 많이 덮고, 발등에 신을 묶는 끈이 있으나 경제화는 신을 묶는 끈이 없다.

특징 및 의의 운동화는 새로운 생활을 반영하는 복식 품목으로 서양복식 착용이 확대된 1920년대부터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바닥은 고무나 가죽으로 만들고 발등에서 끈을 묶어 착용하는 것이 기본 형태였고, 후에 운동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 및 착용되었다. 또한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배급하기도 했으며, 헤진 고무신으로 운동화 바닥을 때워 신기도 했다. 고무신보다는 비싸고, 지까다비じか-たび(고무바닥에 천을 덧댄 노동자용 작업화)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구두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신이었다. 현재는 저렴한 신 또는 운동용 신의 개념을 넘어서 널리 다양하게 착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사업성공자열전 삼십(동아일보, 1927. 2. 11).

필자 남경미(南瓊美)

운혜
雲鞋

정의 신코와 뒤축에 장식이 있는 조선시대의 신.

내용 운혜는 신코와 뒤축에 다른 색의 무늬를 장식한 신 중 하나로, 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녀자가 신는 신이었다. 신바닥에 담을 깔아 따뜻하다는 의미에서 '온혜溫鞋'나 제비부리같이 생겨 '제비부리 신'이라고도 불린다. 운혜는 앞코에 대나무잎[竹葉紋]을 새겨 붙이며 뒤축에는 굼벵이 형태의 장식을 붙여서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코 앞부분을 '앞마구리', 뒤축은 '뒷마구리'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형태는 개화기 고무신이 개발되면서 고무신에 그대로 반영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를 유지해왔다.

조선시대 기록에서 나타나는 운혜는 왕이나 왕비의 행차 시 말을 끌거나 의장구를 잡는 낮은 신분의 관원들이 착용하거나 변방의 장사들이 착용한 신이다. 『악

학궤범樂學軌範』에서 운혜는 화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大將旗에 제사 지낼 때[纛祭], 창과 칼을 들고 추던 춤인 창검무槍劒舞·궁시무弓矢舞(둑제의 아헌례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추던 춤)·간척무干戚舞(둑제의 초헌에서 왼손에는 간, 오른손에는 척을 들고 추던 춤)를 추는 공인이 신은 신으로 되어 있다. 혜 안에는 청색 면포를 대고 앞뒤와 양쪽 가에 홍색 면포를 대며 신창은 가죽으로 하였다. 특이한 점은 신발 위쪽에 흰색 베로 만든 버선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신목이 없는 신발을 의미하는 혜에 버선을 연결하여 화의 형태로 만든 것은 아마도 무기를 들고 활동적인 춤을 출 때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운혜는 조선시대 초기 의장수와 가마꾼들의 신으로 확인되고 있어 낮은 직급의 남자용 신으로 착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대부들이 평상복에 입자를 쓰고 운혜를 당혜와 함께 신는다는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러나 「궁중발기宮中撥記」에는 '여혜女鞋'로 등장하여 시대에 따라 남녀의 교차 착용이 나타난다.

1624년(인조 2) 제복용으로 그려진 형태의 운혜가 처음 확인되었으며, 앞부리에는 구름무늬가 장식되었다. 출토된 17~18세기 남성용 포백제 유물은 이러한 운혜의 모습이며, 조선시대 인물화에서도 그 착용 모습이 확인된다. 남성 착용 예의 기록과 자료를 보아 남성용으로도 착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유물은 여성용 운혜가 대부분이다. 여성용 유물 운혜는 조선시대 말 왕실이나 반가 부녀자들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대부분 포백제인 단緞이나 사紗로 만들었다.

『궁중발기』에 나타난 운혜의 기록을 보면 정미년(1847년) 가례 시 자적색 비단[紫赤緞]으로 만든 운혜와 다홍색 소주단蘇紬緞, 초록색 금선단金線緞 비단 운혜와 다홍색 비단 운혜의 기록이 있고, 계사년(1893년) 길례 시 군부인의 다홍 채화단 운혜의 기록이 남아 있어 궁중 여인의 신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영조는 나라의 혼례 풍속이 사치에 흐르고 비용 낭비가 심하여 궁중 혼수를 줄이고자 『국혼정례國婚定例』를 지어 왕실 혼례에 관한 정례를 만들었다. 여기에도 궁중 내 잔심부름에 종사하는 어린 나인이 신도록 검은 빛깔의 비단으로 만든 운혜[흑단운혜黑緞雲鞋]의 기록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운혜를 만들 때에는 신울에는 노랑, 빨강, 연파랑, 연두, 진분홍, 홍색, 초록 등을 바탕색으로 비단을 사용하고, 배색 회장감은 초록, 남색, 홍색, 보라 등으로 보색 대비시킨다. 화려한 색감과 날렵한 곡선 형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외양을 자랑한다.

참고문헌 國婚定例, 樂學軌範,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전통신의 조형미와 제작 실태에 관한 연구(조선희, 한복문화8-3, 한복문화학회, 2005),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화혜장(조선희, 민속원, 2007), 화·혜·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조선희(趙鮮姬)



① 남자 운혜 | 18세기 후반



② 여자 운혜 | 광복 이후

운혜 | ① 길이 26 높이 5.5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8 너비 5 | 국립민속박물관

울금
鬱金

정의 생강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덩이뿌리를 황색 염색에 쓰는 염료.

내용 울금鬱金의 원산지는 인도·중국·오키나와 등인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열대 및 아열대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뿌리줄기를 강황이라 하고, 덩이뿌리를 울금 또는 천옥금川玉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황深黃·을금乙金·걸금乞金·옥금玉金·왕금王金·울금초·금모세·마슬·황제족 등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북부 산악지대를 제외한 각지에서 재배한다.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는데, 뿌리는 각종 식품의 착색제로 이용된다. 울금의 선황색 덩이뿌리를 이용해 노란색을 얻을 수 있고 매염제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다색성 염료이다.

울금은 B.C. 600년경에 쓰인 『앗시리아 식물지』에도 착색성이 있는 물질로 기록되어 있고, 염료로 사용





울금 | 국립민속박물관

할 경우 홍색 염색을 위한 하염(밑염)으로 치자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제용감濟用監(조선시대 관청으로 모시·마포·피물·인삼 등의 진상과 사여賜與되는 의복·사라沙羅·능단綾緞에 관한 일, 교환 수단으로 통용한 포화布貨의 관리 등을 맡아본 곳)에 공물로 납품된 기록이 있다. 명나라의 『통아通雅』에 울금으로 황색을 염색한다고 하였으며, 『위지魏志』에도 왜인이 울금을 헌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승려복을 울금으로 염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명하게 염색되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홍색을 염색할 때 소목이나 홍화와 같은 적색 계열 염료와 함께 사용되었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번홍색礬紅色의 정주鼎紬 1필을 염색하는 데 필요한 재료로 단목丹木(소목) 8냥兩, 울금 2냥, 백반 2냥이 기록되어 있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서 목홍색木紅色 명주 한 필을 염색하기 위해 적색 염료인 단목 11냥과 울금 2냥, 당황단唐黃丹 1냥 2전, 백반 1냥 2전이 사용된 기록이 있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붉은 빛을 물들이기 전에 먼저 노란 빛으로 선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 붉은 빛이 도는 살구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는 울금을 잘게 썰어 물에 담가 흠뻑 불린 다음 강판 같은 것을 사용하여 갈고, 찌꺼기는 돌절구에 찧은 다음 물을 섞고 망이 조밀한 체에 밭쳐 황벽黃蘗으로 염색한 천에 진하게 복합 염색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얻은 색을 유청柳靑 빛이 된다고 하였다. 울금과 홍화의 교염으로는 홍비색紅緋色을 얻을 수 있다.

염색할 때는 울금을 잘게 썬 다음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고 절구에 찧어 받쳐서 사용하였다. 울금 분말을 만들어 물에 담가서 염색하고 산으로 발색시키는 방법도 있다. 오늘날에는 에탄올을 이용하여 염액을 추출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울금의 덩이뿌리는 카레가루의 향신료로도 쓰이며, 색소의 주성분은 쿠쿠민curcumine이다. 가을부터 뿌리를 채취하여 염색용은 5~7일간 햇볕에 건조시키고, 약용은 쪄서 햇볕에 건조시킨다. 울금에는 방충과 살균 효과가 있어서 예부터 의류나 서화書畵를 싸서 보관하는 보자기에도 이용되었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尙方定例, 度支準折,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염색법 해설(조경래, 한국학술정보, 2007), 조선시대 복식의 적색계와 자색계 색명체계(김순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현대본초학(안덕균·육창수, 고문사, 1975).

필자 조미숙(曺美淑)

원불교복
圓佛敎服

정의 소태산少太山 대종사大宗師의 일원사상一圓思想을 위해 순교의 삶을 살겠노라 서약한 이들이 입는 옷.

내용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 이후 1919년까지는 저축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단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1924년 불법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정식 창립총회를 열었고, 1935년 「예전禮典」 조항을 명시하였다. 1970년에는 개정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1947년 원불교라는 종교명을 표방한 이후 현재까지 교단의 공식 예복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개정 증보판에 명시된 「예전」의 '의제衣制'에 소개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은 질소質素·청결을 주로 하며, 각자의 지위와 연령과 생활 정도에 맞추어 분수에 맞게 착용한다. 둘째, 의제는 항상 단정하게 하며 모자를 바르게 쓰고, 옷깃을 정제整齊한다. 특히 여름철 의복은 과한 노출을 삼간다. 셋째,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의복이나 난잡한 복색을 착용하지 않는다. 넷째,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단체 안의 의제 규정을 존중한다. 생활 형편에 따라 노동복과 평상복을 따로 구별하여 입는다. 다섯째, 예복은 때와 장소에 맞게 착용하며, 상복喪服은 간편하게 한다고 정하였다.

원불교에서 성직자란 전무출신專務出身을 말하며 전

무출신이란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불교에서는 이를 교역자라 부르는데, 사회적 의미에서 성직자를 가리킨다. 현재 교역자의 제복은 예복과 평상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복은 교복과 법락으로 나뉘고 이에 관한 규정은 1996년(원기 81) 원불교 헌규집에 의거하여 착용한다. 한편 평상복은 일반 교무들이 헌규집에 명시된 이상의 '의제' 규정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착용한다. 단 결혼하지 않은 교무들의 집단인 정화단 단원은 내규에 정해진 몇 가지 제한을 받는다.

원불교의 의례복식에는 교복과 법락이 있다. 교복은 창교자인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1930년대 중반에 고안되었다.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원불교 공식 예복으로 자리를 잡아 현재 그 정형이 유지되고 있다. 법락은 초기 일본식 납자법의의 이색선異色襈이 기원이 되어 독립된 구성물인 락자(초기 납자법의의 이색선과 같은 구조물을 독립적으로 떼어낸 듯 목에 두른 것)가 사용되었다. 제1대 종법사인 정산 종사에 의해 1950년대 후반 현재 법락의 정형이 완성되어 1980년대 전반에 모든 교역자가 대례 시 교복 위에 착용하게 되었다. 그 상세한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의 예복은 두루마기였는데 이 당시 두루마기는 왕부터 서민까지 모두 입던 옷이다. 일정한 체제를 갖춘 제복인 예복이 만들어진 것은 1928년경 익산에 총부를 마련한 뒤 교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1930년대 중반으로 보인다. 제복 개념의 초기 예복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납자법의'와 1934년경 만들어진 '교복'이 있었다. 교복이나 납자법의는 기존의 예복처럼 입었던 두루마기 위 또는 바지, 저고리 위에 착용한다. 초기 교복의 색상은 검정색이었다. 광복 이후 교명이 원불교로 바뀌었던 1940년대 말에 계절감을 표현하는 흰색의 하복이 등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하복은 흰색, 동복은 회색으로 하는 헌규의 상정으로 소박·고귀·예의 등을 상징하는 무채색 계열의 교복이 통용된다. 1949년 기존의 '불법연구회'라는 명칭이 '원불교'로 바뀌어 등록된 이후 남자법의는 사라지고 교복 위에 법락을 드리우는 형식으로 예복이 변화한다. 예복으로 착용되는 법락法洛은 교복 위에 착용하는 독립된 부가물로써 초기 예복인 '납자법의'의 옷깃의 이색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법락은 초기 교복이 만들어진 1934년경에는 없었다. 1943년 대종사 열반 시 흰백의 별포別布를 락자洛子로 만들어 교복 또는 납자법의衲子法衣 위에 두른 이후 1950년경 하피형霞帔形의 별도의 락자를 교복 위에 착용하였다. 현재 원불교의 공식 예복인 법락은 1967년에 결정되어 현재까지 원불교의 공식 예복은 형태와 착용하는 상황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일원상 법신불을 교리의 상징으로 삼는 원불교식 법락은 법의 전수를 상징하고 대법을 전해 받은 사은思恩(사람이 태어나서 받는 네 가지 은혜로 천지은天地恩·부모은父母恩·동포은同胞恩·법률은을 말함)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중심에 위치한 일원상一圓象은 우주 만상의 본원의 자리를 상징하고, 색상은 가장 고귀함을 상징하는 황색이다.

현재 통용되는 교역자들의 평상복인 정복에서 여성 복식은 통치마에 저고리 차림으로 1920년대 말 정



남자 법의 | 섶길이 83 품 23 소매길이 33 | 원불교역사박물관

형화되었다. 이에 반해 남성 복식은 한복과 양복이 혼용되다가 1988년 검은 양복에 흰색 셔츠, 검은 넥타이를 채택한 뒤 1998년 한국형 깃을 한 셔츠의 채택으로 1999년부터 공식 정복으로 자리 잡는다. 남녀 복식 모두 정복에 사용되는 기본 색상은 무채색 계열인 흰색·검정·회색 등이다. 이는 예복처럼 소박함·고귀함·예의 등을 상징한다. 여성 복식은 초기 형성기에 유지했던 정형이 고수되고 있으며, 남자 복식은 시대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있다. 이들의 복식은 현재 원불교의 고유한 제복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현재 원불교 교역자의 법락과 교복은 1967년 3월 24일 제15회 정기수위단회에서 논의된 '법의 결자 양식의 건'을 상정하여 결정되었다. 이후 현재의 교복과 법락이 착용되었다. 논의 내용은 법복은 하절기 흰색으로 통일하고, 동절기에는 회색빛에 가까운 검은색 등 무채색으로 통일하여 착용하며, 법락은 가운데 일원상이 들어 있는 법락으로 정하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색상은 계절에 따라 다르며 여름에는 백색과 회색을 착용하고, 겨울에는 흑색을 착용한다. 소재는 봄에는 옥양목·조선목·방포, 여름에는 아사류·황당목을 사용하며, 가을에는 옥양목·방포·마포 그리고 겨울에는 세마 조선목, 조선명세·당목으로 검소하게 입게 하였다. 현재 교복과 법락에 관한 규정은 1988년(원기 73) 7월 15일 제정한 헌규집(교규 제78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원기 81년 원불교 헌규집(교정원 총무부, 1996), 원불교예전(김현경, 원불교 정화사, 2001), 원불교 복식에 관한 연구(김혜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 개창 신흥종교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김현경,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혜순(金惠順)

원삼
圓衫

정의 소매에 색동과 한삼이 달린 조선시대 여성의 예복.

역사 원삼은 조선 초의 단삼團衫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明에서 문종 때부터 선조 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에 왕비의 예복과 더불어 상복常服인 오襖, 군裙과 단삼을 보내 왔다. 단삼은 명의 명부복命婦服의 하나로, 황후의 것은 '단삼', 황태자비 이하 내명부內命婦는 '단령삼團領衫', 명부命婦 관복은 '원령삼圓領衫'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모두 둥근 깃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이와 같이 왕비의 상복으로 전래된 단삼은 원삼과 명칭이 혼용되는 단계를 거쳐 원삼이란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1627년(인조 5)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를 비롯한 여러 가례도감의궤에 기록된 옷감의 종류와 소요량 및 용도를 보면, 단삼과 원삼은 동일한 복식이며, 17세기 초반까지 원삼의 명칭이 단삼과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삼圓衫이 아닌 '원삼元衫'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는데, 1600년(선조 33)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나 『성호선생전집星湖先生全集』 권12에 상장례喪葬禮용으로 '원삼元衫'을 언급하고 있다.

양성지梁誠之(1415~1482)의 『눌재집訥齋集』을 보면, "양반 부녀자들이 원삼이라는 것을 지어 입고 흉배를 달아 입었으며 백주대도白晝大道를 활보하여도 괴이하다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505년(연산군 11) 6월 13일 기사에도 "비단 가격이 너무 올라 가난한 문무백관은 여자의 원삼으로 단령을 지어 입고 왕에게 문안드리는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여자의 원삼을 개조하여 관리의 단령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조선 초의 원삼의 형태는 조선 후기 원삼과는 달리 단령과 유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원삼이 남자 단령처럼 둥근 깃에 여밈이 깊고 양옆에 무가 달린 형태였음은 출토유물로도 증명된다. 당시 원삼의 소재는 면직물, 견직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17세기 초중반에는 단삼과 원삼의 명칭이 혼용된 것처럼 그 형태도 단령과 원삼의 중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단령에 있었던 무는 사라졌고 소매는 더 커졌으나 깃은 단령형이 남아 있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내용 원삼은 조선시대 왕실과 반가 여인들의 예복이



① 동궁비 원삼 | 20세기 초반

② 덕온공주 원삼 | 19세기 후반

원삼 | ① 길이 145 품 44 화장 135 | 세종대학교박물관, ② 길이 164 품 44.5 화장 164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며, 서민들에게는 신부의 혼례복이었다. 수의壽衣로 왕실과 민간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또한 무당들의 무복巫服으로 착용되기도 하였고, 궁중연회 등에서는 여기女妓들이 춤을 출 때 입는 의상으로도 착용되었다.

오늘날 원삼의 형태는 17세기 후반부터 완성 단계에 들어선다. 깃은 단령이 아닌 맞깃으로 바뀌었고, 넓은 두리소매 끝에는 색동이 달렸다. 도련과 옆선에도 곡선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는 홑옷이었던 원삼에서 깃만 다른 같은 모양의 옷을 두 겹 만들어 안에는 곧은 맞깃, 겉에는 둥근 맞깃을 겹쳐 입는 바느질 방식이 나오게 되었다. 원삼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이단하李端夏(1649~1689) 부인의 원삼이 이러한 양식에 해당된다.

이후 조선시대 말인 19세기 후반부터는 원삼의 도련선이 직선화되고 바느질법도 각각 안과 겉을 만들어 겹쳐 입는 방식이 아니라 겉과 안을 박아 뒤집어 만드는 오늘날과 같은 바느질법이 나타났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궁중발기」 등 문헌기록을 보면 노의露衣, 장삼長衫 등의 여자 예복이 원삼으로 일원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 말기의 원삼을 보면 옷의 길이는 무릎 근처에 닿으며, 옆선에 무가 달리지 않은 대신 깊은 트임이 있다. 소매는 크고 넓으며, 소매 끝에는 색동과 흰색의 한삼汗衫이 달려 있다. 옷길이는 뒤가 앞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지만, 민간용 원삼 중에는 앞뒤의 길이가 같은 것도 있었다. 앞여밈은 섶을 달지 않아 여밈이 겹쳐지지 않으므로 단추나 고름을 달아 마주 여미도록 하였다.

원삼의 소재는 주로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단緞은 겨울철에, 주紬나 사紗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되었다. 왕실이나 지체가 높은 반가에서는 직금織金 직물을 사용하거나 금박을 찍기도 했다. 직금이나 금박 무늬로 용무늬나 봉황무늬는 왕비가 사용했고, 공주 이하 민간에서는 문자무늬나 꽃무늬를 애용했다.

색상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황후는 황색, 왕비는 홍색, 비빈과 대비는 자색, 공주와 옹주는 녹원삼을 입었으며, 민간에도 녹원삼 착용이 허용되었다. 이밖에 아청鴉靑이나 남藍색의 원삼을 사용한 예도 있다.

원삼을 입은 후에는 가슴 높이로 매우 긴 허리띠를 묶어 뒤로 드리우는데, 이를 '대대大帶' 혹은 '봉대鳳帶'라고 부른다. 대대는 홍색이 일반적이나, 홍원삼에는 남색 대대를 사용한다. 대대에는 보통 봉황무늬의 금박을 찍지만, 민간용 원삼에는 글자나 꽃무늬를 금박하기도 한다. 금박 무늬로 장식을 할 수 없었던 궁중 내인이나 서민의 원삼이라 할지라도 대대에는 금박을 하여 화려함을 더하기도 하였다.

신분에 따라 보補나 흉배胸背를 달아 장식하였다. 보에는 금사로 용龍을 수놓아 가슴과 등, 양어깨에 달았다. 흉배는 봉황鳳凰 흉배를 달았는데, 혼례용에는 구봉九鳳 흉배를 달아 자손이 많기를 기원했다.

궁중용 원삼은 옷 길이가 길고 소매가 넓으며 직금을 비롯한 고급 직물을 사용하거나 화려한 금박을 장식한 반면, 색동은 비교적 너비가 좁은 두 줄만 장식하여 품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안감은 홍색을 사용하고, 안감의 도련과 옆선에는 남색 선을 둘렀으며, 홍원삼에

는 황색 안감에 남색 선을 둘렀다. 겉감과 대비되는 색상의 안감과 장식 선을 둘러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화려함과 섬세함을 추구하였다. 여밈은 파란이나 보패류로 만든 단추를 두 벌 위아래로 달아 장식하였다. 대개 파란이란 금속 위에 부분적으로 광물성의 유약을 올려 장식한 후 열처리 하는 기법으로 법랑琺瑯 혹은 칠보七寶라고도 한다. 궁중용 원삼은 궁중의 내명부와 종친宗親을 비롯한 극히 일부의 양반가에서 착용된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용 원삼은 홑옷이 대부분이고, 금박이나 화려한 직물 대신 색동을 넓게 여러 줄 넣어 화려함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옷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바느질도 단순하였다. 안감에 댄 선 장식을 생략하거나, 선 장식을 개성 지방의 원삼과 같이 겉에 두르기도 하였다. 원삼이 넓게 확산되면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 다양하게 변주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무속에 사용된 원삼을 살펴보면 창부거리(서울·경기도 지방의 굿에서 창부신을 모시는 굿거리)나 호구거리(손님신, 즉 마마를 주관하는 신을 모시는 굿거리)에서 주로 착용하는데, 호구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여장女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창부신은 광대, 즉 남신인데도 여장을 하고 있다. 이로써 원삼은 성별에 관계없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굿의 종류와 무당, 지역에 따라 무복巫服이 다양하지만, 원삼은 철릭이나 장삼, 몽두리에 비해 많이 사용된 편은 아니며 대개 녹원삼이 많이 사용되고 일부 황원삼이 착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순정효황후와 의친왕비의 원삼 착용 | 서울대학교박물관

특징 및 의의 원삼은 왕실은 물론 민간에서도 예복으로 가장 애용되었던 옷이다. 혼례, 회혼례 등 각종 기쁜 일에서만이 아니라 수의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민간에서는 원삼을 지어 두었다가 세 번 이상 혼사에 빌려준 후 수의로 입고 가면 좋은 곳에 간다는 속설이 있었다. 성조거리(가옥과 집터, 즉 가정을 지켜주는 신을 모시는 굿거리)에서 무복으로 착용하는 원삼은 가옥을 관장하여 가정을 지켜주는 신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尙方定例, 星湖全集, 조선시대 원삼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임현주,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한국 무속복식의 역할에 관한 논의(소황옥, 비교민속학24, 비교민속학회, 2003).

필자 홍나영(洪那英)

원유관
遠遊冠

정의 왕과 왕세자, 왕세손이 강사포絳紗袍를 입을 때 착용하는 관모.

역사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는 고려에 강사포絳紗袍와 함께 7량 원유관遠遊冠을 보냈다. 칠량관七梁冠의 형태를 보면, 7량에 금박산金博山과 매미[蟬] 일곱 마리가 부가되고, 위에는 주취珠翠가 달렸으며 서잠도犀簪導를 꽂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조선 세종 대에 이르기까지 원유관복 사여가 없자 1437년(세종 19), 세종은 명나라에 성절사聖節使를 파견하여 원유관의 체제와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 오도록 하였다. 그 후 1438년(세종 20), 명나라는 9량 원유관을 보내왔지만, 이는 이례적인 일로 역대 국왕에게 모두 내려진 것은 아니다. 한편 대한제국의 황제는 12량 통천관通天冠을 착용하였다.

왕세자는 정조正朝와 동지冬至, 삭망朔望(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조하朝賀를 드릴 때 칠장면복을 갖추었다가 1500년(연산군 6)부터 7량 원유관복을 착용하기



원유관 | 높이 21 지름 18 | 1900년대 |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시작하였다. 이는 『문헌통고文獻通考』에 당나라 황태자가 원일元日(새해)과 동지, 삭망에 입조하면서 원유관을 쓴 바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원유관복을 제정하여 삭망의 조하에 임금은 9량 원유관을 쓰고 왕세자는 7량 원유관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판서 이승손李承孫의 상소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후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禮』에는 왕세자가 8량 원유관을, 왕세손은 7량 원유관을 착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세자나 세손의 원유관은 국초부터 사여된 것이 아니라 조선 조정 내외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원유관은 규圭, 강사포, 상裳, 대대大帶, 중단中單, 패佩, 수綬, 폐슬蔽膝, 말襪, 석舃과 일습을 이루는 원유관복의 일부이다. 『세종실록』「오례」를 보면 향을 전달할 때, 정월과 동지에 왕세자빈이 하례를 드릴 때, 초하룻날과 보름에 해당하는 삭망에 왕세자와 백관이 하례를 드릴 때, 나라에 큰 경사 등이 있어 하례를 드릴 때, 왕비와 왕세자빈의 집에 예물을 보낼 때, 왕비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왕세자빈으로부터 조현朝見을 받을 때, 교서를 반포할 때, 문무과文武科 방방의放榜儀 등에 강사포와 함께 원유관을 착용하였다.

원유관의 주재료는 라羅였으며 현색이었다. 둥근 관 위에 길게 9량梁이 있어 각 양 앞뒤로 오채옥五彩玉을 9개씩 18옥을 꿰었다. 맨 먼저 황색黃色 옥을 꿰었고 다음은 창蒼·백白·주朱·흑黑의 순서였다. 금잠을 꽂고 붉은색 끈 두 줄을 양쪽 턱 밑에서 맺어 늘어뜨렸다. 왕세자의 원유관은 량의 수가 하나 적은 8량관八梁冠이며, 양마다 삼채옥三彩玉을 꿰었다. 왕세손의 원유관은 7량이며 왕세자와 마찬가지로 삼채옥으로 모두 7옥을 꿰었다. 현재 남아 있는 고종 어진 중 원유관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9량이 아닌 12량으로 된 원유관을 쓰고 있다. 이를 특별히 '통천관'이라고 부른다. 순조가 원유관복을 착용하고 있는 어진은 6·25전쟁의 여파로 현재 반이 탄 상태로 남아 있으며, 고종은 12량 통천관에 강사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 있다.

특징 및 의의 원유관은 가례를 비롯해 사직에 친제를 지낼 때, 선농의를 행할 때 등의 길례吉禮에도 착용하였다. 또 1745년(영조 21)에 희생을 살필 때에도 임금이 고례에 따라 원유관복을 입겠다고 하여 원래의 의미보다 확대 해석하여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유관복은 시사복視事服보다는 성복盛服에 해당하는 것이며, 1713년(숙종 39) 어용 두 벌을 그리라는 하교에 따라 한 벌은 면복을 그리고 다른 한 벌은 원유관·강사포 차림을 그렸다. 현재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유관은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義親王이 착용했던 것으로,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五禮儀序例, 관모연구3(강순제, 생활과학연구논집16-1,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6),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한국의 관복(고광림, 화성사, 1990).

필자 이민주(李民周)

웨딩드레스

정의 결혼식 때 신부가 예복으로 입는 드레스.

내용 웨딩드레스는 흔히 흰색 드레스에 흰색 레이스나 망사로 만든 베일이나 머리장식을 하고 꽃으로 만든 부케를 손에 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든 인생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일인 결혼식에서 신부를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고자 했다. 15세기 제작된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그림에서 신부는 흰색 베일을 쓰고 모피를 덧댄 초록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 초록색 드레스는 당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옷으로 당시 부와 사랑을 가득 담은 웨딩드레스였을 것이다.


① 한복드레스 | 일제강점기


② 영친왕비 결혼 기념사진 | 근대


③ 웨딩드레스 | 1971


④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 ① 충현박물관, ② 국립고궁박물관, ③ 안우정, ④ 앙드레김 아뜰리에

흰색이 웨딩드레스의 보편적 색상이 된 것은 19세기 들어서이다. 1813년 프랑스 잡지 『여성 잡지Journal des Dames』에 흰색 웨딩가운과 베일을 담은 그림이 최초로 실리면서 현대적 웨딩드레스의 기본 스타일이 제시되었다. 1884년 영국 빅토리아여왕이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흰색 웨딩드레스가 신부의 결혼 예복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서양 중심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민족과 국가에서 고유한 혼례복을 고수하지 않고 서양 복식문화인 흰색 웨딩드레스를 결혼 예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경우 개화기 기독교 문화의 전파로 서구식 결혼식을 행하게 되면서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도입되었다. 신랑의 경우 단발령과 교복 등의 도입으로 양복의 착용이 제도적으로 빠르게 수용되었다. 하지만 신부의 경우 서양의 웨딩드레스처럼 흰색 치마저고리에 화관과 쓰개치마 형태의 베일을 쓰는 것이 그 첫 번째 변화였다. 1890년 정동 교회에서 박신실과 강신성의 첫 기독교식 결혼식이 있은 이후 1925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신랑은 프록코트에 실크해트를 쓰고 신부는 조선옷에 너울이라는 것을 쓰고 예배당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것이 신식혼인이라 하여 신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이 형식을 취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대 기독교식 신식결혼식의 도입 초기에 신부가 흰색 한복에 베일을 쓴 웨딩드레스 차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 흰색 한복웨딩드레스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의 혼란에서 벗어난 1960년대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장원에서 신부단장을 하는 서구식 혼례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신부의 결혼 예복도 서구식 웨딩드레스가 크게 유행하였다.

서구식 결혼식이 자리를 잡은 이후 전통혼례복은 폐백이라는 예식에 한해 한정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1세기 들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개성의 존중으로 전통예복과 서구식 드레스로 구분되는 웨딩드레스가 아닌,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하는 새로운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혼례복 변천에 관한 일 연구(송명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우리 사진의 역사를 열다(한미사진미술관, 2006),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국사편찬위원회, 2005), 2013 서울사진축제아카이브(seoulphotofestival.com).

필자 권혜진(權惠珍)

위사
緯絲

정의 직물을 구성하는 가로 방향의 실.

내용 직물은 직기에 의해 서로 교차되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두 종류의 실로 만들어 진다. 이때 북에 의하여 운반되는 가로 방향의 실을 '위사緯絲'라고 한다. 위사는 경사에 대해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으며 '씨실'로도 불린다. 직물은 길이 방향으로 걸어놓은 경사가 종광에 의해서 상하 운동하여 개구開口를 형성하고, 이

개구 사이를 북shuttle에 의하여 위사가 운반되며 직물이 짜인다. 즉 직물은 경사·위사 2계열의 실을 사용하여 개구—위입—바디질 등의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북에 넣은 위사를 바디가 직물 쪽으로 치면서 직물 조직이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위사는 경사와 굵기가 같거나 경사보다 굵은 실을 사용하고, 경사에 비해 꼬임이 적거나 없다. 경사에 비해 강도가 약한 대신 신축성이 있는 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직물의 위사 방향은 경사 방향에 비해 강도는 약하며, 직물의 탄성을 실험할 때 더 많이 늘어나는 쪽이 위사 방향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 견직물에서도 경사는 주로 꼬임이 있는 생사生紗를 사용하고 위사는 정련精練하여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연사를 쓴다.

또한 위사는 제직 시 위부직으로 주로 무늬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장식사(팬시사)·강연 크레이프사·저연냅사 등의 특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직물에 있어 크림프crimp는 일반적으로 위사가 더 크다. 그 이유는 위사가 직기의 작동에 따라 경사에 의하여 굽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사와 위사의 물성이 달라 경사 방향과 위사 방향의 특성이 서로 다르며 직물의 특성을 결정짓는다. 위사의 양 끝부분은 자르지 않거나 조직을 빽빽하게 하여 식서를 만든다.

참고문헌 섬유사전(한국섬유공학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89).

필자 조효숙(趙孝淑)

유
襦

정의 고대古代에 바지나 치마 위에 걸치던 상의.

역사 고대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장인 유고襦袴 복장은 스키타이계 복식이다. 당시의 드레퍼리drapery형이었던 그리스복과는 다른 형태인 상하의 형식의 스키타이 복장은 고분 출토 스키타이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스키타이계 복장은 중국에서는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무영왕武靈王이 호복령胡服令을 내려 주로 '호복胡服'이라는 명칭으로 착용하였다. 당시 중국인의 복식과는 그 기본 형태가 달랐음을 춘추전국시대 화상전 인물도와 전한前漢 시대의 마왕퇴馬王堆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한족漢族의 대표적인 포는 앞섶이 뒤로 돌아갈 정도로 깊이 여미게 되어 있고, 겉에서 바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긴 길이의 겉옷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襦'는 긴 길이의 포에 비해서 단상의短上衣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깃의 양식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취편急就篇』 주注에서 "단의短衣는 유襦를 가리키며 그것은 무릎 위 길이"임을 나타낸다 하였다.

『사기史記』 조선열전에 "연장熱將 위만이 조선에 입국할 때 '추결만이복魋結蠻夷服'을 하고 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추결'은 상투를 튼 것을 의미하며, '만이복'은 또한 스키타이 계통의 바지저고리 차림을 의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키타이식 유는 사카(스키타이의 페르시아식 명칭)족 여족장의 황금 상의나 아프카니스탄의 틸라테페 유적 출토 남자상, 몽골 노인울라 출토 카펫인물이 착용한 유, 중국 호복 상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계급이 높으면 등솔기 부분에 장식 띠를 한 것으로 보이며, 팔 완장 장식이 두 단으로 된 것도 보인다. 페레데리제바 헬멧에 묘사된 스키타이 복장은 등솔기 부분이 테를 두른 화려한 무늬까지 새겨진 비교적 폭넓은 장식 띠를 하고, 두 단의 팔 완장 장식을 한 것으로 보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임을 암시한다. 즉 왕을 비롯한 높은 계급은 등솔기 부분이 테를 두른 화려한 무늬까지 새겨진 비교적 폭넓은 장식 띠를 했으며, 두 단의 팔 완장 장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다음으로는 좁은 장식 띠의 등솔기 장식과 한 단의 팔 완장장식을 했으며 일반인은 이 같은 장식이 없는 단순한 상의(유)를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스키타이식 유는 좌임左衽(왼쪽 자락이 속으로 여며지는 방향)인데, 직령교임식直領交衽式(직선으로 교차되게 여며지는 식)의 엉덩이 선까지 길이이며 소매통은 좁으며 보통 옷의 가장자리에는 선襈(테)을 둘렀다. 옷에는 금판장식gold plaque을 꿰매 달 때도 많다. 우리나라 인물 모양 청동기시대의 옷은 뒷면의 무늬가 허리 부분에서 위아래를 구분한 것으로 보아 유고 복장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의 유는 원래 좌임이며 소매통이 좁은 상의였으나, 점차 우임이면서 소매통이 넓은 상의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襈을 대는 것은 장식적인 의미가 크며, 색조와 문양의 변화가 많으며 귀녀貴女에게만 있는 부선副襈과 유문선有文襈이 계급적 차별을 느끼게 한다. 백제 상의인 유와 같은 형태에 대한 것은 주로 '복삼復衫'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유의 일반적인 형태와 비슷한 모양일 것이다. 신라는 유를 '위해尉解'라고 불렀다 하는데, 경상북도 경주 단석산 신선사 석굴 마애 공양상이나 울산광역시 울주 천전리 암각화 인물상人物像에서 유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삼국시대 '유'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에까지 그 길이와 깃 모양에서는 변천이 있으나 현재 한복 저고리의 기본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서양복인 재킷jacket도 스키타이 복식의 영향을 받은 게르만족의 복식이 그 원류로 우리의 저고리와 재킷 모두 그 원류는 한 곳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스키타이 황금(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일보사, 1991), 한국미술전집4-벽화(김원룡, 동화출판공사, 1980),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98), 한국복식의 원류(김문자, 민족문화사, 1998), 中國織繡服飾全集3-歷代服飾卷上下(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4), 동북아역사넷(contents.nahf.or.kr).

필자 김문자(金文子)

유건
儒巾

정의 조선시대에 벼슬이 없는 유생이나 생원들이 실내에서 착용하던 머리쓰개.

역사 유건儒巾의 기록은 1433년(세종 15)에 "사역원司譯院의 삼학생三學生 중 7품 이하의 역과출신譯科出身 이외의 학생은 모두 유건을 착용하게 했다."라는 것이 가장 이르다. 이 기록에서는 유건의 형태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없어 그 모양은 알 수 없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오례의주五禮儀註』 등 편찬에 참여한 윤효손尹孝孫(1431~1503)의 『추계선생실기楸溪先生實記』「도설」에 "성균관 학생과 유생의 관은 본래부터 제정한 것이 없었는데, 선생이 전사후민前士後民의 뜻으로 건을 만들어 우리나라 제 유생의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설명과 함께 현전하는 형태와 거의 같은 모양의 유건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유건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기록은 1574년(선조 7) 질정관質正官 조헌趙憲(1544~1592)이 명나라 수도 남경南京을 돌아본 후에 제출한 시무에 필요한 8조와 근본에 관계된 16조 등의 상소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명의 제도를 소개하고 당시 조선의 제도를 언급하며 득실을 따져 명의 제도와 조선의 제도를 절충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왕이 명의 제도를 억지로 적용하면 문제가 많다고 하여 시무8조만 올리기에 이른다. 시무8조 중 세 번째에 중국의 의관 제도를 소개하면서 유건의 모양과 쓰는 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조선에서도 그 이전부터 유건이라는 명칭의 건이 있긴 하였으나, 이후부터 등장하는 유건은 명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은 유건을 명나라 태조太祖가 처음 만든 것으로 보았다. 충재冲齋 권벌權橃(1478~1548)의 후손이 집에서 전해오던 건巾과 복服을 바쳤는데, 건은 죽순竹筍 대를 섞어서 짠 청포靑布로 만들었고, 뒷면은 낮고 앞면은 높게 되었으나 굽어진 귀가 없는 것이 마치 지금 서도胥徒(서리나 아전)의 모자와 같다고 하였다. 1884년(고종 21)에도 유생의 복식을 정하면서 유건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내용 조선시대는 신분에 따라 의관제도衣冠制度를 달리 정할 정도로 옷과 머리쓰개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바지


① 유건


② 장중에들어가는션배

유건 | ① 가로 24.8 세로 21.9 | 19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기산풍속도 | 2002년 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유건과 도포 입은 제관들 | 전남 해남 고산 윤선도 종가 | 국립민속박물관

저고리 혹은 치마저고리에 반드시 겉옷인 포袍를 입어야 하고, 머리에는 반드시 건巾이나 관冠을 쓰는 것을 예의로 삼았다. 그래서 유아에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례인 성인식을 관례冠禮라고 표현할 정도로 머리 쓰개를 중요시하였다. 예서禮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관례를 치를 때 세 번째로 관을 씌우는 삼가례三加禮에서 유건을 쓰도록 하는 것을 볼 때 유건은 조선시대의 예복에 갖추는 관모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유건은 주로 벼슬이 없는 선비나 성균관의 유생儒生이 주로 착용하는 두건이었다. 유건이 일반화되면서 창의氅衣나 청금靑衿(청색 깃의 옷으로 유생복)과 함께 착용하였다. 현재는 향교나 서원의 향사나 사가私家의 제사 때 의례복의 관으로 착용한다.

유건의 모양은 윤효손의 도설에 제시된 모양이 현재의 유건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헌의 시무8조에서 설명한 명나라의 유건에서 그 모양을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전하는 유건과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르면 이름은 모양이 민民 자처럼 생겨 민자건이라고도 한다. 형상은 대나무로 얽어서 틀을 만들고, 검은 천으로 싸거나 종이를 바른 후 옻칠을 한다고 하였다. 명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늘 유건을 착용하며, 옻칠을 하여 이슬비가 내릴 때 써도 우리나라의 사건士巾처럼 금방 늘어지지 않는다고 그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양 역시 단정하고 평평하여 너무 뾰족하거나 기울어지지 않아 조선의 잘못 만들어진 사건을 고쳐서 유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역시 현재의 유건과 다르지 않다.

이익은 성균관 생도들이 치건緇巾과 청삼靑衫을 입는 제도가 오래되었다면서, 치건을 민자건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뒷면은 마치 벽처럼 꼿꼿하게 서서 굽혀지지 않고, 위를 조금 숙여서 앞면이 되도록 하면 남은 폭이 양쪽 옆으로 벌어져 귀가 되는데, 이 양쪽 귀를 반쯤 접어서 판판하게 하면 민 자의 모양처럼 되는 까닭에 세속에서 이렇게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앞면과 뒷면이 서로 바뀌지게 했으니 해괴한 일이라고 하였다. 즉, 현재의 유건 착용 방법이 원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앞뒤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윤효손의 도설에서는 전사후민前士後民의 뜻으로 건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사후민이란 유건의 앞쪽은 선비처럼 꼿꼿하게 세운 형상이고, 뒷면은 민자 모양이라는 해석이 되어 이익의 설명과는 상반된다. 게재된 그림 역시 앞면은 꼿꼿하고 상부를 뒤로 접어 귀가 나오도록 한 민자 모양이고, 끈이 달려 있다. 현재 두건의 착용 방법과 동일하여 어느 것이 원래의 모습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속설에는 경술국치로 일본에게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유학자들이 유건을 돌려서 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유건의 착용 방법은 전사후민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유건은 모시, 삼베, 무명 등 재질에는 제한이 없는데, 중국에서 대나무를 결어서 만든 것과는 차이가 있다. 머리에 쓰는 관모의 일종이지만 고정하는 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함께 전한다. 색깔은 흑색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기록에서 발견되는 유건은 성균관 유생이 수업을 할 때 쓰는 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진사進士나 생원生員이 유가遊街를 할 때에도 흑단령黑團領에 유건을 쓰도록 하였다. 또한 문관에서 무관이 된 것을 '유건과 투구를 바꾸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례에서처럼 문관 혹은 유학자의 상징으로 유건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건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사적 의례를 행할 때 도포와 함께 유건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經世遺表, 渼湖集, 臺山集, 陶谷集, 東還封事, 沙溪全書, 星湖僿說, 藥泉集, 燃藜室記述, 朝鮮王朝實錄, 海東繹史, 삼년상-화재 이우섭(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2011), 역대 학생모에 관한 고찰(강순제, 복식5, 한국복식학회, 1981).

필자 김시덕(金時德)

유혜
油鞋

정의 비 오거나 진 땅에서 신는 신으로, 기름을 먹이고 밑창에 징을 박아 만든 신.

내용 진신의 일종인 유혜油鞋는 비단을 사용하지 않고 가죽만을 사용하는데, 제작 방법은 마른신과 같아서 가죽을 한 달 정도 들기름에 절인 후 만들어 물이 새지 않게 한다. 밑창 역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름을 먹여 튼튼하게 만들었다. 오뚝 징을 밑창의 가장자리에만 두 줄을 박은 것이 있고, 중간 부분까지 촘촘히 박은 것도 있어 징신, 또는 기름 옷을 입힌 신이라는 의미로 유혜라 부르기도 한다. 진 땅에서 신어도 물이 스며들거나 진흙이 묻지 않도록 기름에 절여서 만든 가죽신이므로 이혜泥鞋라고도 불린다. 두껍고 탄탄한 소가죽, 말가죽, 개가죽 등을 써서 바닥을 두텁게 만든 것으로 사대부나 부녀자들이 많이 신었다.

유혜鍮鞋 또한 진 땅에서 신는 신으로 놋으로 만든다. 일명 놋신, 놋갖신이라고도 하였는데 태사혜나 당혜, 운혜와 같은 모양이었으며, 앞뒤축에는 문양도 새겨 넣었다. 바닥에 놋쇠로 만든 징이 달려 있어 비 오는 날에도 착용이 가능하였다. 1~2품 관원을 포함하여 특수층에서 신었다. 그러므로 유혜는 만드는 재료와 제작 방법, 용도에 따라 유혜油鞋, 유혜鍮鞋, 진신, 징신, 놋신, 놋갖신, 반결음, 이혜 등으로 불린다.

협금혜는 조선시대 문무 당상관이 상복에 신던 울이 낮은 신이다. 놋쇠와 가죽을 재료로 만든 신으로 비가 올 때 신었다. 모양은 태사혜와 비슷하여 코와 뒤꿈치에 태사문을 선각하였다. 앞부분이 태사혜에 비해 좁게 되어 있으며, 바닥에 징이 박혀 있다. 협금혜 유물을 보면 징이 많이 닳아 있어 실제로 상당 기간 동안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협금화는 조선시대 당상관의 상복에 신었는데, '쇠를 끼운 화'라는 뜻으로 바닥에 특별히 놋으로 만든 징을 박은 것으로 추정한다.

특징 및 의의 유혜는 비 오는 날이나 진날 신어도 신이 더러워지거나 젖지 않아 차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든 기능적 신이다. 형태와 장식 등은 마른신과 같으나, 가죽 재료를 기름으로 선처리 가공하여 만들기 때문에 진 땅에 발과 신이 젖지 않고 내구성도 뛰어났다. 놋으로 만든 신도 유혜라 부르나 뜻이 다르다. 남자용은 태사혜 모양이 많고, 여자는 외코신, 당혜, 운혜 모양이 많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보면 유혜처럼 비 올 때 신는 반장화인 '투套'의 기록이 있다. 투는 투아套兒라고도 한다.

또 유혜와 같은 용도로 비 오는 날에 신는 나무로 만든 나막신이 있다. 나막신은 나무신이 와전되어 나막신으로 불린 듯하다. 목극木屐 또는 굽격지라고 일컬어 남녀가 비가 올 때 신었다. 나막신에 있는 굽은 흙이나 빗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굽이 없는 것도 있었다. 나막신은 비 오는 날은 물론 맑은 날에도 종종 신었으며, 남녀노소 혹은 신분에 따라 특별한 제한 없이 신었다. 하지만 나막신을 신을 때도 법도가 있어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나막신을 신을 때 지켜야 할 도리가 엄중했다. 나막신을 신고 소리 내어 걷는 것을 거만하다고 여겨 천인이나 젊은이는 양반이나 어른 앞에서 감히 나막신을 착용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가난한 선비들은 마른날에도 나막신을 신어 굽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남산골 딸각발이'라는 별칭이 생겨나기도 했다.

나막신의 형태는 굽이 있게 깎거나 굽이 없는 형태 두 가지이고, 신코와 신울에 태사무늬를 파고 검은 채색을 한 것도 있다. 불에 달군 인두로 섬세한 선으로 무



유혜 | 길이 28.5 너비 7.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늬를 넣기도 하였다. 특히 어린아이가 신었던 나막신을 '채극采屐'이라고 하였는데, 채극은 신발에 색을 칠한 신을 말한다. 제주도에서는 남자의 나막신을 '남신'으로 불렀는데, 크고 두꺼우며 앞뒤의 굽이 평행하다. 여자의 나막신은 굽이 팔八 자형으로 벌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덕혜옹주가 신었던 나막신은 양 볼에 채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용된 재료는 주로 소나무, 박달나무, 피나무, 배나무, 행자나무, 오동나무 등인데, 오동나무로 만든 것을 최상품으로 생각하였다.

참고문헌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전통신의 조형미와 제작 실태에 관한 연구(조선희, 한복문화8-3, 한복문화학회, 2005),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화혜장(조선희, 민속원, 2007).

필자 조선희(趙鮮姬)

융
絨

정의 짧은 파일이 있는 기모직물.

내용 융絨은 방모직물의 일종으로 모毛나 견絹, 면棉 등으로 직물·편물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에 짧은 털이 일어나도록 만든 직물이다. 평직이나 능직으로 제직한 후 기모기로 털이 일어나도록 가공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특징이다.

1915년에 기록된 「조선상염직물명칭유휘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에는 융을 두꺼운 모직물 및 유사품에 쓰이며 법융法絨과 두융斗絨같다고 한다. 또한 한라漢羅도 융인데 면棉프란넬flannel이라고도 하며, 법융의 법자는 프랑스의 의미를 표명하면서도 일본산같이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어 당시의 융은 모와 면을 소재로 사용하여 만든 직물이며 법융, 두융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23년도에는 외투나 두루마기용 옷감으로 독일에서 수입한 순흑색純黑色, 흑다색黑茶色, 상강색霜降色 등의 융이 사용되기도 했다. 융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겉옷뿐만 아니라 배냇저고리, 잠옷, 실내복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융은 직물의 표면에 마치 솜털과 같이 짧은 털이 있는 기모직물로 부드럽고 따뜻하다. 또한 가격도 비싼 편은 아니라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 침구류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면업사(朝鮮綿絲布商聯合會, 1929), 朝鮮向染織物名稱類彙(吉永彦太郎,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5).

필자 박윤미(朴允美)

융복
戎服

정의 군사軍事에 입었던 복식으로 비상시나 전쟁 시, 왕 행차에 시위할 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할 때 착용하였던 옷.

역사 '융戎'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793년(정조 17)과 1834년(순조 34),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 '융戎'은 '군軍'과 같다고 하여 융복은 군軍과 관계된 복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융복은 의례용 복식의 의미가 크다. 융복은 의례용 복식으로 조선 전全 시기에 걸쳐 왕의 행차나 시위侍衛 시, 의례를 행할 때에 착용하였다. 이처럼 융복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왕과 문무백관들은 관복冠服 안에 받쳐 입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전투복의 기능이 강해졌다. 그러나 전쟁 이후 전투복의 기능은 약화되고 전립戰笠, 동다리[狹袖], 전복戰服으로 구성된 새로운 군복이 등장하면서 의례용 의복으로 착용하였다. 따라서 융복은 융사戎事에 입었던 복식으로 비상시나 전쟁 시 착용한 복식이면서 왕의 행차나 수행하거나 의례에 착용하는 의례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용 융복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세종 대부터 시작하여 중종 대에 많으며, 고종 대까지 나타난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능에 갈 때는 왕과 문무백관이 모두 융복을 착용하였다.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당상 3품 이상 융복으로 남색 철릭에 자립紫笠을 착용하고 패영貝纓(산호, 호박, 밀화 대모, 수정 따위


① 융복


② 융복닙은모양

융복 | ① 권오창, ②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를 꿰어 만든 갓끈)을 장식하라 하였으며, 당하관은 청현색青玄色 철릭을 입거나 교외로 왕의 거둥 시에는 홍색 철릭을 착용하고 흑립에 패영을 장식한다고 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왕이 철릭을 착용하면 조신들은 융복을 착용한다."라고 하였으며, "당상관의 융복은 자립을 칠사립漆絲笠으로 하고 패영은 폐지하라."라고 하였다.

융복의 갖춤에 관해서는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9권 공복公服에 대한 의儀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융복은 붉은 말총 모자에 호수虎鬚(융복을 입을 때 붉은 갓의 네 귀에 꾸밈새로 꽂던 흰 새털)와 공작의 머리털과 옆털로 꾸미고 밀화영蜜花纓을 달고, 남색철릭[藍紗綴翼]을 입으며 붉은 실띠[紅絛帶]와 선을 가득하게 두른 호항護項과 활집[弓韔]·화살통·패검佩劍·등편籐鞭·수혜자水鞋子·팔찌[臂韝]·깍지[角指] 등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융복은 입笠, 철릭[帖裏], 광다회廣多繪, 목화木靴로 구성되어 있다. 입은 주립과 흑립이 있다. 주립은 당상관이 썼으며 주립 위에 호수를 전후좌우에 꽂고, 정자頂子를 장식하고 패영을 드리웠다. 흑립은 당하관이 착용하였는데 갓의 입식笠飾에 대군大君은 금金을 사용하고, 당상관 이상은 은銀을 사용하였다. 철릭은 상의에 주름잡은 하의를 연결한 옷으로, 곧은 깃에 소매는 분리되지 않거나 한쪽 또는 양쪽을 분리할 수 있다.

광다회는 납작하면서 폭이 넓은 다회多繪(여러 모양으로 짠 끈목)를 의미한다. 기록에 철릭과 함께 있는 것은 홍사대紅紗帶·홍조대紅絛帶·다회·광다회가 있다. 대부분이 홍색과 대홍색이나, 귀유적내관歸遊赤內官(내시가 되기 전의 어린 내관)의 다회는 자적색紫的色과 초록색임을 알 수 있다. 목화는 후대에 나온 명칭이나 일반적으로 신발의 높이가 발목까지 온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철릭과 함께 착용하는 신은 문헌에서 살펴보면 수화자水靴子·수화水靴·수혜자·유혜자油鞋子 등이 있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茶山詩文集,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 철릭(금종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첩리소고(강순제, 성심여자대학교논문집 12, 성심여자대학교, 1981),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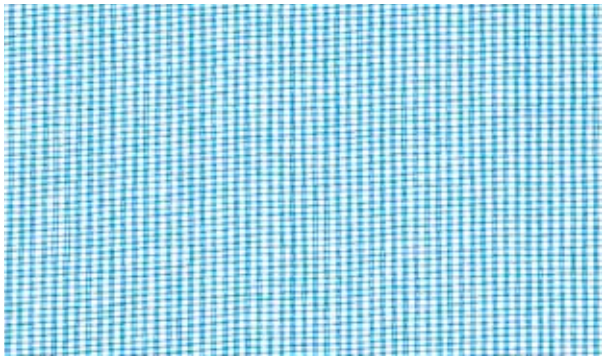
필자 금종숙(琴鍾淑)

은조사
銀條紗

정의 무늬가 없는 얇고 반투명한 견직물의 일종.

내용 은조사銀條紗의 어원은 중국의 '은수사銀垂絲'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은銀'이란 그 색과 윤택이 하얗게 반짝거리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직물의 특성이 가볍고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늘어뜨린 모양이 길게 드리운 실인 '수사垂絲'와 같다는 의미의 명칭으로 추측된다. 은조사는 '은사사銀絲紗'라고도 하는데, 1409년(태종 9)에 중국에서 보낸 예물 중에 은사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은조사라는 명칭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 『상방정례尙方定例』 등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한양가>(1844)와 1882년 이전의 『탁지준절度支準折』등 19세기 문헌에서도 기록을 찾기 어렵다. 1915년 당시에 사용된 직물을 정리한 『조선휘보朝鮮彙報』에 은조사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널리 사용된 직물로 보인다.

각종 「발기」에 나타난 사직물의 용도를 보면 은조사는 갑사보다는 사용 빈도가 적지만 생고사나 숙고사보다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은조사는 쾌자·주의·도포 등의 남성 겉옷과 속바지·너른



은조사 | 국립민속박물관

바지·단니의·소고의 등의 여성 속옷용 옷감으로 사용되었다. 색상도 분홍·진분홍·두록·일남·남·양남 등 다양한 색으로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은조사는 경사經絲는 생사生紗, 위사緯絲는 정련사精練紗를 사용하여 제직하였으며, 인접한 두 올의 경사가 교차된 익직물搦織物이다. 인접한 경사를 꼬아 주면서 위사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꼬임의 좌우에는 방형의 투공透孔이 생기므로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마치 평직으로 성글게 짠 직물같이 보인다. 또한 은조사는 견직물이지만 가는 생사를 두 올씩 꼬아 주어 제직하였으므로 광택이 거의 없다. 무늬가 없으며 얇고 가볍고 비쳐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어 여름옷의 옷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은조사는 무늬가 없는 대신에 두 장을 겹쳐 바느질하면 올과 올이 서로 겹쳐 물결처럼 어른거리는 무아레moire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여름철 치마저고리를 은조사 두 겹을 겹쳐 깨끼바느질(곱솔바느질)로 만들어 입으면 시원하고도 청아한 아름다움을 보여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촉감이 까슬까슬하고 빳빳하여 홑으로 의복을 짓거나 안감으로도 많이 쓰였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소장 남자 적삼(19세기 말~20세기 초) 중 은조사를 홑으로 바느질하였고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 유물이 있다. 현대 한복용 옷감 시장에서도 은조사는 견사 또는 폴리에사테르사로 제직하여 많이 판매되는데 겉감용보다는 주로 안감용으로 많이 쓰인다.

참고문헌 度支準折, 朝鮮彙報, 발기,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조효숙(趙孝淑)

을미의제개혁
乙未衣制改革

정의 을미년인 1895년(고종 32)에 있었던 의복 간소화 개혁.

내용 '의제개혁'은 '복식제도에 관한 개혁'이라 풀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역사상 존재한 복식제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갑신년인 1884년(고종 21), 갑오년인 1894년(고종 31), 을미년인 1895년에 단행된 근대적 개혁을 지칭한다. 이 시기 의제개혁의 저변에는 근대 서구문물의 유입과 채택이라는 기조가 깔려 있고, 이 점이 이전의 복식제도 개혁과 차별화된다.

을미년의 의제개혁은 3월 29일 반포된 칙령 제67호, 8월 10일 반포된 '조신朝臣 이하 복장식', 11월 15일의 단발령斷髮令으로 이어진다. 이 외,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과 4월 19일 칙령 제81호 '경무사 이하 복제警務使以下服制'가 반포되어 무관복武官服과 경관복警官服이 처음으로 완전한 서구식으로 바뀐다.

먼저, 3월 29일에 아래의 칙령 제67호가 반포된다.

> "이제부터 공사公私 예복에서 답호褡護를 없애고, 궐에 들어올 때만 모帽, 화靴, 실띠[絲帶]를 착용하고, 두루마기[周衣]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 종류로 하라."

공사 예복에서 답호를 없앤다는 말은, 1894년 12월에 반포된 칙령 제17호에서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通常禮服'으로 규정한 사모紗帽, 두루마기, 답호, 화에서 답호를 제외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사모, 검은색 두루마기, 실띠, 화가 관원이 궐에 들어갈 때의 차림이 된다. 또 관원과 일반 백성의 옷에 차별이 없어지고 검은색 두루마기가 일반화된다. 4월 7일에 반포된 '내부고시'에 의하면, 이때 검은색 두루마기로 일원화한 것은 대군주大君主(고종)가 관민官民을 하나로 보는 성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어 8월 10일에는 아래의 '조신이하복장식朝臣以下服章式'이 반포된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조정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奉勅하여 반포하였다.

1.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은 이전대로 한다.
1.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 사모, 품대品帶, 화靴의 차림으로 한다. 모든 동가動駕 때, 경절慶節, 문안, 예의로 접견할 때에 착용한다.
1. 소례복小禮服은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 사모, 속대束帶, 화의 차림으로 한다. 대례복을 입을 때에도 간혹 쓰고, 무시無時로 진현進見할 때 입는다.
1. 통상복색通常服色은 편리한 대로 두루마기[周衣], 답호, 사대絲帶의 차림으로 한다. 내관內官과 외관外官이 업무에 들 때에 구애 없이 입으며, 진현할 때에는 입지 않는다.

내용에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원의 복식을 조복·제복·대례복·소례복·통상복색의 5종류로 구분한다. 조복과 제복은 기존의 양관복梁冠服 제도를 유지한다. 양관·상의上衣·하상下裳·중단中單·대대大帶·혁대革帶·폐슬蔽膝·패옥佩玉·후수後綬·홀笏·신 등으로 구성되고, 제복은 여기에 방심곡령方心曲領을 더하는 것이다. 그 외 '공복'과 '상복'이라는 구별 대신 대례복·소례복·통상복색으로 착용 상황을 구분한 것이다.

둘째, 두루마기에 답호를 덧입는 '통상복색'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의제에서는 대례복·소례복·통상복색의 착용 상황을 제시하고, 그중 통상복색은 "내외관

전통식 관복 간소화 과정(1884~1899년)

연대	복장종류	착용상황	복식구성	비고
1884.윤 5.24 甲申	관복	대소 조의朝儀, 진견進見, 궐 내외 공적인 일	흉배 부착 흑단령(사모·품대·화)	착수. 착수.
		평상시	흉배 미부착 흑단령(사모·품대·화)	
1884.6.3 甲申	사복	·	착수의, 전복(답호)	
1894.6.28 甲午	폐현의복	·	사모·장복盤領窄袖·품대·화	
	연거사복	·	칠립·답호·사대	
1894.12.16 甲午 칙령17호	대례복	·	흑단령(사모·품대·화)	1895년 1월부터 시행.
	통상례복	진궁	사모·주의·답호·화	1895년 1월부터 시행.
1895.3.29 乙未	공사예복	·	답호 제외 (사모·주의·화 차림이 됨)	
1895.8.10 乙未	조복	·	양관제(오량~일량)	· 관원의 업무복 외에 대례복과 소례복 별도로 규정. · 대례복과 소례복을 통용하여 1899년 대례복 폐지의 단초 마련. · '통상복색'이 출근하여 업무를 볼 때임을 명확히 함. · 품대와 별도로 '속대' 등장. **· 상복으로서의 단령 폐지.**
	제복	·	양관제(오량~일량)	
	대례복	동가·경절·문안·예접	사모·흑단령·품대·화	
	소례복	무시로 진견 혹 대례복 대신	사모·흑반령착수포·속대·화	
	통상복색	출근[仕進]	주의·답호·사대(사모)	
대한제국 초기 (1897.10~1899)	조복	조하	양관제(칠량~일량)	· 조복, 제복에 황제국복제 적용. · 대례복, 소례복은 1895년 제도 유지. · 통상복색은 언급 없으나 유지했을 것임.
	제복	황제를 따라 천지·종묘·사직 등에 제사할 때	양관제(칠량~일량)	
	대례복	배하·문안·예접	오사모·흉배 부착 흑단령(품대·화)	
	소례복	진견	오사모·흑단령착수포·품속대(화)	
1899.8.3 乙亥	대례복	조근·참반·배종	소례복+흉배+품대 (오사모·흉배 부착 착수반령포·품대·화)	**· 예복에서 광수 단령 폐지.**
	소례복	조정에 있을 때	(오사모·흉배 미부착 착수반령포·품속대·화)	

* 괄호 안의 내용은 제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마땅히 일습을 이루었을 복식임.

사진시內外官仕進時", 즉 "내관과 외관이 업무에 들 때"라 하였다. 관원들이 평소 관청에 출근해 업무를 볼 때 입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차림을 보면 두루마기·답호·실띠로 구성되고, 관모는 1894년 12월 칙령 17호의 통상예복과 1895년 3월의 규정을 참조하면 여기에 사모를 썼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로써 기존에 단령을 입던 관원의 상복常服이 두루마기와 답호를 입는 통상복색으로 바뀌어, 관원의 일상 업무복에서 단령이 사라지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신라시대 당唐에서 받아들여 착용하기 시작한 관복으로서의 단령이 유구한 역사를 뒤로 하고 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또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와 답호를 입도록 한 것은 갑오년인 1894년 6월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의안議案의 '연거燕居할 때의 사복私服'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구성이 유지되는 것도 특징적이다. 근대 사진자료를 통해 이러한 차림이 실제 착용된 것도 확인된다.

셋째, 대례복 및 통상복색과 별도로 소례복이 신규 제정된다. 소례복은 궁에 들어가 왕을 알현할 때 입으므로, 규정을 따른다면 통상복색으로 업무를 보다가 왕을 알현할 일이 있으면 소례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을 것이다. 또 소례복은 대례복 대신 입는다고도 했으므로, 조금 더 격식 있는 상황에 착용되기도 하였다. 이 규정은 1899년(고종 36)에 대례복을 없애고 소례복으로 통용하는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례복은 사모·흑단령·품대·화靴의 차림이며, 소례복은 사모·반령에 좁은 소매인 흑색 포[黑盤領窄袖袍]·속대束帶·화의 차림이다. 위 대례복 규정에서 흉배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대한제국시기 전례서인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 "을미년에 대례복을 정했다."라고 하면서 '대례복' 도식 뒤에 '흉배' 도식을 함께 그렸으므로 이때 흉배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대례복의 품대와 별도로 소례복에 두르는 속대가 등장한다. 정리하면 대례복과 소례복의 차이는 단령과 반령의 형태, 소매 너비(광수와 착수), 흉배의 유무, 품대와 속대의 구분 등에 있다. 대례복은 광수의 단령에 흉배를 부착한 후 품대를 두르고, 소례복은 착수의 반령에 흉배를 부착하지 않고 속대를 두른다. 단령과 반령의 구별은 현재 복식사학계에서 명확한 의견이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반령이 단령에 비해 깃의 파임이 적고 좁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깃을 반령으로 규정한 소례복 유물에서 깃 파임이 큰 유물이 있어 이 견해를 그대로 따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섯째, 1895년 3월에 공사 예복에서 답호를 제외한다고 했으나 여기서 다시 부활한다. 을미의제개혁이 발표된 열흘 후인 8월 20일(양력 10월 8일), 명성황후가 시해된다. 이어 11월 15일에 고종은 단발령斷髮令을 내리면서 먼저 머리를 깎아 신하와 백성들이 따르게 하였고, 같은 날 내부고시內部告示로 서구복식을 채용해도 무방함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조선 말기 전통복식의 간소화 진행과 더불어 서구복식의 채용이 공인되기에 이른다.



쌍학흉배 부착 광수 흑단령 대례복 | 길이 129 품 52 화장 91



흑반령착수포 소례복 | 길이 127 품 50 화장 79

대례복·소례복 | 고려대학교박물관

한편, 한국 복식에서 관원의 복제服制가 완전한 서구식이 된 것은 경관과 무관의 복식에서 먼저 일어난다. 4월 9일의 '육군복장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패착통칙佩着通則, 제3장 정장正裝, 제4장 군장軍葬, 제5장 예장禮裝과 부칙附則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육군 군인의 복장은 정장·군장·예장·상장常裝의 네 종류로 나뉘었고, 각 차림의 세부 형태는 서구식이었다. 또 19일의 '경무사 이하 복제'는 경무청警務廳에 속한 경무사·경무관(총무국장)·경무관의 상모常帽·상의常衣·하의夏衣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형태는 역시 서양식이다.

특징 및 의의 을미의제개혁은 문관은 기존 전통식 복제를 따르고, 무관(군인)과 경관은 서구식 복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관의 전통식 복제에서 조복과 제복은 기존의 분류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공복公服과 상복常服으로 분류되던 옷은 대례복·소례복·통상예복으로 분류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 옷의 구성은 대례복, 소례복은 기존대로 사모에 둥근 깃을 단 옷을 입되 둥근 깃의 세부 형태, 소매의 너비, 흉배의 유무, 대의 종류에 차이를 둔다. 구성품 중 허리띠에서 '속대'가 처음 등장한다. 통상예복에도 사모를 쓰되, 옷은 단령이나 반령 대신 두루마기와 답호를 입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때의 통상예복이 관원이 업무를 볼 때 입는 옷이라고 명시한 점을 보면, 신라 이후 관원의 일상업무복으로 둥근 깃 옷(단령)을 입던 전통이 폐지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일상복에서는 관원과 일반 백성의 옷에 차별이 없어지고 검은색 두루마기가 일반화된다. 단발령 반포와 고종의 단발 시행은 강한 사회적 반발을 일으키지만, 결국 단발이 일반화되는 길을 열게 된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舊韓國官報, 法規類編, 개항기 전통식 소례복 연구(이경미, 복식64-4, 한국복식학회, 2014),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최규순, 정신문화연구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대한제국 남성예복-대한제국시대 관원의 예복(최규순,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12), 우리나라 문관의 전통식 관복 착용 소멸에 관한 소고(최연우·조상준, 한국복식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의관에서 패션으로(김도훈, 우리는 지난 백년동안 어떻게 살았을까1, 역사비평사, 1998).

필자 최연우(崔然宇)

이발소
理髮所

정의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

내용 1895년(고종 32) 내려진 단발령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근대 이용사理容史가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 생겨난 직업이 지금의 이발소 격인 '개화당 제조소'였다. 1895년 12월 30일 '위생에 이롭고 활동하기 편하다'는 명분과 함께 단발령斷髮令을 공포한 그 날 고종은 태자와 함께 단발을 했다. 농상공부 대신 정병하가 임금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내부 대신 유길준은 태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 이후 반발이 심하였으나 갑진개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크게 확산되었고 진보회의 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수만 회원에 단발을 단행하였는데 1871년 프랑스 '바라캉 마르' Bariquand et Mare 사社가 발명한 '바리캉'이 1905년 전후에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인들의 상권이었던 진고개(현재의 서울 충무로)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이발소가 생겨났다. 1885년 무렵 일본 상인들이 고관대작을 대상으로 이용업을 시작하였고 주로 명동 부근에 이용소가 있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 이발소는 1901년 유양호가 개업한 '동흥 이발소'였다. 개업과 동시에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까지도 알려져 서민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다. 그 후에 세종로 네거리 비각 모퉁이로 자리를 옮기고 '광화문 이발관'을 개업하였다. 유양호


이발용 소도구


교동이발관 | 인천 강화 | 2012

이발소 | 국립민속박물관

의 친척인 유강호가 '두남 이발관'을 개업하면서 고위 관직에 있는 손님들만 다닐 수 있는 고급 이발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보다 조금 늦게 개화사상과 신문화운동으로 조직된 방역회防役會의 안종호가 광화문 근처에 '태성 이발소'를 개설하였다. 1896년 안종호는 당하관 벼슬인 군수였으나, 황제의 전속 이발사로 발탁이 되면서 정3품 당상관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이후 1907년 8월 20일에 궁중에 이발소가 설치되었다. '동흥 이발소'와 '태성 이발소'의 개업은 1920년 종로에 생긴 최초의 미용실인 '경성 미용원'보다 20여 년 앞선 것이었다. 1905년에는 '최신 이발관'과 '중앙 이발관'이 문을 열었으며 두 손으로 돌리는 바리캉과 가위, 나무의자 한두 개를 놓고 영업을 하였다. 단발령 이후에 단발을 권장하는 정책은 이발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으며 영업 초기에는 세금도 없이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단발을 겁먹은 일반 대중은 이발소 옆을 피해 다녔으며 이발사를 천시하곤 하였으나 1905년 이용 영업을 알리는 광고도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이발소도 있었는데, 1904년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에 이발소 영업을 하였던 사람은 총 아홉 명이었다. 대구에는 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성과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였다. 따라서 경성과 같이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이발소가 더 많이 존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근대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조선 사람을 상대로 한 이발소가 1910년대 종로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제하의 신문에는 심심찮게 신여성이나 신남성이 등장하였고, 그들의 단발이나 장발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본격적으로 경성에 조선인이 이발 산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였다. 1915년부터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이발업 수가 증가하였고, 1920년대 말부터 등장하게 된 신지식인과 모던보이 등에 의해 이용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참고문헌 개항 100년 연표(신동아, 동아일보사, 1905),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김민정,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개화백경(이규태, 조선일보사, 1969), 식민지도시에 있어서 일본인 사회의 형성-1900년 무렵 부산과 대구의 경우(박현수, 인류학연구5,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1990),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오백 년 왕국의 종말(이이화, 한길사, 2015), 한국 머리카락 논란의 역사-단발령에서 노컷운동까지, 1895~2007(강준만, 인물과 사상113, 인물과사상사, 2007).

필자 김현경(金炫京)

이엄
耳掩

정의 조선시대 주로 상류층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쓴 쓰개의 총칭으로, 겉은 견직물, 안을 털가죽을 사용하여 머리에서 어깨까지 덮는 형태로 만든 방한모.

내용 이엄은 조선 초기부터 방한모로 사용되었으며 신분에 따라 재료가 달랐다. 문무백관은 조정의 허락이 있으면 10월 초부터 정월 말까지 사모 아래에 이엄을 착용할 수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당상관은 겉은 단段, 안은 초피貂皮를, 3품 이하 9품까지의 당하관은 초綃와 서피鼠皮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대전회통大典會通』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22년(1440) 1월 25일 기록을 보면, 공상工商과 천예賤隷의 이엄은 호피狐皮·이피狸皮·잡색雜色 모피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서민층에서도 신분에 맞지 않는 초피나 서피로 이엄을 사용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이엄의 재료는 사치 금제의 대상이 되었다. 『성종실록成宗實錄』 3년(1472) 1월 22일 예조에서 올린 사치 금제 조목 중에 서인 남자나 부녀들이 초피나 청서피靑鼠皮로 이엄을 만드는 것은 금하되, 여인의 서피는 허용하자는 기록이 있다. 또 성종 25년(1494) 1월에는 서피 이엄을 복예僕隷·하인이나 시전의 상인까지 쓰고 있으므로 금지하라고 하였다. 『명종실록明宗實錄』 8년(1553) 9월 18일에는 입자笠子를 쓸 때 당하관 및 사족의 이엄을 서피·일본산 산달피[倭山獺皮]로 만들고, 제학의 관원과 제색諸色의 군사·서얼·이서들은 적호피赤狐皮·국산 산달피[鄕山獺皮]로 만들었다. 공상工商·천예賤隷들은 산양피山羊皮·구피狗皮·묘피猫皮·지달피地獺皮·이피狸皮·토피兎皮 등으로 만들게 하였다. 이처럼 이엄은



이엄 | 길이 42 너비 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용한 방한모이지만, 점차 사치품으로 변모하였다. 여러 차례 금제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신분에 맞는 재료의 사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엄에 대한 사치는 재료뿐만 아니라 크기에서도 나타났다. 『중종실록中宗實錄』 9년(1514) 10월 25일 기록에서 이엄에 관해 지적하기를, "지금 상의원에서 하사하는 이엄은 그 제도가 매우 크고 그 비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신하들이 이를 본받아서 넓고 크게 하기를 다투어 힘씁니다. 옛날에는 귀만 가리었으나 지금은 머리까지 덮어씌우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7년(1574) 11월 1일의 기록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엄을 사치스럽고 큰 것을 좋아하여 상민도 오히려 2구의 피륙을 쓰고 여인의 모관은 거의 3구의 피륙을 쓰며, 이른바 대이엄大耳掩이란 것은 거의 5구의 피륙을 쓴다."라고 하였다. 또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별집別集 권13 정교전고政敎典故에서도 "이엄의 제도가 이미 매우 넓고 크며 두텁기 때문에 초피 4~5장, 서피 13~14장을 써야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엄은 초기에 귀만 가렸던 형태에서 점점 머리와 어깨를 감쌀 정도로 크기가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후의 문헌에는 이엄·휘항·풍차 등 다양한 방한모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귀를 가리는 형태에서 출발한 이엄은 후기로 갈수록 형태가 다양해지고 명칭도 세분화되었다. 조선 말의 사진을 보면 황제 이하 문무백관들이 관모 아래에 이엄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이엄은 조선시대 방한모의 총칭으로, 신분에 따라 재료의 차등이 있었다. 문무백관은 조관·제관·사모 아래에 받쳐 썼으며, 조정에서 하사품으로 받기도 하였고, 평상시 갓 아래에도 사용하였다. 후대로 갈수록 이엄의 크기가 커지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엄은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방한모로, 사신 또는 공덕을 쌓은 신하에게 내리는 중요한 하사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쓰개였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燃藜室記述, 五洲衍文長箋散稿, 조선시대 방한모에 관한 연구(김성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세시풍속사전-겨울(국립민속박물관, 2006).

필자 김지연(金知娟)

익선관
翼善冠

정의 조선시대 왕, 왕세자, 왕세손이 곤룡포를 입을 때 쓰는 관모.

역사 익선관翼善冠은 당나라 태종太宗이 제정한 것으로, 후주後周 때 착용하던 복두幞頭를 개조하여 만든 관모이다. 이후 익선관은 원일元日(새해)·동지冬至·삭망朔望(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등에 시사복視事服인 곤룡포袞龍袍와 함께 착용하였다. 명나라에서는 홍무년洪武年(1368~1398)에 오사절상건烏紗折上巾을 착용하였고 영락년永樂年(1403~1424)에는 오사절각향상건烏紗折角向上巾을 착용하였다. 절각향상의 형태는 복두의 양각을 위로 접어 올린 것과 같으나 익선관의 모부帽部 중앙에는 진보라색 끈을 2가닥으로 꼬아 붙이고 있어 장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왕의 상복常服으로 오사모烏紗帽를 착용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1444년(세종 26)에 이르러 사은사 유수강柳守剛이 칙서와 함께 관복으로 향조추사香皂皺紗로 된 익선관 1정頂과 옥대玉帶 1개, 포복袍服 3건을 가져오면서 익선관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왕세자의 익선관은 1450년(문종 즉위년)에 면복을 사여 받은 이후 착용하기 시작했다.

내용 익선관은 왕, 왕세자, 왕세손이 곤룡포를 입을 때 쓰는 관모이다. 익선관의 형태는 머리를 덮는 모체帽體가 이층으로 되어 있으며, 관모 뒤에 날개를 닮은 각 2개가 위를 향하도록 부착되어 있다. 『국조오례의보서례國朝五禮儀補序例』 도설을 보면 관은 모라帽羅로 싸고 양대각 뒤에 각각 소각을 붙여 위로 올린 형태인데, 이마에서 정수리까지를 감싸는 하부와 정수리 위에서 상투를 덮도록 되어 있는 상부를 서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전傳 고종 익선관'은 모체와 양각兩角이 모두 자색 비단으로 되어 있으며, 하부와 상부가 연결되는 부분의 중앙에 짙은 자색 견사를 굵게 감아 만든 선을 가로와 세로로 붙여 장식했다. 모정은 영조의 익선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양각의 가장자리를 철사처럼 단단한 것으로 형태를 잡아 고정하였다. 양대각과 양소각은 모두 가장자리를 검게 칠하여 모자 뒤에 부착된 직사각형 받침대에 꽂아 고정시켰다. 이 익선관은 모체의 내부 골격이 매우 단단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으며 여러 겹의 한지와 대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모체의 하단 선은 검은 칠을 해 마무리했는데, 전체적으로 지름 1㎝ 정도의 고른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위를 자적색 비단으로 덮었다. 이는 통풍이 잘 되게 하여 쾌적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태조, 영조, 고종, 순종의 어진을 통해 익선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물로는 고종의 것으로 전하는 익선관이 남아 있다. 상중喪中에는 백색을 썼다.

특징 및 의의 익선관은 왕, 왕세자, 왕세손이 곤룡포와 함께 착용하는 관모로 그 형태에는 차이가 없다. 익선翼善은 모체 뒤쪽에 달린 매미 날개 모양의 소각小角을 말한다. 익선은 안쪽에 높이 10㎝의 날개를 붙이고 그 위에 높이 15㎝의 날개를 이중으로 덧붙여 제작하였다. 모체의 중앙부에는 비단실을 굵게 꼬아 두 줄로 장식하였다. 내부 뒷면에는 보라색 견사로 꼬아둔 끈에 직경 약 2㎝의 대모가 달려 있다. 익선관에 사용하는 모피는 초피貂皮로 평안도 강계부에서 매년 상납上納하였는데 1562년(명종 17)에는 수량을 늘려 징수하였으므로 백성들의 피해가 컸다.

익선관은 면복과 같이 의례적으로 반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에서 자유롭게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익선관은 시대에 따라 모정의 높이나 뿔의 모양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어진에서 볼 수 있는 태조의 익선관은 모정이 둥글고 상부와 하부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으며 뿔이 작은 반면, 영조가 착용한 익선관은 모정이 높고 관 뒤에 있는 양 뿔도 상당히 넓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친왕의 익선관은 가죽과 말총에 옻칠을 하여 모체를 만든 뒤 그 위에 진한 감색 비단을 배접하여 제작하였는데, 진보라색, 흑색, 자주색 등 색깔에 차이가 있다.



영친왕 익선관 | 높이 22 가로 20.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익선관 | ① 어진박물관, ② 국립고궁박물관

참고문헌 관모연구4(강순제, 생활과학연구논집18-1,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6), 영친왕일가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2),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전 고종 익선관(박성실, 문화재대관-복식·자수, 문화재청, 2006), 조선왕조실록사전(encysillok.aks.ac.kr).

필자 이민주(李民周)

인견
人絹

정의 목재 펄프나 면 린터 등을 화학 약품에 녹여 방사

한 후 얻어진 긴 섬유로 만든 인조견artificial silk.

내용 인견(인견)은 목재 펄프나 면 린터 등 셀룰로오스를 원료로 한 인조 섬유를 말하며, 1884년 프랑스의 샤르도네Hilaire de Chardonnet가 질산셀룰로오스로부터 세계 최초의 인조 견사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면서 등장하였다. 누에에서 실이 나오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100% 레이온사로 제직한 재생 섬유 옷감이라서 '레이온'이라고도 한다.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샤르도네 비단'으로 출품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비스코스 레이온·폴리노직 레이온·고강력 레이온·라이오셀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다.

비스코스 레이온은 1891년 영국의 크로스C. F. Cross와 베번E. J. Bevan이 개발한 제품으로, 펄프를 알칼리성 용액에 처리하여 비스코스 용액을 만든 후 이를 방사하여 얻은 실로 만든 인조 섬유이다. 1904년에 공업화되어 본격적인 생산이 개시된 이래,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증가해 1970년대에만 약 300만 톤을 생산하고 세계 전체 섬유 생산량의 18%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합성 섬유의 발전과 제조 원료인 목재의 부족, 공해 문제 등으로 비스코스 레이온의 생산은 점차 줄어들었다. 습윤 상태에서 강도가 감소되는 점, 세탁에 의해 수축이 심한 점, 생산 과정 중 독성 물질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문제가 되어 비스코스 레이온은 생산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에 영국의 섬유 기업인 코틀즈Coutaulds 사에서 라이오셀Lyocell을 개발하여 1990년대 초부터 '텐셀Tencel'이라는 상호로 시판하였다. 라이오셀은 유칼립투스 나무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소재이다. 물에 젖어도 강도가 크게 저하되지 않아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징 및 의의 인견은 본견 실크가 가진 광택 및 촉감과 유사하나 가격이 저렴하고, 실크에 비해 세탁이 편리하고 관리가 쉬워 실크의 대체 옷감으로 사용된다. 무게가 가볍고 건조 시간이 짧으며 몸에 달라붙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어 여름철 옷감·안감·속옷·침구류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또 높은 온도에서 잘 견디고 천연 셀룰로오스 섬유에 비하여 흡습성이 큰 편이다. 수분을 흡수하면 강도와 초기 탄성률이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고습 강력 레이온·폴리노직 레이온·라이오셀 등도 있다. 특히 고습 강력 레이온 및 라이오셀은 습윤 강도가 우수하여 면에 비길 만하다. 내의류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면과 혼방하였을 때는 순면 제품보다 촉감이 좋고 외관이 뛰어나 면 섬유의 대용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단, 탄력과 복원력이 좋지 못해 구김이 잘 생기는 단점이 있으며, 햇빛에 약하고 내충성 및 항균성도 낮은 편이므로 햇빛에 오래 건조하면 황변하고 곰팡이의 침해에도 예민하여 미생물에 저항력이 강한 폴리노직 레이온 제품이 개발된 바 있다. 알칼리성 용액에서 크게 팽윤되고 강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물세탁을 할 때에는 약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고 심하게 비비거나 두드리는 일을 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또 나일론·폴리에스테르·아크릴 등 여러 가지 합성 섬유와의 혼방을 통해 일반 합성 섬유의 단점인 흡습성·촉감·대전성帶電性을 개선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 옷감 이야기103(강순제 외, 교문사, 2012), 피복재료학(김성련, 교문사, 2000).

필자 장현주(張賢珠)

인염 印染

정의 무늬를 새겨 넣는 형판型板에 안료를 발라 옷감에 찍는 방법.

내용 인염印染·引染은 목판 등에 무늬를 조각한 후 염료를 발라 직물에 찍어 바로 문양을 표현하는 일차적인 직접 문양 염색을 말한다. '판염block printing'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목판으로 무늬를 찍어 염색하는 것을 '인문印紋한다.'고 하였다. 목판 문양염은 고대 인쇄술과 인장술의 발달과 더불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우수한 사경기술과 목판인쇄술의 발달 과정에서 인염 기법도 창안되었다고 본다.

조선시대에는 '능화판菱花板'이라 불리는 조각된 목

각판을 사용하여 책표지에 날염하거나 무늬 부분을 도드라지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압판壓板으로 사용하였다. 문양이 새겨진 인문판 중 보자기에 무늬를 찍어 날염한 판은 '보판褓板'이라고 한다. 평평한 평면판으로 된 것과 홍두깨와 같이 둥글게 만든 원통형도 있다. 목판의 크기는 다양하며 무늬 부분을 양각하여 조각한다. 앞뒤로 서로 다른 문양을 조각하여 사용한 예도 있다.

특징 및 의의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궁중 대전 가례 시에 백정포白正布·백면포白綿布·백정포白鼎布 등에 인문印紋한 홑보자기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인염한 보자기 유물은 상당히 풍부하게 남아 전해지고 있다. 대개 면이나 마직물에다 먹으로 찍은 단일색의 인염 직물이 많다. 그중에 무명에 엷은 황색·홍색·자색 등을 염색을 하고 그 위에 먹으로 인염한 보자기를 '목필보木疋褓' 또는 '목화보木花褓'라고 하였다. 인염된 직물을 옷감으로 사용한 예는 드물며 보자기, 주머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양탄자 제직과 문양 염색 직물인 화포華布를 만들 때에도 문양의 외곽선을 조각된 목판에 먹을 발라 찍었다고 한다.

목각판의 문양은 기하문·동물문·식물문·문자문·화문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단일 소재만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교한 목각 기술과 다양하고 섬세한 문양 도안은 인염 공예의 우수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직물 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한국직물문양 이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6).

필자 조미숙(曺美淑)

자락치마

정의 말기를 달아서 허리나 가슴에 둘러 입는 치마.

내용 자락치마는 말기 부분인 치마허리와 길 부분인 치마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마폭에 허리말기를 달아서 허리나 가슴에 둘러 입는 치마이다. 말기 양끝에는 허리 또는 가슴부분에 둘러 맬 수 있도록 끈이 달려



덕혜옹주 별문숙고사 치마 | 길이 104 폭 266.3 허리 87.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있고, 말기 아래에는 저고리 아랫부분의 몸을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치마폭이 넓고 길게 달려 있다. 자락치마는 계절에 따라 홑치마·겹치마·솜치마로 만들었다. 치마 아랫단에 화려한 수를 놓거나 금박 또는 직금 장식을 하여 예복으로 사용한 스란, 대란치마도 자락치마의 형태이다.

자락치마는 뒷부분에서 겹쳐 여며지게 입는다. 자락치마를 입는 방법은 조선 후기 정치 세력과 관련이 있다.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의 대립구도 속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충청·전라·강원 지역의 노론가 여성들은 치마를 왼쪽으로 여미면서 '자락치마'라 불렀다. 한편, 경상도권의 소론가 여성들은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미고 '꼬리치마'라 불렀다. 북한지역과 제주도에서도 오른쪽으로 여몄는데, 북한지역에서는 '주리대치마', 함경도 방언으로는 '두룽치매'·'둘름치매', 제주도 방언으로는 '깍치매'·'깍치마'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자락치마를 입는 방법은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 일반 부녀자는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며 입었으며, 양반집 부녀자는 왼쪽으로 여며 입었다. 그러나 경상도 지방에서는 반대로 대부분 양반집 부녀자가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며 입었고, 치마를 왼쪽으로 여며 입으면 '상놈'이라고 하였다.

『경북 청도 민속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상북도 청도에서 왼자락치마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오른자락치마로만 입었다가 1960년대 이후 외부의 영향을 받아 왼자락치마로 입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역적 정치적 성향에 따른 치마 여밈 방향이 사라지고, 왼쪽으

로 여며 입는 것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통치마가 등장하면서 자락치마는 통치마보다 길었기 때문에 '긴치마'라고 불렸다. 자락치마는 일상 시에 치마를 걷어 올려 입는다고 해서 '걷을치마' 또는 '걷는치마'라고도 불렸다. 또한 자락치마는 잎치마·풀치마·풀치매·폭치마라고 하였다. 염상섭廉想涉의 「무화과」에서는 신식 교육을 받는 여학생에게 "학생 아씨라 긴치마, 게다가 풀치마를 입어 보셨나!"라고 하면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한복의 '풀치마(긴치마)'를 입었는지를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

조선시대 일반 서민들이 무명 8폭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면, 양반가 여성들은 12폭 이상으로 넓고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또한 무지기라는 속치마를 받쳐 입어 치마가 넓게 퍼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색이 겉치마를 통하여 은은하게 비치게 하기도 했다. 1472년 자락치마를 넓고 화려하게 입는 것을 단속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1472년 1월 제정한 규정에 따르면, 관직에 종사하는 양반집 부녀자들은 옷을 10새를 넘지 말며, 속치마는 12폭, 겉치마는 13폭을 넘지 말며, 서민층 여자들의 옷은 8~9새를 넘지 말며 속치마는 10폭을, 겉치마는 12폭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1925년 김숙당金淑堂이 쓴 한국 최초의 재봉 관련 책인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 자락치마의 치마폭에 대해서 나오는데 옥양목 폭으로 어른의 치마는 2폭 반, 모시 폭으로 어른의 치마는 7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맛자락을 가볍게 걷어 올리고 사뿐사뿐 걷는 모습은 우아하고 고상한 느낌을 준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에는 주인공 소녀를 현혹하는 자락치마(꼬리치마)의 물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나는 긴 머리꼬리에 금박을 한 다홍 댕기를 드리고 싶었고, 같은 빛깔의 꼬리치마를 버선코가 보일락 말락 하게 길게 입고 그 위에 자주 고름이 달린 노랑 저고리를 받쳐 입고 꽃신을 신고 싶었다."

특징 및 의의 자락치마는 저고리와 함께 갖추어 입는 하의로 여러 폭의 직물을 이어 주름을 잡아 허리말기에 이어붙인 형태이다. 허리말기 양쪽 끝에 달린 끈으로 묶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한다. 자락치마를 부르는 명칭은 지역, 겹쳐 여미는 방향, 길이, 모양에 따라서 꼬리치마·주리대치마·두룽치매·둘름치매·깍치매·깍치마·긴치마·걷을치마·걷는치마·잎치마·풀치마·풀치매·폭치마가 있다. 20세기 들어 착용의 편리함을 위해 일자 형태의 말기에 어깨 끈을 달거나 조끼허리 말기를 달기도 했다. 긴 치맛자락을 가볍게 걷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걸을 때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이 연출되는 자락치마는 오늘날 결혼 예식이나 국내외의 행사에 저고리와 함께 갖추어 입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참고문헌 朝鮮裁縫全書(金淑堂, 活文社, 1925), 경상북도 청도의 민속의생활(최경자,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완서 소설어사전(민충환, 백산출판사, 2003), 엄마의 말뚝(박완서, 문학사상사, 1981), 우리말 우리문화(박갑수, 역락, 2014), 우리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무화과(염상섭, 매일신보사, 1931~1932), 조선향토대백과(평화문제연구소, 200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이민정(李旼靜)

자미사
紫微紗

정의 무늬가 있는 얇고 부드러운 견직물.

내용 '자미사紫微紗'라는 명칭은 자미화무늬가 있는 직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 의하면 자미화는 '백일홍'을 가리킨다. 자미사에 대해서는 『순종실록純宗實錄』이나 「발기」와 같은 조선 말기의 문헌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1915년에 출간된 『조선휘보朝鮮彙報』에도 자미사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그 역사가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미사는 현대에 즐겨 사용되고 있는 전통 직물



자미사 | 국립민속박물관

명칭의 하나이다. 자미사와 유사한 조직의 견직물을 조선시대에는 '화문주花紋紬'라고 하였다.

자미사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생명주실을 잿물에 삶아 세리신sericin이 제거된 정련사精練紗를 경사經絲와 위사緯絲에 사용하였다. 자미사의 조직은 평직으로 바탕을 이루고, 무늬는 능직이나 수자직, 익조직을 혼용으로 사용하였다. 최근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미사는 평직 바탕에 무늬도 평직이며, 무늬의 가장자리만 경사 두 올을 꼬아 주는 익조직으로 테를 둘러주어 무늬를 표현한 것도 많고, 익조직을 아예 쓰지 않은 것도 있다.

일반적인 조선시대 갑사·생고사·은조사 등의 사紗직물에 비하여 익조직이 조금만 사용되었으므로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효과도 적다. 자미사의 무늬는 옷감 전체에 크지 않은 꽃무늬가 드문드문 흩어져 배열되었으며, 작은 꽃무늬가 촘촘하게 배열된 국사菊紗와 구분된다. 자미사는 정련사를 사용하였으므로 질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은은하여 고상한 멋이 난다. 또 무늬가 아름답고, 걸어 다닐 때 사각사각 비단 소리가 나는 등 운치가 있으므로 현대 한복용 옷감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영친왕 일가의 솜바지·풍차바지·쾌자 외에도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이구왕자의 풍차바지 등의 유물이 자미사와 같은 조직이지만 그 당시에 자미사의 기록이 없으므로 '무늬가 있는 주'라는 뜻의 화문주 일종으로 보았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자미사는 기본적으로 숙고사熟庫紗나 국사와 조직법 등이 유사하나 무늬의 표현이 다른 것으로 생각되며, 무늬가 드문드문한 자미사가 덜 비쳐보인다. 봄·가을의 여자 치마저고리, 남자 바지저고리 용도로 많이 쓰이며, 간혹 겨울 한복의 옷감으로 쓰일 때는 자미사 안에 솜을 넣어 두텁게 지어 입기도 한다. 근래에는 견사 이외에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자미사도 많이 생산한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純宗實錄, 朝鮮彙報, 발기.

필자 조효숙(趙孝淑)

자연산수무늬

정의 구름·물결·산 등의 자연물을 대상으로 도안한 무늬.

내용 자연산수무늬[自然山水紋]는 구름이 대표적이며 그 이외에 물결·산·바위 등이 있다. 구름은 하늘과 자장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매우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경외의 대상이었다. 14세기 고려시대 불복장 직물에서 구름무늬를 볼 수 있다. 1346년 장곡사의 불복장 직물에는 머리가 영지버섯 같은 모습을 한 영지운靈芝雲이 작은 새와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문수사 불복장 직물에서는 한 개의 꼬리에서 구름머리가 좌우로 점점 솟아올라 날아가는 듯한 구름[飛雲]을 볼 수 있다. 구름무늬가 표현된 조선시대 출토복식은 현재 발견된 것 중 15세기에 제작된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 주로 남성의 단령·답호·직령·철릭·중치막 등의 겉옷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관복 단령에는 단령 착용이 폐지된 1900년까지 구름무늬가 꾸준하게 사용되어 관료주의 사회에서의 높은 신분을 나타냈다. 그뿐 아니라 여성의 원삼·저고리·치마 등에도 구름무늬 비단이 사용된 것이 종종 확인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등에도 남녀의 복식에 구름무늬 비단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성별의 제한 없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구름무늬에 대한 명칭은 15세기까지의 기록에는 '골타운骨朶雲', 보배무늬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팔보운八寶雲', '팔보골타운八寶骨朶雲', '골타운감팔보骨朶雲嵌八寶'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운문雲紋'으로 기록하고 있어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골타운감팔보에 등장하는 '감팔보'는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 '八寶낀 문'으로 언해되어 있는데, 이에 '감嵌'을 '끼워 넣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주 무늬인 구름무늬 사이에 보조 무늬인 여덟 가지 보배무늬를 함께 표현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골타'는 몽둥이 한 쪽 끝이 마늘 대가리 같은 모양을 한 고대의 무기인데, 구름머리와 모양이 유사하여 붙은 이름이다. 보배무늬는 직물이나 각종 생활 기물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장식


① 영지운무늬 도식 | 14세기


② 구름보배무늬 | 16세기


③ 구름무늬 | 17세기


④ 권자형 구름무늬 도식 | 17세기


⑤ 산수무늬 | 19세기

자연산수무늬 | ① 장곡사 철조약사불 복장 직물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평양 이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③ 여흥 민씨 묘 출토 관 덮개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④ 여흥 민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⑤ 흉배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무늬로 사용한 것인데, 직물에 나타나는 보배무늬는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을 도안한 잡보문雜寶紋, 불교에서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여덟 가지 물건을 도안화한 팔길상문八吉祥紋, 도교의 여덟 신선이 지니고 있는 물건을 도안화한 암팔선문暗八仙紋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조선 전기의 보배무늬는 주로 잡보문으로 구름무늬 사이에 작게 표현되었지만, 17세기 이후로는 점점 팔길상문과 암팔선문으로 자주 나타나면서 규모가 커졌다. 또한 이 세 종류의 보배무늬를 섞어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구름무늬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대개 한쪽 끝이 말린 구름 네 개가 모인 사합여의형四合如意形 구름머리, 좌우 또는 한쪽에만 붙은 구름꼬리, 구름머리와 구름머리를 연결하는 구름선으로 이루어졌다. 구름무늬는 구름선을 따라 ㄷ자 또는 사선으로 계속 배열하여 옷감 전체를 가득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름선 없이 구름머리와 구름꼬리 넷으로만 이루어진 卍자 모양 구름이 다른 구름과 이어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반복되기도 하였다. 구름무늬는 시대마다 약간씩 변형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구름머리가 크고 구름선이 짧게 표현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구름선과 구름꼬리가 길어지고 구름머리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조선 말기에 들어서는 구름머리 형태가 단순해지면서 구름이 실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구름머리에서 구름선이 떨어져 나가 흩어지게 도안되기도 하는 등 구름무늬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중 ㄷ자 배열은 17세기 이전의 자료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그 외에 구름선과 구름꼬리 없이 구름머리로만 표현된 여의운如意雲이 있으며, 용·봉황 등 다른 무늬들과 조합을 이루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물결무늬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도안한 것으로 한자로는 수파문水波紋 또는 수파랑水波浪이라고 한다.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 모습을 따 도안되었는데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솟구치는 파도 모양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문수사에서 발견된 1346년의 고려시대 불복장 직물에는 잔잔한 물결과 물고기 꼬리를 한 어룡魚龍이 함께 반복되었다. 조선시대의 물결무늬는 직물 바탕 전체에 반복되어 기하학적으로 표현되거나, 관리의 관복 장식인 흉배에서 물결(수파)·바위·산 등과 함께 조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언충李彦忠(1524~1582)의 묘에서 출토된 답호와 권우權堣(1610~1675) 묘에서 출토된 17세기 조복의 동정 감에 물결무늬가 지그재그로 표현되었다. 최원립崔元立(1618~1690)의 묘에서 출토된 17세기 말 전복에는 마치 빙판 위에 균열이 간 것처럼 도안한 빙렬氷裂무늬 사이에 꽃송이를 엇갈리게 반복 배열하였다. 이러한 빙렬무늬는 겨울을 상징하는 매화나 대나무를 함께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선 말기까지도 꾸준하게 유행하여 도자기나 궁궐의 담 장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산과 물의 도안은 수산복해壽山福海라고 하여 장수와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중 물결은 '밀물 조潮'

자가 '아침 조朝' 자와 발음이 같다 하여 조정朝廷을 상징하고, 그런 이유에서 관복의 흉배를 물결무늬로 장식했다고도 한다. 물결과 함께 표현된 바위에는 오랜 세월 변치 않는다고 하여 장수의 의미가 있으며, 비바람을 가리지 않고 말없이 의연한 자태를 지닌다 하여 군자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또, 산은 하늘과 가까우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숭배와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인천 석남동에서 출토된 15세기 말 대금형 상의의 흉배에는 곡선으로 표현된 물결 중심에 삼산이 있으며, 좌우에는 구멍이 있는 바위가 있다. 연안 김씨 묘에서 출토된 16세기 후반의 단령형 원삼에는 흉배 하단에 깔린 여의형 구름 위로 중심과 좌우에는 삼산이, 그 사이에는 물결이 표현되었다. 심익창沈益昌(1652~1725)의 묘에서 출토된 18세기 단령의 흉배에는 중심에 구멍이 있는 바위와 좌우로 삼산이 있으며, 그 사이에 물결이 있다. 19세기의 단학흉배 중심에는 바위가 있는데, 구멍 위치에 보배무늬가 있으며 좌우로는 삼산이, 그 사이에 무지개 모양의 물결무늬가 배치되어 있다. 각 시대마다 장식 기법, 구성과 형태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왕이 입는 면복의 겉옷인 장복章服에는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 오악五嶽을 장식했는데, 양어깨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용을, 등 중심에는 땅을 상징하는 산을 그려 천하를 진정하는 통솔력을 표현하였다.

특징 및 의의 직물 무늬로 사용된 자연산수무늬로는 구름무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남녀 복식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품목에서 나타나다가 후기로 갈수록 남성의 복식에 주로 나타났다. 산·바위·물결무늬는 주로 흉배, 활옷, 방석 등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표현한 회화풍의 구도에서 볼 수 있으나, 18세기 이후로는 관복용 단령의 무늬 외에 구름무늬의 사용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인다.

참고문헌 우리나라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의문의 조선-무늬(민속원·경기도박물관, 2016), 중국미술상징사전(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섭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한국직물문양 이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006).

필자 정미숙(鄭美淑)

자초
紫草

정의 자초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자색紫色을 물들이는 대표적인 염료.

내용 자초의 학명은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아무르 지방에 널리 분포하고 산야나 초원에 자생한다. '지치', '지초'라고도 하며 강원도에서는 '주치'라고도 불린다. 자초의 뿌리를 '자근紫根'이라 하는데 이것을 염색에 이용한다. 자초 풀의 키는 30~60㎝ 정도이고 뿌리는 적자색으로 굵다. 뿌리의 속껍질에 여러 종류의 시코닌shikonin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자근을 잘라보면 뿌리 가운데에도 색소가 있는데, 매화 반점 모양이 있는 것을 최고품으로 인정한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우리나라 청풍에서 생산된 것을 으뜸이라고 하였다.

송대宋代의 『계림지鷄林誌』에는 "고려 사람은 붉은빛과 보랏빛 물들이기를 묘하게 했고, 자적빛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쓰이는 자초는 줄기가 큰 것은 목단 뿌리와 같았고, 이것을 찧어 비단에 물들이면 색이 매우 선명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초에 의한 자색 염색술이 우수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염색법은 『규합총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상방정례尙方定例』, 『동의보감東醫寶鑑』,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에 소개되어 있다. 자초는 의복의 염색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약과나 진도의 특산주인 홍주와 같이 술의 착색에도 사용되었고, 초를 물들일 때도 사용하였다. 1749년(영조 25) 영조는 옹주의 혼인 때 자초로 물들인 화촉을 사용하라는 어명을 내리기도 했다.

전통적인 자초 염색법은 『규합총서』에 따르면 생자근이나 자초를 말린 것을 사용하되, 말린 것은 물에 담가 불렸다가 염액을 추출하였다. 자근을 찧을 때 겉가루와 속가루를 따로 받아 사용한다. 겉가루와 속가루를 분리하여 체로 친 다음 미세한 분말만을 모아 시루떡 반죽할 때처럼 물을 부어 잘 이겨낸 후 이것을 단물에 풀어 하룻밤 동안 색소를 우려낸 다음 염색에 사용한다. 전통적인 자초 염색의 전 단계는 염색할 천에 미리 동백나무 잿물에 수차례 담가 선매염 처리를 해 주



자초 | 국립민속박물관

는 것이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자근으로부터 추출한 색소를 넣어 염색하는데, 겉껍질에서 추출한 염액은 뜯어서 빨아 다시 지을 옷이나 고급스럽지 않은 천에 물들이고, 속껍질에서 추출한 염액으로는 비단을 염색하는 데 사용하였다.

비단을 물들일 때는 다섯 번 정도 반복 염색을 한 다음 노른 재(동백나무 잿물)에서 내린 잿물로 매염 처리를 한다. 이때 잿물은 처음 내린 물이 아니라 두 번 이상 내린 물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첫물의 경우 알칼리도가 높고 재에서 함께 추출되어지는 색소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자근 한 근으로 대략 대여섯 자 정도 염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명주 한 필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자근 여섯 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자근 염색을 제대로 하려면 12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것은 염색과 매염을 반복하면서 색소가 완전히 착색되도록 하는 데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자초의 값이 비싸고 귀했다는 것은 공납물품 조정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 수 있지만, 1427년(세종 9)에 다음과 같이 자색 금제령을 내린 것으로도 알 수 있다.

>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지초와 홍화는 비록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극히 희귀한 것이고 …… 지금 위로는 경대부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천례賤隷에 이르기까지 자색을 입기를 좋아하니, 이로 인하여 자색의 값이 한 필 염색하는 데 값이 또 한 필이나 듭니다. …… 다만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등차等次의 분변이 없을 뿐 아니라 물가가 뛰어오르게 되니 또한 염려가 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자색은 오는 경술년을 위시하여 이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특징 및 의의 자초는 야산에 자라는 양지식물로 예전에는 흔한 약초였으나, 산이 울창해지면서 요즘에는 아주 귀한 식물이 되었다. 수입 자초의 경우, 자초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열풍고온으로 건조한 것이 많아 발색된 색상이 고르지 않다. 생자초를 구하여 쓰면 원래의 자줏빛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요즘은 생자초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국산 자초의 가격이 비싸서 주로 중국산 수입 자초를 에탄올에 담가 색소를 추출하여 염색하고 있다.

자초 염색은 염색할 천을 미리 명반으로 선매염 처리를 한 후에 염색해야 한다. 자초의 색소인 시코닌이 섬유와의 결합력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염색 전에 천에 미리 명반 선매염 처리를 해야 한다. 자초를 여러 번 반복 염색을 해 주면 다른 염료에 비해 견뢰도堅牢度가 높아진다.

참고문헌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염색법 해설(조경래, 한국학술정보, 2007), 색다른 색이야기(조미숙, 이매진, 2007), 조선시대 복식의 적색계와 자색계 색명체계(김순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의 천연염료(김재필·이정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필자 조미숙(曺美淑)

잠
簪

정의 머리모양을 고정하거나 장식하는 장신구.

내용 잠簪은 수식품首飾品으로서 얹은머리나 쪽머리를 고정하고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통상 비녀 형태의 장신구를 말하며, 다른 용어로는 계笄나 채釵로도 표현되었다. 여성이 비녀를 꽂고 성인이 되는 의식을 '계례笄禮'라고 하였으며, 『예기禮記』「즐종계총의신櫛縱笄總衣紳」에 "계는 지금(당시 후한後漢)의 잠"이라 하여 계가 잠의 고어古語인 것을 알 수 있다. 채는 꽂는 부분이 두 가닥인 비녀를 말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은채고銀釵股, 갈라진 채고釵股'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고股는 넓적다리를 이르는 것으로 비녀의 모양이 양 다리가 갈라진 모양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잠簪은 이와 달리 꽂는 부분이 한 가닥으로 된 비녀를 말한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여기복식도설女妓服飾圖說」에는

조선 초기 잠과 채의 형태가 수록되어 있다. 잠은 세로로 된 한 가닥 비녀의 형태이며 꽃모양으로 장식되고 길이가 '1척尺 2촌寸'으로 매우 길다. 이와 유사한 형태가 조선 초기의 유물과 하연부인 초상화의 뒷머리에 높게 꽂은 모양에서 보인다. 채는 두 가닥으로, 머리 부분에 작고 동그란 장식이 붙어 있는 형태로 묘사되었다. 하연부인 초상화의 머리 앞부분 중앙에 위치한 작은 장식이 유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17세기까지의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옥파탕칠보장금장잠玉波湯七寶粧金長簪, 진주장금채眞珠粧金釵' 등이 있어 잠과 채가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반면 18세기 이후의 『가례도감의궤』에는 잠의 명칭만 보이며, 세부 치수를 표시하거나 '장잠長簪, 대잠大簪, 중잠中簪' 등으로 크기를 구분하여 기록되었다. 「궁중발기宮中件記」에는 '빈혀, 반자' 등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면 비녀와 뒤꽂이, 떨잠 등도 모두 잠으로 표기되었을 뿐, 구체적인 종류와 문양의 명칭이 없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는 없다. 대수大首의 착용 사진이나 남아 있는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접잠'이나 '원잠'은 나비형·원형 떨잠으로, '연잠'은 연봉형 뒤꽂이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조선시대의 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평형 비녀 외에 한 가닥 꽂이형의 수식품首飾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잠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용되어 왔으나, 영정조 대의 가체금지령을 계기로 더욱 화려한 면모를 갖추었다. 얹은머리 대신 쪽머리가 장려되면서 고급 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잠두簪頭의 문양도 다채로워졌다. 쪽머리는 가체를 사용하여 크게 틀기도 하였는데, 그 부피에 따라 '민머리, 또야머리, 조짐머리(낭자머리)' 등으로 나뉘었다. 그에 따라 쪽의 크기와 용도에 맞는 다양한 길이의 잠이 발달하였으며, 일상용의 작은 쪽에는 작고 간소한 잠을 꽂고 의례용의 큰 쪽에는 길고 화려한 잠을 꽂았다. 쪽의 모양뿐 아니라 잠은 계절과 의례, 세시풍속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였다. 『순화궁첩초順和宮帖草』「사절복색자장요람四節服色資粧要覽」에 따르면 2월·3월에는 모란잠, 4월·8월·9월에는 매죽잠, 5월에 깨끼적삼을 입으면서부터는 민옥잠, 10월부터는 용잠을 꽂았다. 대체로 귀금속으로 된 것은 봄·가을·겨울에 꽂고, 옥·마노·비취·호박 같은 것은 여름에 꽂았다. 상중喪中에는 흑각잠이나 목잠木簪을 꽂았으며, 특수한 비녀로 경상도 지방 무녀가 의식儀式 때 꽂았던 놋수저형의 잠이 있다. '단오장端午粧'은 단오절에 잡귀를 없애기 위해 치장했던 것으로, 창포뿌리를 깎아 수복壽福의 글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았던 창포잠菖蒲簪을 착용하였다.



① 용잠 | 길이 37 | 20세기



② 칠보매죽잠 | 길이 31.2 비녀머리 3.9 | 조선



③ 죽절잠 | 길이 22 | 조선

용잠 | ① 국립민속박물관, ②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③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특징 및 의의 잠은 고대로부터 사용된 머리 장신구이며, 선사시대부터 착용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다. 잠은 다리가 한 가닥인 형태의 비녀를 의미하였으며, 두 가닥인 채와는 구분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녀 외에 뒤꽂이나 떨잠과 같은 머리꽂이를 표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쪽머리가 발전하면서 그 쓰임새와 모양이 다채로워졌다. 일상에서 항상 착용함은 물론 일생의 중요한 통과의례를 함께하였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장신구이다.

참고문헌 전통 장신구(장숙환, 대원사, 2002), 조선시대 여자비녀에 관한 연구(오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조선조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필자 오선희(吳宣希)

잠방이

정의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만든 짧은 홑바지.

내용 잠방이는 한자로 곤의褌衣로 일컬어진다.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고유복식 기본형 바지에는 고袴와 곤褌이 있다. 곤은 잠방이를 말하는 것으로 곤에 관한 기록은 『양서梁書』와 『남사南史』의 백제조에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이규보李奎報의 시 <두안려분책 신차독비곤頭岸麗盼幘身遮犢鼻褌>에 독비곤이라는 쇠코잠방이의 글귀가 있으며, 이규보도 퇴거하여서는 이 독비곤을 입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주로 농부가 여름철에 바지 대신 노동복으로 입었다. 잠방이의 명칭은 지역과 형태에 따라 사발잠방이·사발고의·사발석방이·쇠코잠뱅이 등으로 불렸다.

특징 및 의의 잠방이는 바지보다 통이 좁고 길이가 짧으며,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거나 무릎을 조금 내려올 정도로 간편한 옷이자 노동복이다. 옷감은 주로 굵은 삼베나 광목으로 만들었다.



잠방이 | 김홍도 | 경답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참고문헌 한국민속종합자료보고서17-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한국민속종합자료보고서-충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금종숙(琴鍾淑)

장갑
掌匣

정의 방한 또는 보호나 장식의 목적으로 손에 착용하는 의류소품.

내용 장갑掌匣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패션이나 사회적 신분,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착용하게 되었다. B.C. 1361~1352년경 이집트의 장갑 유물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전한前漢시대의 마왕퇴馬王堆의 묘에서 백색 라羅와 기綺로 만든 벙어리장갑 형태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장갑을 착용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조선시대에 팔이 긴 의례용 손가락장갑이 있었는데, 혼례용에서는 이를 '오지五脂'라 하고 상례喪禮의 복완용服玩用으로 쓰일 때는 '수의手衣'라고 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지수의指手衣'라는 명칭도 나온다. 1650년 숙안공주부터 1680년 명안공주까지 혼례 물목 중에 오지가 한 개 등장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물목에서 빠진다. 혼례용 오지는 홍색이나 대홍색의 라羅로 만들었는데 왕세자빈, 군부인, 왕녀가 쓰다가 정례 편찬 이후에는 군부인의 품목에서만 나타난다. 상례의 복완용으로 쓰인 수의는 백색의 초綃·저紵·릉綾으로 만들었는데, 왕비와 왕세자빈에게서 볼 수 있다. 『세종실록』에는 천전의遷奠儀에 아청저사雅靑紵絲로 만든 수의가 나온다. 1751년(영조 27) 12월 15일에 명기·복완 등 장례 물품의 일부를 감하도록 명하면서 오지가 물목에서 빠졌다.

장갑掌匣이라는 명칭은 『효종실록孝宗實錄』 1652년(효종 3) 9월 3일 기록에 "또 비갑臂匣·장갑掌匣은 한낱 겉치레일 뿐이다. 갑자기 적을 대하면 어느 겨를에

착용하겠는가."라고 하여 군사들의 차림새의 하나로 장갑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지만, 형태는 알 수 없다. 1795년(정조 19) 윤2월 22일에 동지사 서장관 심흥영이 올린 별단에 "하란荷蘭은 바로 서양西洋에 속하는 나라인데, 연경에서 9만 8000리나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 그들은 흰색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장갑[白軟皮爲掌匣]을 만들어 양손에 끼고 있었습니다."라며 네덜란드[荷蘭] 사람의 차림새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가죽으로 만든 장갑에 대한 언급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팔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주로 토수를 착용했고, 서양식 장갑의 유입 시기는 개항 이후로 추정된다. 유물로 전해지는 것은 없으나 당시의 상류층 여성이나 남성들이 장갑을 끼고 사진 찍은 것을 볼 수 있다. 신문 광고에서 가죽장갑, 비단장갑 등의 서양 제품을 수입한 내용도 다수 보인다. 선교사들에 의해 편물이 보급되면서 면실과 모실로 장갑을 짜서 사용하는 예가 많이 늘어났다. 주로 대바늘을 이용해서 손으로 뜨기도 했지만, 기계편물로 된 장갑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수편물로 손가락장갑 짜는 법에 관한 잡지나 신문의 기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아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사람이 장갑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장갑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수 세기 동안 장식용, 의례용 등으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에는 라텍스 같은 특수재료로 만든 장갑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기본적인 형태는 손가락마다 끼울 수 있는 손가락장갑과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한꺼번에 끼우는 벙어리장갑이 있다. 손가락장갑은 손목까지 오는 길이가 많은데, 팔의 일부분을 덮는 긴 길이의 장갑도 있다. 개항 이후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착용했던 서양식 장갑은 가죽·비단·편물 같은 다양한 소재로 만들었다. 장갑의 사용이 늘면서 토시와 같은 전통 방한용구의 사용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17~18세기 장갑에 관한 연구(오지은,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인쇄매체를 통해 고찰한 우리나라 근대 수편물(이정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조선후기 왕녀 혼례복(김규영,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김정아(金廷兒)

장도
粧刀

정의 칼집을 갖춰 몸에 지니는 작은 칼.

내용 장도粧刀는 호신護身과 장식을 겸하여 평상복에 차는 작은 칼[小刀]이다. 도자刀子라고도 불렀다. 칼집이 있어 각종 금속과 옥석玉石, 보패류寶貝類로 장식해 만들었으며, 허리춤이나 옷고름에 차는 것은 패도佩刀, 주머니끈에 매거나 주머니 속에 넣어 지닌 것을 낭도囊刀라 하였다. 남자는 옷고름이나 허리에 차고, 여자는 주머니 속에 넣거나 옷섶에 노리개와 함께 차고 다녔다.

장도를 패용하는 관습에 관하여 최남선崔南善은 고려시대 원元에서 전파된 몽골의 풍속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삼국시대 고분들이 발굴되면서 오래 전부터 작은 칼을 차는 풍습이 존재했음이 알려졌다. 신라 고분에서는 요패腰佩에 다는 장식용 칼이 출토되었고, 한강 유역과 무령왕릉에서는 백제의 금·은장도가 발견되었다. 고려시대에도 작은 칼을 제조하고 붓이 함께 달린 칼을 차고 다녔다는 기록과 백성들에게 비수 차는 것을 금했다는 기록이 있어 장도와 유사한 칼을 소지하던 풍습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던 것이 조선시대에 이르자, 크기가 작아지고 상징성과 장식성이 강조되는 등 다채로운 장도粧刀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장도는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애용되어, 장도와 함께 부녀자의 패물을 판매하는 도자전刀子廛이 성행하였다. 장도가 점점 화려해지고 사치가 심해짐에 따라 서민층에는 은장도를 금하는 규제가 여러 번 내려질 정도였다. 장도를 만드는 도자장刀子匠은 전문 장인으로서 궁중 상의원尙衣院(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일용품, 보물 따위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장도는 명나라 사절에게 예단으로 보내질 만큼 진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장도는 여인의 정절을 상징하게 되었다. 사대부가에서는 12~13세가 되면 장도를 주고 법도를 가르쳤으며, 그 장도는 다시 어머니에게서 딸로 대물림되었다. 기생들도 반드시 장도를 지녔다.

장도는 칼몸과 칼집, 칼자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과 장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의 완전한


① 장도


② 장도노리개 찬 여인

장도 | ① 온양민속박물관, ② 미인도 | 근대 | 동아대학교박물관

장도가 만들어진다. 장도의 명칭은 용도, 형태, 재료, 장식 문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중 첨자도籤子刀는 장도 칼집에 젓가락이 달려 있어 외부에서 취식取食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은으로 만들어 음식물의 독성 여부를 판별하는 용도도 겸하였다. 칼집과 칼자루의 장식이 복잡한 것은 '갖은 장식', 단순한 것은 '맞배기'라고 하며, 맞배기는 다시 칼집과 칼자루의 형태가 일一 자형인 '평맞배기'와 을乙 자형인 '을자맞배기'로 나뉜다. 사각형의 장도는 '사모장도', 팔각형의 장도는 '모잽이장도'라고도 부른다. 칼집과 칼자루는 주로 금, 은, 백동, 구리 등의 금속과 흑단, 먹감나무, 대추나무, 향나무, 대나무, 심향목 등의 나무로 만들었다. 옥, 호박琥珀, 비취翡翠, 마노瑪瑙, 공작석孔雀石 등의 보석류와 대모玳瑁, 우골牛骨, 어피魚皮 등의 동물성 재료들을 귀하게 여겨, 이것들은 장식성이 강한 상류층의 장도를 만드는 데에 주로 사용하였다. 순종의 관례와 가례에 소요된 패물 목록에는 '밀화, 산호, 비취, 옥, 자마노' 등으로 만든 장도가 기록되어 있다. 영친왕비의 장도노리개와 같이 칼집과 칼자루가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장도는 조선시대 남녀 모두에게 애용된 대표적인 장신구로, 일상에서 늘 함께 하는 소지품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장도에는 당시의 사회적 의식과 시대적 미감이 담겨있었다. 단순한 상징을 넘어 여인의 정절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였으며, 부귀와 수복壽福, 충절과 절개를 상징하는 무늬를 주로 새겨 넣었다. 전문 장인의 손길이 깃든 각양각색의 장도는 외교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조선시대 가장 진귀한 공예품 중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우리의 공예문화(추원교, 예경, 2003), 장도장(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6),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박혜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장도에 관한 연구(이영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필자 오선희(吳宣希)

장삼
長衫

정의 승을 상징하는 종교복식으로 착용하며, 궁중에서 비빈이나 양반층 부녀들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포.

내용 승복으로 착용했던 장삼의 기원은 불교의 중국 전래에 따른 종교복식과 여자가 착용했던 예복으로 나눌 수 있다. 불교 전래에 따른 장삼은 인도에서 발생한 가사를 시작으로 발전하였다.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인도식 법의와 중국 복식이 합쳐진 것이라 보는 기록이 있다. 법의인 직철直掇은 상의인 편삼偏衫과 하의인 니원승泥洹僧을 허리에서 연결하여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인도와 다른 기후 조건과 의습衣習 때문에 가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국 복식을 기본으로 중국화하여 장삼의 기원 복식인 편삼으로 착용하였다. 편삼은 승기지僧祇支에서 발전된 상의로, 승기지는 비구니들이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가사를 착용했을 때 가슴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속옷으로 입었다. 고려시대는 편삼과 치마[裳]의 착용, 장삼의 착용이 모두 나타나는 시기이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록에는 국사國師, 삼중화상대사三重和尙大師는 긴소매의 편삼과 자색 치마를 착용하였으며, 아사리대덕阿闍梨大德은 짧은 소매의 편삼과 황색 치마를 입었다. 가사에는 차등이 있으나 편삼에 치마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명대사 장삼이 표충사에 유물로 남아 현존하고 있는데 총 길이는 144㎝이고, 소매 길이는 143㎝, 소매통은 85㎝인 백색 면직물이다.

조선시대에는 장삼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424년(세종 6) 일본 국왕이 보내온 상부관인上副

官人에게 면주·백저포·채화석·인삼을 주고, 상관인上官人에게는 면주장삼과 가사袈裟를 선물로 내렸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전부터 장삼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불교승복인 장삼의 형태는 두 개의 종파에 따라 조계종의 장삼과 태고종의 장삼으로 나눌 수 있다. 조계종의 장삼은 소매가 넓은 광수로 소매 안쪽 아래로 트임이 있다. 중국의 직철과 같이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상의하상식이다. 하의는 좌우의 여밈에 맞주름이 있으며,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 1개, 옆선에 각 1개이다. 후면에는 뒷중심선에 1개, 뒷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 1개로 총 8개의 맞주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고종의 장삼은 한 폭의 소매로 된 장수이며, 허리에 이음선이 없는 우리나라 고유 복식인 두루마기에 가까운 형태이다. 대는 조계종의 장삼과 달리 가슴 부위에 고정했는데, 옆선을 중심으로 앞면과 뒷면에 각 2개씩 총 8개의 무가 달려 있다. 이러한 형태는 불법승을 상징하는 서울굿 무복장삼의 형태와 유사하여 불교복식에 근거하여 제석거리에서 장삼을 무복으로 차용했다.

여성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장삼은 비빈에서 상궁·내인까지, 보행내인과 본택내인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입었던 예복의 일종이다. 장삼의 착용에 관한 가장 빠른 역사적 기록은 고려시대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종류는 비빈의 흉배장삼과 겹장삼, 상궁의 아청단장삼, 기행내인의 홍장삼과 황장삼, 시녀의 흑장삼 등 종류가 다양하다. 장삼은 조선시대의 역대 가례 때 상궁에서 기행나인까지 다양한 신분층이 입었던 여성 예복이다. 고려시대에는 기녀가 착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태종 때 사헌부가 올린 상소문에는 4품 이상 정부인은 노의·오군·입모를 쓰고, 5품 이하 정부인은 장삼·오군·입모만 착용하되 노의를 입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 노의보다 장삼이 낮은 복식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삼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1445년(세종 27)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기생은 황색 장삼을 착용하였으나, 이를 본 사신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 모두 검정색 장삼으로 고쳐 착용하였다고 한다. 이미 고려시대에 장삼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길이 140 품 78 화장 126



길이 130 품 88 화장 85

장삼 | 나부 부인 용인 이씨 묘 출토 | 16세기 | 대전시립박물관

조선시대 비빈의 장삼 형태는 『사례편람』에서 "대의는 색주色紬로 만들며 그 제도는 당의와 같고 넓고 크다. 길이는 무릎까지 오고 소매가 크며, 소매 길이는 2척 2촌이고 소매가 둥글다. 일명 대수 또는 원삼이라 하니 오례의의 본국 장삼이다."라고 하며 대의·대수·원삼·장삼이 대개 같은 종류이며, 길이는 무릎까지, 소매 길이는 2척 2촌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장삼은 종교복식인 승복과 여성의 예복으로 분류된다. 여성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장삼은 명칭은 동일하지만, 승복인 장삼과 형태나 용도가 전혀 다르다. 승복으로 착용한 장삼은 초기 형태인 직철의 형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될 당시 중국을 경유하였기 때문에 법의 또한 중국식 법의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장삼은 무속에서 불교적인 상징을 갖는 굿거리에서는 현재도 착용하며 굿을 연행하는 무당들은 불사장삼이라고 부른다. 장삼은 형태를 달리하면서

불교에서 승복으로 착용하는 법의의 일종이다. 여성의 예복인 장삼은 『사례편람』에 대의·대수·원삼·장삼을 모두 동일시한다. 흉배가 부착된 겹장삼은 비·빈의 상복으로 사용되며, 공주·옹주·대군 부인의 예복으로 노의와 겹장삼을 입었다.

참고문헌 宣和奉使高麗圖經, 가례도감을 통해 본 법복의 부수복식과 의대에 관한 연구(백영자, 한국의류학회지2-1, 한국의류학회, 1978), 무복장삼의 고찰(김은정, 비교민속학23, 비교민속학회, 2003), 불교학대사전(홍법원, 1994), 이중착의법고(최완수, 고고미술, 1982), 한국 승려 장삼에 관한 연구(박춘화,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김은정(金垠呈)

장신구
裝身具

정의 신체나 의복에 부착하여 몸을 치장하는 도구.

내용 인간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본능이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신구를 널리 착용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이미 옥석玉石을 갈아 만든 관옥管玉이나 짐승의 뼈로 만든 목걸이 장식이 발견되는 등 장신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도의 공예기술로 만든 화려한 금·은·금동제 장신구가 제작되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미적 욕구의 충족에서 출발한 장신구는 사회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기능과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 신체에 부착하여 악귀를 쫓는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통과의례를 치르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착용자의 신분과 경제적 상태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구당서舊唐書』「동이전東夷傳」에는 신라 사람들을 가리켜 "여자들이 미발美髮을 머리에 동이고 주채珠綵로써 장식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시대 고분에서도 귀고리·목걸이·팔찌·반지와 같이 몸에 차는 장신구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백제 무령왕릉에서는 새와 꽃, 당초문 등이 섬세하게 장식된 왕비의 금제金製 뒤꽂이가 발굴되어 화려한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흥덕왕복식금제興德王服飾禁制에 언급된 통일신라의 장신구인 소梳(빗)와 채釵의 재료로는 실크로드 교역로를 통해 들어오는 슬슬전瑟瑟鈿(터키석이나 에메랄드 등 푸른색 보석류), 대모玳瑁, 상아象牙 등이 있어, 국내외 재료를 이용해 다채로운 빗과 비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견된 유물 양에 편차가 커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들 삼국시대의 장신구는 나라별로 특징적인 양식을 보여 준다. 특히 고구려 귀고리는 굵은 고리의 태환식太鐶式, 백제 귀걸이는 무령왕릉에서의 출토품을 제외하면 대체로 장식이 간결하고 소박한 가는 고리의 세환식細鐶式이 출토된다. 신라 귀고리에는 태환식과 세환식이 공존하며 영락瓔珞 장식과 누금세공鏤金細工으로 화려하게 제작되었다. 목걸이는 금이나 유리, 각종 옥을 연결한 형태였으며 중심부에 곡옥曲玉을 장식한 경우가 많다. 팔찌는 금속제 환環이나 옥, 유리구슬을 연결한 형태가 있었다. 팔찌의 경우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백제 왕비의 팔찌에는 두 마리의 용이 양각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신라의 팔찌는 누금세공에 보석을 감입嵌入하여 화려하게 장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뒤이어 고려시대에도 다양한 장신구가 사용되


장신구 | 19세기


남성 머리 장신구


족두리 상자

장신구 | 국립민속박물관

었을 것으로 보이나 많은 유물이 남아 있지는 않다. 금·은·청동류의 동곳, 봉황·닭 모양의 비녀, 대모로 만든 빗이 남아 있어 머리 장식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순금 귀걸이 및 당초문·톱니문 등을 새기거나 보석을 감입한 금·은 반지가 전해진다. 고려 불화를 통해서도 왕비와 시녀들이 붉은색 댕기를 드리고 화려한 장식비녀를 꽂은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윤리와 규범을 근본으로 하였으며, 이는 복식을 비롯한 여러 장신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신체를 훼손하거나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고대부터 화려하게 발달했던 목걸이나 팔찌, 귀고리는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된다. 대신 옷과 몸가짐의 매무새를 정돈하는 데 필수적인 용품들에 장식을 추가하거나 실용적 도구를 장신구로 사용하는 등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하는 조선시대 장신구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유교는 내세보다 현세에서의 행복을 중요시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으로, 장신구의 문양에서도 부귀와 장수, 복록福祿, 벽사 등 기복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여성 장신구에서는 지조와 정절을 상징하는 매화와 대나무 문양, 다남을 상징하는 고추·가지·석류, 부부금슬을 염원하는 나비, 원앙 등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여성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대변하며 부계중심적인 당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말해 준다. 반면, 남성 장신구에서는 선비의 덕을 상징하는 사군자문이나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 백성을 다스리는 이념을 담은 문양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여성의 장신구는 가체금지령을 계기로 머리 장식과 노리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가체 사용이 제한되고 얹은머리 대신 쪽머리가 권장되면서 가체에 치중하던 사치가 머리 장신구로 옮아갔으며, 이로 인해 종류가 다양해지고 장식이 점차 화려해졌다. 비녀[簪]는 쪽머리의 필수품으로서 역할이 확대되면서 잠두簪頭의 모양과 크기 및 장식이 다채로워졌으며, 일상용으로는 짧고 장식이 소박한 것을 사용하고 의례용으로는 길고 화려한 비녀를 꽂았다. 비녀와 함께 쪽머리에 덧꽂는 뒤꽂이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귀이개나 빗치개와 같이 실용적인 용도를 겸한 것도 사용되었다. 특정 계층의 머리장식으로 발달한 것에는 떨잠과 첩지가 있다. 떨잠은 의식儀式 때 왕비를 비롯하여 내외명부內外命婦가 큰머리나 어여머리에 꽂던 최고의 머리 장식이다. 새나 벌 모양 등을 용수철로 달아 놓은 '떨새'가 걸을 때마다 흔들리면서 장식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첩지는 쪽머리의 가르마 부분에 장식하는 것으로써 궁중과 상류층 여인들의 전유물이었다. 계급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여 황후는 용첩지, 비빈妃嬪은 봉첩지, 내외명부는 개구리첩지를 사용했다. 첩지는 쪽머리 위에 얹힌 족두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신분을 나타내는 사회적 상징물로 정착되었다. 머리 장식 외 잘 알려진 여인들의 장신구로는 다채로운 장식과 율동감으로 정숙성과 절제를 강조했던 조선시대 복식에 화려함을 더해 주던 노리개가 있었다. 노리개는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 등에 차는 것이며, 궁중을 비롯한 상류 사회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패용하였다. 주체의 개수에 따라 단작單作노리개에서 삼작三作노리개까지 있었는데, 단작노리개와 같이 간단한 것은 평상시에 착용하고 삼작三作노리개 이상은 의례용으로 착용하였다. 장도粧刀나 바늘집, 침통針筒 등 실용적 용도를 지닌 것을 주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향노리개는 은은한 향을 풍김으로써 여인의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위급 상황에서의 비상약으로 쓰였으며, 줄향노리개, 향주머니 노리개, 향갑香匣노리개 등 다양한 형태로 애용되었다.

조선시대 남성의 장신구에는 수식首飾과 입식立飾이 있다. 기혼 남성은 반드시 상투머리를 해야 했으며 이를 고정하기 위해 동곳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동곳은 다리가 하나인 작은 기둥과 같은 형태로, 상투 아래쪽에서 올려 꽂아 상투가 풀어지지 않고 고정되도록 하였다. 신분에 따른 제약은 없었으나 상류층은 옥·산호珊瑚·호박琥珀 등으로, 서민층은 은이나 백동으로 만드는 등 재료에 차등을 두고 사용하였다. 상투머리를 튼 후에는 이를 단단히 매고 머리를 정돈하기 위해 망건網巾을 착용하는데, 망건의 부속품인 관자貫子와 풍잠風簪은 장식의 역할도 겸하였다. 관자는 망건의 좌우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이며, 재료와 문양에 따라 품계나 신분을 표시하였다. 금관자와 옥관자가 매우 귀중하게 사용되었으며, '도리옥'이라고 하는 질이 좋고 무늬가 없는 옥관자를 최고로 여겼다. 품계가 높을

수록 무늬가 없고 소박한 것을 사용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는 겸손함을 보이고 교만함을 자제하는 뜻이 담겨 있다. 풍잠은 망건 상부의 중앙에 꾸미는 장식품이며, 갓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무·대모玳瑁·옥·수정水晶 등의 재료로 반달형으로 만들었으며, 나무나 우각牛角으로 된 풍잠 가운데는 빗살이 부착된 것도 있다. 입식에는 정자頂子와 갓끈(입영笠纓)이 있다. 정자는 갓[黑笠]이나 전립戰笠의 정상에 장식한 것이다. 고려 말 공민왕 때 직품에 따라 백옥·수정 등의 정자를 달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품계에 따라 금·은·옥·수정 등으로 재료의 차이가 있었으며, 전립에는 금동金銅이나 은정자를 달고 갓에는 옥정자를 달았다. 옥정자의 대표적인 것은 백로白鷺(해오라기)의 형상을 조각한 옥로玉鷺이며 청렴결백한 관리를 상징하였다. 갓끈은 본래 갓을 매는 용도로 사용했으며, 헝겊으로 만들었으나 끈의 기능보다 장식의 역할이 부각되며 사치의 대상이 되었다. 옥·마노·호박·산호·수정 등으로 만들었으며, 신분이나 갓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흥선대원군 집정 시에는 의관문물의 간소화 시책에 따라 대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여 죽영竹纓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패식품佩飾品으로는 지환指環과 귀걸이, 주머니가 있다. 지환에는 한 짝인 반지, 두 짝인 가락지, 두 짝이 붙어 있는 합반지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특히 가락지가 애용되었다. 남녀의 애정과 혼인의 징표로 여겨졌으며, 반지는 미혼여성, 가락지는 기혼여성이 착용하였다. 귀고리는 원래 귀천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착용하였으며 사대부가의 남성들도 금·은 귀고리를 하였다. 그러나 귀를 뚫는 것이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유교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불효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차츰 자취를 감추었고, 여성에 한해 의식이나 혼례 때에 귀에 거는 형태의 귀걸이를 사용하였다. 주머니는 돌쟁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널리 찼으며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夾囊](염낭)과 각진 모양의 귀주머니[角囊](각낭)이 있었다. 대개 벽사의 뜻이 있는 붉은색의 비단이나 무명으로 만들며, 부귀·장생을 상징하는 길상문양의 수繡와 금박으로 꾸몄다. 기타 남성 장신구로는 선추扇錘가 있었다. 선추는 부채의 쇠고리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식품이었다. 양반이라도 과거를 치르지 않고 가문의 덕으로 특별 임용된 음관蔭官이나 당상관 미만의 무관은 사용할 수 없는, 신분 표시가 되는 지체 높은 장식이다. 선추에는 부채의 미적 효과를 높이는 장식성 외에 나침반, 의료용 침통, 귀이개와 이쑤시개를 넣은 초혜집 등을 달아 실용성도 갖추었다.

특징 및 의의 장신구는 고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차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선조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장신구는 삼국시대의 찬란한 금제 장신구들에서 조선시대의 소박하면서도 다채로운 장신구들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쳐 왔다. 단순한 장식 수단을 넘어 외래 문물과의 교류사를 보여 주는 척도이기도 하였으며, 부귀영화富貴榮華·길상벽사吉祥辟邪 등 생활 주체의 서사와 소망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는 등 장신구는 복식문화의 일부분으로서 당대의 정서와 미감이 투영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 덕목을 강조한 조선 사회의 풍조는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도록 하였으며, 장신구를 착용하는 데에도 계급에 따라 종류·색·문양·소재에 차이를 두었다. 금·은·옥·비취翡翠·산호·마노瑪瑙·호박 등을 소재로 하는 장신구는 상류층에서 사용하였으며 가보로 대물림되기도 하였다. 이조차 명明나라에 금을 공물로 바쳐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과 함께 조공을 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식뿐 아니라 각종 기물에 이르기까지 금의 사용을 금지해 순금純金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궁중에서도 주로 도금鍍金을 사용하였으며,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야 순금으로 된 장신구를 사용하였다. 금 외에도 각종 보패류寶貝類와 옥석류玉石類를 사용하고 파란[琺瑯], 비취모翡翠毛 등으로 장식함으로써 단아하고 간결하면서도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일반 서민들은 동銅·백동·나무·뿔[角]·뼈[骨] 등의 소재에 간결한 조형의 장신구를 사용하였다. 사용 문양에도 마찬가지로 차등을 두었는데, 특히 용과 봉황 문양은 왕실의 권위와 기품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궁중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혼례시에는 신분과 품계를 초월하여 일반 여성들도 용잠龍簪을 꽂고 각종 비녀와 떨잠 등으로 장식하는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기녀들은 규

제의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각종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담인복식미술관 개관도록(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우리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조선여인의 미(부산박물관, 2005),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이난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오선희(吳宣希)

장옷

ㅈ

장옷

정의 조선시대 여자 포袍의 한 종류.

내용 장옷은 한자로 '장의長衣'라고 한다. 19세기 전후에 쓰인 『송간이록松澗貳錄』과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는 '규의袿衣'라고도 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용 쓰개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18세기까지는 요즈음의 두루마기처럼 직접 몸에 착용하였던 옷이다. 18세기 이후로 입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하는 옷이 되었다. 장옷은 여성의 대표적인 외출용 포이며, 길이가 길고 품이 넉넉하게 만들었다. 모시로 만든 여름용 홑장옷부터 겹, 누비, 겨울용 솜장옷까지, 다양한 구성법으로 제작되었다. 지역에 따라서, 혹은 집안에 따라서는 혼례 때 신부의 혼례복으로 입기도 하고 장례 시 수의壽衣로도 사용하였다. 장옷은 동시대 다른 포 종류와는 다른 특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겉깃과 안깃 모두 곧은 목판깃이 길 쪽으로 들여 달렸으며 소매는 진동선에서 곧게 연장된 통소매이다. 소매 끝에는 흰색 '거들지[巨等乙只]'를 달아 소매 끝을 접어 입었으며 겨드랑이에는 이색異色의 작은 사각접음무를 달았다. 겨드랑이에는 이색의 소형 사각접음무가 장식되고 좌우 옆선에는 트임 없이 넓은 사다리꼴 무를 달았으며 안섶과 겉섶도 모두 넓게 달아 아랫단 너비를 넓혔다. 16세기에 큼직했던 장옷은 17세기 중기 이후 품과 아랫단 너비가 좁아지면서 맵시가 나기 시작하였다.

장옷 착용자의 성별에 관한 학계의 설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장옷이 남녀 공용의 옷이었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의 옷이라는 설이다. 남자 장옷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유물은 이언웅李彦雄(광주 이씨廣州李氏)과 며느리인 청주 한씨淸州韓氏(중종의 차녀 자혜공주의 손녀) 묘에서 출토된 16세기 후기의 장옷 한 점과 김함金涵 묘 출토 장옷 한 점, 김덕령金德齡 장군 묘 출토유물 1점 그리고 이형李泂 부인 묘 출토 장옷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유물들은 대체로 16세기 출토복식에 해당된다. 남녀 공용이라는 설은 우선 출토되는 장옷의 크기에 근거한 것이다. 16세기 분묘에서 출토된 장옷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래서 남자 옷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여자의 장옷은 남자의 장옷보다 곱거나 무늬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그 특징에 따라 남자 장옷과 여자 장옷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456년(세조 2) 3월 28일,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올린 상소문에는 "복요服妖를 금하는 것입니다. 대개 의상의 제도는 남녀와 귀천貴賤을 분별하려는 소이所以이니, 하민下民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長衣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장의를 의상의 사이에 입어 3층을 이루게 하고 점점 서로 본 따서 온 나라가 모두 그러하니, 의심컨대 이것은 곧 사문史文에 이른바 '복요'라는 것입니다……"(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丁酉)라는 내용이 있어 장옷을 남자 옷으로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1999년 안동대학교박물관에서 발표한 장기 정씨 묘 유물 중에 옆이 트인 장저고리가 장옷 위에 겹쳐 입은 채 출토됨에 따라 남자가 장옷을 입었다고 하는 설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장옷이 여성의 옷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다. 첫째, 장옷의 좌우 양 섶이 두 조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당시 널리 제직하였던 7촌 정도의 폭을 지닌 주紬나 모시 등으로 만들었을 때의 구조를 말한다. 장옷의 좌우 양 섶이 두 조각으로 이루어져 넓어진 아랫단은 치마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고운高雲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 중 '소색무명솜직령'으로 명명된 두루마기는 이중깃에 이중섶이 달렸으며 안섶은 홑섶이 달려 있다. 따라서 장옷의 안섶과 겉섶에 들여 달린 목판깃과 안팎으로 이중섶이 달린 점은 일반적인 남자 포와 비교할 때 장옷만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한 조각으로 구성된 장옷을 남자 옷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자



① 장옷 | 1997



② 장옷 쓴 여인 | 조선 후기



③ 장옷 입은 여인들 | 일제강점기

장옷 | ① 길이 122.7 품 51.5 화장 78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윤복 | 연소답청 중 부분 | 간송미술문화재단, ③ 국립민속박물관

옷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둘째, 장옷의 소매는 걷어 입도록 고안된 구조이다. 이 때 흰 거들지를 달았다. 이런 착장 방식은 남자 포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거들지는 여성 예복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거들지가 달리지 않은 장옷을 남자 옷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거들지는 탈착이 되는 부분이기에 없는 상태로 출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 후기의 목판깃 남자 장옷 유물과 기록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왜란이나 호란에 의해 없어졌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넷째, 근래에 보고된 16세기 출토 사례 중 여자가 수의로 장옷을 입은 사례는 있어도 남자가 수의로 장옷을 입은 사례는 전혀 없다. 또한 묘주가 분명한 16세기 변수邊脩(1447~1524) 묘나 김흠조金欽祖(1461~1528) 묘, 고운高雲(1479~1530) 묘, 정온鄭溫(1481~1538) 묘, 이흠李欽(1532~1562) 묘 등에서 장옷이 발견된 적 없다. 그들의 수의로는 대부분 단령이나 직령, 철릭, 액주름 등을 사용하였고, 출토유물 중에도 장옷이 포함되지 않았다. 남자 장옷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대체로 발굴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굴·보고된 출토복식류에 해당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장옷을 남자의 옷으로 보기보다 여자의 옷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전기에는 여성들이 말을 타고 외출하면서 머리에 너울[羅兀]을 쓰고 장옷을 입고 다녔다. 출토된 16~17세기 장옷 유물의 고름 위치를 보면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말을 타기보다 가마[有屋轎]를 타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가마 안에 들어가기에 불편한 너울을 대신하여 장옷이 얼굴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세기 전기의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 녹색 장옷을 보면 입을 수 있는 자적색 고름과 머리에 쓰고 잡을 수 있는 홍색 고름이 달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고름을 좌우 섶 가장자리에 대칭으로 달아서 손으로 잡아서 여미기 쉽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광주 출토 장택 고씨 복식 유물에 관한 연구(안명숙·김은정, 한국의류학회지24-7, 한국의류학회, 2000), 동래 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3),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복식·자수(문화재청, 2006), 영암 출토 김해 김씨 유물(석주선, 한국복식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8),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조선 전기 염습의의 일례(이은주, 비교민속학15, 비교민속학회, 1998), 파평 윤씨 모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2(고려대학교박물관, 2003).

필자 이은주(李恩珠)

장화
長靴

정의 신 목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길이가 긴 가죽신이나 고무신.

내용 화는 신목이 있는 신을 말하는데, 특히 장화는 신목이 높이 달린 신을 말한다. 장화는 일반적으로 긴 길이의 화이거나 화와 혼용된 용어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백관 및 일반용의 화의 가죽 재료는 담비 가죽[斜皮], 사슴 가죽[鹿皮], 삵 가죽[狸皮], 무두질한 가죽[獫皮], 말가죽[馬皮], 족제비 가죽[貂皮], 여우 가죽 등의 기록이 있다. 현재 유물로 남아 있는 화의 높이는 22~27㎝ 내외인데, 실록에서 세종의 석의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반장화와 비슷하다고 한 것과 투혜의 설명에 비 올 때 신는 반장화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장화는 화와 같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실록에 1635년(인조 13)에 중전의 승하 후 왕세자와 대군 이하는 흰 옷, 흰 장화, 거친 베로 만든 버선을 신었다고 나와 있으나 특별히 더 긴 길이인지 알 수 없다.

1894년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근대적 행정기관인 중추원中樞院의 관혼상제 실례에 보면 "결혼식 당일 신랑은 사모에 대례복을 입고 각대를 두르고 목화(흑장화)를 신는다."라고 하여 장화는 목화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장화는 개화기 이후 서양복의 도입과 함께 그 형태와 기능이 바뀌게 되었다. 1899년(고종 36) 임금의 복장 목록에 장화 4족의 기록이 있고, 1900년 대한제국 경부警部의 복제 개정에 나와 있는 장화는 이미 서양화된 양복에 맞춘 장화로 기마용으로 착용되기도 하였다.

유물 중 장화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신목의 길이가 긴 것을 살펴보면 길이가 34㎝로 장화 형태인 유물 백목화가 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2호로 윤증尹拯(1629~1714) 가의 유품으로 국상 때 문무백관들이 백색 단령에 착용하였던 무명 백목화이다. 또 다른 장화의 형태로 출토된 조선시대 밀창군 이직李職(1677~1746)의 유물 중 누비화가 있다. 높이가 39㎝로, 수의로 입혀진 운문단 단령 상복과 함께 출토되어 생전에 착용하였던 신으로 추정한다. 외피는 공단이며 내피는 명주로 하였는데, 마치 스모킹smocking(천에 잔주름을 잡고 장식 스티치를 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의 유럽풍 자수)을 한 것처럼 누벼서 잔주름을 잡아 주었다. 이와 같은 누비화를 제작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치품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실록에는 누비로 화를 만들었다가 파면된 기록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조선시대 습신 중 높이가 46㎝가 되는 화가 있다. 선조의 증손자인 탐릉군 이변(1636~1731)의 출토유물이다. 생전에 착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외피는 공단이고 내피는 명주로 된 겹신이며 습신으로 착용하였다. 두 점 모두 생전에 착용된 것과 동일하다면 당시 장화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장화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보면, 조선시대 무관들이 철릭에 갖추어 신던 화 중 수화자가 있다. 수화자는 신의 입구가 좁아서 벗고 신는 데 매우 어렵지만 걸어 다니기에 편하다. 바닥은 베를 접어서 만들었는데 매우 두껍고 단단하여 진흙 길을 걸어도 스며들어 젖지 않을 정도였으며, 오랜 시간 야외에서 행군을 했던 무관들에게는 매우 유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화자는 왕실의 연회인 궁중정재宮中呈才에서 무희들이 신기도 했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 단화는 비 오는 날에 아동이나 부녀자가 착용하고 신울이 일반화에 비해 짧았으며 겨울철용으로 추정된다.



① 누비화 | 18세기



② 고무장화 | 광복 이후

장화 | ① 높이 39 길이 32 | 밀창군 이직 묘 출토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높이 42 길이 27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근세에 이르러 장화의 기록을 보면, 1917년 『매일신보』에 「소가죽으로 만든 장화」, 1938년 『동아일보』에 나온 고무 사용 제한 법령에 「고무로 만든 장화, 단화, 슬리퍼의 제작 금지」의 기사 등이 나와 있다. 장화는 산업의 근대화에 따라 고무로도 제작되었다. 1927년 이수광의 잡지 기고에 보면 "비 오는 날이면 장화를 신고 흙 안 튀게 가만가만 마른 땅을 골아 집고 …… "라고 나와 있어 근세 이후 장화는 비 오는 날과 진땅에 신는 우중화로서 착용 목적이 강조된 신으로 되었다. 이후 장화는 고무장화로 불리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 외, 열화당, 2003),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

협회, 1982), 화·혜·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화혜장(조선희, 민속원, 2007).

필자 조선희(趙鮮姬)

재봉
裁縫

정의 옷감이나 다른 의복 재료를 마름하여 바느질하는 일.

개관 재봉이란 재단裁斷과 봉제縫製를 말한다. 재단은 마름질이며, 봉제는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인류의 최초 의복은 자연상태 짐승의 모피毛皮나 식물을 엮어서 만든 것이며, 점차로 꿰매는 도구인 바늘이나 실 등을 구비하게 되어 재봉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의복을 착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골침 및 가락바퀴와 청동기시대의 뼈바늘 등으로 보아 당시에도 의복을 착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재단하는 도구들은 더욱 발전되었으며, 바느질 방법 또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재봉은 인류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변화하여 왔다.

바느질은 여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록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신라 유리왕儒理王 대에 여아에게 바느질법을 가르쳤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성종과 영조 대의 기록이 있다. 1472년(성종 3)에 대비大妃 소혜왕후昭惠王后(한씨)가 쓴 「내훈內訓」에는 "열 살이 되면 여자는 실과 골풀을 다스리며 베와 비단을 짜고 곱고 가는 끈이나 굵은 실을 꼬며 여자의 일을 배워서 의복을 만들어 바치게 한다."라고 하였다. 1736년(영조 12) 『여사서언해女四書諺解』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상위에 누이고 구슬을 주어 놀게 하고, 딸을 낳으면 상아래 누여서 실패를 가지고 놀게 한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우리 조상은 바느질을 중요하게 여겨 여아에게 어린 나이부터 손바느질을 가르쳤으나, 개화기에 외국에서 발명된 재봉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손바느질법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느질하는 여인들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재봉을 재단과 봉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의복은 구조적으로 평면형이기 때문에 입체형으로 인체의 굴곡을 나타내야 하는 서양의복의 재단 방법과 차이가 있다. 우리 의복은 각 부분을 필요한 가로와 세로 길이에 많은 여유분을 두고 사각형 모양으로 마름하는 것으로 쉽게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양의복은 체형에 맞게 종이로 패턴을 만들어 옷감에 대고 시접을 줘서 마름하는 것이다.

봉제 즉 바느질 솜씨가 좋다는 것은 훌륭한 여성의 제일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솜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질감에 따라 바늘과 실의 굵기를 정하기도 하고 바늘 쥐는 법에서 매듭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우리나라 바느질 기법은 홈질, 박음질, 감침질, 상침질, 휘감치기, 사뜨기, 시침질, 공그르기를 기본으로 하여 이음새나 옷의 종류, 위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1. 홈질: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법이다. 옷감의 상하를 땀이 고르게 뜨는 방법으로, 누비를 할 때 주로 사용한다.
2. 박음질: 박음질에는 온박음질과 반박음질이 있다. 온박음질은 한 땀 뜬 뒤 먼저 바늘이 들어간 데로 되돌아 들어갔다 나오도록 꿰매고, 반박음질은 뒤 땀을 뜨

되 앞에 뜬 땀의 반만 뜨는 것이다.

3. 감침질: 옷감의 양끝이나 의복의 단에서 꺾어진 곳을 튼튼히 꿰매는 것으로, 옷감 양쪽에서 한 올 씩 마주 떠 가는 방법이다. 우리 의복의 재봉에서 홈질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다.

4. 상침질: 방석이나 보료, 보자기 귀 등에 장식을 겸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5. 휘감치기: 비단 등 올이 풀리기 쉬운 감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성글게 감치는 방법이다.

6. 사뜨기: 양끝이 마무리된 것을 합칠 때 쓰는 방법으로, 골무나 노리개 등에 주로 사용하여 장식의 효과를 낸다.

7. 시침질: 두 장의 옷감을 고정시킬 때나 단을 접을 때 사용한다.

8. 공그르기: 단을 두 번 꿰어 접은 다음 겉과 안 모두 바느질 땀이 적게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단으로 스며뜨고 겉은 한 올씩 뜨는 방법이다. 대개 장식선을 댄 의복에서 밑선의 처리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손바느질만 하던 시대에서 바느질을 대신 하는 기계인 재봉틀의 등장은 대량생산방식의 봉제 산업을 태동시켰고 인간의 생활·관습·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일등 공신이 되었다. 재봉틀은 바늘에 실을 꿰어 천·가죽·종이 등을 짓거나 꿰매어 인간에게 필요한 의류·신발·완구 등 생활용품을 만들기 위한 기계로서 인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재봉틀은 영어로 '소잉 머신sewing machine'이라고 한다. 일본인들이 여기서 소잉을 떼 내고 머신을 미싱으로 불렀고 그 명칭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17세기경부터 영국인·독일인 등이 손바느질을 대신할 기계의 제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후 1790년 영국인 토마스 세인트T. Saint가 최초로 가죽에 구멍을 뚫어 실을 꿰매는 것과 비슷한 동작을 하는 원시적인 재봉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 후 180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재봉틀을 만들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804년에 토마스 스톤T. Stone과 제임스 핸더슨J. Henderson이 제본 봉제 특허를 얻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814년에 조지프 마더스 패거Joseph—maders Peger가 제본 봉제용 재봉틀을 만들었다. 프랑스에서는 1829년에 바드레미 시모너Barthelemy Thimoner가 갈고리 모양의 바늘이 장착된 완전 기계화된 나무 재봉틀을 만들었으며, 이후 1845년에는 나무 재봉틀을 개량하여 현대의 금속 재봉틀을 완성시켰는데 1분에 200바늘을 꿰맬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832년에서 1834년에 걸쳐 월터 헌트Walter Hunt 및 1845년 엘리아스 하우Elias Howe가 선단先端에 바늘귀가 있는 두 개의 바늘로 바느질하는 방법을 이용한 정교한 재봉틀을 발명하였다. 1846년에는 엘리아스 하우와 알렌 B. 윌슨Alan B Wilson에 의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북집bobbin case을 사용한 재봉틀이 만들어졌다. 이 재봉틀은 현재의 기본 재봉틀인 본봉 재봉틀lock stitching의 기초가 되었다. 1850년대에 들어서 아이작 메리트 싱어Isaac Merit Singer는 하우의 재봉틀을 바탕으로 페달과 핸들로 작동시키는 새로운 재봉틀을 만들어 특허를 취득하였다. 특히 페달을 도입하여 양손을 재봉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현재와 똑같은 재봉틀 제작에 성공하여 특허를 얻고 싱어 재봉틀 제작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재봉틀은 사용 주체에 따라 자급자족형인 가정용 재봉틀과 대량생산형인 공업용 재봉틀로 양분되어 발전을 거듭하였다. 1852년 엘렌 벤저민 윌슨A. B. Wilson이 옷감을 앞으로 밀어 추진시키는 장치를 고안하였다. 전기로 가동되는 재봉틀은 1889년부터 공장에서 사용되었으며, 1921년부터는 가정용으로도 사용되었다. 1970년 중반에는 미리 입력된 패턴에 따라 자수를 놓는 컴퓨터자수 재봉틀이 등장했다.

우리나라에 외국 재봉틀의 도입은 개화기인 1890년대 후반 이후로 추정되며, 1950년대 후반 자체 개발에 착수하여 1966년 최초의 국산품이 생산되었다.



재봉틀 전단지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손재봉틀과 발재봉틀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섬유산업 등 경공업이 고도성장 시기로 접어들면서 재봉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1980년대에는 기성복이 용도나 이용 대상에 따라 다양화되었으며 물세탁이 가능해지자 재봉틀 사용 시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그 이용률이 저조해졌고 판매량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문화·생활수준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전기보급률이 향상되면서 재봉틀은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된다.

1990년대에는 사용이 편리하고 재봉기의 본래 기능인 두 겹의 직물을 바느질하는 본봉本縫 기능 외에 오버록·인터록·단춧구멍·자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재봉틀이 생겨났다. 오버록·인터록·감침 등의 기능을 가진 재봉틀은 직물 절단부 및 바지 또는 소매 끝단의 풀림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단춧구멍 재봉기는 단춧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자수 재봉틀은 여러 가지 색상의 실을 이용하여 다양한 무늬를 수놓는 기능을 갖춘 것이다. 이후에 점차 공업용 재봉틀의 다양한 기능을 가정용 재봉틀에 접목하여 고기능화하고 있다. 재봉틀 산업은 1991년까지 기술 열세에 의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였으나, 국내 재봉틀의 품질 향상으로 1992년 이후 매년 8,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과 5,000만 달러 이상의 흑자를 이루는 효자산업으로 바뀌었다. 또한 가정용 재봉틀을 전동화하여 사용을 더욱 간편하게 하였고, 자동 실꿰기 장치의 편리성, 두 겹의 천을 박을 때 윗면의 천이 밀려나지 않고 정확히 박아지도록 하는 이중톱니바퀴장치 등의 애로점을 해결하여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의 봉제 산업은 대량생산 패턴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봉틀의 기술 발전으로 공업용은 고속화·공정의 유연화·고기능화·전용성 등에 초점을 맞춰 반전될 것이다. 가정용 재봉틀은 가정에서의 봉제 관련 취미생활의 보편화 및 패션의 다양화 추세로 사용 편리성·다양한 기능성의 집약화 위주로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재봉틀의 종류도 의류의 종류에 따라 전문화되어 그 종류가 무려 5,000 종이 넘고 있다. 컴퓨터의 캐드 시스템과도 연결, 프로그램이 입력된 디스켓만 꽂아 넣으면 재봉틀이 알아서 돌려 가며 재봉작업을 하는 단계까지 가능해진 상태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는 여자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손바느질을 가르쳐서 옷을 정성껏 만들게 하였다. 개화기 이후 손바느질을 대체할 재봉틀이 보급되면서 재봉틀은 각 가정의 생활필수품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집안의 가보 같은 존재로 집집마다 한 대씩은 보유하고 있을 정도였다. 6·25전쟁 당시 피난길에 사람들은 재봉틀만은 챙겨 나왔는데 재봉틀이 집안일의 필수품이었고 또 전쟁 후 삯바느질이 가계를 꾸리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에 재봉틀은 혼수품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물건이었음을 광고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서울역 맞은편에 커다란 재봉틀 그림이 그려진 광고판이 있었으며, '꽃님이 시집갈 때 부라더 미싱'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재봉틀은 혼수품 목록 1호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유레카 발명의 인간(이효준, 김영사, 1996), 침선장(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패션큰사전(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한국복식풍속사연구(일지사, 1988),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필자 금종숙(琴鍾淑)

잿물

정의 나무를 태운 재에 물을 부어 침전시킨 후 걸러낸 물로 세탁이나 염색할 때 쓰는 물.

내용 잿물은 알칼리성으로 세정 작용을 하여 세제·표백제·염색 등에 사용되었다. 육상식물에는 탄산칼륨 K_2CO_3이 함유되며, 해산식물에는 주로 탄산나트륨 Na_2CO_3이 함유된다. 잿물은 가장 일찍부터 알려진 알칼리이다. 알칼리는 아랍어로 '재'를 뜻한다. 식물의 종류나 회즙 만드는 방법에 따라 성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홍화 염색에 콩깍지 재·쪽대 재·잇대 재, 자색 염색에 산단엽 재, 반물 염색에 명아주

재를 사용한다고 기록하였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동백나무 재·볏짚 재·콩깍지 재를 많이 사용하였다. 회즙의 주성분은 규산 이온·황산 이온·나트륨 이온·칼륨 이온 등이며 미량의 알루미늄 이온이나 철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동백나무 재는 동백나무나 비쭈기나무를 태워 얻는 재로 잿물의 주된 금속성분은 알루미늄이다. 동백나무 재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여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알루미늄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백나무의 가지와 잎을 잘라 태우고 백색의 재 상태가 되면 즉시 잿물을 만들어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자근이나 꼭두서니로 염색할 때 선매염으로 사용되며, 반복 염색을 할 때 중매염으로 사용한다.

볏짚 재는 볏짚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므로 많이 사용되었다. 의복의 세탁이나 견사의 정련에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화로 대홍색이나 진홍색을 내는 데 매염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천공개물天工開物』, 『상방정례尙方定例』 등에 있다. 볏짚 재는 가볍기 때문에 표면에 떠오르며 잘 가라앉지 않고 잿물도 색이 검다. 따라서 며칠 동안 침전시킨 후 맑은 액을 모아서 사용한다.

산반엽 재는 노린재나무를 태워 노란 재[黃灰]를 만들었기 때문에 황회목이라고도 한다. 『상방정례』에는 "명주를 자주색으로 염색할 때는 한 필에 지초 8근, 황회 20근, 매실 1근으로 염색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화본초大和本草』에는 "조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 노린재나무의 잎을 끓인 즙으로 찹쌀을 물들여 떡을 만들고, 사각형으로 잘라서 팔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같은 책에 "잎을 건조하면 대개 황색이 되고, 염색할 때 잎을 끓인 즙을 명반 대신 사용하므로 한자 이름이 산반山礬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산단엽'은 '산반엽'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명아주과의 한해살이풀인 명아주는 능쟁이·흰능쟁이·는쟁이 등으로도 부르는데, 『규합총서』에는 명아주 태운 재(여회)를 대홍이나 쪽 염색에 사용한다고 기록되었다. 콩깍지를 태운 콩깍지 재는 『규합총서』에 따르면 홍화 염색할 때 콩깍지 태운 재가 가장 좋다고 하였고,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대홍으로 염색하기 위하여 콩깍지 태운 재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세제와 세탁의 과학(김성련, 교문사, 1998), 증보 천연염료 염색사전(조경래, 아취헌,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소황옥(蘇晃玉)

저고리

정의 남녀노소가 입는 상의.

내용 저고리는 한복의 상의류 가운데 길이가 포袍보다 짧은 옷이다. 삼국시대부터 입었던 것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 무령왕릉 출토 옥동자상, 신라 조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 저고리는 남녀 공용이며 형태도 같았다. 엉덩이 길이에 곧은 깃으로 앞에서 허리에 끈[帶]을 묶어 옷을 여민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저고리는 좁은 소매에 깃과 소매 끝, 도련에 다른 색의 선襈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저고리의 형태는 1302년 불복장품으로 알려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중의와 경남 합천 해인사 불복장품 저고리로 짐작할 수 있으며, 밀양 고법리 소재 박익朴翊(1332~1398) 묘 벽화에서도 여자 저고리 입은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저고리의 명칭은 삼국시대에는 유襦, 위해尉解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조선시대 『세종실록世宗實錄』 1420년(세종 2) 원경왕후元敬王后(1365~1420) 국상 절차의 천전의遷奠儀에서 '赤古里'라는 표기를 처음 찾아볼 수 있다. 남녀 저고리의 차이는 크기와 깃의 형태, 옷감, 색상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남자의 저고리는 포 속에 입는 속옷의 성격이 있어 형태의 변화와 옷감과 색상 등의 변화가 적다. 남자 저고리 종류는 계절에 따라 옷감과 구성법(홑옷, 겹옷, 누비옷)에 따라 적삼·한삼·저고리·겹저고리·솜저고리·누비저고리 등으로 나눈다.

조선 전기 문헌에 등장하는 '과두裹肚', 오襖, 동의冬衣라는 명칭도 남자 저고리로 추측한다. 남자 저고리는 17세기 후기 송시열宋時烈의 상례 기록(1689)에서 등장하지만, 18세기에도 한삼이나 적삼 위에 소창의를 입어 소창의가 저고리 대용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여자 저고리는 평상복으로서 겉옷의 경향이 강하여 옷감과 부분 장식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조선시대 문헌에 여



길이 62 품 52 화장 60 | 조선 초기



길이 48 품 46 화장 70 | 조선 중기



길이 34.5 품 40 화장 74.5 | 조선 후기



길이 33 품 45 화장 65.5 | 20세기 초

저고리 | 국립민속박물관

자 저고리로 추정되는 것은 短赤古里·赤古里·串衣·胡袖 好袖·虛胸·小古衣·赤衫·汗衫·衫兒·同衣襦·깍기古都·肩丫只·肩莫只·肩莫伊·腋丫只·傍莫只·袂隔音·唐赤古里·回粧赤古里·回裝赤古里 등이 있다. 저고리는 시대에 따라 명칭뿐만 아니라 길이와 깃, 품, 소매와 같은 형태도 변하였다.

조선시대 전기 16세기 후반 여자 저고리는 길이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저고리 길이 70~80㎝ 정도의 옆이 트인 장저고리가 있는데, 이 장저고리는 17세기 이후에 당의唐衣로 변화한다. 둘째, 저고리 길이 60~70㎝의 옆트임이 없는 저고리는 중저고리로, 특히 이 가운데 직금단 같은 고급 옷감을 사용한 것은 견마기肩莫只로 분류한다. 셋째, 50㎝ 정도의 옆트임이 없는 저고리는 단저고리短赤古里이다. 장저고리와 중저고리는 겉옷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단저고리는 장저고리와 중저고리 속에 받쳐 입는 저고리이다. 이 저고리가 오늘날 겉옷으로 입는 저고리로 변하였다고 생각한다. 16세기 여자 저고리는 깃 너비 10~12㎝ 내외였으며 목판깃 형태이다. 저고리 품은 60~70㎝이며 화장은 70~100㎝, 소매의 형태는 진동과 수구가 나란한 직배래이다. 수구에 너비 20㎝ 정도의 끝동이 있는 저고리도 있다. 옷고름은 2㎝ 정도로 좁고 길이 25㎝ 내외로 짧으며 속고름은 없다. 동정 너비는 6㎝ 내외로 길이는 짧고 너비는 넓은 편이다. 솜저고리에는 저주지가 심감으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이후 여자 저고리는 옆트임이 사라지고, 저고리 길이는 50㎝ 전후의 한 가지만 있다. 저고리의 품은 50~60㎝ 내외, 화장은 60~80㎝로 16세기와 비교하면 저고리 길이는 짧아지고 품은 좁아지며 화장도 짧아진다. 17세기 이후 저고리는 길이와 품의 변화 외도 저고리 깃의 변화가 가장 특징이다. 1620년대경부터 깃 너비는 10㎝ 정도로 좁아지면서 깃머리가 깎인 목판 당코깃으로 변화한다. 동정 너비는 7.5㎝ 정도로 깃 너비보다 넓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소매 끝에 거들지가 있는 저고리가 있으며, 깃이나 섶과 견마기에 다른 색상의 옷감을 사용한 회장저고리도 있다. 이 시기에는 저고리에 속고름이 달려 있다. 1650년대까지 목판깃과 목판 당코깃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1660년대 이후에는 깃 너비 9~11.5㎝ 목판 당코깃으로 변화한다. 저고리 품은 17세기 전반과 비교하면 거의 같으나 저고리의 겉섶이 뒷중심과 비교하면 1~3㎝ 정도 이동하기 시작한다. 화장은 70~80㎝이며 수구 안쪽으로 너비 5㎝가량의 덧단이 있어, 수구 쪽의 동정 역할처럼 옷에 때가 타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저고리가 점점 몸에 맞는 옷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접어들면 저고리는 길이는 짧아지고 품은 좁아진다. 18세기 전기의 여자 저고리를 알 수 있는 것은 경기도박물관 소장 안동 권씨(1662~1722) 묘 출토 저고리이다. 이를 참고하면 18세기 전기 저고리는 저고리 길이 36~46㎝, 품 41~48㎝, 화장 67~77㎝이며 끝동은 12㎝ 내외이며, 깃 너비는 8.8~10.8㎝이다. 16점의 저고리 가운데 거들지가 달린 저고리는 1점이며, 나머지 15점은 모두 다른 색의 끝동이 달려 있었다. 저고리의 깃은 깎은 목판당코깃이며, 옷고름은 좁고 짧다. 누비저고리와 솜저고리와 겹저고리가 있는데, 솜저고리도 솜을 매우 얇게 넣었다. 저고리의 섶은 모두 겉섶선이 이동하였고, 옷고름은 짧고 좁다. 특히 안동 권씨의 수의로 한삼, 민저고리, 회장저고리, 거들지 달린 저고리 순서로 입고 있어 예복용 저고리는 거들지 달린 저고리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저고리 2벌을 껴입는 풍속도 있음을 안동 권씨 묘 출토 저고리를 통해 알 수 있다. 18세기 중기의 저고리의 특징은 강원도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불(1748) 복장저고리 1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고리 길이 37.5㎝, 화장 75㎝, 품 39㎝로 깃은 깎은 목판당코깃이고 깃 너비는 8.2㎝이다. 옷고름과 동정은 떼어져 알 수 없다. 18세기 저고리를 17세기와 비교하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품은 좁아지며 소매도 좁아진다. 깃은 깎은 목판당코깃이며 깃을 놓을 때는 많이 굴려진다. 옷고름은 좁고 짧다. 혜원 신윤복(1758~?)의 풍속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19세기 전기 여자 저고리는 청연군주(1754~1821) 묘 출토 성인 저고리로 짐작되는 저고리를 살펴보면 저고리 길이는 25~29.5㎝, 화장 67~73㎝, 품은 34~44㎝이며 저고리 깃 모양은 깎은 목판당코깃이다. 19세기 말 이연응(1818~1887) 묘 출토 여자 저고리는 저고리 길이 21.5㎝, 화장 73㎝, 품 42㎝이다. 깃 모양은 당코동그레깃으로 깃 궁둥이가 목판깃에서 둥글어졌다. 깃 너비도 5㎝로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좁아지고 소매가 좁아지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했던 저고리의 명칭은 '저고리'라는 이름으로 일원화된다. '겹마기(견마기)'는 16세기에는 저고리의 일종이었으나, 20세기 초에는 저고리의 장식 부분 명칭으로 되었다. 1900년대를 전후하여 저고리 길이는 20㎝ 정도로 매우 짧아져 가슴선 위로 올라갔으며, 진동도 16~19㎝로 좁아져 가슴이 노출되기도 하여 가슴을 가리기 위한 허리띠가 필요하였다. 저고리 깃도 3㎝ 정도로 좁아졌으며, 옷고름도 좁고 짧았다. 깃은 둥근당코깃 형태였다.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저고리 길이가 25~27㎝ 정도로 1910년대보다 길어졌다. 이 시기에 큰 변화가 당코깃이 사라지고 둥그레깃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더불어 깃과 끝동 겨드랑이 부분의 견마기, 고름에 자주색 비단을 댄 회장저고리가 사라지고 대부분 장식이 없는 민저고리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혼례복에는 회장저고리를 입었다. 1920년대 후반 한복이 여학교 교복으로 채택되면서 형태도 단순해지고 저고리 길이도 길어졌다. 1930년대 저고리 길이는 1920년대보다 더 길어져 저고리 길이 30~34㎝, 진동 19㎝, 깃 너비 4㎝, 고름길이는 75㎝, 너비 4~5㎝ 정도이다. 1940년대에는 저고리 길이가 가장 길어져 거의 허리길이 정도였고 상대적으로 화장은 짧아지고, 깃과 고름 그리고 동정 너비가 가장 넓은 시기이다. 민저고리가 대부분이었고, 저고리에 장식을 할 때에는 자주고름에 남색끝동을 하였다. 특별히 혼례용 저고리는 다홍색 깃과 끝동과 고름에 금박을 찍어 장식하였다. 저고리 고름 대신 단추나 브로치를 달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193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인조견이 선풍을 일으킨 시기이다.

1950년대에는 저고리 길이가 1940년대와 비교하여 조금 짧아지며 소매통이 넓어지면서 배래가 곡선으로 변화여 붕어배래 형태가 등장하였다. 동정에 딱딱한 종이 심을 넣어 기성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1960년대 초는 1950년대 후반과 비슷한 형태의 저고리가 유지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이유로 한복이 활성화되고 고위직에서 한복을 예복으로 입게 되면서, 한복의 형태도 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저고리 길이도 짧아지고 품이 좁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깃과 고름 동정 모두 좁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저고리의 겉감을 부드러운 옷감을 사용하면서 심감을 넣기 시작하여 저고리 겉감과 심감 그리고 안감을 사용하는 3겹 바느질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는 한복의 예복화 시기이다. 새마을운동으로 인하여 지방까지

일상복은 서양복으로 변하였고,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명절복, 대학의 사은회, 결혼식 참석, 교회 갈 때 입는 옷 등으로 목적이 변화하면서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이 강화되었다. 실루엣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이다. 치마가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졌다. 그리고 깃 길이도 길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길어졌다. 1980년대는 한복의 예복화 현상은 지속되었으나, 저고리의 길이는 조금 길어지고, 깃과 끝동 고름에 다른 색을 댄 회장저고리가 유행한 시기였다. 더불어 전통한복에 대한 관심은 궁중예복인 당의 착용의 유행을 가져왔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사철깨끼 감의 유행으로 한복에는 깨끼바느질이 유행했다. 1990년대부터 조선시대 출토복식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고급 한복 매장의 번창으로 한복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저고리는 길이가 길어지고 깊과 섶, 동정이 넓어졌다. 2000년대 후반부터 마치 조선시대 복식으로 회귀한 듯한 형태의 저고리가 소개되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등의 영향으로 일반 여성의 저고리는 19세기 후반의 짧은 저고리 길이와 좁은 직선 소매 거들치 등이 유행하였다. 2010년에는 저고리 길이는 27㎝ 내외로 길어지고, 깃도 넓어지며 깃 모양은 깎은 목판당코깃과 넓은 동정이 유행하며 섶도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당코깃저고리는 깃 모양이 당코인 저고리이다. 당코란 깃머리 앞쪽을 사선으로 베어낸 형태이다. 당코깃이라는 명칭은 중국 명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명나라 출토복식 여자 저고리에는 목판당코깃저고리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1620년대 이후 등장하는 저고리의 깃 모양으로 16세기의 목판깃에서 깃머리를 사선으로 베어 낸 것이다. 이후 19세기 말까지 목판 당코깃이 유지되었으나 19세기 말경 깃 궁둥이가 둥글어진 당코둥그레깃으로, 1920년대 후반에는 당코깃이 사라지고 둥그레깃으로 변하였고, 현대에는 2010년경부터 깃이 넓어지면서 목판당코깃이 다시 유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저고리는 한복을 구성하는 기본 복식으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복식 용어이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옷으로 시대에 따라 형태가 변하였다. 남녀 공용의 옷이나 옷감과 장식에 따라 민저고리·회장저고리·삼회장저고리 등으로 불리고, 홑옷·겹옷·누비옷 등의 구성법에 따라 홑저고리·겹저고리·누비저고리·박이저고리 등으로 불린다. 깨끼저고리는 항라·노방·생고사 등의 얇고 비치는 옷감을 두 겹으로 곱솔 바느질한 저고리를 말한다. 주로 여름용에 사용되는 저고리로 솔기가 매우 얇고 섬세한 고급 바느질을 한 옷이다. 관대깃저고리는 경북 지역의 아기용 저고리로, 관대깃이란 겉깃 끝이 약간 구부러진 것을 말한다. 관대冠帶라는 명칭은 관리가 입는 옷을 칭한다. 민간에서는 3대를 계속해서 관대깃저고리를 입히면, 집안에 과거 급제하는 인물이 나온다고 하여 잘 세탁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입혔다고 한다. 안동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관대깃저고리는 문경 호계면 구산리에서 나온 저고리로 깃모양은 관리들의 복식인 단령團領의 깃에 가깝다기보다는 원삼圓衫 깃에 가까운 형태이다. 회장저고리는 여자 저고리에서 깃, 끝동, 곁마기 등에 길과 다른 색상의 옷감으로 장식한 저고리이다. 회장저고리[回粧赤古里]라는 기록은 1632년 『인목왕후빈전도감의궤仁穆王后殯殿都監儀軌』에 처음 보인다. 유물로는 1464년 강원도 평창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 유물인 국가민속자료 제219호 회장저고리가 있다. 20세기에는 깃과 끝동 고름에 다른 색상의 옷감을 사용한 반회장저고리와 곁마기까지 다른 색상의 옷감을 사용한 삼회장저고리로 구분하였다.

참고문헌 그리운 저고리(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7), 안동지역전통복식(이은주, 안동대학교박물관, 1996), 조선시대 저고리류 명칭에 관한 연구(황유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회장저리와 견마기 재고(박성실, 미술자료54, 국립중앙박물관, 1994), 한국복식사전(dic-costumekorea.org).

필자 송미경(宋美京)

적관
翟冠

정의 조선시대에 왕비가 적의翟衣를 입을 때 머리에 쓴 것으로, 꿩모양의 호화로운 장식이 달린 의례용 관.

내용 적관翟冠은 조선 전기 명나라에서 조선의 왕비에

게 대삼·배자·하피와 함께 보낸 예관으로, 꿩 모양 장식이 일곱 개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명나라 황후와 황태자비가 쓴 봉관鳳冠보다 격이 낮은 명 군왕비의 관제에 따른 것이다. 고대부터 여성의 머리 장식은 비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송대에 이르러 여성용 관이 황후 이하 명부의 의례용 수식으로 제정되었다. 『송사宋史』 여복지輿服志에 따르면 황후의 관은 초기에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이었으나, 1139년(소흥 9)에 용봉화채관龍鳳花釵冠으로 바뀌었다. 명부命婦는 용봉龍鳳 장식이 제외된 화채관花釵冠을 썼는데, 품계에 따라 꽃의 개수에 차등을 두었다. 명대에 이르러 봉관은 더욱 발전하였고, 용도에 따라 예복용과 상복용으로 구분되었다. 1405년(영락 3) 이후 명나라 나름의 복식제도가 정비되면서 봉관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황후의 예복용은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 상복용은 쌍봉익룡관雙鳳翊龍冠이고, 친왕비와 군왕비는 황후의 용봉관 대신에 격이 낮은 적관을 썼다. 친왕비제는 1370년(홍무 3)에 구휘사봉관이었으나, 1405년(영락 3)에 구적관九翟冠으로 바뀌었다. 군왕비제는 칠휘이봉관七翬二鳳冠에서 칠적관七翟冠으로 바뀌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1370년(공민왕 19) 5월에 명明 효자황후孝慈皇后 마씨馬氏가 노국대장공주에게 보낸 것은 군왕비의 칠휘이봉관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1403년(태종 3) 10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는 1405년에 바뀐 칠적관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1403년 이후에도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중전 책봉을 위한 고명과 함께 주취칠적관·적관·배자·하피 등을 보낸 기록이 17세기 초반까지 여러 건 확인된다. 실록에 나타난 적관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1정頂·금잠金簪·금적金翟·보전화寶鈿花·결자結子"와 같이 대략의 명칭들만 나열되어 있어 그 형태를 아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1403년의 기록을 보면 비교적 상세한데, 이를 보면 적관에 크고 작은 진주가 4,000개 이상 소요되었으며, 그 밖에 금과 주취의 장식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적관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국 적관 출토품에 의하면 꿩 장식은 은실과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진주와 새 깃털을 부착하여 장식되었다. 중국에서는 익선왕益宣王 왕비 손씨孫氏의 적관과 영정왕寧靖王 왕비 오씨吳氏의 적관 유물이 출토품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적관의 틀은 구리실로 엮어 만들었으며 그 위를 검은 라羅 직물로 쌌다. 관의 아래에는 금으로 만든 구권口圈이 연결되어 있고, 구권의 표면에는 꽃 장식이 있다. 관 뒤에서 양쪽으로 펼쳐지는 장식인 박빈은 댓살을 엮어 길게 만들어서 관에 달았으며, 금봉황 비녀 한 쌍이 관 위에 꽂혀졌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 청나라에서는 왕비의 적관을 보내지 않았으며, 조선 후기 왕실 예복의 국속화와 함께 적관도 가체와 비녀로 만든 대수大首로 대체되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로 황후, 황태자비 예복 제도를 마련해 심청색 적의와 함께 구룡사봉관을 사용하도록 제정하였으나 시행 여부는 알 수 없다. 적의를 입은 순정효황후 윤씨의 사진이나 영친왕비의 유물에서도 대수가 확인된다.

특징 및 의의 주취칠적관은 조선 전기 역대 왕비가 법복에 갖추었던 최고의 예관으로, 명나라에서 군왕비 예복과 함께 받은 것이다. 일곱 개의 꿩 장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금과 주취로 호화롭게 장식되었다. 적관의 사여는 국초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으나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더는 중국에서 적관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후 왕비의 적관은 체발과 비녀로 만든 대수로 대체되어 국말까지 이어졌다.

참고문헌 高麗史, 大明會典, 明史, 宋史, 조선시대 적관에 관한 연구(김지연·홍나영, 복식60-7, 한국복식학회, 2010).

필자 김지연(金知娟)

적삼

정의 상의 가장 안에 입는 받침옷과 주로 여름에 착용하는 겉옷으로 홑저고리.

내용 적삼은 홑옷의 상의이며 가장 안에 입는 옷으로 삼衫은 의를 통칭하거나 홑옷을 지칭하여 일반 상의의

적의
翟衣



적삼 | 길이 39 품 50 화장 68 |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개념으로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적삼으로 표현하였다. 『자류주해字類註解』에서는 적삼을 흔히 크기가 저고리보다 작고 홑으로 제작된 땀받이옷이라고 지칭한다. 적삼은 저고리와 동일한 형태이나 고름이 없고 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한다.

적삼은 깃·무·섶·고름·바대·옆트임이 있는 옷으로 조선시대 남녀가 공용으로 상의 가장 안에 착용하였다. 여름에는 모시를 소재로 홑으로 제작했는데, 함경남도 지방에서는 저고리를 적삼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삼이 조선시대 남녀가 공용으로 착용했다는 정확한 시기 구분은 알 수 없다. 한글로 명칭이 표기되면서 적삼·한삼·삼아에 대한 용어가 적삼으로 통일되었다고 본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남성용 적삼은 무의 형태가 깃의 형태와 연계성이 있어 목판깃에는 삼각소매무나 삼각무가 일반적이며, 칼깃에는 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남성 적삼의 깃의 종류는 목판깃·칼깃·둥그레 깃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는 삼각 소매무나 삼각무, 또는 무가 없는 것도 있다. 현재 적삼은 홑옷의 받침옷인 속적삼과 여름철에 입는 홑겹의 적삼으로 통용된다.

참고문헌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2), 적삼에 관한 연구(박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선시대 남녀공용의복에 관한 연구(김은정,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선시대 남성분묘 출토 적삼고찰(권준희, 권영숙, 복식59-3, 한국복식학회, 2009),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김은정(金垠呈)

정의 왕비, 세자빈, 세손빈 등 왕실의 적통을 잇는 비빈이 착용하는 대례용 법복法服.

내용 적의는 관복冠服, 명복命服, 예복禮服이라고도 하였다. 적의제도는 시대에 따라 크게 4단계의 변화를 거쳤다. 1단계는 고려시대 1370년(공민왕 19) 명나라에서 공민왕비에게 적문翟紋이 있는 심청색 9등 적의 일습을 보내와 처음으로 왕비 관복으로 수용하였다. 2단계는 1403년(태종 3)부터 1625년(인조 3)까지 명에서 조선 전기의 역대 왕비에게 대홍색 대삼大衫 일습을 관복으로 사여받아 이를 적의로 착용하였으며, 3단계는 1627년(인조 5)부터 1882년(고종 19)까지 대삼에 기초한 조선식의 후기 적의제도가 완성되어 시행되었다. 4단계는 1897년(고종 34) 대한제국의 성립으로 황제국 제도에 따른 황후용 심청색 12등 적의제도로 개정된 것이다. 이상의 적의제도는 명 황실의 관복제도에 근거한 것이며 적의를 착용할 때는 옷을 포함하여 관冠에서 대帶, 의례용 신발과 다양한 부속품까지 일습을 갖추었다. 적의는 왕비나 세자빈으로 책봉 받을 때, 국혼인 가례嘉禮 시 친영의와 동뢰연, 조현례朝見禮 그 밖에도 명절이나 탄신일에 조하朝賀를 받을 때, 궁중 연회, 존호를 올릴 때 등에 착용하였다. 묘현례廟見禮에는 제복祭服으로, 국장國葬 시에는 대렴의로 사용되었다.

공민왕비 적의 일습은 꿩7, 봉황 2마리와 크고 작은 수식이 있는 칠휘이봉관七翬二鳳冠, 청색 바탕에 꿩무늬를 9등으로 수놓은 적의, 적의 속에 입는 소사중단素紗中單, 의식용 폐슬蔽膝과 후수後綬, 패옥佩玉, 대대大帶, 옥혁대玉革帶, 의식용 버선인 청말靑襪과 신발 청석靑舃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민왕비 적의는 송나라 명부命婦 제1품 관복에 해당하였다.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송 인종仁宗(1022~1063) 황후 좌상에서 당시의 제도를 참조할 수 있으며, 대한제국의 황실용 적의제도와 유사하다.

조선 전기 왕비의 적의 일습은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과 대홍소저사대삼大紅素紵絲大衫, 청저사채수권금적계배자靑紵絲綵繡圈金翟鷄褙子와 청선라채수권금적계하피靑

綠羅綵繡圈金翟鷄霞帔, 하피 중앙에 달리는 장식용 삽화금추자鈒花金墜子, 의식용으로 손에 잡는 상아여홀象牙女笏 등이다. 대삼은 명 황후와 황태자비의 상복常服이자 황비皇妃 이하의 예복으로, 예복은 대홍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여된 대삼은 대홍색의 무늬가 없는 비단[素紵絲]으로 장식이 없고 하피와 배자는 청색 비단에 금적계문金翟鷄紋을 수 놓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삼은 하피와 일습으로 구성되며 하피의 문양은 신분에 따라 구분되었다. 칠적관을 착용하는 명明의 군왕비群王妃 하피는 심청색의 금수운하적문金繡雲霞翟紋이며 배자[四褾襖子]는 도홍색의 금수적문, 홀은 옥곡규玉穀圭로 되어 있다. 반면 공후公侯 및 명부命婦 1품과 2품 하피와 배자는 심청색 비단에 금수운하적문이 있는 것이며 홀은 상아홀이었다. 조선의 관복은 명 황실의 관복제도에 준하여 규정되었으나 적계문 하피는 『대명회전』, 『명실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유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중국 남창南昌에서 발굴된 명 영정왕寧靖王 부인 오씨吳氏(1439~1502)의 대삼, 하피, 금추자 등 유물을 참조할 수 있다. 무문단無紋緞 대삼은 맞깃[對衿]에 소매가 넓고 앞이 짧고 뒤가 긴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 홑옷이며 진동 아래부터 길게 트여 있고 넓은 동정이 달려 있다. 라羅로 만든 하피는 한 폭을 반으로 나누어 두 장을 길게 이어 너비 13㎝, 총길이 245㎝ 긴 띠의 형태로 만들고 이은 부분을 삼각형 형태로 접고 끝에 금추자를 걸게 되어 있다. 마치 조선의 신부용 도투락댕기와 유사한 형태이다. 한쪽에 적문翟紋 7개씩 14개와 구름문을 금사로 수놓았으며 단추와 끈이 달려 있다. 하피는 금추자가 달린 부분을 앞중심에 오도록 하고 나머지는 양 어깨에 걸쳐 등판에 달린 삼각형 주머니 두자兜子에 넣었다. 대삼과 하피를 착용한 황후상 복원도를 보면 앉아 있을 때 금추자는 앞 도련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전기 적의 착용법에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성현成俔(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태종 대에는 명에서 가져온 왕비 관복 착용법을 알지 못하여 귀화인 명승明昇 모친이 궁중에 들어와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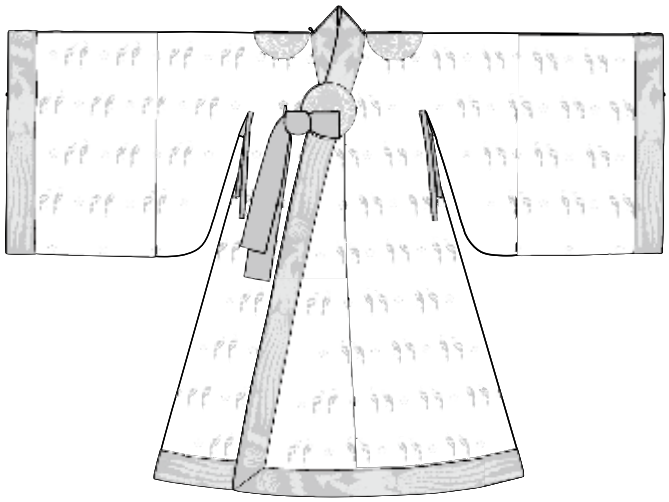
조선 후기 적의는 명의 멸망으로 사여가 중단되어 소현세자 가례(1627)부터 직접 제작하였다. 대삼제도에 근거한 조선의 제도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칠적관은 계해년(1623) 이후부터 체발髢髮로 수식을 대체하였다.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1638)에는 유일하게 채색된 도설자료가 남아 있다. 적의 일습은 대홍광적廣的 대삼·아청모단冒段 하피·옥대·수綬·패옥·대대·청옥규靑玉圭·적말赤襪·적석赤舃 등이며, 적관을 대신하여 체발髢髮 68단 5개, 크고 작은 비녀가 있다. 대삼은 오씨 부인 유물과 유사하나 운봉雲鳳 흉배가 달리고 어깨와 옆선에는 봉황과 유사하게 수놓은 수원적繡圓翟 36개를 달아 꿩무늬[翟紋]를 표현하였다. 하피는 오씨 유물 제작 과정처럼 모단 6척을 반으로 갈라 길게 이어서 길이가 두배로 길어져 적계문翟鷄紋도 14개씩 28개로 늘어난 상태이다. 이미 완성된 하피를 기준하여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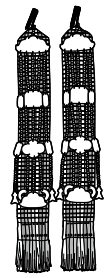
대삼의 색상은 세자빈 아청색, 왕대비와 대왕대비 자적색, 혜경궁 홍씨는 천청색天靑色으로 구분하였다. 영조 대에 이르러 완성된 적의 제도는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1751)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왕비 예복제도로 제시된 적의 일습은 규·수식·적의·하피·상裳·대대·옥대·패옥·후수·폐슬·말·석 등이다.

규는 백옥이며 형태는 전하의 규와 같다. 전하의 규는 길이 9촌, 너비 3촌, 끝을 뾰족하게 깍는 염수는 1촌 5푼이다. 세자빈, 세손빈은 청옥규이다. 수식은 1623년부터 체발로 수식을 대신하였으나 점차 줄어 영조 대부터 10단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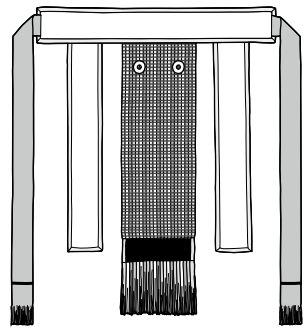
적의는 대홍단으로 하며 앞은 배자와 같이 맞깃형으로 내려오고 앞길이는 치마 끝에 닿으며 뒤는 1척이 길게 하였다. 오조원용보五爪圓龍補를 달고 수원적 51개를 부착한다. 왕세자빈 적의는 흑단으로 하고 수원적 51개는 왕비와 같으며 사조원용보를 달아 차이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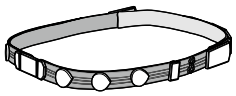
하피는 흑단을 겉으로, 안감은 홍초로 하고 운하雲霞 28개, 적문 26개를 금가루로 그려준다. 왕세자빈은 왕비와 같게 하였다. 현재 심청색 12등 적의와 9등 적의 유물에는 운문과 적문이 각각 26개씩 부금된 하피가 포함되어 있고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하피에는 운문 25개, 용문 24개가 부금되어 있다. 심청색 적의제도에는 하피가 포함되지 않으나 조선의 적의로 착용되었던 대삼용 하피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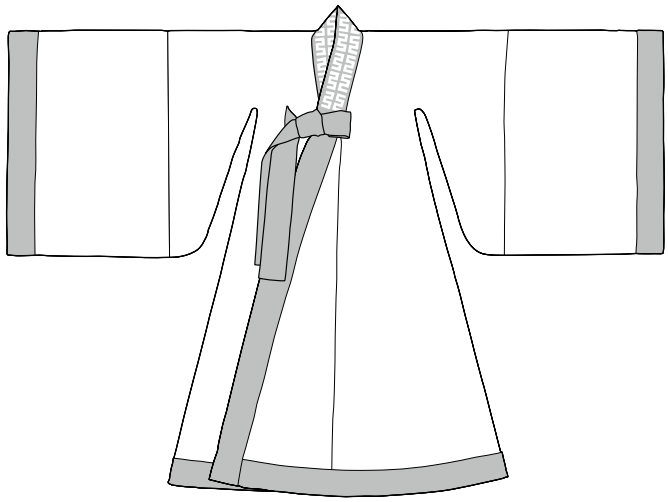

적의


패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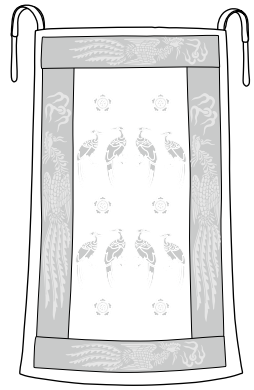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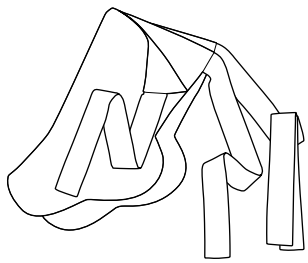

대대·수


옥대


중단


하피


폐슬


말


석

적의 일습 구성품 | 국립고궁박물관



황후 적의 | 길이 155 품 53 화장 101 | 20세기 초반 | 세종대학교박물관

상은 청단青緞으로 하고 앞 3폭과 뒤 4폭으로 된 잔주름 치마이다. 왕비는 직금織金한 용무늬 스란[膝蘭]이며 왕세자빈은 봉무늬 스란이다. 현재 심청색 적의용 위치마[上裳] 유물이 남아있다.

대대는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말하며 겉 대홍단, 안을 백릉白綾으로 하고 녹색으로 선[緣]을 두른다. 양옆에 달린 청색의 띠로 매어준다. 왕세자빈도 같다. 옥대는 대대 위에 띠는 대로서 왕비는 조작한 옥을, 왕세자빈은 조각하지 않은 옥을 사용한다. 청단으로 싸고 금으로 봉鳳을 그려 주도록 하였다.

수는 후수를 말하며 전하와 동일하였다. 당시의 후수는 1746년(영조 22)부터 수입품(홍화금) 대신 적·청·현玄·표縹·녹색의 5색단을 제직하여 만들었다. 대대와 함께 허리 뒤에 착용한다. 패는 패옥을 말하며 크고 작은 옥이 5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받침은 후수와 같이 5색단이다. 허리 양옆에 드리운다. 폐슬은 가슴 부위에 부착하는 의식 용구로서 전하의 면복 폐슬과 동일하나 장문이 없이 다홍색 비단으로 만든 직사각형 형태이다. 왕비의 말은 적말이며, 왕세자빈은 흑단으로 만들었다. 석은 전하의 석과 같이 적석이며 다만 신코에 홍과 녹색 비단실로 만든 사화絲花 3개를 단다. 왕세자빈은 흑단이며 사화는 왕비와 동일하였다. 이 외에도 『국혼정례』(1749)와 『상방정례』(1750), 역대 국혼기록인 『가례도감의궤』(1627~1906)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고종은 1897년(고종 34)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국의 위상을 대표하는 황실 관복제도를 새로 규정하였다. 『대명회전』 1405년(영락 3)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대한예전』 제복과 관복 도설에 기록되어 있다. 황후의 관복은 적문이 있는 심청색 적의 제도로 바뀌었으며, 황태자 순종과 계비 윤씨의 병오년(1906) 『가례도감의궤』에는 적의 일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체발 10단·백옥규·심청색 적의·옥색사 중단·폐슬·옥대·대대·수·옥패·청말·청석과 모단 하피와 함께 대홍대삼도 포함되어 있다.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제67호 12등 적의본과 폐슬본, 국가민속문화재 제54호 황후 적의, 중단, 폐슬, 하피. 국가민속문화재 제55호 황후 청석,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영친왕 일가 복식 가운데 영친왕비 9등 적의와 부속품이 있다. 대한제국의 적의는 헌종의 계비 명헌태후明憲太后(효정왕후, 1831~1904)가 황제 등극이틀 후에 황태자비 민씨로부터 조알朝謁을 받을 때 처음으로 착용하였다.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황후 적의는 다채한 색사로 적문을 제직한 심청색 채적문단彩翟紋緞으로 12등 148쌍의 적문과 조선 황실의 상징인 이화문李花紋이 제직되어 있다. 가장자리는 대홍색 직금운용문능織金雲龍紋綾으로 둘렀고, 금사 오조룡원보五爪龍圓補가 달려 있다. 중단은 회색 비단에 홍색선을 둘렀으며, 깃 중심 좌우로 11개의 아자亞字형 불문黻紋이 금박되어 있다. 폐슬은 적의와 동일한 바탕에 대홍색 직금운용문단으로 가선되어 있고 이화문 4단, 적문 3단이 쌍으로 제직되어 있으며 위에는 폐슬을 고정하는 걸개[鉤子]가 달려 있다. 하피는 검은색 공단에 분홍색 고운 명주를 받쳤으며 운문과 적문이 각각 26개가 부금되어 있다. 길이 495㎝ 너비 11㎝이며 중앙과 11번째 운문 있는 가장자리에 1개씩 총 3개의 단추가 달려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적문은 위를 향하게 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 적의는 일습이 남아 있다. 적관은 체발과 다양한 수식품으로 되어 있다. 옥규는 백옥이며 길이 14.5㎝, 너비 7㎝이며 곡식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상단은 둥근 산山형이며, 다홍색 공단으로 손잡이 부분이 씌워져 있다. 적의는 12등 적의와 동일하나 138쌍의 적문과 168개의 이화문이 직성되어 있고, 오조룡보가 달리고 대홍색 가선은 운봉문으

로 되어 있다. 중단은 청회색 견絹이며 가장자리는 다홍색 비단으로 선을 둘렀고, 불문 11개가 금박되었다. 하피는 황후용과 동일하나 단추가 없다. 상은 위치마[上裳] 또는 전행웃치마로서 수복과 화문이 직금된 3가닥의 남색 잔주름 스란치마이다. 대대는 흰 공단에 안은 홍색이며 가장자리는 연녹색의 선을 둘렀고, 후수는 5색 단으로 만들고 금환 1쌍이 달려 있다. 옥대는 청단으로 싸고 조각하지 않은 백옥을 사용하였고, 금선장식은 자국만 남아 있다. 폐슬은 황후용과 유사하나 적문 2단, 이화문 3단이 배치되어 있고 홍색 가선에는 봉문과 화염문火焰紋이 금직되어 있다. 패옥은 오색단 받침에 5줄 옥이 있으며 면복 패옥함이라 명문이 있는 상자에 들어 있다. 청말과 청석이 있다.

심청색 적의를 착용할 때 하피를 두르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하피의 길이가 길어져 명 황실의 방법과 다른 조선식의 방법이 있었을 것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기록은 없다. 다만 윤황후로부터 황실 관복 일부를 기증받은 전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설립자는 상궁으로부터 전수받은 방법을 알려주어 현재까지 재현하고 있다. 즉 하피에 달린 단추와 적의 고대 양옆에 있는 고리에 끼우면 앞부분 하피는 무릎 아래 위치하게 된다. 뒤는 하피 중앙 고리를 등부분에 달린 가운데 단추에 끼우면 W 형태로 나타나 뒤가 끌리지 않고 정리된다. 등부분에 달린 3개의 단추를 대대를 걸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진동이 좁아 불가능하다. 또한 전단후장형이며 양옆이 트인 대삼에는 뒤 도련 단추가 필요하나 트임이 없는 심청색 적의에는 불필요하다. 반면 단추가 없는 하피를 착용한 영친왕비의 1922년 4월 조현례시 사진에는 적문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순종 근현례식 기념 사진 | 1922 | 국립고궁박물관

특징 및 의의 적의는 왕비를 포함하여 왕실의 적통을 잇는 비빈들이 착용하는 대례용 법복으로, 고려 말 공민왕비 이후 1922년 영친왕 가례까지 7세기 가깝게 착용되었던 예복이다. 조선 전기에는 칠적관에 대홍대삼을 사여받아 왕비의 적의로 착용하였고 후기에는 수원적과 흉배를 부착한 대삼을 신분별로 규정하여 조선의 적의제도를 정비하였다. 대한제국 때는 황후용 12등 심청색 적의제도를 새롭게 시행함으로써 법복을 통하여 독립국임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은 개국초부터 명 황실의 관복제도를 수용하여 왕과 왕비의 관복으로 착용함으로써 외교적인 정책의 일환이 되었다. 이는 명의 패망 이후에도 지속되어 조선의 위상은 물론 소멸된 동아시아의 전통복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大明會典, 大韓禮典, 明實錄, 昭顯世子 嘉禮都監儀軌, 純宗純宗妃 嘉禮都監儀軌, 承政院日記, 仁祖莊列后嘉禮都監儀軌, 朝鮮王朝實錄, 尙方定例, 고종대례의궤(서울대학교규장각, 2001), 고궁문화4(국립고궁박물관, 2011), 국역 중국정사여복지(소종 외 역, 민속원, 2014), 문물 권제561기(국가문물국 문물출판사, 2003),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문화재청, 2006),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용제총화(성현, 김남이 외 옮김, 2015), 조선왕조궁중의궤복식(유송옥, 수학사, 1991).

필자 박성실(朴聖實)

전
氈

정의 직조나 열접착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양모를 축융해 만드는 펠트의 일종.

내용 모전毛氈은 모 섬유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양이나 산양의 털을 겹치고 수분·증기·압력·마찰 등을 가하여 서로 엉키고 줄어들도록 만든 펠트이다. 양모의 특성 중 하나인 스케일scale(양모의 각질 세포가 겹쳐 이루는 비늘 모양)과 크림프crimp(섬유가 고불고불하게 오그라드는 성질) 등을 이용한 것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직조한 것이 아니므로 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대 모

직물 중 고급품에 속하여 좌식 생활을 하면서 딱딱한 바닥에 까는 깔개 및 추위를 견디기 위한 방석 및 카펫의 용도로 대부분 왕·귀족·승려 계급에서 사용하였다. 그 외에 갑옷·신발·모자 등에도 사용했다. 조선시대 무관의 군복인 전복戰服에 착용하던 전립戰笠이나 군사 일을 하던 관청에 속한 군노軍奴와 하인들이 주로 쓰던 벙거지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일본의 관인들이 신라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 관청에 제출하는 물품 주문 목록 및 구입 신청서인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에는 동남아시아·인도·아라비아·중국산의 각종 향료·약재·염료 등과 함께 신라의 모전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일본의 정창원正倉院에는 신라 생산품으로 추정되는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화전花氈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록에 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장氈匠이 있으며, 상의원尙衣院에서 편찬한 궁중 의복에 관해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전삼氈衫·홍전紅氈·우모전牛毛氈·양모전羊毛氈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 전은 소·양털 등을 원료로 하여 제직하거나 붉은 홍색 등으로 염색한 것이 왕실에서 사용되었으며 의복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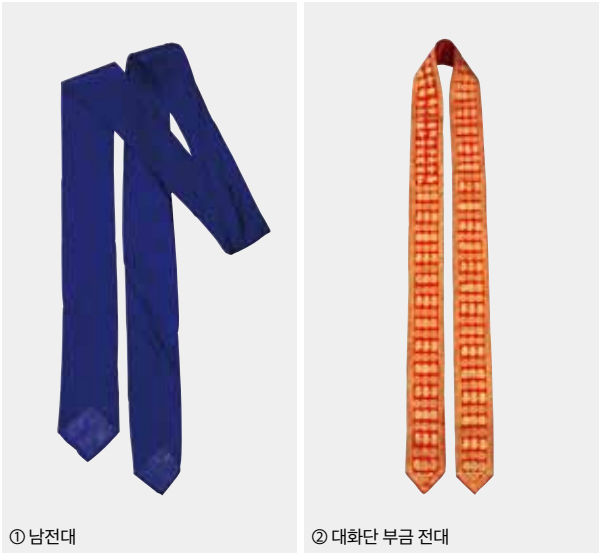
참고문헌 經國大典, 買新羅物解, 尙方定例, 전통옷감(민길자, 대원사, 1997),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장현주, 복식54-8, 한국복식학회, 2004),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博物館, 1998), 中國染織史(吳淑生·田自秉, 上海人民出版社, 1986).

필자 장현주(張賢珠)

전대
戰帶

정의 조선 후기 군사 복식에서 허리나 가슴 부분을 묶는 띠.

내용 전대戰帶는 글자 그대로 전투용 대인데, 군복이나 갑옷 등 군사복식을 착용할 때 허리에 묶는 띠이다. 조선 전기에는 융복인 철릭을 착용할 때 납작한 매듭띠인 광다회로 묶어 입었다. 임진왜란 이후 융복과 군복으로



① 남전대 ② 대화단 부금 전대

전대 | ① 길이 234 너비 1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220 너비 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이원화하면서 협수나 동다리 위에 전복을 입고 전대를 뒤에서 앞으로 묶어 입었다.

전대는 흔히 남전대藍戰帶라고 부른다.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군복용 전대 유물은 주로 남색 비단으로 만드는데, 조선 후기 궁중기록화, 의궤반차도, 초상화에서 군복이나 갑주甲冑를 착용한 무관과 군사들이 남색 허리띠를 맨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정조실록正祖實錄』에 정조 국장 시 대렴의대용으로 남령초전대藍領綃纏帶, 『일성록日省錄』에는 남화화주전대藍禾花紬戰帶,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는 남백전대藍帛纏帶가 기록되어 있다. 궁중연향에 관련된 의궤에서 군복 차림을 갖추는 검기무, 무고 정재여령의 전대 역시 남색 비늘무늬 갑사[藍鱗紋甲紗]로 만들었다.

전대를 착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넓고 두꺼운 요대腰帶를 두르고 그 위에 전대를 매기도 하였고, 요대 없이 전대만 단독으로 매기도 하였다. 철종의 어진, <화성능행도>, <평양감사향연도>,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는 요대와 전대를 모두 착용하였으나, 다른 초상화나 풍속화에서는 전대만 맨 모습도 보인다.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반차도의 경우 군관이나 장교는 요대 위에 전대를, 취고수 같은 일반 군사는 남색의 허리띠만을 맨다.

일반적인 포백대는 원하는 허리띠의 길이만큼 옷감을 마름질한 후 길이 방향으로 반 접어서 가장자리

를 바느질하여 만든다. 그러나 전대는 원하는 길이보다 더 길게 마름질한 후에 사선으로 놓고 나선형으로 돌려 가며 옷감을 접어서 서로 맞닿는 부분을 봉재하여 만든다. 이 때문에 초상화에서는 전대의 끝부분이 뾰족하게 그려져 있고, 의궤 복식도의 전대에는 사선으로 연결한 구조가 확실하게 그려져 있다. 전대 유물은 대부분 용무늬가 둥글게 직조된 남색 갑사를 재료로 만들었고, 너비는 10㎝ 전후이고 길이는 250~380㎝까지 다양하다.

전대는 군복뿐 아니라 남자 어린이옷에도 사용되었다. 두루마기 위에 남색 전복을 착용할 때는 홍색 술띠를 매기도 하고, 홍색 바탕에 금박을 찍은 전대를 매기도 하였다. 영친왕의 아들인 이구왕자(1931~2005)의 어린 시절 복식유물 중에는 다홍색 비단 위에 수壽와 복福, 꽃과 길상문자 등을 금박으로 찍은 전대가 포함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전대는 조선 후기 군복이나 갑옷을 묶기 위한 허리띠이다. 대부분 남색 비단을 길게 자른 후 나선형으로 감아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곧은 올 방향이 아니라 어슨 올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축성이 생겨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다. 또한 원통형으로 제작되므로 중요한 문서나 물건을 담은 채 착용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정조 시대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박가영·이은주, 한복문화 7-3, 한복문화학회, 2004), 조선 후기 전복의 용도와 착용방식(박가영, 한국복식 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조선 후기 오군영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염정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권오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박가영(朴嘉玲)

전립
戰笠

정의 조선시대 무관의 구군복具軍服에 착용한 패랭이형 모자.

내용 조선시대의 구군복은 무관이 착용한 군복의 일습으로, 전립戰笠·이엄耳掩·협수狹袖(동다리)·전복戰服·목화木靴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전대戰帶와 병부兵符를 차고 환도環刀와 통개筒箇·등채[籐策, 藤鞭]를 갖춘다.

구군복의 한 요소인 전립氈笠은 모립毛笠이라고도 하였으며, 한자를 달리하는 전립戰笠과 동일한 명칭이다. 전氈이란 짐승의 털을 다져서 두껍게 만든 무늬 없는 소재를 말하는데, 한자어의 전립氈笠은 소재의 특성에 따라 지칭한 것이다. 한자가 다른 명칭인 전립戰笠은 조선 후기 무관이 전쟁 시 구군복을 주로 착용했기 때문에 생겼다.

전립氈笠은 짐승의 털을 다져서 만든 담毯을 틀에 넣어서 밑바닥이 둥근 밥그릇을 엎어 놓은 형태의 높고 둥근 모자집[帽屋]과 테두리[簷]가 달린 형태로 만든 패랭이형의 입자笠子를 말한다. 전립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갓의 구성처럼 모자집인 대우와 모자의 챙인 양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갓의 대우가 윗부분이 약간 좁은 원통형인 것과는 달리 대우의 형태가 밥그릇을 엎어 놓은 것과 같은 복발형覆鉢型인 것이 특징이다. 고급 무관이 쓰는 전립은 안쪽을 남색의 운문단雲紋緞으로 꾸몄다.

정조 대에 편찬한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전립戰笠은 군사들만 썼으며 병자·정묘호란 이후에는 군사와 일반백성이 함께 사용하는 입모笠帽가 되었고, 포립布笠에 비하여 작고 뾰족하나 첨簷이 점점 넓어지는 폐단을 우려하는 기록이 보인다. 챙이 넓어져 갓과 비슷한 사치스러운 입모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 또한 궁중기록화나 풍속화에 등장하는 검기무를 행하는 무희舞姬도 전립을 착용했는데, 착용된 전립의 챙은 비교적 좁은 편이다.



① 전립 | 높이 9.5 지름 34.5 | 20세기



② 무인 초상화 중 부분 | 조선

전립 | ① 국립민속박물관, ② 육군박물관



전립 쓴 기녀 | 신윤복 | 쌍검대무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전립의 모옥 꼭대기에는 장식품인 정자[頂子·鎗子]를 달고 공작 꼬리나 붉은 털 장식인 상모를 달았다. 모옥과 양태가 이어지는 부분은 짐승의 털을 꼬아서 만든 끈으로 두른다. 양옆에는 매미 모양의 밀화蜜花로 장식하고, 끈으로는 밀화구슬을 꿰어 만든 밀화영蜜花纓을 달았다. 전립의 꼭대기에 장식하는 정자로 직품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정조실록正祖實錄』의 기록에 정자 재료는 도금鍍金·조금雕金·순은純銀·누은鏤銀·발결髮結·목각木刻 등이며 이들의 재료로 직품을 표시한다고 했다.

조선 중엽 이후 품질이 좋은 저모豬毛를 소재로 하고, 전립의 안쪽에는 남색의 운문단을 올리고 고급 재료의 장식과 밀화영을 다는 등 고급 무관이 쓰던 화려한 전립을 '안올림벙거지'라고 했다. 반면 품질이 낮은 돈모豚毛로 만들고 장식이 없는 전립은 직급이 낮은 병졸이 착용하였으며 이를 '벙거지' 혹은 '벙테기'라고 불렀다.

전립의 색상은 검정색이 기본이며 백전립白戰笠은 국상을 당했을 때 착용했고, 홍전립은 능행陵幸이나 국가적 행사 같은 의식을 행할 때 착용했다. <수원행행도水原行幸圖>를 비롯한 능행도에 보이는 많은 의장수들은 붉은색 전으로 만든 홍전립을 착용하였다.

『헌종실록憲宗實錄』에 장신將臣의 죽전립竹戰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과 고종 대에 편찬한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말총[髮]이나 말갈기[髮毛]로 만든 전립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말총으로 만든 전립髮笠이나 대나무로 만든 죽전립竹戰笠을 금하는 이유는 모전으로 만든 것은 부드럽고 두꺼워서 화살촉이 뚫기 어려운데, 말총으로 만든 전립은 단단하지만 얇아 잘 뚫리기 때문이다.

전립은 전란 중에는 화살촉이 뚫기 어려운 전으로 만든 기능적인 것을 착용했다. 점차 사회가 안정되면서 값비싼 말총이나 대나무 같은 사치스러운 재료로 만들어 착용자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다. 결국 기능성을 고려하고 폐단을 막기 위해 나라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말총이나 대나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의 유물 중에는 말총이나 대나무를 엮어 만든 죽전립이 있으며, 철종 어진에서도 죽전립의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구군복의 일습으로 착용된 전립은 조선 말 사회가 근대화되고 갑오개혁으로 서구식 군복이 도입되면서 소멸하였다.

특징 및 의의 무관들의 구군복에 갖추어 착용하는 모자인 전립은 짐승의 털을 다져서 만든 담毯으로 두껍게 만들어, 전투할 때 화살촉이 뚫기 어렵게 하고 몸을 보호할 목적으로 착용하였다. 비록 기능적인 목적으로 착용했지만, 전립의 모정에 상모를 장식하고 직급에 따라 각기 다른 재료의 정자를 장식하여 직급을 구분하기도 했다. 모옥과 양태가 이어지는 부분의 양옆에는 매미 모양의 밀화 장식과 밀화구슬로 된 밀화영을 달아 화려하게 꾸몄다.

전립은 무관이 착용하는 구군복의 구성요소로 특히 전쟁 시에 화살이 뚫기 어렵게 하는 방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재료로 만들어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전립은 구분복과 함께 서구식 군복에 밀려 착용하지 않게 되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무용 중 검기무의 복식과 농악대의 상모놀이 복식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林下筆記, 靑莊館全書, 憲宗實錄, 조선시대의 어가행렬(백영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조선시대의 융복에 관한 연구(이현숙,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조선후기 기록화에 나타난 검기무복식에 관한 연구(남미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유효순(柳孝順)

전모
箋帽

정의 조선시대 여성이 외출할 때 쓰던 삿갓 모양의 쓰개.

내용 전모는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먹인 종이를 발라 만든 조선시대 여성의 쓰개이다. 그 형태는 삿갓과 유사한데, 모정이 평평하고 안에는 머리 위에 쓸 수 있게 제작된 틀인 미사리가 있다.

전모의 어원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유모변증설帷帽辨證說에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자들의 쓰개를 설명하는 가운데 중국의 여성용 쓰개 석모席帽가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양털로 만들어 전모氈帽라고 하여 다투어 썼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석모는 당시 조선시대 기생과 여자 종이 쓰는 전모箋帽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내용에서 그 유래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전모의 한자 표기는 양털을 의미하는 전모氈帽가 아니라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종이를 의미하는 전모箋帽임을 알 수 있다.

전모는 회화 자료와 유물에서 확인되나 기록에서는 명칭과 함께 사용례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504년(연산군 10)의 기록에는 한 여인이 유모油帽를 쓰고 지나간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유지油紙로 만든 여자의 쓰개는 전모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1601년(선조 34)에는 의녀醫女의 여모女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의 기록화 등에서 착용한 예와 함께 비추어 보면 전모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모는 여모女帽 또는 유모油帽로도 기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모의 형태는 우산처럼 살을 대어 펼쳐진 모습으로 유물에서는 16개의 살을 대어 둥글게 아래로 펼쳐진 모부帽部를 만들었다. 그 위에는 한지에 기름을 먹인 유지油紙(기름종이)를 바르고 나비문양과 함께 수壽·복福·부富·귀貴의 글자를 넣어 화사하게 장식하였다. 삿갓과 달리 평평한 상부의 안쪽에는 머리둘레에 맞춘 둥근 테두리인 미사리를 받쳐서 모정이 머리에 바로 닿지 않도록 하여 쓰기에 편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였다. 회화 자료를 보면 미사리의 좌우에 붉은색의 끈을 달아 턱밑에 매어 얼굴을 살짝 가리게 착용하였다.

유지油紙는 조선시대 비나 눈을 막는 용도의 쓰개나 의복에 사용되었다. 한지에 기름을 먹여 만든 삿갓 모양의 지삿갓을 전모라고도 하였다. 이는 챙이 넓고 댓살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기녀나 의녀가 쓴 전모와는 형태가 다르다. 이러한 지삿갓 또는 전모는 조선 말기 사진 속에서 확인되며 어린이나 여성들이 사용하였다.

전모는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길을 가는 여성, 기녀의 모습에서 확인된다. 그 차림새는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전모를 쓴 모습이거나 검정색이나 자주색 천으로 만든 사각 형태의 쓰개인 가리마를 머리에 얹고 그 위에 전모를 겹쳐 쓴 다음 좌우의 끈을 턱밑에 매어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기록화에서는 말을 탄 기녀, 의녀들이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쓰개치마를 어깨에 두른 차림에 전모를 쓰고 있다. 풍속화나 기록화에서는 모체에 있는 구체적인 장식은 확인되지 않지만, 노란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어 유물의 색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전모는 모정에 머리둘레보다 작은 원을 두고 모체의 끝부분에는 얼굴을 가릴 정도의 원을 제작한 후 비스듬하게 대나무 실로 기둥을 대어 삿갓 모양으로 만든 후 유지를 바른 외출용 여성 쓰개이다. 안쪽에는 머리에 편안하게 얹어서 쓸 수 있도록 미사리를 두었고, 겉면에는 나비문양과 복福과 부富를 기원하는 한자를 오려 붙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전모는 조선시대 기녀·의녀 등 신분이 낮은 여성의 쓰개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생을 대표하는 쓰개로 인식되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영상물에서도 기생의 복식으로 자주 표현된다.



① 전모 | 조선



② 전모 쓴 여인 | 조선 후기

전모 | 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신윤복 | 국립중앙박물관

참고문헌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의 관모(온양민속박물관, 1988), 조선시대 풍속화(국립중앙박물관, 2002), 표준국어대사전-하(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김은정(金恩姘)

전복
戰服

ㅈ

전복

정의 조선 후기 군복 차림에서 협수 위에 입었던 소매가 없고 길이가 긴 조끼 형태의 포.

내용 전복戰服은 깃과 섶이 없어서 앞 중심선이 맞닿고 소매가 없는 옷이다. 진동 아래로 양옆에 삼각형 무가 달려 있으며, 옆트임은 길고 뒷트임은 짧다. 조선 후기 무관의 군복은 전립戰笠을 쓰고 협수[袂袖]나 동다리 위에 전복戰服을 입고 전대戰帶를 맨 후 수화자水靴子를 신은 차림이었다.

전복은 글자 그대로 전투용 의복, 즉 군사복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융복과 군복이 분리되면서 군복의 한 품목으로 의미가 변했다. 전복은 안에 입은 협수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겨드랑이 아래로 삼각형 무가 달려 있고 뒷 중심선은 길게, 옆선은 짧게 트임을 주어 활동성을 추구하였다. 다만 협수는 곧은 깃에 섶이 달려 있어 교차하여 여미고 좁은 소매가 달렸다. 반면 협수 위에 입은 전복은 깃과 섶이 없어 여밈 부분이 겹치지 않고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의 의복이다.

조선시대에는 긴소매의 포 위에 덧입는 반소매나 소매가 없는 옷으로 여러 종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전복 외에도 답호·괘자·쾌자·더그레·호의 등의 명칭이 전해진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 전복의 제도는 옛날의 반소매 옷으로 작자綽子 또는 답호褡護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었다. 처음에는 전복과 답호가 구별되었으나, 갈수록 형태가 유사해져서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여겨진다. 왕의 국장 때 소렴의대, 대렴의대와 재궁을 채우는 의대를 비교하면 영조·정조·순조·고종의 의대에서 답호·쾌자·전복의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군복은 신분에 따라 다른 조합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상급 군관은 전립·전복·협수를 착용하였으나, 하급 군사는 전건戰巾에 호의號衣를 입었다. 따라서 전복의 착용은 중상급 이상의 장관과 장교로 한정되었다. 전복은 삼각형 무가 크게 달려 있어 옆트임이 짧아도 되지만, 호의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에 기록된 것처럼 무가 없기 때문에 뒷중심과 옆선을 진동선까지 전부 터서 활동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전복과 동다리 등 군복 중에서는 옆선과 앞중심선의 아래쪽에 매듭단추와 고리가 달려 있는 유물도 있다. 이는 말을 탈 때 포의 자락이 휘날리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복은 겹으로 만든 것과 홑으로 만든 것이 있으며, 유물과 회화에서 드러나듯 군복으로 착용된 전복은 겉감을 아청색이나 남색으로 만들고, 안감은 홍색으로 받친 겹전복이 대부분이다. 겹으로 만들 때 겉감뿐 아니라 안감까지도 용문단, 운문단 등 화려한 문양의 고급 직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인진연의궤任寅進宴儀軌」(1902)에서 검기무 여령의 군복은 협수와 전복, 전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협수는 금향린문갑사로 만들고 소매부리에 홍린문갑사로 홍수紅袖를 달았다. 이 협수 위에 청린문갑사 겉감과 홍린문갑사 안감으로 만든 겹전복을 덧입었다.

조선 말기가 되면서 군복이 아닌 평상복으로 전복을 착용하게 된다. 이는 1884년(고종 21) 갑신의제개혁을 통해 관복을 간소화하면서, 사복은 귀천을 막론하고 좁은 소매의 두루마기[窄袖衣]를 입고 관직자는 그 위에 전복을 덧입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성인 남성은 두루마기 위에 남색 홑전복을 덧입고 흑립이나 편복관을 썼고, 남자 어린이는 남색 전복 위에 금박으로 길상



① 길이 128 품 47 | 19세기



② 길이 52 품 36 | 20세기

전복 | 국립민속박물관

문양을 찍고 복건이나 호건을 썼다.

특징 및 의의 전복은 협수나 동다리 위에 덧입어 군복을 구성하는 소매 없는 포이다. 깃과 섶이 없어 앞여밈이 대칭으로 맞닿고 소매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협수와 동일한 구조이다. 소매와 치마폭이 넓은 융복의 철릭에서 소매를 좁게 하고 포의 자락을 좁히는 대신 뒷중심과 옆선에 트임을 넣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긴소매의 포 위에는 전복을 덧입어 위용을 잃지 않게 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관리의 예복을 간소화하면서 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입게 하였다. 갑신의제개혁 이후 전복은 군복 이외에 평상복으로 착용되어 남자 어른과 어린이 모두의 통상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소장 헌종가례진하계병의 군복류에 관한 연구(정미숙·남경미, 학예지16,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9), 답호와 전복재고(박성실, 학예지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조선시대 답호 연구-17세기 전기까지(송미경, 복식59-10, 한국복식학회, 2009), 조선 후기 오군영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염정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선 후기 전복의 용도와 착용 방식(박가영, 한국복식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필자 박가영(朴嘉玲)

전행웃치마

정의 조선의 왕비, 세자빈, 세손빈, 대한제국의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 후궁 등 왕실과 황실의 여성이 적의나 원삼 등 대례복을 입을 때 갖추어 입어야 하는 세 가닥 치마.

내용 일반적으로 치마를 한자로 표기할 때 예복용 치마는 상裳, 보편적인 치마는 군裙으로 표기한다. 전행웃치마는 예복용 치마이므로 대개 상裳이라고 하며, 전향상상[前香上裳]이라고도 한다. 다만 대한제국 때와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예복禮服』, 『순종순정황후 황태자가례등록純宗純貞皇后皇太子嘉禮謄錄』 등에는 전행웃치마를 예외적으로 군裙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행웃치마는 면복冕服, 강사포絳紗袍, 조복朝服, 제복祭服 등 남자 예복에 갖추는 전삼후사前三後四 폭幅의 상裳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여자의 대례복에 전삼후사 폭의 상裳, 즉 전행웃치마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숙종 인현왕후 가례부터이다. 숙종 때, 이전부터 착용하던 적의 제도를 바로잡고 대삼제에 근거한 조선의 적의를 정립하면서 전행웃치마를 대례복의 구성요소로 마련하였다.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禮』에 의하면 상裳은 청단으로 하고 전면 세 폭은 짧게 이어 붙이고 뒷면 네 폭은 길게 하여 각각 두 폭씩 서로 덮이도록 하여 이어서 꿰매는데 앞뒤에 주름이 있고 그 가운데와 아래는 금실로 직금한 스란을 벌려 붙인다고 하였다. 왕비용 전행웃치마에는 용무늬, 세자빈과 세손빈의 것에는 봉황무늬를 금사로 짜 넣는다.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인의 대례복인 적의 외에 왕실 여인이 원삼을 대례복으로 입는 경우에도 전행웃치마를 갖춘다.

국말의 영친왕비 유물은 남색문단으로 만든 겨울용과 남색문사로 만든 여름용 두 가지가 있으며, 남색문단에는 수壽, 남男, 영지문靈芝紋, 모란문[牡丹紋] 등을 직금하였고, 남색문사에는, 수壽, 복福, 호로瓠盧, 석류石榴 등을 부금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전행웃치마는 앞이 세 폭, 뒤가 네 폭으로 이루어진 남색치마이다. 착용할 때의 편의를 위하여 뒷자락 네 폭을 반으로 나누어 각 두 폭씩 제작하기 때문에 앞 한 가닥, 뒤 두 가닥, 도합 세 가닥을 하나의 허리말기에 이어붙이며, 뒷자락이 앞자락보다 긴 특징을 지닌다. 스란단을 밑단과 무릎 부위의 두 곳에 대어 주고, 치



영친왕비 길상문직금단 전행웃치마 | 길이 142 허리 95 | 근대



전행웃치마 착용 모습

전행웃치마 | 국립고궁박물관

맛자락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주름을 잡았다.

착용할 때는 전행웃치마 아래에 받쳐 입은 대란치마의 스란단 위에 앞자락이 놓이도록 자락을 접어서 입는다. 폭이 넓은 대란치마로 인하여 전행웃치마의 뒷자락은 치마허리 아래 좌우로 길게 놓이게 된다.

『상방정례尙方定例』,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등에는 겉감은 남색, 안감은 흰색, 치마끈은 대홍색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영친왕비 유물은 겉감이 남색, 안감이 흰색, 치마끈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발기」에는 전행웃치마의 색을 양남, 남, 일남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참고문헌 嘉禮都監都廳儀軌, 가례시 절차에 따르는 조선후기의 왕실여성 복식 연구(김소현, 복식59-3, 한국복식학회, 2009),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2).

필자 김소현(金素賢)

정
精

정의 흑화黑靴나 수화자水靴子 안에 신는 버선.

내용 조선시대 기록에 버선은 한글로는 '보션', 한자로는 '말襪'이라고 하였다. 견직물이나 무명, 삼베 등으로 만드는 일반 버선 '족건足巾'과 달리 흑화 안에 신는 정精·청淸,靑이라고 하는 버선도 있었는데, 대체로 가죽이나 모전毛氈으로 제작하였다. 모정毛精과 양정凉精이라는 기록 외에도 가죽청[皮襪], 겹정[甲精], 누비청[納襪子], 다로기[月吾只, 月老只, 多彔只], 전말氈韈 등의 기록도 보인다.

조선시대 정에 관한 기록은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처음 보인다. 1406년(태종 6) 2월 8일에 하직하는 일본 국왕의 사신들에게 "위피화韋皮靴와 함께 양정을 하사하였다."라는 기록이다. 1527년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말韈'을 '보션말 又俗呼 훠청 氈一'이라고 하였다. 훠청이란 화자靴子의 버선으로, '전말氈韈'이라는 어휘도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1677년(숙종 3)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는 '백융전말白絨氈襪'을 '부드러운 시욹청'으로 번역하였다. 또 1636년 김육金堉(1580~1658)의 사행일기使行日記인 『조경일록朝京日錄』에는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물목 중에 '화청구靴靑具'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말은 '버선 청을 갖춘 화자'라는 뜻이다. 이 기록에는 버선 정을 '靑'으로 기록하였다. 이처럼 버선 정을 '쳥 또는 청'이라 하였고 한자로는 '精'·'淸'·'靑' 등으로 기록하였다.



버선 | 전체길이 54.5 발길이 24.5 바닥지름 8 | 김확 묘 출토 | 1633 | 경기도박물관

조선 말기까지 버선 정의 기록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1830년 복온공주 가례 때와 1837년 덕온공주 가례 때 부마에게 흑사피화黑斜皮靴와 연록피화烟鹿皮靴에 각각 버선 정을 갖추어 내렸다. 『덕온공주가례등록德溫公主嘉禮謄錄』에 기록된 흑사피혜黑斜皮鞋와 연록피혜烟鹿皮鞋의 혜는 화靴의 오기로 보인다. 1892년 4월 신정왕후 상제祥祭 때 대전大殿에 흑궤자피화에 백당피양정白唐皮凉精을 함께 올렸으며 1896년 7월 25일 고종의 탄일에도 백궤자피화白麂子皮靴에 백당피양정을 함께 올렸음을 볼 수 있다.

정은 계절에 따라 재료를 달리 사용하였다. 『성종실록成宗實錄』의 1474년(성종 5) 8월 19일자 기사에 녹피화[鹿皮靴]·전정[氈精]·투혜[套鞋具]와 흑사피화[黑斜皮靴]·양정[凉精]·투혜[套鞋具]를 주문사 김질金礩과 부사 이계손李繼孫에게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녹피화 일습과 사피화 일습은 계절에 따라 재료를 달리한 사례이다. 또 영조 대의 『상방정례尙方定例』에도 버선 정의 기록이 보이는데 초록색 비단 깃을 장식한 백양모정白羊毛精과 백당피양정을 사용하였다. 이 역시 계절에 따라 달리하였기 때문에 두 종류의 정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1808년 순조 대의 『만기요람萬機要覽』에도 왕의 탄일과 절일에 흑궤자피화에는 백양모정을 갖추어 올렸으며

흑서피화에는 백당피양정을 갖추어 올렸다. 이는 영조 대의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흑궤자피화는 겨울용이고 여름용으로 흑서피화를 사용한다는 기록을 보면 대체로 겨울철에는 백양모정이라는 전정이 사용되었고 여름에는 백당피양정이라는 양정이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왕실에서는 국장國葬이나 예장禮葬에 수의용 버선으로 '정'을 사용하였다. 곤룡포袞龍袍를 수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영조 대의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습구襲具의 하나로, 녹색 광직깃을 장식한 모단화冒緞靴에 녹색 광직[綠廣織] 깃[上緣]을 장식한 겹정[甲精]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일성록日省錄』 1786년 5월 11일 문효세자文孝世子(1782~1786) 예장 때의 습구에도 유록색 운문대단[柳綠雲紋大緞] 곤룡포에 초록광직草綠廣織의 깃을 장식한 모단화자冒緞靴子와 백화화주白禾花紬로 지은 정精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특징 및 의의 초록색 깃으로 장식된 정 유물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중인 김확金擭(1572~1633) 묘 출토 버선이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나 짐작된다. 이 유물은 바닥 길이가 24.5㎝이고 바닥 너비는 8㎝, 앞 높이 54.5㎝, 뒤 높이 40.5㎝인 긴 버선이다. 상단 좌우와 바닥에 네 종의 도장이 붉은 색으로 찍혀 있는 기성 제품의 버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 개의 도장 흔적 중 하나는 수명을 관장하는 남극성을 인격화하여 그린 수성도를 중심에 두고 좌우에 '운회雲回', '제일第一'이라는 글자를 새긴 것이다. 그 도장 아래쪽에는 '한손천조韓巽泉造'라고 한 사각형 도장이 찍혀 있다. 한손천이라는 인물이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 반대편에는 '수壽' 자를 쓴 타원형 도장이 찍혀 있었고 바닥의 상단에도 이런 도장이 찍혀 있다고 보고되었다.

참고문헌 國朝喪禮補編, 德溫公主嘉禮謄錄, 萬機要覽, 尙方定例, 譯語類解,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訓蒙字會,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이은주·조효숙·하명은, 민속원, 2005), 고문서집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경기도박물관, 2007), 보션과 쳥의 명칭 연구(금진구, 복식문화연구6-3, 복식문화학회, 1998).

필자 이은주(李恩珠)

정동벌립

정의 야생野生 '댕댕이덩굴'로 결어 만든, 차양遮陽이 있는 제주濟州지역의 하절기 노동용 모자.

개관 제주도 목자牧者와 농부들이 산과 들에서 마소[牛馬]를 돌보는 여름에 햇빛이나 '비(우雨)가림용'으로 썼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주로 남성들이 농한기에 만들어 노동용으로 사용했으며, 잘 만든 것은 남녀 모두 나들이 때도 쓰고 다녔다.

생산지는 재료가 많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성로동마을 일대였으며, 여기에는 '벌립'(벙거지의 일종)을 만드는 '벌립청'이 일곱 곳이나 있었다. 남자들이 벌립청에 모여 벌립을 결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공출供出이 심해지면서 시간이 없어 계속하지 못했다. 광복 후는 수요가 줄어들자 명맥만 유지해 왔다.

요즘 것은 현대 감각에 맞게 '중절모'나 '파나마모자' 꼴(형태·모양)로 개발되었다. 이 새로운 것들은 '두 날'로 무늬를 넣어 엮는데, 차양遮陽이 좁아서 멋으로



① 정동벌립



② 정동벌립과 도롱이를 쓴 농부

정동벌립 | ① 높이 14 지름 48.5 | 국립제주박물관, ② 제주대학교박물관

사용할 뿐 옛 기능은 상실된 채 토산품土産品의 하나로 제주 관광상품이 되었다.

내용 '정당(동)'이란 제주에서 '밭(전田)담'이나 야산野山에 자생하는 '댕댕이덩굴'을 말하는데, 가늘고 가볍고 촉감이 시원하다. 한라산 서쪽에서는 '정동', 동쪽에서는 '정당'이라 했다.

정동벌립의 꼴은 전립氈笠이나 '맥고모자'와 비슷하지만, 무늬나 장식 없이 정동줄기인 '날'로만 엮은 것으로 머리통이 낮아 머리에 쓰면 답답하지 않고 살짝 얹은 기분이 든다. 차양이 다른 모자에 비해 넓으므로 특히 산간에서 나들이나 일할 때 햇빛가리개로 알맞은 쓰개거리였다. 비가 오는 날 외출할 때 머리에 쓰고, '띠(모茅)로 엮어 만든 비옷인 '도롱이'(우장雨裝)를 입고, '나막신'을 신었다. 또 표면이 가늘고 매끄러우므로 머리에 쓰고 가시덤불 속을 헤쳐 나가도 얼굴이 긁히거나 상하지 않았다.

주재료인 댕댕이덩굴은 안덕安德과 표선表善 등지 것이 좋고, 중산간中山間의 목장이나 '새(모茅)왓(띠밭)' 바닥에 곧게 뻗은 것이 최상품이다. 한라산 북쪽에서는 가까운 중산간 지역인 산천단 주변 것을 사용했다. 추석 전에 마디가 길고 곧은 1~2년생 덩굴을 걷어서 잎과 가지를 깨끗하게 훑어 낸 다음 지붕 위나 돌담 등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고루 잘 쪼이는 곳에 널어 말린다. 거의 한 달여간 햇볕과 이슬로 말리는데 밤이슬을 맞힌 것이 더욱 좋다. 이때 비를 맞거나 썩히면 '일년 농사를 그르친 격'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성을 들여 신경을 썼다.

모자를 만드는 일을 "벌립 겯는다."라고 한다. 만들 때는 말린 재료에 물을 축이고 부드럽게 다듬는다. 제작 도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통을 만드는 틀인 '모자골'이며, 다으개·칼·송곳·판대기 등이 쓰였다. 각 부분에 따라 모자의 '절변'(상부上部)은 '삼오리'(세 개의 날), '망'(모帽)과 '천'(차양遮陽)은 좀 더 촘촘하게 '사오리'(네 개의 날)로 엮었으며, 하나 겯는 데 6일 정도 걸린다.

품질은 '정동의 질'과 '도리의 수'에 따라 다른데 도리 수가 100이면 상품上品, 70쯤이면 하품下品이 된다. 따라서 상품은 차양이 넓으면서도 얇고, 가볍고, 촘촘하게 엮어서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다. 남아 있는 유물遺物들 중 곱게 짠 것은 매우 정교하며 실용과 멋을 겸비하고 있다(총 지름 51㎝, 차양 너비 16㎝, 모자 높이 12㎝, 머리통 지름 19㎝).

특징 및 의의 정동벌립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칭異稱이 있는데 '약속벌립'이다. 바람 부는 날 이 모자를 쓰고 걸어가면 넓고 가벼운 차양이 까딱까딱하므로 마치 '사람이 약속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곱고 실용적이었지만 농모農帽이므로, 관가官家에는 쓰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1986년에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8호 '정동벌립장'으로 제주시 귀덕의 홍만년洪萬年(1910~1998)이, 두 번째로 1992년에 홍달표(1931년생)가 지정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자 중절모 꼴로 만든 '정동모자'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림의 '정동제품부업단지'에서 새로운 관광용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동벌립장(제주도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주도청, 1986), 제주도 모자류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복식17, 한국복식학회, 1991),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7-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고부자(高富子)

정자관
程子冠

정의 조선시대 고위층 사대부가 편복 차림 위에 착용하던 관.

내용 주자학朱子學을 국시로 삼은 조선에서는 주자朱子에게 영향을 미친 북송대北宋代 학자들을 흠모하여 그들이 착용했던 관을 따라 썼다. 그중 정자관은 북송의 대유학자인 정자程子가 착용했던 관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정자는 정호程顥(1032~1085)와 정이程頤(1033~1107) 형제를 가리키며, 둘을 아울러 이정二程이라고도 한다. 이들 형제가 착용한 두건을 정자건程子巾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의 예서 『상변통고常變通攷』에


① 정자관 | 조선 후기


② 정자관 | 1983


③ 이채 초상 | 조선

정자관 | ① 높이 35 너비 26 | 국립민속박물관, ② 높이 16.5 너비 29 | 국립민속박물관, ③ 국립중앙박물관

서는 이들의 문집인 『이정전서二程全書』에서 정이가 썼던 두건의 치수를 인용하고 있다. 또 『명신록名臣錄』을 언급하면서 정이가 편복을 입고 착용한 통이 높고 첨이 낮은 모자에 끈을 매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조선 전기 명종 때 편찬된 『청강선생후청세어淸江先生鰌鯖瑣語』에 의하면 당시 사대부들이 주자관朱子冠·겸계관謙溪冠·동파관東坡冠·충정관沖正冠 등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자 가운데 특히 정자관과 동파관은 『경도잡지京都雜誌』를 통해 알 수 있듯 정조 대에 이르러 평상시에도 착용될 정도로 애용되었고, 조선 후기 이전까지 혼용되었다. 서유구徐有榘(1764~1845)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삼재도회三才圖會』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파건東坡巾'을 정자관이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1758년(영조 3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의하면 영조가 정자관과 동파관의 형태에 대하여 물었을 때 특진관 홍상한洪象漢이 양자가 대동소이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조선에서는 18세기 말까지 정자관과 동파관을 동일시하였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채李采(1745~1820)의 초상화에서도 그 인식이 확인된다. 이채는 머리 위에 네모진 이중 관모를 착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화면 오른쪽 위 제발題跋에 이채 스스로 "관은 정자관을 쓰고 옷은 문공(주자)의 심의를 입고 있다冠程子冠 衣文公深衣."라고 썼다. 이로 미루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정자관은 직선적이며 동파관과 유사한 관모를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각종 초상화나 흑백 사진 및 각 박물관에 유존하는 정자관 유물은 이전 시기의 네모진 정자관과 달리 산처럼 뾰족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1894~1901년에 조선을 방문한 테일러의 그림이나 1895년(고종 32) 일본공사관을 역임한 김가진의 사진, 1896년 화가 커즌G. Curzon이 그린 대원군의 모습 등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그러하다. 당시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정자관을 말총으로 만들며 그 모양은 여섯 봉우리가 삐죽 솟아 있듯 하다고 묘사하거나, 뾰족탑이나 상중관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로 미루어 지금 형태의 정자관은 19세기 말에 비로소 고위층 관료를 중심으로 편복 차림 위에 유행하여, 그들의 신분과 계층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95년 단발령斷髮令이 내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상투를 잘랐고, 그에 따라 정자관의 수요도 줄어들었다. 당시 채용신이 그린 여러 초상화를 통해 구한말에 신분의 상징으로 실내에서 착용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점차 정자관의 착용이 줄어 그것을 제작하는 기술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을 지정하고 정자관 제작 기술을 지니고 있는 김공춘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후 2009년에 들어 그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동시에 그의 딸인 김혜정을 기능보유자로 인정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정자관은 북송대의 유학자 이정 형제가 착용하던 모자에서 유래하여 조선 사대부들이 애호하던 관이다. 말총으로 봉우리가 뾰족뾰족한 삼산관三山冠처럼 만들며, 조선의 사대부들이 편복 차림으로 실내에서 착용하였다. 그 전형적인 형태와 특징은 19세기 후반 초상화나 사진 및 유물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자관은 중국에서 유래했지만 말총의 투명한 성질을 활용하여 탕건을 만들어 쓰고 그 위에 정자관을 겹쳐 쓴 것은 조선의 독자적인 방법이었다. 조선의 고위층 관료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계층을 상징하여 산처럼 뾰족한 형태로 만들었으며, 단층의 정자관보다 상하 2층으로 중첩된 정자관을 애용한 것도 조선적인 특징이

다. 이처럼 정자관은 조선 사대부의 빼어난 미감과 조선 장인의 창안으로 만든 독특한 모자이다. 오늘날 말총으로 정자관을 만드는 기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관모와 수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1993), 서양인이 본 조선말기 남성모자(최재영,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선시대 관모공예사 연구(장경희, 경인문화사, 2004), 탕건장(장경희, 화산문화, 2000).

필자 장경희(張慶姬)

제복
制服

정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도로 정해진 일정한 양식의 복식.

내용 제복制服은 일정한 집단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집단의 일체감·직업·지위·계급 등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상징적인 복식이다. 영어로 유니폼uniform이라고도 한다.

유니폼의 개념에 대해서 로치Roach와 아이허Eicher는 'Uniform: one form, all alike'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형태, 똑같은 복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라틴어 어원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틴어의 우누스unus(하나의)와 포르마forma(형태, 형)에서 생긴 합성어로 '일정한(하나의) 형태나 외형'을 가리키기도 한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유니폼은 같은 집단에서 함께 착용하는 복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적 일체성이 강조된 획일적이고 강제성이 동반된 복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니폼은 구성원 간에는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식별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집단 내에서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집단에 대한 긍지와 책임감을 갖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경화는 유니폼을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복식으로 정의한다.

첫째, 집단 구성원을 상징하고, 둘째, 어떤 사람의 현재 역할 외, 모든 역할에 대한 정보를 감춘다. 셋째, 한 개인을 집단 구성원으로 증명함으로써 집단을 대표하며 집단에 대한 각자의 행동을 위한 책임감을 부과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역할을 합법화한다. 넷째, 소속원이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상징하여 개성을 억누르며, 조직이 개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통제 정도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일체와 구분을 기초로 소속이나 단결을 상징하는 반면 다른 집단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착용자의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구성원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소속 집단의 정체성을 일깨워 준다. 이경화는 다른 복식과는 달리 유니폼이 지녀야 하는 조형적 구성요소로 공공성·상징성·심미성·기능성을 들었다.

이상 살펴본 넓은 개념으로서 유니폼의 기능과 조형적 특징을 참고해 제복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복은 제도로 정해진 복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군복·경찰복·법관복 같은 국가기관에서 규정한 복식이라는 개념이 좀 더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복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개항기에 도입된 양복 형태의 군복·경찰복·문관복·교복 등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전통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고대국가 시기의 4색공복제도에서도 제복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4색공복제도란 같은 형태의 복식을 신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색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계급을 표현한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백제의 공복제도(260년, 고이왕 27), 신라의 공복 제도(520년, 법흥왕 7)를 비롯하여 발해와 고려(960년, 광종 11)에서도 색의 차이로 공복을 구별하여 착용하는 법령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왕 이하 백관들의 관복冠服을 조복朝服, 제복, 공복公服, 상복常服으로 구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해 두었다. 여기에는 관冠에 들어가는 줄의 수, 의복에 장식적으로 뒤에 늘어뜨리는 후수後綬의 문양, 허리에 착용하는 대帶의 재료 등을 신분별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그렇게 같은 복식이라도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착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는 체계적인 복식제도에 따른 전통적 형태의 제복을 착용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양복 형태의 제복이 도입된 것은 서양

에 개항한 이후였다. 여러 제복 중에서 국가법령을 통해 착용된 대표적인 제복으로 육군복·경찰복·문관복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복 제복은 육군과 경찰의 제복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최초의 신식군대인 별기군의 경우에는 양복형 제복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한복바지와 저고리 위에 마고자 형태의 상의를 입고 혁대를 착용했으며, 머리에는 망건 위에 작은 갓을 썼다. 본격적으로 서양식 제복을 받아들인 것은 1895년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 때이다. 을미의제개혁은 조신朝臣의 관복, 육군의 군복, 경찰복의 개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시기까지 조신의 관복은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군복과 경찰복에는 양복을 도입하였다.

근대에 발표된 복식제도는 황제의 명인 칙령勅令으로 반포되었는데 '복장규칙服裝規則', '복장제식服裝制式', 그리고 '도식圖式'으로 구성되었다. 복장규칙은 그 복장을 착용하는 대상, 착용 상황, 일습의 구성 품목 등을 규정하였다. 복장제식은 그 제복을 제작하기 위해 형태적인 특징을 규정한 것이다. 도식은 이해하기 쉽게 도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보통 세 가지의 법령이 동시에 발표되지만 시차를 두고 발표되기도 하였다.

1895년 4월 9일에 발표된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복 예장禮裝의 종류, 복식의 구성, 착용 상황을 규정하였다. 이후 형태에 대한 규정은 1897년 5월 15일에 육군장졸복장제식으로 발표되었다. 이 시기의 군복은 현재 도식이 남아 있지 않아 도식을 통해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군복 유물을 통해 어느 정도 형태를 확인하고 있다. 1895년에 제정되어 1910년 국권 상실 이전까지 착용된 군복의 형태는 유럽식을 참고한 것으로 머리에는 입전모立前毛가 장식된 모자를 썼다. 상의 형태는 크게 1900년 7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에는 예복으로 늑골복肋骨服을 착용하였고, 이후 시기에는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 형태의 상의를 착용하였다. 늑골복은 앞길 좌우 흉부로 가로 줄 장식이 있는, 형태가 마치 갈비뼈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육군복장규칙에서는 모자에 장식하는 줄의 수, 상의上衣 칼라[領章], 수장袖章, 견장肩章 등에 장식하는 줄의 수나 형태 등과 바지 측면에 장식하는 봉장縫章의 너비 등으로 계급의 차이를 두었다. 또한 병과兵科의 성격에 따라 즉 헌병인지, 기병인지, 포병인지, 공병인지에 따라 바지 봉장의 색을 달리하여 규정했다. 대한제국기 육군의 제복에는 무궁화무늬, 오얏무늬, 태극무늬 등을 활용하여 국가정체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경찰의 복제는 1895년 4월 19일에 칙령 제81호 '경무사 이하 복제'로 처음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경찰 조직인 경무사·경무관(총무국장)·경무관·총순·순검의 상복常服을 규정하였다. 이후 1899년에 예복禮服 규정이 발표되었고, 이후 1910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과 수정이 있었다. 경찰복 예복의 경우 1907년 이전까지는 늑골복 형태였다가 이후에는 더블브레스티드 형태로 바뀌었다. 형태에서 군복과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상의 수장袖章에 계급을 나타내는 장식 줄이 육군은 인人 자 형태인데, 경찰복은 우又자 형태였다. 바지 봉장의 색이 육군은 붉은색 융이지만, 경찰복은 흰색 융을 사용하여 군복과 구별하였다. 이 시기에 보고된 경찰복 유물은 현재 없고, 칼라로 된 도식이 남아 있어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문관복식에 양복형 제복이 도입된 것은 1900년에 문관복장규칙이 발표되면서였다. 개항 이후 문관제복에 새롭게 사용된 용어로는 대례복·소례복·통상복이 있다. 이러한 복식 체계는 서양 중심의 근대 복식 체계인데, 서양식 외교의례를 행할 때 주로 착용하였던 대례복, 소례복과 함께 일반적인 평상복인 남성 슈트까지 통상복으로 규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문관복식에 서양식 예복이 도입되기 이전에 1894년 갑오의제개혁甲午衣制改革 시기에도 대례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다. 이때의 형태는 전통관복인 흑단령이다.

1900년 4월 17일에 발표된 서양식 문관 제복 규정은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 그리고 1년 후에 발표된 도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관대례복은 문관 중 칙임관과 주임관이 황제를 알현하거나 궁중의 공식적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하게 하였다. 형태는 서양 남성 예복인 연미복이었고 모자·상의·검 등에 무궁화 문양을 계급별로 차이를 두어 자수하거나 새겨 넣도록 하였다. 문관소례복은 칙임관·주임관·판임관이 수시로 황제를 알현하거나 상관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할 때 착용한 것으로, 서양의 실크해

트와 연미복이었다. 통상복은 서양의 통상모와 일반 남성 슈트로, 직장에서 사무를 볼 때 착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처음 양복이 도입될 때에는 제복의 형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성의 슈트에 제복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문관대례복 중 1906년에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관원의 대례복이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그 형태는 코트 형태였고, 무궁화 문양이 아닌 오얏꽃가지를 문양화하여 계급별로 차등해 자수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기에는 양복 형태의 제복을 황제에서 문관, 육군, 경찰에 이르기까지 착용하였다. 형태로 보면 서양에서 착용한 것과 똑같은 양복이었지만, 그 안에 무궁화무늬·오얏꽃무늬·태극무늬 등의 국가상징물을 문양화하여 활용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근대 주권국가 제복으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06년 2월에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대한제국의 제복체계와 통감부의 제복체계가 공존하였다. 통감부 소속 직원들은 금장을 사용하여 소속관서를 구별하였는데, 금장은 기본적으로 금색바탕에 은색장식을 붙였다. 은색장식은 몇 가지 구별되는 금장 모두에 붙였는데 오동무늬로 만들었다. 오동무늬는 일본에서 천황을 상징해 오던 것으로 명치시기에 문관대례복의 문양으로 활용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이후 우리나라에 설치된 조선총독부 관원의 제복에서도 대한제국기에 사용하였던 무궁화와 오얏꽃무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제의 오동무늬를 사용하였다. 이후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행정공무원들의 제복은 없어지게 되어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관원이 나라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였던 오랜 전통이 사라졌다.

1920년대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는 조선총독부 관원인 경찰관·법조인·소방수·교도관 등의 제복을 중심으로 개정령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1940년대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복의 착용이 강요되었다. 같은 시기 해외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현지의 사정에 따른 군복 등을 착용하였고 1945년에는 군인제복의 양식을 제정하여 모표와 계급장에 무궁화와 태극, 별무늬를 사용하였다.

광복 이후에는 군복의 경우 미군식이 많이 착용되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12월에 육군이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1953년 휴전 이후 군복제도가 점차 정비되었다. 현대에는 모표에 무궁화와 태극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다시 활용되었고 육군·해군·공군은 물론 특수 복장으로 의장복·군악대복·간호복·헌병근무복·사관생도복 등이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찰복은 1949년 7월 25일에 경찰관복제를 제정한 이래 1963년까지 현대 경찰복 제정기, 1966년부터 1970년대의 현대 경찰복 세분화기, 1980년대부터 2015년에 이르는 현대 경찰복 간소화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복식 제도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때 문관복, 군복, 경찰복이 대표적인 제복이라면 그 외에 소방관, 판사·검사 등의 법관, 세관원 등의 제복도 제도로 규정되어 왔고, 국가 기관에 가까운 철도원, 항공사의 기관사와 승무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종사자 등과 학생들도 제복을 착용하는 대표적인 대상이다. 특히 학생 교복은 양복이 도입된 이른 시기부터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양복이 정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제복이다.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사람이 입었던 제복은 단연 교복일 것이다.

제복이 가져왔던 상징성을 분석해 보면 전통시대의 관복으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제복을 소수의 사람들이 착용하였고, 이들이 우월한 지위를 가진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강했다면 신분제도가 사라진 현대 의생활에서 제복은 직업복이나 단체복의 의미로 변모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제복은 유니폼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제복은 전통시대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관원들의 조복, 제복, 공복, 상복 등으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양복 형태의 제복은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한 의제개혁의 중심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대표적으로 문관복, 육군복, 경찰복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양복 제복과 일선 학교 학생들의 교복 등을 착용한 경험을 통해 제복은 양복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의 제복이 국가 공무원과 같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착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제복은 기업 등의 단체에 소속해 있다는 소속감, 책임감을 부여하는 단체복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官報, 구한말 경찰복 연구(김정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 연구(최규순, 정신문화연구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유니폼의 이해(이경화, 경춘사, 2014), 일제강점기 관복제도(조상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제복의 탄생(이경미, 민속원, 2012), 한국경찰복제사(경찰청, 민속원, 2015), 한국복식문화(박가영·이경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한국의 군복식발달사1·2(국방군사연구소,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

필자 이경미(李京美)

제복
祭服

정의 재관宰官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의례복.

역사 1395년(태조 4), 조선의 제복祭服은 중국 관등에 비하여 2등 체강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초기에는 제복의 정비를 미처 갖추지 못했으리라 추측한다. 태조가 태묘太廟에 봉심할 때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를 착용하고 백관은 공복公服을 착용하고 앞에서 인도하였다는 기록만 있으며, 다음 날 태조가 면복을 입고 작헌酌獻하였다는 기록은 있어도 백관이 제복을 입고 배사하였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이후 1416년(태종 16)에는 백관의 관복을 연구하고 제정하기 위해 관복색冠服色이 설치되었다. 태종은 이곳에서 조복朝服과 함께 양관梁冠, 의상衣裳, 패수佩綬를 만들게 하였으며, 그해 명나라 황제에게 망궐하례望闕賀禮(임금이 중국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절하는 의식)를 거행할 때 처음으로 착용하였다. 제작한 제복은 봉상시奉常寺에서 관리하였으며, 사용 후 태우는 것이 고례였으므로 예에 따라 깨끗한 곳에서 태우도록 하였다. 한편 1592년(선조 29) 임진왜란 이후에는 제복이 유실되어 제대로 갖출 수 없게 되자, 집사執事에 한해 제복 대신 조복을 입게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제복을 구입해 입도록 했다. 그러나 몹시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해당 관아에 있는 제복을 편리한 대로 착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1743년(영조 19)에 이르러 백관의 제복을 개정하였는데, 의衣와 상裳 종류 이외에 관冠·대帶·홀笏·패옥佩玉·후수後綬·폐슬蔽膝은 모두 조복과 통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794년(정조 18)에 조복과 제복의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이후 1895년(고종 32)에는 궁내부宮內府 대신과 조정 관리 이하의 복장 규정을 봉칙하며 반포하였는데, 조복과 제복은 그 전대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조 이후의 제복을 그대로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관복인 제복을 입었지만 관직이 없을 때에는 제례 복식에 차이가 있었다. 예서禮書에 따르면 제례 복식으로 단령, 직령, 도포, 심의를 입었으나 현재는 도포와 두루마기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도포만을 착용하고 있으며, 전라도 지역에서는 도포와 두루마기를 모두 착용하고 있다.

내용 제복은 종묘와 사직에서 거행하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에 참여하는 향관의 복식이다. 조선 초기에 제복제도의 정착을 보여 주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종묘대제 재현 | 서울 종로구 | 2009 | 서헌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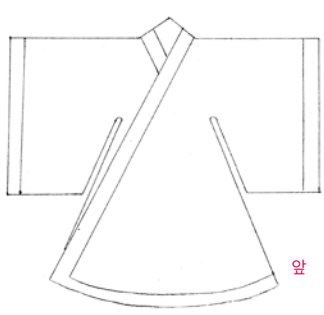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관복도설冠服圖說,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양란을 겪고 난 후 1697년(숙종 23)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제도와 의절을 기록한 『종묘의궤宗廟儀軌』, 그리고 1783년(정조 7) 사도세자를 제사지낼 때의 의식을 기록한 책인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등의 자료를 통해 복식의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제복은 양관梁冠, 의衣, 상裳, 중단中單, 폐슬, 수綬, 대, 홀, 말襪, 혜鞋, 방심곡령方心曲領 등이 기본으로 구성되며 방심곡령을 제외하면 조복과 같다. 하지만 제복의 특성상 검소하고 경건한 의미를 중시했기 때문에 의衣의 색을 비롯해 양관의 금칠 부분과 중단의 색은 다르다. 이에 따라 조복의 의가 붉은색인데 비해 제복에서는 푸른색, 후기에는 검은색을 사용하였으며, 중단의 깃·도련·수구에는 흑색 연緣 장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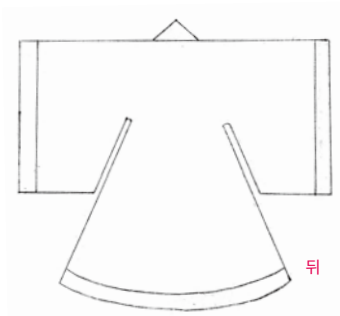
양관은 제복의 관모이다. 정면에 금색 양梁이 놓여 있다 하여 양관이라 부르며, 관 전면의 머리 둘레 부분과 전면 중앙에서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세로로 양이 있는 앞부분, 여러 가지 무늬를 투조 장식하여 뒤를 병풍처럼 감싸는 뒷부분 등 세 요소로 구성된다. 조복에도 양관을 썼는데, 여기에는 관무冠武와 관의 뒷부분을 투조 장식하고 도금하였으며, 관을 가로지르는 목잠에도 니금으로 칠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빛이 강하다. 이에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 통칭하였다. 그러나 제복에 사용된 양관은 같은 형태이면서도 경건한 뜻을 표시하고자 당초문의 앞면 소부분과 목잠의 구멍 둘레만 도금하고 그 외는 전부 흑색이었다. 현재 전해지는 양관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고대에 전래된 것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중국 제도와 달라지자 명에서 양관을 들여와 그것을 기본 형태로 정하여 만든 것이다. 문무백관 중 1품은 5량관, 2품은 4량관, 3품은 3량관, 4~6품은 2량관, 7~9품은 1량관을 썼다. 관을 고정하는 비녀로 『경국대전』에서는 목잠을 사용하고 『국조오례의』에는 각잠을 사용한 것이 달라졌을 뿐 시대에 따른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종묘의궤』에서는 다시 목잠이 나타나며, 양관을 흑초黑綃로 싸고 양을 자황雌黃으로 그렸다고 적고 있다. 양관의 전후·상하 역시 자황으로 그렸으며 나무로 만든 잠의 잠두簪頭도 자황으로 그렸다. 『경모궁의궤』에 나타나는 양관은 몸체에 금칠을 하고 양 사이에는 꽃을 금박했다. 잠은 나무로 하되 양 끝에 금칠을 하고 가운데에는 흑칠을 했으며, 끈은 조사條絲를 썼다.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후에 편찬된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1품은 7량관, 2품은 6량관, 3품은 5량관, 4품은 4량관, 5품은 3량관, 6품과 7품은 2량관, 8품과 9품은 1량관을 쓴다고 되어 있다.

의와 상, 중단, 폐슬을 착용하는 데에는 품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들 중 기록과 현재 전해지는 유물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의衣의 복색과 직물의 종류이다. 『경국대전』에는 의를 청초靑綃로 만든다고 하였고 『국조오례서례』에는 청라靑羅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종묘의궤』에는 흑주黑紬로, 『경모궁의궤』에는 흑라黑羅로 만든다고 하여 청색이 흑색으로 바뀌었으며, 직물의 종류도 초綃에서 나羅로, 다시 주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국조오례의』에는 직령 깃이었으나 현전하는 유물에는 모두 목판당코깃으로 되어 있다. 목판당코깃은 교임의 곧은 깃으로 반목판깃에서 섶 밖으로 돌출된 모서리가 깎여져 당코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안깃은 목판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인 17~18세기에 유행하였던 형태로 여자의 저고리와 당의, 일부 남자 포에서 나타나던 것이었다. 상과 중단, 폐슬은 색이 변하지 않은 대신 직물에 변화가 있었다. 상은 처음에 적초赤綃로 만들었으나 『국조오례의』에서 적라赤羅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은 3폭, 뒤는 4폭으로 만들면서 끝에는 선을 둘렀다. 이것이 조선 후기에는 홍주紅紬로 바뀌었으나 정조 대 이르러서는 다시 적라가 되었다. 한편, 중단은 『경국대전』에는 백초白綃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국조오례의』에는 백사白絲로, 『종묘의궤』에서는 백주白紬로, 『경모궁의궤』에서는 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 백사로 바뀌고 깃에 검정색으로 연을 둘렀다. 『국조오례의』 관복도설에서는 깃뿐 아니라 소매 끝과 도련 단에도 연을 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릎 덮개인 폐슬은 『경국대전』에서 적초폐슬이라 명기했지만, 『국조오례의』에서는 적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종묘의궤』에서는 홍주로 바뀌어 『경모궁의궤』에서 다시 적라로 돌아갔다. 현전하는 유물을 보면 무릎 덮개였던 본래 용도와 달리 장식적 성격이 강해져 의의 왼쪽 가슴에 달린 형태로 바뀌었다. 위와 같이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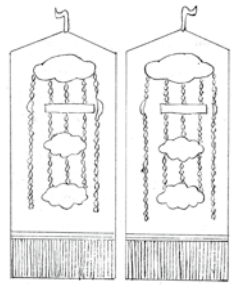


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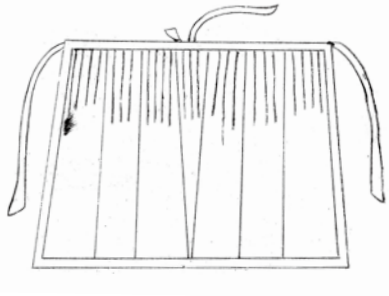
의



패옥



방심곡령



상



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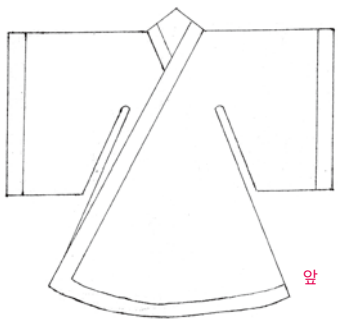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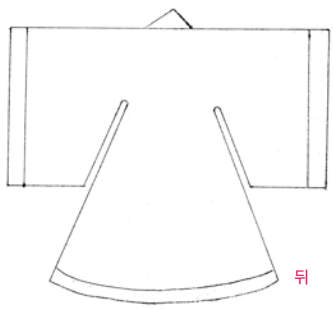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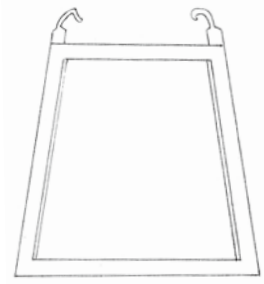


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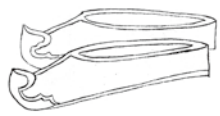
중단



폐슬



말



이

문무관 제복 일습 도식 | 춘관통고 | 1788 | 국립고궁박물관

규정은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숙종 대에는 제복의 의가 청색에서 흑색으로 바뀌었고, 정조 대에는 주紬였던 직물이 나羅로 변하였는데, 조선 전기의 양식이 숙종 대와 정조 대를 전후하여 변천한 모습에서 조선 사회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수와 대, 홀은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수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1·2품은 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를, 3품은 반조은환수盤鵰銀環綬를 달았다. 4품은 연작은환수練鵲銀環綬를 달았으며, 5·6품은 연작동환수를, 7~9품은 계칙동환수溪鶒銅環綬를 달아 구분하였다. 이에 더해 『국조오례의』에서 품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색의 개수를 정하였는데, 그 최대는 황黃·록綠·적赤·자紫 등 4가지였다. 3품 이상이면 이 4색 실을 모두 사용해 운학과 반조를 직성하였고, 4품에서 6품까지는 황·록·적 3색을 사용하였다. 7품 이하는 황·록 2가지 색만 이용하였다. 화금花錦 아래 청사靑絲로 망網을 맺고 고리를 달았는데, 1·2품은 쌍금환雙金環을, 3·4품은 은환銀環을, 5품 이하는 동환銅環을 베풀었다. 대는 혁대와 대대大帶의 경우가 달랐다. 혁대로는 『경국대전』에서 1품이 서대犀帶, 정2품이 삽금鈒金, 종2품이 소은素銀, 정3품이 삽은鈒銀, 종3·4품이 소은으로 만들며, 5~9품이 흑각으로 만들어 착용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조오례의』에서는 2품 이상은 금, 3품에서 4품까지는 은, 5품 이하는 동으로 되어 있으며, 『경모궁의궤』에서 1품은 서犀, 2품은 금, 3~4품은 은, 5~6품은 동이며, 6품 이하는 모두 흑각黑角을 쓴 혁대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대는 적백라赤白羅를 합해서 꿰맸다고 하였는데, 『국조오례의』 관복도설의 도해를 보면 허리에 둘러 양쪽으로 동심결同心結을 맺은 모습이다. 홀은 『경국대전』에서는 1~4품은 상아홀을 들고, 5~9품은 목홀을 들도록 한다. 『종묘의궤』 이후로는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목홀을 들게 되었다.

그 외의 제복 구성요소로는 말(버선)과 화·리·혜(신발) 그리고 패佩가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1~9품 모두 백포말을 신고, 신발로는 1~6품이 흑피혜를, 7~9품이 흑피화를 신었다. 『국조오례의』에서는 말은 백포白布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흑피리黑皮履만 언급하면서 이후 쭉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경모궁의궤』에서 버선과 신에 끈이 달린 것이 특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패옥은 『경국대전』에서 1~3품은 번청옥燔靑玉으로 만들며, 5~9품은 번백옥燔白玉으로 만든 패옥을 단다고 하였다. 1 쌍을 패용하는데, 위에 구리로 만든 고리로 형衡을 설치하고 다음은 중형을 가운데 두고, 거와 우 아래에는 충아衝牙가 있고 쌍황雙璜이 중형의 양쪽에 있으며, 쌍적이 충아의 양쪽에 있었다. 약옥주藥玉珠로 형衡·거琚·우瑀·쌍황·충아·적자適子를 꿰는데 모두 민옥珉玉으로 만들었으며, 『종묘의궤』에서 패는 정1품 헌관과 천조관薦俎官만 해사該司에서 구비하는 것을 패용하였으며 다른 집사들은 착용하지 않았다.

한편 왕실의 제례뿐 아니라 반가에서도 기제忌祭를 비롯하여 사당제, 사시제, 묘제 등의 제사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였다. 이이李珥가 쓴 어린이용 학습서 『격몽요결擊蒙要訣』에 실린 기제의 제례복으로는 할아버지 이상의 경우에는 관직이 있으면 흑색 사모, 옥색 단령, 백색 각대를 띠었으며, 관직이 없으면 흑립, 옥색 단령, 백색 띠를 띠었다. 부모의 경우에는 백색 모자, 옥색 단령, 백색 띠를 띠었으며, 관직이 없는 경우에는 백색 패랭이, 옥색 단령, 백색 띠를 띠었다. 사당제에는 단령 또는 직령을 입었으며, 사시제에는 관직이 있으면 사모, 단령, 품대를 띠었으며, 관직이 없으면 단령에 실띠를 띠었다. 묘제에는 흑립에 백색 옷을 입고 흑색 띠를 띠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관하여 김장생金長生이 옛 선비들의 설을 엮어 펴낸 『가례집람家禮輯覽』에 따르면 기제에는 마의를 입고 포관을 쓰고 소대素帶를 띠었다. 이재李縡가 관혼상제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모아 엮은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는 관직이 있으면 흑청색 사모에 흑청색 베적삼, 베 각대를 띠고 사당제, 사시제, 묘제에는 모두 심의를 입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로 도포 또는 두루마기를 입고 유건을 쓰고 세조대를 띠고 제사를 지낸다.

특징 및 의의 제복의 형태 및 구성은 조복과 같다. 다만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조복보다는 경건함을 드러내고 조상을 잘 받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의의 깃 위에 방심곡령을 더하였다. 방심곡령은 의의 깃 위에 두르는 것인데, 목둘레가 둥글고 깃 아래 네모난 방형이 달린 형태로, 이는 하늘과 땅을 상징

한다. 방심곡령을 깃에 덧대어 두름으로써 온 정성을 다해 조상을 모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조복과 제복에 모두 더하였으나 명대에 이르러 군신 모두 제복에만 방심곡령을 하게 되어 조복과 제복을 구별하는 단서가 되었으며, 방심곡령을 더함으로써 제복은 제복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선왕조에 와서는 대례복인 면복을 입을 때에도 친제親祭를 지낼 때에만 방심곡령을 더함에 따라 문무백관도 제복에만 방심곡령을 더하였다. 이때, 왕이나 왕세자의 방심곡령은 단령의 깃 양쪽으로 왼쪽에는 녹색, 오른쪽에는 홍색의 끈을 달았으나 문무백관의 제복에는 없다. 뿐만 아니라 종묘·사직에서의 제례 때, 왕, 왕세자, 왕세손은 중국에서 고명과 함께 온 면복을 입고 참여하지만 백관의 제복은 황제에게 주문奏聞해서 교역해 오도록 했다. 이는 제복을 만드는 나금초단羅錦綃緞이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복은 동아시아의 사상과 지정학적 요소가 모두 담겨 있는 옷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종가의 제례 복식의 현황을 보면 경상도 지역의 도포는 모두 두리소매인 반면 전라도 지역은 둥근 소매에서 두리소매로 변하였다. 무의 구성도 경상도 지역은 앞뒤좌우 4장이 달려 있고 너비는 넓고 길이는 짧게 나타나는 반면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좌우 2장이 달려 있고 너비는 경상도 지역보다 훨씬 좁고 길이는 길게 입고 있다. 포의 뒷길 안자락의 구성 역시 경상도 지역의 경우 직사각형 옷감 2폭이 연결되어 밑단 부분에 트임이 있으며 전라도 지역의 경우 뒤 중심에서 절개하여 무가 달린 형태와 뒤 중심에서 완전히 절개되어 있는 형태로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지역별로 포의 종류와 형태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관모연구3(강순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16,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6),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나타난 목판당코깃 연구(구남옥, 복식55-3, 한국복식학회, 2005), 종가의 제례복식에 관한 연구(김은정·마유라·박자명, 복식58-1, 한국복식학회, 2008),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6), 조선왕조실록사전(encysillok.aks.ac.kr).

필자 이민주(李民周)

제비부리댕기

정의 댕기 끝부분을 제비부리처럼 뾰족하게 접어 만든 댕기.

내용 긴 직사각형 댕기의 끝을 뾰족하게 접어 만든 댕기로, 댕기 끝이 제비의 부리처럼 뾰족하다고 하여 '제비부리댕기'라는 명칭이 붙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댕기 끝의 좌우 사선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마치 새끼 제비가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입을 벌린 모양과 유사하다. 주로 미혼 남녀가 땋은 머리에 드렸는데, 크기는 연령에 따라 달랐지만 보통 여성용은 길이 약 120~130㎝, 너비 약 5~8㎝ 정도였고, 남성용은 여성용보다 길이가 약간 짧고 폭도 좁았다. 바탕 직물로는 무늬 없는 비단, 견, 사직물을 주로 사용하였다. 남성은 검은색으로 아무 장식 없이 단조롭게 착용하였으나 여성은 빨간색을 사용하였고, 궁중의 공주나 옹주, 반가의 규수들이 귀밑머리를 땋고 매던 제비부리댕기에는 화려하게 장식을 더하기도 하였다. 이때 댕기에는 수壽, 복福 등의 글자나 꽃, 나비 등을 금박으로 입히거나 댕기의 코 부분에 옥판이나 옥, 칠보로 제작한 나비장식, 은파란장식, 석웅황 등으로 장식하였다. 일반 여성들은 댕기의 코 부분 장식은 물론 금박 장식도 할 수 없었으나, 1910년대 이후 금박이 일반화되면서 금박을 장식한 댕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① 길이 53.3 너비 7



② 길이 107

제비부리댕기 | ① 국립민속박물관, ② 근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특징 및 의의 제비부리댕기는 댕기 종류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으며, 여러 민요에 정표情表나 남녀 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하여 댕기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것은 자주색 문양단을 바탕으로 하고 댕기 끝부분을 세모꼴 형태로 접어 전형적인 제비부리댕기의 형태를 보여 준다. 안감은 자주색과 분홍색 등의 자투리 천을 덧대어 제작하였으며, 댕기의 절반가량을 나비와 국화문, '아亞' 자 돌림문으로 금박 장식하고 윗부분에는 끈을 달았다. 또 다른 자료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덕온공주의 제비부리댕기이다. 이 유물은 덕온공주의 손녀인 윤백영으로부터 1959년에 기증받은 것으로, 덕온공주가 일곱 살이 되던 1828년에 공주로 책봉되면서 사용하였던 댕기이다. 자적색 항라에 화문과 '수壽' 자를 금박하였다.

참고문헌 댕기에 관한 연구(이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명선-하(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호정(李祜娗)

조끼

정의 개항 이후 서양복이 유입되면서 배자 대신 입게 된 소매 없는 옷.

내용 조끼는 개항 이후 양복이 들어오면서 새로 등장한 옷으로 전통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어 저고리 위에 입으면서 한복화되었다. 조선시대의 서민들은 거의 저고리 차림으로 다녔는데,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머니를 따로 들고 다녀야 했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조끼는 고름 대신 서구식 단추가 달리고, 옷에 주머니가 있어 매우 편리했다. 따라서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어도 급속히 보급되어 왕실과 민간의 성인남성부터 어린아이까지 널리 착용했다. 조선 말기 이후 남성들이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사진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조끼가 당시 필수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25년에 교육 목적으로 쓰여진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는 양복에 입는 조끼와 한복에 입는 조끼의 제작 과정을 따로 설명하였다. 당시 신문기사와 그림 등에도 조끼를 입은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조끼의 유행을 확인할 수 있다.

포르투갈어 'jacque'와 영어 'jacket'이 일본에 유입되면서 일본식 발음으로 바뀐 것을 그대로 써 조끼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본다. 근대에는 '족기' 외에도 '족긔'·'簇只'·'쵹기'·'족기' 등으로 표기했다. 「의복발기」 중에 연대를 알 수 없는 「족기발기」가 있는데 상감마마와 동궁마마가 입었던 조끼의 색상과 옷감,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뿐만 아니라 왕실 및 민간의 복식에 유물이 다수 남아 있어 조끼의 다양한 색상과 옷감을 확인할 수 있다.

조끼의 형태는 연령의 구별 없이 동일했으며, 소재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왕실에서는 모본단·별문단·금수문단·별문고단·양화별문고단·암화별문고단·고단과 같은 고급 견직물로 조끼를 만들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숙고사·생고사·모시 같은 전통직물뿐 아니라 모직이나 뉴똥 등의 수입 직물도 사용했으며, 민가에서는 광목과 같은 면직물로 조끼를 만들기도 했다. 조끼의 색상은 주황·남송·남색·초록·분홍 등 다양했는데, 왕실의 기록에는 남송색과 남색으로 만든 조끼가 많았다. 아이들의 조끼는 소화문小花紋이나 부귀다남富貴多男·수壽·복福 같은 길상문吉祥紋을 금박으로 찍기도 했고, 모란 같은 화문花紋이나 학 등을 수놓아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다. 조끼의 단추는 밀화·비취·



조끼 | 길이 47 품 47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금·은·칠보 등의 보석류를 사용하기도 했다. 현대에는 이를 모방하여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렴한 소재의 단추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조끼는 개항 이후 서양인의 양복이 우리 의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복 조끼를 본떠 만들어 입던 것이 우리 옷으로 정착한 것이다. 양복 재킷의 호주머니를 본떠 양쪽에 주머니를 고정해 달고, 왼쪽 상단에 작은 주머니를 단 것을 '개화 조끼'라고 하였다. 새롭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였는데, 민간에서는 중간겉옷으로 두루마기 대신 외출복으로 착용하기도 했다.

조끼는 겨울에는 짙은 색상의 단緞직물이나 면직물을 사용하여 겹조끼로 만들어 입고, 여름에는 옅은 색상의 옥양목이나 모시로 만든 홑조끼를 입었다. 조끼는 마고자와 함께 입기도 했는데, 이때는 조끼와 마고자의 옷감을 같이하기도 하였다. 외국과 교류로 수입된 직물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아이들의 조끼는 금박과 자수로 장식한 것이 많았다.

참고문헌 18세기 이후 배자의 유행과 확산(이수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국 전통 어린이 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우리나라 근대 '족기'에 관한 연구(이지련,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한국복식문화사전(김용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김정아(金廷兒)

조끼허리

정의 치마나 바지의 허리인 말기에 조끼가 달려 앞뒤로 여며 입는 치마나 바지의 허리.

내용 조끼허리는 '어깨허리'라고도 하는데, 치마나 바지의 허리인 말기에 어깨에 걸치는 부분이 있게 만들어 앞뒤로 여며 입게 만든 것이다. 뒤여밈 조끼허리와 앞여밈 조끼허리가 있다. 조끼허리는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형태였는데 개항 이후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고 조선 사람들에게 근대적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기존 한복의 불편한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으며 이런 현상 중 하나로 말기 형태가 변화한 것이다.



조끼허리 | 길이 45 허리 5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1894년의 갑오개혁과 1895년의 을미개혁 이후로 일부 상류계층의 남성과 여성은 서양복을 입고 단발을 하기 시작하였다. 복식의 간소화가 논의되면서 한복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여성 한복 중에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짧은 저고리 길이와 가슴을 동여매는 긴치마였다. 새로운 교육을 받기 시작한 여학생들과 서양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전도부인傳道婦人(한국 개신교 초기의 유급 사역자)은 서구문물을 좀 더 일찍 접하여 이들의 한복부터 서서히 변하게 되었다. 신문에서도 긴 저고리와 통치마를 입어 활동을 편하게 하자는 기사를 다수 내보내면서, 전통한복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월터A. J. Walter와 파이O. F. Pye는 1911년부터 약 10년간 이화학당에 재직한 선교사들이었다. 당시 이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긴치마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속속곳, 속바지, 단속곳 등 여러 겹의 속옷을 겹쳐 입어야 해서 옷감도 많이 들고 활동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슴을 졸라매어 건강과 위생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마허리의 모양을 바꾸게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치마 말기에 어깨끈을 달아 학당의 한국인 교사들에게 입게 한 후 학당의 학생들에게 조끼허리의 패턴을 나누어 주고 재봉 시간에 자신들의 치마를 고쳐 입게 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신식 치마허리는 몸을 옥죄지 않아 입기에 간편하고, 여성들의 건강에도 좋았다. 이화학당

의 학생들이 방학에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 조끼허리를 만들어 다는 법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식 치마허리가 편리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국에 유행하게 되었다.

조끼허리의 변화를 제외하고 한동안 여성의 치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하기 편하게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고, 트임이 없는 통치마도 생겨났다. 경기여자고등학교의 전신인 한성고등여학교에서는 1910년 이전부터 길이가 짧은 통치마를 교복으로 제작하여 입기 시작하였다. 많은 여성 사이에서 조끼허리와 통치마가 편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짧아지는 치마 길이의 유행은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끼허리는 개항 이후 여성 한복 치마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일직선 말기에 어깨에 걸치는 끈을 달아서 뒤로 여며 입도록 만들었는데, 기존의 치마말기보다 착용이 간편하고 몸을 압박하지 않아 크게 유행하였다. 조끼허리는 주로 흰색 면직물로 만들었는데, 여성의 겉치마는 물론 속치마에도 조끼허리를 달아서 착용하였다. 아이들의 옷인 풍차바지나 두렁치마에도 조끼허리를 달게 되었다. 기존의 치마는 조끼허리에 끈을 달아서 여며 입었으나, 통치마가 유행하면서 여밈의 방법도 끈이 아닌 단추나 스냅 등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18세기 이후 배자의 유행과 확산(이수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화팔십년사(정충량·이화팔십년사편찬위원회, 이대출판부, 1967), 한국 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복식문화사전(김용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유수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김정아(金廷兒)

조바위

정의 부녀자가 외출할 때에 머리에 쓰는 뺨을 둥글게 감싼 형태의 방한모.

내용 조바위는 역사가 짧은 모자이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작게 쪽찐머리가 드러날 수 있게 뒤가 짧은 것을 볼 때 조선 말기 이후 근세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반에서 일반 평민까지 부녀자가 외출할 때 방한모로 썼으며 장식용으로도 쓰여 아얌보 다 널리 이용되었다. 형태는 정수리 부분이 뚫린 것처럼 열린 상태이고, 귀와 뺨을 덮는 부분을 둥글게 하고 귀를 덮는 부분의 가장자리를 안으로 오그라들게 하여 뺨을 감쌀 수 있게 하였다. 뒷길이가 길지 않아 착용 시 뒷모습은 쪽머리 위에 얹힌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조바위 | 길이 34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민씨 가의 규수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1924)에 따르면, 검은색의 법단·모단·사·비단 등으로 만들었다. 유물 중에는 자색이나 홍색도 있으며 안감은 주로 남색을 사용하였고 방한에 맞게 융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겉감과 안감 사이에는 광목이나 융을 넣어 형태를 유지하면서 방한이 되게 하였다. 조바위의 앞과 뒤에는 술을 달아 장식하였는데, 대부분 앞에는 5봉술, 뒤에는 3봉술을 달았으며 봉술의 머리에 봉을 감을 때 '희囍', '수壽', '왕王' 등의 글자를 새긴 것도 있다. 술 위의 장식매듭에는 보석을 덧달아 장식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이마에서 뒤까지 구슬을 꿴 끈을 늘이거나 무늬를 넣어 짠 끈목을 늘이기도 하였다. 1940~1950년대에는 꽃모양의 은줄을 늘인 것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바느질법이 섬세하여 조바위의 가장자리는 실선처럼 아주 가늘게 선단 처리를 하였으며, 뒤쪽의 홈이 난 부분에는 이음선이 터지지 않게 박쥐단추를 달기도 하였다.

전체 모양은 시대적 변화가 거의 없으나 어른의 조바위는 주로 화문花紋을 선호하여 꽃무늬가 있는 검정색 옷감으로 만들었다. 한시적으로 조바위용으로 제직된 직물이 널리 사용되어 뺨의 둥근 부분에 맞추어 둥근 꽃무늬가 시문된 옷감도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성인 여성의 조바위와 형태는 같으면서 검정색·자색·홍색 등으로 색상이 다양하며 수복壽福 문자나 나비·꽃·박쥐 같은 길상무늬를 금박으로 찍어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전체를 금박으로 장식하고 옥판이 달린 드림댕기가 달린 것도 있다. 그리고 여자 아기의 돌복 일습에 이용하여 다홍치마와 색동저고리에 당의 또는 까치두루마기를 입은 돌맞이 여아가 머리에 조바위나 굴레를 쓰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조바위는 근세 이후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착용했던 방한모로 정수리가 구멍이 난 것처럼 뚫려 있고 귀와 뺨을 가리는 부분은 동그랗게 굴려 감싼 형태이다. 뒤가 길지 않아 착용 시 뒷모습은 쪽머리나 땋은 머리 위에 얹힌 형태였다. 겉감은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하고 안감은 청색을 넣어 만들며 앞이마에서 뒤까지 구슬을 꿴 끈을 늘이고 앞과 뒤에는 황색·청색·홍색의 술을 달아 장식했다. 어린아이의 경우 색상이 다양하고 조바위에 수복의 문자나 나비·꽃·박쥐문양 등을 금박으로 꾸며 화려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조바위는 전통모자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으며 근세 이후 자취를 감추었으나 오늘날에는 돌날에 여자아이가 금박으로 화려한 무늬를 넣은 조바위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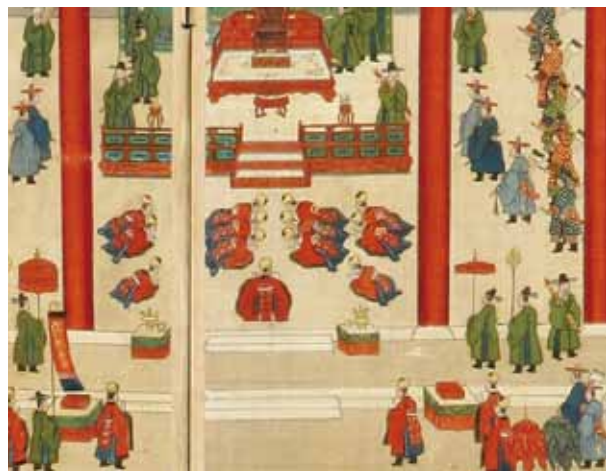
참고문헌 옛 어린이옷(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05), 조선시대의 관모(온양민속박물관, 1998),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조선조 여인의 난모에 관한 연구(권순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이명은(李明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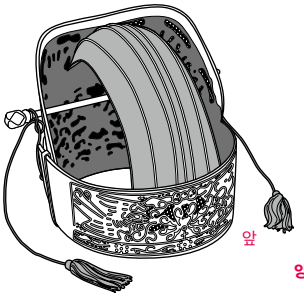
조복
朝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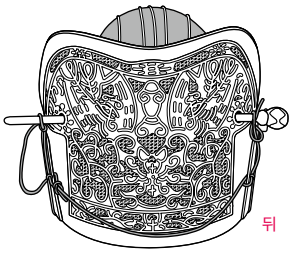
정의 왕실의 종친 및 관원이 명절, 경축일 또는 국가 대사 등 의례 때 착용하는 예복.

역사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의 기록으로 고구려에서의 조복朝服 착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나 제도의 내용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 관원의 조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1370년(공민왕 19)에 명明 태조로부터 하사받은 군신의 배제관복陪祭冠服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전에도 고려는 군신 조복을 여러 번 주청하였지만 명에서는 사여하지 않았는데, 이때 받은 배제관복도 명조 신하를 구등九等으로 나눈 것보다 두 등급을 낮춘 제복祭服이었다. 하지만 그 구성 요소 중 청라의靑羅衣와 방심곡령方心曲領을 제외한 부분은 조복과 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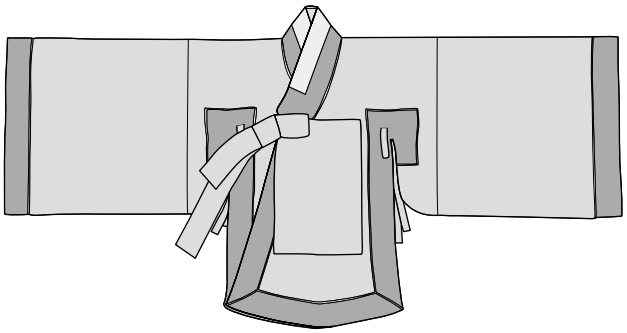


하례 올리는 백관 | 무신진찬도병 중 부분 | 1848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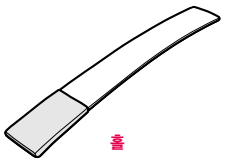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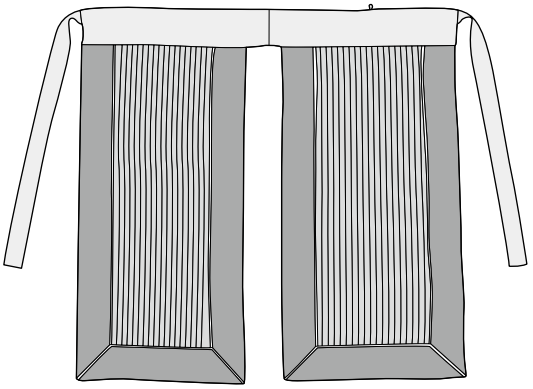
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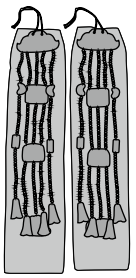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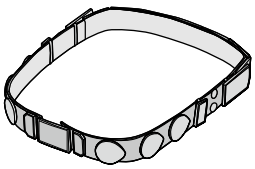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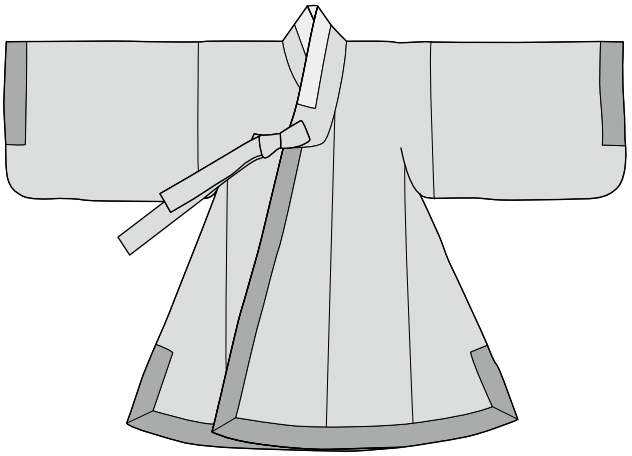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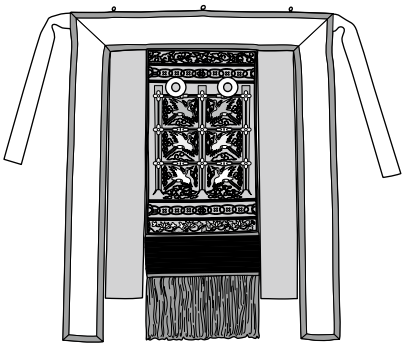
패옥



품대



중단



대대·수

조복 일습 구성품 | 국립고궁박물관

되는 부분이 있어 조선시대 조복과 이어진다. 조선시대에는 태종과 세종 대에 세자의 조복으로 양관복梁冠服이 사여되었으나 관원의 조복은 사여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조·제복의 재료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무역의 형태로 전래되었다.

내용 1416년(태종 16) 태종은 명의 예제를 총집한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참고하여 관복색冠服色을 설정하고 조복 제도를 제정하였다. 이때의 조복은 중국보다 두 등급 낮춘 관원의 조복과 제복 제도였으며, 조복에 소용되는 초綃와 견絹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입수했다. 조복 일습은 양관梁冠·적라의赤羅衣·백사중단白紗中單·적라상赤羅裳·적라폐슬赤羅蔽膝·혁대革帶·패佩·대대大帶·수綬·홀笏·백말白襪·흑리黑履로 구성되며, 관원의 품계는 양관에 들어가는 양梁의 개수, 대와 홀의 재료, 후수의 무늬, 패옥의 색상 등 부속 제구의 세부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복에 쓰는 양관은 금칠이 되어 있어 금관金冠이라고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복을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도 한다. 제복祭服 일습과 조복은 품목 구성이 같으나 가장 겉에 입는 웃옷인 의衣의 색상을 조복은 적색, 제복은 청색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1426년(세종 8)에는 조복 제도를 태종 대에 제정한 것과 동일하게 확정하였으며, 그대로 큰 변화 없이 『경국대전經國大典』(1485)에서 완성을 보게 된다. 제도상 조복의 가장 큰 변화는 대한제국이 성립되어 고종이 황위에 오른 1897년(광무 원년)에 이루어진 『대한예전大韓禮典』에서 나타나는 조복 제도이다. 이는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참고하여 명의 관복 등제와 동일하게 양관을 1량관에서 7량관까지 제정하였다. 대한제국의 2품용 양관인 6량관이 전해지고 있어 조선 후기 7량관제의 명나라와 동일한 조복 제도가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복은 설날이나 동지 등의 국가 조회 또는 왕실의 국혼, 탄일과 영조迎詔, 부묘祔廟, 진표進表 등에 착용하였다. 왕자의 경우 관례冠禮를 올릴 때 삼가복으로도 조복을 착용하였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1454)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1744)의 예를 살피면 국왕이 면복과 강사포를 착용할 때 군신은 조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복은 국왕의 면복이나 강사포에 해당하는 관원의 최고 예복이었다. 이러한 조복은 조선 전기에서 말기까지 제도상으로는 1~9품까지 모두 착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예제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복 착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복을 갖추기 어려워 흑단령黑團領이 대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계속되는 전쟁으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효종 대 이후에는 1~4품까지만 조복을 입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착용하게 되었다. 영조 대 『국조속오례의』에서 법제화되어 백관들이 조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4품 이상만 조복을 착용하고, 5품 이하는 흑단령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무신진찬도병戊申進饌圖屛>(1848)과 <왕세자탄강진하도王世子誕陳賀圖>(1847)에서 확인된다.

조복 유물은 대부분 전세 유물로 19세기의 시대적 한계를 보이며, 출토복식 가운데 조복이 발굴되는 경우



이하응 초상 금관조복본 | 18~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는 많지 않다. 현재까지 관원의 조복 출토 사례는 총 여덟 건으로 의·상·폐슬·후수·대대의 품목이 보공용으로 출토되었다. 가장 이른 연대의 조복은 신경유申景裕(1581~1633)의 조복으로 17세기 전반기 조복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밀창군密昌君(1677~1746)과 이익정李益炡(1699~1782)의 18세기 조복은 조복을 착용한 초상화가 함께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여 준다. 2016년 발표된 17세기 후기의 권우權堣(1610~1675)의 조복에는 후수의 노사문양鷺鷥文樣이 확인되며 폐슬의 경우 팔길상문의 화려한 자수가 놓아져 있어 제도와는 다른 형식이 확인된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전기에 제정된 관원의 조복 제도는 대한제국이 성립되어 『대한예전大韓禮典』의 제도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제도상으로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조선 중기 이후 조복의 제도는 세부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국초의 양관은 조복용과 제복용으로 통용되었으나, 인조 대 이후에는 구분되었으며, 정조 대에는 조·제복의 관을 다시 통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둘을 구분하는 제도가 국말까지 이어졌다. 정조 대의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1784)에는 조복관과 제복관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 말의 양관 유물을 통하여 그때까지 조복관과 제복관이 구별되어 착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복의 신발은 제도상으로는 제복의 신발과 동일하게 리履나 혜鞋로 기록되어 있지만, 중종 대에 중국의 변화된 화靴 제도의 편리함을 취하여 화로 변경되었으며, 인조 대의 『원종예장도감의궤元宗禮葬都監儀軌』(1627)에서 변경된 조복의 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조 대의 『경모궁의궤』 도설에는 조복에는 흑피화黑皮靴, 제복에는 흑피리黑皮履를 신는다고 구분하고 있다. 그 외 밀창군·이익정·대원군의 초상화에서도 조복을 입고 흑피화를 신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복의 중단은 전기에는 조복과 제복에 모두 백색의 중단을 착용하였으나 정조 대에는 조복의 중단으로 청색 창의가 착용되었으며, 도포가 중단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밀창군과 이익정의 조복을 착용한 초상화에서는 중단으로 청색 창의를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 대 이후 중단으로 착용한 청색 창의는 청색 중단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변경된 청색 중단은 구한말의 유물과 대원군의 초상화에서 확인된다.

조복을 장만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 조선 전기에는 조복과 제복은 제용감에서 관원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하였으나, 중종 대 이후 조복은 개인적으로 장만하는 사비私備 제도로 변경하게 되어 제복과는 다르게 국말까지 이러한 제도는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복 유물이 제복 유물보다 많이 남아 있다. 조선 전기 제정된 조복 제도는 중기 이후 제도와는 다른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다. 화려한 자수 문양의 폐슬이 포함된 권우의 조복은 17세기 조복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 주며, 17~18세기의 조복은 조선시대 관원의 조복 제도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韓禮典,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2),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장정윤,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제도 고찰(박성실·장정윤, 의·문의 조선-옷, 민속원, 2016), 조선후기 관원 조복의 구성과 형태 연구(최연우, 한복문화18-3, 한복문화학회, 2015).

필자 장정윤(張楨允)

조우관
鳥羽冠

정의 조우鳥羽를 장식한 관모의 통칭.

역사 우리나라에서 조우식鳥羽飾 관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명왕편東明王篇에 나오는 부여夫餘의 시조 해모수解慕漱에 대한 서술이다. 즉 "머리에는 조우鳥羽의 관冠을 쓰고 허리



수렵도 | 무용총 | 고구려

에는 용광龍光의 칼을 찼다."라고 기록하였다. 해모수는 그 신화의 성격상 샤먼의 역할을 겸한 제정일치적 인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조우를 관에 삽식揷植하는 풍습은 유목민의 조류 숭배사상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翰苑』 번이부蕃夷部 고려조高麗條에 "금우金羽로서 귀천을 밝히었다."라고 되어 있어 고구려에 금제 조우관이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내용 조우관을 착용한 모습은 <왕회도王會圖> 고구려 사신도, 당나라의 이현李賢 묘 벽화의 사신도, 둔황 막고굴 237호굴 벽화인물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조우관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1. 2조우관과 조미관: <왕회도>에 나타난 고구려 사신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깃털을 꽂은 조우관과, 무용총 벽화 인물도에서 볼 수 있는 새 꼬리털을 장식한 조미관이다.
2. 금우관金羽冠: 평양 개마총 벽화에도 금제 조우관의 착용 모습이 보이고 광개토대왕릉에서는 영락이 달려 있는 금제 변형모와 금제 조우식이 출토되어 금우관의 형태를 보여 준다.
3. 3조우관: 중국 길림성 출토 백제 조우관에도 3조우식이 있고 발해에도 같은 양식이 있어 고신라, 가야와는 다른 고구려, 백제, 발해로 이어지는 3조우식의 전형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금우관과 3조우관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착용하여 그들의 지위를 상징하였던 것 같다. 백제에서는 제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조우관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나온 유물에 새겨진 인물은 조우관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공주 수촌리 2-4호분 출토 조우관이나 2-1호분 출토품은 긴 대롱을 한 개나 두 개 달고 있으나 기본은 변형모에 앞에 3조우식을 단 것이다.

조우식의 꼬리 부분을 도안한 양식을 '스키타이 꼬리 양식'이라 부르며, 이는 고구려 관 장식에서도 볼 수 있어 그 원류를 짐작할 수 있다. 신라,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조우관(식) 사례를 보면 조우식을 꽂을 수 있는 중심꽂이식이 스키타이 꼬리 양식을 보여 주고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심꽂이식에 좌우 양 날개가 부착된 조우관(조우식 I형): 경상북도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금제 조우관, 천마총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금제 조우관이 있다.
2. 좌우 양 날개 없이 중심꽂이식 만으로 구성된 조우관(조우식 Ⅱ형): 경북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은제 조우관, 경남 양산 부부총에서 출토된 가야 조우관이 있다.
3. 대륜에 조우식을 삽식한 대륜식 조우관: 황남대총 남분 출토 은제 조우관, 경북 의성 탑리 제1묘관 출토 금동제 조우관이 있다.

특징 및 의의 내몽골에서 발견된 흉노 선우의 관모에 새가 장식되어 있는 것에서 스키타이계 복식문화 속 조우관의 착용 유례를 볼 수 있다. 원래 조우식의 삽식 방법은 양쪽으로 두 개를 꽂든지 아니면 다발로 꽂든지 하는 식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변형모형 앞에 방형판이 붙어 있고 그곳에 조우식을 삽식하는 식으로 변형되고 장식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벽화 인물상 등에서도 조우관을 착용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고유 형태인 장식판에 조우식을 삽식한 조우관이라면 이는 우리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대 조우관의 원류에 대한 연구(김문자, 한복문화8-1, 한복문화학회, 2005), 금속제 조우식에 대한 연구(김문자, 패션비즈니스5-4,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01), 스키타이 황금(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일보사, 1991), 한국미술전집4-벽화(김원룡, 동화출판공사, 1980).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Frozen Tombs of Siberia(S. I. Rudenko, trans. M. W. Thomps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필자 김문자(金文子)


① 조우관 | 백제


② 금동제봉황형장식 | 고구려


③ 금제관식 | 신라

조우관 | ① 충남 공주 수촌리 4호분 | 국립공주박물관, ② 높이 9.1~13.1 | 평북 운산 용호동 1호분 | 국립중앙박물관, ③ 높이 40 | 경북 경주 금관총 | 국립중앙박물관

족두리
簇頭里

정의 조선시대 예복에 착용한 여성의 관모冠帽.

내용 족두리簇頭里는 영정조 시대에 사치를 조장하는 가체를 대신하여 정착한 여성의 예관禮冠이다.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솜족두리와 각족두리, 그리고 장식 여하에 따라 꾸민족두리와 민족두리로 나뉘는데, 솜족두리는 안에 솜을 둔 것이고, 각족두리는 솜 대신 대나무[涼竹] 틀 또는 풀 먹인 종이[糊紙]로 배접한 각진 틀을 넣은 것이다. 둘의 차이는 안감의 유무에서도 나타난다. 솜족두리는 20세기 초까지 안감 없이 솜으로만 채워져 있었으며, 각족두리의 경우 안을 홍색 종이로 배접하였다. 단, 현대의 솜족두리는 솜과 틀을 함께 넣어 모양을 잡고 붉은 색 천으로 안을 대어 제작해 지금은 그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또, 꾸민족두리는 흑색 비단 족두리에 옥·진주·산호·밀화·석웅황 등 화려한 보석을 달아 예복에 사용되었고, 장식이 없는 민족두리는 주로 제례 때 사용되었다. 상례에는 하얀 무명으로 감싼 백색 각족두리를 사용하였다.

1756년(영조 32), 영조는 가체로 인한 사치가 날로 심해지자 그 폐단을 막고자 가체를 금지하고 족두리로 대체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가체 금지가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족두리는 여성의 예관으로 정착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때 처음 족두리를 착용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인 16세기 말~17세기 초에도 큰 족두리를 머리에 썼음이 출토유물 10여 점으로 확인된다. 처음에는 수의용 모자로 판단하였으나, 한 무덤에서 여러 개의 족두리가 함께 출토된 점, 대렴 과정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수의 전용은 아니며, 특히나 조반趙伴(1341~1401)의 부인인 계림 이씨 초상에서의 족두리 착용 모습을 통하여 18세기 이전에 머리에 쓰던 큰 족두리가 여성의 관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족두리는 머리에 쓰지 않고 얹는 방식으로 착용법이 변화하였는데, 안동 권씨 묘에서 출토된 한 건의 족두리를 통해 17세기 전반에 비해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족두리의 형태는 황윤석의 『이재난고頤齋亂藁』에



족두리 | ① 높이 8 너비 11 바닥지름 9.5 | 국립민속박물관, ② 대전시립박물관, ③ 조반 부인 초상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④ 회혼례도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사대엽四大葉, 삼소엽三小葉, 일정심一頂心"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옆면을 잇는 일곱 조각과 정수리에 한 개의 정심원을 부착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도 전면 가운데에 오는 조각에 연달아 세 쌍을 좌우로 연결하여 총 일곱 조각으로 둘레를 만들고, 연결된 상부에 둥근 원을 부착하여 겉면을 완성한다. 족두리 감은 상례 때에 사용된 백족두리를 제외하면 모두 흑색 비단을 사용하였으나, 근대 유물 중에는 붉은 비단이 사용된 족두리가 종종 확인된다. 족두리에 사용된 재료는 현금玄錦, 흑주黑紬, 흑모단黑毛緞 등 모두 흑색에 무늬 없는 명주와 비단이 사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족두리가 원나라의 고고관古古冠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구된 사례가 있으나 그것은 어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족두리의 명칭은 17세기 이후 족두리簇頭里, 足頭裡, 足頭里, 簇頭里, 足頭裏, 족도리足道里, 簇道里, 족두이足頭伊, 족두足兜, 足頭, 簇兜, 족관簇冠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영정조 대 이전부터 여성의 예관으로 사용하던 것이지만, 사치를 금지하고자 내린 가체 금지령에 따라 조선의 독특한 여성 관모로 정착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전통 혼례에서 중요한 여성 관모로 그 맥을 잇고 있다.

참고문헌 居家雜服考, 五洲衍文長箋散稿, 頤齋遺藁, 林園經濟志, 林下筆記, 朝鮮王朝實錄, 이재난고에 나타난 18세기 족두리의 제법 및 사용(김지연·홍나영, 한국복식학회지60, 한국복식학회, 2010), 조선의 명가 청주양씨 유물전(정미숙, 경기도박물관, 2015).

필자 정미숙(鄭美淑)

주
紬

정의 중간 정도 품질의 견사絹絲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견직물의 일종.

내용 평직은 가장 기초적인 직물 조직 형태로, 한국 전통 견직물에서는 평직으로 직조한 견직물이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고대에 사용된 평직 견직물의 종류는 견絹, 초綃, 주紬, 사紗, 시絁, 라羅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고, 평직으로 직조하는 방법은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된 실의 종류, 품질, 굵기, 꼬임과 경·위사의 밀도 등에 따라 세분하였다. 이 중 주는 정련의 여부, 원사의 상태, 밀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명칭이 한층 더 세분화되었다. 정련 여부에 따른 명칭으로는 생주生紬와 숙주熟紬, 원사의 상태에 따른 명칭으로는 합사주合絲紬, 밀도에 따른 명칭으로는 수주水紬와 8승八升 수주水紬, 9승九升 수주水紬, 품질에 따라서 상상주上上紬, 상주上紬, 중주中紬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조직인 평직물이므로 어느 지역에서나 생산이 용이하여 춘천주春川紬, 해동주海東紬, 산동주山東紬, 노방주潞方紬, 노주주潞州紬 등 원산지에서 이름을 따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의 주는 생사生絲를 켤 수 없는 설면자雪綿子, 즉 폐충의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낮은 품질의 짧은 견사[短絲]를 방적한 실을 평직으로 짠 견직물을 뜻하였다. 다시 말해 촉감은 부드러웠으나 광택이 적고 표면이 균일하지 못하여 견에 비하여 품질이 낮은 견직물을 의미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조선 전기의 주 중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던 면주를 대표적으로 다룰 뿐 그 외의 명칭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주의 명칭이 다양해져서 18세기 중엽의 『상방정례尙方定例』나 19세기 초의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견 종류가 거의 없어지고 주의 종류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 19세기의 「불긔」에는 더욱 다양해져 주의 명칭이 스무 가지 이상 나타난다. 주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통되는 주의 품질도 올라갔는데, 그 예로 노주주나 선주線紬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중국의 유명한 견직물 산지인 산서성山西城 노안路安 지방이나 선주線州 지방에서 생산한 고급 주로, 질이 좋은 장견사로 제직하여 치밀하고 촉감이 부드러웠다.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내산 주 중에도 상의원에서 매우 섬세하게 직조한 것이 있어서 1695년(숙종 21)에 "상의원의 공주貢紬가 너무 가늘고 아름다워 품질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논의한 기록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주는 무늬가 없는 것이 기본이며, 무늬가 있는 경우에는 문주라고 부른다. 평직물 중에서도 주는 초, 견과 달리 필라멘트사가 아닌 방적사를 사용하여 직조되어 견에 비하여 광택이 없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 단, 주이면서 주보다 실 굵기가 일정하고 경사와 위사의 굵기가 비슷하여 짜임이 균일한 것을 세주細紬라 하였는데, 이는 꼬임이 없는 매끈한 실을 사용하여 표면이 평평하고 광택이 나 일반 주보다 품질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주의 구분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에 나타난다. 대개 주에 비하여 견이나 초가 품질이 우수하며 고가의 직물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주만이 아니라 면주綿紬, 조하주朝霞紬와 어아주魚牙紬 등 주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는 육두품이 입는 겉옷[表衣]의 재료로, 면주는 육두품의 겉옷과 버선, 오두품의 바지와 버선, 사두품의 겉옷과 속옷, 반비, 버선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신라의 대표적 토산물인 조하주와 어아주는 당시 직물 생산을 담당했던 조하방朝霞房에서 직조된 높은 품질의 무늬 있는 문주紋紬였다. 이러한 직물을 신라 723년(성덕왕 22)과 773년(혜공왕 9) 등에 당나라에 보내기도 하였고,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주는 1018년(현종 9)에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견, 포布와 함께 포상의 의미로 사용되어 그 가치가 높았다. 특히 고려 세주細紬는 몽골에서 공물로 여러 차례 요구한 직물이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따르면 1412년(태종 12)에는 감찰 행정을 맡은 사헌부에서 일반 백

성들로 하여금 세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상하의 복장服章을 구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상소를 올린 기록도 있다. 그만큼 세주는 값진 직물이었으며, 책봉, 가례, 국장 등을 다룬 의궤儀軌에 직물 명칭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했던 견직물의 종류는 차츰 사라지고 주, 견, 초의 세 가지 유형으로 집약되었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 주를 평민용 수의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新唐書, 朝鮮王朝實錄, 度支準折,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남오성묘 출토복식 직물연구(심연옥, 남오성묘 출토복식, 국립민속박물관, 2004), 인평대군파 의원군일가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조효숙,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2001), 한국견직물연구(조효숙,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직물사연구(민길자·심연옥, 한림원, 2000), 中國紡織科學絲綢技術史(陳維稷, 科學出板社, 1984).

필자 이은진(李銀眞)

주립
朱笠

정의 조선시대 문무당상관이 융복에 착용하는 붉은색의 갓.

내용 주립朱笠이란 붉은색 입자笠子로서 자립紫笠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문무당상관의 융복戎服에 착용한 갓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융복은 왕의 행차를 수행할 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 또는 국난을 당하였을 때처럼 문무백관이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착용하는 복장이다. 융복은 주립·철릭·홍광대紅廣帶·목화木靴로 구성되었다.

주립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입자인 갓[黑笠]과 동일한 것으로, 갓은 흑칠黑漆을 한 것이며 주립은 붉은색 칠[朱漆]을 한 것이다. 갓은 머리를 덮는 모옥帽屋인 대우 또는 모자와 얼굴을 가리는 차양 부분인 입첨笠簷인 양태凉太로 이루어지고 갓끈이 달려 있다. 대우의 형태는 윗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원통형으로 모정帽頂은 평평하고, 모자의 챙인 양태의 버렁은 약간 곡을 이룬다. 갓은 품질이 좋은 대나무를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길게 오린 댓개비[細竹絲]나 말총 등으로 짜서 대우와 양태의 형태를 만들어 함께 붙인다. 그 위에 포布나 사絲등으로 싸고 검은 옷칠을 한다. 갓의 색상은 검은색이 기본이지만, 용도에 따라 문무당상관의 융복에는 붉은 옷칠을 한 주립을 착용하고 상복喪服에는 흰색의 백립白笠을 착용했다.

일반적으로 갓의 재료로는 말총과 대나무가 사용되었으므로, 주립도 세죽사細竹絲나 말총 등으로 만들어 착용했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붉은색 말갈기털로 짜 만든 주립은 착용을 금하고, 세죽사로 만들고 붉은색 칠을 하거나 붉은 천으로 갓전체를 싼 주립을 착용하게 했다.

주립에는 갓끈장식인 영자纓子가 있고 입식笠飾으로는 호수虎鬚와 모정에 장식하는 옥로玉鷺가 있다. 영조대에 편찬한 『속대전續大典』에는 당상관은 자립紫笠에 패영貝纓을 하고 당하관은 흑립에 정영晶纓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대에 이르러서는 당상관의 자립이 칠사립으로 변하면서 패영이 폐지되었고, 대신이나 장군은 융복과 군복을 착용했을 때 입식으로 옥로를 정자에 달게 했다.

주립의 입식으로 사용한 호수는 모옥의 전·후·좌·우 네 귀퉁이에 꽂는 장식이다. 영조대 편찬된 『연려실기술별집練藜室記述別集』에서는 현종顯宗 대에 신하들이 보리이삭을 꽂아 풍년을 기념했던 것이 그 후 융복에 호수를 하게 되었으며, 금군禁軍 중 가난하여 호수를 갖추지 못하면 보리이삭으로 대신하는 것은 옛일이 전해진 것이라고 했다. 주립에 호수를 장식하는 것은 원래부터는 없던 제도이나 현종 대 이후 보리이삭인 맥수麥穗를 꽂아 장식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후에 섬세하게 가는 세죽細竹을 끈으로 묶어 만든 수염모양[鬚形]의 호수로 변했고 고가의 장식품이 됐다.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1617년(광해군 9) 9월 무자조戊子條에는 장영掌令 한영韓詠이 "하천下賤이 주립을 착용하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계청啓請하고 있다. 19세기에 편찬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사립絲笠과 주립은 문신당상관의 융복에 갖추어 착용한다고 하였다. 1874년(고종 11)에는 조신의 융복에 호수와 패영을 장식한 주립을 착용하라고 하였다. 일반 백성들이 문무당상관의 융복에 착용된 주립을 착



주립 | 높이 14 지름 1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주립 쓴 무녀 | 신윤복 | 무녀신무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용한 것은 임진왜란의 여파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여 일반 백성들이 복식 제도를 잘 따르지 않았던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립은 조신들의 융복에만 착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사회가 현대화되고 갑오개혁으로 서구식 군복이 도입되어 융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자 주립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특징 및 의의 주립은 붉은색 칠을 한 입자나 조선 말기의 유물 중에는 붉은색의 천으로 싼 주립도 있다. 주립의 모정에는 착용자의 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정자와 보리풍년을 기념한 맥수 장식에서 시작된 호수로 장식했다. 주립의 끈은 밀화영으로 꾸며 착용자가 왕의 행차를 수행하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 착용자의 위엄을 과시했다.

주립은 조선시대의 상급직의 문무백관만이 착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입자였으나, 조선 후기인 광해군 때에 이르러서는 천인들도 착용하여 상하의 복식이 어지럽혀진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주립은 조신들의 융복에만 착용할 수 있었다.

무당들이 굿할 때는 신복神服으로 무관복장을 하고 주립을 썼다. 무당은 축귀逐鬼를 하여 민간인의 병을 고치고 무관의 위엄으로써 잡귀를 물리치고 사기를 돋구운다는 뜻에서 무관복색을 하고 주립을 착용했다.

참고문헌 續大典, 練藜室記述別集,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王朝實錄, 조선시대의 융복에 관한 연구(이현숙,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의 복식문화(백영자, 경춘사, 2000).

필자 유효순(柳孝順)

주머니

정의 몸에 지니는 조그만 소지품이나 돈 등을 넣어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생활용품.

역사 주머니에 대해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경덕왕조景德王條에 "왕이 돌날로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항상 부녀의 짓을 하여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했다自期晬至於登位 常爲婦女之戲 好佩錦囊."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라 여인들이 비단주머니[錦囊]를 찼던 모습을 알 수 있다. 또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고려 귀가貴家 부녀자들은 감람늑건橄欖勒巾에 채조금탁采條金鐸을 달고 금향낭錦香囊을 찼는데 많은 것을 귀히 여겼다."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 고려시대에 오면 신라시대보다 더 많이 비단 향주머니를 찼던 것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후기의 유물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주머니는 궁중의 「낭囊발기」와 민간에서 기록한 건기件記에 나타나 있다. 특히, 궁중의 주머니는 순종의 첫 번째 결혼인 임오가례壬午嘉禮 때 모든 물목이 양적으로 가장 많다. 이를 통해 인조 이후의 의궤儀軌를 뒤져 보아도 유례없이 호화로웠던 것을 엿



① 영친왕비 수복자문 자수 귀주머니



② 두루주머니



③ 이진 십장생문 자수 약주머니

주머니 | ① 높이 14 너비 14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길이 10 너비 1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높이 14 너비 14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궁중의 「낭발기」는 가례 시나 정월 첫 해일亥日에 대내大內에나 왕비의 친정, 기타 종친들에게 '염낭' 또는 '줌치'를 보낸 것을 기록하였다. 이들 낭은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손이 가고 아기자기한데다가 부적 같은 뜻을 지녔기 때문에 당시에는 무척 환영받는 선물이었다. 그 주머니 속에는 종이 봉지에 콩을 볶아 꼭 한 알씩을 넣어서 보냈는데, 이것을 해일亥日에 차면 1년 내내 귀신을 물리치고 만복이 온다는 풍습이 있었다.

그 밖에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 민간과 궁중의 주머니에 대한 민속 기록을 볼 수 있다. "호서지방에는 큰 횃불[炬火]로 대규모의 쥐를 태우는 풍속이 있다. 조정에는 궁중의 어린 내시 수십 명이 횃불행진을 하게 하는데 '돗희부리 지진다'를 외치면서 궁중을 돌아다니게 하고, 곡물의 종류를 태워서 둥글고 긴 두 가지 형태의 비단주머니에 넣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두 다 한 해의 농사가 잘되기를 기축하는 의미이다. 이 주머니의 둥근 것을 해낭亥囊, 긴 것을 자낭子囊이라고 일렀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복을 받아 곡식이 잘 여물어 평안한 생활을 누리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곡종을 태워 넣은 낭을 차는 것이 전통적인 습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주머니는 1894년 이전에는 실용성과 장식성에 주술성까지 결합되어 민중 깊숙이 침투한 생활 용품이었다. 갑오개혁 이후 복식의 근대화로 남성 복식의 조끼에 호주머니가 생기고 여성 복식에 핸드백이 동반되어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내용 주머니는 필요와 쓰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남녀노소 지위에 상관없이 패용되어 형태·용도·문양·신분 등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서로 달랐다. 주머니의 기본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둥근 모양의 두루주머니(혹은 염낭, 환형낭丸形囊)와 각진 귀주머니(혹은 줌치, 각형낭角形囊)로 나뉜다.

두루주머니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머니로 반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주머니의 끈이 주머니 상단에 꿰어져 있는 것을 고뉴高紐, 중간에 매어져 있는 것을 중뉴中紐, 하단에 매어져 있는 것을 저뉴低紐라고 한다. 귀주머니는 네모지게 꾸며서 입구 위를 두 번 접어 아래 양쪽으로 귀가 나와 양옆이 모가 진 형태의 주머니이다.

그 밖에 직선주머니형과 사선주머니형이 있는데, 직선주머니형에는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물건에 맞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수젓집·부채주머니·필낭 등이 있다. 또한 사선주머니형은 사각형의 천을 사선으로 접어 솔기를 맞물려 바느질한 후, 중앙에서 주름을 잡아 끈을 꿰고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넘겨서 뚜껑을 만들었는데 약주머니가 이러한 형태이다.

주머니는 용도에 따라 향을 담은 향주머니, 환약을

담는 약주머니, 부싯돌과 담배를 담아 둔 부시주머니와 쌈지, 군대를 동원하는 징표로 쓰이던 발병부를 넣던 병부주머니, 도장을 보관하는 도장주머니가 있다. 또한 시계를 넣은 시계주머니, 안경을 보관하는 안경주머니, 붓을 넣어 다니던 필낭, 침선과 구급 처방을 위해 침을 넣었던 침낭, 시집가는 처녀가 혼수로 만들어 가던 수저주머니, 버선본을 보관하는 버선본주머니,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부채주머니 외에도 장도주머니, 노리개주머니, 돈주머니 등이 있다.

주머니는 금박이나 자수로 문양을 찍거나 수놓았는데 문양은 크게 동물·식물무늬 중심이다. 그 밖에 자연 무늬와 길상을 나타내는 문자무늬, 장수를 염원하는 십장생무늬, 부귀를 나타내는 모란무늬, 기하무늬 등 여러 무늬를 볼 수 있다. 자연 문양의 주머니에는 산수낭이 있는데, 산수의 무늬는 흉배의 하단에 쓰인 삼산·파도·불로초 등의 무늬가 주로 쓰였다. 문자무늬로는 자식을 기원하는 뜻인 '다남자多男子', '다남다복多男多福'의 글자를 수놓았으며, 한 쌍의 원앙이나 장생문을 함께 수놓기도 했다. 또, 나이든 어른이 사용하는 주머니에는 '수복壽福'이라는 글자를 수놓아 장수와 복을 빌었다. 비단에 오복문자를 수놓은 오복수낭五福繡囊이 있으며, 수젓집 등의 하부에는 만卍자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파도·바위·삼산·불로초를 수놓았다. 수복강녕壽福康寧의 네 글자가 새겨 복을 비는 염원을 담았다. 한편 신분에 따라 문양 및 색과 부금 여부가 달랐는데, 황룡자낭·봉자낭·부금낭은 지배 계급의 권위를 나타내는 주머니 명칭이다.

특징 및 의의 우리의 전통복식은 서양복식과는 다르게 포켓이 없었으므로 모든 소지품은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주머니는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애용되었고,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주머니는 자수나 금박으로 장식하여 장식품으로도 사용되었다. 그 문양에는 부귀·장생·자손 번창 같은 주술적 기원을 표현하여 주머니 본래의 물건을 담는 실용적 목적과 장식적 역할 외에도 주술적 의미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주머니 속에 콩을 볶아 한 알씩 넣어 정초에 친지들에게 선물하고 이것을 해일에 차면 만복이 온다는 풍습이 있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宣和奉使高麗圖經, 朝鮮常識, 이조시대 문양을 중심으로 한 자수노리개의 연구(백영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조선조자수주머니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정윤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한국생활문화 100년(백영자 외, 도서출판 장원, 1995), 한국 복식문화의 흐름(백영자·최정, 경춘사, 2014), 한국의 주머니 연구 및 현대화(김옥현, 예술논총5,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2002), 한국전통주머니에 나타난 감성이미지(강정현·권영숙, 복식53-4, 한국복식학회, 2003).

필자 백영자(白英子)

주사
走紗

정의 직물 표면에 오그랑한 주름이 진 평견직물.

내용 주사走紗는 1819년(순조 19) 정약용이 저술한 『아언각비雅言覺非』에 중국의 '추사縐紗'가 발음이 잘못 옮겨져 '주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역어유해譯語類解』에는 '추사'를 우리말로 '즈우샤'라고 하였고 '호추湖縐'도 우리말로 '주사'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관복식대사전』에 따르면 호추는 주름진 견직물의 일종으로 호주湖洲 지역이 유명한 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하였다. 「발기」에는 '즈우사', '저우사苧藕紗'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추관지秋官志』의 내용을 보면 조신朝臣의 장복과 융복은 모두 운문을 사용하며, 장군 이하의 군복은 운문과 왕이 상으로 내린 단사대접문緞紗大楪紋 외에는 제반 물품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우사注雨紗·항라抗羅·지주只紬·소능素綾 중의 유문有紋은 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면 '주사'라는 명칭은 '주름이 있다'는 뜻의 '추縐'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것이 서서히 변형되어 '주사', '즈우사', '저우사'로 다양하게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주사는 평직平織의 직물 중에서 표면에 오글오글한 주름 효과가 있는 직물이다. 경사에 무연사나 약연사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Z연과 S연의 강연사를 번갈아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한 후 정련을 하여, 실이 수축되면서 꼬임 방향에 따라 직물 표면에 미세하고 불균일한 무늬가 생겨 직물 표면에 오글오글한 주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직물 중에 크레이프crêpe와 유사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

옛 문헌을 참고하여 주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탁지준절度支準浙』에 기록된 주사의 폭은 8촌寸(약 37.6㎝)으로 당시의 일반적인 사紗 종류의 폭인 1척尺 3촌(약 61.1㎝)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주사의 폭은 오히려 당시의 평견직물인 개지주改只紬, 화방주花方紬, 화사주花紗紬, 화화주花禾紬와 그 폭이 동일하였다. 이처럼 주사의 폭이 다른 사 종류와 다르고 평견직물과 유사한 것은, 주사의 명칭에 사紗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나 실제 조직은 평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물의 가치 측면에서도 주사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 평직이므로 경사가 교차된 익조직搦組織의 사 종류보다는 가치가 낮았다. 백색 옷감을 기준으로 가치를 비교해 보면 평직과 능직을 섞어 짠 능綾과 비슷하고, 익조직의 사 종류의 반값 정도이다. 하지만 직물의 가치는 직조 방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사는 평직으로 제직되었다 하더라도 주紬보다는 많이 비싸고 평견직물 중에서 고가인 초綃와 비교할 때 주사의 가치가 2.3배 정도 높았는데, 이는 Z연과 S연의 강연사强撚絲를 만들어 직조하기 때문에 연사撚絲 공정에 드는 비용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사와 같이 평직의 직물에 '사紗'를 붙인 역사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 한대漢代의 자료를 보면 '사'는 성근 평직으로 제직한 직물을 일컬었으나, 송대宋代부터는 2올의 인접한 경사를 꼬면서 위사를 위입한 오늘날의 익조직과 같은 직물도 '사'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여 평직의 '사'와 익조직의 '사'가 혼용되어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의 문헌자료는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2올의 인접한 경사를 익조직으로 짠 '사' 직물이 보이기 시작하며 조선시대에 이르면 대부분 '사' 직물은 이러한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기 옷감 중에는 주사 이외에 서양사·아사·관사 등 몇몇 직물 명칭에서 고대의 관습이 남아 있어 평직물이지만 '사'라는 호칭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주사는 꼬임이 강한 실을 사용하여 오그랑오그랑한 주름 효과가 있는 평견직물이며 대부분 무늬가 없다. 그러나 「발기」에 '유문즈우사', '별문즈우사', '운복문즈우사'라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생고사, 숙고사와 같이 바탕은 평직으로 하고 호리병박·수壽자·구름·박쥐 등의 특별한 무늬가 있는 주사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사의 용도는 「발기」에 의하면 남색 도련단치마, 다홍색 쟁단치마, 다홍색 홑치마 등 14점이 기록되어 있어 치마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 송화색 별문즈우사를 납작누비·오목누비·잔누비로 바느질하여 저고리 9점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雅言覺非, 譯語類解, 秋官志, 발기,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조효숙(趙孝淑)

중단
中單

정의 예복의 구성품 중 하나로 가운데에 입는 옷.

내용 중단은 예복의 구성품이다. 예복을 입을 때 겉옷의 안, 속옷의 겉에 입어서 착장 위치가 가운데[中]에 있기 때문에 '중의中衣'라 했고, 위진남북조시대에 '중단中單'으로 바뀌었다. 남자 예복인 면복冕服·통천관복通天冠服·원유관복遠遊冠服·조복朝服·제복祭服을 갖출 때 입고, 여자 예복인 적의翟衣·장삼長衫·노의露衣·원삼圓衫 등을 갖출 때도 입는다. 장삼, 노의, 원삼의 중단은 '중삼中衫'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악사樂士와 무동舞童 등이 겉옷 안에 받쳐 입기도 했다.

중단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보이고, 형태는 조선시대부터 확인된다. 왕과 신하를 불문하고 제도상 대부분 흰색으로 규정되지만, 조선 후기 유물은 제도와 달리 청색인 경우도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구장복', 즉 면복의 상의上衣 안에 중단이 끼워진 유물 두 점이 있는데, 모두 청색이다. 또 관원의 유물 중 조복에는 청색, 제복에는 흰색 중단이 주로 남아 있다. 대한제국 황후와 황태자비의 적의 중단은 제도상 옥색玉色으로 규정되는데, 현재 유물로 남아 있는 순정효황후의 중단은 흰색이고 영친왕비의 중단은 회색빛을 띠는 옥색이다. 장삼, 노의, 원삼의 중삼은 황색이다.

조선시대 중단은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로 된 포袍



영친왕비 무문주 중단 | 길이 143 품 53 화장 10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형태이고, 넓은 소매가 대부분이며(무동의 중단은 좁은 소매임), 곧은 깃[直領]이다. 조선 전기에는 고름이 없으나 후기에는 고름을 단다. 깃, 도련, 소매끝 등의 가장자리에 가선을 대는데, 남자용은 흑청색이고 여자용은 홍색이다. 면복, 통천관복, 원유관복의 중단은 깃에 불黻 무늬를 표현하는데, 대한제국 황제는 13개, 조선의 왕과 대한제국 황태자는 11개, 왕세자는 9개, 왕세손은 7개이다. 대한제국 황후는 황제와 같은 13개이고, 황태자비는 11개이다. 그러나 순정효황후와 영친왕비의 중단은 모두 11개를 표현해서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불 무늬는 한자 '기己'나 '이已'가 서로 등을 마주댄 형태이다. 면복에 쓰는 12장문 중의 마지막 무늬를 중단에 쓴 것이다. 신하의 조복과 제복 중단에는 무늬를 표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관원의 조복과 제복에 받침옷으로 입은 중단은 후기로 가면서 창의氅衣, 도포道袍, 학창의鶴氅衣, 전복戰服 등 다른 옷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중단의 위에는 예복의 아랫도리인 하상下裳을 입고 그 위에 상의를 입는다. 그 때문에 조선 후기의 유물에는 중단의 허리 부분에 고리를 달아 하상에 단 매듭단추를 걸 수 있도록 했다. 예복을 입고 의례를 행할 때 하상이 내려가지 않게 함이다.

특징 및 의의 중단은 군주와 신하가 의례를 거행할 때 입는 예복에 겉옷의 받침옷으로 입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평상시 착용하는 옷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 착장의 편의를 위해 하상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인 고리를 달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예복의 구성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실용적인 면을 고려한 지혜의 발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國朝續五禮儀補, 國朝五禮儀, 大韓禮典, 尙方定例, 樂學軌範, 禮服, 增補文獻備考, 면복-군주의 덕목을 옷으로 표현하다(최연우, 문학동네, 2015), 조선 후기 관원 조복의 구성과 형태 연구(최연우, 한복문화18-3, 한복문화학회, 2015),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장정윤,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최연우(崔然宇)

중산모
中山帽

정의 모자의 머리 윗부분이 둥글고 챙이 좁은 모자.

내용 중산모는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꼭대기가 둥글고 높은 서양 모자. 예장용은 검은색, 승마용·산책용은 회색 또는 밤색이 보통이다."라고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사전에서는 둥글고 단단한 모자로 남자가 착용한 것으로 과거에 착용하였다고 한다. 중산모는 영국에서는 보울러해트bowler hat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더비해트derby hat라고 부른다. 일본어로는 山高帽やまたかぼう·山高帽子やまたかぼうし 등으로 표기되었다. 일본에서도 중산모는 영국에서 수입해서 착용하기 시작했고, 프록코트나 모닝코트 등 양복 정장에 착용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을 통해 중산모로 들어왔다.

중산모의 형태는 모자 꼭대기가 둥글고, 좁은 챙의 바깥쪽 끝이 약간 위로 말려 올라갔다. 일본에서는 모자 윗부분의 높이에 따라 야마타카やまたか, 山高 또는 추



영업확장기념키 위하야 특별대염가제공 | 1921. 10. 21 | 동아일보

야마타카ちゅうやまたか, 中山高라고 하였다.

중산모의 소재는 단단한 뻣뻣한 펠트felt로 고급 토끼털에 셸락shellac과 수은을 섞어 펠트화하여 딱딱하게 만든 것으로 중절모와 함께 가을, 겨울 모자로 착용되었다.

중산모는 서양에서 19세기 후반에 많이 착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는 주로 남성이 쓰는 모자였다. 우리나라에는 순종이 사진仕進 시에 관리들에게 맥고모나 중산모를 쓰라고 했다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관리에게 권장 또는 강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장용 모자로 주로 착용되었는데, 중절모보다는 더 예를 갖추었고, 실크해트silk hat, opera hat, top hat보다는 예를 덜 갖출 때 착용하였다. 동양식을 버리고 서양식을 할 때 맞지도 않는 산고모山高帽를 쓰고, 간디도 영국에서 영국 신사로 보이기 위해서 영국에서 새로 양복과 산고모를 맞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서양의 신사다운 신사로 보이기 위해서 중산모가 필요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중산모 중에는 펠트가 아닌 다른 소재로 만든 것이 있는데, 오래 착용되지는 않았다. 1910년 광고에 '한성남부옥호서림'에서 제조하는 대한총모자 중에 중산모형으로 제작된 것이 있다. 이것은 마미모馬尾毛를 사용하여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없이 선명하고 가볍고 촘촘하여 춘하추 세 계절에 착용하기 좋았다. 더러워져도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새것처럼 깨끗해지니 세계에 신발명한 모자라고 하였다. 중산모와 중절모가 같은 마미모로 제작되어 가격이 4원 50전으로 동일하였다.

1923년 광고를 참고하면 중절모 1원 80전 이상, 중산모 5원 50전 이상으로 중산모가 중절모보다 더 비쌌다. 영국제와 일본제 사이의 가격 차이도 컸다. 중산모 광고를 보면 영국제는 1등품이 6원 50전, 2등품이 4원 50전이고, 일본제는 3등품으로 3원 50전, 4등품이 2원 90전으로 영국제가 일본제보다 상품上品으로 가격이 두 배 정도 비쌌다. 중산모는 대개 수입품이었으며 중절모보다 대중적 인기는 덜했고, 따라서 중절모에 비해 언급된 빈도가 낮았다.

일본 옷에 중산모를 쓴 김옥균의 사진을 참고하면, 조선 사람이 중산모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발령 이후로 특히 관리들이 먼저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중산모는 정확히 언제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시작하였는지는 모르나 1904년 신문광고이후 1920년대 초기까지 인기를 끌어 계속 광고에 나타났다. 1928년 『동아일보』에 기록이 있지만, 그 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민충식의 사진에 중산모를 쓰고 있어 여전히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중산모는 모자함 안에 들어 있는데, 윗면이 둥글고 크라운에 챙이 있다. 챙의 테두리는 위로 살짝 올라갔고 챙 가장자리에 테가 둘려져 있으며, 크라운 하단에 리본이 있는 띠가 둘려져 있다. 크라운 안에 천이 덧대지고, 하단 가장자리에 가죽 띠가 둘려져 있다.

특징 및 의의 중산모는 개항 이후 외국 문물을 접한 사람들부터 착용하기 시작했던 서양의 단단한 모자이다. 중절모보다는 좀 더 예를 갖춘 것이고, 실크해트보다는 좀 덜 격식을 차릴 때 쓴 모자였다. 순종이 신하들에게 단발 이후 맥고모나 중산모를 쓰라고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관리들에게 먼저 착용이 권장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대중적으로 착용되기도 하였으나 중절모보다 비싸고 고급으로 인식되었고, 중절모보다 대중적인 인기는 적었다. 근대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았으나 현재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착용되었다.

참고문헌 개항 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김이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패션전문자료사전(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1997),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98), 네이버 일본어사전(jpdic.naver.com),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 目事典(kotobank.jp).

필자 남경미(南瓊美)

중절모
中折帽

정의 모자 꼭대기의 가운데를 눌러쓰거나 가운데와 양옆을 함께 눌러쓰는 챙이 둥글게 달린 모자.

내용 중절모는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꼭대

기의 가운데를 눌러쓰는, 챙이 둥글게 달린 신사용의 모자"이다. 중절모는 일본어로는 '中折帽子·中折れ帽·ソフト帽soft felt hat'로 표기되었고, 이와 같은 표기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었다. 20세기 전기의 중절모와 같은 형태인데 '청년모靑年帽, 소후도모帽'라고 표기된 경우도 있다.

중절모는 서양의 모자로 페도라fedora, 홈부르크homburg 모자로 불리고, 그 형태는 다양하다. 펠트felt로 만들어진 모자로 모자의 윗부분과 챙의 형태를 변형하여 착용할 수 있는데, 모자의 윗부분이 더 부드럽다. 트릴비trilby와 비슷하다고도 하나 일반적으로 트릴비trilby보다는 챙이 넓은 모자를 중절모라고 한다.

페도라는 부드러운 펠트 모자로 모자 윗부분의 앞 중심에 골이 잡히고 그 양쪽 옆이 집혀 들어간 모양이다. 펠트가 아닌 다른 소재로 만든 모자도 이런 모양이면 모두 페도라라고 부른다. 모자 둘레에 리본이 달려 있거나 깃털이 달린 것도 있다. 홈부르크 모자는 조금 뻣뻣한 펠트[stiff felt]로 만들어 페도라와 비슷한데, 모자 윗부분의 중심에만 골이 잡혀 들어가 있고 챙의 양쪽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이다. 청년모는 중절모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모자의 꼭대기가 눌리지 않고 둥글게 올라온 경우도 있으며 가격은 중절모보다 저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중절모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6년에 학부에서 편찬한 『신정 심상소학』의 '학교'의 삽화에 묘사된 교사의 두루마기에 바지를 입고 중절모를 쓴 모습으로 보아 개항 이후 일부 개화한 지식인들 사이에서부터 착용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1년 광고에 중절모 삽화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아 1900년대 초에 이미 중절모가 대중에게 판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모자(도리우찌鳥打, 조타모鳥打帽)가 착용된 이후 중절모가 유행하였고, 이후 1930년대 후반까지 가을·겨울 모자로 계속 유행하였다. 중절모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성인 남성용 모자로 착용되었으나, 해방 이후 중절모는 유행에 따라 변화하며 착용되다가 현재는 남녀 모두 착용하고 있다.



중절모 | 높이 13 너비 32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중절모는 주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1921년 중절모의 가격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1원 80전에서 6원 50전 사이였고, 3~4원이면 보통 일본제 모자를 살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서양에서 수입한[舶來品] 중절모 가격은 9원 50전부터 14원 50전까지 있었고, 보통 수준의 서양 중절모 가격은 11원 정도로 일본제보다 서양에서 수입한 모자 가격이 훨씬 비쌌다. 1936년에도 외국제는 10원 정도가 가장 가격이 낮은 것이고, 일본제는 6원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 서양에서 수입한 모자 중에서도 미국에서 수입된 '스텟트손', '녹스'사의 모자가 가장 좋은 것이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게 되었는데, 중절모의 소재인 토끼털과 양모 등은 동유럽·영국·호주 등에서 수입되었다. 그러나 1936년부터 모자의 수입이 통제되고, 부분품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1938년 모자의 수입이 전혀 불가능하고 모자의 부분품인 '안가죽'도 수입이 금지되었다. 국산 모자는 기술상 '스테이플- 파이버-'와 혼모混毛하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자만은 '스테이플- 파이버-'와의 혼용합混用合에서 제외되었다. 모자 재료 중에서도 수입품인 '파-fur(토끼털)'를 대신하여 조선산 토끼털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1909년에 조선인의 기술로 개발한 말의 꼬리털馬尾로 제작한 '대한총모자'가운데 중절모도 있었다. 이 모자는 가벼워서 여름에도 착용하기 쉽고, 빨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널리 오래 착용되지는 않았고, 소재가 말의 꼬리털로 중산모와 중절모에 같이 사용되어 중산모와 중절모의 가격이 같았다.

중절모는 유행에 따라 색, 모자 윗부분의 높이와 형태, 모자에 두른 띠의 너비나 색, 챙의 너비나 모양 등이 변하였다. 1916년 중절모의 색은 누런빛이 도는 다색茶色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도 하이칼라 사이에는 다색

과 비슷한 '마-스파드쓔러운'색, '개자다芥子茶'색이 많이 착용되었다. 1921년에는 회색, 1933년 모자의 색은 쥐색, 다색茶色이 주를 이루었고, 모자 둘레에 두르는 '리봉'은 2인치 정도였으며 '리봉'의 색은 모자색보다 짙었다. 1935년 모자의 챙 모양이 유선형으로 앞뒤가 내려오고 옆선이 올라간 모양이 유행하였고, 모자의 챙이 점점 넓어지는 추세였다. 1936년 남자 모자 유행색은 다茶색과 쥐鼠색이 주를 이루는데 그중 다색이 70퍼센트, 쥐색이 3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모자의 챙은 넓어졌고, 모자 높이는 작년과 비슷하며 모자에 달리는 리본의 넓이는 약간 좁아졌다. 1938년에는 다색, 서鼠색, 흑黑색이 유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중절모는 단발령 이후 머리가 짧아지면서 모자를 착용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썼던 남성 모자 중 하나이다. 도리우찌가 먼저 유행하고 그 후 대중적으로 가을과 겨울용 모자로 초기에는 한복과 함께, 그 후 양복과 함께 널리 착용되었다. 중절모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며, 그 생산과 소비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남녀 구분 없이 다양하게 착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개항 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김이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Esquire's Encyclopedia of 20th Century Men's Fashions(O. E. Schoeffler·W. Gale, McGraw-Hill Inc. 1973), 네이버 일본어사전(jpdic.naver.com), 위키백과(wikipedia.org).

필자 남경미(南瓊美)

중치막
中致莫

정의 곧은 깃에 소매가 넓고 양 옆에 트임이 있는 왕실의 연거복 및 사대부의 편복포.

내용 중치막은 문헌에서 '中赤莫'·'中致莫'·'重赤莫'·'中超莫' 등으로 표기되었다. 16세기 중반부터 기록과 유물로 확인되나 17세기부터 널리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문건李文楗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1553년(명종 8) 1월에 며느리가 누비 중치막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간찰』(1580년대) 중에는 '듕치막'이라 하였다.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59호 '문경 최진 일가 묘 출토 복식'에서 16세기 아청색 누비중치막이 있으며, 해인사 성보박물관에는 국가민속문화재 제3호 광해군光海君(1575~1641)의 담청색의 운보문단雲寶紋緞으로 만든 솜 중치막이 있다. 안섶에는 "을해생주상전하만만세乙亥生朝鮮國王萬萬歲", 안고름에는 "을해생주상전하만만세乙亥生朝鮮國王萬萬歲"라고 묵서墨書되어 있다. 을해년은 1575년으로 을해년 생인 광해군의 장수를 발원한 명문이다. 중치막 형태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보이는 깃머리가 깎인 곧은 깃(목판당코깃 형태)이 달리고 진동 넓이와 유사한 소매와 양옆으로 두루마기와 같이 겨드랑이 아래부터 긴 삼각형 무가 달려 있으며 옆선은 절반 이상이 트여 있다. 17세기 전반기의 조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치막의 소매 너비와 긴 삼각무는 시류를 따라 변화를 보인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정사공신 신경유申景裕(1581~1633), 경기도박물관 소장 상의원정尙衣院正을 지낸 안동 김씨 확㼆(1572~1633)의 묘 출토복식에서는 중치막이 도포나 창의보다 많은 양이 출토되었고 누비옷이 없는 창의와 도포와 달리 솜옷과 누비옷이 주류를 이룬다. 기본 형태는 광해군 중치막과 유사하나 삼각무 밑자락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소매는 진동이 좁아지고 너비가 다양해지며 진동선 아래는 사선, 배래는 직선형이 많이 보인다. 옆트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여주 출토 동래 정씨 일가(1574~1669) 묘 출토 중치막에서 볼 수 있듯이, 17세기 후반부터 소매 너비가 수구 쪽으로 넓어져 붕어배래 형태를 보이며 삼각형 무는 점차 축소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남오성南五星(1643~1712) 묘 중치막은 진동보다 소매 너비가 넓어져 직사각형 모양의 두리소매 형태로 나타난다. 점차 삼각형 무도 없어지면서 옆선이 약간의 곡선으로 변화된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1677~1746)의 중치막도 소매 너비가 넓어졌을 뿐 형태는 동일하다. 이러한 형태는 19세기 일부 전세 유물에서 확인되나 1884년(고종 21) 광수의 도포, 직령,



중치막 | 길이 129 품 60 화장 119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중치막 입고 서 있는 두 선비 | 신윤복 | 상춘야흥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창의, 중의 등을 금지하는 사복私服제도를 개정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중치막의 색상은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상례 과정을 기록한 「초산일기楚山日記」에 염습의에 사용된 12점의 중치막이 있다. 초록·남·백·옥색의 면綿과 주紬로 만든 것인데, 주부主簿·군수郡守·감역監役·현감縣監 등 지역 관리들이 보낸 것으로 장속葬俗이 반영되었다. 이 가운데 백주白紬 누비중치막은 세척한 기록이 추가되어 있으며, 주부 홍중기洪重箕가 보낸 것이다. 한편 국장國葬 때 준비된 왕실의 중치막은 경종 국장 때 관 속에 넣은 재궁의대梓宮衣襨 총 161점 가운데 74점의 중치막 기록이 있는데, 옥색·남색·초록·송화색·자적·다홍·주황·보라색 등이었다. 영조 재궁의대에는 총 131점 중에 중치막은 36점이며 옥색·남·초록·유록·자적색 등이다. 정조는 초록과 남 공단 중치막 2점으로 많이 축소되어 있다.

유중교柳重教(1832~1893)는 『성재집省齋集』 유씨가전柳氏家典에서 가장은 집에 머물 때 항상 웃옷을 입어야 하는데, 세속에서 주의·중치막·행의 등을 말하는 것이다. 사당에 들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는 도포·직령·심의 등을 입으며 글을 읽거나 경전을 대할 때에도 웃옷을 벗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남선은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 사대부는 평일 집안에서도 창옷이나 두루마기를 입어 위엄을 갖추었고, 외출 시에는 중치막이나 도포를 덧입으며 상민常民은 창옷(소창의)이나 두루마기를 윗옷으로 입는다고 하였다. 신윤복의 풍속화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홍색과 녹색 중치막을 입은 모습도 보인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남자 복식에는 위의威儀를 갖추기 위한 다양한 편복용 포가 발달하였다. 그중에서도 중치막은 양옆이 길게 트여 있어 활동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소매 너비가 넓어져 위의를 갖출 수 있어 왕실 이하 사대부층에서 널리 착용하였다. 색상은 주로 남색과 초록색, 옥색, 백색 등으로 만들어 입었다.

참고문헌 默齋日記, 性齋集, 宋子大全,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경기도박물관, 2007), 남오성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04), 명선 중(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문화재대관(문화재청, 2006), 정사공신 신경유공 묘 출토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조선상식 풍속편(동명사, 1948),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간찰(태학사, 1998), 중치막자락에 깃든 사연(옛길박물관, 2010), 한국복식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박성실(朴聖實)

직령 直領

정의 옷깃이 곧고 양 옆에 사각형의 무가 달린 직령교임直領交衽의 남성용 포袍.

내용 직령直領은 문자 그대로 '곧은 깃'이라는 의미로서 깃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포袍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깃 양식으로서의 직

령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헌에서 동시에 확인되지만, 포제로서의 직령은 우리나라 문헌에서만 확인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명이다. 직령과 동일한 형태의 포가 중국에도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직신直身이라고 하였다. 직신은 『노걸대老乞大』에 '압록사직신鴨綠紗直身'이라고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에 '딕령'으로 언해되었다. 직령과 관련된 용어로 직령의直領衣, 직령포直領袍, 직령교임식포直領交衽式袍가 있다. 직령의는 직령이 상례복과 제례복으로 착용될 경우 사용되기도 했던 직령의 이명異名이다. 직령포와 직령교임식포는 깃이 직령교임으로 된 모든 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직령도 직령포 또는 직령교임식포의 한 종류에 속한다.

직령은 고려 말 1387년(우왕 13) 6월에 명나라 제도에 의해 호복胡服을 개혁할 때, '각 영領의 위尉와 정正, 그리고 직職이 있는 백성百姓의 관복官服'으로 규정되면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런데 이조년李兆年(1269~1343)과 이조년의 아들 이포李褒(?~1373)의 초상화에서 이미 직령을 입고 있어 1387년 이전에도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1446년(세종 28) 5월에 복색상정조건服色詳定條件을 의논하면서 "서인庶人 각사제원各司諸員, 대장隊長, 대부隊副, 외방外方의 일수양반日守兩班, 공상工商, 천예賤隷는 단령을 없애고 통通하여 철릭[帖裏], 액추의腋皺衣, 직령의直領衣를 입을 것"이라 정하였다.

직령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왕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었다. 즉, 왕·왕세자·왕세손·문무백관·하급관리의 상례복喪禮服, 왕세자·문무백관·사대부의 제례복祭禮服, 왕·왕세자·왕실 종친·사대부의 편복便服으로 착용되었고, 하급 관리와 서인·공상천예 출신으로서 관직이 있거나 역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상시 업무를 볼 때 상복常服으로 착용되었다. 이렇듯 직령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편복포로서 조선 전기에는 주로 문관이 착용하였으나 17세기 후반부터는 무관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영정조 대에 무관이 직령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에도 순조 대에 이르러서는 직령이 무관의 편복용 포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관들은 직령 대신 도포를 널리 착용하게 되었다. 직령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착용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착용 빈도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사회적 역할 또한 작아졌다. 크게 세 차례의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임란왜란 이후 도포와 심의가 편복포로 널리 착용되면서였다. 두 번째는 영·정조 대에 도포·중치막·창의·주의·장의 등이 편복 포로 보편화되면서였다. 마지막으로 1884년(고종 21), 1894년(고종 31)에 도포·직령·창의·중의 등 소매가 넓은 포(광수의廣袖衣)를 폐지하고 모두 소매가 좁은 포(착수의窄袖衣)를 입도록 하는 사복 개혁 조치가 내려지면서 직령의 역할이 작아졌다. 직령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소매가 넓은 두리소매이면서 두루마기와 같은 형태로도 만들어졌으며, 20세기 초까지 착용되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① 직령포 | 이언충 묘 출토 | 길이 138 품 74 화장 115 | 16세기



② 이조년 초상



③ 조선 후기 직령 | 1784

직령 | 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성주 이씨 대종회, ③ 문효세자보양청계병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직령은 하나의 독립된 겉옷으로 착용되기도 하고 관복 단령團領의 받침옷으로 착용되기도 하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겉옷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단령의 받침옷으로 더 많이 착용되었다. 직령이 단령의 받침옷으로 착용된 경우, 조선 전기에는 직령과 단령을 각각 따로 만들어 두 벌의 옷을 함께 입었으나, 17세기 후반부터 직령이 단령의 안감으로 변화되어 겉감은 단령이고 안감은 직령인 한 벌의 겹옷으로 만들어 입었다.

특징 및 의의 직령은 양옆에 한 폭 내지 한 폭 반으로 만든 사각형의 자락, 즉 무가 달렸다는 점에서 다른 포들과 구별되었다. 무는 직령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착용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무는 옆선에 달리는 위치에 따라 안주름형, 안팎주름형, 밭주름형, 뒤젖힘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주름형은 무 전체가 옆선 안으로 들어가 주름으로 처리된 유형이고, 안팎주름형은 무의 일부가 옆선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옆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겨드랑이 위치까지 접혀 들어간 유형이다. 밭주름형은 무 전체가 옆선 밖으로 나와 한 개의 큰 주름으로 처리된 유형이고, 뒤젖힘형은 무 위쪽을 뾰족하게 접어서 뒷길 쪽으로 넘겨 고정한 유형이다. 무를 길에 고정하는 방법도 달랐는데, 안주름형·안팎주름형 무는 온당침으로 고정하였고, 밭주름형 무는 겉에서 징그듯이 고정하거나 겨드랑이 안쪽과 무 위쪽에 각각 끈(너비 약 0.3~0.5㎝, 길이 약 8~16㎝)을 달아 끈을 서로 묶어서 고정하였으며, 뒤젖힘형 무는 뒷길로 넘긴 무의 위쪽 뾰족한 부분에 매듭단추를 달아 고정하거나 무를 뒷길 위에 놓고 윗부분을 꿰매어 고정하였다. 직령에 달린 무는 단령과 답호에서도 볼 수 있고, 시기 변화에 따른 무의 변화 양상도 동일하였다. 다만, 답호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전복戰服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단령·직령의 무와는 달리 삼각형 모양의 무가 달리게 되었다.

직령의 형태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었는데, 형태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위는 앞·뒤 옷길이, 깃, 섶, 소매, 무, 고름 등이다. 직령의 시기별 형태 변화를 보면, 조선 초기에서 16세기 전반까지는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짧은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 이중선이 있는 깎은 목판깃과 칼깃, 두 개의 섶을 이어서 겉섶으로 만든 이중섶, 소매통이 좁으면서 배래선이 직선에 가까운 착수형 소매가 주로 나타난다. 무는 안주름형과 안팎주름형이 공존하는 가운데 안팎주름형이 주류를 이룬다.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는 앞과 뒤의 길이가 동일한 전후동장형前後同長形, 이중선이 없는 칼깃이 주로 나타난다. 겉섶은 한 개의 섶으로 겉섶을 만든 단섶도 나타나지만 여전히 이중섶이 주로 나타나고, 소매는 소매통이 점점 넓어지면서 배래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변화되었다. 무는 안주름형·안팎주름형·밭주름형·뒤젖힘형 등 모든 유형이 공존하는 가운데 안팎주름형이 밭주름형으로 변화되고 밭주름형이 다시 뒤젖힘형으로 변화되었다. 17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말까지는 전후동장형, 깃 궁둥이가 완만한 둥그레깃, 단섶, 소매통이 전체 옷 길이의 반 정도까지 넓은 두리소매가 주로 나타나고, 무는 뒤젖힘형으로 정착되었다. 고름은 17세기 후반 경 좁고 짧은 끈 고름 한 쌍(너비 약 2~3.5㎝, 길이 약 25~30㎝ 정도)에서 넓고 긴 고름 한 쌍(너비 약 5.5~7㎝, 길이 약 67~95㎝ 정도)으로 변화되었다.

직령은 홑·겹·솜 등으로 만들어 사계절 두루 착용되었는데 색상과 재질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상례복으로서의 직령에는 소색素色 생포生布가 사용되었고, 제례복으로서의 직령에는 흰색 포布와 마포麻布가 사용되었다. 편복으로서의 직령에는 백색·홍색·토홍색·황단색·초록색·아청색 등의 면포綿布·면주綿紬, 모단毛緞 등 고급 직물이 사용되었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홍색 직령이, 이후에는 초록색 직령이 선호되었다. 관복으로 사용된 직령에는 백색·홍색·녹색 등의 면포·마포·저포 등 실용적인 재질이 사용되었는데, 홍색과 녹색은 행차할 때 시각적 착장미가 중요시되었던 궐내 하급 관리들에게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여산 송씨일가 묘 출토 남자 포의 조형 및 구성 특성(이주영, 옷섶사이로 비치는 조선, 대전선사박물관, 2009), 조선시대 직령 연구(이주영,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직령에 관한 연구(김미자, 복식5, 한국복식학회, 1981), 직령의 부위별 형태 특성과 상호간의 관련성 연구(이주영, 복식54-5, 한국복식학회, 2004),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주영(李珠英)

직물
織物

정의 식물성 혹은 동물성 재료에서 추출한 섬유를 잣거나 꼬아서 만든 두 가닥의 실을 도구를 사용하여 가로 세로로 엮어 만든 구조물.

역사 직물織物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은 『한서漢書』에 나타난다.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예의를 가르치고 농사짓고 누에치며 직물을 짰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미 B.C. 12세기경에도 우리 조상들은 양잠을 하며 견직물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국지三國志』, 『한서漢書』, 『한원翰苑』에는 북쪽의 부족 국가인 부여와 동예, 남쪽의 마한·진한·변한의 직물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명칭을 언급하였다. 이미 삼한三韓과 예濊 등 한반도 전역에서 종마種麻와 양잠하는 법을 알았고, 당시에 생산된 직물의 종류는 베와 같은 마포麻布는 물론이며 지금의 명주와 같은 면포綿布, 경사의 밀도를 치밀하게 짠 겸포縑布, 폭이 넓고 섬세하게 짠 광폭세포 등의 견직물 등이었다. 부여에서는 출국 시에 증繒·수繡·금錦이라는 고급 견직물과 계罽라는 모직물로 만든 의복을 즐겨 착용했다고 기록되었다. 이는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이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은 상당한 수준의 견직물과 모직물을 생산하고 사용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직물은 삼한에서 제직한 겸포와 부여의 기록에 금錦이라는 직물 명칭이다. 겸은 위사에 비하여 경사의 밀도가 두 배 정도 치밀하여 매우 섬세한 견직물이며, 금은 다양하게 염색한 실로 중조직에 의해 무늬를 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견직물이다.

우리나라의 고대사회에 직물 생산을 유추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B.C. 6000~5000년의 평안북도 온천 궁산리 신석기시대 유적지에서 가락바퀴와 마사麻絲가 끼어 있는 상태의 바늘이 출토되었고, 함경북도 웅기 서포항 유적지와 황해도 봉산 지탑리 유적지에서도 다량의 가락바퀴가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유적지인 요동반도의 곽가촌 유적에서도 다량의 가락바퀴와 짐승뼈를 갈아 만든 북도 출토되었으므로 이미 신석기시대 때부터 직물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

그 밖에도 고조선의 유적지에서는 몇 점의 직물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중국 길림성 영길현 성성초星星哨 유적에서는 평직으로 짠 모직물 잔편이 나왔고, 대동강 유역의 평양 정백동 유적에서는 평직의 겸縑이, 석암리 유적에서는 겸·면주綿紬·사紗로 보이는 직물이, 오야리 유적 등에서는 겸·사·라羅의 잔편이 발굴되었다. 특히 정백동 유적과 석암리 유적에서는 요령성과 한반도 지역의 특징을 보여 주는 세형동검과 '부조예군夫租濊君'이라는 고조선과 위만조선에서 사용하였던 관직명이 새겨진 은으로 만든 도장이 함께 출토되어 고고학 분야에서 이들 고분이 B.C. 2~3세기의 고조선 유적지로 밝혀진 바 있다. 오야리의 유적도 일제강점기의 보고서에 의해 한사군의 낙랑군 유적으로 보아 왔으나 고조선의 유적지로 보는 새로운 견해가 있다. 부여의 유적지인 길림성 모아산 유적에서는 중조직의 금錦·사·견絹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는 고조선부터 견직물과 모직물 생산이 가능하였고, 『삼국지』의 "부여 사람들이 출국 시에 증·수·금·계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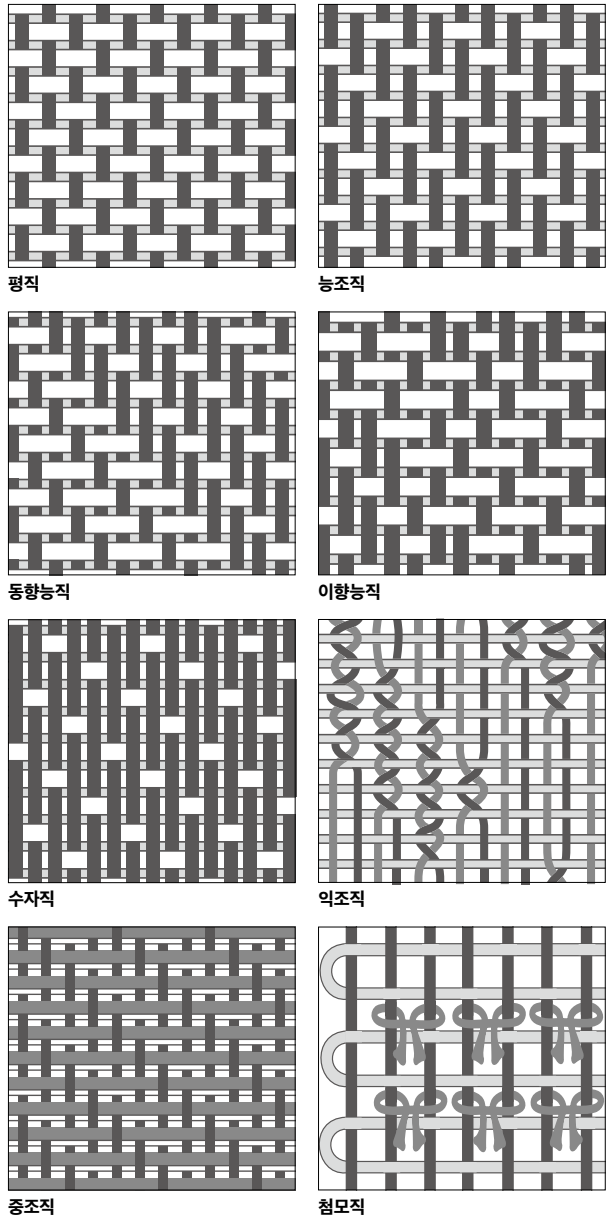
내용 직물은 두 올의 실을 직기를 활용하여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가로와 세로로 교차되면서 짜인 천이다. 세로로 걸어 놓은 실을 '경사經絲'라 하고, 가로로 보내는 실을 '위사緯絲'라 한다. 직물에서 경사와 위사가 교차한 상태를 직물의 '조직'이라고 하며 평직平織·능직綾織·수자직繻子織 등 기본이 되는 조직을 '삼원조직三原組織'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 익조직搦組織·이중직二重織·교직交織·첨모직添毛織 등으로 제직한 직물도 있다. 이러한 조직들이 여러 가지로 변화, 혼합되면서 다양한 직물을 짜내게 된다. 또한 직물은 사용한 섬유의 종류에 따라 면직물綿織物·마직물麻織物·모직물毛織物·견직물絹織物·교직물交織物 등으로 나눈다. 그 밖에 무늬의 유무에 따라 문직물紋織物·무문직물無紋織物, 염색 방법에 따라 선염직물先染織物·후염직물後染織物·날염직물捺染織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평직平織, plain weave은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상하 교대로 교차하여 교차점이 균형 있게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직물 조직으로 직물의 발생과 함께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씨실과 날실이 각각 한 올씩 번갈아 상하로 교차하고, 일완전조직은 날실 2올과 씨실 2올로 이루어진다. 교차점이 많아서 천이 튼튼하지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편이다. 현재 사용되는 평직으로 짠 견직물은 명주明紬로 단순화되었지만 고대에는 사용한 견섬유의 종류 및 품질에 따라 주紬·초綃·시紕·제綈·호縞·환紈·겸縑·사紗·곡縠·추사縐絲·면주綿紬 등으로 매우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능직綾織, twill weave은 직물 표면에 날실과 씨실의 조직점이 능선 또는 사선을 나타내는 조직이다. 능직은 사선으로 무늬를 이루어 '사문직斜紋織'이라고도 부르며 평직·수자직과 함께 직물의 삼원조직 중 하나이다. 가장 일반적인 능직의 교착점은 계단식으로 계속 이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경·위사는 3올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고대부터 견 섬유를 능직으로 짠 직물을 '능綾'이라 호칭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부터 사용한 기록이 보인다. 대체로 얇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광택이 난다. 평직에 비하여 부드럽고 탄력성이 좋다. 능선은 동일 직물의 양 측면에 형성되며, 사선 방향은 우향right handed(Z자 방향)과 좌향left handed(S자 방향)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를 '우능右綾', 후자를 '좌능左綾'이라고 한다. 능직의 가장 간단한 조직은 삼매릉三枚綾이며, 사문斜紋의 경사도에 따라 정칙능직正則綾織과 변화능직變化綾織으로 나눌 수 있다.

수자직繻子織·朱子織, satin weave은 경사와 위사의 조직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면서 조직점을 연결시키지 않고 분산시켜 경사 또는 위사만 돋보이게 한 직물이다. 경사가 많이 나타나면 '경수자직', 위사가 많이 나타나면 '위수자직'이라 한다. 수자직은 '주자직朱子織'이라고도 하며 평직·능직과 함께 직물의 삼원조직 중 하나이다. 직물 조직을 구성하는 일단위인 일완전조직一完全組織(one-repeat)에서 경사는 단 한 번씩 위사와 교차하기 때문에, 직물의 표면에 경사 또는 위사만 올라와 다른 직물에 비하여 광택이 많다. 수자직은 고대 직물 조직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조직으로, 기원이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8~9세기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기에 처음으로 유물이 나타났으며, 조선시대가 되면서 수자직은 매우 중요한 직조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수자직의 종류에는 경사를 많이 뜨게 한 경수자經繻子와 위사를 많이 뜨게 한 위수자緯繻子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수자가 많고 무늬가 있는 경우 바탕을 경수자, 무늬를 위수자로 한다. 수자직은 일완전조직이 너무 커지면 실의 뜨는 부분이 너무 길어지므로 5매 혹은 8매 수자직이 많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중기까지는 5매 수자직이, 조선 후기에는 8매 수자직이 많다. 수자직의 내구력은 평직이나 능직에 미치지 못하나 부드럽고 광택이 좋은 직물을 짤 수 있다.



익조직搦組織, gauze and leno weave은 경사가 서로 평행

하지 않고 2올 이상의 경사들이 1올 또는 수 올의 위사 사이에 서로 교차하는 직조 방법이다. 일반 직물은 경사가 평행인 데 반하여 익조직은 인접 배열되어 있는 2올의 경사가 서로 꼬이면서 짜이는 것이 특징이다. 익조직으로 직조한 익직물은 경사가 서로 꼬임으로써 틈이 있는 구조를 이루어 반투명하다. 익직물은 얇고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여름용 옷감으로 널리 쓰이며, 어망·모기장·체 등에도 쓰인다. 익직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紗, 라羅를 들 수 있다.

중조직重組織, compound weave은 경사나 위사 중에 한 종류 혹은 경사와 위사 모두를 이중으로 하여 무늬를 표출하는 방법이다. 중조직은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색실을 써서 안팎이 각각 다른 색 무늬가 나타나도록 한다. 종류로는 경사만을 이용해서 짠 '경이중직', 위사만을 이용해서 짠 '위이중직', 경사와 위사를 모두 이용한 '경위이중직'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고대의 대표적인 중조직인 금錦도 무늬를 표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경사나 위사를 사용하여 제직하였다. 각종 색사色絲를 사용하여 무늬를 짠 것은 금錦이라 불렀고, 금사金絲·은사銀絲를 사용하여 무늬를 짠 것은 직금織金이라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금錦의 생산은 사라지고 대부분 금사나 은사를 위사에 이중으로 사용하여 직조한 직금 직물을 주로 생산하였다. 현대의 한복 직물인 양단은 위사를 이중으로 해서 기본 조직과 무늬 조직을 번갈아 가면서 무늬를 짠 중조직이다.

교직交織, mixture fabric은 경·위사에 서로 다른 종류의 실을 사용하여 제직한 직물이다. 일반적으로 경사 전체를 한 가지 종류의 실로만 제직하고 위사는 경사와 다른 종류의 실로 제직한다. 이렇게 제직된 교직물은 한 가닥의 실에 서로 다른 섬유가 섞여 있는 혼방직물blended fabric과는 구별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교직의 종류를 원사原絲의 종류에 따라 견사와 면사를 교직한 '사면교직絲綿交織'과 견사와 마사를 교직한 '사마교직絲麻交織', 견사와 저사를 교직한 '사저교직絲紵交織' 등으로 구분하였다. 교직에 관한 기록은 1419년(세종 1)에 황제에게 사마교직포·사저교직포 등을 진상하였고, 1429년(세종 11)에 19승 사마교직포 등을 생산했으며, 1557년(명종 12)에 사면교직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미 의복으로 착용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498년(연산군 4)에 유생들에게 사치를 금하는 조항 중에 교직을 금한 기록이 있으며, 1508년(중종 3)에 사치스러운 풍속을 단속하기 위해 교직단령의 착용을 금하였지만 더러 입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조선 말기에 나타난 견면교직에 관한 기록으로 「의복발기」에는 '반주班紬·생사반주·원주·저주'가 있으며, 1915년 『조선휘보朝鮮彙報』에는 '반주班紬, 半紬·아량주·원주元紬, 原紬·양저주洋紵紬·문양저주紋洋紵紬·목저주木紵紬'가 있다. 교직은 최원립 등 출토복식을 비롯하여 15~18세기 유물에도 고루 나타난다.

첨모직添毛織, pile weave은 짧은 파일섬유가 표면에 덮인 특수 조직으로 '파일직'이라고도 하며, 직물 표면의 실을 잘라서 마치 우모羽毛로 덮은 듯 보이는 것과 직물 표면의 실을 자르지 않고 고리의 모양을 나타낸 타월towels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첨모직은 파일을 위사로 형성할 때와 경사로 형성할 때가 있는데, 전자를 '위파일직', 후자를 '경파일직'이라고 한다. 위파일직은 위이중직의 응용으로, 한 종류의 경·위사로 바탕 조직을 이루고 여기에 다시 특별한 위사, 즉 파일 위사로 파일을 이룬 것이다. 바탕 위사는 견고한 바탕 조직을 얻기 위하여 경사와 치밀하게 직조하고, 파일 위사는 직물 표면에 느슨하게 띄워 직조 후 길게 뜬 위사를 자르지 않은 채 고리를 만들어 파일을 형성한다. 경파일직은 경이중직의 응용이며, 한 가지의 경·위사로 바탕 조직을 만들고 다시 다른 경사를 배열하여 이것으로 직물 표면에 파일 혹은 고리를 이루도록 한 직물이다. 경파일직은 주로 위사에 철사鐵絲를 넣어 파일을 만드는데, 이러한 방법을 '철사법'이라고 한다. 철사법은 홈이 파인 철사를 위사에 넣고 제직 후 홈에 따라 절단하거나, 끝이 날카로운 철사를 넣고 제직한 후 철사를 뽑으면 파일 경사가 절단되어 컷파일cut pile을 형성하게 된다. 첨모직 직물은 요즈음의 벨벳과 같은 모습이며 중국에서 청대淸代에 생산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용 기록이 없으며 조선 말기의 요대腰帶등 소수의 유물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전통 직물은 견직물·면직물·마직물이며, 드물기는 하지만 부족국가 시대부터 모직물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 견직물의 명칭은 사紗·라羅·능綾·단緞·주紬·초綃·견絹·금錦·

저사紵紗 등으로 기록되었다. 면직물 명칭은 면포·무명·백첩포白氎布이며, 모직물은 전氈·계罽·담毯, 마직물은 저포苧布·마포麻布·갈葛 등으로 기록되었다.

견직물은 상류층이 애용하던 옷감으로 직조방법은 평직·능직·수자직·익조직·중조직으로 다양하다. 평직으로 제작된 견직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한 견사의 상태와 밀도에 따라 견絹·초綃·주紬·추사縐紗 등으로 다양하다.

견은 가장 상등품의 장견사로 제직하여 씨줄과 날줄의 굵기가 균질하므로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직물이다. '견자' 또는 '깁'으로 불렸다. 잿물에 정련하여 광택이 많이 나는 '수광견', 다듬이질하여 손질한 '전견' 등이 기록에 나타난다.

초 역시 품질이 좋은 장견사로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정련하지 않은 생사로 제직하므로 '생초生綃'라고도 한다. 얇고 가벼우며 빳빳한 특성을 지닌다. 생초와 실의 굵기와 밀도는 같으나 미리 정련하여 부드럽게 만든 숙사熟絲로 제직한 '숙초熟綃'도 있다. 초는 씨줄과 날줄의 밀도가 주보다 높지만 워낙 실이 가늘기 때문에 얇고 반투명해 보인다.

주는 중등품의 견사로 제직한 평견직물이다. 토주·면주·정주·수주 등이 있다. 토주와 면주는 꼬임이 있는 견방사로 제직하여 광택이 없고 면직물과 같은 물성을 보인다. 특히 토주는 질기고 따뜻하며 실이 많이 들어 가격이 보통 주의 두 배나 된다고 하였다. 견사와 면사를 교직한 사면교직은 조선 후기에는 '아랑주' 혹은 '반주'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계속 생산되었다. 그 밖에도 문헌에 기록된 주는 노주주·화사주·방사주·화방주·수화주·경광주·장원주·삼팔주·왜주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추사 역시 평직으로 제직한 견직물로 Z방향과 S방향의 강한 꼬임을 준 날줄을 교대로 넣어 마치 요즘의 지지미 원단과 같이 표면이 까슬까슬한 물성을 보이며 중량감이 있는 직물이다. 17세기 후반부터 화문단 사용을 금지하자 무늬가 없는 추사가 한때 매우 유행하였다. 그 외에 바탕은 평직이지만 능직이나 수자직으로 무늬를 제작한 화문주花紋紬가 있다.

능은 주에 비해 치밀하고 탄력이 좋은 견직물로 능직으로 직조하여 직물 표면에 사선이 나타난다. 문헌에는 무늬가 없는 소릉素綾 혹은 무문릉無紋綾과 무늬가 있는 화문릉花紋綾, 특별히 작은 무늬가 있는 소문릉小紋綾 등이 기록되어 있다.

단은 수자직으로 직조하여 흔히 '양단'이나 '공단'으로 부르는 옷감이다. 조선시대의 단은 주로 바탕은 경수자직, 무늬는 위수자직으로 직조하였으며, 사선 방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음영으로 무늬를 표현한다. 조선시대의 단 중에서 특별히 선호되었던 옷감은 구름무늬가 시문된 '운문단', 연꽃무늬가 시문된 '연화문단', 사계절꽃이 시문된 직물은 '사양화문단'이 있다. 또한 화문단 바탕에 특정한 무늬 부분에만 금사나 은사를 이중으로 화려하게 넣어 제직한 직물은 '금선단金線緞'이라 불렀는데 특별히 상류층에서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단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말기의 유물이다. 1346년에 장곡사 철조약사불을 조성할 때 넣은 복장 유물로서 5매 수자직의 백색의 무문단 조각이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는 아직 단은 보편적인 옷감은 아니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상류층에서 선호하는 고급 옷감으로 확산되었다. 조선 전기인 17세기까지의 단은 대부분 5매 수자직으로 되었으나, 18세기 무렵부터 8매 수자직이 처음으로 나타나며, 19세기가 되면 대부분 단류가 8매 수자직으로 제직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제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좀 더 가늘고 균질한 견사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종 문헌에 5매 수자직 단은 '오사단五絲緞' 8매 수자직 단은 '팔사단八絲緞'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사와 라는 익조직으로 제직된 직물로 인접한 2~4올의 경사끼리 꼬임을 주면서 위사를 위입하여 직물의 투공 효과가 있다. 사는 주로 2올의 경사를 교차하였으며 숙고사·생고사·갑사·화문사·도류사·운문사·화문사·순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한편 3~4올의 경사를 교차시켜 만든 라는 고려시대에 매우 유행하였으며 조선 중기까지도 고려시대만큼은 아니라도 드물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 말기가 되면 제직법을 단순화시킨 '항라'가 유행하였다.

면직물은 '목면' 혹은 '무명' 등으로 호칭되었는데, 수종樹種과 생산 시기에 따라 실의 품질이 다르고 치밀한 정도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랐다. 일반적인 옷감용 무명은 8승이나 9승이며, 가장 고운 것은 34승 목면이라는 기록도 있다. 흔히 알고 있는 '광목'은 20수 이

내의 굵은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짠 후 정련과 표백을 하지 않은 투박한 면직물로, 폭이 30㎝ 미만의 재래식 무명에 비하여 폭을 넓게 짜서 광목이라고 불렀다. 30수 정도의 가는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한 후 하얗게 표백·정련한 면직물을 '옥양목'이라고 불렀으며 옥같이 하얗다는 의미이다. 조선 말기에 면직물이 발달한 영국에서 수입한 면직물을 '옥양목', '백양목' 혹은 '서양포'라고도 기록하였다. 「궁중발기」에도 의대용으로 옥양목, 서양포가 기록되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19세기에 직물 명산지가 형성되었는데, 세면포의 산지는 경기도 고양, 충청남도 논산과 강경이 유명하다.

마직물에는 베와 모시가 있는데 '저포', '저마', '모시포'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8승, 9승이 일반적이나 고운 것은 15승 이상으로 제직하며, 특히 함경도 육진지방에서 생산되는 베는 품질이 매우 좋아 특별히 '동포', '육진세포'라 하였으며, 절에서 공양할 때 쓰는 바리속에 한 필이 들어갈 만큼 가늘고 섬세하여 '바리내포'라고도 하였다. 모시의 산지는 한산·서천·비인·남포·청양, 베의 산지는 함경도 회령·경원·온성 등이 유명하였다.

모직물은 모섬유를 축융시켜 만든 펠트인 전氈과 경사와 위사로 직조한 계罽와 담毯이 생산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상의원尙衣院(조선 왕실의 의복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각종 견직물을 생산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상의원 소속의 공장工匠은 모두 597명이었으며, 그중 직물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인만 264명으로 다른 수공업 분야에 비하여 직조 수공업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합사장合絲匠 10명과 연사장練絲匠 75명은 실을 정련하고 합사하는 등 실을 만드는 작업을 하며, 홍염장紅染匠 10명, 청염장靑染匠 10명은 염색 작업을 하고, 능라장綾羅匠 105명과 방직장紡織匠 20명은 사·라·능·단 같은 고급 직물들을 생산하였다. 이때 10명의 성장箴匠이 직기의 바디를 만들고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재금장裁金匠 4명, 금박장金箔匠 4명, 사금장絲金匠 4명 등은 금선단金線緞을 제직하는 데 필요한 금사와 금박을 만들었다. 도침장擣砧匠 14명은 제직된 직물에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하는 후처리 과정에 종사하였다. 이렇듯 궁중 안의 직물 생산 과정 내에서는 분업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영 직물 생산 기관은 상의원 이외에도 직물 생산과 관련된 호조戶曹 소속의 내자시內資寺·내첨시內贍寺·제용감濟用監 등에도 방직장·성장·홍염장·청염장·도침장 등이 있어 직물 생산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女俗考, 朝鮮王朝實錄,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6),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직물조직학(우범식, 문운당, 1971), 패션전문자료사전(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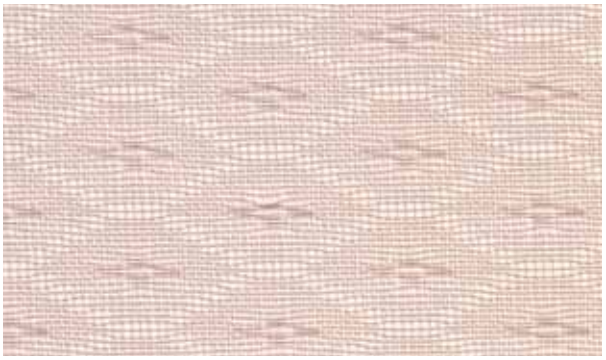
필자 조효숙(趙孝淑)

진주사
眞珠紗

정의 평직·익조직·능직으로 능화무늬를 짠 견직물.

내용 진주사眞珠紗는 오늘날 널리 알려진 전통 직물 중 하나이며, 마름모꼴의 작은 꽃무늬를 연속적으로 디자인하여 마치 진주가 연결된 것 같은 외관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조선 말기의 「의대발기」에 옥색의 두루마기용 진주관사 한 건만이 기록되어 있고, 1915년에 발간된 『조선휘보朝鮮彙報』와 1925년에 발간된 『조선朝鮮』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휘보』에는 진주사와 함께 진주단에 대한 기록도 있다. 『조선』의 기록에 따르면 진주사는 원래 중국에서부터 공급을 받았던 것인데, 1922년 무렵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 조금씩 수입되기 시작하여 1924년경부터는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당시 일본산 진주사는 한 필의 길이가 13.72m, 폭이 68.6㎝, 중량이 656.3g이었다. 그 후 1924년경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진주사는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직물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의대발기」에도 한 건만이 기록되어 있고, 1915년 이후부터 자료가 보이므로 국사菊紗와 같이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진주사는 마름모꼴이 연속된 능화菱花무늬가 특징이다. 진주사의 바탕은 평직平織을 기본으로 하고, 마름



진주사 | 국립민속박물관

모 외곽선은 두 개의 인접한 경사를 교차시킨 익조직搦組織이며, 마름모 속의 작은 점무늬는 평직과 능직綾織, 위부직緯浮織을 혼합하여 제직하였다. 진주사는 경사와 위사 모두 생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사에 생사, 위사에 연사를 사용한다.

1900년 이후 유물을 종합하면 진주사의 용도는 주로 단속곳·너른바지·단니의·웃무족 등의 속옷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소고의·주의 등 겉옷에도 사용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왕실 유물 중에는 영친왕 일가의 저고리·마고자·속치마 등에서 진주사가 확인된다.

특징 및 의의 진주사는 옷을 지어 놓았을 때, 전체에 배열된 진주무늬로 인해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고 점잖은 기품이 묻어나는 직물이다. 능화무늬로만 이루어진 진주사와 능화무늬를 바탕으로 하고 작은 꽃이나 문자무늬를 드문드문 넣어 제직한 진주사도 있다. 오늘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진주사는 실크도 있지만 화학섬유로 된 진주사도 많이 있다.

참고문헌 朝鮮, 朝鮮彙報, 의대발기,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조효숙(趙孝淑)

짚신

정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볏짚[稿]이나 삼[麻], 부들[香蒲] 등의 초고草稿 재료를 이용하여 엮어 만든 신.

역사 문헌에서는 짚신을 망리芒履·비구扉屨·초리草履·초혜草鞋·초교草蹻·초교草屩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짚신을 '짓석(경기)', '짚세기·짚석이(경기, 경북, 전라, 충청)', '초신(강원, 제주)', '짚시기(강원)', '미-신, 집씨개(경북)', '메신(경남)', '찍신·찍세기(제주)' 등으로도 불린다.

짚신은 고무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신었던 신이다. 짚신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 한조韓條에 "남자들은 상투를 매고 도포를 입으며, 짚신을 신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통전通典』 변방문邊防門 동이편東夷篇 마한조馬韓條에 '초리草履'가 등장하고, 『진서晋書』 사이전四夷傳 마한조에 '초교草轎'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짚신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될 뿐 짚신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삼국시대 짚신은 아산 갈매리, 이성산성, 경주 황남동, 대구 동천동, 부여 궁남지와 관북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그 중 부여 궁남지와 관북리 유적에서는 60점 이상의 짚신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600년을 전후한 시기의 백제 짚신으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짚신의 재료는 볏짚이 아닌 저습지에서 자라는 '부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 짚신의 재료는 짚이나 부들을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짚신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 신윤복의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김홍도와 신윤복 풍속화를 통해서 조선시대 짚신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날 짚신과



① 짚신



② 짚신장수

짚신 | ① 길이 27 너비 8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짚신 | 김득신 | 성하직구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그 형태가 유사하다. 짚신은 1920년대 초반 고무신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내용 짚신의 종류는 신을 삼는 재료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다. 재료에 따른 짚신의 종류는 짚신, 삼신, 왕골신, 청올치신, 부들신 등이 있다. 여기서 '짚신'은 볏짚으로 엮은 신이고, '삼신'은 삼으로 엮은 신을 말하며, '왕골신'은 공예작물인 왕골로 엮은 신이다. 한편 '청올치신'은 칡 줄기의 속껍질을 꼬아 엮어 만들고, '부들신'은 저습지에서 서식하는 부들로 만든 신이다. 여기서 왕골이나 삼 등 다른 재료로 만든 짚신은 짚으로 만든 것보다 튼튼하고 질긴 것이 특징이다.

용도에 따른 짚신의 종류는 고운짚신, 막치, 엄짚신, 둥구니신 등이 있다. 먼저 '고운짚신'은 여성용 짚신으로 부드러운 짚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고, '막치'는 마구잡이로 만들었다 하여 붙은 명칭으로 올이 굵고 투박한 것이 특징인데, 주로 머슴들이 신던 신이었다. 또한 '엄짚신'은 상주가 신는 신으로 일부러 허술하고 투박하게 엮은 신을 말하고, '둥구니신'은 방한용 짚신으로 눈오는 날 미끄럼을 방지하고 방한防寒을 위해 만든 장화 모양의 짚신이다. 짚신의 종류는 짚신의 재료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큰 범주에서 짚신으로 통용된다.

짚신은 일상생활에서 추위나 더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였다. 예를 들면, 베틀 아래 짚신 한 짝을 달아 눈썹노리를 손쉽게 열리게 했고, 디딜방아의 지렛목에 낡은 짚신을 끼워 소음을 막기도 했다. 또한 헌 짚신의 바닥만 떼어 내고 손잡이를 달아 파리채로 쓰거나, 논밭에 거름으로 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짚신을 액막이용으로도 사용하였다. 짚신에는 병마를 물리칠 강한 주술력呪術力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발에 밟히고, 바닥에 끌리면서 강한 저항력이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물리치기 위해서 마을 입구나 집 대문에 금줄을 치고, 나무에 짚신을 걸어서 병마를 쫓기도 하였다.

한편 짚신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하였다.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사회에서는 옷이나 관, 신을 통해서 신분을 알 수 있었는데, 짚신의 경우 신을 삼는 재료나 날 수에 따라서 신분을 알 수 있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대개 4날 짚신을 신었고, 상주나 수도승은 2날 짚신을 신었다. 여기서 상주는 죄인이라 하여 편한 옷이나 좋은 신을 신을 수 없었고, 수도승은 고행을 위해 2날 짚신을 신었다고 한다. 양반들은 삼이나 왕골로 섬세하게 삼은 짚신을 주로 신었는데, 이를 '미투리'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종9품이나 양반, 아전은 주로 6날 미투리를 신었고, 정3품 이상의 고관은 8날 미투리를 신었다.

짚신은 특별한 기술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자급자족 했지만 양반들은 하인에게 짚신을 삼게 하거나, 구입을 하여 신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짚신을 삼아 장市에다 팔기도 했는데, 이러한 짚신 장수들은 1900년대 초반까지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이렇듯 짚신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용도로 쓰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를 잇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짚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신었던 신으로 발을 보호하는 용도 이외에도 의례용이나 생활용품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이다. 특히 짚신은 짚이나 왕골, 부들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다는 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짚신은 오늘날의 신들과 달리 쉽게 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먼 길을 떠날 때에는 등짐에 여러 켤레를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도 했다. 한편 짚신은 재료나 제작기술에

따라 신을 신는 사람의 신분이나 처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짚신은 1920년대 고무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 삶에서 애용되던 전통 신으로 자연친화적이고 미적 예술성이 뛰어난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晋書, 通典, 後漢書, 미투리와 짚신(김민기, 평화문제연구소, 1984), 짚신의 민속학적 고찰1·2(배도식, 한국민속학23·24, 한국민속학회, 1990~1991), 우리나라 고대 짚신의 재료(김경희·김요정·박원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06.7), 초·마혜에 관한 연구(김지희, 대한가정학회지28-3, 대한가정학회,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필자 이관호(李官浩)

쪽

정의 잎에서 청색 색소인 인디고indigo를 얻을 수 있는 요람蓼藍 등의 식물이자 청색 계열 색상인 남색을 내는 염료.

개관 쪽의 품종은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있으며, 그 중 한반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은 대부분 일년생 초본 식물인 마디풀과polygonaceae에 속해 Persicaria tinctoria이라는 학명이 붙었다. 남藍, 요람, 마람馬藍, 소람小藍, 종람種藍이라고도 하며, 중앙아시아 및 중국이 원산지인 일년생 염료 식물이다.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뿌리 근처에는 털이 나 있으며, 키는 60~70㎝ 가량으로 10~15㎝의 긴 타원형의 잎이 난다. 7~8월에 꽃대가 올라올 때 잎을 채집해 인디고 색소를 분리, 추출하여 염료로 이용한다. 인디고를 소량이라도 포함하고 있는 식물을 함람 식물이라고 하며, 이들은 생육 온도에 민감해 온도에 따라 인디고 함량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함람 식물이 모두 염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는 쪽은 통상 100㎏ 중에 300~400g의 인디고 색소가 포함되어 있다. 인디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쪽은 한반도에서 오래전부터 청색을 내는 염료로 사용되었다.

쪽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염료 중 하나로, 4천 년 전 인도에서 쪽 염료 제조 방법이 기록된 문서가 전해지고 있다. 이는 무역로를 통해 고대 이집트 및 그리스까지 전파되었으며 이들이 입었던 푸른색 옷은 쪽물 염색인 것으로 추정된다. 3500년 전에 제작된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쪽과 홍화 염색포가 발견된 바 있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고분벽화나 『삼국사기三國史記』등의 고문헌에서 청색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쪽으로 염색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도염서都染署(조선 세조대에 이르러 제용감濟用監으로 통합)를 설치하여 궁중에서 사용하는 쪽 등의 염료 제조와 염색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1880년, 독일의 화학자 바이어J. F. A. von Baeyer (1835~1917)는 인디고를 합성하는 천연 물질의 인공 제법에 성공함으로써 유기 화학 분야의 새 분야를 열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화학 염료의 발달로 세계적인 전통 쪽 염색의 쇠퇴를 초래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재고되고 웰빙well-being 열풍이 불면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

내용 전통 쪽 염색은 세계적으로 매우 유사한 기술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외 문헌 혹은 장인에 의해 전수된 전통 쪽 염색법으로는 쪽잎을 갈아서 얻은 즙을 바로 염색에 사용하는 생즙법, 쪽의 색소 성분을 추출하고 산화시켜 얻은 인디고 색소 성분을 바로 미생물인 박테리아에 의한 환원을 거쳐 염색하는 반물법(잿물염색법), 인디고 색소 성분을 석회에 의해 침전시켜 니람泥藍을 얻고 이를 필요한 시점에 환원(발효)시키는 니람법(침전법), 쪽을 퇴비 형태로 만들어 염색하는 일본의 스쿠모すくも, 유럽의 워드볼woad ball과 유사한 숙성법(숙남법) 등이 있다.


쪽


인디고를 석회에 침전시킨 니람

쪽 | 전남 나주 | 정관채


니람


니람과 잿물 혼합


염색한 직물을 건조

쪽 염색 | 전남 나주 | 2017 | 최은수

쪽의 색소 성분은 천연 염료 중 환원염법으로 염색하는 대표적인 염료이다. 천연 인디고는 배당체 구조인 인디칸indican을 물로 추출하여 인독실indoxyl과 포도당glucose으로 분해하고 다시 산화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인디고틴indigotin 구조가 주성분이다. 이 물질은 물에 녹지 않는데 알칼리 조건에서 환원하면 류코 화합물leuco compound로 변해 수용성이 되어 각종 천연섬유에 친화력을 가지며, 수용성 구조가 산화되어 불용성 구조로 바뀌면서 색을 나타내게 된다.

최근 염색 분야는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통 염법의 규명 및 공정합리화에 관련한 다양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 인디고 염색 방법에서 환원과 관련하여 잿물lye을 바탕으로 탄수화물 성분을 첨가하거나 미생물 균주를 활용한 방식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효조건은 까다롭고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세밀한 기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자동화하기 힘든 환원 과정은 전통 인디고 염색을 현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사례 한반도에서 쪽을 재배하고 염료로 만들어 천이나 종이에 염색을 해 온 문화는 매우 오래되었다. 특히 나주는 6·25전쟁 이후에도 비교적 최근까지 쪽 염색이 이루어졌으며, 전통적으로 나주목羅州牧 관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된 염색 기술이 전승되고 있었다. 또한 쪽 재배 및 염색에 적당한 지리·기후 등 자연지리 요건과 원활한 육상·해상 교통을 바탕으로 수요지까지 손쉽게 운반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인문·지리적 요건으로 쪽 염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비단과 샛골나이와 같은 무명을 만드는 직조 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나주에서 전통 쪽 염색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화학 염료의 유입과 급속한 도시화로 쪽 재배 및 천연 염색 산업이 쇠퇴한 상황에서도 쪽 재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1970년대 중후반부터 전남 나주 다시면과 문평면에서 염색장 기능 보유자(정관채, 윤병운)를 중심으로 전통 쪽 염색이 이어졌고, 2017년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보유자 정관채, 윤병운의 아들이자 염색장 전수교육조교 윤대중이 전남 나주에서 전통 쪽 염색을 이어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쪽빛은 다른 색과는 다르게 자연에서 바로 재현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녹색의 풀에서 염료를 추출하여 산화와 환원의 화학적 변화와 미생물의 발효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쪽빛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고도로 숙련된 경험과 매우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한다.

전통적인 쪽 염색 과정은 크게 쪽의 재배와 채취, 항아리에 쪽풀과 물을 섞어 색소 추출하기, 석회 만들기, 색소가 추출된 쪽물에 석회를 혼합하기, 석회와 섞은 쪽물에 가라앉은 앙금(니람) 추리기, 잿물 만들기, 니람과 잿물을 혼합하기, 니람과 잿물을 섞은 염액 발효(환원)시키기, 천의 정련, 발효된 염액에 쪽물 염색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예부터 쪽 염료는 고가에 거래되었던 귀한 염색 재료였다.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쪽 염색물은 염색물의 빛깔이 외적 조건에 견디는 정도(견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쪽 염색물이 오늘날까지 색을 잃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다. 또한 방충 효과가 뛰어나 경전 등 주요 책을 쪽을 활

용하여 만든 감지紺紙로 제작하거나, 의료용 붕대를 쪽으로 염색하여 이용하였다.

참고문헌 아시아의 손과 색(박남희·이현경·강지용, 미술문화, 2016), 염색장(김지희, 화산문화, 2002), 포도당 환원을 이용한 천연 인디고 염색(신윤숙·조아랑·류동일, 한국염색가공학회지21-3, 한국염색가공학회, 2009), 한국의 천연염료(김재필·이정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한국 전통 남염색의 현대적 이용 방법(정관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Handbook of Natural Colorant(Thomas Bechtold·Rita Mussak, Chichester:Wiley, 2009).

필자 정관채(鄭官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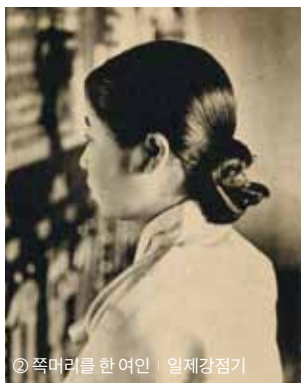
쪽머리

정의 앞가르마를 타고 머리카락을 뒤에서 모아 묶고 뒤통수에 둥글게 틀어 쪽을 만든 결혼한 여자의 머리모양.

역사 쪽머리는 고구려 쌍영총벽화에 그려진 부인과 각저총 주실 북벽의 여인 등에서 볼 수 있다. 『동경잡기東京雜記』에 "신라 때에는 국도의 북방이 부실하므로 여자의 머리를 뇌후에 묶게 하고 이것을 북계北髻라고 하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황성동 석실고분에서 출토된 여자토용은 앞가르마를 똑바로 타고 뒤에서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쪽을 진 머리모양이다. 쪽머리는 삼국시대부터 기혼녀의 머리모양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형태의 변화는 있어도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머리모양이다.

1794년(정조 18) 10월에 좌의정 김이소金履素는 수식首飾의 화려함과 사치함이 예전 같지 않지만 후계後髻에서는 점점 높고 커지므로 엄히 법령을 내려서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얹은머리 못지않게 쪽머리가 과대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정조는 "규중부녀의 쪽머리의 크고 작음을 어찌 사람을 시켜 알 수 있으며 금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모든 신하들이 각자 집에서 칙령勅令의 정제定制를 어김없이 다스리면 사서인士庶人은 반드시 실효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여인의 머리치장은 법령으로도 제지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여인들이 서로 다투어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다른 하나는 규중부녀를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쪽머리는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궁중과 사족부녀의 의식용 머리모양을 제외하고는 왕비까지도 평상시에는 쪽머리에 댕기와 비녀만으로 장식하였으며, 소례복차림의 의식 등에는 쪽머리에 화관만으로 치장하였다.


① 채용신 | 1914


② 쪽머리를 한 여인 | 일제강점기

쪽머리 | ① 최연홍 초상(운낭자상) | 국립중앙박물관, ②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15세가 되면 계례髻禮를 치르고 쪽머리를 하였으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 전날 계례를 하고 쪽을 지었다. 계례하고 쪽머리를 하던 것이 차차 혼인과 더불어 쪽머리를 하게 됨에 따라 계례는 없어지고 궁중의 나인들 사이에서만 그 습속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쪽머리는 점차 기혼녀의 상징이 되었다. 쪽머리는 가체금지령 실시 이후 일반적인 부녀자들이 본인의 머리카락만 얹은머리와 함께 대표적인 머리모양이었다.

조짐머리는 흔히 외명부가 궁중을 출입할 때 소라딱지 모양의 큰 가체를 쪽에 얹어 쪽을 크게 한 머리모양이다. 이 머리모양은 정조 때 발제개혁 이후 얹은머리 대신 쪽머리를 하게 함으로써 쪽을 돋보이게 하려고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대궐에서 나인들이 주로 하는 가체의 일종으로 지밀상궁들은 아침에는 어여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저녁에는 자러 가므로 조짐머리를 빗고 올라간다고 한다. 딱딱한 조짐머리 때문에 편히 잠들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종친이나 반가의 부녀자들이 입궐할 때, 첩지와 더불어 같이 맸다. 조짐머리의 장식은 10월부터 정월까지 도금잠을 꽂고 2월에는 옥목단잠을 꽂고 5월에는 민옥잠에 떨잠을 꽂았다고 한다.

낭자쌍계娘子雙髻는 정조의 가체신금절목 가운데 언

급한 바와 같이 사양계絲陽髻와 함께 미혼녀가 사용하던 머리모양이다. 김홍도金弘道의 <평양감사환영도>의 맨 아래 어린 기생이 낭자쌍계의 형태로 풍성한 머리카락을 땋아 뒤에서 좌우로 갈라 두 개의 쪽을 지어 비녀를 꽂고 있다

대궐이나 반가에서는 쪽머리도 크게 하고 비녀와 뒤꽂이로 호사를 하였으나, 천인들은 본인의 머리카락만으로 쪽을 튼 풀머리에 백동비녀를 꽂는 것이 고작이었다. 쪽을 지는 방법은 앞머리 중앙에 가르마를 타고 양쪽으로 곱게 빗어 뒤를 묶고 길게 한 줄로 땋아서 쪽댕기로 끝을 묶는다. 쪽댕기는 남편이 있는 젊은 여자는 붉은 자색, 노인은 검은 자색을 사용하며, 과부는 검정색, 상주는 흰색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별하였다. 쪽머리의 장식은 평상시에는 비녀와 뒤꽂이를 하였고, 의식 때에는 화관이나 족두리를 사용하였다. 쪽은 뒤통수에 달려있던 것이 점차 내려와 조선시대 말엽에는 저고리 뒷고대 바로 위로 내려왔으며, 개화기에는 다시 머리 뒤쪽으로 올라가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쪽의 위치를 목선을 중심으로 하여 목 위로 또는 아래로 내리고 올리는 것은 본인의 개성에 맞추거나 그 시대의 유행에 따랐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 쪽머리는 결혼한 여자의 머리모양으로 체계髢髻의 사치에서 오는 폐단을 없애고자 시도하였다. 영조英祖의 의도와는 달리 쪽머리에 족두리 및 화관이 병용되고 그것을 보석 등으로 장식하여 가체와 맞먹는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 이에 또 다시 체계를 실행하도록 하되 어디까지나 가체는 금하고 본인의 머리카락으로만 얹은머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쪽머리가 확립되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순조 중엽, 즉 1800년 이후라고 한다. 쪽머리가 순조 중엽 이후 보편화된 이유는 실학사상이 국민들의 사고를 더욱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며, 한복을 입을 때 쪽머리로 빗으면 잘 어울리고 흰 동정선이 드러나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주므로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김용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조선조 중후기 부녀두발의 양식고(배정용, 아시아여성연구1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1982), 조선후기 비빈들의 사절복식 및 의차(김용숙, 아시아여성연구5,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1966),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용문(金容文)

창의
氅衣

정의 곧은 깃에 넓은 소매, 양옆에 삼각형 긴 무가 달리고 뒷길 중심부터 트임이 있는 왕실 및 사대부의 편복포便服袍.

내용 창의氅衣는 대창의大昌衣, 장의障衣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창의라 불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창의敞衣는 영조 대, 장의障衣는 현종과 숙종, 경종 대에 주로 보인다. 경종(1720~1724) 국장 때 장의는 속칭 창의氅衣라 하였다. 그 밖에 일반 문집에서는 모두 확인된다. 창의는 왕실의 연거복이자 사대부의 외출복이며, 관복의 받침옷으로 착용되었다.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廣袖周衣]와 유사하나 뒤트임이 있고, 도포의 뒷자락[後幅]을 제거한 형태와도 유사하다. 19세기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대창의大昌衣라 하고 옷을 만드는 데 도포는 33자, 대창의는 28자의 옷감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직령포에 검은 선이 둘러진 학창의鶴氅衣와는 조형적인 특징을 달리한다.

창의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부터 입기 시작하였으며, 1932년 이구李玖(1931~2005) 왕자 돌 날 「의대목록」에 '다홍대화단 창의'까지 유물과 문헌으로 확인된다. 창의 기원과 관련하여 조재삼趙在三(1808~1866)은 『송남잡지松南雜識』에서 창의는 임진왜란 이후 도포의 뒷자락을 생략하여 만든 것으로 식자識者들은 뒤트임으로 인해 북쪽 기운이 약해져 병자호란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또한 정동유鄭東愈(1744~1808)는 『주영편晝永編』에서는 창의는 군복을 취하여 뒤트임을 주었기 때문에 말 타기에 편리하도록 한 옷이며 옆이 트인 단령을 입을 때에는 옆이 막힌 창의를 입어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창의는 독립기념관 소장으로 전세 유물인 부총관 정문부鄭文孚

(1565~1624)의 담녹색 무문능無紋綾 창의와 전라병마절도사를 지낸 이응해(1547~1627) 장군 묘 출토 창의(국가민속문화재 제246호)이다. 시대에 따른 창의가 계속 출토되어 조형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는 사대부 계층과 무관들이 융복戎服을 대신하여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관복의 받침옷으로 입게 되자 비단 장의 착용이 성행되었다. 1668년(현종 9) 사헌부에서 종친, 의빈儀賓을 포함하여 당상관들의 비단 장의를 입어 금지토록 하였으나 장의는 장복章服의 일종이므로 윤허하지 않았으며, 1670년(현종 11)과 1688년(숙종 14) 비변사에서 당상관으로서 장복 이외에 비단 장의障衣를 금하였다. 영조와 정조 대에 이르면 무관들의 창의 착용에 대한 논란이 거듭된다. 1726년(영조 2)에는 무신武臣들이 관복 속에 융복 대신 창의를 입는 것이 성행하자 경계하도록 전교하였다. 정조 대에도 신분이 낮은 무신들까지 창의를 입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되었으며, 청색과 백색의 창의, 넓어지는 창의 소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창의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거인擧人의 웃옷으로 제안하였고 당상관의 연거복은 칠립漆笠, 호박영琥珀纓, 청·백색의 도포와 창의, 홍조대紅絛帶, 당혜唐鞋를 일습이라 하였다. 창의는 도포의 받침옷으로도 착용되었다.

창의에 색상은 우암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상례 과정을 기록한 민진강閔鎭綱의 『초산일기楚山日記』에 초록색과 옥색의 창의가 염습의로 사용되었다. 한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712년(숙종 38)에는 영희전에서 영정影幀을 봉심奉審할 때 익선관翼善冠과 녹색 창의



창의 | 길이 130 품 44 화장 118 | 남오성 묘 출토 | 18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부분을 보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왕의 어진御眞에서 곤룡포의 받침옷으로 녹색 창의가 착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일성록日省錄』 1793년(정조 17)에는 흰색 창의를 영구히 없애고 길복은 청색을 권장하였다. 후손이 소장한 선조의 후손 밀창군(1677~1746)의 조복본 초상화에는 소매가 넓은 적초의와 중단용으로 푸른색 창의를 입고 있어 기록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왕실의 창의 기록은 국장國葬 때 마련된 염습殮襲 및 재궁의대梓宮衣襨에 보인다. 숙종부터 경종, 영조, 정조 국장에 창의는 남색과 초록색 문단이며 순조와 헌종, 철종 대에는 모두 남색 일색으로 기록되었다.

창의의 형태는 시류에 따라 조형적인 변화를 보이며 특히 소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16세기 남자 장포류長袍類의 소매는 진동과 너비가 40㎝ 전후로 동일하여 통수형 직선 배래이다. 17세기에는 초기부터 진동이 좁아지면서 소매는 진동선 아래부터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파여서 직선 배래와 연결된다. 정사공신 신경유申景裕(1581~1633)의 창의 5점은 운문단·운문사·무문능 등 비단류로 만들어져 있으며, 진동 28㎝ 전후, 소매너비 42㎝ 전후로 진동선 아래부터 완만한 곡선이 나타난다. 무신이었기 때문에 왼쪽 소매가 철릭과 같이 탈착식으로 만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전라좌수군절도사 최원립崔元立(1618~1690) 장군 묘 출토 창의에도 보인다. 점차 소매 너비는 넓어진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남오성(1643~1712) 묘 출토 창의는 소매 너비가 55㎝ 전후로 직사각형 형태의 두리소매이다. 넓어지는 소매는 『속대전』 규정과 같이 한 자[一尺]를 넘지 않게 하였으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밀창군密昌君(1677~1746) 묘 출토 창의 소매는 65㎝ 전후로 더 넓어져 있다. 1881년(고종 18)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은 『일사집략日槎集略』에서 박람회에 진설된 조선 물품 가운데 명주·춘포·북포 등과 함께 백립白笠·백혜白鞋·창의氅衣·소창의·행전·토수 등이 있는데, 질이 낮은 등급으로만 골라서 진열한 의도가 괴이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후 창의는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 제도의 개정으로 소매가 넓은 도포, 직령, 중의와 함께 금제 대상이 되었다. 한편 고종 29년(1892) 『진찬의궤進饌儀軌』에는 악공의 광수 남창의藍氅衣가 도설되어 있으며 두리소매 형

태를 보이고 있다.

창의는 비단류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누비옷으로는 만들지 않았다. 현재(2017)까지 발표된 유물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춘천부사 이진숭李鎭嵩(1702~1756) 묘 출토 누비창의 한 점을 제외하고 보이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창의는 임진왜란 이후 실용성을 반영하여 만든 편복포 중 하나이다. 도포와 유사하나 도포의 뒷자락을 제거하여 도포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예를 갖추면서도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착용할 수 있었다. 왕실의 연거복이자 사대부의 외출복과 관복 받침용으로 폭 넓게 이용되다가 1884년(고종 21) 의제 개혁으로 금지 대상이 되었다. 관복을 착용할 때에는 속에 받쳐 입어 정중한 차림새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녹색과 청색, 백색의 창의가 청색으로 마무리되며 비단으로 만들어 조선 말기의 도포와 차별화되었다.

참고문헌 備邊司謄錄, 宋子大全, 承政院日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日槎集略, 日省錄, 與猶堂全書, 朝鮮王朝實錄, 17세기의 무관옷 이야기(안동대학교박물관, 2005), 남오성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04), 송남잡지(소명출판사, 2013),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이응해 장군 묘 출토복식(충주박물관, 2004), 이진숭 묘 출토복식(국립민속박물관, 2010), 전라좌수사 최원립 장군 묘 출토복식(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경기도박물관, 2001), 정사공신 신경유공 묘 출토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8), 주영편(정동유, 안대희 역, 휴머니스트, 2016), 진찬의궤(한국학중앙연구원, 1892), 한국복식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박성실(朴聖實)

책 幘

정의 띠 형태의 쓰개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국 한나라 시기를 거치며 성립된 관모.

내용 중국의 책幘은 진秦나라 때의 무장들이 사용했던 띠 형태 쓰개인 파帕 혹은 파수帕首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나라 건국 후 효문제孝文帝 때 파수에 안제顔題, 이耳, 수收 등의 수식과 정수리 부분에 옥屋이 가해지면서 책이 되었다. 『후한서後漢書』와 『진서晉書』에 따르면, "원래 관冠을 쓸 수 없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썼다."라는 기록과 "상하의 군신羣臣, 귀인貴人, 천인賤人이 모두 착용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책이 관모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착용 계층이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착용자의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문헌 속에서는 책과 관련된 여러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색상에 따라 청책青幘, 적책赤幘, 감책紺幘, 상책緗幘, 소책素幘, 녹책綠幘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직책과 절기에 따라 다양하게 착용되었다. 특히 소책은 공경公卿 이하 자제들이 위모관委貌冠과 함께 착용하거나 상책喪幘으로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책은 대체로 문무관을 아울러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용도, 상황에서 쓰였지만, 계층에 따라 관冠과 함께 이중관의 형태로 착용할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책만 단독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상류층은 이중관 착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중관으로 착용할 때 문관은 관에 장이長耳인 개책介幘을,



책 | ① 안악 3호분, ② 덕흥리 고분, ③ 안악 3호분

무관은 관에 단이短耳인 평상책平上幘을 착용하였다. 일반적인 책은 옥屋으로 덮어 위가 막힌 형태인데, 관례를 치루지 않은 어린아이(미관동자未冠童子)는 옥이 없는 책(동자책童子幘)을, 입학한 소동小童은 구권옥句卷屋이 부착된 책을 착용함으로써 연령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책은 고구려와 고려의 관련 문헌 기록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내용과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후한서』에서는 고구려의 책에 관하여, "공회 의복은 모두 금수錦繡 금은金銀으로 장식한다. 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책을 쓰는데, 책의 뒷부분이 없다. 소가小加는 절풍折風을 쓰는데 형태가 고깔과 같다."라고 기록하였다. 즉, 고구려의 고위 관료는 책을 쓰는데, 단지 중국 책에서 볼 수 있는 수收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 벽화를 살펴보면, 문헌 기록과 달리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책을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벽화 속 인물들이 책을 착용하는 방식은 크게 책 단독 착용과 무관武冠과 함께 착용하는 이중관 형태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책을 관모와 함께 '이중관'으로 착용했을 때는 중국과 동일하게 상류 계층의 인물로 볼 수 있다. 이중관은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 묘주의 관모에서 확인되는데, 이 중 안악 3호분 묘주와 덕흥리 고분 앞방 북벽 입구 서측 묘주는 검정색 책과 흰색 무관을, 덕흥리 고분 널방 북벽의 묘주와 수산리 고분 묘주는 책과 무관 모두 검정색으로 착용하고 있다. 그런데 안악 3호분의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인물들은 고분 묘주의 관모와 동일하게 검정색 책과 흰색 무관으로 된 이중관을 착용하고 있다. 이는 행사 복식으로서 이례적인 예라고 짐작된다. 단독 착용 시에는 책의 형태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책의 끝이 하나로 뾰족한 것으로 안악 3호분에서 의장대열, 부월수, 장하독, 문지기, 행렬도 인물들, 덕흥리 고분에서 행렬도 인물들, 마부, 시종, 수산리 고분에서 영접도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책이 끝이 갈라진 것으로 안악 3호분에서는 시종들이, 덕흥리 고분에서 태수들이 착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책의 색상이 검은 것과 달리 안악 3호분에서는 독특하게 부월수의 책은 흰색 계통, 행렬도 중 회랑 동벽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책은 붉은색 계통이다.

이후 『고려사高麗史』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책은 평건책平巾幘으로만 기록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왕의 순행이나 법가노부 또는 왕세자의 노부 시, 상원上元 연등회 시에 협군사夾軍士, 은작자銀斫子, 표미창豹尾槍이 착용하고 있는데, '평건책' 단독으로 착용하기도 하고 '평건책, 말액抹額'의 구성으로 말액과 함께 착용하고 있어서 이 시기의 책은 낮은 계급 무인武人들의 관모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책과 말액은 모두 진나라의 파帕에서 분화한 것이나 말액은 점차 연질軟質의 쓰개로, 책은 다양한 수식과 옥이 가해지면서 경질硬質의 관모로 변모하였다. 책이 말액에 비해 더 포괄적인 사회적 용도로 착용되었다. 고구려의 책은 중국에서 도입된 관모로, 우리나라 고유 관모인 변형弁形의 절풍과 형태나 기원 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이나 벽화 등의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책이나 절풍과 같은 변상 관모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삼국시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착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舊唐書, 三國志, 晉書, 漢書, 後漢書, 말액에 관한 연구(강순제·전현실, 복식55-8, 한국복식학회, 2005),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증보판(고구려연구재단, 2005).

필자 전현실(全炫室)

챙머리

정의 앞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이마 위에 불룩 내밀게 추켜올려 빗고, 뒷머리는 정수리나 후두부에 틀어 올린 머리모양.

내용 챙머리는 일본어로 히사시가미庇髪라 하는데, 이때 히사시庇는 처마에 내어 댄 차양遮陽이나 모자 따위의 챙을 의미하고 가미髪는 머리카락을 의미하여 챙머리와 히사시가미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앞머리를 둥그렇게 해 올리고, 그 속에다 수세미만한 속을 넣어서 크고 둥글넓적한 갓 모양으로 하고, 끝머리를 머리 한 복판에 호떡같이 혹은 쇠똥 사레처럼 서려놓아서 이것을 '쇠똥머리', '쥐똥머리'라고도 하였다.

일본에서 히사시가미는 메이지明治시대인 1898~1907년 무렵부터 다이쇼大正시대 초인 1910년대에 걸쳐 유행했다. 1853년 미국에 개항하고, 1868년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새로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중 서양 여성의 머리모양도 모방의 대상이었다. 일본 전통의 머리모양은 유지하는 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던 반면, 서양에서 전래된 업스타일인 시뇽chignon 머리모양은 많은 양의 기름이 필요없었고, 머리카락을 고정하기 더욱 쉽고, 금전적, 위생적인 면에서도 유지하기 좋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흐트러질 걱정 없이 더욱 활동적으로 다닐 수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존심 강하면서 우아하며, 실용적인 미국적 여인상인 '깁슨 걸Gibson girl'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었다. 깁슨 걸은 시뇽 스타일 중 하나인 퐁파두르pompadour 머리모양을 채택함으로써 앞머리를 높이 추켜세웠다. 일본은 깁슨 걸이 채택한 퐁파두르 머리모양을 기모노에 어울리는 일본적인 머리모양으로 재해석해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차양 머리를 의미하는 '히사시가미'라 이름 지었다. 1898년,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資生堂는 히사시가미 머리모양에 적합한 순수한 동백꽃 기름으로 만든 하나카쓰라 헤어 오일을 '신세대를 위한 이상적인 헤어 오일'로 광고하기도 하였다.

히사시가미를 일본 전역에 유행시킨 여성으로 가와카미 사다야코川上貞奴(1871~1946)와 시모다 우타코下田歌子(1854~1936)를 들 수 있다. 가와카미는 당시 유럽과 미국 순회 공연을 하던 무용가이자 여배우인데, 일본에 서양 문물을 전래하는 패션 리더였다. 한편 시모다는 사회에서 여성의 교양과 실력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1899년 일본 동경에 짓센여자학원実践女子学園를 설립한 일본 여성교육의 선구자이다. 패션 리더와 교육자를 통해 히사시가미는 일본 전역의 많은 여성들에게 유행하였으며,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여 여학생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였다. 히사시가미의 높임머리의 사이즈와 뒷머리에 틀어 올린 쪽의 높이는 여성의 연령층, 직업,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다양했다. 히사시가미의 다양한 이름에서 변화하는 사회상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1907년경에는 러일전쟁(1904~1905) 당시 가장 강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203고지高地의 모습을 쪽으로 틀어 올린 니햐쿠산 코우치二百三高地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한국 여성 중 최초로 챙머리를 한 여성은 김활란金活蘭(1888~1984)으로 알려져 있다. 김활란은 초기 이화학당이 배출한 대표적인 제1세대 신여성으로 여성 교육가이자 감리교 장로였으며, 1913년 최병현 목사의 아들 최재학과 결혼한 후 최활란으로 불리기도 했다. 복식학자 유희경은 1907년경 신여성이라는 말도 아직 안 나올 때 "김활란이 당시 동경에서 유행하던 팜프도어(히사시까미) 머리를 하고 양말에 구두를 신고 검정 통치마를 입고 귀국하여 화제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김활란은 1895년 8세에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1908년 이화학당 중등과에 진학했고, 재학 중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위치한 갓스이여학교活水女校에서 유학하고 1909년경 돌아와 이화학당에서 수학 교사로 재직하며 후배들을 가르친 여성 교육가이다.

챙머리는 전체적으로 머리를 부풀리고, 가르마를 타지 않으며, 앞머리는 이마가 나오도록 높이 올리고 귀를 보이게 하여, 목덜미께의 머리를 빗어 올려 후두부에서 모았다. 리본을 매기도 했다. 챙머리는 1910년대 쓰개치마를 벗어던진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으며, 주로 상급생이 하고 다녔다. 챙머리와 함께 여학생들은 짧아진 치마에 목이 높은 구두를 신고 양산을 구비함으로써 가장 세련된 유행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여학생의 머리는 이후 챙머리보다 간편하게 머리를 틀면서 트레머리라 불렸다. 원래 트레머리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던 얹은머리의 속명俗名으로 가체로 후두부에서 양 귓가를 감아 얹는 머리 형태이다. 18세기 영·정조 대 이후 가체를 사용한 트레머리는 사치스런 시대풍조라 하여 금지되었다. 이후 조선 여성들의 머리모양은 처녀들의 땋은 댕기머리와 가례를 올린 여성들의 쪽머리로 대별되었다. 1910년대에는 신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 사이에서 신식 트레머리 양식이 유행하였다. 신식 트레머리는 가체 대신 빽콤backcomb(머리를 결 반대 방향으로 빗질하여 부풀게 넣는 방법), 고데기[鏝](인두), 머리심과 같은 충전재 등을 이용해 겉에 다만 머리를 입히는 방식으로 머리를 부풀렸다. 옆가르마를 타서 머리를 틀어 올린 형태도 유행하였다. 1910

년경 이화학당의 교사와 학생들의 머리모양을 살펴보면, 챙머리와 챙머리와 유사한 둘레머리(머리를 뒤에서 한 가닥으로 굵게 따라 둘레에 터번 모양으로 둘러 머리 위에 틀어 얹고 핀을 꽂은 모양)를 하고 있다.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무정」에는 경성학교 영어 교수 이형식에게 가정교습을 받는 선형의 '쪽찐 서양 머리'를 '히사시가미'라고 표현하였다. 선형은 정신여학교에서 신교육을 받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김장로의 딸로 신식 교육을 받은 세련된 여학생이다. 또한 기생이 된 영채가 이형식을 찾아오는 장면에서 머리를 '여학생 모양으로 쪽졌'는데 이는 챙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910년대까지 챙머리는 여학생의 상징과도 같았다. 조선관공립 여학교 또는 일본 교사가 많은 사립여학교에 많았다. 1920년대 들어 챙머리는 이른바 '오카미상おかみさん(주인 아주머니)' 머리로 불렸다. 일본인과 같아지고자 그들의 풍속 습관을 모르는 가운데 조선 부녀자들이 흉내 내어 유행하는 머리모양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1930년대가 되면 히사시가미보다는 '트레머리'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되었다. 1936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애욕의 피안」에는 쪽머리에 상대되는 학교에 다니던 여자 같은 머리모양을 트레머리라 하고 있다. 1930년대 들어 여성들에게 단발이 유행하였고, 단발에 머리를 부풀리는 기술로 파마가 도입되었으나, 1939년 7월 "여성의 외관에서부터 긴장미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파마가 폐지되었다. 여성들은 다시 머리를 길러 간단하고 검소한 결발結髮을 할 것을 장려받았다. 광복 후, 1910년대 신식 문물을 받아들인 여학생의 상징이었던 챙머리는 거의 사라져 개화기 사진 속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현재 여성들은 발전하고 있는 파마넨트 기술, 미용 제품들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올리거나 부풀려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챙머리는 이마 위 또는 머리둘레를 따라 전체적으로 모자의 챙같이 불룩 내밀도록 만들어진 머리모양을 일컫는다. 후두부에 틀어 올린 쪽머리를 쥐똥머리 또는 소똥머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일본어로 히사시가미라 하여 '차양머리'를 의미한다. 히사시가미는 미국의 이상적인 여성상인 깁슨 걸이 차용했던 유럽의 퐁파두르 머리모양이 일본 여성 수발 양식에 맞도록 받아들여진 머리모양이다. 당시 패션 리더였던 가와카미 사다야코와 시모다 우타코에 의해 유행하였으며, 주로 여학생들이 이 유행을 따라 여학생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챙머리는 개화기 신문물을 일찍 받아들인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다. 과장되게 머리둘레 전체를 부풀린 챙머리는 후에 간편하게 머리를 틀면서 트레머리라 불렸다. 트레머리는 쪽머리에 상대되는 학교 교육을 받은 신식 여성의 머리 스타일로 인식되었다.

참고문헌 근원수필(김용준, 을유문화사, 1947), 대중적 감수성의 탄생-도박, 백화점, 유행(강심호, 살림, 2005), 모던 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근대적 패션의 풍경(김주리, 살림, 2005), 무정(이광수, 매일신보, 1917), 사상의 월야(이태준, 소명, 2015), 이화 100년사(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현대패션 100년(금기숙 외, 교문사, 2002), 学校制服の文化史-日本近代における女子生徒服装の変遷(難波知子, 創元社, 2012), モダン化粧史—粧いの80年(ポーラ文化研究所, 1986), 大正農界百面觀(河村九淵·田原鄉造, 1917).

필자 이민정(李旼靜)

천의
薦衣

정의 간편한 이불, 포대기, 머리쓰개의 용도로 사용된 치마형 싸개.

내용 천의는 한자어 '薦衣, 襜衣', 한글은 '쳔의'로 표기되며 근대 이후 속음으로 '처네'라고도 불리었다. 기본 형태는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윗부분에 저고리 모양과 같은 깃과 흰색 동정이 달려 있으며, 중심부에는 주름이 몇 가닥씩 잡혀 있다. 착장하였을 때 머리나 몸을 감싼 것과 같은 모양이 된다. 천의는 명칭과 기본 모양은 같으면서 용도가 다양하여 간편한 이불용 천의, 머리쓰개용 천의, 포대기 등으로 이용되었다.

천의의 쓰임은 침구류가 먼저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820년경) 섬용지贍用志 편에서는 횡답橫褡을 "세속에서 '薦衣'라고 하는 것인데 색주色紬를 사용하고(겉은 자색, 녹색, 금향색 등을 사용하고 안감은 청색이나 녹색 등 마음대로 한다), 솜을 넣어 활행선(너른누비)으로 누빈다. 몸체는 이불보다 작

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직선으로 되어, 앉아서 덮으면 허리와 무릎을 덮을 수 있다. 누워서 덮으면 따뜻해서 노인이나 병자에게 더욱 편하다."라고 하였다. 이불보다 작아서 앉아서 덮을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방한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하는 이불 용도임을 알 수 있다. 『규합총서閨閤叢書』(1809)에는 '쳔의'가 솜을 두어 9줄 누벼준 보온용 침구류에 해당한다. 조선 말기 궁중 기록인 금침 관련 「발기」에는 침枕(베개)—금衾(이불)—쳔의[襯衣衣]—뇨褥(요)의 순으로 표기되어 침구류에 속하지만, 이불과는 다른 용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간편 이불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신광헌申光憲(1731~1784)의 묘에서 출토된 누비 천의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경주 이씨 묘 출토 누비 천의가 있다. 누비치마 형태에 상부에 깃과 동정이 있고 깃 중심 좌우에 주름을 잡아준 형태이다. 『임원경제지』에서 말한 것처럼 천의를 앉아서 덮으면 어깨나 몸을 감싸주므로 추운 날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근세 유물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왕자 천의가 대표적이다. 겉감 홍색 포도문주葡萄紋紬와 안감 연두색 포도문주 사이에 솜을 두어 줄줄이 누빈 것이다. 길 좌우에는 무가 달리고 상부에 허리말기와 같은 깃을 달았으며, 깃에는 흰색 동정이 달려 있다. 궁중발기 중 「뮤슐구월아기시돌ᄉᆡᆼ신의복ᄇᆞᆯ긔」의 천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추측된다.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는 천의의 구조와 부분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아기를 등에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와 같다. 포대기는 아기 업을 때 사용한 천의의 속음으로 이해된다. 형태는 치마와 비슷하면서 하부는 넓고 상부는 좁고 몸판인 길 좌우에는 사다리꼴형 무가 부착되었다. 상부에는 길 중심을 기준하여 주름이 좌우 1개씩 잡은 후 깃과 동정을 달았다. 그리고 깃 양끝에는 끈을 부착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간편 이불용 왕자 천의와 같은 모양이면서 상부에 긴 끈을 달면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가 된다. 이와 같은 누비포대기는 근대 유물로 많이 전해졌으며, 업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튼튼하게 누벼서 만든 것이 많다.

천의는 상류층 부녀자의 쓰개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이 경우엔 '머리 천의'라는 별도의 명칭으로도 불리었다. 1847년 헌종과 경빈 김씨의 가례 기록인 『뎡미가례시일긔』 중에 「동됴의셔ᄒᆞ오신의ᄃᆡ의복기소」의 물목에 경빈 김씨의 것으로 '자적 수화주 누비 머리 쳔의(마리쳔의)'가 별도로 마련되었다. 수식어 '머리'가 있는 것을 볼 때 일반 천의와는 달리 머리쓰개 용도임을 알 수 있다. 민속 조사에서는 조선 말기 이후 부녀자가 방한용 쓰개로 천의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일반인들은 흔히 처네로 불렀다. 유물은 조선 말기에서 근세의 것이 대부분이며 천의의 기본 형태에 깃 끝에 짧은 고름이 달려 있고, 앞여밈 부분에 작은 고름이나 단추가 추가되기도 한다. 여인들이 쓰개용 천의를 한 모습의 사진 자료도 전해지는데, 천의에 백색 동정이 달려 있고 정수리 부분에 주름을 잡았으며 상부에 달린 좌우의 끈을 뒤로 넘겨 동여맸다. 추위를 막기 위하여 머리에서 어깨까지 천의를 덮어써 머리와 얼굴을 감싼 모습이다.



① 천의 | 길이 92 너비 153



② 천의 | 길이 790 너비 275

천의 | ①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근대 | 온양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천의는 속음으로 '처네'라고도 불리며, 한 가지 명칭에 간편한 이불·아기 포대기·부녀자 쓰개의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기본 형태는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윗부분에 저고리 모양과 같은 깃과 흰색 동정이 달려 있고, 중심부에는 주름이 몇 가닥씩 잡혀 있다. 간편한 이불용 천의는 추운 날 방안에서 책을 읽는 등 일상에서 소일할 때 몸을 덮어 감쌌다. 부녀자의 쓰개는 머리 천의라는 별도의 명칭도 있으며, 깃의 양쪽에 고름을 달아 착장 시 머리와 상체를 감싸게 하였다.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한 천의는 포대기라고도 불렀으며, 좌우에 긴 끈이 달려 있어 아기를 업을 때 감싸 둘렀다. 용도가 다른 천의 중에서 머리천의는 소멸하였으나 이불용 천의는 지금의 차렵이불이나 무릎 담요로 진화하였다. 포대기는 20세기 말까지 애용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온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林園經濟志,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여속고(이능화, 한남서림, 1927), 조선재봉전서(김숙당, 활문사, 1925), 천의 용도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이명은, 한국복식3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6),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명은(李明恩)

천주교복
天主教服

정의 천주교天主教에서 공식적으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회의 예식을 집전하는 동안 성직자들이 착용하는 복식.

역사 오늘날 천주교의 사제들이 착용하는 복식, 즉 전례복典禮服으로 착용되는 의복류는 대부분 그리스-로마 시대에서 시작되었으며, 12세기에 전례복으로서의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식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17세기 바로크 양식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종교적 성향을 띠었으며, 18세기에는 로코코 양식의 영향을 받아 색채와 문양이 화려해지고 천주교 정신이 잘 표현되지 않았다. 19세기에는 이와 같은 현상에 반대하여 전례복 디자인을 중세 시대의 것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천주교는 조선 후기 서학西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된 실학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1783년 동지사冬至使를 따라 중국 북경에 갔던 이승훈(1756~1801)이 그랑몽J. J. de Grammont(1736~1812) 신부로부터 조선인 천주교 신자 최초로 세례(세례명 베드로)를 받고 귀국하였고, 이후 17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천주교 전례복은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 이전 시기까지 불완전한 양상을 띠었다. 천주교가 등장한 초기부터 조선에 입국하여 선교 활동을 했던 외국의 성직자들은 주로 상복喪服 차림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조선의 관습상 방갓에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말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복은 박해로부터 외국 성직자들의 신분을 숨기고 천주교를 널리 알리는 데 가장 적합한 의복이었다.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포와 같은 포류 위에 영대領帶, stole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서양식 전례복은 한불수호통상조약으로 종교의 자



① 한국식 제의와 영대



② 성 김대건 안드레아 초상 | 1933



③ 대구 성 유스티노신학교 예비과 학생들 | 1935

천주교복 | ①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② 문학진 | 명동성당, ③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유가 주어진 1887년 이후부터 프랑스의 것이 들어오면서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예수성심신학교의 학생들은 검정색 두루마기를 교복으로 착용했고, 수단cassock을 착용함으로써 정식으로 성직에 입문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차 바티칸Vatican 공의회(1962~1965) 이후에는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전례복이 간소화되고 그 종류 및 착용법이 단순해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1962년에는 수단 위에 중백의中白衣, surplice를 입고, 로마식과 그리스식 제의祭衣, chasuble를 혼용하여 착용하였다. 손에는 모관毛冠, biretta을 들고 수대手帶, maniple는 따로 걸치지 않았다. 공의회 이후에는 각 지역 혹은 민족의 고유한 소재, 문양 등의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한복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전례복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내용 천주교복, 즉 전례복은 천주교의 기본적인 사상과 전례의 참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로, 그 형태·색채·문양에 고유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 전례복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겉옷류, 속옷류, 띠帶류, 관모류, 일상 복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겉옷류로는 제의, 카파cope, 달마티카dalmatic가 있다. 제의는 로마식과 그리스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미사를 비롯한 모든 전례의식 때 착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식 제의를 대부분 사용한다. 카파는 소매가 없는 긴 망토형의 외투이며, 뒷면에 후드hood나 방패 모양의 문양직물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사행렬이나 성체강복 시에 입으며, 제의와 카파는 사제 이상의 성직자들이 착용하는 의복이다. 달마티카는 폭이 넓고 짧은 소매가 달린 상의류로 주로 부제가 착용한다.

속옷류(내의)로는 개두포蓋頭布, amice, 장백의長白衣 alb, 중백의, 소백의小白衣, rochet가 있다. 개두포는 양쪽에 긴 끈이 달린 장방형의 흰 천으로, 장백의로 목을 다 덮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장백의는 튜니카 탈라리스tunica talaris에서 유래한 것으로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의복이다. 중백의와 소백의는 모두 장백의에서 길이나 소매 형태가 조금씩 변형된 것이다. 특히 중백의는 무릎 정도의 길이이고, 소매 폭이 넓으며 소매와 도련에 수나 레이스 장식을 한 의복으로, 성사집행, 미사 입장행렬 시에 사제 이상의 성직자가 착용하였다.

띠류로는 수대, 영대, 팔리움pallium이 있다. 수대는 본래 왼쪽 손이나 팔 앞부분을 감는 주름진 아마포로 만든 수건 형태의 복식인데, 11세기 이후 그 사용이 확대되었고, 접는 수건의 형태에서 단순한 띠 형태로 변화하였다. 1967년 이후에는 사용이 폐지되었다. 영대는 성무집행의 표시로 목에 걸치는 긴 띠로, 지위에 따라 착용법이 다양하다. 주교 이상의 성직자용 팔리움은 중세부터 착용한 것으로 목에 걸치는 좁은 고리 모양의 띠이다.

관모류로는 주교관miter, 모관, 주케토pileolus가 있다. 주교관은 주교 이상의 성직자가 의식 때 착용하며, 의식의 장엄도나 계절에 따라 구분된다. 모관은 사제각모라고도 하며, 고위 성직자들이 쓰는 작은 사각모이다. 주케토는 납작한 반구 원형의 관모이며, 모관과 함께 본래 삭발례 후 머리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나 현재에는 성무집행시 지위와 권위의 상징으로 착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단, 수단 띠, 모제타mozzetta는 공적인 예복이며, 가대복歌臺服, choralis으로 일컬어진다. 즉 전례에 참석하거나 전례 중 사제단석에 착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장을 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규정 변화 이후 한국 천주교에서 정한 복장 내용을 살펴보면, 전례규정에 따라 제의나 수단을 착용하고, 공식 행사에서는 클러지 셔츠와 양복 정장, 로만 칼라를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대복에는 모관이나 주케토를 함께 착용하며, 각 지위에 따라 색채가 정해져 있다. 교황은 백색, 추기경은 적색, 대주교 및 주교는 자색, 사제 및 부제는 흑색이다. 수단은 고대 로마 복식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모든 전례 행사 및 의식, 사목활동 및 평상시에도 착용하였고, 수단을 입지 않을 때는 로만 칼라를 착용하라는 규정도 있다.

현재 교계제도에 따른 전례복의 착용 순서 및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제의는 전례주년상의 미사나 축제일에 해당하는 색채이어야 하며, 공통적으로 수단 위에 개두포, 장백의, 영대를 착용한다. 주교는 가슴십자가, 달마티카, 제의를 입고, 대주교는 팔리움, 주케토, 주교관, 반지, 지팡이를 착용한다. 사제는 장백의 위에 제의

철릭

를 입고, 부제는 달마티카를 입는다. 모든 전례복장이 준비되면 주교는 부제와 다른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제의실에서 카파, 모제타를 벗고 손을 씻는다. 손을 씻고 나서 차례대로 준비된 개두포, 장백의, 띠, 가슴십자가, 영대, 달마티카, 제의를 입는다. 그런 다음 부제가 주교에게 주교관을 씌워 주고, 대주교에게는 주교관을 씌우기 전에 팔리움을 걸쳐 준다.

특징 및 의의 전례복 중 제의 및 영대, 달마티카는 전례주년典禮周年의 시기와 축일의 의미에 따라 각각 다른 색채를 사용해야 하며, 색채마다 다른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 전례복의 색채는 12세기부터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3세기 교황 인노첸시오Innocentius 3세(1198~1216) 때부터 공식적으로 다섯 가지의 색채를 결정하였다. 이후 비오 5세Pius Ⅴ 1504~1572)의 미사경본에 현재와 같은 전례색채를 규정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전례색을 약간 조정하였다.

각 색채의 의복들을 착용하는 시기와 의미를 전례주년에 따라 정리해보면, 백색은 수난에 관계되는 거행을 제외한 축일, 마리아와 천사·성인들의 축일에 사용하며, 영광, 결백, 기쁨을 상징한다. 연중시기에 착용하는 녹색은 생명의 희열, 희망, 영생을 상징한다. 자색은 참회와 보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사용한다. 흑색은 죽음을 의미하여 장례, 위령미사 등에 착용하는데, 오늘날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여 흰색을 입는 경향이 더 많아져, 검은색의 제의는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미색은 휴식과 기쁨을 상징하며, 사순 제4주일, 대림 제3주일에 사용한다. 금색은 미사의 성대함을 의미하고 미사 중 흰색, 적색, 녹색을 대신할 수 있다. 적색은 주님 수난 성지주일과 성금요일, 성령 강림대축일, 수난 전례,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천상 탄생 축일, 순교 성인들의 경축일에 사용하며 피·열·사랑을 상징한다.

참고문헌 1960년대 이후 가톨릭 전례복의 실증적 고찰(이호정·조우현, 복식65-1, 한국복식학회, 201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855~2005(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개교150주년기념화보집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2005), 한국 가톨릭 전례복에 관한 연구(박경숙,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2006).

필자 조우현(趙又玄)

정의 고려 중기 이후 원나라에서 들어 온 남성용 포로 편복이나 융복으로 입었던 옷.

내용 철릭[天翼]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고려가요 <정석가鄭石歌>에 "므쇠로 텰릭을 ᄆᆞᆯ아나는 철사鐵絲로 주름바고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내용은 싸움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 철릭을 쇠로 마름질하고 철사로 바느질한다는 것이다. 이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중기 이후라 할 수 있다. 회화 자료로는 『삼재도회三才圖會』에 고려인이 철릭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있으며, 유물로는 해인사 소장 어린이 요선철릭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체 시기에 걸쳐 철릭을 왕에서부터 무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입었으며, 융복戎服·편복便服·받침옷[裏衣]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착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잡령雜令에는 "사족士族의 의복은 철릭[帖裏]과 치마[裳]는 13폭을 넘지 못하고 서인庶人의 의복은 9승九升으로 하되 철릭과 치마는 12폭으로 한다."라고 하여 신분에 따라 제한하였다.

1444년(세종 26)에 명에서 사여한 왕의 상복常服 가운데 곤룡포袞龍袍와 같이 답호褡護와 철릭[貼裏] 일습이 있으며, 왕실에서 관리들에게도 단령·답호·철릭 일습을 사여하여 철릭이 받침옷[裏衣]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철릭은 안에 받침옷으로 입었다가 비상시 겉옷을 벗으면 융복으로 대신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대개 평시에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융복은 입笠, 철릭[帖裏], 광다회廣多繪, 목화木靴로 구성되어 있다. 융복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 왕 이하 백관 모두가 관복冠服을 대신하여 입었으며, 1647년(인조 25) 관복 제도가 복구되면서 다시 융복의 용도로 계속 착용하게 된다.

철릭 중 왕의 철릭은 1795년(정조 19)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에서 왕이 화성 행차 시 궁궐을 나설 때 곤룡철릭[袞龍帖裏]으로 출궁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곤룡철릭은 곤룡포나 철종의 군복본軍服本에서



요선철릭 | 길이 124 품 59 화장 113 | 16세기 초반



철릭 | 길이 118 품 62 화장 97 | 17세기 이후

철릭 | 국립민속박물관

볼 수 있듯이 앞뒤와 양어깨에 용보를 부착한 철릭을 말한다.

철릭은 중세 몽골어의 'Telig'을 어원語源으로 보며, 한자를 차자借字하여 '帖裏'라고 표기한 것을 '텰릭'이라고 발음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명칭은 '첩리帖裏·帖裡·貼裏, 천익天益·天翼, 철릭裰翼·綴翼, 세습아細褶兒, 판습아板褶兒, 방의防衣, 첨리添里' 등 다양하였다. 대표적 명칭의 사용 시대를 보면 '첩리帖裏'는 15~20세기, '천익天益'은 15~19세기, '천익天翼'은 조선 후기인 18~19세기에 주로 기록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철릭의 형태는 상의上衣에 치마에 주름을 잡은 하상下裳을 연결한 옷이다. 특히 허리에 요선이 있는 철릭을 요선철릭이라 한다. 깃은 곧은 깃이며, 소매는 분리형分離形과 통수형通袖形이 있다. 분리형 소매는 매듭단추·끈·시침 등으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며, 통수형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철릭은 의衣와 상裳의 길이 비율이나, 깃·소매·고름·주름 등의 변화가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의보다 상의 길이가 길어지고, 깃은 칼깃에서 둥근 깃으로, 소매통은 진동과 비슷하였는데 점차 넓어지게 되었으며, 고름은 짧고 좁던 것이 넓고 길게 되었다. 주름은 정교한 0.1~0.2㎝의 잔주름에서 1.5~3㎝의 넓은 주름으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園行乙卯整理儀軌, 조선시대 철릭(금종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철릭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은주, 한국의류학회지13-4, 한국의류학회, 1989), 첩리소고(강순제, 성심여자대학논문집12, 성심여자대학교, 1981),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금종숙(琴鍾淑)

첩지
疊紙

정의 조선시대 왕비, 왕세자빈 및 내외명부가 쪽머리의 가르마에 장식하는 머리 장신구.

내용 첩지疊紙는 영·정조대 가체금지령 이후 쪽머리의 예장용 관인 화관이나 족두리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궁중발기」에는 '텹지, 쳡지, 첨簽'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왕비나 왕세자빈, 상궁 및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사용하였으며, 계급에 따라 장식이나 형태, 재료를 달리 하여 신분을 표시하였다. 사대부가의 부녀들은 예장을 할 때만 첩지를 착용하였다. 궁중에서는 평상시에 항상 첩지를 착용하여 신분이 구별되도록 하였으며, 잠자리에 들 때만 풀었다.

용과 봉황은 왕실의 상징으로 황후는 도금한 용첩지, 왕비와 왕세자빈은 도금한 봉첩지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금이 귀하여 궁중에서도 도금을 주로 사용하였다. 내외명부는 지위에 따라 도금·은·놋쇠로 만든 개구리첩지를 사용하였는데, 정경부인은 도금 개구리첩지, 정부인은 두미頭尾만을 도금한 개구리첩지, 상궁은 은개구리첩지를 하였다. 개구리는 고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조선시대 여인의 장신구 중에서는 첩지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모티



첩지 | 길이 6.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브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부여 왕 해부루가 산천에 치성하여 곤연鯤淵 가 바위 밑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후일의 금와왕金蛙王이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처럼 개구리는 왕권과 관련하여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 한 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알을 낳는 다산의 특성이 더해져 개구리가 왕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적 요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첩지는 착용자의 상황에 따라 그 재료를 달리하기도 하였다. 순정효황후를 모신 대한제국의 마지막 상궁 중 한 명인 김명길 상궁의 증언에 따르면, 구한말에 후궁 봉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은첩지 가운데를 금칠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상중喪中에는 검은빛의 무소뿔인 흑각으로 된 첩지를 사용하였는데, 상중에 사용하는 물건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탈상 후에 곧 소각하므로 유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상궁들은 상중에도 은첩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첩지의 기본적인 형태는 5~7㎝ 정도의 평평한 몸체에 꼬리 부분만 위로 향하는 날렵한 곡선이며, 종류에 따라 앞머리 부분의 장식만 다르게 했다. 첩지는 가르마 부분에 얹어 장식하는 특성상 그 자체만으로는 머리에 고정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첩지 밑 부분에 검정색 바탕천을 실로 떠서 붙이고, 여기에 길고 얇은 다리(가발)를 연결하여 사용했다. 머리 중앙에 가르마를 타고 앞부분에 첩지를 얹은 후, 양옆에 연결된 다리를 곱게 빗어 원래 머리와 같은 결이 되게 붙여서 쪽을 쪘다. 순종純宗의 발인일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 백발의 상궁들이 검은 가발이 달린 첩지를 착용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첩지는 화관이나 족두리를 고정하기 위한 실용적인 용도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착용자의 신분이나 계급, 착용 상황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첩지는 궁중과 민간에서 모두 착용하되 그 종류나 재료가 달랐던 다른 머리 장신구와 달리 궁중여인과 사대부가의 여인들로 착용 계층이 한정되었다. 또한, 장식 문양에서도 왕실을 상징하거나 왕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몇 가지만을 사용하는 등 조선시대 가장 특수한 장신구 중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관모와 수식(석주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3), 옷은 사람이다(송명견, 이담북스, 2014), 장신구사(서지민, 시각, 1986), 전통 장신구(장숙환, 대원사, 2002).

필자 오선희(吳宣希)

첩지머리

정의 조선시대 왕비 및 내외명부의 예장용 머리모양.

내용 궁중에서 왕비를 비롯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예장禮裝할 때 머리모양이다. 첩지疊紙는 조선 후기 영정조의 체계금지령 이후 쪽머리를 장려하고 가체 대신 족두리簇頭里나 화관花冠을 사용할 때 생겨난 것으로 첩지의 장식이 족두리나 화관을 쓸 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첩지의 재료와 앞쪽의 장식에 따라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황후는 도금鍍金으로 만든 용 첩지를 사용하였으며, 왕비는 도금한 봉鳳, 내명부·외명부는 도금·은銀 또는 흑각黑角으로 만든 개구리첩지를 사용하였다. 첩지머리는 첩지를 가르마 가운데 중심에 두고 좌우의 머리카락을 느슷느슷 양쪽으로 땋아 양 귀 쪽을 지나 뒷



① 도금봉첩지 | 길이 5 | 조선



② 상류사회의 부인

첩지머리 | 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머리와 합쳐 묶어 쪽을 진 머리모양이다. 첩지는 또야머리를 한 다음 중앙의 가르마 앞부분에 장식한 것으로 궁중에서는 앞가르마 중앙에 첩지를 대고 첩지의 양쪽 머리를 각각 쪽 밑으로 가져가 쪽의 둘레에 둘러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첩지는 동체만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받침대 위에 얹고 받침대 양쪽으로 가체를 붙여서 사용한다. 받침대 앞부분과 중앙, 꼬리 부분의 세 곳을 자주색 실로 5~7번 정도 떠서 고정하였다. 첩지는 머리 중앙의 가르마 앞부분에 얹고 양쪽 가체는 곱게 빗어 자신의 머리카락과 같은 결이 되게 붙여서 귀 뒤를 지나 서로 반대쪽에서 쪽 밑으로 돌리며, 나머지 머리카락은 모두 쪽에 감아 고정하였다.

특징 및 의의 첩지의 장식은 화관이나 족두리 같은 것을 쓸 때에 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궁중에서는 평시에도 첩지머리를 하였는데, 그것은 신분의 상하를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궁중법도에 따라 어느 때 족두리나 화관을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앞가르마를 똑바로 타서 양쪽 귀밑머리를 땋을 때 이것을 세 가닥으로 가르고 앞의 두 가닥을 엮는다. 그 위로 남은 한 가닥을 곱게 빗겨서 덮어 첩지를 씌운 것 같이 보이는데 앞머리가 이마에 약간 내려오는 것이 멋이 있다.

참고문헌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김용문,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여속사(김용숙, 민음사, 1990).

필자 김용문(金容文)

초립
草笠

정의 가는 풀의 줄기나 대오리로 엮어 만든 평량자平凉子형의 모자.

내용 초립은 평량자형의 모자로, 만드는 재료를 따 붙은 이름이다. 조선시대 갓의 발달 과정 중 패랭이에서 흑립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다. 패랭이의 모정帽頂은 위로 봉긋한 데 비해 초립의 모정은 평평하며, 위는 좁고 아래가 넓은 원뿔대형이다. 그리고 차양 부분인 양태凉太는 흑립에 비해 좁고 위로 약간 올라가 있다.

재료는 주로 강화도 교동喬桐 등지에서 나는 누렇고 가는 풀로 엮어 만드는데, 송도의 남녀가 초립 짜는 것을 전업으로 하였다고 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려시대 우왕이 평소 백초립 쓰기를 좋아하였는데 이를 백성들까지 좇아 썼다."라는 기록이 있고, 조선 초기의 실록에는 왕이 신하에게 초립을 내려 평상시에 쓰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족은 50죽 초립, 서인은 30죽 초립을 착용하라 하여 신분에 따라 초립의 곱고 거침을 나타내는 날의 수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 조선 초기까지는 왕뿐만 아니라 선비나 서인이 함께 사용하였던 쓰개였으나, 흑립이 일반화되면서 상민, 특수층의 쓰개가 되었다. 그에 따라 궁정의 세악수細樂手, 사복司僕의 견마부牽馬夫·창우倡優는 물론, 별감도 연회석에서 호수虎鬚를 단 황초립을 상복常服 위에 착용하였다. 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45 「입제변증설」



초립 | 높이 12 지름 24.5 | 국립민속박물관



초립 쓴 별감 | 신윤복 | 주사거배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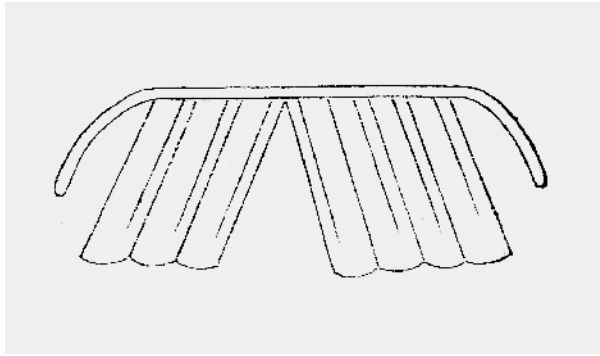
에는 “초립은 동자童子가 상관上冠할 때 처음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조선 말에는 관례를 치른 어린 남자아이가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의 관모로 사용하여 ‘초립동草笠童’이라는 말도 생겼다.

조선시대 내명부들이 착용하였던 너울의 받침용 쓰개도 한자를 달리하여 ‘초립綃笠’이라고 하였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서 초립의 치수는 항상 내명부의 너울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초립을 쓴 위에 너울을 덮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품계에 따라 초립과 너울의 색상을 달리했는데, 왕비는 자초립紫綃笠에 자색 라 겹너울, 빈궁은 청초립靑綃笠에 자색 라 겹너울, 숙의·상궁 이하는 청초립에 흑색 라 홑너울을 착용하게 하였다. 역대 의궤儀軌의 내용을 비교하면 왕비와 빈궁의 입笠이 전기에는 자색 진주장립眞珠粧笠으로 그 형태와 색상이 동일했으나 후기가 되면 자색과 청색으로 구분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초립은 패랭이에서 흑립으로 옮겨 가는 발달 단계의 중간형으로 형태는 패랭이와 비슷하나 대우와 양태가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조선시대에 계층의 구분 없이 사용되었으나 신분에 따라 재료의 곱고 거침을 달리하여 차등을 두었다. 또한 관례를 치렀으나 흑립을 쓰기에 아직 어린 남자아이는 복건 위에 초립을 써 초립동이라고 불렀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임경화(林炅花)



최상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최상 | 길이 69.5 허리 90 | 1941 | 국립민속박물관

최상
衰裳

정의 전통 유교식 상례에서 상주가 입는 상복의 하의.

역사 “최복을 입지 않고는 손님을 접견할 수는 없다無衰衣者 不以見賓.”라는 문구가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상복의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흰색 상복을 입는다.”라는 기록은 있으나 그 모습을 기록하지 않아 형태를 알 수는 없다. 중국으로부터 유교식 제도를 받아들여 고려시대 985년(성종 4)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정하고, 1290년(충렬왕 16) 성리학과 함께 주자朱子(1130~1200)의 『가례家禮』가 소개되면서 본격적인 성리학적 관혼상제가 시행되기에 이르지만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오복제도를 개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군관들의 삼년상은 폐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축소시킨다.

조선시대가 되면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에서 보듯 『가례』를 그 원리로 삼아 모든 의례를 유교식으로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 의례의 문화적 전통은 유교식으로 정착된다. 상례喪禮 역시 유교 의례의 원칙에 따라 삼년상三年喪이 일반화되고, 최의衰衣와 최상衰裳이 상복의 기본이 된다. 도암陶菴 이재李縡(1680~1746)가 발간한 『사례편람四禮便覽』(1844)에서는 『가례』에서 규정한 상복이 앞섶을 가릴 수 없다고 하여 새로운 형태의 상복을 제시할 정도로 한국식 유교의례가 발달하기도 하였다.

내용 유교식 상례의 상복은 최의와 최상으로 나눈다. 『가례』에서는 최복이라고만 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사례편람』에서 상의와 하의를 최의와 최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명확히 구분하였다. 상복은 자신을 중심으로 친소親疏에 따라 다섯 종류로 나눈 본종오복제도本宗五服制度를 기본으로 정복正服과 의복義服, 강복降服, 장기杖朞와 부장기不杖朞, 상복을 입는 기간을 구분하고, 상喪의 경중에 따라 삼베의 승수를 달리하며, 최衰, 부판負板, 적適의 부착 여부, 처가와 외가의 인척 관계에 따라서도 상복을 달리 규정하였다. 이처럼 유교식 상례의 상복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상복의 기본 형태는 최의와 최상으로 구성된다.

최상은 말 그대로 상복의 아랫도리라는 말이다. 만드는 방법은 『가례』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예서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한다. '최衰'란 꺾다, 부러뜨리다, 억압하다, 억누른다는 최摧의 의미로 슬픔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최상의 옷감은 오복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삼베이다. 최상을 만드는 법은 삼베 7폭으로 앞쪽은 3자락, 뒤쪽은 4자락으로 나누어 꿰매는데, 길이는 적당히 한다. 솔기마다 좌우에 각 1치씩 시접을 제하여 꿰매지 않고, 각 폭마다 3개의 주름을 잡는다. 4~5치 되는 베를 세로로 접어 앞뒤에 늘어뜨린 일곱 자락을 붙이고, 전후가 서로 맞닿는 곳은 조금 포갠 상태로 끼워서 꿰매어 허리를 둘러 묶어서 여밀 수 있도록 하는데, 양 끝에 작은 띠를 붙인다. 뒤쪽 띠는 짧고, 앞의 띠는 길어 두 번 돌려서 앞에서 묶도록 한다. 여자의 최상은 배 6폭을 어긋나게 잘라 12폭을 만들고, 심의深衣의 치마처럼 만들어 최의에 꿰매어 붙인다. 그러므로 여자의 최의에는 대하척帶下尺과 임衽이 없다.

특징 및 의의 최상은 고인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옷감을 달리한다. 주로 베를 사용하는데 오복제도에 따라 베의 굵기가 차이가 있다. 참최斬衰, 재최齊衰, 시마緦麻, 대공大功, 소공小功 순으로 마전하지 않은 굵고 거친 마포부터 아주 곱게 누인 베를 사용하여 최상을 만든다.

참고문헌 家禮,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沙溪全書, 四禮便覽, 朝鮮王朝實錄, 상복용어 중 제쇠의 한글표기 문제(이동후, 동양예학6, 동양예학회, 2001), 유교 상례복의 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조우현, 대한가정학회지32-4, 대한가정학회, 1994),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김시덕(金時德)

최의
衰衣

정의 전통 유교식 상례에서 상주가 입는 상복의 윗옷.

역사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최복을 입지 않고는 손님을 접견할 수는 없다無衰衣者 不以見賓."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기원전부터 상복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흰색 상복을 입는다."라는 기록은 있으나 그 모습은 자세하지 않다. 985년(성종 4) 오복제도五服制度를 규정하고, 1290년(충렬왕 16) 성리학과 함께 주자朱子(1130~1200)의 『가례家禮』가 소개되어 성리학적 일생의례가 알려지게 되었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오복제도를 개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군관들의 삼년상은 폐지했다.

조선시대가 되면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가례』를 기본으로 한 유교식 의례를 시행한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유교식 의례를 국가의 의례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례의 문화적 전통은 유교식이 되었고, 유교식 삼년상과 함께 최의衰衣와 최상衰裳은 상복의 기본이 되었다. 도암陶菴 이재李縡(1680~1746)가 지은 『사례편람四禮便覽』(1844)에서는 『가례』에서 규정한 상복이 앞섶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복을 제시하여 한국식 상복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내용 유교식 상례의 상복은 크게 최의와 최상으로 나눈다. 『가례』에서는 최복衰服이라고만 하였으나 『사례편람』에서 최의와 최상으로 구분하여 상의와 하의로 구성됨을 분명히 하였다. 최의를 만드는 법은 남녀가 동일하나 여자의 최의에는 대하척帶下尺과 임衽이 없고, 최상을 최의에 붙이는 것이 다르며, 이것을 의상衣裳이라고도 한다. 상복은 고인故人과의 친소親疏에 따라 본

종오복제도本宗五服制度라 하여 기본적으로 다섯 종류이지만, 여기에 정복正服과 의복義服, 강복降服, 상복을 입는 기간(3년, 1년, 9개월, 3개월 등), 장기杖朞와 부장기不杖朞 등을 합하면 상복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또한 상복의 경중에 따라 삼베의 승수를 달리하기도 하고, 최衰, 부판負板, 적適의 부착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한다. 그리고 처가와 외가 등의 인척관계에 따른 상복도 달리 규정하였으므로 유교식 상례의 상복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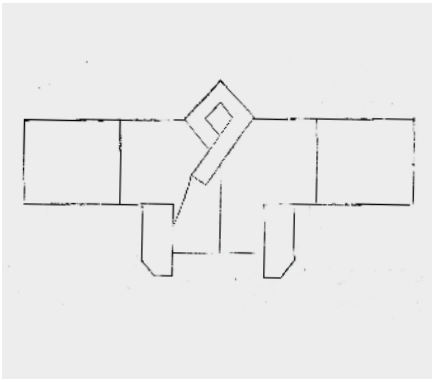
최의衰衣는 말 그대로 상복의 윗도리[上衣]라는 말이다. 만드는 방법은 『가례』를 기본으로 한다. '최衰'란 꺾다, 부러뜨리다, 억압, 억누른다는 최摧의 의미로 슬픔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최의의 옷감은 이를 상징하는 거친 삼베를 사용한다.

이재는 『사례편람』에서 그 당시 전해오는 최의를 만드는 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는 새로운 마름법을 제시하였다. 6자 8치의 베 2폭의 가운데를 접어 앞뒤가 각각 3자 4치가 되게 한다. 양쪽 어깨 위에서 각각 5치를 잘라 들어가 등솔을 합해 곧게 꿰매고, 시접을 1치씩 제하여 8치의 정복이 되게 한다. 최의의 길이 양쪽의 가운데를 접은 곳으로부터 소매를 붙일 2자 3치 아래를 남겨 앞뒤 2자락을 포개어 좌우 각각 8치를 가르고 1자 4치를 남겨서 뒤집어 접어 길 아래까지 잘라나간다. 이어 질대絰帶 너비를 제하고 그 아래 1자 정도의 길이로 대하척을 붙인다. 또 2자 5치 베 한 폭을 어긋나게 잘라 각각 양쪽에 붙여 옷깃을 만든다. 너비 8치의 베 한 가닥으로 목 뒤에서부터 접어 앞으로 돌려 어깨 좌우에 붙이고 양쪽 옷깃에 끼워 꿰매어 영領을 만든다. 4자 6치 베 2폭을 반으로 접어 옷 길의 좌우에 꿰매 붙여 소매를 만든다. 소매 끝에 1자를 꿰매 붙여 소매부리를 만든다. 베 네 가닥으로 내외금의 양쪽, 옷 바깥쪽 오른쪽 겨드랑이 밑, 옷 안쪽의 왼쪽의 겨드랑이 밑에 붙여서 옷고름으로 삼는다. 양쪽 어깨에 사방 8치 크기의 적適, 왼쪽 가슴에는 길이 6치, 너비 4치의 최衰(눈물받이)를 붙이고, 등에는 사방 1자 8치의 부판을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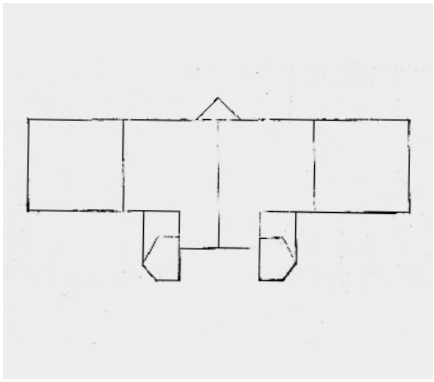
특징 및 의의 최의의 특징은 오복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재질을 보면 참최斬衰에는 누이지 않은 매우 거친 생포生布를 쓰는데, 흉하고 칙칙한 빛깔이 참최복을 입는 사람의 얼굴 역시 비통하여 그런 빛을 띠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최齊衰에는 모시풀[枲]처럼 의혹의 빛이 돌기에 그 다음으로 거친 시마枲麻를 사용한다. 대공은 애통하여 기쁜 빛이 없으므로 조금 거친 누인 베를 쓴다. 소공小功은 풀이 죽은 것 같기에 조금 고운 누인 베를 쓴다. 시마緦麻는 애통의 용모만 있으면 되므로 아주 고운 누인 베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양 역시 대공복 이하의 최의에는 적, 부판, 벽령을 부착하지 않는다. 솔기를 꿰매는 방법 역시 참최복의 최의는 솔기를 밖으로 내어 꿰매지만, 재최 이하의 최의는 솔기를 안으로 접어 꿰맨다.

참고문헌 家禮, 國朝五禮儀, 經國大典, 沙溪全書, 四禮便覽, 朝鮮王朝實錄, 상복용어 중 재최의 한글표기 문제(이동후, 동양예학6, 동양예학회, 2001), 유교 상례복의 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조우현, 대한가정학회지32-4, 대한가정학회, 1994),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김시덕(金時德)



새로운 최의전후도 | 사례편람 | 국립민속박물관





최의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추석빔

정의 추석 명절에 새 옷으로 단장하여 입는 명절 옷.

개관 추석빔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옛 선비들의 문집에는 추석의 달[月]과 관련된 시문詩文이 중심을 이루고, 후대에는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강강술래를 한다는 놀이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추석 역시 큰 명절이기에 새로운 옷을 입었겠으나 '추석빔'은 근대국가에 들어서면서 생긴 용어인 듯하다. 추석과 옷감이 관련된 내용을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 유리왕조儒理王條에 실린 32년(유리왕 9)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왕은 육부六部를 정한 후, 이를 두 패로 나누어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편을 짜고 7월 기망旣望(16일)부터 날마다 육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했다. 을야乙夜에야 일을 파하게 하고 8월 보름에 이르러 그 공功의 다소에 따라 진 편에서는 주식酒食을 마련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모두 가무와 온갖 놀이를 하니 이를 가위[嘉俳]라 하였다. 이 때 진편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춤추며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였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 아름다웠으므로 후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인연으로 노래를 지어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

이 이야기에는 음식, 가무, 놀이 등이 등장하며, 또한 여성 축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는 적마績麻, 곧 길쌈 대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록 추석빔과의 관련성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옷을 위한 옷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삼농사의 풍년을 기리는 의미도 함유되었으리라 본다.

내용 우리에게는 거의 다달이 명절이 있지만 명절옷을 각별하게 입는 날은 설날과 단오, 그리고 추석이다. 이 때 입는 옷을 설빔, 단오빔, 추석빔이라고 한다.

설빔을 설비음이라고 하듯 단오빔은 단오비음이라고도 한다. 설빔도 화려하지만, 단오장端午粧이 있을 만큼 단오 때에는 호사스럽게 치장한다. 신윤복의 풍속화 <단오풍정端午風情>에서도 단오장을 상상할 수 있다. 근대국가에 들어서는 단옷날 대표놀이인 그네를 주제로 1941년에 만든 동요 <그네>(김말봉 시, 금수현 작곡)의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 "라는 노랫말에 단오장이 나타난다.

단오에는 세모시를 비롯하여 명주실로 얇게 짠 갑사甲紗와 같은 옷감으로 지은 단오빔을 입는다. 그러나 '추석빔'은 두 명절빔에 비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추석빔의 사전적인 해석은 추석날에 새로 갖추어 입는 옷이나 신발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추석빔으로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뿐 아니라 버선, 그리고 신발에 이르기까지 일습을 갖춘다. 추석빔은 설빔이 그렇듯이 추석과 비음이란 말이 합쳐진 말이다. 원래 비음은 명절이나 잔치 때 새 옷으로 치장하는 일을 일컫는 말인데 '비음'이 줄어서 '빔'이 되었다고 한다. 추석빔은 추석에 새 옷을 차려입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 뜻이 점차 변화되어 추석 명절에 입는 새 옷을 일컫는 말로 쓰였을 것이다.

추석빔은 명절 옷일 뿐 아니라 계절을 가늠하는 옷의 의미를 지닌다. 단오빔이 여름철 옷의 분기점이라면 추석빔은 가을철, 그리고 이어지는 겨울철 옷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추석 무렵은 가을옷과 겨울옷을 준비할 시기이다. 추석빔은 단오 때와 달리 두터운 비단이나 무명 옷감이 쓰였다. 설 명절에 여자들은 노랑 저고리 또는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로 호사하는 반면, 항간巷間에는 추석에 '분홍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는다는 말이 있다.

정학유丁學游(1788~1855)의 <농가월령가>에 "초록 장옷에 반물치마(남빛 치마) 차려입고 …… "라는 구절句節이 나오는 걸 보면 항간의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또한 "명주를 끊어 내어 추향에 마천하여 쪽 들이고 잇들이니(남빛과 빨강으로 물을 들이니) 청홍이 색색이라 …… "라는 구절도 있다. 이렇듯 추석빔은 예전부터 있었고, 설빔이나 단오빔 못지않게 화려한 색깔의 명절 옷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추석빔은 추석을 맞아 입는 명절 옷이면서

일상의 옷과 구별되는, 신성한 의례복이다. 특히 수확기를 맞이하여 풍성함을 상징하면서 계절의 분기점을 알리는 옷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農家月令歌, 三國史記,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1000가지(이재운·박숙희 편저, 예당, 2013), 축제와 여성(김명자,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필자 김명자(金明子)

출토복식
出土服飾

정의 시신과 함께 묻힌(매장埋葬) 껴묻거리 중 이장移葬할 때 수습된 복식류.

개관 '출토복식出土服飾'이라 함은 엄밀하게 구분하면 무덤에서 나온 의류衣類로서 시신에 입혔던 수의壽衣, 관棺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넣었던 보공물補空物, 시신을 쌀(염殮)때 쓰였던 염습구殮襲具, 이 외에 장례의식에 쓰는 치관구류治棺具類까지 포함하여 넓게 '출토유물出土遺物'로 통칭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수의襚衣·壽衣·복의復衣·의衣'로, 현지조사에서는 '수의·머능 옷·저승 옷·시집갈 옷·죽음에 옷·호상 옷'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 학술용어나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는 '수의'이다. 수의는 죽은 자가 입고 가는 입성거리(복식服飾)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이는 인간이 현세現世 삶의 터전으로 유한有限한 '이승'과, '영생불사永生不死한다'는 무한無限의 세계인 '저승'을 믿고 살아온 삶의 보상물로서의 값어치 때문이다.

따라서 "저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차려 입었던 비단옷을 입고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의례儀禮나 평소에 입었던 입성거리처럼 시대·계층·장소에 따라 종류·모양·크기·바느질·색·무늬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자부터 속옷·겉옷·버선·신에 이르기까지 쓰고, 입고, 신는 것들을 모두 갖추었다. 또한 형편에 맞게 가장 최상의 것들로 갖추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승에서 최상의 것인 '혼례복婚禮服'이 출토복식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한 자료로 조선 전기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상례비요喪禮備要』, 후기에는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이 있다.

출토복식은 1963년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딸인 청연군주淸衍郡主(1754~1821)와 남편 김기성金箕性의 합장묘 출토유물이 정리되며 자료로서 구실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도로와 주거지 개발로 인해 무덤이 이장되면서 발견되었으며, 1981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石宙善紀念博物館에서 '경기도 과천 출토 광주 이씨 수의 특별전'을 하면서 학문으로서 연구가 시작된다. 2017년 6월까지 발표된 묘주별 출토복식은 199건으로 현재 한국에서 발표되는 출토복식 분야 연구는 주로 피륙(직물織物)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식사와 보존처리 두 부류이다. 이는 그림이나 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연구에 가장 정확한 자원이 되고 있다.

내용 조선시대 매장법埋葬法은 세 가지 차례를 걸친다. 첫째, 시신에 옷을 입힌다. 둘째, 관 속에 염殮한 주검을 넣는다. 마지막으로 빈 곳에 평소에 입던 옷이나 피륙 등 아끼던 것들을 보공물로 채워 넣는다. 옷들은 수의를 입힌 시신을 다시 싸는 데 쓰기도 하고, 잘 개어서 넣기도 한다. 시신을 싸거나 개어서 넣을 때는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고리나 윗옷은 머리나 위쪽에, 치마나 바지 등 아래옷은 아래쪽에 넣었다. 이렇게 보공을 넣는 이유는 민속조사에 나타난 사례로 보면 '저승 가서 입을 옷'임과 동시에 "관이 비면 운구運柩할 때 시신이 뒤틀리고 이때 시신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후손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드물지만 서간류書簡類·문방구류·약재·자기류·장신구류 등도 있다.

이장할 때 보면 시신이나 보공물이 깨끗이 썩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후손이나 작업자가 전문가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출토복식이 발굴·조사·연구된다. 이장은 대부분 후손들이 하지만, 무연고나 유실묘遺失墓일 경우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게 된다. 어떤 경우이건 연결됐을 때는 대부분 일처리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분묘가 현 세태에 이끌려 사라지면서 중요한 자산이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출토복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관 속에서 나오

는 옷이나 보공물은 시대나 신분에 따라 다르지만, 옷 가지는 보통 20~50여 벌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출토복식 중 가장 많은 점수가 파악된 것은 1963년 경기도 광주에서 수습된 청연군주 복식으로 총 117점이다. 옷감은 상류층에서는 각종 비단을 비롯하여 명주(주류紬類)가 많으며, 드물게 무명이나 삼베·모시도 보인다. 색은 구별이 어려운데 남색을 제외한 대부분은 낙엽이 든 것처럼 누런색(상색緗色)이나 갈색褐色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무덤에서 나온 옷들을 보면 시기에 따라 종류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국開國 200년 후에 겪은 임진왜란(1592)이나 정유재란(1597), 병자호란(1636)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오던 의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포류袍類와 속옷(친의류襯衣類)이 달라졌다.

1. 성별에 따른 출토복 종류: 출토복 중에서도 수의를 간추리면 남녀로 성별을 구분하여 머리에 쓰는 것, 입는 것, 신는 것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남자 것으로 첫째, 머리에 쓰는 것은 복건福巾·사모紗帽·육합모六合帽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복건이고, 사모는 드물게 관직자에게 나타난다. 둘째, 입는 것은 표의表衣·중의中衣·내의內衣로 나뉜다. 표의는 포류로 가장 겉에 입는 큰 옷이며, 의례와 신분을 상징한다. 관직자는 단령團領을 입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심의深衣와 도포道袍이다. 1900년대 이후 두루마기(주의周衣)가 일반화하면서 심의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도포도 유가儒家나 반가班家 후손들에게 남아 있었으나, 1950년대 이후는 대부분 두루마기 하나로 통일된다. 중의란 표의와 내의 중간에 입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저고리와 바지 등이 해당된다. 중의용 포류에는 철릭[帖裏]·직령直領·액주음腋注音·장의長衣·창의氅衣·중치막中致莫이 있다. 이 중 철릭이나 직령은 관직자용이다. 액주음은 임진왜란 이후 없어지고, 대신 창의류가 나타나 관직자와 일반 공용으로 쓰였다. 내의는 가장 속에 입는 '살붙이 옷'이며 홑으로 만들었는데 상의와 하의로 나뉜다. 상의는 적삼赤衫이며, 하의는 바지류로 조선 전기에는 남녀 공통으로 나타난다. 밑이 막히면서 가랑이가 넓은 것과 밑이 트인 바지인 개당고開襠袴가 있다. 개당고에는 바지의 부리가 넓으면서 밑이 트인 것과, 부리가 좁으면서 트인 것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 남녀가 입는 것이 달라지는데 남자 것은 지금처럼 사폭이 있는 고의袴衣로 고정된다. 셋째, 신는 것으로 버선과 신이 있다. 버선에는 솜을 넣었으며 무명이나 삼베로 하였다. 신은 주검용으로 새로 만들거나 평소에 신고 다니던 것을 사용하기도 하며, 드물게 목화木靴꼴도 있다. 재료는 대부분 비단이나 한지韓紙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를 겸하여 만들기도 한다.

여자 것으로 첫째, 머리에 쓰는 것은 특별한 명칭이 없이 '여모女帽'로 통칭되며 남자 것이 평상시 모자의 역할을 한다면, 여성용은 주검에만 쓰이는 것으로 매우 드물게 족두리 꼴(형태·모양)도 있어 일정하지 않다. 둘째, 입는 것으로 표의에서 특히 포는 남성용이 시대나 계층에 따라 다양한 데 비해 여성은 단순하다. 조선 전기에는 장의長衣가 드물게 있는 반면에 옆이 트이고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저고리'가 많으며, 원삼圓衫은 중기 이후 나타나고 있다. 매우 드물게 단령도 보이는데 남성이 쓰던 관복冠服과는 바느질이나 꼴 및 틀(구성構成)이 매우 엉성하다. 중의로는 저고리류와 치마류가 있으며, 남성에 비해 종류와 모양이 다양한 편이다. 원삼이 표의로 나오는 영조英祖 대부터 당의唐衣도 보인다. 남성의 것은 포류가 많은 반면, 여성의 것으로는 삼회장·반회장·민저고리 등 저고리류가 많다. 삼회장에는 다양한 무늬로 만든 것이 많으며, 직금織金이나 금박金箔도 있다. 치마는 겉과 안에 입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겉치마 중에서도 예복용은 앞쪽이 걸음걸이(보행步行)에 지장이 없도록 짧게, 뒤는 앞에 비해 30㎝ 정도 길어 끌리도록 하였다. 또 길이의 중간과 밑단 끝에 넣을 무늬를 옷감에 직접 직금하거나, 직금한 단段을 덧대기도 하였다. 내의류內衣類에도 상의와 하의가 있다. 상의로 입는 내의는 홑으로 만든 적삼이며, 다른 옷에 비해 단순하다. 중기 이후부터 가슴싸개가 나오는데, 이는 저고리의 길이가 짧고 품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하의는 조선 전기에는 남성용과 같았으나 임진왜란 이후는 속속곳과 가랑이가 밑이 트인 바지(개당고), 단속곳을 기본으로 한 여성 전용全用으로 정착된다. 셋째, 신는 것은 신과 버선이 있다. 버선은 솜버선이며, 신은 염습용으로 한지나 비단 등으로 만들었다.

염습구는 옷을 입히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시신을

관 안에 넣기까지 사용되는 물건이다. 즉, 시신을 싸고 묶을 때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남녀 공통으로 얼굴을 가리는 멱목幎目, 손을 감싸는 악수幄手,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넣는 작은 주머니 다섯 개(오낭五囊)가 나온다. 오낭에는 드물게 이빨(치아齒牙)도 보인다. 모든 옷을 입힌 다음 시신을 싸는 작은 이불인 소렴금小殮衾과 큰 이불인 대렴금大斂衾, 관 안의 바닥에 까는 자리(석席)와 지요, 베개가 있다. 또 염을 한 다음 관 안에 넣고 뚜껑을 닫기 전에 시신의 제일 위에 덮는 천금天衾 등이 있다.

치관구류에는 관 뚜껑의 표면에 까는 명정銘旌과 관의 우측 상부에 상하로 나란히 올려놓는 폐백幣帛, 관위를 덮고 옆을 싸는 구의柩衣, 관 안쪽 내벽內壁을 배접하는 종이나 옷감, 외곽外槨과 내관 사이에 넣는 삽(운雲·아삽亞翣) 등이 있다. 치관구류와는 별개이지만 묘주의 이력과 매장에 대한 내용을 적은 지석誌石 등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문이나 족보와 더불어 묘주의 인적 사항을 아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출토유물 보수 및 보존: 유물이 학문적인 구실을 하려면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출토복식에서는 필수조건이다. 이는 대부분의 출토복식이 땅속의 관 안에서 시신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자연발생 현상으로 옷감의 부식으로 1차 오염되고(시즙이염屍汁移染), 이장 당시 상황에 따라 흙이나 풀 등이 첨가되어 2차 오염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신이 함께 나왔을 때 유물은 처리자들에 의해 대부분 파괴된다. 따라서 보존처리는 1차와 2차 때의 오염과 오물 유입 처리와 함께 이장 때 상한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다. 이 때문에 출토복식 정리라 함은 1차로 유물을 수습하고 연구 자료가 되기까지이며, 2차 단계는 유물을 이용한 새로운 자료의 응용과 개발까지 포함되어야 함이 전제前提이다.

1차 연구 자료가 되기까지는 다음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유물 수습에서부터 분리 및 분석, 오물 1차 처리(표면 정리), 부분(모양) 맞추기, 오물 2차 처리(세척·약품), 건조, 훈증소독(1차), 모양 정리(구김 펴기), 보수(수리), 마무리 1차 기록 정리(치수·사진), 훈증소독(2차), 유물보관, 2차 기록 정리(자료 작성: 보고서·



출토복식 보존처리 과정 |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지·도록 발간), 학술 발표·복제複製·전시展示까지이다. 이 과정은 생략 또는 추가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며, 시설 및 전문연구자의 구성이나 역량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다.

유물은 일괄처리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보존처리가 쉬운 것만을 골라 하거나 전시나 공개 자료도 좋은 것 위주로, 심지어 '지정자료'도 일부만 등록하는 일이 있다. 작은 부분이나 보수 또는 보관처리가 어렵다하여 제외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실오라기, 피륙 한 조각, 떨어진 깃의 일부나 옷고름, 바늘땀 하나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건져 내고 정리해야 한다. 이 작은 것들이 확실치 않은 묘주의 신분이나 시대상은 물론 가문의 상황까지도 추적하는 실마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

3. 출토 지역 및 출토 연도와 소장처: 2017년 6월까지

발표된 묘주별 출토복식은 199건으로 남자 101, 여자 97,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 1건이다. 출토 지역 및 출토 연도와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분포 현황은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전라·경상 각지에서 나타난다. 출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3건을 제외하고, 총 196건 중 경기 77, 충청 54, 경상 32, 전라 17, 서울 12, 강원 3, 인천 1건이 있다. 경기 지역이 가장 많고, 이어 충청도, 경상도 순이다.

둘째, 출토 연도로 보면 1941년 경기도 시흥에서 출토된 동래 정씨東萊鄭氏(?~1583)가 최초이며, 1950년대 1, 1960년대 14, 1970년대 12, 1980년대 30, 1990년대 38, 2000년대 73, 2010년대 22, 그 외 출토 연도를 파악할 수 없는 9건이 있다.

1963년 경기도 광주에서 청연군주 합장묘에서 나온 유물은 큰 호기심과 함께 출토복식에 대한 인식이 싹트는 계기가 된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1980년대 이후 국토개발 및 아파트 건립과 더불어 발굴이 늘어나며, 1990년대는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면서 주로 박물관에서 다루게 된다. 2000년대 73건으로 가장 많은 발굴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0년대 22건으로 현재까지 발굴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출토복식을 소장한 기관은 국공시립박물관, 국가나 시 소유, 연구소,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개인, 문중 등이 있다. 이 중 청연군주 등과 같이 한 사람의 묘에서 발굴된 출토복식을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 기록도 있다.

국공시립박물관은 19개 기관에 70건이 소장되어 있다. 경기도박물관 15, 국립민속박물관 10,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과 대전선사박물관이 각 9, 국립대구박물관과 옛길박물관이 각 5, 수원박물관 3, 국립중앙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 각 2, 국립광주박물관·여주박물관·소수박물관·울산박물관·의병박물관·인천광역시립박물관·충주박물관·국립청주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충장사유물전시관에 각 1건씩 있다.

국유國有는 1건으로 충북대학교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소 2건은 경기문화재연구원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각 1건이다.

대학박물관은 14개 기관에 89건이 소장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55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대학교박물관 13, 안동대학교박물관 9, 고려대학교박물관 5, 건국대학교박물관·세종대학교박물관·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각 2, 강원대학교박물관·경북대학교박물관·공주대학교박물관·동아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영남대학교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 각 1건씩이다.

사립박물관은 6건으로 온양민속박물관 5,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1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문중 11, 개인 4건이 있다. 일부는 국공립박물관 또는 대학박물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 발굴된 것 중 매장 연대가 가장 이른 묘주는 이계윤李季胤(1431~1489)이고, 가장 늦은 묘주는 여흥 민씨驪興閔氏(1899~1933)이다. 생몰연도가 정확한 출토건 중에서 몰년沒年 기준으로 시기별로 1500년대 29, 1600년대 48, 1700년대 22, 1800년대 9, 1900년대 2건이 있다. 연고가 없는 묘[無緣墓]이거나, 묘주의 생몰연도를 알 수 없는 것은 족보나 현재까지 연구된 복식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다. 그러나 성별이나 시대구분에 더러 혼선이 있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4. 유물 정리의 한계점: 출토복식이나 유물을 정리하는 나타나는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물의 용도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이 각 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발굴 초기에는 인식의 부족으로 옷 외의 유물은 수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 수습했다 하더라도 염습제구, 보공품, 치관제구를 용도별로 분류하지 않고 명칭과 수량만 정리하였다. 이후 발굴이 계속되고 연구방법이 심화되면서 이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용도별로 유물을 구분한 이후에도 소장처마다 분류 기준이 모호模糊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은 유물의 수습 과정에서부터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즉 출토복식을 수습할 때 처음부터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경우가 있기도 하나, 대부분은 이미 이장이 끝난 상태에서 땅에 묻거나 버려진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용도별 구분은 가능하지만 명확한 용도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미라화된 시신이 발굴되었을 때 그 염습상태가 양호하면 그대로 다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출토된 유물 전체가 아닌 보공품과 치관제구만 수습되기도 한다.

둘째, 유물의 내역 및 명칭이 연구 성과에 따라 변화된 것이다. 출토유물을 정리할 때 제일 먼저 쓰는 항목이 명칭인데 이는 유물 정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명칭은 유물이 사용 당시 명칭을 알 수 없을 때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차츰 경험과, 유물이 많아지면서 정정·보완되고, 명칭도 수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포류 중에서도 단령團領을 초기에는 단순히 포로 지칭指稱했으나, 깃의 '둥금(원圓)'과 '곧음(직直)'에 따라 분류시키고 있다. 또한 '창의류'라고만 하였던 것이 현재는 소매너비·무·트임 등을 기준으로 대창의, 소창의, 중치막으로 구별하고 있다.

셋째, 수량을 파악하는 데도 연구자와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혼동은 유물의 수량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차이다. 이는 틀(조組) 중에서도 2개가 한 틀이 되는 버선·신·행전 등과, 5~6개가 한 틀이 되는 오낭五囊같은 것이다. 더욱이 단령에 다는 흉배胸背가 붙어 있을 때 몇 개인가, 또 단령과의 관계도 문제이다. 이를 단령 한 점으로 보고 비고란에 '흉배 한 점(쌍) 부착됨'으로 정리하는가 하면, 단령과 흉배를 각기 독립된 자료로 보고 두 점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 물론 한 점씩 따로 처리하면 전체적인 수치 파악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비전문인이 볼 때 특별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한 틀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특징 및 의의 복식사服飾史를 공부하면서 조선시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문헌·그림·복식·민속조사 등이다. 그중 출토복식은 복식의 형태·구성·바느질법·옷감의 재질과 무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피장자彼葬者의 신분이나 생몰연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복식의 시대별 변화를 파악하는 데도 명확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문헌이나 그림 자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연구에 1차 자료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토복 자료를 정리하여 학술지(연구지), 도록 발간 및 공개·전시·학술 발표까지 하는 것은 유물 소유자의 의무이고 도리이다.

참고문헌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임진왜란 이후 출토복 개설(고부자, 한국복식2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민속조사에 나타난 수의의 과거, 현황과 과제(고부자, 비교민속학30, 비교민속학회, 2005), 우리나라 출토복식의 발굴현황 분석(최규순, 한국복식2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조선시대 출토복식 정리현황 및 과제(고부자, 전통의생활연구4,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2009).

필자 고부자(高富子)

충정관
沖正冠

정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평상시에 썼던 쓰개.

내용 충정관沖正冠은 양관의 형태와 유사하나 양관보다는 격이 낮아 관례 전 세자의 쓰개 또는 평상시에 사용된 사대부가의 쓰개이다. 충정관은 중국 명나라 세종이 조관 평복에 착용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 그 제도가 양관과 유사하다. 『삼재도회三才圖會』에 그려진 도식에는 내관은 둥근 모체 부분에 양관처럼 선이 그려져 있다. 외관은 양옆에서 시작하여 둥근 모체를 감싸는 형상으로 뒷부분에는 계단모양의 탑처럼 생긴 두 개의 장식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 충정관은 한자로는 '沖正冠'·'沖靖冠'·'忠靜冠'·'忠靖冠'으로 표기되었고, 중국의 충정관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537년(중종 32)에 사신이 임금에게 충정관을 처음으로 보여 드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이를 상의원尙衣院 관원을 불러 모양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사신에게 구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사신이 떠나는 날 이를 선사함으로써 처음으로 충정관을 얻을 수 있었다. 조선 초기부터 인조 대 전까지의 야사를 엮은 필자미상의 『대동야승大東野乘』에는 충정건과 충정관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정상이 평편하고 모가 나며 네 귀퉁이에 모가 있는 것이 건巾이고, 정상이 비스듬하고 둥그스름하게 둘러져 귀퉁이가 없는 것이 관이라 하였다. 또한 이를 모자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 제작하라고 하여 충정관을 만드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충정관은 조선 전기부터 남자 관모冠帽의 하나로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정관의 용도는 『조선왕조실록』 1574년(선조 7)의 기록에 중국에서는 밖에 출행할 때에는 문관文官은 충정관을 쓰고, 무관은 테가 있는 털모자를 쓰고, 유자儒者는 유건儒巾, 아전은 이건吏巾을 쓰고, 상인常人은 모두 모자帽子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귀천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입자笠子를 쓰므로 많은 값을 헛되이 소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문관의 쓰개였으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용례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충정관의 사용례는 1610년(광해군 2)에 예조가 세자의 관모에 대한 논의에서 중종 때 이미 관례를 거행하기 전에 세자에게 충정관을 쓰게 했다고 하였으나 예관禮冠이 아니라 하여 당시에는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기록으로 충정관을 사신으로부터 받은 1537년(중종 32) 이후에는 세자의 관례 전 관모로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사용이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1599년(선조 32) 기록에 사대부 연거복燕居服에 충정관沖正冠·정자관·동파관·종립·사립·죽립에 심의·도포·직령·철릭·방의로 옷은 일정하지 않고 빛깔도 여러 가지라고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고금관건제도변증설古今冠巾制度辨證說에는 벼슬한 사람들이 보통 때 갓 대신 관을 쓰는데, 그 관의 종류에 정자관程子冠·주자관朱子冠·염계관濂溪冠·동파관東坡冠·충정관沖正冠 등이라 하여 다양한 관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김만중 영정 | 18세기 | 대전시립박물관

조선시대 충정관은 기록 외에 풍속화나 초상화 등에서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단 조선시대 김만중金萬重(1637~1692)의 초상화는 평상시 입는 도포를 입고 충정관과 유사한 검정색의 관을 쓰고 있다. 이 관冠은 『삼재도회』에 그려져 있는 충정관의 뒷부분 장식과 유사하고 관의 앞 중심 부분의 세부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형태로는 예단하기가 어려우나 전반적인 모양과 평상시 복장인 도포를 입고 쓴 용도로 보아 충정관과 유사해 보인다. 충정관의 사용 모습이 거의 없는 것은 조선시대 중후반 이후 사대부들의 일상적인 관모가 다양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충정관은 『삼재도회』의 도식을 통해 그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 양관의 제도와 유사하나 목잠木簪이라는 관을 가로지르는 비녀가 없고 뒷부분에는 두 개의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명나라 사신으로부터 선사받아 이후에 썼던 관모였으며, 조선 중기 이전에는 왕세자가 관례 전에 썼으나 이후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관모가 유입되면서 사대부가의 평상시 쓰개의 하나로 쓰였다. 충정관은 중국에서 유입되어 정착된 왕실 및 사대부가의 보통 때 사용된 쓰개 중의 하나였다. 조선시대 남자가 착용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三才圖會,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王朝實錄,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강순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선시대의 관모(온양민속박물관,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필자 김은정(金恩姸)

치마

정의 하반신에 천을 둘러 입는 옷.

역사 치마의 역사는 고대로 올라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치마는 여성들이 착용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예복에는 남자들도 예복용 치마인 '상裳'을 입었다. 벽화 중 쌍영총의 남자 주인공을 비롯해 남자들도 치마를 입은 모습이 일부 확인된다. 또한 조선시대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등 예복에도 상이 포함되어 있다.

고구려의 치마는 허리에서부터 치맛단에 이르기까지 곧게 주름을 잡은 양식이다.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겉으로 내어 입었으므로 치마허리의 모양은 확인할 수 없다. 치맛단에는 선을 별도로 댄 것도 있고, 별도의 선 장식을 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중에서 특이한 것은 색동치마이다. 색동치마는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양식인데, 서로 다른 색상이 세로 방향으로 연결된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치마의 양식은 백제와 신라를 포함해 삼국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에 들어 상류층 사이에서 당唐의 복식이 유행하면서 치마를 가슴 높이 올려 매어 입는 방식이 유행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토용土俑에서 저고리를 안에 넣고 치마를 가슴 높이 올려 입은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저고리를 겉으로 내어 입는 양식과 안으로 넣어 입는 양식이 공존한 것으로 보인다. 송宋의 사신인 서긍徐兢이 고려를 다녀간 후 저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고려 여인들이 황색 치마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선군旋裙'이라는 치마를 입는데, 여러 겹 겹쳐 입고 폭이 넓을수록 좋아한다고 기록하였다. 선군은 송나라 여자 복식에도 등장하는 명칭인데, 송의 선군은 앞뒤가 갈라지고 말을 탈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치마를 먼저 입고 저고리를 밖으로 내어 입는 양식으로 일원화一元化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저고리의 길이가 길었으므로 치마를 허리에 둘러 입었다. 한편 16세기에는 뒤가 길게 끌리는 예복용 치마가 있었으며, 이것은 출토유물로 확인된다. 이 치마들은 뒷자락이 바닥에 끌리고 앞은 뒤보다 짧아 바닥에 맞닿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치마 앞폭에 가로 주름인 터크tuck를 깊게 잡아 치마의 앞뒤 길이가 자연스레 차이나게 하거나, 길이가 다른 앞뒤 폭 길이 차이를 옆선에서 다트dart로 처리한 양식이다. 이러한 치마를 입게 되면 뒷 실루엣이 길고 풍성하여 우아한 멋을 보여준다. 이러한 치마 양식은 17세기 이후 유물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밖에도 출토유물 중에는 치마 아랫단에 가로로 단을 한 번 더 접힌 접음단 치마와 접음단 솜치마도 있다.

18세기 이후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치마는 길어졌다. 저고리가 점점 가슴 위로 올라가자 치마를 입는 위치도 올라갔다. 결국 저고리가 아주 짧았던 19세기에는 치마허리가 밖으로 드러날 지경이었으며, 치


① 치마 | 고구려


② 색동치마 | 고구려


③ 치마 입은 여인 | 17세기

치마 | ① 쌍영총, ② 수산리 고분, ③ 칠태부인경수연도 중 부분 | 부산시립박물관

마허리를 아무리 가슴 높이 올려 매어도 살을 다 가리기 어려웠다. 따라서 별도의 허리띠를 만들어 가슴을 가릴 정도였다. 이러한 양식은 구한말 서구식 복식의 영향으로 다시 긴 저고리가 유행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개화기에 들어 여성들이 치마를 입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치마에 대한 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활동을 방해하는 치마 길이가 발목을 드러낼 정도로 짧아졌다. 길이가 짧은 통치마가 새로이 등장해 신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하지만 여자 치마에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어깨허리의 등장이었다.

서구식 여성 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의 체조를 위해 선교사에 의해 개발된 어깨허리는 서구식 패턴을 가슴 윗부분에 달아 만들었다. 그 모양이 마치 조끼의 윗부분과 같다고 하여 '조끼허리'라고도 불렀다. 새로운 어깨허리는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는 어깨허리를 단 통치마가 여학생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신여성 사이에서만 애용되었다. 하지만 어깨허리의 편리함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로는 기존 치마허리의 착용이 익숙한 노인세대조차 어깨허리를 단 치마를 입게 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치마의 실루엣은 여러 겹 입은 속곳으로 인해 매우 부풀어져 있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상체는 꼭 끼게 하체는 풍성한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하지만 개화기 이후 여자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지고 각종 속곳이 줄어들고 고쟁이와 속치마만 입게 되면서 치마의 폭과 실루엣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복이 일상생활에서 멀어지고 예복으로만 착용되는 1970년대부터는 다시 폭이 넓은 치마가 유행하였다. 다만 조선시대와 달리 치마의 실루엣이 A자 모양이 되도록 하여 풍성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내용 치마는 여자의 하반신에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겉에 입는 것이다. 치마는 한자로 '군裙' 혹은 '상裳'에 해당되지만 조선시대 문헌에는 우리말의 음을 따서 '赤亇'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赤亇'의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 1420년(세종 2) 9월 원경왕후元敬王后 천전의薦奠儀에 처음 등장한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왕실 여인들 | 1900년대 초

우리나라의 치마 양식은 허리나 가슴에 두르는 띠 부분과 그 아래에 몸을 가리도록 덮는 치마 부분으로 나뉜다. 몸에 두르도록 하는 흰색 넓은 띠 부분은 '치마허리'라고 부른다. 치마허리는 치마폭과 연결되어 있다. 치마 너비는 원하는 옷감의 폭만큼 세로로 이어 붙인 다음 윗부분에 주름을 잡아 치마허리와 연결하여 만든다. 예복용 치마는 일상용 치마에 비해 치마를 더 넓고 길게 만든다. 치마는 연령과 용도 혹은 착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옷감과 색상이 사용된다.

오늘날은 겹치마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조선시대에는 계절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치마가 있었다. 일상용 치마는 계절별로 소재나 바느질법 혹은 손질법이 다양하였다. 여름철에는 홑치마를 많이 입었는데, 여름철 홑치마 중에서 풀을 먹인 후 다듬이질과 다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대기 위에 펴서 햇볕에 말려 손질한 치마를 '쟁치마'라고 하였다. '쟁'이란 '재양載陽'의 준말로 재양틀에 대고 꿰매거나 재양판板에 붙여 말리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쟁친다'고 하였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솜치마나 누비치마를 애용하였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는 솜치마나 누비치마는 사라지고 겹이나 홑으로 만든 치마가 보편화되었다. 겹치마는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으며, 예복용일 경우는 계절에 관계없이 겹치마를 주로 입었다. 그러나 예복용 치마 중에도 홑으로 만든 치마가 있었다. 치마의 좌우 옆선과 아랫단 등 가랑자리에 이색異色의 선을 댄 치마이며, 흔히 '선단치마'라고도 부른다.

금박을 장식한 예복용 치마는 '스란치마'라고 한다. '스란'이란 '슬란膝襴'에서 온 말로 직금織金이 무릎 부분에 오도록 만든 치마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직금이

두 군데 들어갈 경우 무릎 부분의 직금이 훨씬 넓고 아랫단의 직금은 없거나 좁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는 직금보다 금박이 많이 애용되면서 스란단을 별도의 천에 만들어 치마에 붙이는 식으로 변화되었다. 이 경우 스란단을 가로로 두 단을 댄 것은 '대란치마'라고 하였는데, 직금 치마와 마찬가지로 무릎 부분에 댄 장식단이 아래에 더 넓은 것이 특징이다. 스란단을 댄 치마들은 내외명부內外命婦와 같이 상당히 높은 신분의 여성만이 입을 수 있었으며, 그중에서 대란치마는 왕비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한편 궁중복식 중에는 예복 위에만 덧입는 '웃치마', '전행웃치마' 등의 의례용 치마가 있다. 웃치마는 다른 치마보다 길이와 폭이 좁지만 무릎 부분에 금박단을 장식한 것이다. 궁중정재에서 여기女妓들이 착용한 것이 궁중기록화에서 확인된다. 전행웃치마는 왕비나 왕대비 등 왕실 여인들이 대례복을 입을 때 착용했던 치마이다. 치마허리에 주름을 곧게 잡은 세 자락을 연결한 것이다. 착용하면 뒤로 위치하게 될 좌우의 두 자락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길이이며, 앞자락은 바닥과 가지런할 정도의 길이로 만들었다. 전행웃치마에도 금박장식이 되어 있다.

반면 서민들은 폭도 좁고 길이도 짧은 치마를 입었다. '두루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행에 지장 없도록 짧기 때문에 발목 부분에서 속곳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일할 때는 신분에 관계없이 '행주치마'라고 부르는 흰색 앞치마를 입었다. 허리에 둘러 입으며 치마 뒷부분을 여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치마보다 폭이 좁고 길이도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올 정도로 짧았다. 행주치마는 보통 무명이나 삼베로 만들지만 상류층 사이에선 모시로 만든 것도 있었다. 또한 '쓰개치마'는 치마의 폭을 좁게 만들어 여성의 내외용 쓰개로 활용한 것이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남녀에 관계없이 치마를 많이 입혔는데, 이를 '두렁치마'라고 한다. 배탈이 나지 않게 덮어 주기 위한 목적이며, 누비로도 만들었다.

치마의 색상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치마의 색상은 처음에는 비교적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고 황색 치마도 애용된 편이지만, 후기로 갈수록 색상은 청·홍 두 색상 위주로 단순화되었다. 홍색 치마는 주로 미혼 여성이나 새댁이, 청색 치마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일상에도 입었고 특히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에 애용하였다. 옥색 치마는 제삿날에도 입지만 평상시에 입어도 무방하였고, 노인용이나 여름철 색상으로 애호되었다. 왕실 여성들은 자색 치마도 즐겨 입었다. 흰색 치마는 여름철 치마로 신분에 관계없이 즐겨 입었지만 검은색 치마는 선호되는 색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민들은 일할 때 검은색 치마를 입어 쉽게 치마의 오염이 드러나는 것을 피했으며, 강원도 강릉 등 일부 지방에서는 혼수로 검정 치마를 준비해 부엌일을 할 때 착용했다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치마는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여러 겹의 속곳을 받쳐 입었으나 속치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속치마로 활용된 치마에는 '대슘치마'나 '무지기치마'가 있는데, 이들은 궁중이나 양반들의 예장용이었을 뿐 평상시에 입는 옷은 아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치마는 둘러 입는 형식으로 신체치수에 비교적 구애를 덜 받는 편이었다. 옷감도 직사각형으로 재단되므로 치맛감은 때로는 이불이나 요의 옷감으로 용도가 변경되기도 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참고문헌 금선단 치마 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문경새재박물관, 민속원,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홍나영(洪那英)

치자
栀子

정의 꼭두서니과에 속한 치자나무의 열매로 황색 염색에 쓰이는 염료.

내용 치자란 중국 고대의 술병과 모양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열매의 모양과 색에 따라 다양하게 부른다. 치자의 열매가 둥근 것을 산치자, 긴 것을 수치자, 붉은 것을 홍치자, 노란 것을 황치자라고 한다. 황치자


치자


치자로 염색한 비단

치자 | 국립민속박물관

는 전통적으로 음식에 노란색을 낼 때 식용 색소로 사용하였다. 치자의 색상은 주홍색빛을 띠는 노란색을 나타내며, 그중 열매를 이용하여 염색에 사용한다.

치자나무의 학명은 Gardenia jasminoides J. Ellis이며, 꼭두서니과Rabiaceae에 속하는 상록활엽관목이다. 높이가 2~3*m*이며, 6~7월에 흰색 꽃이 피고 독특한 향기가 아주 짙다. 열매는 9~10월에 맺으며 처음에는 푸른색을 띠다가 익으면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이것을 황색계 염료로 쓴다.

『본초강목本草綱目』(1596)에 나온 치자에 관한 기록은 "그 열매를 따서 즙을 내어 그 물을 물체에 물들이면 곧 붉은 흙색과 같은 빛이 날 것이다." 또는 "열매로써 물들이는데 자홍색이다其實染物則紫紅色."라고 기록되었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동염凍染'이라 하여 다양한 염료가 기록되었다. 또한 명주·비단·면직·삼베 등에 염색할 수 있으며, 면·삼베보다 명주와 비단에 염색이 잘된다고 쓰여 있다.

참고문헌 本草綱目, 林園經濟志, 염료식물재배 및 염직물 제작에 관한 연구(김지희, 교육부지원 지역개발과제, 명인문화사, 1993), 한국전통식물염색(김지희, 영남전통식물염색보존회, 1993).

필자 김지희(金芝希)

치포관
緇布冠

정의 검은색 베로 만든 관.

내용 치緇는 '검은색', 포布는 '베'를 의미하므로 치포관緇布冠은 본래 검은색 베로 만드는 관을 가리키나 송대宋代에 재료를 두껍게 배접한 종이[糊紙]나 오사烏紗를 쓰면서 '포'를 빼고 '치관緇冠'이라고도 했다.

치포관緇布冠은 중국 상고시대上古時代인 요堯·순舜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지는 관모로, 수많은 복식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형태 및 착용 상황 등에 관해 고대의 예서인 『의례儀禮』「사관례士冠禮」부터 기록되었고, 송대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치포관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상투만을 덮는 상투관의 일종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허전許傳(1797~1886)이 머리 전체를 덮는 독립된 관모로 바꾸었다. 허전의 저작인 『사의士儀』에 도식圖式이 있고,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된 초상화에 방령심의方領深衣와 함께 착장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상고시대에 치포관은 재계할 때 쓰던 관[齋冠]이었다. 이는 평상시에 백포관白布冠을 쓰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후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에 치포관은 쓰지 않다가, 주에서 한漢에 이르는 시기에 다시 부활하여 성인식인 관례冠禮의 초가관初加冠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나 관례복에 쓰인 것은 사士 이상의 신분에 국한하는 것이었고, 서민들은 이를 평상시에 쓰는 상관常冠으로 착용하였다. 또 한대漢代 이후에는 치포관이 '치포진현관緇布進賢冠', '진현관' 등으로 변형되어 관원들의 복식에 수용된다. 송대에는 치포관, 복건幅巾, 심의深衣 차림으로 연거복燕居服(모든 공직을 떠나 한가로이 사는 사람이 입는 옷)으로도 착용된다. 송대의 용도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관례복과 연거복으로 쓰이는데, 연거복으로 착용하는 범위는 송대에 비해 훨씬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복건뿐만 아니라 사방건四方巾이나 정자관程子冠 안에도 받쳐 쓰고, 심의 이외에 다른 포袍 종류의 옷에도 쓰기 때문이다. 또 제사를 드릴 때[吉祭]에 착용하기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관례복, 연거복, 제례복祭禮服의 용도는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유교 관련 행사에서 착용한다.

고대의 예서에서 보인 치포관은 상투를 감싸는 작은 형태였고, 본체와 부속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본체는 관冠과 무武로 구성된다. 관은 정수리를 덮는데, 세로 방향으로 주름[襞積]이 잡혀 있다. 그 아래에 무가 있는데, 상투머리 밑동을 둘러싸는 역할을 한다. 부속구는



허전 초상 | 19세기 후반 | 경기도박물관

규항缺項, 규缺와 관끈[纓]으로 구성된다. 규항은 한 가닥의 끈으로 만들어 머리 전체에 둘러 본체를 머리에 고정한다. 규항의 네 귀퉁이에 작은 끈[綴]을 매어 무에 연결하고, 작은 고리[緇]를 만들어 끈[繩]을 꿰어 뒷목[項]에서 묶는다. 또 푸른색 끈목으로[靑組] 관끈을 만들어 규항에 묶어 턱 앞에서 맨다. 이러한 형태의 치포관에는 비녀를 쓰지 않았다.

송대에는 모양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서 규항과 관끈을 없애고, 간편하게 양梁이 있는 관 부분과 무로 구성되며, 무에 비녀[笄]를 꽂았다. 이는 치포관이 관례복뿐 아니라 연거복으로도 쓰이면서 좀 더 간단한 형태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중기까지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형태가 답습되다가, 18세기 중반을 즈음하여 변화를 보인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례를 따라 본체 외에 규항과 관끈이 있는 형태가 제시되기도 하고, 허전이 제시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상투만을 감싸던 작은 형태가 아닌 머리 전체를 덮는 독립된 관모 형태가 나타난다. 즉 처음에 『주자가례』를 그대로 따르다가, 나중에 고례를 회복한 형태가 나타나며, 다시 고례와 『주자가례』를 절충하여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관모를 탄생시킨다. 이 외 이전에는 자세한 언급이 없던 양을 만드는 법이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가례집람家禮輯覽』 등에서 치수와 그림으로 자세히 제시된다.

특징 및 의의 치포관은 상투관의 일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관모이다. 고대의 인류가 머리를 묶어서 천으로 덮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고정된 형태의 관모로 정착하였다. 또 상관으로 쓰는 굴건屈巾은 고대 인류가 최초로 쓰던 치포관을 잊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치포관은 오랜 역사 속에서 통천관·원유관·양관·진현관·충정관·와룡관(제갈건)·장포건 등 다양한 형태의 관모를 탄생시켰고, 조선시대에는 상투만 덮는 관에서 허전에 의해 머리에 쓰는 독립된 관모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문헌 儀禮, 朱子家禮, 치포관 연구(박길수,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치포관 연구(박길수·최규순, 복식61-5, 한국복식학회, 2011).

필자 최연우(崔然宇)

침염
浸染

정의 피염물인 옷감이나 실 등을 염료 용액에 담가서 단일색으로 염색하는 방법.

내용 염색은 옷감에 색깔을 물들이기 전부터 얼굴과 몸을 치장하고 적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염색 역사는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실린 변한포 기록이나 『사기史記』 부여조夫餘條에 백포와 증繒 수繡 금錦 계罽라는 무늬와 채색이 고운 비단을 생산했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에 실이나 옷감을 물

들였음을 알 수 있다.

침염浸染이란 원하는 색상의 염액에 피염물을 넣고 천 전체를 균일하게 염색하는 방법이다. 염색한 결과 일광·땀·세탁·마찰 등에 대한 견뢰도를 높여서 실용성 있는 염색이 되어야 한다. 어떤 무늬를 찍어 부분적으로 염색하는 날염과 염료를 붓에 발라 칠하여 염색하는 도염涂染이나 쇄모염刷毛染이 있고, 뿜어서 염색하는 취염吹染이나 분무염噴霧染 등에 대응되는 무지염을 총칭하는 염색 방법이다.

전통 침염은 염료액 속에서 미리 마전한 천이나 실을 손동작으로 빠르게 움직여 염료가 섬유 사이에 빨리 스며들어가서 균일하게 물들게 염색하였다. 현대 염색은 기계 장치로 염색 용액에 피염물을 부분적으로 회전시켜 담그는 방법을 쓴다.

참고문헌 史記, 三國志, 미술대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8), 전통색깔 물들임과 무늬넣기(김지희, 자연염색박물관 2012), 두피디아(doopedia.co.kr).

필자 김지희(金芝希)

콩즙

정의 발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두大豆에서 배어 나오게 하거나 짜내어 사용하는 매염제.

내용 콩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백질 20~40%, 지방 15~20%, 탄수화물을 20~30% 함유하고 있어 즙을 내면 점조성을 띤다. 콩즙의 단백질은 물로 추출하면 대부분 용해되므로 섬유 염색의 전처리 단계에서 사용된다. 단백질의 말단기는 섬유를 개질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섬유와 염료 간의 이온 결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염료 입자를 섬유에 부착시키는 물리적 결합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징 및 의의 천연염료는 채취 대상에 따라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으로 분류되며, 매염제에 의해 다양한 색으로 염색이 가능한 다색성 염료와 단일 색상의 단색성 염료로 나뉜다. 일반적인 매염제는 알루미늄Al, 철Fe, 구리Cu와 같은 금속 이온 첨가로 색소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켜 다양한 색상을 구현시키고 발색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전통적인 염색 방법에서는 순수한 화학 성분의 추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철장액, 진흙 등 천연물에 함유된 금속 성분을 활용하거나 염액을 추출할 때 산·알칼리를 첨가하고 또는 콩즙을 먹여 염료의 흡착을 증진시키는 매염 효과를 주었다.

참고문헌 콩즙 처리 방법에 따른 천연염색포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박견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콩즙을 이용한 면직물의 황토염색(김수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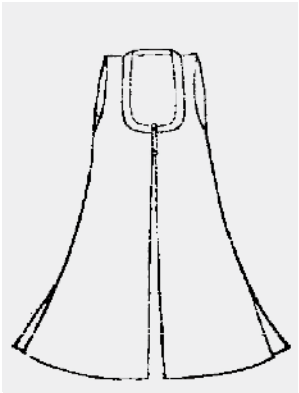
필자 정관채(鄭官采)

쾌자
快子

정의 조선시대에 협수나 두루마기 위에 덧입는 긴 조끼 모양의 옷.

내용 쾌자快子는 섶과 고름이 없고 깃 부분은 좌우 모양이 같으며 소매가 없이 길이가 길다. 통일신라 때 중국 당나라에서 반소매옷인 반비半臂를 들여온 이후 조선시대까지 소매가 없거나 짧은 포가 착용되었다. 괘자掛子, 褂子나 쾌자·전복戰服·답호褡護·더그레·가문랄·호의號衣 등으로 불렀는데, 형태와 특징이 비슷하여 당시에도 명칭에 혼란이 있었다.

18세기 시문집인 『한정당집閑靜堂集』에 "반비는 지금의 괘자掛子와 비슷하다. 다만 괘자의 옷자락을 직수直垂한 것이 다르다. 반비의 짧은 것은 지금의 배자褙子다."라고 기록되었다. 즉 괘자는 소매가 짧거나 없고 섶이 없어서 앞자락이 겹치지 않고 수직으로 내려오며, 반비는 배자보다 길이만 긴 옷이다. 정약용丁若鏞은 『아언각비雅言覺非』(1819)에서 "괘자를 쾌자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 음인 '콰이즈'에서 잘못 옮겨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남선崔南善은 『조선상식朝鮮常識』(1948)에서 "후세에 와서 답호를 쾌자라고 하여 하급 군속 및 노예의 제복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조선시대 후기에는 답호·괘자·쾌자·전복의 명칭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록을 보면 조선 후



① 자적사 괘자



② 영친왕 모란문갑사 쾌자 | 근대

쾌자 | ① 기축진찬의궤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② 길이 119 품 51 어깨 9 | 국립고궁박물관

기 왕이나 왕세자의 국장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소렴용 의대, 대렴용 의대, 재궁을 채우기 위한 의복으로 답호·전복·쾌자가 혼재되어 있어 마치 동일한 복식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협수 위에 착용하였던 소매 없는 복식을 영조 국장 시 의대에서는 전복으로, 정조 국장 시 의대에서는 쾌자로 기록하였다.

조선 중기까지는 전복·괘자·답호는 서로 구분되는 옷이었다. 유물을 보았을 때 반소매 형태의 답호는 17세기까지 출토되며, 이후 소매가 없는 옷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복과 괘자도 19세기 초의 정재복식呈才服飾 도설을 보면, 1828년(순조 28) 『무자진작의궤戊子進爵儀軌』에 그려진 전복과 이듬해인 1829년(순조 29) 『기축진찬의궤己丑進饌儀軌』에 그려진 괘자는 깃 부분만 차이가 난다. 전복은 깃이 없이 목둘레선이 둥글게 파였고, 괘자는 배자형 깃이 달려 있다. 유물 중에서도 소매가 없고 섶이 없어 앞중심선에서 여밈이 맞닿으며 배자형 깃이 달렸다. 양옆에 삼각형 무가 달리고 옆트임과 뒤트임이 있는 형태의 괘자가 전해진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복과 괘자, 답호 등은 점차 구분이 모호해졌다.

1884년(고종 21) 전통복식의 간소화를 실시하고자 갑신의제개혁을 시행하면서 관복은 착수 흑단령으로 통일하고, 사복私服은 좁은 소매의 옷인 착수의 위에 전복을 입게 하였다. 그러자 전복의 글자 뜻이 전투용 복식이므로 예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오늘의 전복 제도는 옛날의 반비의로서 일명 작자라고도 하고 답호라고도 일컫는다."(고종실록 권21 고종 21년 6월)라고 하여 전복이라는 속명 대신 답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전복과 답호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02년(광무 6) 『임인진연의궤壬寅進宴儀軌』 악기 풍물을 보면 검기무 정재를 올리는 여령 네 명이 착용하는 복식은 전립·겹수(협수)·전복·전대이다. 그런데 복식도를 보면 검기무복식으로 전립·금향협수·아청괘자·남전대가 그려져 있다. 같은 복식인데 필요한 재료를 정리할 때에는 전복이라 하고, 도설에서 명칭은 괘자라고 한 것에서 당시 전복과 괘자의 경계선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쾌자는 군복과 일상복의 두 가지 용도로 나뉘며, 용도에 따라 착용하는 방식이나 구조에도 차이가 났다. 「궁중발기宮中撥記」의 기록을 보면 쾌자와 군복軍服, 쾌자와 주의周衣의 두 가지 조합으로 착용되었다. 즉 군복의 용도로 동다리 위에 쾌자를 착용하거나, 일상복의 용도로 두루마기 위에 쾌자를 착용하였다. 군복으로 착용한 쾌자는 대부분 검정색 겉감에 붉은색 안감으로 만들었고, 일상복은 남색 계통의 옷감으로 홑이나 겹으로 만들었다.

특징 및 의의 소매가 없고 길이가 긴 조끼 형태의 의복으로 긴소매의 포 위에 걸쳐 입는 옷이라는 의미로 괘자라고 불리다가 중국 발음이 잘못 옮겨져서 쾌자로 부르게 되었다. 소매가 없거나 소매 길이가 짧은 덧옷은 통일신라 때 중국 당나라의 반비를 들여오면서 입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옷이 착용자의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길이로 변화하면서, 조선 후기에는 답호·전복·괘자 등의 명칭이 혼용되었다. 협수 위에 착용하면 군복을 이루고, 남자 어린이는 두루마기 위에 쾌자를 덧입어 평상복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궁중복식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답호와 전복재고(박성실, 학예지4, 육군사관학교박물관, 1995), 정조시대 군사복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박가영·이은주, 한복문화7-3, 한복문화학회, 2004), 조선 후기 오군영의 군사복식에 관한 연구(염정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조선 후기 전복의 용도와 착용방식(박가영, 한국복식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권오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박가영(朴嘉玲)

큰머리

정의 명부命婦의 예장용 머리모양 중의 하나.

내용 큰머리는 쪽머리나 어여머리 위에 모발毛髮이나 목제木製로 만든 큰머리 틀을 얹고 한 쌍의 떠구지 비녀와 선봉잠先鳳簪, 옥입잠玉立簪, 댕기 등으로 장식한 궁중 예장용 머리모양이다. 큰머리 틀 자체도 큰머리라고 하지만 이를 얹어 완성한 머리모양도 큰머리라고 한다. 17세기 의궤에는 거두미去豆微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대수大首 다음 가는 머리모양이다. 대체로 왕비 이하 여관女官이 가례나 진연·진찬 등에 참여할 때 원삼 차림에 큰머리를 하였다. 순화궁順和宮의 『ᄉᆞ졀복싀ᄌᆞ장요람』에서 볼 수 있듯이, 대궐 법도가 엄격하던 헌종 때까지만 해도 탄일, 정조, 동지 문안의 당의 차림에도 큰머리를 하였다.

영조 대까지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큰머리를 사용하였으나 『정조실록正祖實錄』 1779년(정조 3) 2월 25일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조 즉위 후 머리카락으로 하던 것을 나무로 대신하는 가계假髻 제도를 만들어 궁양宮樣으로 함에 따라 목제 큰머리가 사용되었다. 왕실 여성이 사용하는 큰머리는 여전히 모발로 제작하였지만, 상궁 이하 내명부들은 오동나무를 머리를 땋아 만든 형태로 조각한 후 흑칠을 해서 만들었는데 19세기 초 순조 대까지만 해도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1827년(순조 27) 『정례의궤整禮儀軌』 권수卷首의 <전내도殿內圖>에 표현된 여관들의 모습은 소형의 큰머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커지기 시작해서 20세기 초에는 상당한 크기로 변화하였다.

1922년 영친왕비의 근현례覲見禮 관련 영상물에서 볼 수 있듯이, 왕실 여성들이 사용했던 모발로 만든 큰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목 뒤에 첩지를 사용한 쪽머리를 만든다. 그리고 정수리에 어염족두리를 올린 후 어염족두리의 좌우에 달린 끈을 쪽에 묶어 고정한다. 어여머리가 어염족두리와 쪽머리 밑동을 감싸게 두르고, 어여머리 좌우에 반자 장식을 한 상태에서 미리 큰머리칠보로 장식한 모발에 큰머리를 올린다. 큰머리 하단에 있는 두 개의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큰



큰머리 올린 여인

떠구지와 작은 떠구지를 차례로 꽂는다. 옥玉이나 이사泥絲 등을 이용하여 만든 고급 떠구지를 사용하였다. 궁녀들의 큰머리 역시 어여머리 위에 흑칠한 목제 큰머리를 올려서 만들었는데, 보석 장식은 없고 단지 흑칠한 목잠(떠구지) 두 개를 꽂고 반대편으로 나온 비녀의 끝부분에 댕기를 묶어 고정한 것이 전부였다.

특징 및 의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윤백영尹伯榮(1866~1986)이 혼례 때 원삼 차림에 사용하였던 목제 큰머리와 큰머리상자를 비롯하여, "기미년(1859년 또는 1919년) 9월 큰전[大殿]에서 진주 다섯 개 받오시니."라는 기록이 적힌 연한 녹색 종이 댕기첩, 그리고 그 속에 보관되어 있던 자적색 공단의 큰머리 매개댕기가 소장되어 있다(국가민속문화재 제212호). 윤백영의 목제 큰머리는 길이 40.5㎝, 너비 26㎝이고 진주가 달렸던 매개댕기는 너비 5.5㎝, 길이 113.5㎝이다. 66㎝ 들어온 지점에 진주로 추정되는 다섯 개의 부착 흔적이 2㎝ 간격으로 확인된다. 큰머리 매개댕기는 목

제 큰머리에 길고 짧은 비녀 두 개를 아래쪽에 꽂은 후 왼편의 비녀 끝부분과 목제 틀을 함께 묶어 고정시켰던 댕기로 추정된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영친왕비가 1922년 근현례 때 사용했던 길고 짧은 큰머리 후봉잠 한 쌍이 상자에 담겨 보관되어 있다. 그 길이는 32.6㎝와 24.7㎝며, 진주와 청파리, 홍파리 등으로 장식한 도금봉잠이다. 긴 봉잠의 봉머리에는 홍파리를 감입하였는데 짧은 비녀의 봉머리에는 없어진 상태이다.

참고문헌 整禮儀軌, 朝鮮王朝實錄, 19세기 조선 왕실 여성의 머리모양(이은주, 복식58-3, 한국복식학회, 2008), 관모와 수식(석주선, 보진재, 1993),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황문환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여인의 발자취(손미경, 이환, 2004), 동영상자료(비극의 세월, TBC, 1979).

필자 이은주(李恩珠)

타래버선

정의 버선의 양 볼에 수를 놓고 코에 색실로 만든 술을 달아 꾸민 어린이용 버선.

내용 타래버선은 돌 이전부터 2~3세까지 어린아이들이 주로 신었던 장식을 많이 한 버선이다. 일반적인 버선은 흰색의 면직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아이들의 버선은 알록달록한 장식을 해서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다.


① 길이 20.6 | 근대


② 길이 21 | 일제강점기

타래버선 | ① 국립고궁박물관, ② 국립민속박물관

타래버선은 옥양목이나 광목 등의 면 소재에 솜을 두어 누비고 버선 양 볼에 길상문양을 수놓고, 버선코에는 술장식을 단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계절에 따라 누비지 않고 겹버선으로 만들기도 했고, 수를 생략하고 술장식만 달기도 했다. 버선이 쉽게 벗겨지지 않게 타래버선의 뒤꿈치에는 대님을 달아서 발목에 동이게 하였는데, 남아용은 청색 대님을 달고 여아용은 홍색 대님을 단다.

아이들의 버선을 이르는 말로 '오목이' 또는 '오목다리', '꽃버선'이라는 말이 있다. 보통 왕실에서는 버선을 이르는 말로 '족건足巾'을 많이 쓰는데, 조선 말기 고종 대의 「정유 십월 십오일 왕자아기시 삼칠일 의복발기」(1897년 10월 15일), 「무술 사월 아기시 백일 의복발기」(1898년 4월), 「무술구월 아기시 돌 생신 의복발기」(1898년 9월)에는 모두 '오목이'라고 기록하였다. 누빈 모양이 오목오목하다고 하여 유래한 명칭이다. 1938년 문세영文世榮(1888~?)이 펴낸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는 '오목다리'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젖먹이가 신는 버선의 한 가지이며, 누빈 것도 있고 겹으로 만든 것도 있다."라고 하여, 오목이와 같은 것으로 본다. '꽃버선'은 여러 색깔로 꾸미거나 수놓은 버선으로 타래버선을 일컫는다.

타래버선의 구성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성인의 버선과 마찬가지로 절개 없이 통으로 만들어 장식한 것과 버선목 뒤쪽으로부터 앞쪽 수눅선까지 사선으로 삼각형으로 절개하여 만든 것이 있다. 솜을 두지 않고 겹으로 만들기도 하며 전체를 누벼서 만들기도 하는데 사선으로 절개된 타래버선은 절개선에서 직선과 사선의 누빔선이 만난다. 부드러운 촉감을 위해 손으로 누비기도 하였으나, 개항 이후에는 재봉틀로도 누볐다. 버선목 위에 가늘게 선을 두른 것도 있는데, 대님의 색상과 마찬가지로 남아용은 청색선을 두르고 여아용은 홍색선을 두른다. 타래버선은 볼 부분에 화려하게 자수 장식을 하는 것이 큰 매력인데 자수의 문양은 매화·모란·국화·연꽃 등의 화문이 가장 많고 불로초나 석류문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잣물림 장식과 같은 삼각형의 기하문양도 사용되었다. 버선목과 절개선 부분에 세 땀 상침을 놓기도 하고 타래버선의 바닥이나 수눅선, 뒤꿈치에 붉은색 실로 사뜨기 장식을 하기도 한다. 사용하

지 않은 타래버선의 유물 중에는 대님 위에 '팔십八十'을 수 놓은 것도 있는데, 아이들의 장수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특징 및 의의 타래버선은 예쁘게 만든 아동용 버선으로 남녀 아이들이 두루 착용하였다. 버선목 위에 두르는 선과 대님의 색상으로 남아용과 여아용을 구별하였으며, 아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길상문양을 오색자수실로 수놓아 장식하였다. 버선은 자주 세탁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라 주로 면직물로 만들었다. 버선이 해어지면 다른 천을 대어 보강하기도 하였는데, 아이들 버선에는 길조의 상징인 빨간색 옷감을 대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아이들 첫돌 복식의 구성품으로 갖추어 입힐 때가 많다.

참고문헌 개항기 이후 한국 아동복식 연구(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박성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0), 조선시대 타래버선을 응용한 여아동복 디자인 연구(박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한국복식문화사전(김용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김정아(金廷兒)

탈춤복식

정의 탈춤의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우가 신체분장으로 사용한 의복, 장신구, 머리모양 등의 복식.

내용 탈춤은 산대극山臺劇에 나오는 춤으로 고려부터 산대색의 이름으로 발전하며, 조선시대에는 나례도감이 설치되어 세시의 나례와 함께 조정의 의식과 사신의 접대에 쓰였다. 산대란 큰 길가나 빈터에 대臺를 높이 하여 그 위에서 연극을 하는 임시무대를 말하며, 산대도감은 나례도감처럼 관의 예속이 아닌 산대극의 별칭이다. 현재 각 지방에 남아있는 탈춤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대동소이하지만, 놀이 형태나 기술에 있어서는 각각 그 지방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탈춤의 내용 중 공통적 내용은 파계승과 몰락한 양반·사당패·거사居士와 서민들을 등장시켜 권선징악의 테두리에서 호색好色과 현실의 풍자 등을 표현했으며, 가면의 색은 청, 황, 적, 백, 흑 등 오방색이 주가 되며 그 색이 갖는 의미도 민간신앙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다.

지방의 대표적인 탈춤으로는 우선 경기도 양주 '별산대놀이'와 황해도 봉산탈춤, 해주의 '강령탈춤', 그리고 경남 일원의 '오광대' 및 '야유', 경북 안동 하회의 '별신굿', 함남 북청의 '사자탈춤놀이'등이 있다.

이들 가면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면이며, 그 외에는 의상과 간단한 소도구를 필요로 할 뿐인데, 이들 가면은 대개 전통적인 것이 아니며, 하회 별신굿의 가면 이외에는 전통적인 가면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연희를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의상과 소도구 등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희가 있을 때마다 가면과 의상 및 소도구를 새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역별 탈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착용되었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다.

1. 하회별신굿탈놀이: 다른 탈놀이의 탈들은 오락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 하회탈은 별신굿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하회탈놀이는 탈을 태우며 즐기는 뒤풀이가 없다. 별신제가 끝나면 탈을 용기에 담아 보관해두었다가 다음에 열리는 별신제 때 다시 사용하였다.

주지탈에는 꿩털을 꽂고, 양반과 선비탈에는 검은 수염을 달았으며, 초랭이탈에는 흰 개털에 풀을 먹여 꽂았다. 각시탈과 부네탈에는 찹쌀풀에 분을 타서 희게 칠했고 연지와 곤지도 찍었다.

복식과 분장은 화려하지 않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남자 역할을 맡게 된 광대들은 본인의 옷으로 기본복장을 갖추고, 그 밖의 역할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빌려서 장만하거나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흉내만 내어 참여하였다. 그리고 섣달 그믐날과 정월 초하루 사이에 주민들이 천이나 옷가지를 성황당에 헌납하는데, 각시와 부네는 주민들이 헌납한 옷 중에서 골라 입는다.

시대별 또는 상황별로 복식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등장인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반: 정자관, 바지저고리, 도포(또는 두루마기), 미투리, 부채, 담뱃대

2) 선비: 유건(또는 갓), 바지저고리, 도포, 미투리, 담뱃대
3) 중: 고깔, 바지저고리, 가사, 장삼, 미투리, 지팡이, 염주
4) 초랭이: 벙거지, 바지저고리, 쾌자, 미투리
5) 이매: 벙거지, 바지저고리, 미투리
6) 백정: 평량자, 바지저고리, 짚신, 도끼와 칼
7) 각시: 노랑저고리와 분홍치마(처녀 차림)
8) 부네: 저고리와 치마(젊은 부인복색으로 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듯하다)
9) 할미: 흰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노파 복색), 지팡이, 짚신

2. 통영오광대놀이: 오광대 및 야류(들놀음)는 경남 일대에 분포된 영남형 가면극의 하나이다. 내용은 양반계급에 대한 반감과 모욕, 파계승에 대한 풍자, 일부대처첩의 삼각관계에서 오는 가정비극, 축사연상의 축원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승되어오는 과정에 파계승에 대한 풍자가 퇴화되고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정신이 강렬해졌다.

총 5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은 24명이다. 과장별 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과장 문둥탈 복식: 백색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한쪽 바짓가랑이를 접어올리고, 다른 한 쪽에는 행전을 찼으며 버선과 미투리만 신는다. 허리에는 대를 띠고 소고를 든다. 양반의 실제 모습과 생활상이 맞지 않음을 풍자하고 있다.

2) 2과장 풍자탈 복식: 조선 후기 신분변동으로 인한 양반의 권위 실추를 보여주는데, 양반은 원양반, 둘째양반, 홍백양반, 먹탈양반, 손님양반, 비틀양반으로 구성된다.

오양반은 도포와 정자관 또는 흑립을 써 양반 신분을 표현하였다. 도포는 색을 달리하였는데, 청·적·황·백·흑색의 오방색이 모두 나타나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비틀양반은 백색 저고리와 바지, 백색 조끼에 대를 띠고 행전을 찼는데, 출생 내력이 비정상적이라 양반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을 표현한다.

조리중 또한 출생내력을 나타내는 복식으로 바지저고리 위에 회색 장삼(대창의)을 입고 있으며, 소매 끝에는 청색 끝동이 넓게 둘러져있다. 머리에는 싸리를 엮


노장(봉산탈춤)


말뚝이(고성오광대)



백정과 양반(하회별신굿탈놀이)


영감과 덜머리집(봉산탈춤)


초랭이와 이매(하회별신굿탈놀이)



오방신장무(고성오광대)

탈춤복식 | 2015 | 국립민속박물관

어 원추형으로 만든 송낙을 쓰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손에는 목탁을 든다.

말뚝이는 하인 신분인데, 백색 바지저고리 위에 행전과 함께 흑색 더그레를 입었다. 실제보다 높은 신분의 복식을 착용하여 원래의 출생 이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신분만을 가지고 상전노릇을 하려는 양반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3과장 영노탈 복식: 영노와 영노양반의 대립으로 구성되는데, 영노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위의 당위성을 표현하며 부패한 양반을 잡아먹고자 한다.

영노양반은 오양반의 복식구성과 유사하나 바지저고리 위에 트임이 없는 광수주의를 착용하여 소박한 느낌을 준다. 또한 흑립의 모정이 구겨져 있으며, 양태부분은 헐어 있다.

영노는 과거에는 용신의 모습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주황색 탈바가지에 길게 부리를 달아 새의 머리를 만들고, 그 밑에 천에 비늘무늬를 그린 큰 보자기 형태의 천을 달아 상의를 길게 덮고, 무늬를 그려 넣은 바지를 입어 세상의 무엇이라도 잡아먹을 능력이 있는 '비비새'를 표현한다.

4) 4과장 농창탈 복식: 처첩간의 갈등과 가부장적인 사회상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할미양반은 털모자, 도포에 광다회를 띠며, 망태, 접선, 지팡이를 소품으로 사용한다. 망태는 작은어미의 해산을 위해 장에 갈 때 사용하는 것이다.

할미는 신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흰색 치마저고리 밑에 바지를 입는다. 치마의 길이가 짧아 바지가 드러난다. 얹은머리를 하였으며, 소도구는 물레, 부채, 촛대, 징, 우물, 쌀이 사용되었다. 작은어미는 쪽머리에 비녀를 꽂고 노랑 삼회장저고리와 홍색 치마를 입었다. 젊은 여인들의 복색이다.

농창탈의 할미와 작은어미의 복식은 오방색이 갖는 오행의 의미와 오행순환의 원리를 복식에 부여하여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기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어미는 황색 저고리와 홍색치마를 입어, 토土(생명의 원천)와 화火(생성과 창조)를 띠며 강력한 생명과 생산력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에 할미의 복색은 백색으로 태양을 상징하며 신의 근원상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상징의 작은어미가 할미를 죽임으로써 복을 기원하는 풍요제의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방색이 갖는 오행의 의미와 순환원리를 통해 기복의 의미를 표현한다.

아이복식은 할미양반과 작은어미 사이의 소생으로 적색 강보에 싸여 있는데, 등장인물 중 가장 고급옷감을 사용하여 귀한 존재임을 표현하였다.

봉사는 작은어미의 순산을 도와 독경을 외는 역할로 바지저고리 위에 좁은 소매의 창의를 착용하고 흑립을 썼는데 양태와 모정의 크기가 작고 구겨져 있다. 하급계급의 복식이다.

정돌이는 할미양반의 하인으로 백색 저고리와 바지 구성으로 천민의 복색을 하였다.

상좌는 회색 장삼을 입어 파계승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제는 굴건제복을 착용하고 상여가 나갈 때 곡을 하며 슬픔을 표현하며 상여꾼은 기본 바지저고리에 효건을 썼다.

생원은 기본 바지저고리에 대와 행전을 착용했다.

5) 5과장 포수탈 복식: 포수는 바지저고리에 행전을 차고 전통 배자 대신 개화기 복식인 조끼를 입고 있다. 이 또한 실제 신분보다 높은 복식을 착용한 것이며 양반을 풍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양주별산대놀이: 상좌의 청홍색 고깔과 소장삼小長衫, 노장의 염주와 송낙, 지팡이와 장삼, 애사당의 변발, 왜장녀의 큰머리, 치마·저고리, 쾌자快子, 옴중의 꽃벙거지와 막대기, 연잎의 부채와 청창의靑氅衣, 샌님 양반의 유건, 신주부의 의관, 완보의 꽹과리와 불알망태기, 회초리, 채찍이 있다.

4. 처용무: 처용무 복식은 통일신라의 처용무 복식으로부터 내려오면서 구성의복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신분적· 벽사적· 불교적 요소가 축소되어 연희적· 장식적으로 변하였다.

복식은 의와 군, 한삼, 상, 천의와 길경, 대와 혜, 사모, 가면으로 구성되며, 방위별로 색을 달리하였다.

의는 단령의 형태로, 오방의 색에 따라, 청, 황, 홍, 백, 흑 비단으로 만들었다.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동안 약간의 형태변화는 있었으나 계속해서 단령을 입었으며, 옷 전체에 장식된 문양은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에 비해 간소해져 당초문이 사라지고, 연꽃문양만 남았다.

군은 상류층 여성들이 착용했던 말군을 착용했는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남아있었다고 본다.

상은 독특한 형태인데 고려 말기 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왕과 문무 관리들이 입었던 예복의 폐슬과 상을 합쳐놓은 것과 같다.

긴 자락의 한삼과 천의는 신선사상에서 볼 수 있는 천의 자락의 흩날림과 같은 맥락으로 구체적인 축귀, 벽사행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유교적인 음양오행 사상적 색채관에서도 흰색은 밝음과 빛의 상징색인적· 황과 더불어 재앙과 악귀를 막아주는 주술, 벽사의 색으로 사용되었다.

처용무의 사모에는 복숭아와 모란장식이 되어 있었으나, 벽사적인 기능이 연희적 기능으로 변모됨에 따라 벽사적인 의미의 복숭아장식은 후대로 갈수록 사라지고 부귀를 나타내는 모란꽃장식만이 남게 되었고, 가면은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삼국시대부터 발전해온 가면무와 가면극은 벽사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었는데, 점차로 놀이 및 풍자·농경의례 등으로 분화되며 발전하였다. 하회별신굿탈놀이도 서낭제, 즉 별신굿 탈놀이로 벽사를 위한 의식무로 1980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각 지방에 남아있는 탈춤들은 전체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각기 지방색을 띠고 있어 민속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내용은 권선징악의 테두리에서 호색好色과 현실의 풍자 등을 표현하며 서민들의 삶의 고단함을 표출하는 분출구 역할을 했다. 가면과 의복의 색은 오방색이 주가 되며 그 색이 갖는 의미도 민간신앙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다.

참고문헌 증보한국연극사(장한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처용무복식에 관한 연구(윤일선,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통영오광대복식에 관한 연구(김초영,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하회탈춤의 복식과 분장(이은주,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미학, 안동문화연구소, 1999), 한국민속극의 복식에 관한 연구(이재윤,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한국연극사(이주현, 두산동아, 2001).

필자 윤지원(尹智媛)

탕건
宕巾

정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망건網巾 위에 쓰거나 다른 관모冠帽의 안에 썼던 남자의 쓰개.

내용 탕건宕巾은 말총을 재료로 만들어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은 형상으로, 앞쪽 중간에 턱이 있는 쓰개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상투를 틀고 망건으로 머리를 정돈한 후 일상에서 탕건을 썼다.

탕건의 어원은 '당건唐巾'과 연관되었다고 추측한다. 조선시대 정약용丁若鏞이 당시 널리 쓰인 말과 글의 어원과 사용례를 적은 『아언각비雅言覺非』에는 탕건宕巾이 당건唐巾을 잘못 번역한 것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 백과사전에 해당되는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탕건이 '당건'을 오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당건은 모체帽體의 뒤에 두 개의 각角이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당唐나라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송宋, 원元, 명明나라 사람들은 이를 당건唐巾이라고



탕건 | 높이 14 너비 17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탕건 쓴 양반들 | 수갑계첩 중 부분 | 1814 | 국립중앙박물관

했다. 따라서 형태면에서 보면 조선시대 말총으로 제작된 탕건과는 차이가 있으나 조선 후기의 이인상李麟祥(1710~1760)과 최북崔北(1720~?)의 초상화는 뒤에 드리웠던 각은 없으나 모체는 당건과 유사하므로 각 없는 당건이 탕건으로 변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탕건은 조선 말기의 어휘사전인 『국한회어國漢會語』에 '감투'에 대한 설명으로 '탕건宕巾'이라 기록되어 있어 감투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탕건은 조선 후기 중국 기행문인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에 사모紗帽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 사모의 받침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예측되고, 김병국金炳國(1825~1904)의 초상화에는 정자관程子冠 안에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신윤복의 풍속화 중 <야금모행夜禁冒行>에서는 옆이 트여진 포袍를 입은 선비가 갓 안에 착용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렇게 다른 관모와 함께 쓰였던 탕건은 점차 관직자가 평상시에 관冠을 대신하여 사용하면서 독립적인 쓰개로 착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풍속을 기록한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는 사대부들이 착용하던 쓰개류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평상시에는 복건·방관·정자관·동파관을 쓰고, 6~7품에 해당되는 조관朝官은 탕건을 썼으나 밖에서는 모두 갓을 쓴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풍속화에는 사대부들의 일상 모습에서 망건 위에 탕건을 착용한 모습이 자주 확인된다. 또한 조선시대 중인中人의 모습을 담은 <수갑계첩壽甲稧帖>은 1758년 무인년 태생인 22명의 동갑 중인들이 57세가 된 1814년에 현재의 서울인 한성에 있는 정윤상의 집에 모인 장면을 그린 것으로, 탕건을 썼거나 갓을 쓴 모습이 확인된다.

탕건은 조선 후기 유희와 관련된 사진 중에는 악사가 쓰고 있거나 장년층이 활쏘기를 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되어 예를 갖추면서도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된 쓰개임이 확인된다. 개화기 이후에는 서민층 복식에서도 확인되는 등 남자들의 두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목침木枕에 서랍을 만들어 보관할 정도로 가까이에 두고 썼던 쓰개이다.

조선 전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평안도의 영안에 외공장으로서 총모아장이 있었고, 조선 후기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나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평안도의 정주 등지가 말총 관모의 대표적인 특산지로 기록되어 있어 평안도가 말총으로 제작한 관모의 대표적인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관보』 976호(1915년 11월 3일) 부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도 평안도의 안주와 박천, 제주도와 경남 통영 지역에서 관모장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탕건 제작은 말총이 풍부하여 말총공예의 대표지역인 제주도 지역 여인들의 생계 수단이기도 했으나, 근대 이후 남자들의 머리모양이 바뀌면서 조선 사대부들의 품위를 갖추어 주던 탕건 일은 이제 그 명맥을 거의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에 국가는 1980년 탕건을 제작하는 기술을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탕건 기술의 보유자는 탕건 기술을 어렸을 때 배우고 익혀 평생을 탕건만 제작한 제주 토박이이다.

특징 및 의의 검정색의 말총으로 성글게 짠 챙이 없고 앞중간에 턱이 있는 사대부가 남자의 일상적인 쓰개이다. 남자의 상투를 감싸는 망건 위에 간편한 형태의 탕건을 써서 예를 갖추었던 것이다. 현재 탕건장에 의해 제작된 탕건의 종류는 상인들에 의해 줄수와 도리수의 촘촘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가장 촘촘한 것부터 상탕·중탕·하탕으로 구분된다. 이는 제작자에 따라 홑탕건·겹탕건·바둑탕건 등의 탕건의 제작법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탕건장이 탕건을 제작 과정은 탕건골에서 짜고 삶는 공통적 과정과 함께 탕건의 종류마다 여러 단계로 세분화된다. 탕건의 제작 모습은 조선 후기 풍속화에서 확인되며 현재는 탕건장에 의해 제작 기술이 전수되고 있다.

참고문헌 雅言覺非, 五洲衍文長箋散稿,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조풍연, 서문당, 2004), 탕건장(장경희, 화산문화,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총독부관보(gb.nl.go.kr).

필자 김은정(金恩姘)

태사혜
太史鞋

정의 신코와 뒤축에 태사문太史紋을 새겨 넣은 조선시대 양반 남자의 마른신.

내용 태사혜太史鞋의 명칭은 관직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문, 역법을 관장하는 태사감과 관련하여 태사혜의 명칭이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태사'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대부 남자들을 지칭한 것이며, 그들이 신는 태사혜의 이름이 구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태사혜는 가죽이나 금속제인 유, 포백제로 만들었으며, 가죽과 천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죽으로 만든 태사혜는 유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들기름에 절여서 태사문을 박아 남혜男鞋 형태로 만들면서 비 오는 날에 신어 징신, 진신, 유혜로 분류한 것이 많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편복便服에 신었던 태사혜는 조선 중기부터 양반층에 크게 유행하였다. 왕이 편복에 착용한 것을 시작으로 사대부가 착용하였고, 신코와 뒤축에 '태사문'이라고 하는 당초문 형태의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어린이는 가죽과 색색의 비단 등으로 제작되었다. 검고 윤기가 나는 통영갓에 꼭 맞추어 신는 태사혜는 가죽의 뒷면에 연한 누른색의 물감을 들이고 검은 선을 넣어 멋을 부린 고급 신이다. 삼베와 모시를 풀로 붙여 백비(헝겊이나 종이 따위를 덧붙여서 두껍게 하는 일)를 하여 신의 기본 모양을 만들고, 신울에는 비단 천을 입힌 후 무늬를 새긴다. 신코에는 '앞눈', 뒤축에는 '뒷눈'이라는 무늬를 붙이는데, 이 무늬를 태사문이라고도 부른다. 신의 입구는 '도리'라고 부르고, 신울과 다른 가죽으로 배색을 주어 만든다. 태사혜는 대표적인 남성용 신으로 기록은 「궁중발기宮中撥記」에서 확인된다. 1893년 길례 때 의친왕이 되는 의화군의 태사혜와 영친왕의 아들 이구 왕자 돌복의 「의대목록」(1932)에 태사혜를 언급한 기록이 있다.

19~20세기 태사혜 유물은 대부분 초록, 옥색의 단을 외피로 하고, 회장감인 태사문은 남색의 동색 비단 배색 또는 홍색의 보색 비단 배색이 많다. 도리와 근피, 내피 등은 백녹피가 많다. 안창은 융 또는 담毯 등으로 미끄럽지 않게 만들었다. 근대의 태사혜와 녹피혜 유물에는 안창에 상호로 추정되는 미확인 글자와 숫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수공업 체계의 공방이 운영되어 크기별로 생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손된 안창에서 중창을 살펴보면 6~7겹의 여러 색 무명을 조각으로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중창 재료보다 부드럽지만 덜 견고한 재료임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유물의 밑창에는 징이 박힌 것이 많고, 간혹 징이 없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징의 박힘 형태는 앞뒤 부위 징의 줄 차이에 있으며, 징의 박힘 모양이 다양하다. 또한 신울의 외피에 글자를 날염하여 제작자를 명시한 것도 있다.



① 길이 18.3 ② 유아용 태사혜 | 길이 15 너비 5.5 |

태사혜 | ①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중 영친왕의 태사혜는 녹색 화문단으로 만들고, 신코와 뒤축에 자주색 단으로 태사문을 장식하였다. 신발의 안은 백피이고, 신바닥은 가죽, 코르크, 가죽으로 3중 처리를 하였다. 흰 가죽으로 도리를 하고 바로 밑으로 자주색 단을 둘렀다.

특징 및 의의 태사혜는 신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배색을 달리하였다. 흰색·검정색의 가죽 울을 쓸 때 흰색 눈과 도리로 장식하였으며, 옥색 울에는 남색 눈, 연둣빛 울에는 당수복문唐壽福紋과 자주색 눈을 장식하여 주로 어린이용으로 착용되었다. 성인용으로는 검정색 울에 자주색 눈, 노인용은 흰색 울에 흰 눈을 장식하였다. 여기에 밑창에는 촘촘하게 징을 박아 사용하였다.

태사혜와 유사한 여자용 신으로 당혜가 있다. 당혜의 기본 구조는 태사혜와 같고 주로 나이 있는 양반 부녀자들이 신었다. 당혜 유물 중 영친왕비의 당혜 두 벌이 있다. 외피는 홍색 모란문 금직단이고, 각 회장은 진옥색과 연두색 명주로 배색되어 있다. 신바닥과 신울이 이어지는 부분은 백피로 하였고, 바닥은 솜을 이겨 붙여 폭신하게 했다. 신바닥은 가죽이며, 바닥의 앞뒤에 박음질이 한 번 더 되어 있으며, 신바닥에 '궁' 자가 묵서되어 있다.

참고문헌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화혜장(조선희, 민속원, 2007).

필자 조선희(趙鮮姬)

털벙것

정의 제주濟州 지역 남성들이 쇠털[牛毛]을 굳혀 만든 차양遮陽이 있는 노동용 모자.

역사 1900년대 중반까지 제주 산간에서 말[馬]과 소[牛]를 돌보는 '쇠태우리'목자牧者가 들이나 밭에 나갈 때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피하기 위해 머리에 썼던 모자이다.

조선 세종世宗 때 제주도 삼읍三邑, 즉 제주·대정大靜·성읍城邑에서 조정에 바치는 진상 공물 중에 '우모牛毛'가 나온다. 또 1650년대 내섬시內贍寺에서 제주목濟州牧에 457근 8량, 정의현旌義縣에 33근 1량, 대정현大靜縣에 7근을 할당한 일이 있다. 이는 조정에서도 특히 군軍이나 공무용 관모官帽 중 하나였던 전립戰笠과 벙거지 등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제주에서 털벙것을 조직적인 군모軍帽로 상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총알이나 화살이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전투 현장에도 대치되었을 확률이 높다. 제주에서는 1901년 이재수李在守 난亂 등 민란民亂 때 '방탄막이'로, 또 1906년 영라졸營羅卒이 해산될 때까지 군모로 썼음을 현지 주민들이 증언한 바 있다.

내용 '벙것' 또는 '벙긋'은 제주에서 차양이 달린 꼴(형태·모양)의 모자를 통칭하는 데 따른 말이며, '벙긋하다'는 '번번하다·넓다·크다·시원하다'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모자의 차양이 다른 것에 비해 넓고, 운두(모두[冒頭])가 낮아 모자를 써도 얹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머리둘레에 끼거나 답답하지 않으면서, 시야도 넓게 트여 보인다. '벌립'도 같은 뜻인데, 명칭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이다.

육지에서도 같은 꼴의 것을 '벙거지'라 부르긴 하지만, 제주의 벙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벙거지는 제주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머리에 쓰는 모자나 차양이 달린 것들을 총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육지의 벙거지는 제주의 것에 비해 차양이 좁은 것이며, 아울러 비나 햇빛을 가리는 노동용 보다는 군용軍用의 의미에 가깝다.



털벌립 | 높이 11 너비 50 | 광복 이후 | 제주대학교박물관

털벙것의 재료는 '쇠털'이다. 제작 과정은 쇠털의 티들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빨아 말리고 '활'로 골고루 타서 덩어리를 풀어 펴고, '콩풀'로 접착시키면서 '모자골'에 눌러 만든 다음 말려 굳힌다. 쇠털은 소의 털갈이 때나 '부구리'(진드기)를 제거할 때 빠지는 것들을 모으는데, 모자 하나에 약 12근(1근=600g) 정도 든다. 부구리는 소의 피부에 기생하는 벌레로 소의 피를 빨아 먹으며 살기 때문에 쇠로 만든 '긁갱이'로 자주 긁어낸다.

집집마다 만들지는 않았지만 주로 중산간中山間 지역의 남성들에 의해 제작되었고, 제주 외에 육지의 수요에도 충당하였다. 목축을 많이 한 중산간 지역에서는 재료가 풍부할뿐만 아니라 쓰임도 많았다. 이 일은 남성들만이 아니라 "정의(현재 서귀포 성읍) 산 앞 큰 애기들은 털벙것 만들기가 일쑤로다."라는 <제주 민요>에도 나타나듯이 이 지역의 특성상 여성들도 한몫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박물관에 유물로 몇 점이 남아 있을 뿐, 사용하거나 제작하는 사람이 없다.

특징 및 의의 제주도 남성들은 비 오는 날 나들이할 때 털벙것을 머리에 쓰고, 띠(모茅)로 엮은 '도롱이(우장雨裝)'를 몸에 걸치고, 나막신을 신었다. 제주의 털벙것은 육지의 전립戰笠이나 벙거지와 비슷하지만, 재료 및 차양의 너비나 머리통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육지 것은 사람의 머리통이 모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전립'(머리통 지름 18㎝, 차양 너비 9㎝)과, 머리에 얹게 된 '벙거지'(머리통 지름 14㎝, 차양 너비 7~8㎝)가 있다. 또한 모자 통은 둥근 반원형인데 겉에 돼지털로 덮인 것이 있으며, 특히 전립에는 더 화려하게 매듭·밀화蜜花·구

슬·영자纓子·공작깃 등 장식이 있는 것도 있다. 반면 제주의 털벙것은 장식이 없고 재료도 쇠털로만 하였으며, 머리통은 좁은 편이지만 머리가 반쯤 들어갈 만큼 운두가 낮은데 차양은 넓다(머리통 지름18㎝, 차양 너비 14~15㎝, 높이 12㎝, 총지름 46~47㎝).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제주도 모자류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복식17, 한국복식학회, 1991),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7-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필자 고부자(高富子)

토시

정의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 팔목에 끼는 치레거리.

내용 토시는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한 용도로 조선시대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였던 치레거리이다. 한자어로는 토수吐手, 투수套袖라 하는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투수를 토수吐手라고 하는 것은 중국 발음을 잘못 바꾼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궁중에서 소용되는 물목物目을 기록한 「궁중발기宮中發記」에는 정미년(1847) 가례 시 자적단 흑모피 덧토수가 적혀 있다. 임오년(1882) 가례 시 동궁마마 「의대발기」에는 각색의 토수 2죽竹, 잔누비, 양초록, 분홍·홍화색·일남·다홍 등의 색단 토수가 기록되었다.

토시의 형태는 저고리 소매와 비슷하게 아래는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와 아래부리를 말굽 모양으로 만들고 손등을 덮는 마제굽토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단緞이나 주紬 등의 옷감을 사용하여 겹으로 만들거나 방한성을 높이기 위해 솜을 넣거나 누비고 털가죽을 덧대기도 하였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토시는 대나무, 등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토시는 전세 유물과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다. 왕실 유물로는 순정효황후 털토수와 선을 둘러 장식한 영친왕의 토수가 있으며 그 외 반가의 유물로는 덕온공주德溫公主 집안에서 전해오는 토시(180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등이 있다. 토시는 파평 윤씨(?~1566)의 솜토시(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연안 김씨(16세기 말)·사천 목씨(1657~1699)의 솜토시(경기도박물관 소장), 이진숭(1702~1756)의 누비토시(국립민속박물관 소장)등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출토되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조선 후기 회화에서도 토시를 착용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1758~?)의 <야금모행夜禁冒行> 화첩이나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1745~?)의 <행려풍속도行旅風俗圖> 8폭 병풍 가운데 <설후야연雪後野宴>에서 팔목에 토시를 낀 남녀의 모습이 보인다.

개항 이후 외국의 여행자들이 조선의 풍속을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남겨 놓은 기록물에서도 토시의 착용 모습이 확인된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 Keith는 겨울을 배경으로 남녀 어린이와 여인, 노인의 모습을 다색목판화로 제작하였는데 팔목에는 털토시와 누비토시를 낀 모습이 묘사되었다. 스웨덴의 베르그만Sten Bergman은 1944년에 출간된 『Durch Korea』에 조선의 풍경과 사람들을 담아 사진



① 겹토시



② 토시 | 일제강점기



③ 야금모행 | 조선 후기

토시 | ① 길이 25 너비 14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8 지름 11 | 국립민속박물관, ③ 신윤복 | 간송미술문화재단

으로 실었다. 그 가운데 여름용으로 등거리와 토시를 들고 있는 장사꾼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토시는 개항 이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셔츠와 장갑이 들어오면서 차츰 사라졌다.

특징 및 의의 여름용 토시는 수구袖口에 땀이 묻지 않고 통풍이 잘되도록 원통형으로 엮어 팔에 끼웠다. 재료는 등나무나 대나무, 말총, 고래뼈로 만들고, 직물로는 모시나 항라 등으로 홑토시를 만들어 사용했다. 겨울용 토시는 겉감은 비단이고 안감은 명주나 면으로 만들었다. 안감에 솜을 넣거나 토끼털을 덧대어 방한의 효과를 더하기도 했다. 상하 부리에는 검정색 눈썹단 테를 둘러 장식하여 멋을 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실용성과 장식성 두 가지 기능을 갖춘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출토복식 명품선(경기도박물관, 2008), 머리에서 발끝까지(국립민속박물관, 2011), 왕실문화도감(국립고궁박물관, 2012),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가의 유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박성실·조효숙·이은주,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조선시대 풍속화(국립중앙박물관, 2002),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노수정(盧洙正)

토주
吐紬

정의 꼬임이 있는 견방사絹紡絲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한 견직물의 일종.

내용 토주吐紬, 土紬는 꼬임이 있는 견방사를 경사와 위사로 사용하여, 표면이 거칠고 광택이 적으며 비교적 두꺼운 물성의 평직의 견직물이다. 견방사는 생실을 켤 수 없는 고치를 삶아 늘여 만든 솜이나 누에에서 실을 켜낼 때 고치에서 나오는 생실 이외의 부산물에서 나온 단사를 꼬아서 만드는데, 때로는 일반 고치와 쌍고치를 뜯어서도 한다. 이러한 원료들을 적당히 삶은 다음 가볍게 짜서 한 손에 쥔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꼬면서 잡아 늘이며 뽑은 실을 수방사手紡絲라고 하는데, 수방사 중에서도 두 올 이상을 합쳐 S꼬임이나 Z꼬임을 주어 꼬임이 강하면서도 균일한 굵기의 실로 짠 것이 토주이다.

특징 및 의의 토주는 주紬가 다양해지면서 왕실의 혼례에서 사치를 없애기 위해 1749년(영조 25)경에 저술한 『국혼정례國婚定例』에 등장하는데, 대전의대大殿衣襨 중 천익天益·유과두襦裹肚·액주름[腋注音]과 중궁전의대中宮殿衣襨 중 노의露衣·유저고리[襦赤古里]·유호수襦胡袖 등에 토주를 사용하기를 권장하였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서 면주綿紬·수주水紬·정주鼎紬는 안감에, 토주는 겉감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볼 때, 토주가 면주나 수주, 정주에 비하여 고급 주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토주는 설면자雪綿子로 실을 만들어 짜는데 질기고 따뜻하여 값이 보통 주의 두 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탁지준절度支準折』에 기록된 절가折價를 기준으로 황색의 토주·면주·주의 가치를 따져 보았을 때 토주는 약 전錢 2냥兩 9전戔 3푼分 6리里, 면주는 약 전 2냥 8전 7푼 1리, 주는 약 전 1냥 5전 5푼 5리로 면주와 주보다 가치가 높은 직물이었다.

참고문헌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고전용어사전(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농촌진흥청(nongsaro.go.kr).

필자 이은진(李銀眞)

통천관
通天冠

정의 황제가 강사포絳紗袍를 입을 때 착용하는 관모.

역사 통천관通天冠은 본래 진秦의 제도였다고 하나 한漢에 이르러 제도화되었다. 이후 수隋·당唐에도 천자는 강사포에 통천관을 착용하였다. 여기서 통천관은 24량으로 매미 12수首를 부시附施했고, 주취珠翠와 금박산金博山을 가시加施하며, 조영組纓이 있고, 여기에 취우翠羽를 영단식纓端飾인 유綏로 한다고 기록했다. 또한 『속한서續漢書』에는 잠도簪導의 기록은 없다. 다만 옥 또는 무소뿔로 만든 서잠도犀簪導를 하였으며, 『남제서南齊書』 여복지輿服志에 의하면 박서잠도駁犀簪導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무소뿔에 생기는 아름다운 박리駁理는 무소가 모태母胎에 있는 동안 천공天空의 현상에 감통하여 나타난 것



통천관 | 고종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통천서通天犀라고도 불렀으며, 이것을 잠도로 사용하면서 관의 명칭으로 이어졌다. 송대에 이르러 통천관의 명칭이 승천관承天冠으로 바뀌어도 형태는 그대로 이어졌다. 이후 『대명집례大明集禮』 관복조에는 매달 초하루 군신의 조하를 받을 때와 정조 및 동지의 대조회 때, 여러 제사를 지내고 돌아올 때에 강사포와 통천관을 착용한다고 했다. 이때 통천관에는 금박산을 더하고 매미 12마리를 붙이며 주취, 흑개책, 옥잠도를 한다고 했다.

내용 통천관은 황제가 쓰는 관모 중 하나로 강사포와 함께 착용했다. 『명사明史』를 보면 1368년(홍무 원년, 공민왕 17) 명 태조가 성 밖 사당에 나아갈 때, 희생을 살필 때, 황태자 및 여러 왕들이 관례와 혼례를 할 때, 초계醮戒할 때 통천관에 강사포를 입었다. 그 모양은 산과 유사한데, 앞면을 수직으로 세우고 철사로 관의 교량을 만들어 고정했다. 『속한서續漢書』 여복지輿服志에서 통천관의 모습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는데, 높이는 9촌寸으로 하고 철선鐵線을 구부려 양관梁冠 형태를 만들었으며, 위는 약간 뒤로 경사지게 하여 곧바로 내려가게 하였다. 관 앞면에는 산술山述이라고 하는 규각형圭角形 장식이 서 있었고, 그 앞쪽에 통처럼 생긴 장식을 뿔처럼 튀어나오게 해 전통展筒이라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금박산과 매미 12마리를 붙이고 머리에는 주취를 베푼다고 하였으며, 흑개책, 조영, 옥잠도로 구성하였다. 한국에는 고종이 강사포에 통천관을 쓰고 있는 어진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다.

특징 및 의의 통천관은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면서 '조현지복朝見之服'으로 강사포와 함께 착용하였다. 이때 통천관은 12량梁에 12마리의 매미가 붙어 있고 각 양마다 5색 구슬을 12주씩 꿰어 장식하였으며 양쪽에 주영朱纓을 달고 관 위에는 옥잠을 꽂았다. 강사포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관은 원유관과 통천관이다. 그중 원유관은 임금이 쓰는 것이고 통천관은 황제가 쓰는 관이다. 이에 고종은 원유관이 아닌 통천관을 강사포와 함께 착용함으로써 만천하에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국사편찬위원회, 두산동아, 2006), 한국복식사 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의 관복(고광림, 화성사, 1990).

필자 이민주(李民周)

통치마

정의 트인 곳을 모두 박아 통으로 만든 치마.

내용 통치마는 자락치마에 부분적으로 서양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치마의 트인 곳을 모두 박아 통으로 만들고 길이를 짧게 만든 치마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조선시대 여성들이 착용하였던 자락치마는 길이가 길고, 옷감이 많이 들며, 속곳까지 내보이며, 활동할 때 한쪽 자락을 손으로 여미고 다녀야만 하는 불편하고 비경제적인 옷으로 인식되었다. 통치마라는 표현은 당시 대한자강회 회원이자 『제국신문』 주필이었던 정운복鄭雲復이 쓴 논설(「부인의 의복을 기량홀 일」, 『제국신문』, 1907

년 6월 19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치마는 도랑치마로 ᄒᆞ되 외오 닙고 바로 닙ᄂᆞᆫ 폐단이 없이 통치마로 민드러셔 거름 거를젹에 치마 자락이 버러지지 안케ᄒᆞ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치마는 땅에 끌리던 치마 길이를 짧게 하고 트인 곳을 막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옷이었다. 한편으로는 오른자락치마, 왼자락치마 등으로 당파와 지역을 구분하던 폐단을 없앴던 옷이기도 했다.

통치마가 이용되면서 말기를 어깨에 걸치는 조끼허리(어깨말기 또는 어깨허리)가 고안되었다. 전통 자락치마는 치마허리에 일자 말기를 달아서 허리나 가슴에 꼭 죄어 둘러 입는 형식이었다. 통치마는 일자 말기를 개량하여 어깨에 걸치는 부분을 서양 남성의 조끼모양으로 만들어 어깨에 걸칠 수 있게 하였다. 조끼허리는 1910년대에 이화학당의 월터A. J. Walter와 파이F. O. Pye가 체조를 수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하였다고 전해진다.

통치마가 여학교 교복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보급되자 1921년 치마허리와 관련하여 효용성이 강조된 개량 한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원주는 치마허리로 가슴을 꼭 동여매는 까닭에 호흡기질환과 심장질환이 발생하며 체격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치마허리를 학생의 ‘조끼허리’ 형태로 바꿀 것을 강조했다. 한편, 나혜석羅蕙錫은 지금 우리 의복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에 주목하며 이를 모두 뜯어 고쳐 운동복 같은 옷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하였다.

검정 통치마와 흰 저고리가 등장하면서 이는 여학생이나 신식 여성을 상징한 반면 자락치마는 점차 구식 부인들에게 통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부인들도 실용성 때문에 속치마로는 통치마 형태의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속치마는 개화기에 생긴 속옷으로 치마보다 길이가 약간 짧았으며, 말기가 어깨허리로 되었고, 대부분 흰색의 인조견으로 만들었다.

통치마의 길이는 처음에는 발등을 덮을 만큼 길었다. 1920년대에 통치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종아리가 드러나 보이게 되어 ‘깡통치마’라 불렀다. 통치마에 멋을 부려 서양복의 플리츠 스커트처럼 치마 주름을 굵직굵직하게 치맛단 끝까지 다리미로 눌러 다려 입기도 하였다(굵은 통주름을 잡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단 윗부분을 넓게 접어 두 개의 단을 만들거나, 단 부분에 흰 선을 두르기도 하였다. 길이가 짧은 통치마의 유행은 양말의 보급으로 가속화되었다. 통치마 아래에는 버선과 양말이 혼용되었는데, 여성들이 종아리를 드러내게 되면서 버선 길이가 종아리를 가릴 만큼 길어지기도 하였다. 신은 고무신과 양화洋靴(구두)가 병행되었다.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3년에는 부인들의 치마까지 통치마로 만들어 입자는 운동이 일본 고관 부인들의 모임인 대일본부인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대일본부인회에서는 치마는 통치마로, 저고리는 옷고름 대신에 단추를 사용하자고 권장하였으며, 이 운동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애국반상회에서 협의하여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신생활장려 추진회에서 통치마를 장려하였다. “남자는 노-타이샤쓰, 여자는 통치마!”라고 하여 여름 복장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통치마와 함께 동정과 깃을 생략한 적삼을 간이복으로 제안하였다.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의 대한애국부인회 전남지부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를 통치마 착용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부인들의 자락치마를 “경제적이고 예의적이고 또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통치마로 모조리 고쳐서 입어주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통치마 강조 주간에는 통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부인들의 승차가 거부되기도 하였다.

6·25전쟁 때 부산에서 구호품과 밀수품이 성행하면서 비로도로 만든 통치마가 멋쟁이의 상징이 되었다. 비로드 통치마는 최고의 학부인 여대생들에게 마치 교복처럼 애용되었고, 일반 여성들에게도 유행하였다. 1956년 영화 <자유부인>의 여주인공이 입고 나왔던 벨벳 통치마는 곧바로 유행을 탔다. 농촌의 아주머니들도 나들이할 때에는 양단저고리에 비로도치마를 입었다. 1950년대 중반에 벨벳의 품귀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통치마는 어린이를 위한 실용적인 치마이기도 했다.

1960년대까지도 통치마는 여성들이 주로 입고 다니는 옷차림 중의 하나였다. 1965년에 발매된 대중가요인 최숙자의 「갈매기 우는 항구」 앨범에 실린 <통치마 통사정>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도 1960년대에 통치마가 여성들에게 널리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중가요 가사 속에 등장하는 통치마와 옥양목 겹저고리, 고무

신, 선지빛 댕기는 1960년대 일반 미혼 여성들의 옷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 경북 칠곡에서는 통치마를 평상시에는 잘 입지 않는 외출용 옷으로 여겼으며, 여름철에 모시나 안동포로도 만들기도 하였다.

대외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통치마가 양장에 밀려 사라진 반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대외적으로 폐쇄적이었던 중국 길림성 한인 동포들은 1980년대까지 통치마를 착용하였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대 통치마는 그 길이에 따라 짧은 치마, 중간 치마로 구별되었다. 짧은 치마는 무릎 바로 밑까지 오는 것으로 젊은 층에서 주로 착용하였다. 중간 치마는 그 길이가 종아리 아래까지 오는 것으로 중년들이 주로 입었다. 특히 가슴 부분부터 치마 도련 부분까지 너비 약 3㎝가량의 주름을 잡은 주름치마가 유행하였다. 통치마는 주로 홑치마로 제작되었으며 따로 속치마를 착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통치마는 20세기 초 외래 문물의 유입과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시작된 의생활의 근대화 양상의 하나로 전통 한복 치마에 서양복의 요소인 조끼허리와 치마의 트임을 막는 특징이 절충되어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치마이다. 통치마는 여학교 교복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보급되었으며, 1920년대 여학생이나 신식 여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표상이 되었다. 보수적인 사고관을 가진 부인들은 실용적인 통치마를 겉에 입지는 않았으나 속치마로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인 태평양전쟁 때에 부인들의 치마도 모두 통치마로 바꾸기를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 부인들의 옷차림 개량을 위해 통치마를 권장하기도 했다. 1960년대까지 통치마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고관을 벗어난 젊은 여성들의 옷차림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양장에 밀려 사라졌다.

참고문헌 1950년대 미제문화와 비로도가 판치던 거리(박완서, 역사비평13, 역사비평사, 1991), 1950년대 사회풍조와 한복 착용에 관한 연구(윤양노, 민속학연구25, 국립민속박물관, 2009), 생활한복(조효순, 계몽사, 1985), 서울 6백년사-의복(유송옥,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손인실-사랑과 겸허의 향기(안혜령,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우리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한국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남윤숙,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0), 현대패션 100년(금기숙 외, 교문사, 2002).

필자 이민정(李旼靜)

투혜
套鞋

정의 방한용 또는 오염을 막기 위하여 화靴 위에 신는 덧신.

내용 투혜套鞋는 정精과 함께 관복에 갖추어 신는 화靴와 한 벌을 이루어 기록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투혜는 방한용 또는 오염을 막기 위해 화 위에 신는 덧신이다. 정은 버선과 비슷한 용도의 신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투혜 착용에 대한 규제와 사신과 관리들에게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태종 대에 분투혜는 추울 때 조회朝會와 행행行幸(임금이 대궐 밖으로 거동함) 영송迎送 시에만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병이 있고 연로하여 신기를 자원하는 자는 다른 경우에도 착용할 수 있어 방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남잡지松南雜識』에는 유혜油鞋, 수혜水鞋가 모두 진흙을 막아 주며, 같은 용도의 대분투는 오히려 나무로 만들지 않고 가죽을 대서 신는다고 기록되어 있어 화의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신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에서는 당시 양반들이 수레를 타고도 신발이 더러워질까 두려워 화에 분투를 신는다고 하여 그 사치스러움을 비판하였다. 재료에 관하여서는 『상방정례尙方定例』에 흑사피투혜黑斜皮套鞋를 만들 때 겉은 흑사피로 하고, 안감은 백당피白唐皮, 회이回伊는 청사피, 버팀대인 포布와 조선에서 만든 실[鄕絲], 창옆에 바를 분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도 투혜의 겉감으로 사피와 마피馬皮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왕이 사신이나 관리에게 내리는 중요한 하사품 중의 하나였으며, 북경에 가는 우리나라 사신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피화皮靴에 투혜를 갖추어 하사하곤 하였다. 또한 혼례를 치를 때 관복을 입는 신랑에게도 필요한 물품으로 『미암일기眉巖日記』에 등장한다. 한편 도보 이동이 많지 않은 왕실에서 착용한 기록은 매우 적다.

유물 가운데 투혜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의 36.5㎝ 길이의 기름 먹인 가죽신이 있다. 일반적인 혜鞋와는 달리 신코가 넓적하고

신울(신발의 양쪽 가에 댄, 발등까지 올라오는 울타리)이 높으며, 신 중간 부분에서 가죽을 이어 붙였다. 파평 윤씨 문중 유물 중에서도 각각 32㎝, 37㎝인 가죽신이 있다. 또한 풍산 류씨 문중에도 류성룡柳成龍의 것으로 전해지는 33㎝의 가죽신이 있다. 화나 혜의 일반적인 길이와 비교하였을 때 확연히 더 긴 것을 알 수 있어 덧신으로 추정된다.

특징 및 의의 발에 신는 신발이 아니라 화를 보호할 목적으로 신는 덧신이라 크기가 크고, 겉감으로 가죽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만들었다. 주로 상류층에서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尙方定例, 朝鮮王朝實錄,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 무관 옷 이야기(이은주·조효숙·하명은, 민속원, 2005), 조선시대 남자용 혁·포제 신에 관한 연구(곽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조선시대의 신(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2016), 화·혜·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곽경희(郭京熹)

파마머리

정의 머리에 헤어 아이론 또는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한 일시적인 웨이브와는 달리, 머리를 감아도 반영구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웨이브.

내용 파마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진 약제를 사용하며 모발에서 시스틴 결합의 환원과 산화 등의 화학반응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모발의 구조나 형태를 변화시킨 후 고정시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쇠에 석탄carbon불을 담아 파마를 하였기 때문에 '불파마'라고 하였으며, 가끔 화상을 입기도 하여 큰 고생을 하였다는 일화가 많다. 파마 값이 너무나 비싸서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였다. 한번 파마하는데 쌀 두 섬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화신미용부를 드나들던 고객들은 주로 배우·무용가·신여성·부호 집안의 여성·일류 기생들이었다. 이화梨花 최초로 파마를 한 사람은 1920년대 미국에서 돌아온 음악선생 정애식이었고 1923년도 졸업생인 문마리아, 윤성덕, 서은숙 등이 파마를 하였다. 1937년에 최예순을 필두로 파마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엽주미용실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오엽주가 차린 미용실인데 그가 선보인 파마는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때 전기로 머리카락을 지진다고 해서 전발電髮이라고 했다. 월간 「여성」 1936년 10월호 표지엔 파마머리를 한 여성이 등장하기도 했다.



파마약 바르기 | 전북 무주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1930년대 도시에서는 파마머리가 그런대로 보급되었지만, 시골에서는 1950년대까지 파마를 하는 일은 큰 도전이었다. 시골에 시부모가 계신 경우에 며느리가 파마머리를 하면 수건을 싸서 가렸으며, 심한 경우에는 친정으로 쫓겨나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 부인네들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 훤한 대낮에는 좀처럼 바깥에 나갈 생각을 못하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인력거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멋쟁이들은 쪽을 트는 대신 파마머리에 전기 아이롱을 하였고 양옆머리에 웨이브를 넣었으며, 뒷머리는 원롤로 밖말음하여 말아 올리거나 뒷머리를 2단컬·3단컬로 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엽 총독부는 전시 체제의 물자절약 차원에서 여성의 파마와 남성의 장발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지했던 파마머리가 다시 유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다. 또 다른 의견으로 파마나 새로운 양장의 유행은 여성복식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써 현재는 양장이 낯설지만,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여성 풍속에 대한 견해' 등 제하의 기사에 나타나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1946년에 어깨 정도 길이의 파마머리에서 앞머리를 세운 형이 유행되었다. 당시 잡지의 기사에서 '링그'라고 하는 머리모양에 대해 설명하고, 파마머

리모양과 어원에 대해서 우리말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링그는 '해방이 되자 봉기蜂起한 것이 머리頭髮이다. 소위 「링그ring」라고 해서 머리가 툭 불거져 올라온 것인데 조선어사전에서는 링그 머리의 혹 또는 뿔 또는 챙'이라고 하였다.

파마머리는 1920년대 도입이 된 이후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여성의 의복과 함께 머리모양도 점차 다양해졌다. 그 외 전기파마, 콜드 웨이브 파마 등 다양한 파마법이 등장하였고 1950년대는 이를 양발, 즉 서양머리라고 하고 열두 가지 파마법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한가람 봄바람에 이화 100년 야사(민숙현·박해경, 지인사, 1981), 한국여성양장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1), 부인(1948. 4), 신부인경향(1950. 3), 여성계(1954. 3), 천지(1946. 5).

필자 김현경(金炫京)

팔사단
八絲緞

정의 8매 수자조직으로 제직된 단직물.

내용 팔사단八絲緞은 8매 수자조직으로 제직된 단을 말한다. 팔사단은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중국에서 유입되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에 따르면, 1783년(정조 7)에 동지겸사은정사冬至兼謝恩正使 정존겸鄭存謙과 부사副使 홍양호洪良浩가 중국 황제에게서 소권팔사단小卷八絲緞과 소권오사궁주小卷五絲宮紬를 상으로 받았다. 1784년(정조 8)에는 소권팔사단, 소권오사단小卷五絲緞, 1794년(정조 18)에는 팔사단, 오사단五絲緞, 1798년(정조 22)에는 대권팔사단大卷八絲緞, 대권오사단大卷五絲緞을 중국에서 받았다. 일반적으로 팔사단은 오사단과 함께 기록되었다.

『일성록日省錄』에 따르면, 1793년(정조 17)에는 한성부의 단緞, 공단貢緞의 값은 10여 냥이나 되고 팔사단과 모단冒緞의 값은 5~6냥이 된다고 하여 팔사단이 단직물의 한 품종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단보다 가격이 낮은 것으로 보아 하급의 단직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의 8매 수자조직은 1600년대 말에서 1700년대 초의 분묘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안동 권씨(1664~1722) 묘에서는 5매 수자조직의 공단, 문단과 함께 8매 수자조직의 문단이 출토되었다. 이진숭(1702~1756) 묘에서는 8매 수자조직의 무문단과 8매 수자조직 문단으로 만든 철릭이 출토되었다. 경사가 매우 가늘고 치밀하게 제직되어 조직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광택이 많다.

특징 및 의의 팔사단은 중국에서 유입된 직물로 주로 1700년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수자조직의 매수로 직물을 명명한 것으로 오사단과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이진숭 묘 출토복식 직물 연구(심연옥, 이진숭 묘 출토복식, 국립민속박물관, 2010).

필자 심연옥(沈蓮玉)

팔찌

정의 팔에 하는 장신구를 총칭.

역사 고구려 팔찌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온달전溫達傳에 의하면, "공주는 보천寶釧 수십 개를 팔뚝에 차고 궁궐을 나와 혼자 갔다 …… 이 금천을 팔아 집, 노비, 우마牛馬, 기물을 구입하였다."라고 하여 팔찌를 착용한 예를 보여 준다. 팔찌의 양식 중 특히 금판환식金板環式 팔찌는 스키타이계 대표적인 팔찌 양식의 하나로 스키타이 금판환식 팔찌는 하나의 둥근 금판에 다시 하나의 금판을 덧대고, 그 표면에 누금세공鏤金細工을 가하고 여러 색의 유리옥을 박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팔찌에도 이와 같은 양식이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팔찌를 사용하였다. 연대도 패총 7호분 남성 인골의 발목에서 나온 발찌는 돌고래, 수달, 너구리의 이빨 124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팔이 아니라 발목에 한 것이지만, 신석

기시대의 것으로 유일한 예이며, 당시 사람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외 서포항 유적, 옹기 송평동 패총유적 등에서 패각貝殼, 대리석으로 만든 팔찌가 출토된 바 있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청동, 옥 등 재료가 다양해져 청동기시대 사회에서도 패각, 옥석, 금속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팔찌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삼한시대에도 옥팔찌와 청동팔찌가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모든 나라에서 애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에도 양팔에 팔찌를 찬 모습이 보인다. 고분에서 출토된 팔찌에는 금·은·동·옥제품이 있으며, 양식은 간단한 환형環形 팔찌와 쇠사슬형 팔찌, 톱니식 팔찌, 금판환식金板環式 팔찌, 옥팔찌 등이 있다. 이 중 쇠사슬형 팔찌는 백제 무령왕릉 출토 금·은제 팔찌로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쇠사슬형 목걸이류와 구성방법이 비슷하다. 환형 팔찌에는 삼국 모두 간단한 원형으로 된 것과 원형이나 끝이 열려 있는 것도 있다. 가장 많이 출토되는 톱니식 팔찌는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와 봉화리 1호분에서 출토된 고구려 청동팔찌가 있는데, 고리의 바깥 둘레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톱날 모양의 돌기로 장식하였다. 백제 무령왕비의 은제 팔찌에는 팔목이 닿는 안쪽에 톱니 모양을 촘촘히 새겼고, 바깥 면에는 발이 셋 달린 용을 두마리 새겼다. 그 외 무령왕릉 출토 금·은제 팔찌와 부여 출토 은제 팔찌도 표면인 굵은 톱니식이다. 경상북도 경주 노서동 215호분에서 출토된 신라 금팔찌는 납작한 단면 바깥쪽에 각각 59개의 돌기를 내어 하나하나에 옥을 상감하였으며, 돌기 좌우에는 용들이 입을 벌리고 서로 다른 용의 꼬리를 물려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냈다. 세밀하게 표현된 용의 비늘, 상감 기법 등 당시 뛰어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다. 경주 금관총과 호우총에서 출토된 금팔찌 환체의 외측에는 톱니문이 새겨져 있다. 이외에 금관총 출토 은팔찌, 황오리 33호분 출토 동팔찌 모두 톱니문을 이루고 있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은팔찌는 은銀으로 된 납작한 고리의 바깥 둘레에 둥근 구슬 모양으로 돌기를 내고 그 양옆으로 작은 구슬 모양을 놓았다. 이러한 형태의 팔찌는 넓은 의미에서 톱니식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창녕 계성동 고분 A지구 1호분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팔찌 두 개 중 한 개는 은에 도금을 한 것이고 한 개는 순은제이다. 팔찌의 표면에는 눈을 돋을새김하거나 둥근 돌기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창녕 교동리 12호분에서 출토된 팔찌는 은으로 둥근 고리 모양을 만든 것으로, 팔찌의 표면에는 각목刻目하거나 둥근 돌기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대체로 5세기 후반 무렵에 만들어졌으며, 귀족들의 생활 문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양산 부부총 출토 은팔찌 두 개는 둘레에 톱니문을 새겼다. 금판환식 팔찌 중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판환식 팔찌는 얇고 길쭉한 금판을 붙여 만든 것으로, 표면의 돌기 속에는 보석을 박아 금빛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고령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금판환식 팔찌는 얇은 금판에 양쪽으로 금제 원형 영락이 달려 있다. 옥팔찌 중 경주 인왕동 19호분에서 출토된 신라 금방울팔찌는 곡옥과 금방울을 달아 만들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옥팔찌는 황·흑색의 소옥과 곡옥을 교차 배치하여 그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황오리 54호분 갑총 출토 옥팔찌는 마노제 관옥에 호박제 소옥을 연결한 것이고, 황남리 109호분 4곽 출토 옥팔찌는 녹청색 유리제 소옥 32개를 연결하고 소곡옥 한 개를 달았다. 경주 금령총 출토 옥팔찌는 하나는 유리옥을 연결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 색채의 남경옥南京玉을 두 줄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경



① 은제 용문 팔찌 | 지름 8 | 백제 ② 금제 톱니식 팔찌 | 지름 8 | 신라 ③ 금판환식 팔찌 | 너비 2.1 지름 7.2 | 신라 ④ 은도금타출 화문팔찌 | 지름 9 | 고려

팔찌 | ① 충남 공주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② 경북 경주 노서동 | 국립중앙박물관, ③ 경북 경주 황남대총 북분 | 국립경주박물관, ④ 국립중앙박물관

옥제 곡옥을 하나 집어넣는 독특한 형태이다. 장식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곡옥은 백색을 띤 불투명색이며 둘레의 소옥들은 유리색 외에 주朱·황黃·수색水色등을 교차사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상도 지역 출토 옥팔찌는 녹색 곡옥 11개와 각종 옥을 연결한 것이다. 양산 부부총에서 출토된 2조의 옥팔찌 중 하나는 소마노옥小瑪瑙玉 55개를 연결한 것으로 부인의 오른팔 끼었다. 다른 하나는 같은 소마노옥 23개와 유리소옥 23개와 밀감옥蜜柑玉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인의 왼팔에 끼어져 있었다. 중국 길림성 돈화현 육정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발해 청동팔찌들이 있는데, 완전히 막힌 것과 한쪽이 열린 것도 있다. 그 외 고분에서도 금·은·동·철제로 된 팔찌들이 출토되었으며 원형과 타원형이 있다. 장식은 없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들이 대부분이다.

고려시대는 그 유물의 양이나 장식 방법 등으로 보아 귀고리나 목걸이에 비해 특히 팔찌가 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타출화조문銀製鍍金打出花鳥紋 팔찌는 팔찌의 바깥 면을 돌아가며 능화형菱花形으로 된 여섯 개의 구획을 주 문양으로 배치한 뒤, 능화문 안에는 서로 엇갈리게 표현된 두 마리의 새와 연꽃넝쿨무늬를 번갈아가며 장식하였다. 그 여백에는 연꽃넝쿨무늬를 빼곡히 배치하고 그 주위를 눌러 더욱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외측면의 위·아래 단은 톱니모양의 장식으로 마감하였다. 팔찌 안쪽의 둥글게 비어 있는 부분은 별도의 얇은 은제 판으로 끼워 위로 덧대었으며, 이 은제 판에는 넝쿨무늬와 그 여백에 어자문魚子紋을 촘촘히 선각, 또는 저부조底浮彫로 타출하였다.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은제도금타출화조문 팔찌에서도 거의 같은 양식을 볼 수 있다. 이 팔찌들은 단순히 치장 목적 외에 제작 방식을 볼 때 팔찌 속에 다라니陀羅尼 경전이나 부적 등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은제도금타출화문 팔찌는 바깥 면은 만개한 꽃잎 군을 안쪽에서 두드린 다음, 바깥쪽에서 다시 두드려 고부조의 타출기법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안은 빈 공간이다. 팔찌의 바깥 부분은 삼단으로 구성하여 한 줄에 20개의 꽃잎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였고, 여백도 작은 꽃잎으로 채웠다. 은제연화당초문 팔찌는 연화당초문을 장식하였고, 여백은 어자문으로 메웠다. 안쪽 면에는 별도의 은판을 덧댄 위에 당초문을 선각한 후 바탕을 점선조기법으로 장식하였다. 은제도금용문銀製鍍金龍紋 팔찌는 둘레에 타출 기법으로 용문을 새겼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 소장된 은제 팔찌는 겉 표면 전체를 능형菱形의 구획으로 나누고 위와 아래의 문양에는 도안한 국화를 음각하였으며, 중간에는 총 23자의 명문을 새겨 넣었다.

현대에 착용되는 팔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뱅글 브레이슬릿bangle bracelet: 원래는 인도나 아프리카의 여성이 사용했던 것으로 팔에 두르는 장식 테를 이르는 말이다. 금·은·유리 등으로 만들어 그대로 팔목에 끼는 팔찌이다.
2. 참 브레이슬릿charm bracelet: 참charm이란 '부적', '주문'이라는 뜻으로, 팔찌 주위에 체인으로 여러 장신구들을 늘어뜨린 형식을 말한다.
3. 스네이크 브레이슬릿snake bracelet: 팔목이나 팔뚝에 뱀처럼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는 팔찌를 말한다.
4. 체인 브레이슬릿chain bracelet: 사슬을 연결한 팔찌를 말한다.
5. 암릿armlet: 브레이슬릿이 손목에 끼는 장식인 데 비해, 위팔에 끼는 팔찌를 말한다.

특징 및 의의 팔찌는 삼국시대에 들어와 모든 나라에서 애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공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한 번에 여러 종류의 팔찌를 양팔에 착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이전 시대에 귀고리, 목걸이가 유행했던 것과 달리 팔찌가 애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거의 착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손목시계 때문에 팔찌는 목걸이보다 덜 착용하지만, 팔의 노출에 비례해 여름에 특히 팔찌 착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시대 타출공예품 연구(김은애,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고분출토 부장품연구(오세영, 고려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미술전집4-벽화(김원룡, 동화출판공사, 1980), 한국복식사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e뮤지엄(emuseum.go.kr).

필자 김문자(金文子)

패랭이

정의 조선시대 천인 계급이나 상제喪制가 쓰던 굵은 대오리로 엮어 만든 갓 모양 모자의 하나.

내용 패랭이는 대를 잘게 쪼갠 것을 엮어서 모자집과 차양이 구분되도록 만든 갓의 하나로, 평량자平凉子·폐양립蔽陽笠·폐양자蔽陽子 등을 가리키는 우리말 명칭이다. 유형상으로 대우(모자의 원통 모양 부분)와 양태凉太(모자 밑의 둥글넓적한 부분)의 구분이 있는 모자를 평량자형이라고 하는데, 평량자형의 기원이 되는 패랭이는 주로 햇볕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던 상민常民의 쓰개였다. 굵은 대오리를 성글게 엮어 만들며 모자집의 모정帽頂은 둥글고 차양 부분인 양태의 너비는 그리 넓지 않다. 패랭이를 기본으로 하는 평량자형 모자는 패랭이에서 초립草笠, 흑립黑笠 등으로 발달하였는데, 패랭이는 양태가 아래로 약간 우긋한 데 비해 초립은 위로 버드러져 올라가 있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임하필기林下筆記』, 『야곡삼관기冶谷三官記』에는 "임진왜란 때 적이 흑립을 쓴 양반을 만나면 잡아가고, 패랭이를 쓴 자는 극빈자라 하여 잡아가지 않았으므로 이때 양반들도 패랭이를 써서 한때 크게 유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흑립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서인士庶人의 관모였음에 비해 패랭이의 용도는 점차 국한되어 조선 말까지 신분이 낮은 역졸이나 보부상, 기타 천직賤職에 있는 사람들이 상용하였으며, 특히 보부상은 패랭이에 목화송이를 큼직하게 얹어서 착용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위와 귀천의 차별 없이 흑립 사용이 허용되어 천인층에도 흑립을 쓰도록 하였음에도 천인들은 흑립을 감히 쓰지 못하고 계속 패랭이를 썼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패랭이는 노동모로 햇볕이나 비, 바람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오늘날 여름철에 흔히 보는 밀짚모자는 용도나 형태상으로 보면 패랭이의 한 유형이다.



패랭이 | 높이 12 지름 3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특징 및 의의 입笠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관모 중 하나로 평량자나 삿갓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처음에는 관모라기보다 더위와 비를 막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점차 재료와 제작 방법이 발전하면서 종류와 용도가 확대되었다. 그중 패랭이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남성용 쓰개인 흑립(갓)의 시원始原으로, 조선시대에 초립, 흑립으로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임경화(林炅花)

패옥
佩玉

정의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옥을 끈으로 엮어 좌우로 늘이는 장식.

내용 '패옥佩玉'이란 말은 '옥을 패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패'는 흔히 '차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배倍'의 의미이다. 배는 '더하다'는 뜻으로, 하나가 아니라 형태가 다른 여러 개를 더해서 쓰기 때문에 붙여진 글자이다.

고대에는 천자부터 사士까지, 군자君子라면 반드시 상례喪禮를 치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옥을 차야 했다. 옥은 '덕德'을 상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군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이 덕이라고 여겼고, 때문에 덕을 상징하는 패옥을 '옷의 중심[服之衷]'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왼쪽에는 옥을 차고 오른쪽에는 나무로 만든 생필품을 찼는데, 옥이 덕을 상징한다고 보아 왼쪽에 찬 좌패를 '덕패德佩'라 하고, 생필품은 일[事]을 하는 데 소용된다고 보아 오른쪽에 찬 우패를 '사패事佩'



영친왕비 패옥 | 길이 77 너비 9 | 근대



패옥 착용 모습

패옥 | 국립고궁박물관

라 했다. 후대에 예복에 쓴 패옥은 나무로 된 사패는 없어지고 옥으로 된 덕패만 남아 양쪽에 차게 된다.

예복의 패옥은 본래 형衡·거琚·우瑀·황璜·충아冲牙, 衝牙로 구성된다. 이들 옥은 각기 모양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형은 가로로 길쭉한 모양이고, 가장 윗부분에 있다. 그 아래에 거 두 개와 우 한 개가 있는데, 우가 가운데에 있고 거는 양 옆에 있다. 가장 아래에는 황과 충아가 있는데, 가운데에 충아가 있고 황은 양 옆에 있다. 그리고 이들 옥의 중간을 작은 진주[蠙珠]로 연결한다. 패옥을 차고 걸음을 걸으면 황과 충아가 서로 부딪쳐 '쟁쟁[鏘鏘]' 소리가 나는데, 군자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덕德을 수양해야 한다고 여겼다.

고려·조선·대한제국에서 패옥은 군주의 면복冕服, 통천관복通天冠服, 원유관복遠遊冠服, 관원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군주의 배우자가 입는 적의翟衣 등에 착용했다.

조선시대의 패옥은 원래대로 형, 거, 우, 황, 충아로 구성된다. 그리고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여기에 옥화玉花와 옥적玉滴이 더해진다. 옥화는 꽃받침 모양의 큰 옥이고, 우 아래에 있다. 옥적은 물방울[滴]처럼 작은 옥이고, 두 개로 구성되며, 황과 충아 사이에 있다. 또 형 위에는 금金으로 만든 고리를 달아 대대나 혁대에 건다. 본래 패옥은 혁대에 걸어야 한다. 조선 전기 면복에는 혁대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대대에 걸었을 것이고, 조선 후기에 혁대를 착용한 이후에는 혁대에 걸었을 것이다.

또 조선시대 상례에서 대렴大斂용 패옥은 진짜 옥 대신 비단에 모양만 그린 것을 써서 관 내부 시신의 좌우에 둔다. 그러나 때로는 예외가 있어, 순종은 무덤에 부장품인 복완服玩 물품으로 진짜 패옥을 넣었음이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시대 옥의 재료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왕과 신하 모두 주체를 민옥珉玉으로 하고, 그 사이사이를 약옥주藥玉珠로 잇도록 규정하지만,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관원의 옥이 3품 이상은 번청옥燔青玉을 쓰고, 4품 이하는 번백옥燔白玉을 쓰는 것으로 규정한다.

패옥의 아래에는 받침을 대는 경우가 있고, 서로 엉키지 않도록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 패옥 받침이나 주머니는 '소수小綬'라고도 하고, 주머니의 경우 '패대佩袋'라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패옥은 차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덕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찬 물품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시대에 따라 세부 구성품이 증가했으나, 패옥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國朝續五禮儀補, 國朝五禮儀, 大韓禮典, 尙方定例, 後漢書, 면복-군주의 덕목을 옷으로 표현하다(최연우, 문학동네, 2015),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장정윤,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최연우(崔然宇)

팬티

정의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 하의.

내용 1920년대를 전후하여 무명으로 만든 짧은 바지 형태의 일본식 속옷 '사루마다さるまた, 猿股, 申股'가 보급되고 서양식 복제服制가 들어와 일상복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정착했다. 잠방이와 비슷한 형태에 길이가 짧고 몸에 밀착해 입는 속옷이라는 점에서 '속잠방이'라고도 불렀다.

팬티가 기성복으로 생산되기 이전에는 대개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들어 입었다. 개화기 이후 한복 치마 대신 통치마나 서양식 치마를 입은 신여성들은

부피가 큰 바지류의 속옷 대신 무명으로 만든 짧은 팬티를 입고 그 위에 간단한 속바지와 치마를 입었다. 팬티보다 길이가 긴 드로어즈drawers를 팬티 대용으로 사용한 예가 있으며, 이들 속옷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판츠パンツ'와 '즈로스즈ロース' 같은 표현이 한국식 발음 '빤쓰'와 더불어 일간지와 잡지에 실린 것은 대략 1930년대의 일이다.

참고문헌 우리 생활 100년·옷(고부자, 현암사, 2001),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유수경, 일지사, 1991).

필자 조희진(趙熙眞)

편복
便服

정의 평상시 입는 겉옷.

역사 편복便服은 평거시平居時에 착용하는 옷의 총칭으로 관복과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편복을 안에 받쳐 입고 그 위에 관복을 입기 때문에 결국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삼국시대의 편복포는 '표의表衣'이며, 고려시대에는 '백저포白苧布'가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편복포의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없어지거나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용도는 같지만 명칭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내용 편복은 평상시 입는 옷으로 바지저고리를 기본으로 그 위에 입는 포袍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는 평거시에도 의관을 정제하고 있었으므로 관모를 쓰고 겉옷인 포를 입어야 비로소 옷을 갖춰 입었다고 할 수 있었다. 편복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남성들의 겉옷인 편복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복포는 겉옷으로서 예를 갖출 때 입기도 하고, 단령의 밑받침옷으로 입기도 했다. 편복포의 종류에는 크게 철릭, 직령, 액주름, 답호, 도포, 창의, 심의, 학창의 등이 있다. 직령, 액주름, 답호는 조선 전기에 주로 입었으며, 중기 이후에는 도포와 창의류, 전복을 입었고, 말기에는 주의周衣, 즉 두루마기로 단일화되었다. 철릭의 경우에는 전쟁 중 공복으로서의 역할도 했으며, 심의나 학창의처럼 유학자들이 즐겨 입던 예복도 대를 묶지 않으면 야복野服으로 기능했다. 이처럼 편복은 평상시 입는 옷이지만 상황에 따라 때로는 예복, 때로는 공복의 역할을 담당했다.

심의, 철릭 등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입은 편복포로 공통적으로 곧은 깃을 사용하였다. 단, 답호의 옷깃은 대금으로 되어 있고 전복은 옷깃이 없는데, 대신 이 둘은 단독이 아니라 다른 편복포와 함께 착용하였다. 이들 편복포는 시대에 따라 깃, 소매의 넓이, 무의 형태, 섶과 여밈 및 옷고름의 변화,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의 비율 등이 달라져 시대를 구분하는 단서가 된다. 그중 철릭은 오랫동안 널리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면서 조선사회의 분위기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본래 왕으로부터 별감 등 중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서 두루 입었던 옷이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쟁 기간에는 군복인 융복戎服으로 착용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협수挾袖 및 동다리가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융복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 조선 후기에는 기능성보다는 위엄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직령은 조선 전기에 활발하게 착용되었다. 원래 직령은 '곧은 깃'을 말하지만, 곧은 깃을 단 포의 한 종류로서 단령에 대응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관복의 받침옷, 관리의 의례복, 사대부의 평거복으로 착용되다가 조선 후기 도포가 확산되면서 중인 계급의 관복으로 용도가 축소되었다. 이후 깃의 모양이 다른 편복포와 동일한 흐름으로 변천하였을 뿐 조선 말기까지 꾸준히 착용되었다.

액주름은 무의 윗부분을 주름잡아 진동 아래에 봉제한 편복포로, 겨드랑이에 주름이 졌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7세기 이후로 무의 형태가 변하면서 주름이 사라지자 점차 착용 빈도가 줄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출토복식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문헌상으로는 조선 말기까지 꾸준히 그 존재가 확인된다.

도포는 조선 후기 사대부의 대표적인 편복포이다. 임진왜란 이후 등장하는 옷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존재했다. 도포는 깃이 곧고

소매가 넓으며 무가 이중으로 달려 뒷중심이 터져 있다. 그러나 무 위를 뒷자락이 덮어 트임 부분을 가려 주기 때문에 말을 탔을 때 속에 입은 바지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속옷을 보이는 것은 품위를 잃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도포와 함께 중치막과 창의 등 창의류도 유행하였다. 이들은 곧은 깃을 사용한 것 외에 옷의 옆선이나 뒤 중심선에 있는 트임의 위치와 소매 너비 등을 기준으로 다르게 불렀다. 소매가 넓고 무가 있으면서 뒤 중심선에 트임이 있는 것은 대창의, 소매가 넓지만 무가 없이 옆이 트인 것은 중치막, 소매가 좁고 무가 없이 옆이 트인 것은 소창의 혹은 창옷이라고 한다. 간략하게는 옆선이 트인 것은 중치막, 뒤 중심선인 트인 것은 창의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대창의에 깃, 도련, 수구에 검은 선을 두른 옷을 학창의라고 한다. 학창의는 심의를 대신하기도 했다. 이들 창의류는 각각의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홑, 겹, 누비, 솜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면서 착용이 더 확대되었다.

특징 및 의의 편복포는 양란 이후, 특히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러 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거의 모든 편복포의 공통점이던 곧은 깃도 세부 형태가 변했는데, 조선 전기에는 이중깃으로 초기에는 목판형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칼깃형으로 바뀌었으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중깃은 사라지고 칼깃형의 깃만 남아 있다가 다시 깃 궁둥이가 둥근 동그래깃으로 변화하였다.

조선 전기의 소매는 전반적으로 화장이 긴 반면 말기로 갈수록 옷의 크기에 비해 길이가 짧아졌다. 또, 배래선이 전기에는 일직선이었으나 중후기로 가면서 소매 너비에 관계없이 사선으로 점차 넓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배래가 진동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양상으로 변하면서 소매 모양이 직사각형인 두리소매가 되었고, 대부분의 포 소매 형태로 정착하였다. 이에 비해 창옷이나 협수, 주의처럼 좁은 소매를 단 편복포는 배래선이 사선으로 수구를 향해 좁아졌는데, 조선 말기에는 배래선이 일직선을 이루다가 수구 근처에서 붕어배래처럼 곡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바뀌었다.

무는 편복포의 도련 아랫 부분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조선 초기의 직령이나 답호는 무를 진동에서 약간 내려오게 달아 직사각형으로 달았다. 이때는 진동과 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무를 접어 넣는 등 형태가 다양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 보행에 필요한 무의 아랫단은 여전히 넓게 유지하면서 윗부분의 필요 없는 공간을 제거하기 위해 무에 삼각무를 대거나 사다리꼴의 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17세기에는 진동 바로 아래 무를 달았다. 사다리꼴의 무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무를 길의 옆선에 달되 진동 바로 아래부터 달기 시작하여 무의 바깥쪽 윗부분은 진동보다 오히려 약간 올라간 모양이었다. 그러면서 허리 봉제선의 위치가 정하는 상의하상 비율의 차이로 철릭과 마찬가지로 허리띠 매는 위치가 올라가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말기로 가면 사다리꼴 무를 뒤로 젖히게 되어 무의 모양이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뒤쪽에 접은 윗부분을 바느질이나 매듭단추 등으로 고정한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단령의 무와도 그 변화를 같이한다.

한편 편복포의 품이 넓었던 조선 전기에는 여밈도 깊었다. 따라서 고름의 위치가 진동 가까이에 있고 무의 위치도 비교적 낮아 고름을 두 쌍 이상으로 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 여밈이 얕아지면서 한 쌍의 고름으로 정착되고 그 위치가 중앙으로 옮겨지면서 고름의 너비와 길이도 확대되었다. 여밈의 깊이 변화는 포의 외곽선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가 달린 포는 물론 중치막이나 소창의 등 옆이 트인 포의 경우에도 17세기에는 도련선이 진동에 비해 훨씬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를 달거나 섶과 무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으로 섶과 무를 단 경우가 있었다. 이후 19세기가 되면서 포의 옷자락이 진동에서 수직으로 내려오게 되자 섶의 너비가 줄어들면서 중치막과 소창의 같은 옆을 튼 포의 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참고문헌 김확묘 유물을 통해 본 17세기 남자 포에 관한 연구(송미경, 복식57-7, 한국복식학회, 2007), 도포 형태의 전래와 발전 양상에 관한 실증적 고찰(이은주, 복식36, 한국복식학회, 1998),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최은수, 민속원, 2007),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홍나영, 복식58-5, 한국복식학회, 2008), 환생(서울역사박물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필자 이민주(李民周)

폐슬
蔽膝

정의 무릎[膝] 가리개[蔽].

내용 폐슬은 의복문화가 처음 발생할 때 고대인이 차던 생식기 가리개에서 출발하여 예복의 장식물로 정착한 것이다. 예복의 장식물로 정착한 폐슬은 사다리꼴이다. 따라서 허리 앞쪽에 차고, 의례를 행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가려진다. 이 때문에 '폐슬'이라 부른다.

사다리꼴 폐슬의 사방에는 같은 색으로 넓적한 가선을 대는데, 위쪽 가선은 영領, 아래쪽은 준純, 양쪽 옆은 비緋라 한다. 몸판과 가선을 붙인 바느질선 위에는 오색다회五色多繪(청·황·적·백·흑의 다섯 가지 빛깔 실로 짜서 만든 여러 모양의 폭이 넓은 끈목)를 올리는데, 이를 순紃이라 한다.

예복의 폐슬은 그 형태 속에 천지天地 관념과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사상이 반영된다. 폐슬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데, 윗너비는 1척, 아랫너비는 2척, 길이는 3척이다. 여기서 숫자 1은 하늘[天]을 상징하고, 2는 땅[地]을 상징하며, 3은 삼재를 상징한다. 폐슬의 이런 형태는 명明나라에서 고려와 조선으로 전해져서 그대로 유지된다.

고려·조선·대한제국에서 폐슬은 황제·황태자·왕·왕세자·왕세손의 면복冕服·통천관복通天冠服·원유관복遠遊冠服에 썼고, 관원의 면복(고려에 국한)·조복·제복에 착용했다. 황후·황태자비·왕비·왕세자빈 등의 적의翟衣에도 썼다.

남자의 폐슬은 예복 하상下裳의 색을 따르고, 여자의 폐슬은 예복 겉옷의 색을 따르는데, 조선시대에는 여자 예복용 색에서 예외가 발생하기도 한다.

남자들의 예복은 하상이 모두 붉은색이므로 폐슬도 모두 붉은색을 쓴다. 다만 면복의 하상에는 무늬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제국 황제는 용과 화火를 쓰는데, 용은 한 마리를 위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위를 향해 올라가는 불[火] 모양의 무늬 세 개를 배치한다. 조선의 왕과 왕세자, 대한제국 황태자는 조藻·분미粉米·보黼·불黻 네 장의 무늬를 두 개씩 표현하는데, 폐슬에도 하상과 같은 방식으로 네 장을 표현한다. 왕세손은 보와 불 두 장의 무늬를 두 개씩 하상과 폐슬에 표현한다. 관원의 폐슬에는 무늬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최근 17세기 문헌과 유물에서 무늬가 있는 관원의 폐슬이 보고되었다. 문헌에는 1627년(인조 5) 인조仁祖의 부친인 정원군定遠君(원종元宗으로 추존)이 대원군으로 봉해진 상태에서 이장할 때의 기록인 『원종예장도감의궤元宗禮葬都監儀軌』에 조복의 일습으로 폐슬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도식圖式에 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유물은 경기도 남양주 권우權遇(1610~1675) 묘에서 출토된 조복 일습에 무늬가 있는 폐슬이 출토되었다. 무늬는 불교적 의미가 있는 열 개의 보배무늬를 수놓았다. 적의에 쓴 여자용 폐슬은 조선의 왕비가 대홍색 적의에 홍색을 쓰고, 왕세자빈이 아청색 적의에 홍색을 썼다. 현재 순종비 순정효황후의 유물과 황태자비 복식을 준용한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의 유물이 있다. 모두 심청색이다. 또 황후용 폐슬을 제작할 때 쓴 폐슬본이 남아 있다. 황후의 폐슬은 심청색 12등 적의를 입을 때 쓴 것으로, 적문翟紋(꿩무늬)을 세 줄 표현했다. 황태자비의 폐슬은 심청색 9등 적의를 입을 때 쓴 것으로, 적문을 두 줄 표현했다. 또 적문 사이에는 소륜화小輪花(바퀴무늬) 혹은 이화李花(자두꽃)를 표현했다.



영친왕비 폐슬 | 길이 54 너비 35 | 근대



폐슬 착용 모습

폐슬 | 국립고궁박물관

특징 및 의의 폐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옷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인의 생식기 가리개가 오랜 역사 속에서 점차 모습을 달리하여 예복의 장식물로 앞 중심에 남게 되었다. 고대인들이 착용했던 복식을 후대에 폐기하지 않고 예복의 장식물로 남기는 이유에 관해 한漢나라의 유학자 정현鄭玄은 "옛날이 도道를 중히 여기고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라 했다. 조상들의 오랜 문화적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 폐슬을 예복에 계속 남긴 것이다.

참고문헌 國朝五禮儀, 大韓禮典, 尙方定例, 禮記, 元宗禮葬都監儀軌, 周禮, 대한제국 황실의 복식(최규순, 대한제국-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국립고궁박물관, 2010), 면복(최연우, 문학동네, 2015), 의문의 조선1-옷(경기도박물관, 2016), 조선 후기 관원 조복의 구성과 형태 연구(최연우, 한복문화18-3, 한복문화학회, 2015).

필자 최연우(崔然宇)

포
袍

정의 방한이나 의례를 목적으로 덧입는 옷으로, 길이가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겉옷[表衣]의 총칭.

내용 포袍는 긴 저고리[長襦], 솜을 넣어서 만든 옷, 남녀가 입은 발목까지 닿는 긴 옷으로 의衣와 상裳이 붙어 연緣이 있는 옷, 남자가 입고 발목까지 내려오고 내의內衣를 감싸는 옷, 평상복의 겉옷 등을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포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착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부여에서 백포대메포白布大袂袍를, 삼한에서 포포布袍를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부터 착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상하귀천 구별 없이 남녀 모두 사계절 두루 포를 입었고, 고구려·백제·신라·가야에서 착용된 포의 형태는 거의 동일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포와 중국 한漢나라의 영향을 받은 중국식 포가 공존하였다. 우리나라 고유의 포는 주로 일반 서민과 승려의 겉옷으로 착용되었다. 옷깃이 곧고 옷자락이 교차하는 직령교임형直領交衽形이었고, 소매가 좁으며 옷 길이가 종아리까지 내려오면서 깃·섶·수구·밑단 등 가장자리에 다른 색 천으로 선襈을 덧댄 형태였다. 옷 길이가 종아리까지 길게 내려오는 점만 다를 뿐 저고리와 제도가 같다고 하여 장유長襦 양식이라고도 한다. 중국식 포는 주로 왕실과 귀족층의 겉옷과 관리들의 관복으로 착용되었다.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옷깃이 직령교임형이거나 직령대임형直領對衽形이면서 소매가 손등을 덮을 정도로 길고 넓었으며, 옷 길이가 발목까지 오거나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형태였다. 이 시기의 포는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 정림사지定林寺址에서 나온 도용陶俑, 능산리 절터에서 나온 소조불상塑造佛像, 백제금동대향로의 주악상奏樂像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삼국사기三國史記』, 『당서唐書』, 『신당서新唐書』에 백제 왕이 소매가 넓은 자색포[大袖紫袍]를 입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신라 법흥왕의 방포方袍에 관한 기록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시대에 입었던 깃이 곧은 포와 중국 당唐나라로부터 전래된 깃이 둥근 단령포團領袍가 공존하였다. 649년(진덕여왕 3) 정월에 처음으로 중국식 의관[中朝衣冠]을 착용하였는데, 이때 도입된 의복이 단령포일 것으로 추측되며, 단령포는 이후 조선 말기까지 문무관의 대표적인 관복으로 착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포는 귀족층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착용되었다. 그중 단령포는 주로 관리들의 관복과 일반 남성들의 겉옷으로, 깃이 곧은 포는 단령포 아래 입는 받침옷과 상류층·서민·승려의 겉옷으로 착용되었다. 여자들도 포를 입었는데, 소매는 좁으면서 손을 가릴 정도로 길고 옷 길이는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고 풍성하였다. 단령포의 모습은 경상북도 경주 황성동과 용강동 고분에서 나온 토우土偶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해에서도 포를 착용하였는데, 정효공주貞孝公主(757~792) 묘의 벽화에 발등을 덮거나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긴 단령포가 다수 그려져 있다.

고려시대에 포는 관복과 편복便服으로 널리 착용되었다. 왕과 백관은 둥근 깃의 포를 주로 입었는데 소매통이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었다. 왕은 각종 의례에서 자황포赭黃袍, 강사포絳紗袍, 황포黃袍 등을 입었고, 문무백관은 공복公服으로 자포紫袍, 비포緋袍, 녹포綠袍를 입었다. 편복으로는 통일신라 때의 포가 고려에서도 그대로 습용되는 가운데, 원元 간섭기에 중국으로부터 여러 포가 전해져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단령포는 고려시대에도 일반 남성의 편복으로 착용되었고, 삼국시

대의 직령교임형 포는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백저포白紵袍로 이어져 왕 이하 서민들의 편복으로 널리 착용되었다. 백저포는 백색 모시로 만든 포로서 옆트임 없이 두루 막힌 형태의 포인데, 소매는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었다. 이 외에 곧은 깃 포인 직령直領, 심의深衣, 철릭[帖裏], 답호褡護와 둥근 깃의 단령포도 입었고, 원 간섭기에는 원의 복식인 질손質孫도 입었다. 직령은 기록으로는 1387년(우왕 13) 6월 관복 개정 때 고려 하급 관리의 관복으로 규정되면서 그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되지만, 이조년李兆年(1269~1343)과 이조년의 아들인 이포李褒(?~1373)가 초상화에서 이미 직령을 입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도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심의와 철릭, 답호는 원나라에서 들어온 포인데, 심의와 철릭은 의衣와 상裳을 따로 재단하여 봉재한 포이고, 답호는 반소매인 점만 다를 뿐 직령과 동일한 형태이다. 철릭 중에는 특별히 허리 부분에 바탕천을 턱tuck의 형태로 접은 요선철릭도 있었다. 여자의 경우 왕실에서는 탑자포塔子袍, 금포金袍, 적의翟衣 등을 입었고 상류층 여성은 자의紫衣와 중의中衣를 입었다. 자의는 직령교임형 포로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짧은 예복이고 중의는 자의 안에 입은 받침옷이다. 평상시에는 모두 백저포를 입었는데, 그 제도는 남자의 포와 비슷하였다.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포는 대부분 불복장佛腹藏 유물인데, 온양민속박물관의 자의와 중의, 해인사의 요선철릭, 답호, 직령, 문수사의 답호 등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포는 관복과 편복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다. 왕은 각종 의례에서 강사포와 곤룡포袞龍袍를 입었다. 문무백관은 공복公服으로 홍포紅袍, 청포靑袍, 녹포를 입었고, 상복常服과 시복時服으로 단령을 입었다. 편복을 보면 조선시대 초기부터 임진왜란까지는 고려시대에 입었던 단령, 직령, 심의, 철릭, 답호를 그대로 착용하는 가운데 액주름[腋注音], 장의長衣, 과두裹肚도 착용하였고, 16세기 중후기부터는 도포道袍도 착용하였다. 이 시기에 편복으로 입은 대표적인 포는 단령, 직령, 철릭인데,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령을,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직령을 많이 입었다. 액주름, 장의, 과두는 솜 또는 솜누비로 만들어 주로 방한용으로 입었는데, 상류층에서는 겉옷의 받침옷으로, 일반 남성들은 겉옷으로 입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 전기의 포가 대부분 그대로 착용되는 가운데 사라지거나 변화되는 포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포도 있었다. 액주름은 점차 사라졌고, 답호는 소매와 옷깃이 차례로 없어지고 교임에서 대임으로 바뀌면서 전복戰服으로 변화해 갔다. 새롭게 옷자락에 트임이 있는 창의류(소창의, 중치막, 대창의, 학창의)와 트임 없이 옷자락이 두루 막힌 두루마기(주의周衣)가 생겨났고, 심의 제도에서 나온 난삼襴衫도 착용하였다. 이 시기 편복으로 입은 대표적인 포는 도포와 창의류이다.

18세기 영정조 대에는 단령, 직령, 철릭, 도포, 심의, 난삼, 장의, 소창의, 중치막, 대창의, 학창의, 주의 등 '포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포가 착용되었다가 19세기 전반 순조 대에는 도포, 창의, 주의가 주로 착용되었다. 19세기 후반 고종 대에는 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884년(고종 21) 6월, "사복私服의 경우 소매가 좁은 옷[窄袖衣]은 귀천을 막론하고 늘 입을 수 있으며, 도포·직령·창의·중의 같은 것은 이제부터 마땅히 모두 없앤다."라는 내용의 사복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이 시행되어 관직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수의를 입도록 하였는데, 착수의는 두루마기로 이해된다. 두루마기는 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사방이 두루 막힌 포는 삼국시대 우리나라 고유의 포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갑자기 내려진 사복개혁령에 관리와 사대부가 크게 반대하여 같은 해 10월에 사복에 대해서는 편리한 대로 입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두루마기의 착용은 점차 확대되어 결국 10년 후인 1894년(고종 31) 6월과 12월, 1895년(고종 32) 3월과 8월에는 갑오개혁과 함께 일련의 의제개혁에 의해 관리와 사서인士庶人의 사복으로 주의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에 다양하게 착용되던 편복 포는 점차 사라지고, 모든 신분이 입는 편복 포로 주의가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여자의 경우 왕실에서는 적의, 단삼團衫, 국의鞠衣, 노의露衣, 장삼長衫, 원삼圓衫, 활옷, 당의唐衣 등을 입었고, 반가에서도 원삼, 활옷, 당의, 장삼, 단삼, 장의 등을 입었다. 사서인은 소의宵衣와 염의衽衣를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예복으로 입었다. 장의는 남녀가 모두 입었던 유일한 포로서 남녀의 포 형태가 동일했다. 남자의 장의는 조선

후기까지 포로 착용되었으나, 여자의 장의는 조선 후기에 내외용內外用 쓰개로 그 용도가 변화되면서 명칭도 장옷으로 바뀌었다. 조선 말기에는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입었다.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포로는 두루마기, 단령, 심의, 도포, 원삼, 활옷, 당의 등이 있다. 두루마기는 남녀가 널리 착용하는 대표적인 포가 되었고, 단령, 원삼, 활옷은 전통 혼례복과 폐백 의복으로, 심의와 도포는 제사복과 수의壽衣로, 당의는 성년의례복으로 착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시대의 편복포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옷깃의 모양, 무·주름·트임의 유무, 소매 너비의 정도 등에 따라서 구별된다. 단령과 직령은 옷깃이 둥글고 곧은 점만 다르고 나머지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곧은 깃을 가진 포 중 답호는 직령과 동일하지만 반소매인 점이 다르고, 도포는 직령과 비슷하지만 뒷길에 별도의 뒷자락이 한 겹이 더 달려 있다. 철릭과 심의는 상의하상식上衣下裳式 포인데 철릭은 상에 주름을 잡아서, 심의는 상에 주름 없이 의에 연결하였다. 액주름은 겨드랑이 부위에만 철릭에서 보이는 잔주름이 잡혀 있다. 소창의, 중치막, 대창의, 학창의, 주의는 소매 너비, 무와 트임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된다. 소창의는 소매가 좁고 무가 없이 옆이 트여 있고, 중치막은 소매가 넓고 옆트임이 있는데 무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대창의는 소매가 넓고 무가 있으면서 옆트임 또는 뒤트임이 있고, 학창의는 대창의의 깃·도련·수구 등에 검은색 선을 두른 포이다. 두루마기는 소창의에 무를 달고 양쪽 겨드랑이 아래의 트임을 막은 것이다.

포의 형태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옷길이·깃·섶·무의 치수가 작아지면서 몸체는 간소하고 단정한 실루엣으로 변화되는 반면, 소매와 고름은 거대하고 풍성한 실루엣으로 변화되었다. 각 포의 공통적적인 형태 변화를 보면, 옷길이의 경우 앞길이가 짧고 뒷길이가 긴 전단후장형前短後長形에서 앞뒤 길이가 동일한 전후동장형前後同長形으로 변화되었고, 깃의 경우 깃너비가 넓고 이중선이 있는 깎은 목판깃과 칼깃에서 깃너비가 좁고 이중선이 없는 칼깃으로, 칼깃이 다시 둥그레깃으로 변화되었다. 겉섶의 경우 이중섶에서 단섶으로 변화되면서 고름 위치가 겨드랑이 부위에서 가슴 부위로 이동하였고, 소매의 경우 소매통이 좁은 착수형에서 소매통이 전체 옷길이의 반 정도까지 넓은 두리소매로 변화되었다. 고름은 좁고 짧은 끈 고름에서 넓고 긴 고름으로 변화되었다. 각 포의 개별적인 형태 변화를 보면, 단령·직령·답호의 경우 무의 위치가 옆선 안에 있다가 옆선 밖으로 나와 펄럭이다가 뒷길이에 고정되는 양식으로 변화되면서 무 모양도 사각형에서 사다리꼴형으로 변화되었고 무의 크기도 작아졌다. 장의·과두·창의류는 무 모양이 사다리꼴형에서 삼각형으로 변화되면서 크기 역시 작아졌다. 철릭의 의와 상의 비율[衣裳比]은 전기에는 의가 상보다 길었으나 16세기 중후반에는 거의 동등했으며, 임진왜란 이후 상이 의보다 길어졌다. 상에 잡은 주름은 잔주름(주름너비 0.1~0.25㎝)에서 너른주름(주름너비 2~3.5㎝)으로 변화되었고, 맞주름은 조선 전기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도포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이은주,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우리 복식에 있어서의 편복포제의 변천에 대하여(김동욱, 동방학지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3), 우리 옷 이천년(유희경 외, 미술문화, 2001), 우리나라 포의 유형 및 원류에 관한 연구(이해영·김문자, 복식15, 한국복식학회, 1990), 우리나라 포의 종류와 변천(김미자,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995), 조선시대 직령 연구(이주영,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홍나영, 복식58-5, 한국복식학회, 2008), 한국 직령교임식 포에 관한 연구(이해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복식사 개론(김문자, 교문사, 201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주영(李珠英)

포목점
布木店

정의 포목布木은 베와 무명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포목점은 이러한 옷감을 파는 가게.

내용 포목은 베와 무명을 함께 이르는 말이며, 주단紬緞은 명주와 비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옷감을 파는 가게를 포목점, 주단포목점 등으로 부른다. 조선시대에 시장은 크게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설시장은 서울·대구·평양·공주·전주 등 감영 소재지와 개성 같은 큰 도시에만 있었으며, 서울



독일양행포목부 광고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의 시전市廛이 대표적 상설시장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전국 각 지방에서는 향시鄕市라 부르는 정기시장이 5일장, 10일장 등 일정 주기에 따라 열렸다. 조선 후기 장시 발달의 원인으로는 대동법 시행 후 현물 공납 대신 미곡을 징수하여 화폐 유통이 증가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실학의 경제 사상과 전쟁으로 인한 농토 황폐화와 전후 복구 사업으로 농촌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수공업이 발달해 공산품이 만들어지면서 화폐가 널리 쓰였다.

조선시대 상인으로는 소수의 점포 상인과 행상인인 다수의 장시 상인이 있었다. 점포 상인은 서울의 시전과 지방 주요 도시의 상설시장에서 관청과 일반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였다. 장시 상인의 대표적인 예는 보부상褓負商이다. 이들은 전국의 장시를 돌며 상품을 판매하는 행상 조합인데, 전문 소매상인에 해당하며 보상褓商과 부상負商으로 나뉜다.

기본적인 직물인 무명·모시·삼베·명주 등은 가내 수공업으로 생산하여 자급하였고, 잉여 생산물과 일부 고급직물은 상인을 통해 거래하였다. 그중 대부분이 보부상, 특히 '봇짐장사'인 보상을 통해 거래되었다. 보상은 포목, 비단 등 각종 직물, 금·은·동 등 장식 제품, 문방구 등 가벼우면서도 비교적 고가인 상품을 보자기[褓布]에 싸서 들고 다녔다. 이들은 멜빵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장터의 바닥이나 농가의 마루 또는 방바닥에 풀어놓고 앉아서 파는 좌상坐商이었다.

직물을 거래한 대표적인 상설점포는 서울의 시전이다. 시전은 공랑公廊, 즉 국가가 세운 공적 행랑行廊을 상인에게 임대하여 형성된 점포이다. 전廛은 임시로 지은 가가假家와 달리 격식을 갖춘 점포를 의미한다. 많은 시전이 경시서京市署의 감독 아래에 왕실과 관가에 물품을 공급하고 일반 시민의 수요에도 반응하면서 번창하였다. 여러 시전 중 비교적 경영 상태가 양호한 점포에 국역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을 유분각전有分各廛, 육의전六矣廛이라 한다. 육의전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달랐는데, 직물을 취급하는 점포 중 선전·면포전·면주전·저포전은 항상 육의전에 속해 있었으며, 포전·청포전은 시기에 따라 육의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서울의 시전은 창덕궁과 종묘 앞, 숭례문 일대에 위치하였다. 시전들 중 직물을 취급한 점포는 대략 여섯 종류이다. 선전線廛, 綵廛은 중국에서 수입한 고급 비단을 취급하였는데, 중국의 비단인 선단[線緞, 閃緞]의 '선'을 서다[立]로 차훈하여 입전立廛이라고도 하였다. 부유층의 수요가 많은 직물인 단緞·초綃·사紗·주紬·라羅 등을 취급하였다. 면포전[綿布廛, 銀木廛, 白木廛]은 주로 백목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백목전이라고 하였다. 때로는 목면木綿과 은자銀子를 겸하여 매매하였기 때문에 은목전銀木廛이라고도 하였다. 면주전[綿紬廛, 綿納廛]은 주로 국산 명주, 저포전苧布廛은 모시, 포전布廛은 대마로 만든 베, 즉 삼베를 취급하였다. 청포전靑布廛은 청포를 중심으로 국내 외 화포·홍포 등과 전氈(짐승의 털로 짠 피륙)·담요·담모자 등을 판매하였다.

현재 대표적인 직물 시장으로는 서울 동대문시장(광장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등이 있다. 동대문시장은 조선 후기 신흥 상인들이 활동했던 상업 지역인 이현梨峴의 맥을 이은 곳으로 광장廣藏이라는 명칭도 있다. 1905년 종로 상인인 박승직, 장두현, 최인성, 김한규 등이 광장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포목상을 하면서 축적하였던 자본을 바탕으로 동대문시장을 경영하였다.

참고문헌 경제학대사전(박진근, 누리미디어, 2002), 경제학사전(박은태, 경연사, 2010),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6),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의 시장(이재하·홍순완, 민음사, 1992), 한국의 시장 상업사(신세계백화점출판부,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선희(朴宣姬)

포선
布扇

정의 얇은 직사각형 옷감 양쪽에 손잡이를 달아 만든 얼굴 가리개.

내용 포선布扇은 얇은 직사각형 옷감 양쪽에 나무로 손잡이를 달아 양손으로 들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였다. 포선은 얇은 사조직 옷감으로 만들어 사선紗扇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얼굴 가리개라는 뜻의 차면선遮面扇 혹은 차선遮扇으로도 불린다.

포선은 양쪽 손잡이 부분 나무를 포선의 색과 다른 색의 옷감으로 싼다. 이때 양쪽 손잡이를 싼 천을 하나로 이어 손잡이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U자 형태로 이어지도록 만든 형태가 일반적이다. 포선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쪽 손잡이 부분부터 말아 부피를 줄여 보관한다.

포선은 주로 양반 신분의 남성이 사용하는 얼굴 가리개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신랑용, 과거 급제자용, 상제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랑용 포선은 낭선郎扇이라고 하여 주로 청색 옷감으로 만든다. 과거 급제자용 포선은 주로 홍색 옷감으로 만든다. 상제용 포선은 삼베로 만들어 상선喪扇이라고 했다.

포선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는 포선, 피선皮扇, 모선毛扇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포선 외에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짐승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피선과 모선을 만들어 사용했다. 방한용 포선은 두꺼운 비단이나 양털가죽 등을 사용하고 나무 손잡이 또한 수달피나 양털 등으로 감싸 손을 따뜻하게 했다. 말을 타거나 걸을 때 겨울철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모선, 피선 등은 실용적인 방한용 도구이다.


① 노상풍정 | 조선 후기


② 외출 중인 상제

포선 | ① 성협 | 국립중앙박물관

특징 및 의의 신랑용 포선은 청색 외에 황색 옷감으로 만든 유물도 있다.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조선시대에는 금기시되어 귀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결혼식 날에 한해서는 신랑에게 특별히 허락되었다. 결혼식 날 신랑이 차는 황색 주머니처럼 신랑용 포선을 귀한 황색으로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포선은 혼례를 치르러 신부 집으로 향할 때 신랑의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했다. 첫날밤까지 신랑이 들고 있다가 양쪽에서 돌돌 말아 쥐고 포선으로 신방의 불을 끄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급제자의 홍색 포선은 임금이 과거 급제자에게 어사화와 함께 하사했다고 한다. 과거에 급제한 후 고향 마을을 삼일동안 말을 타고 돌며 잔치를 벌이는 삼일유가 때 어사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다. 상제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삼베로 만든 포선은 상을 당한 죄인인 상제가 하늘을 마주 대할 수 없다는 근신의 의미를 지닌다.

얇은 옷감으로 만들어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든 얼굴 가리개인 포선은 주로 양반 계층 남성들이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남녀가 서로 내외하고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 등의 상징물인 것이다.

참고문헌 전통부채(금복현, 대원사, 1994), 한국부채의 연구(최상수, 정동출판사, 1981), 한국의 부채(연세대학교박물관, 1995).

필자 권혜진(權惠珍)

포플린

정의 위사 방향으로 약간의 이랑 효과를 낸 평직 직물.

내용 포플린은 일반적으로 면직물로 제직한다. 경위사에 30~50번수의 고급사를 사용하는데 경사 밀도를 위사 밀도보다 1.5~2배 크게 하거나, 경사에 위사보다 가는 실을 사용하여 이랑 효과를 낸다.

원래는 경사에 견사, 위사에 모사를 사용한 교직물이었고, 이후에 면사나 인조, 합성섬유 등으로 다양하게 제직하였다. 제직 후 정련, 머서 가공mercerization을 하여 광택과 염색성을 높이고, 샌퍼라이징가공sanforizing을 하여 수축을 방지한다.

포플린은 견고하고 광택이 뛰어나다. 주로 양장용 직물로 백색 또는 날염하여 부인복·아동용·하복지·장식용 직물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셔츠용으로 스트라이프 무늬의 선염 포플린 또는 도비무늬를 낸 도비 포플린dobby poplin도 있다.

1950년대 후반~1960년대 후반에 나염 포플린이 한복감으로 인기가 있어, 사계절 치마, 저고리용으로 사용되었다. 천연섬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린이 옷, 홈패션, 장식품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며 옥양목과 함께 한복 치마의 허리말기로도 사용된다. 프랑스 남부 가톨릭 성당의 사제복에 사용되었던 직물인 포플린popeline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참고문헌 근대직물100년(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13), 섬유 패션 소재사전(공석봉·염삼주, 한국섬유신문사, 1999), 직물분해설계(장병호, 형설출판사, 2000), 패션전문자료사전(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해방기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박경자(朴京子)

폴리에스테르

정의 석유를 주원료로 하는 대표적 합성섬유.

내용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의 축합중합체와 같은 폴리에스테르Polyester fiber를 방사紡絲하여 얻는 합성섬유이다. 영국의 윈필드J. R. Whinfield와 딕슨I. T. Dickson은 나일론의 발명가 캐로더스W. Carothers의 연구를 참고해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영국 ICI Imperial Chemical Industries사에서 테릴렌Terylene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시작하였다. 나일론이 갖지 못한 옷감의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급속히 발전하였다. 현재 나일론을 압도하고 가장 중요한 합성섬유로 등장하였다. 전체 합성섬유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섬유이다.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우수하고 흡습성이 적어서 세탁 후 쉽게 마르고 구김이 생기지 않는다. 열가소성이 좋아서 의복은 세탁 후에도 거의 다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낮은 흡습성 때문에 표면에 정전기를 축적하게 되고, 염색이 어려워서 특수 염색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 옷감으로 사용하였을 때 몸에서 발산하는 습기를 흡수하고 밖으로 통과시키지 못하여 착용 시 불쾌감을 준다. 그러나 침윤성은 비교적 좋아서 다른 적당한 섬유와 혼방하고 또 적절한 조직을 선택하면 수분을 잘 투과시킬 수 있다. 이 성질이 폴리에스테르의 혼방직물이 피복 재료로서 널리 이용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가공에 따라 견·모·면·마 등의 여러 섬유의 촉감을 표현할 수 있어 용도가 다양하다. 커튼, 이불솜 등에도 이용되나 어패럴 소재의 혼방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영국 ICI의 테릴렌, 미국 뒤폰의 데이크론Dacron, 일본의 도레[東レ]와 데이진[帝人]의 테토론Tetoron 등이 상표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섬유 패션 소재사전(공석봉·염삼주 한국섬유신문사, 1999), 피복재료학(김성련, 교문사, 2011), Design For Textile(오희선, 교학연구사, 2004).

필자 박경자(朴京子)

풀먹이기

정의 의복에 풀을 먹이는 행위.

내용 풀먹이기는 세탁 후 손질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다. 의복을 세탁한 뒤 완전히 말린 후, 풀을 섞은 물에 담그고 주물러 풀이 옷감에 배어들게 한다. 푸새를 거치면 세탁할 때 두드리는 마찰 때문에 일어났던 의복 표면의 잔털이 정리되고 마찰에 견디는 힘이 커진다. 또한 촉감과 광택이 개선되고, 때가 덜 타며 세탁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궁중에서는 도침搗砧이라고 하여 푸새한 후 옷감을 두꺼운 종이처럼 만들기도 했다. 푸새의 재료가 되는

풀은 쌀이나 밀·보리·감자·메밀·녹말 등이 쓰였으며, 향을 더하기 위해 풀에 잣이나 솔잎, 유자 껍데기 등을 잘게 잘라 섞어 넣기도 했다. 쌀로 만든 쌀풀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쌀을 물에 담갔다가 '풀맷돌'에 곱게 갈아서 앙금을 앉힌 다음 풀을 쑨 후 적당한 크기로 떠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였다. 쌀이 귀할 때는 밀풀도 썼는데, 밀풀은 밀 찌꺼기를 담갔다가 썩혀서 윗물을 자주 따라내고 가라앉은 앙금으로 풀을 쑨다. 풀은 만들기가 어렵고, 각기 점성이 달라서 풀을 먹이는 옷의 용도나 성질에 따라 다른 풀을 사용하였다. 밀풀은 끈기가 없고 약하기 때문에 자주 빨아 입는 여름옷이나 삼베옷에 썼다. 쌀풀은 주로 광목이나 옥양목에 사용하였고, 명주에는 녹두풀을 사용하였는데, 녹두가루로 앙금을 앉혔다가 말려서 만든 풀을 쓰면 다듬이가 발이 잘 섰다고 한다. 밀풀은 가장 허드레옷에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푸새는 색깔이나 지역·소재·계절 등에 따라 선호되는 재료나 방법을 달리 했다. 예를 들어 『규합총서閨閤叢書』에 비단의 경우 모두 다 대왐풀[白芨]을 먹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대왐풀은 자주색의 난초를 뜻하는 '자란紫蘭'의 뿌리인 백급白芨을 사용해 만든 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라색 비단을 '생토란즙'으로 푸새하라는 내용이나 진홍색 무명과 모시의 경우 풀에 '잇을 담갔던 누르미물'을 섞어 푸새하라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던 풍습은 조선 말기에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직물 및 색상에 따른 풀 종류 및 풀먹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쪽빛색 비단: 백왐풀을 먹인다.
2. 진홍색 견직물: 백왐풀에 아교를 섞어 먹인다.
3. 진홍색 무명과 모시: 잇꽃(홍화)을 담갔던 진한 누르미물을 풀에 섞어 오미자국에 풀을 연지 섞어 개어 먹인다.
4. 자주색 비단: 풀을 쌀뜨물처럼 개어 체에 밭쳐 골고루 쳐 먹인다.
5. 옥색색 명주: 백왐풀을 먹인다.
6. 보라색 비단: 생토란을 갈은 즙으로 풀을 먹인다.
7. 아청색 명주와 목면: 명주는 계란 흰자위를 녹말물이나 메밀가루를 쑤어 먹인다.
8. 백색 모시: 활석이나 녹말을 먹인다.

지역사례 경기도 지역에서는 쌀이나 밀, 보리 등을 이용했는데, 그중에 쌀풀을 가장 좋은 것으로 쳤다. 쌀이 귀하므로 주로 '싸래기'를 모았다가 이용했다. 싸래기로 풀거리를 만들 때에는 싸래기를 물에 담가 불려 맷돌에 갈아서 가루를 내서 말렸다가 풀을 쑤어 사용했다. 일반적인 옷에는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썼다. 쌀로 앙금을 앉혔다가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풀발이 잘 서고 윤이 나서 명주옷이나 무명, 모시 등 고급 옷을 할 때만 하였다. 모시는 밀가루풀로는 색이 깨끗하게 나지 않아 쌀풀을 사용하였는데, 쌀풀에 녹말가루를 섞어서 풀을 먹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쌀풀만 먹이면 다듬을 때에 겹겹이 서로 들러붙기 때문이라고 한다. 녹두를 맷돌에 갈아서 헝겊자루에 넣고 짜서 받아 뽀얀 물로는 녹두묵을 쑤고 가라앉은 앙금은 방바닥에 말려 하얀 녹말가루를 만드는데, 이 가루를 쌀풀에 섞어 사용한다. 이불 홑청이나 삼베옷 등에는 주로 밀가루풀을 사용하였으며, 노동복에는 보리풀이나 밀가루풀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보리나 밀의 가격이 쌌기 때문이다. 밀가루풀이나 보리가루풀을 먹일 때는 풀딱정이가 쉽게 묻어서 옷을 뒤집어서 풀을 먹였다. 여름철에는 밀가루풀을 오래 둘 수 없어 사용할 때마다 끓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쌀풀이 더 선호되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쌀, 밀, 감자가루를 이용하였다. 쌀풀이 가장 손쉬워서 널리 사용하였는데, 쌀풀은 풀기가 오래가지 않고 풀의 힘도 적어서 얇은 옷감이나 명주에는 감자녹말을 끓여서 만든 녹말풀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감자풀은 명주 같은 귀한 옷감에 사용되었는데, 감자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자가루를 이용해 풀을 만드는 풍속은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 같은 재료라도 만드는 방식이 모두 달랐으며, 사용한 용도 또한 차이가 났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쌀이나 밀가루도 사용했지만 피쌀(기장)풀이나 바다에서 나는 해초도 사용하였다. 해초로는 게꾸두리(우뭇가사리)와 가시리를 사용하였는

데, 게꾸두리풀은 귀하게 여겨졌다. 게꾸두리나 가시리를 뜯어다가 물에 씻고 햇볕에 바랜 후 하얗게 되면 풀을 쑤어 찌꺼기는 걸러내고 고운 가루만 건져내어 푸새에 사용했다. 기장쌀을 뜻하는 '피쌀'을 이용해 만든 피쌀풀은 곡식이 귀한 산간지방에서 썼다. 쌀풀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질이 좋은 풀로서 선호하였다. 밀을 이용한 풀도 다른 지방과 달리 질이 좋은 고급풀로 인식되었다. 밀풀을 만드는 방식은 '밀청'을 물에 앉혀서 만들었다. 통밀을 멧돌에 반쯤 갈아서 하루쯤 물에 담가 불려 풀주머니에 놓고 3~4회 놀려서 밀기울을 없애고 밀액을 만들었다. 그 뒤 앙금을 앉혀 떠내어 풀을 쑤었다. 이렇게 만든 밀풀은 찌꺼기와 앙금이 없고 풀이 곱기 때문에 검정이나 물색옷에 사용하였다. 제주도에서 다른 노동으로 일손이 바빴기 때문에 이 푸새 작업은 주로 명절이나 혼사 때 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풀은 그 원료가 사람들의 주식인 곡물이기 때문에 꽤 귀하게 여겨졌다. 푸새에 대한 금기를 살펴보면, 길한 날과 노동으로 여겨지는 '푸새'가 상충되기 때문에 기피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웃에 아이가 태어나면 주변 여성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자의 가사노동은 잠시 미루도록 한 배려로 보인다. 또한 '풀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라는 속설이 있었는데, 가난한 시대 굶주림 속에서 풀을 먹고 싶었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한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의생활(문화재관리국, 2012),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윤지원(尹智媛)

풍차
風遮

정의 조선시대 남녀가 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쓴 것으로, 정수리 부분이 뚫려있고 머리에서 귀·뺨·턱까지 가리고 모자 뒤의 길이를 길게 만든 방한모의 하나.

내용 풍차는 조선시대 남녀 모두가 착용했던 방한모로 남바위와 형태는 비슷하나, 모자 양옆에 볼끼를 달아서 귀와 뺨, 턱까지 가릴 수 있는 쓰개 형태이다. 볼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젖혀서 뒤통수에 맸으며, 후대에는 모자와 볼끼를 함께 재단하여 만들었다. '풍뎅이'라고도 불렀다. 풍차는 조선시대 어휘집에서 풍령風領, 난이煖耳의 대역어로 기록되어 있어 귀를 가리는 볼끼가 더해진 방한구였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생활실태조사生活實態調査』에서도 풍차는 남바위와 비슷하나 볼끼를 위로 걷어 올린 형태로 나타났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난이말겹호항난모변증설暖耳袹袷護項煖帽辨證說에서는 "우리나라는 난이제도가 공사·귀천·문무에 따라 각기 그 모양을 달리했고 사가私家에서도 보통으로 착용했으며, 또 귀천·문무를 따질 것 없이 목을 두른 호이엄胡耳掩, 풍차 제도가 있었다. 혹 털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흑단黑緞이나 갈포褐布를 겹으로 하여 만들기도 하였다."라고 하여 풍차의 재료와 착용 계층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한 나이가 많은 조사朝士가 대궐을 출입할 때는 소풍차小風遮를 착용했는데, 이를 항풍차項風遮 또는 삼산건三山巾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풍차는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크기나 명칭이 달랐다.

특징 및 의의 풍차의 형태는 머리 위에 둥글게 공간을 두었고, 앞은 이마까지 오며 옆은 귀를 덮게 되어 있다. 또한 뒷중심선에 트임을 주어 착용하는 사람에 따라 머리둘레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귀와 뺨, 턱을 가리는 볼끼를 달았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방한이 된다. 일반적으로 위로 접어 끈으로 매게 했으며, 날씨가 추울 때는 볼끼 부분을 양 뺨에 오도록 내려 턱 밑에 묶어



풍차 | 길이 38 너비 36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풍차바지



풍차 | 엘리자베스 키스 | 정월 초하루 나들이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착용하였다. 겉은 주로 자주색·남색·검정색의 단緞으로 하고 안은 남색·초록색의 견을 넣어 만들었으며, 가장자리는 토끼나 여우 등의 모피를 둘렀다. 모피를 두르지 않고 안에는 융으로 대어 비교적 얇게 만들어서 봄철이나 늦가을에도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풍차의 재료로 모毛·흑단黑緞·겹의·갈포褐布 등이 사용되었다. 남자용은 이 위에 관이나 갓을 쓰며, 여자용은 방한모 정수리 트임의 앞뒤를 장식 끈이나 산호 등의 보석 구슬 끈으로 연결하고, 장식으로 매듭과 장식 술, 비취나 옥판 등을 달았다.

참고문헌 五洲衍文長箋散稿, 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에 관한 연구(강순제·김은정, 복식58-7, 한국복식학회, 2008),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조선시대 방한모에 관한 연구(김성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김지연(金知娟)

정의 바지의 마루폭에 풍차를 달아 뒤쪽이 트이게 만든 아이용 바지.

내용 풍차바지는 아이들이 입는 뒤가 터진 형태의 바지로 엉덩이 부분에 바람막이인 풍차風遮를 단 바지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풍차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 쓰는 방한용 쓰개 중 하나를 말하나, 어린 아이의 바지나 고의의 마루폭에 좌우로 길게 대는 헝겊 조각을 이르기도 한다.

풍차바지는 아기가 태어난 후 4~5세 정도의 남아와 여아 모두 입히는데, 바지의 뒤쪽을 터서 기저귀를 갈거나 스스로 용변을 보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릴 나이가 되면 여아는 성인의 치마와 구조가 같은 치마를 입히고, 남아는 성인 바지와 같은 형태의 밑이 막힌 바지를 입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역이나 집안의 풍습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풍차바지의 형태는 앞은 보통 남자 바지와 같은데 마루폭에 큰사폭, 작은사폭을 꿰매어 붙이고, 바지 뒤쪽의 좌우 트임 부분에 긴 헝겊조각인 풍차를 대어 겹치게 해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다. 평상시에는 풍차 부분이 겹쳐 엉덩이가 보이지 않는다. 풍차바지의 허리 양편에는 두 개의 끈을 달아서 뒤에서 여민 후, 끈을 앞으로 모아 맬 수 있게 하였다. 성인 여성의 치마허리가 조끼허리(어깨허리)로 바뀐 후 풍차바지도 조끼허리를 달아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든 것도 있다. 풍차바지에 조끼허리를 달아 만들 때 여밈은 조끼의 뒤편이 되는데, 가는 끈을 달아 묶을 수 있게 하거나 스냅을 달아 현대적으로 만들었다. 바지부리에는 대님을 달아서 버선을 신고 발목을 조이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풍차바지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는 '개구멍바지'가 있다. 여자들이 치마 밑에 입었던 바지나 고쟁이와 형태가 비슷하며, 소변을 보기 편하도록 앞중심선 양쪽 가랑이에 걸쳐 초승달 모양으로 터져 있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끼허리를 달아 입힌 것이 많다.

아이들의 복식으로 풍차바지가 등장한 시기를 정확



풍차바지 | 길이 49 허리 66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이 쓴 『담헌서湛軒書』 외집外集 권10 연기燕記 건복편巾服篇에 청나라 남자들의 옷을 "바지는 좁아서 겨우 넓적다리가 들어갈 정도이며, 허리 아래쪽을 터 놓아서 마치 우리나라의 유아들 바지 같다. 다만 단추를 달아 서로 마주 덮게 하여 뒤를 볼 때 편리하게 해 놓았다."라고 설명하여 18세기부터 아이들이 밑이 터진 바지를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풍차바지의 색상은 흰색·옥색·분홍색·연한 보라색·연한 회색 등의 색깔을 많이 사용했으며 소재는 계절에 따라 달리했다. 주로 무명, 광목 등의 면 소재와 명주를 많이 사용하고, 겨울에는 얇게 솜을 두거나 누벼서 만들기도 했다. 유물 중에는 다듬이 된 모시로 안팎을 만든 것도 있으며, 일본 직물이 수입된 후에는 하부다이羽二重나 뉴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풍차바지는 아동들이 착용했던 옷 중에서도 기능적인 면이 발달한 옷으로 성인의 바지와 구성은 유사하나 뒤와 밑이 트여 있다. 풍차바지는 기저귀를 바꾸기 위해 바지를 벗기지 않아도 되므로 배변 훈련 중인 어린아이들이 많이 입었다. 첫돌이 되기 전에 아동이 입는 풍차바지는 주로 흰색으로 만들고, 대님의 색상으로 남아와 여아를 구별하였다. 대님은 성인 바지와 달리 바지부리에 붙여 착용할 때 간편하고 분실 우려가 없게 하였다.

참고문헌 개항기 이후 한국 아동복식 연구(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신편 국역 홍대용 담헌서(홍대용, 민족문화추진회 역, 한국학술정보, 2008), 한국 전통 어린이 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한국복식문화사전(김용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해방 이후의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김정아(金廷兒)

플란넬

정의 얇은 평직이나 능직의 방모직물.

내용 플라노flano라고도 하며 소모사로 짠 것을 '소모플라노'라고 한다. 면으로 제직된 것은 '면플란넬'또는 '면넬'이라고도 하며, '융'이라고도 부른다.

경위사에 10~20수 방모단사 또는 위사에 느슨하게 꼰 8번수나 10번수의 굵은 단사나 20번수 쌍사를 사용하여 평직이나 2/2 능직으로 짠다. 제직한 이후 축용에 의해 보풀을 누른 비교적 얇은 모직물이 된다. 본래는 방모직물이나 위사를 방모사, 경사로 소모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부드럽고 촉감이 좋으며 탄력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풀로 인해 직물에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보온성이 있다. 인조사를 합성하면 마모에 대한 내구력이 증가되어 직물의 수명이 연장된다. 또한 합성직물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옷을 꼭 맞게 입을 수 있다. 또한 아크릴 섬유를 합성하면 가소성이 증가된다. 주로 수트·바지·양복·유니폼·잠옷 등에 사용된다.

융은 경위사에 카드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후 표면을 긁어 기모하여 표면에 솜털 같은 것이 있다. 위사는 경사보다 굵은 실을 사용하여 기모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으로 배냇저고리나 유아복에 사용한다.

모 50%, 면 50%의 혼방사로 2/2 우능右綾으로 짜고 플란넬로 마무리한 직물을 '비엘라'라고 한다. 면넬이나 모직 플라노와는 달리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flannel'이라는 명칭은 영국의 웨일스어에서 '양모직'을 뜻하는 말과 관련 있다는 설이 유명하다. 프랑스어 'flanelle'은 17세기 말부터, 독일어 'Flanell'은 18세기 초부터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사용된 모직물에 '계罽'라는 직물이 있다. 19세기 아얌, 남바위 등 쓰개의 안감으로 쓰였다. 목화木靴의 내피로는 융이 사용되었으며, 신목에는 홍색계로 선을 둘렀다. 이 외에도 자수의 바탕천이나 활옷에도 사용되었다. 플란넬 가공flannel finish은 축융 또는 기모 가공을 말한다.

참고문헌 섬유 패션 소재사전(공석봉·염삼주, 한국섬유신문사, 1999), 섬유소재1(한국의류학회, 1989), 패션전문자료사전(한국사전연구사, 1997), 피복재료학(김성련, 교문사, 2011), Design for Textile(오희선, 교학연구사, 2004).

필자 박경자(朴京子)

하부다이

정의 일본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견직물의 하나로 경사에 무연無撚의 생사, 위사에 무연 또는 약연의 생사를 사용하는 평직물.

내용 하부다이는 경사에 무연의 생사, 위사에 무연 또는 약연의 생사를 사용하는 평직물로 직조하여 정련精練한다. 직조할 때 습윤 위사를 사용하여 직조한 후 정련하면, 경사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어 부드러워지므로 경위사가 적당히 잘 굴절되어 밀도가 높은 직물이 된다. 경사의 밀도는 1인치당 160~200을, 위사는 1인치당 80~96으로 매우 촘촘하다.

단순한 생사를 사용하면서도 밀도를 높게 직조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섬유에서는 볼 수 없는 하부다이의 독특한 직조법이다. 직기의 바디살 한 개에 두 올의 경사를 끼워서 제작하기 때문에 우이중羽二重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음력 세말 설빔, 금년 설빔은 하부다이 | 1926. 2. 10 | 동아일보

원사에 약간의 꼬임을 주거나 조직을 달리하여 변형된 하부다이도 있다. 조직이 치밀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져 한복의 봄·가을·겨울 치마, 저고리, 바지 등으로 사용된다. 그 외에도 드레스, 양장의 안감, 블라우스, 스카프 등 다양한 품목에 활용되었다.

무문하부다이와 능직이나 수자직으로 무늬를 넣어 직조한 문하부다이가 있다. 「발기」에서 용도를 살펴보면, 주로 남색 또는 양남색의 치마용으로 사용되었고, 백색의 핫봉디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하부다이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석천현石川縣 직물검사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입된 견직물의 하나이다. 1900년대 초 개항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하부다이가 국내에 유입되어 상류층 사이에 사용되었다. 1940~1950년대에 사용되었고,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중반 같은 명칭으로 국내산 하부다이가 생산되어 사용되었다. 민속조사에서 제보된 안한순(1922~2016)에 의하면 "하부다이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으며 얇고 부드러워 감촉이 좋은 평직의 견직물을 통칭한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20세기 전반기의 한국견직물(장현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근대직물 100년(경기여고 경운박물관, 2013), 직물분해설계(장병호, 형설출판사, 2000), 패션·섬유 소재사전(공석봉·염삼주, 한국섬유신문사, 1999), 피복재료학(김성련, 교문사, 2011), 해방기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現代纖維辭典(井上孝, センイ.ジヤァナル, 1968), 현지조사자료(안한순, 서울 동대문구, 2013년 2월).

필자 박경자(朴京子)

하이칼라머리

정의 머리의 뒤와 양옆은 짧게 자르고 윗부분을 길게 남겨 다양한 모양을 연출하는 근대 이후 남성의 머리모양.

내용 하이칼라머리는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첫째, 양복에 입는 와이셔츠의 운두가 높은 깃. 둘째, 머리털을 밑의 가장자리만 깎고 윗부분은 남겨서 기르는 남자의 서양식 머리모양. 셋째,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이다. '하이칼라'는 메

이지시대인 1898년경에 만들어진 신유행어로 서양에서 유행하는 '고금高襟'즉 '깃을 높이 세운'이란 말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서양 흉내를 내는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지만, 메이지 말기인 1905년경부터 최신식의 근대풍 멋쟁이를 표현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모발학 사전에 하이칼라는 "남자 hair style의 하나. 후두부의 nape line에서 back part까지 싱글링shingling한 후 gold part까지 gradation cut한다. 두정부 부분은 약간 길게 남겨서 가르마를 탄다. 조선시대인 1895년(고종 32) 11월에 내린 단발령斷髮令으로 상투가 점차 사라지고, 이 머리모양이 성인 남자 머리 형태가 되었다. 이 용어는 단발령 이후 일본을 통하여 국내로 들어와 한때 남자의 일반적 머리모양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었다."고 하였다. 하이칼라머리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이용사가 가위로 양 옆과 뒤를 치켜 깎고 윗머리가 10~15㎝ 정도가 되도록 자른 머리이다. 올빡·시지부산부[七分三分]·하부빡(반빡) 등 유형이 있고, 하이칼라머리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늘어진 머리가 이마까지 더부룩이 내려 덮었다고 한다. 하이칼라머리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상투를 자른 이후 처음 했던 머리라고 볼 수 있다. 개화파 인사들, 관리들이 먼저 상투를 잘랐는데, 이들이 했던 머리는 빡빡 깎는 머리가 아니었다. 당시 아마도 일본인 기술자들이 잘라 준 머리형태가 하이칼라머리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 남성의 머리는 주로 중머리와 하이칼라머리였다. 초창기 하이칼라머리는 주로 고급 관료들의 머리모양이었으나 점차로 전문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머리형이자 그리고 도시 생활을 하는 대부분 젊은 남성의 일반적인 머리모양으로 자리 잡았다. 1910년부터 1920년대는 전통적인 머리모양은 감소하고, 새로운 머리모양이 병행된 시기이다. 머리는 하이칼라스타일을 하면서 전통적인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구두를 신는 등 우리 것과 새로운 것이 섞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도 하이칼라머리에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개 개명한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1930년 곡가 폭락 이후 일반인 생활고 완화를 위해 여러 지방에서 이발료를 인하한 내용을 보면 하이칼라머리가 남자 커트 중 제일 비쌌다. 하이칼라머리는 사치스러운 머리로 인식되었으며, 절약하고 검약해야 할 시기에는 단발령을 내려 하이칼라머리를 못하게 하였다(이때의 단발령은 1895년 단발령과는 다른 것이다).



석남 송석하 가족사진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1937년 이후 조선 내 각 전문대학생들에게 단발령을 내리고 사치 풍조를 일소한다고 하였는데 수원고등농림학생은 앞으로 일제히 단발에서 중머리로 바꾼다는 기록도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각 지역에서 공무원이 일제히 삭발하고 스파제의 국방제복을 착용하기로 했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종전終戰 무렵에는 정신 무장을 빌미로 빡빡 깎은 머리를 강요하기도 했다. 1942년 "지나사변(중일전쟁)이 이러나면서부터 의복빛이나마 전선에서 활약하는 충용무쌍의 황군과 비스름하게 하고 싶어서 국민복을 사입었고,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 이러나기에 전선에서 력전하고 있는 황군을 생각하는 표호로 30여 년 길러오던 하이칼라머리를 어제 깎아버리고 말았읍니다."라는 어떤 교장의 말에서 하이칼라머리에서 빡빡 깎은 머리로 바꿔야 했던 전시 상황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국민복과 빡빡 깎은 머리모양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하이칼라머리는 개화파 인사와 관리 등이 단발령 이후 머리가 짧아지면서 먼저 했던 머리이다. 머리모양을 단 한 가지로 볼 수는 없고, 당시 멋쟁이들이 했던 머리인데 상고머리보다 머리 윗부분이 길게 남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었다. 현재도 멋쟁이 머리를 하이칼라라고 부를 수 있다. 전시 체제에 돌입하

면서 머리모양도 이부가리 빡빡 깎은 머리 등으로 스스로 바꿔야 했다. 단발 초기 남자는 삭발 후 빡빡 깎은 머리, 그 다음 상고머리, 그 다음 하이칼라머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후에는 상고머리는 인력거꾼이 하고, 빡빡 깎은 머리는 중과 전중이가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머리모양으로 사람을 구분하여 보기도 했다. 하이칼라머리는 이름 그대로 하이칼라가 먼저 했고, 이발 가격도 비싸서 쉽게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었으며, 상고머리나 빡빡 깎은 머리보다 그야말로 하이칼라로 대접받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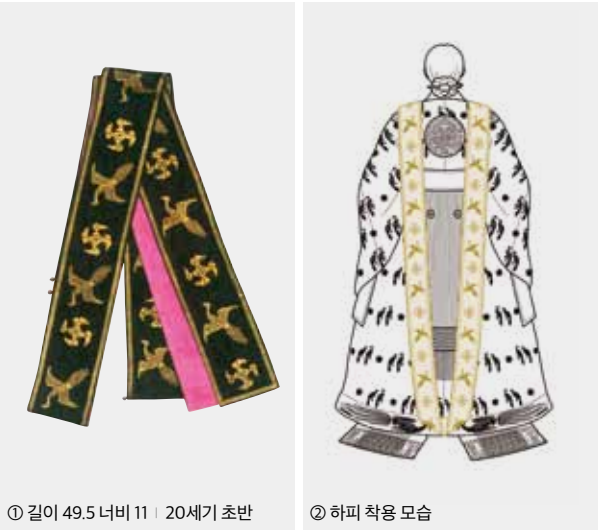
참고문헌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김민정,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단발령 이후 일본의 두발형태가 한국 남성 두발형태에 끼친 영향(장영선·박옥련, 일본근대학연구38, 한국일본근대학회, 2012), 모발학 사전(류은주, 광문각, 2003), 상투와 단발령 그리고 하이칼라머리(이상현, 실천민속학연구4, 실천민속학회, 2002), 일본 근대의 풍경(유모토 고이치, 정선태 역, 그린비, 2004). 한국 남자 일반 복식에 관한 연구-개항 이후 광복까지(남경미,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남경미(南瓊美)

하피
霞帔

정의 왕비, 세자빈 등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성의 예복인 대삼형(적의)과 황후, 황태자비의 삼청색 적의, 내외명부 정1품의 예복(원삼)에 착용하는 의식용 부속품.

내용 하피는 조선시대(1392~1896) 왕비 세자빈, 세손빈, 왕대비, 대왕대비 등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인들이 법복法服이자 예복인 대삼大衫형 적의翟衣를 착용할 때 어깨 위에 드리우는 검은색 비단의 넓고 긴 띠 모양의 부속품을 말한다. 하피는 조선 초기 명나라에서 왕비에게 보내온 관복 일습에 포함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403년(태종 3)부터 1625년(인조 3)까지 계속되었다. 1470년(성종 원년)에는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대홍소저사겹대삼大紅素紵絲夾大衫, 청저사수권금적계겹배자靑紵絲繡圈金翟雞夾褙子, 청선라채수권금적계하피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 삽화금추자鈒花金墜子 상아여홀象牙女笏 등 관복 일습이 사여되었다. 금추자는 하피 중앙에 달리는 장식품이며 홀은 손에 잡는 의식용구이다. 대홍색



① 길이 49.5 너비 11 | 20세기 초반 ② 하피 착용 모습

하피 | ① 세종대학교박물관, ② 국립고궁박물관

대삼에는 장식 무늬가 없고 배자와 하피에는 적계문翟雞紋이 있다. 사여된 관복은 동일한 구성이었으며 명明에서 대삼은 황후와 황태자비의 상복常服이자 황비 이하의 예복이었으나 조선에서는 이를 적의翟衣라 하였다. 대삼은 하피와 일습으로 구성되며 하피의 문양은 신분에 따라 구분되었다. 칠적관을 착용하는 명의 군왕비群王妃 하피는 심청색의 금수운하적문金繡雲霞翟紋이며 배자는 도홍색, 홀이 아닌 옥곡규玉穀圭로 되어 있다. 반면 공후公侯 및 명부命婦 1품과 2품 하피와 배자는 심청색 비단에 금수운하적문이 있는 것이며 홀은 상아홀이었다. 조선의 관복은 명 황실의 관복제도에 준하여 규정되었으나 적계문 하피는『대명회전大明會典』,『명실록明實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2017) 조선 초기의 대삼과 하피 유물은 남아있지 않으나 명대明代 영정왕寧靖王의 부인 오씨吳氏(1439~1502) 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대삼과 하피를 참조해 볼 수 있다. 당시 보고서와 연구에 의하면 하피는 라羅로 만들었고 너비 13㎝ 길이 245㎝로서 56㎝ 한 폭의 라 135㎝를 반으로 잘라 이어서 겹으로 만들었고 한다. 이어진 끝부분을 삼각으로 접어 마주보게 하고 끝에 금추자를 달았다. 마치 도투락댕기 머리 부분과 유사한 모양이다. 적문이 한쪽에 7마리로 양쪽에 14마리가 운문雲紋과 함께 금사로 자수되어 있으며 금추자가 달린 하피를 대삼 앞길 끝에 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양어깨를 지나 대삼 등부분에 달린 삼각형 모양

의 두자兜子속에 넣어 착용하였다. 대삼은 맞깃 형태에 넓은 소매, 앞이 짧고 뒤가 긴[前短後長] 형태로 양옆이 트여있다. 이는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禮』 왕비 예복 기록과 매우 유사하다.

1627년(인조 5) 소현세자 가례부터 조선에서 명 제도에 준한 대삼제 적의 일습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가례(1638)시 마련된 일습이 도설로 남아있어 후기의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피는 검은색으로 끝부분이 사선이며 아청무문사鴉靑無紋紗 대신 모단冒緞 6자를 반으로 나누어 2장을 이어 길게 만들고 니금 2전으로 적계양翟鷄樣 14개씩 모두 28개를 그리도록 하였다. 적계는 목이 굵고 머리가 둥글어 영정왕의 적문과 차이를 보인다. 이후 숙종 대부터 고종 대까지 역대 왕비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모단 6자와 니금 5전의 기록으로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반면 왕세자 하피는 소현세자 하피와 같이 아청라 반골反骨 10자이며 이후 아청색 라를 모단으로 대신하고 반골 또는 반폭 10자에 니금 5전으로 동일하다. 각각 인조 대에 기록을 참조하여 기록한 내용이다.

반면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왕비 가례 시 중궁전 하피는 모단 6자, 니금 5전이며 빈궁은 모단 반폭 10자, 니금 5전으로 『가례도감의궤』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진연 시 대왕대비 하피는 모단 7자 5치, 니금 5전이며 중궁과 빈궁도 동일하다. 하피 문양은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었는데 1750년(영조 26)에는 내전內殿은 꿩[雉], 세자빈은 닭[鷄] 인데 세손빈의 하피 문양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27년에는 왕비는 꿩, 세자빈은 닭, 세손빈은 오리[鳧]를 자수한 하피를 사용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꿩과 닭이 언급되는 것은 사여 받은 하피의 문양에 적계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조속오례의보서례』(1751)에서 왕비 예복제도 하피는 겉 흑단黑緞, 안은 홍초紅綃로 하고 운하雲霞 28개, 적문翟紋 26개를 금으로 그린다고 하였으며 왕세자빈, 왕세손빈도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였다.

대한제국시기(1897~1910)에 적의제도는 『대명회전』 영락 3년제에 실린 1405년(영락 3)외 제도 준하였으며 『대한예전大韓禮典』을 포함한 문헌 자료와 유물이 남아있다. 황후의 관복으로 꿩무늬가 있는 심청색 적의로 바뀌었으며 여기에는 하피를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1922년 조현례 직후 촬영된 순정효황후 윤씨와 영친왕비 사진에는 하피를 둘렀으며 유물도 남아있다. 아마도 조선시대 왕비의 대삼형 적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영친왕의 생모 엄씨가 1903년 귀비로 책봉 받을 때와 의친왕비, 의친왕의 자부까지 정1품의 내외명부도 명복命服용 원삼에 하피를 착용하였으며 순헌황귀비(엄비)를 제외하고는 사진이 남아있다.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순정효황후의 하피는 길이 495㎝, 너비 11㎝로서 흑색 공단에 분홍색 다듬이한 도련주搗練紬로 만들었고 운문과 적문이 각각 26개로 총 52개가 부금되어 있다. 양끝에서 11번째 운문을 중심으로 적문이 마주보고 있고 매듭단추가 달려 있으며 하피 중심에도 단추가 달려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영친왕비 하피는 너비 길이 492㎝, 11.6㎝ 이며 재질과 문양은 순정효황후의 유물과 동일하나 단추가 없으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반면 운현궁 유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하피는 길이 499㎝, 너비 11.5㎝ 이며 운문 25개, 용문 24개가 부금되어 있다.

이상의 유물들은 앞서 언급한 영정왕비 오씨의 하피와 유사하나 길이와 문양이 두 배에 이른다. 이는 옷감 한 폭을 반으로 재단하여 만드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착장 방법도 명대와 반대이다.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하피의 착용법은 1960년 초 순정효황후로부터 하사받을 때 상궁을 통해 전수받은 방법이며 양 고대에 부착된 고리와 하피의 단추를 끼우면 앞부분 하피는 무릎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뒤는 용보 위에 달린 고리에 하피 중심에 있는 단추를 끼워 나머지는 내려뜨렸다. 한편 단추가 없는 영친왕비 하피 착용 사진은 적문의 방향과 상관없이 앞뒤로 길게 늘어져 있다.

특징 및 의의 하피는 왕비, 세자빈을 포함하여 왕실의 적통을 잇는 여인들이 법복인 적의를 착용할 때 어깨에 두르는 부속품이다. 고려 말기 공민왕 때부터 1922년 영친왕비 조현례까지 550여 년간 착용한 법복의 일부이다. 조선 후기부터 신분에 따른 조선식 대삼형 적의 일습에 하피까지 포함하여 일습을 구성하였다. 대한제국에는 명대 유물에도 볼 수 없는 황실용 심청색 적의

를 만들고 하피를 착용하여 황제국의 위상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 國朝續五禮儀補序禮, 大明會典, 尙方定例,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고궁문화4(국립고궁박물관, 2011), 고문서도서집성(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문물 권제 561기(국가문물국 문물출판사, 2003), 영친왕 일가 복식(국립고궁박물관, 2010), 운현궁 생활문물(서울역사박물관, 2006).

필자 박성실(朴聖實)

학창의
鶴氅衣

정의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 편복포便服袍의 하나로 양옆이나 뒤에 트임이 있는 창의의 일종.

내용 우리나라에서 처음 학창의를 착용했던 시기나 계기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1820~1898)의 <와룡관학창의본臥龍冠鶴氅衣本> 등 19세기 말 초상화에 나타난 모습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학창의 등 전세 유물을 바탕으로 조선 말기 학창의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이 시기 출토된 유물을 보면 학창의는 곧은 깃에 소매가 넓고, 겨드랑이 아래 무를 달았다. 또한 흰색이나 청색 포에 검은색 천으로 깃·섶·도련·소맷부리·고름·옆트임·뒤트임 등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선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7~18세기경 문집과 회화에 표현된 학창의의 형태는 19세기 말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깃의 모양은 직선형 혹은 방령이고 앞중심선에서 좌우 자락이 겹치지 않는 맞깃 형태이다. 깃머리 부분에 단추나 작은 고름을 달아 여미거나 여밈 수단이 없을 때도 있다. 소매는 넓거나 좁거나 없는 등 다양하며, 옆트임이 있으며 대체로 뒤트임은 없다. 포의 색상은 흰색·푸른색·황색·검은색 등 다양하며 선의 색도 검은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났다. 대는 띠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의 학창의는 사대부 계층에게도 낯선 웃옷으로 착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잠곡潛谷 김육金堉(1580~1658),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1607~1689) 등 중국과 교류하던 학자들이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것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이러한 선생의 가르침을



학창의 | 길이 125 품 50 화장 101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학창의 | 이한철·유숙 | 이하응 초상 와룡관학창의본 | 1869 | 서울역사박물관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차 퍼져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옥소玉所 권섭權燮(1671~1759),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 등의 착용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초 『규합총서閨閤叢書』에도 학창의의 만듦새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국내에서 학창의를 지어 입는 사례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학창의는 조선시대 남자 편복의 포 중 하나로 사대부들이 착용하였으며, 이때 관모로는 화양건華陽巾·오건烏巾·와룡관臥龍冠 등을 착용하였다. 화양건은 도교의 도사道士가 쓰는 순양건純陽巾과 형태가 유사하며 명칭이 혼용된다. 와룡관은 제갈공명諸葛孔明의 호를 딴 윤건綸巾이다. 학창의를 착용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각종 문헌에 '도인·도사·신선·천신·선풍도골仙風道骨'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사를 마친 뒤 또는 초야에 있을 때 입기 적합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탈속한 경지에서 자연을 벗하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학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학창의는 신선이 입는 옷이라 하여 덕망이 높은 도사나 학자가 입던 옷으로 인식되었다. 그 밖에 학창의를 착용함으로써 제갈량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지혜와 충신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18세기 중엽 조선통신사 복식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와룡관, 학창의 구성이 나타난다. 19세기 초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의 재용편財用編 중 '신사信使의 복착服着' 부분에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승선乘船할 때와 관館에 머무를 때 와룡관에 학창의를 입고 백우선白羽扇 등을 갖추게 한 사례가 있다. '와룡관(윤건)·학창·우선'의 조합은 제갈공명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러한 모습은 진수陳壽(233~297)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三國志』 제갈량전諸葛亮傳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관중羅貫中(1330경~1400)이 편찬한 『삼국지통속연의(삼국지연의)三國志通俗演義』에서 제갈량에 대한 묘사로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정형화되었다. 따라서 실제 제갈공명의 모습이라기보다 나관중이 원元·명明 교체기 사대부의 복식을 반영하여 설정한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회화나 조상彫像을 통해 시각화되었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은 지혜의 화신, 충정의 본보기, 현상賢相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조선 왕실에서는 특히 충신의 이미지를 주목하고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안도 영유현永柔縣에 제갈량의 사당을 짓고 경의를 표하며, 복식을 통해 제갈량의 이미지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신하들에게 제갈량의 충성심을 되새기고 이미지를 차용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삼국지고증학1(이전원·이소선, 도서출판 청양, 1997), 삼국지사전(심백준·담량소, 정원기 역, 범우사, 2000), 옥소 권섭의 학창의에 관한 연구(이민주, 복식문화연구13-2, 복식문화학회, 2005), 임하필기의 복식 문화(이은주, 문헌과 해석43, 문헌과 해석, 2008), 학창의 연구(박선희·홍나영, 복식61-2, 한국복식학회, 2011), 한국복식문화사(김문자·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생활(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박선희(朴宣姬)

한랭사
寒冷紗

정의 성글게 짠 얇은 평직의 면직물.

내용 한랭사寒冷紗는 매우 얇게 짜여진 사紗와 비슷한 느낌과 풀을 먹여 마직물처럼 빳빳한 느낌이 있다. 원래는 마직물로 되어 있는데, 그 느낌을 흉내내어 약간 질긴 면직물이 만들어졌으며 오히려 목면의 것이 늘어났다. 광택이 견직물 주아사와 비슷하며 면아사와 같은 느낌으로 빳빳하고 광택이 난다.

경·위사에 60번수 이상의 방적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한 후 표백하고 풀을 약간 먹여 마직물 같은 촉감을 준다. 면으로 만든 한랭사는 40번수 정도의 단사를 사용하고, 짤 때는 날실에 강력한 풀을 묻혀서 평직으로 제직하고 표백한 다음 강력풀로 마무리한다.

한랭사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된 이후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들여온 물건 중에 면직물인 '한랭사'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공양사는 질이 좋은 양사를 의미하며, 양사는 영국산 직물로 한랭사라고도 하였다. 또 「발기」에는 공양사와 양사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서양사라는 명칭도 기록되어 있어 공양사·양사·서양사·한랭사는 모두 동일한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기」에서 용도를 분석해 보면, 일부 동의대·저고리·행전 등에 사용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속바지·한삼·적삼 등

속옷에 사용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공양사의 특징에 대하여 석주선은 올이 가늘면서 뻣뻣한 면이라고 언급했고, 김용숙도 오늘날 목아사 같이 비단처럼 고운 면직물 종류라고 하였다. 1951년 일본에서 발간된 『최신전국대표직물最新全國代表織物』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랭사는 연초협동조합煙草協同組合에서 담배의 어린잎을 추위나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된 직물로 책의 제본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술되었다. 일반적으로 표백하여 백색으로 많이 쓰이고, 침염 또는 날염하여 손수건, 블라우스, 커튼지 등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한랭사라는 명칭으로 생산되는 직물은 조사되지 않았으며, 일라이트illite 소재로 생산되어 농작물의 보온과 햇볕을 막아 주는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방협 50년사(대한방직협회, 1996), 직물분해설계(장병호, 형설출판사, 2000), 직물학(장지혜·권영아, 신광출판사, 1996), 최신 전국대표직물(섬유기술연구소, 1951). 해방 이후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박경자(朴京子)

한복
韓服

정의 전통과 문화가 담긴 우리 옷의 총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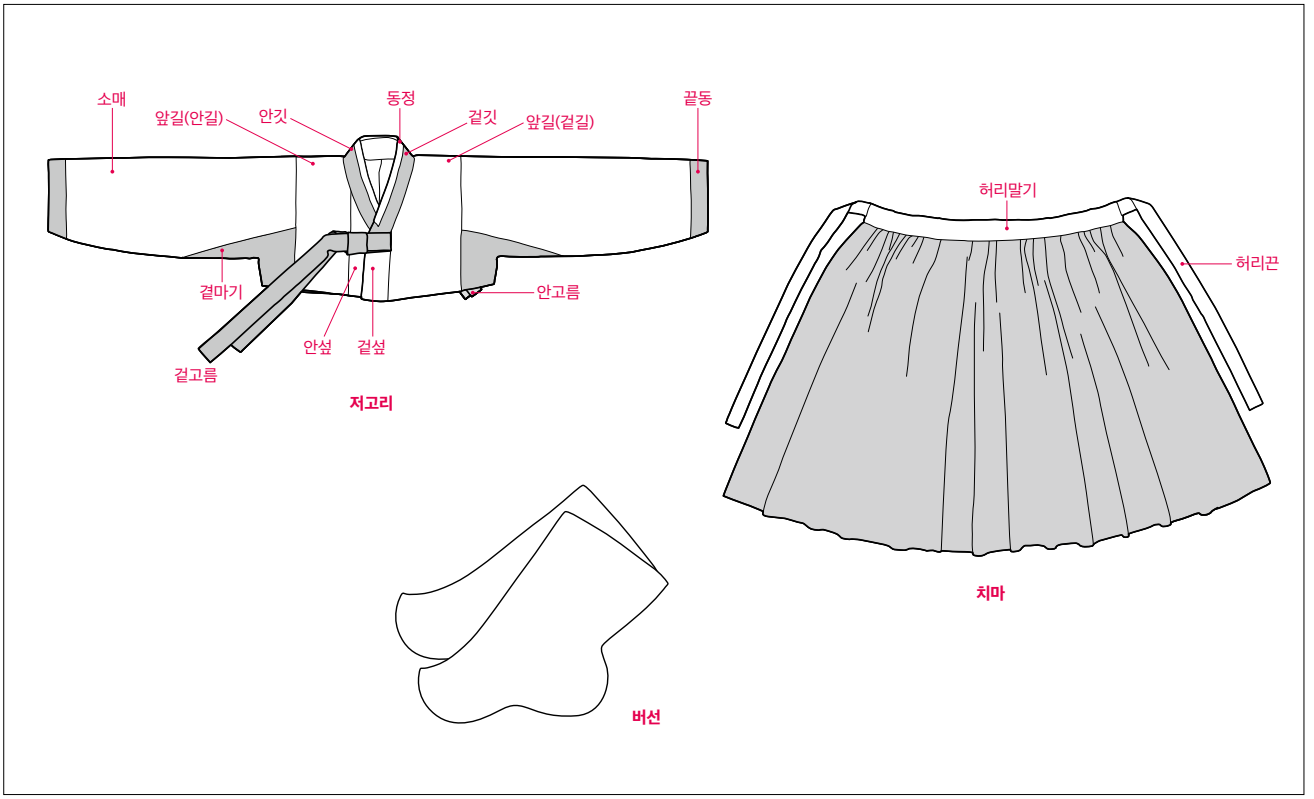
개관 고구려 고분벽화 속 많은 인물이 입은 옷은 신체 보호 기능 목적을 넘어 사회와 문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 기능과 미의식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옷의 형태와 착장 방식을 기본으로 한 우리 옷은 역사와 함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변화·발전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통복식으로 입고 있다.

내용 1.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많은 인물의 옷차림은 우리 옷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벽화 속 남녀 인물은 하의는 바지[袴]를, 상의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긴 저고리[襦]를 좌임 또는 우임으로 여며 입었다. 성인 여자는 바지 위에 치마[裳, 裙]를 더 입었는데, 쌍영총과 수산리 고분벽화에서는 주름치마와 색동치마의 유행도 엿볼 수 있다. 기본 복식 위에는 긴 포袍를 입고 허리에 대를 띠어 여몄다. 거의 모든 옷의 가장자리에는 선두름을 하여 선단 부분의 보강과 동시에 배색과 문양을 통해 미적 효과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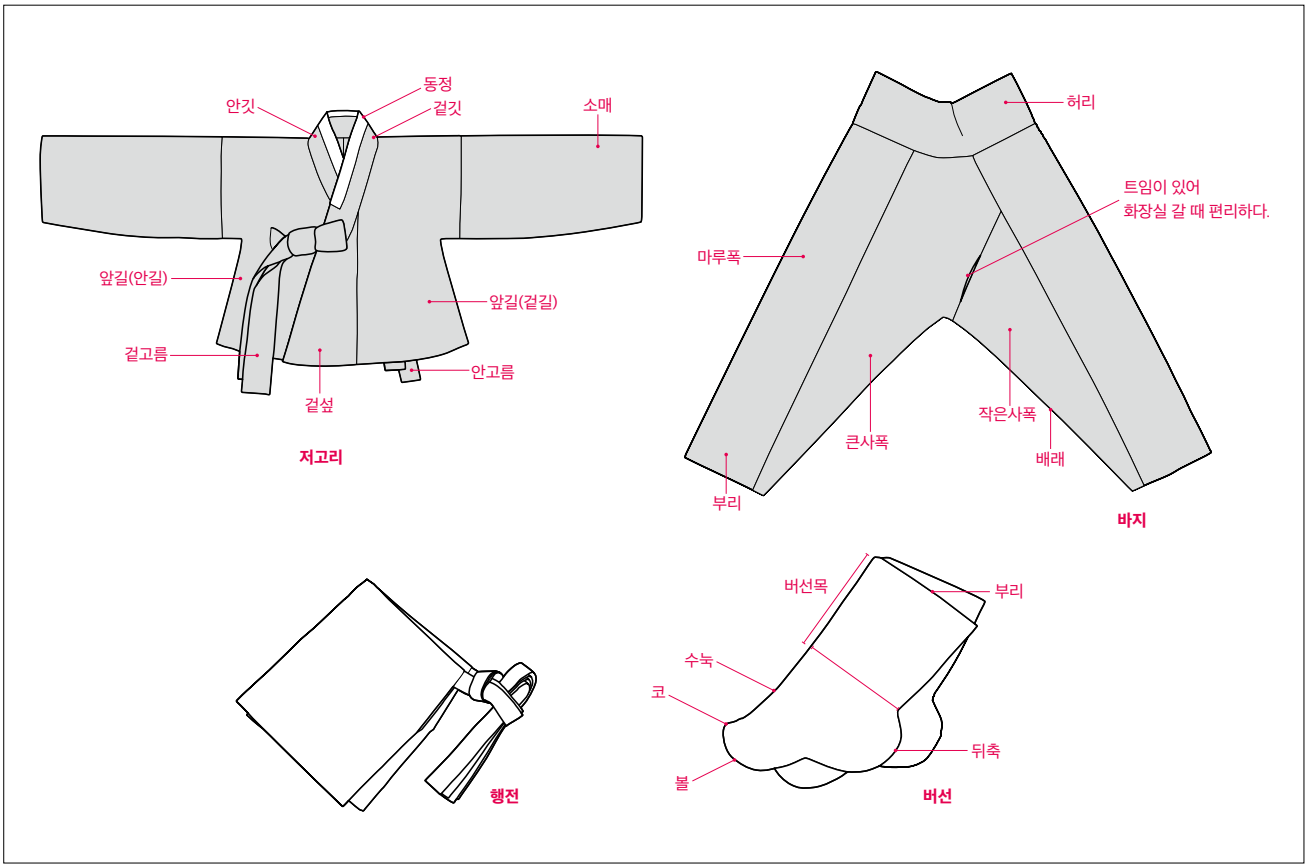
2. 통일신라시대: 중국 문화가 적극 수용되면서 서역풍이 반영된 이른바 당풍唐風이 유입되어 이국풍의 옷차림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외국산을 선호하며 사치가 심해지자 834년(흥덕왕 9)에는 관모인 복두幞頭를 비롯하여 단령포團領袍·고袴·단의短衣·내상內裳·표상表裳·반비半臂·배당褙襠·표褾·요대腰帶·요반褭襻·말액·말요액袱·화靴·화대靴帶·빗梳·옷감의 색과 직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승수乘數 등 21개의 복식 품목에 대해 신분에 따른 규제를 내용으로 한 복식금제를 내려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당풍의 옷차림은 특히 여자 옷의 착장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본래 우리 옷은 하의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상의를 입는다. 반면 당풍은 반대로 윗옷인 저고리를 먼저 입고 그 위로 치마를 겨드랑이 밑까지 높이 올려 입고 가슴 위치에서 치마끈을 묶어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다. 또 그 위에는 짧은 반비를 입고 긴 스카프[帔]를 목에 걸어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유행이었다.

3. 고려시대: 고려 귀부인들은 감람橄欖으로 물들인 늑건을 허리에 매고 금방울과 향주머니를 차며 흰 모시포를 입는데 남자의 것과 같다. 또 공경귀인公卿貴人의 처는 외출할 때 생명주로 넉넉하게 안을 받친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든 넓은 바지를 입고 말을 타며 머리에는 몽수蒙首를 써서 몸을 가린다. 신분이 낮은 관리의 부인은 여덟 폭으로 된 치마를 겨드랑이까지 끌어 올려 자락을 돌려 입고 묶는데, 여러 번 휘감을수록 고상하게 여겼다. 이러한 착장은 고려 전기의 모습으로 일부는 통일신라시대의 잔존이었다. 고려 후기에는 정치적으로 원나라와 국혼 관계를 맺으면서, 개체 변발과 요선오자 등 원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왕에서 서민 남녀까지 흰색 모시옷을 입었고,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상 안에서 나온 직령포·자의·중의·장수의



여성 복식의 기본 차림



남성 복식의 기본 차림

등을 보면 내면적으로는 우리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

4.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에서 이어진 구습을 개혁하려는 시도와 중국 명나라의 제도를 따르자는 의견이 함께 거론되는 가운데 폐단이 있는 것은 조금씩 바꿔 가며 자주적인 정책을 펼쳤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선사회는 밖에서 활동이 많은 반가班家 남자들의 겉옷과 쓰개류가 발달했던 반면, 밖의 출입에 제한을 받았던 여자들은 머리 치장으로 미적 욕구를 해소했다. 특히 머리 치장에 사용한 가체는 사치와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여 영정조 때에는 부녀자의 머리와 쓰개, 치장에 관한 규제와 사치를 근절하는 시도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여자 옷의 가장 큰 변화는 저고리의 형태와 착장에 있다. 초기 저고리 길이는 60㎝ 전후이며 네모난 목판깃이 달린 직선배래 형태이다. 중기 저고리는 길이가 50㎝ 전후로 짧아지고 배래는 진동에서 수구 쪽을 향해 좁아지는 사선배래가 많으며 목판당코깃과 임진왜란 이후에는 칼깃이 달린 것이 많다. 조선 후기에는 20㎝ 내외로 가슴선을 덮지 못할 정도로 더욱 짧아졌다. 치마 속에는 여러 개의 속옷을 껴입어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었다. 또 혹자는 이를 '복요服妖(요사스럽고 기이한 복장)'라 하여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우려하였으나, 정작 여자들은 작고 짧은 저고리에 어울리는 치마를 입는 방법을 고안하여 다양한 실루엣을 유행시켰다.

5. 개항기: 1894년 7월(고종 31)부터 1896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갑오개혁甲午改革은 옷차림에도 변화를 주었다. 1895년에는 단발령을 내려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모자를 쓰게 하였고, 문무관복이 양복화가 되면서 양복에 양화를 신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다. 전통복식도 간소화되어 남자 한복은 하의에는 바지와 속고의를 입고 발목은 여전히 대님을 묶었다. 상의에는 속적삼과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마고자와 조끼를 입었다. 그런 다음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고름을 없애고 단추를 달아 입기도 했다.

여자들의 옷차림은 여전히 전통복식에 장옷을 뒤집어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른바 일본 유학파나 신여성은 모던걸이라 하여 양장을 입고, 서양식 짧은 스커트에 허리까지 오는 긴 저고리를 입은 모습도 혼재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신교육을 받는 여학생들은 조끼허리로 연결된 짧은 통치마에 30~35㎝ 길이의 치마저고리를 교복으로 입고 다녔다. 소매통은 넓어져 마치 붕어 배와 같다하여 붕어배래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수입 양장지로 한복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

6. 한복 디자인시대: 1950년대 말에는 여성들도 경제부흥과 재건 등 사회 참여 기회가 증가하자 서양복 디자이너들은 개량한복에 관심을 갖고 패턴과 재단, 봉제에 서양 바느질법을 접목하였다. 1세대 서양복 디자이너 노라노는 최초로 아리랑저고리를 선보였다. 당시 사회는 경제 발전으로 접대 문화가 확산되면서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공연과 접대를 위해 한복을 입으면서 한복의 이미지가 평가 절하되기 시작했다. 1957년을 전후하여 값비싼 수입 벨벳이 최고의 혼수품으로 각광받았다. 벨벳 치마가 유행하여 벨벳의 결이 눌릴까 봐 차에 타고 앉을 때는 치마를 훌러덩 까고 앉는 것이 유행하면서 뒷사람에게 속옷을 보여 주는 우스꽝스러운 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1960년대 말에는 양장 보급과 양장지 수입이 확산되면서 한복은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잔치에 입는 예복, 노인들의 옷으로 인식되면서 어쩌다 한 번 꺼내 입는 옷이 되었다. 한편 예단만큼은 한복 옷감이 필수품이었는데, 이때는 마치 싱글 양복처럼 치마저고리 한 벌을 위아래 같은 옷감으로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물실크 양장지가 유행하면서 문양과 색감이 전통적인 감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세탁과 관리는 용이하였다.

1970년대에는 미스코리아의 세계무대 진출을 계기로 1세대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는 전통적인 한복에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고어드 재단법을 활용한 치마에 저고리 고름을 길게 늘어뜨려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었다. 반면 저고리 품은 작지만 겉섶선을 사선으로 달아 앞품에만 여유를 주어 브래지어를 착용하고도 한복을 입을 수 있었다. 한복의 현대화, 예복화가 진행하면서 광택 있는 공단이 유행하였고 그 위에 금박·은박·자수를 놓은 화려한 한복이 유행했다.





한복 | 2016 | 이지영

1980년대에는 생활한복 붐이 불면서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실용적 소재와 모시·삼베 같은 천연 소재가 유행하였다. 대량 생산과 기성복화가 진행되면서 서양복과 접목된 디자인 개발과 용도에 맞게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한편 아파트 주거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철 깨끼 바느질이란 용어가 생길 정도로 한겨울에도 비치는 노방으로 깨끼 바느질한 한복을 입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디자이너 이영희는 해외 패션쇼를 통해 한복의 소재와 색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전통한복의 고유한 멋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던 반면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생활한복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동정 없는 저고리, 한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한복 웨딩드레스도 선보였다. 올림픽이 치러지는 기간에는 우리의 전통문화, 전통한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화려한 장식은 줄고 단아한 치마저고리에 중간 색조의 반두루마기가 복고풍으로 유행하였다.

1990년대는 한복의 쇠퇴기이다. 한복을 자주 입지 않자 예단에서조차 한복 옷감이 빠지는 경우가 점차 늘고, 또한 난방과 교통 수단이 좋아지면서 한겨울에도 노방 사철깨끼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전통한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줄자 학계·산업계가 힘을 합쳐 우리 옷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높이는 데 중지를 모아 1996년 12월 4일 '한복의 날'을 제정하고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한복 디자이너들이 해외 전시나 패션쇼를 통해 전통한복과 디자인한복, 궁중복식을 알렸다. 2007년에는 한스타일 육성 사업에 한복이 포함되면서 한복의 세계화, 산업화를 목표로 다양한 한복 디자인 개발 사업과 한복의 대중화, 한복입기 실천사업이 진행되고 더불어 한복 대여점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대여점에서 취급하는 한복의 일부는 이른바 퓨전한복과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옷들도 대여되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0년 이후에는 특히 젊은이들이 한복에 관심을 갖으면서 전통한복, 생활한복, 디자인한복, 신한복, 데일리한복 등 다양한 명칭이 생겨났고, 전통한복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트렌디한 한복들이 유행하였다.

특징 및 의의 1. 단순함 속의 다양함: 한복은 직선과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단순 조형이지만 각각의 형태 안에서 선으로 면을 분할하고, 그 속에서 색과 문양만으로 디자인의 변화와 미적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전 세기를 총망라하여 어린아이에서 장년까지 다양한 색상과 소재, 디자인 한복을 입는다.

2. 수준 높은 복식문화: 한복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투피스형이며, 팔과 다리를 넣어 입는 체형형體型形 복식이다. 상의는 모두 앞이 열리는 전개형前開型이며, 여

자 치마는 둘러 입는 권의형卷衣形 복식이므로 두르는 방식에 따라 선의 흐름과 다양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한복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서 디자인과 기술 수준이 다 녹아 있다.

3. 디자인과 입는 순서를 알 수 있는 명칭: 한복은 형태적 특징, 소재, 문양, 색, 직물 조직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저고리는 길이에 따라 장저고리·단저고리로 구분하고, 저고리 깃의 형태에 따라 당코깃저고리·목판깃저고리·둥근깃저고리·목판당코깃저고리·칼깃저고리라고 한다.

기본 저고리 형태에 곁마기가 있어 겉막이·깃·고름·끝동 등의 색을 길색(몸판)과 다른 색으로 한 것은 회장저고리, 때로는 옷감과 직물조직에 따라 갑사저고리·숙고사저고리·양단저고리·진주사저고리·항라저고리·모시저고리·무명저고리·모본단저고리 등 소재 명칭을 저고리 앞에 붙여 부르기도 한다.

노랑저고리·분홍저고리·색동저고리 등처럼 색명을 앞에 붙여 부르고 솜을 두면 솜저고리, 누빔을 하면 누비저고리, 솜을 두어 누비면 솜누비저고리, 수놓은 것은 수저고리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양과 소재를 함께 붙여 연화문단저고리, 보상화문단저고리라고 한다.

바느질 방법에 따라 홑저고리·겹저고리(물겹저고리)·깨끼저고리 등 저고리 앞에 붙어 있는 수많은 수식어를 통해 그 저고리의 형태와 옷감, 색과 문양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 수 있어 명칭만으로도 구체적 소통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도 있지만 옷의 각 부위별 명칭도 있다. 예를 들어 저고리와 두루마기는 길·소매·진동·깃·고름·배래·수구·도련·고름·동정으로 이루어지고, 바지는 마루폭·큰사폭·작은사폭·부리·허리·가마귀머리, 치마는 치마말기·치마폭·치마끈·조끼허리 등 각각의 부위별 명칭이 따로 있다.

뿐만 아니라 한복의 착장 순서는 항상 하의를 먼저 입고 그다음 상의를 입는다. 여자 한복을 치마저고리, 남자 한복을 바지저고리라고 부르는 것도 착장 순서와 관련이 있다.

4. 구멍으로 뒤집기: 한복은 겉감과 안감을 같은 크기로 재단하여 각각 봉제한 후 합봉하고 안감에 미리 준비한 창구멍으로 뒤집어 겉감이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마무리한다.

5. 끈과 고름으로 묶는 여밈: 치마말기 끈, 바지허리 끈과 대님, 저고리 고름과 두루마기 고름에 이르기까지 한복의 여밈은 모두 끈과 고름으로 한다. 특히 고름은 세계 어느 전통복식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옷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이다. 걸을 때마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고름은 정적인 한복 이미지에 동적 이미지를 더해 리듬감을 준다. 또 고름의 넓이, 길이, 색의 변화만으로도 미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6. 주름으로 만들어지는 볼륨감: 직선 재단과 평면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한복은 면과 면이 만나는 곳에 주름을 잡아 볼륨감을 준다. 볼륨감은 대부분 아래쪽에 형성된다. 예를 들어 상의와 하의 중에서는 하의에 볼륨을 준다. 특히 여자의 치마는 옛날에는 모시 열두 폭을 이어 주름을 잡아 말기에 이어 붙여 풍성한 볼륨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의 쪽에 볼륨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 안정감이 있다.

7. 작은 조각이 만들어 내는 공간성: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네모난 작은 천을 대각선으로 접어 앞길과 뒷길에 연결하여 만들어진 공간은 평면을 입체화하여 통풍과 땀의 발산을 좋게 하고 활동성을 높여 준다. 또한 조각 천의 크기와 색에 따라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어 미적 효과를 높여 주기도 한다.

참고문헌 고려도경(서긍, 김대식 외 역, 황소자리, 2005), 아름다운 한국복식(황의숙·윤양노·조선희·이민주, 수학사, 2010), 조선여속고(이능화, 김상억 역, 동문선, 1990), 한국복식논고(박경자, 신구문화사, 1983),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유송옥, 수학사,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윤양노(尹良老)

한삼
汗衫

정의 긴 소매가 달린 속저고리의 일종.

역사 한삼汗衫의 용례는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에 처음 나타나며, 묘주의 부인과 도열한 여인들에게서 관찰된다. 고려 말 조선 초 무복舞服으로 2m가 넘는 소매의 저고리류 한삼이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 관찰되며 1535년(중종 30)에 경복궁에서 법연으로 설행되었던 <중묘조서연관사연도中廟朝書筵官賜宴圖>의 궁중 여기女妓 복식에서도 『악학궤범』과 동일한 형태의 한삼이 보인다.

조선 후기에 속저고리로서의 한삼에서 소매의 늘어지는 부분이 분리되어 무용복에서는 끈과 술을 달아 손목에 끼우는 복식으로 변하면서 대체로 이것을 한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내용 한삼은 소매가 따로 분리되어 손목에 끼워 착용하기도 하며, 예복에서는 소매 끝에 백색으로 덧대는 복식의 부분이다.

조선 초기까지 한삼은 손을 가리는 긴 소매 형태의 속저고리를 의미하였으며, 그 예를 <중묘조서연관사연도>의 궁중 여기 복식에서 볼 수 있다. 춤사위가 잘 드러나는 백색의 긴소매 한삼과 홍색의 긴소매 한삼을 입고 그 위에 소매 전체가 드러나는 짧은 소매의 황색 외의外衣를 덧입고 있다. 조선 초기 궁중정재에서 저고리 형태 한삼이 착용되었으며 한삼의 색의 범위가 백색 외 붉은색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긴소매 저고리형의 한삼은 1706년(숙종 32)의 <진연도첩進宴圖帖>의 무동복식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궁중연향 관련 기록 및 도상에 한삼이 분명하게 관찰되는 것은 1795년(정조 19)의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와 그 도병 1첩에 수록된 <봉수당진찬도>가 있다. 이 두 진연 사이에 속저고리로서 한삼의 소매가 분리되어 손목에 끼워 묶는 한삼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로 오색으로 만들어 대부분의 여령女伶 정재에 사용하였으며 백색은 연화대무동기와 차비여령, 집사, 악장, 문외의장門外儀仗 여령에게 사용되었다. 대한제국 때 이 백색한삼은 옥색한삼이 되었다. 한삼은 여령들이 춤을 출 때뿐 아니라 렴簾 내에 좌정한 왕과 왕세자의 앞에서 치어致語(궁중 음악에서 악인이 풍류에 맞추어 올리는 찬양의 말)를 하는 경우에 양손을 모아 올려 입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정재의 예禮와도 관련된 복식이다. <신축진찬연>에서 여령은 황초삼에 하단부터 청靑·황黃·홍紅·백白·녹綠으로 이은 오색한삼을 착용하였으며 <임진진찬연>에서 무동은 홍·남藍·녹·흑黑의 각색단령에 오색한삼을 착용하였다. 19세기 무자진작의 창제 정재에서 무동은 홍한삼과 녹한삼을 착용하였다.

예복의 이의裏衣로서 한삼은 의궤기록에서 한삼, 활한삼濶汗衫, 장한삼長汗衫으로 관찰된다. 1681년부터 1866년까지 일곱 건의 왕비 가례와 아홉 건의 왕세자빈 가례에 활한삼의 기록이 있다.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1802)부터 고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高宗明成后嘉禮成后嘉禮都監儀軌(1866)까지 왕비의 복식에 활한삼 한 벌씩을 제작하였는데 백초 19척 5촌이 사용되었다. 안감과 동정의 기록이 없으므로 홑옷이었으며, 함께 제작된 저고리에는 겉감으로 자적초 16척이 사용된 것을 볼 때 활한삼이 저고리보다 소매가 긴 홑 속저고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01)에는 적삼과 함께 갖추어진 한삼과 장한삼의 기록이 남아 있다.

예복에 갖추는 속저고리로서의 한삼은 저고리가 단



① 한삼 | 16세기 초반



② 여령의 오색 한삼

한삼 | ① 품 69 화장 104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축진찬도병풍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소화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되며 수구단에 붙은 한삼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원삼, 활옷, 장삼에서 이러한 형식의 한삼을 볼 수 있으며 영친왕비의 원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복을 겹옷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한삼은 홑으로 만들어 붙인다.

특징 및 의의 한삼은 손을 가리어 예禮를 갖추는 복식이다. 조선 초기까지는 속저고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 저고리가 간소화되면서 분리하여 손목에 착용하였다. 예복의 수구단에 백색의 자락을 이어 붙여 한삼이라 칭하였다.

『임하필기林下筆記』 권29에서 한삼의 착용에 대해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랫사람이 감히 손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매양 옷소매로 가리니, 이것이 한삼이 만들어지게 된 연유이다."라고 하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한삼을 예와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戊申進饌儀軌, 肅宗仁顯后嘉禮都監儀軌, 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조선시대 궁중진연복식(김경실, 경춘사, 2003), 조선왕조궁중의궤복식(유송옥, 수학사, 1991),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박성실,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선후기 궁중연향문화3(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원, 2005).

필자 김경실(金京實)

합사주
合絲紬

정의 조선 후기 주紬 종류 중 최고가의 평직 견직물.

내용 합사주는 명칭에서 나타나는 '합사合絲'라는 글자를 통하여 볼 때 경사 또는 위사에 두 올 이상을 합사한 견사絹絲를 사용하여 만든 비교적 두꺼운 평직의 견직물이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헌인 『탁지준절度支準折』에 '유문합사주有紋合絲紬'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무늬가 있는 것도 있었다.

『탁지준절』에 표시된 포백척布帛尺의 1척尺은 현재 cm의 기준으로 환산하면 47cm이므로, 합사주의 폭은 1척 3촌寸 즉, 61.1cm에 해당된다. 『탁지준절』에 폭이 기록된 직물들의 경우 폭을 살펴보면 주 직물의 경우 주紬와 면주綿紬, 토주吐紬는 7촌(32.9cm), 노주주潞洲紬는 9촌(42.3cm), 방사주方絲紬와 경광주輕光紬는 1척(47cm)이다. 단 직물 종류는 우단羽緞이 1척(47cm) 모단冒緞과 선단縇緞, 화단禾緞이 1척 2촌(56.4cm), 대단大緞과 상사단賞賜緞이 1척 3치(61.1cm)이다. 이를 통하여 합사주는 단緞 종류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넓은 폭으로 생산되었던 주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탁지준절』에서 남색의 절가를 기준으로 합사주의 1척 당 가치를 따져 보았을 때, 노주주(2전戔), 경광주(2전), 방사주(1전 6푼[分]), 화화주花禾紬(1전 1푼)보다 2.7~4.7배가량 높아 최고가 주紬 종류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후기에 편찬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성천·영변 등지에서 합사주를 생산하는데, 튼튼하고 두꺼우며 광택이 윤택하여 최고의 것은 '가품佳品'이라 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19~20세기 초 견직물에 관한 연구(이은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임원경제지1(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이은진(李銀眞)

항라
亢羅

정의 여직으로 제직하여 위향으로 줄무늬가 생기는 견직물.

내용 항라는 여직絽織으로 제직된 견직물이다. 여직은 사조직의 변형으로 평조직과 사조직을 규칙적으로 혼합 제직하여 위사 방향으로 일정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제직 시에 수 올의 위사를 평직으로 제직한 후 경사 2올씩을 꼬아서 위사를 짜고 이를 반복한다. 평직으로 제직되는 위사의 올 수는 3올·5올·7올 등 기수의 단위로 짜여져 3족·5족·7족 항라로 명명된다. 근대의 항라에는 9족·11족 항라도 보인다.

항라의 제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사가 반 꼬임으로 교차만 되는 것과 반 꼬임 후 위사를 넣어 짜고 다시 반 꼬임을 하여 완전 꼬임으로 짜는 방법이 있다. 후자는 위향으로 가는 소로가 두 줄씩 난다. 항라에



항라 | 국립민속박물관

는 무늬 없이 짜는 민항라와 항라 바탕에 사직과 평직, 부문 등을 혼합하여 무늬를 넣어 짜는 문항라가 있다.

문헌에서 항라의 기록은 비교적 후대에 나타나는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1623년(인조 1)에 항라혜亢羅鞋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항라 유물도 이 시기에 발견되며 이응해(1547~1626) 묘에서는 3족 항라로 만든 지요가 출토되었다. 경사와 위사에 매우 가는 실을 사용하여 투공률이 높으며 얇고 가볍다.

1727년 『진종효순후가례도감의궤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에는 겹군袂裙의 안감으로 항주라杭州羅가 사용된 기록이 있다. 1759년(영조 35)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에는 낙영에 들어가는 물품에 자적항라紫的亢羅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어보 보자기의 낙영 끈은 대부분 자색항라를 사용하였다. 헌종효순후憲宗孝純后, 철종철인후哲宗哲仁后, 고종명성후高宗明成后 『가례도감의궤』에는 너울 감으로 아청항라鴉靑亢羅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1880년에는 중국에서 생항라生亢羅, 저항라苧亢羅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 말에 쓰인 『탁지준절度支準折』에는 여러 색으로 물들인 항라의 직물가가 기술되었다.

조선시대 라의 종류에는 주항라紬亢羅·항라亢羅·생항라·숙항라熟亢羅·무문항라無紋亢羅·유문항라有紋亢羅·당항라唐亢羅·왜항라倭亢羅·서양항라西洋亢羅 등이 있다.

조선시대 항라는 민간에서 베틀로도 많이 제직되었는데, 기산풍속도 중 <항나 짜는 모양>에서 직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는 일반 베틀과 같으나 잉아가 두 개이며 잉아를 들어 올리는 전동 장치인 용두머리와 끌신도 각각 두 개여서 일반적인 베틀과 차이가 있다. 2경꼬임의 익직물을 짜기 위해서는 꼬임경사를 들어 올려 지경사와 꼬아 줄 꼬임 종광이 필요하다. 항라 직기의 두 잉아 중 하나는 꼬임종광이며 다른 하나는 보통 평조직을 짜는 종광이다.

항라는 보통 견으로 제직되지만, 조선 후기의 기록에는 저항라苧亢羅, 세저항라細苧亢羅, 삼족세저항라포三足細苧亢羅布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의 근대 유물 중에는 모시항라로 만들어진 남자 적삼이 한 점 있으며 직물로도 다수 전해지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항라는 남녀 한복에 모두 사용된 대표적인 전통 직물이다. 늦은 봄과 이른 가을의 옷감으로 많이 쓰였으며, 이른 봄과 늦은 가을에는 얇은 솜을 두어 짓기도 하였다. 항라는 현대에도 많이 제직되는데, 민항라는 여자의 치마, 저고리와 남자의 바지, 저고리에 사용되고, 문항라는 두루마기로 많이 사용된다. 문항라의 문양은 작은 원문, 문자문 등이 사용되어 조촐하고 단아하다. 항라는 같은 감을 겹쳐서 옷을 지으면 아름다운 모아레문이 나타나서 변화를 준다. 항라를 겹치면 은조사, 생고사를 겹친 것과는 다른 은은한 아롱문이 생기는데, 이를 온려溫麗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嘉禮都監儀軌, 度支準折, 전통옷감(민길자, 대원사, 1998), 한국직물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필자 심연옥(沈蓮玉)

해녀복
海女服

정의 제주도濟州島 잠수潛嫂들이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는 물질할 때 입는 작업복.

개관 제주도 말인 '줌녜'는 '**잠녀**潛女','줌수'는 '잠수潛嫂'이다. 이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미역·소라·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採取하는 제주 여성을 말한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기능이나 경력에 따라 '상上줌녜'·'ᄀᆞᆺ(갓)줌녜' 등 수식어가 붙으며, 지금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잠녀'가 단순한 여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잠수潛嫂'는 '잠녀'의 높임말이다. 여기서 수嫂는 '형수兄嫂'를 일컫는 높임말이며, 반상班常 개념이 남아 있어 바닷사람을

비하시켰던 관습 속에서도 어른으로 존칭했던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물속에 잠긴다.', 또는 '수영水泳한다.'라는 뜻으로 쓰는 잠수潛水와는 다른 것이다.

1970년대까지 기록이나 실제 제주 전역에서도 주로 'ᄌᆞᆷ수'·'ᄌᆞᆷ녜(녀)'라고 했다. 1702년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 기록된 작업 장면이나, 실록實錄 및 개인문집 등 많은 자료에서도 '잠녀'로 불렸음이 입증되고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와 『해녀연구海女硏究』(1973) 등에서 '해녀海女'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쓰였으며, 조선시대에도 격하格下나 비하의 의미로 쓰였음을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 가면 나이 들고, 경험이 많은 여자 어른(고로老姑)에게서 명백하게 입증된다. 현재는 일제강점기 때 일인日人들이 낮춰부르던 '해녀'를 관례慣例로 쓰고 있다.

잠수의 차림새에 대해 이건李健이 제주 유배 때(1628~1635) 쓴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를 보면 "잠녀들이 알몸으로 잠수潛水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알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시에는 여성은 외출할 때도 내외용內外用 쓰개로 얼굴을 가려야 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이보다 시기는 늦지만 『탐라순력도』에는 제주시 용연龍淵 앞 바다에서 여성 다섯 사람이 몸통을 가린 흰옷을 입고 물질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다. 이 물질 장면에 나타난 옷이나 물질도구들은 현재 남아 있는 1950년대 전후 것들과 비슷하다. 흰색의 '물소중이'를 입고 물 위에 '테왁'을 띄워 놓고 '자맥질'하는가 하면, '빗장'을 든 여인도 보이는데 이는 1900년대 중반까지도 볼 수 있었던 매우 낯익은 장면이다. 이로 볼 때 1700년대 이전에도 완전히 발가벗은 알몸은 아니었을 것이다.



① 물소중이 | 광복 이후 ② 물소중이 | 근대



③ 물적삼 | 광복 이후

해녀복 | ① 길이 49 허리 72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74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③ 등길이 35 품 44 화장 69 | 국립민속박물관



제주 해녀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물소중이'는 '물[水] + 소小 + 중이[袴衣]'의 복합어이다. '물'은 물속에서 물질함을,'소'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음'을, '중이'는 남자의 옷 중에서 여름 홑아래옷인 '홑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물소중이'는 물속에서 물질할 때 입는 작은 홑옷인 것으로, 틀은 크게 몸통, 어깨 그리고 옆의 끈으로 나뉜다. 몸통은 가슴과 엉덩이 부분만 가리고, 팔과 다리가 노출되는 짧은 단벌 홑옷이다. 어깨는 가는 끈을 한쪽만 단 것과, '어깨(조끼)말기'를 단 것 두 가지가 있다. 끈을 단 것이 앞선 시기이다.

물소중이의 꼴(형태·모양)을 매우 적절하게 묘사한 기록이 있다. 조선 숙종肅宗 때 신광주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1840) <잠녀가潛女歌>에는 '소고小袴'라 하였는데 이는 '작은 바지'를 뜻한다. 또한 오기남吳箕南의 시 <잠부潛婦>에 잠수하는 부인들이 입은 옷을 '달팽이잠방이(와곤蝸褌)'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다른 명칭들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사람이 입었다는 증거이다.

옷의 발생에 대해 어른들은 "물질하는 현장에 왜倭놈들이 자주 출몰하여 겁탈하고 몸을 빼앗기는 일이 많아지자 고안해 낸 옷"이라고 한다. 이는 왜구들의 침입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빈번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이후 줄곧 입어 왔다는 근거가 된다.

옷은 누가,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

라 격格이 달라진다. '물소중이'는 꼴이나 틀로 보아 작업복이며, 당시 반상제班常制의 사회 통념상 가장 '하층민의 옷'인 셈이다. 그러나,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제주에서만 자급자족했던 최상의 유일한 수중水中 작업옷이었다. 옷 만들기는 입는 사람이 주로 작업 현장에서 하였으며 쉬는 시간을 이용하였다. 농업과 어업을 겸하면서도 박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어촌 여성들에게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음이 옷 만들기에도 나타난다. 물소중이를 입었을 때 물질은 고되고 추웠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30분쯤 하고 나왔다. 물질하다가 나와서 바닷가 옆에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불턱'에서 잠시 몸을 녹이면서 그 틈에 만들었다. 마름이나 바느질이 그리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고, 또 스스로가 자신의 치수나 체형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입으면서 느끼는 결점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좋은 옷이 아니라, 작업복인 허드레 옷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염치와 겸양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옷감은 집에서 짠 '무명'으로 하였다. 무명은 집집마다 자급자족으로 생산되어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가장 서민적인 옷감이었다. 물소중이를 만들려면 무명은 여섯 자[尺], 소중이는 넉 자 있으면 된다. 옷 마름할 때 무명이나 삼베는 통폭[幅] 너비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마름을 통폭으로 함은 옷감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알았던 지혜이며 최상의 걸작품을 만들게 된 기원이 된 것이다. 이 방법은 옷을 만들고 한 치의 조각도 남기지 않음에 더 감탄하게 된다.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흔한 기계직機械織의 광목廣木으로 바뀐다.

색色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주로 '흰 것'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차츰 광목과 물감이 흔해지면서 '검정색'을 입기 시작했다. '검정은 흰색보다 질기고, 무엇보다도 얼른 보기에 더러운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좋았다'라고 한다. 또한 어깨 끈에서 차이가 나는데, 흰옷은 어깨 한쪽에 끈을 달고, 검정 옷일 때는 대부분 '조끼(어깨)말기'로 하였다. 검정 옷은 재봉틀이 나오면서 흔해지고, 바느질도 더 단단하게 하였다.

치수재기는 특별히 '자' 대신에 팔과 손, 손가락 마디로 했다. 손가락의 길이는 '뼘', 첫째와 둘째 손가락 거리는 '조리'라 했다.

마름은 어떤 옷이든지 옷의 성패를 가르는 첫 관문이다. 물소중이 마르기는 매우 특별한 숨은 공식들이 있으며, 그 점이 물소중이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마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몸판잡기'이다. 몸판잡기는 가랑이 밑이 사방 180°가 되는 바른네모(직사각형直四角形)가 두 겹으로 겹쳐지게 잡았다. 여기에서 가랑이 밑이 두 겹 겹침은 지금의 '팬티' 밑이 두 겹인 것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180°는 물질 때 하체下體를 최대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構造가 된다. 트임은 한쪽 옆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끈과, "ᄆᆞ작" 또는 "ᄃᆞᆯ마귀"라고 부르는 '매듭단추'를 앞 판과 뒷 판 양쪽에 3~5개씩 달았다. 이들 끈이나 단추의 길이는 일반 적삼赤衫에 다는 것과 달리 길다. 이는 임신으로 배가 부르거나, 살이 쪘을 때 조절하기 위함이다. 허리를 달 때는 배가 큰 사람은 '굴가랑이'와 '배바대(처지)'의 치수 가운데 '처지' 쪽을 넓게 잡도록 하고 '엇선(바이어스)' 부분을 조금씩 늘인다. '허리끈'은 뒤쪽을 짧게 한쪽 허리 끝까지 하고, 앞쪽 것은 허리 한 바퀴를 돌고 배꼽까지 오도록 길게 한다.

특히 물소중이 트임이 한쪽으로만 되어있음은 또 다른 특징이고 장점이다. 작업을 할 때나 평상시에도 매우 능률적이다. 입고 벗을 때도 앉아서 한쪽 다리만 움직이면 되어, 다른 속옷을 입을 때처럼 엉덩이나 하체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는 물질이 끝난 다음 옷을 갈아입을 때도 같다. 한편 한쪽 옆으로만 트임은 남자의 겁탈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구조이다. 이는 물소중이가 "왜구의 겁탈에 대처하면서 고안해 낸 것"이라는 지역 연장자들의 증언과 일치한다. 특히 밤에 남편에게 몸을 허락하고 싶지 않을 때 "소중이 두 벌을 트인 곳을 다르게 엇바꿔 입으면 좋았다."라는 경험담으로 입증된다.

바느질할 때 작업복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부분에는 튼튼하게 다리 운동에서 힘을 받는 부리와, '빗창'이나 간단한 소도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등허리 쪽에는 '바대'를 덧대었다.

물소중이는 1970년대 초부터 '고무 옷'으로 대치된다. 지금은 옷이나 잠수용구들도 모두 현대적으로 개발되었는데 모두 화학제품들이다. 고무 옷이 보급되면서 물질 시간은 30분에 비해 6시간 이상으로 길게 할 수 있어 돈벌이는 좋아졌으나,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


왕눈


족쇄눈 | 길이 12.5 너비 4.5


테왁망사리 | 길이 81


고무옷 세트

해녀복 | 광복 이후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수중 물질 중인 해녀 | 제주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특히 허리에 맨 무거운 납덩어리 때문에 심한 허리병을 앓았고, 고무 냄새로 두통과 구토증·피부염으로 고생을 많이 겪었다. 통증 때문에 "노신(뇌선)을 달고 산다. 최상의 비상약이다"고 한다.'물질'을 할 때 피복被服거리로 물소중이 외에 '물수건'과 '물적삼'이 있다. 이를 모두 합하여 '물옷'이라고 했다. 물질할 때는 머리카락을 수습하기 위해 물수건을 썼는데, 옷감이 귀해서 1900년대 중반 이후나 되어야 충분히 썼다. 물수건은 너비는 무명 폭만큼 35㎝, 길이는 80㎝ 정도로 머리를 겨우 동여맬 수 있을 만큼만 마련했다. 머리에 수건을 단단히 동여매고, 위에 '물안경'을 썼다. 머리쓰개는 1960년대 이후부터 물수건 대신 일본日本으로 물질 나갔던 '잠부潛婦'들이 가지고 온 '까부리'라는 새로운 모자로 바뀐다. 이 모자는 머리와 뒷목덜미까지 덮는 아기들의 방한모防寒帽와 비슷한 것이며, 잠수옷이 완전히 '고무 옷'으로 바뀔 때까지 사용하였다. 물적삼은 잠수할 때 소중이 겉에 입는 웃옷이다. 웃옷은 어려웠을 때는 여름에 입지 못하고, 겨울에 방한용으로 입었다. 차츰 1950년대 이후 '광목'이 나오고 옷감이 흔해지면서 사계절 입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낡은 적삼을 입었는데, 옷감이 풍부해지자 적삼과 서양의 블라우스를 겸한 새로운 꼴의 '물적삼'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목은 둥글게 파고 허리에는 고무줄을 넣거나 주름을 접고, 소매 끝 수구袖口에는 손목 활동이 편하게 고무줄을 넣었다.

피복거리와 함께 '물질'할 때 갖추어야 할 용구들은 수경·테왁·망시리·빗장이다. 첫째, 안경은 물에 들어갈 때 쓴다 하여 다른 안경과 달리 '수경水鏡'이라고 했다. 수경은 시대에 따라 '알'의 크기와 명칭이 달랐다. 알이 작은 것은 '쪽쇄눈'이라 했는데, 매우 비싸고 귀한 것이라서 사용자가 흔치 않았다. 옷이 고무 옷으로 바뀌면서 알이 하나로 된 큰 '왕눈'으로 바뀐다. 둘째로 '테왁'은 속이 빈 '박'으로 된 것이다. 둥글고 가벼워서 물질 때 몸을 의지하고, 물속에 잠겼을 때 부표浮漂처럼 떠 있어서 물질하는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기도 하다. 셋째, '망시리'는 채집한 것이 빠지지 않도록 만든 그물이며, 테왁에 매달아 둔다. 넷째, '빗장'은 해산물 채취용 칼이다. 이 용구들도 고무 옷과 물갈퀴와 함께 현대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특징 및 의의 제주도 바닷가 여성들은 농사일과 함께 물질로 생업을 이어가서 한 때는 '물질 잘하는 처녀가 최고의 신붓감'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해촌 여성'들에게는 강한 신체적인 조건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었으며, 물소중이는 제주도 여성들의 중요한 생업 자원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상징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크게 옷의 꼴, 작업, 성별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옷의 꼴로 '소중이', 작업에 따라 '물소중이'·'줌수옷'·'물옷', 성별에 따라 '해녀옷'·'줌녜옷'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명칭 안에는 복합어로 사람과 옷이 같이 섞여 있다. '물질하는 작업자, 즉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것이다. 물질의 주체자는 여성이며, 물질은 제주도 바닷가에 사는 여성들이라면 처녀는 물론 할머니까지 물때에 맞춰 겪어야 했던 고된 생업 수단 중 하나였다. 한편 여기서 '-질'은 반상 개념 속에서 직업과 거주지에 따라 쓰던 말로 주로 천賤한 사람들의 행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1900년대 중반까지도 남아 있었다.

물소중이는 1900년대 중반 이후 사회관습과 생활환경이 변하는 때에 맞춰 용도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옷을 탄생시킨 모체가 되기도 했다. 속에 거추장스럽게 여러 개 입던 긴 속옷 대신 옷감이 덜 들고 간편한 지금의 '팬티' 격인 '소중이'를 탄생시킨 것이다. 소중이는 물소중이의 어깨 부분을 없애고 허리 아래만 살리면서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 물소중이는 물질할 때 입는 작업용이지만, 소중이는 '제주 여성의 속옷'으로 자리 잡게 된다. 소중이를 처음에는 바닷가 노인이나 여성들만 입었는데, 이는 제주도에서도 양촌兩村, 즉 도시나 농촌 사람들은 바닷가 사람들을 '포촌浦村'이라 하며 낮게 보는 반상 의식班常意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층에서는 1900년대 후반까지도 물소중이와 함께 제주 여인들의 새로운 속곳으로 은밀하게 자리 잡아 온 유물 중 하나가 되었다.

참고문헌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고부자, 제주도연구3, 제주도연구회, 1986),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고부자,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7-의생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해녀연구(강대원, 한진문화사, 1973).

필자 고부자(高富子)

행전

정의 보행이나 행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바짓가랑이를 좁혀 정강이에서 무릎 아래까지 매는 하의류.

내용 행전行纏은 바지 착용 시에 보행이나 행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서 무릎 아래까지 매는 하의류이다. 조선시대 이후 폭이 넓은 바지를 입게 되면서 필요할 때마다 포布를 가지고 발에서 무릎까지 감았는데, 이는 매우 불편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소매 토시와 같이 유사한 원통형을 만들어 끈 두 개를 달아 정강이에 끼우고 위쪽에 무릎 아래를 끈으로 둘러매어 바지를 고정하였다. 『연행록선집燕行錄選集』에서는 "두 다리에 모두 사폭을 썼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행전이다."라고 하였으며, 『해행총재海行摠載』에는 "말을 끄는 종인은 무명옷을 입고 행전을 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상례喪禮 복식에서의 행전은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두 포를 사용하여 일반용의 행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착용하였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다양한 행전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영친왕의 행전 두 점이 있다. 영친왕 행전은 모시로 제작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길이 22.8㎝, 너비 19.6㎝, 끈 길이 48.5㎝, 끈 너비 2.5㎝이다. 발이 들어가는 부분의 트임은 10㎝이고, 끈을 연결한 곳만 홈질로 손바느질하고, 나머지 단 부분은 풀로 고정하였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에는 중국 소수민족 중 둥족[侗族]



① 영친왕 모시 행전 ② 행상

행전 | ① 길이 22.8 너비 19.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의 여자용 행전이 소장되어 있어, 행전류가 다양한 지역과 민족에서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행전은 신분의 구별 없이 사용하였으며, 주로 광목이나 옥양목으로 제작하였다. 특수한 신분의 행전이나 의례 시에 착용된 행전은 모시나 무명, 삼베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 양반층에서는 예복을 갖출 때나 외출 시에 반드시 행전을 착용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2004),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조우현(趙又玄)

행주치마

정의 여자들이 일을 할 때 치마의 더러워짐을 막기 위해 허리에 둘렀던 작은 치마.

내용 행주치마는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복으로 필수품이었다.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위로 행주치마를 둘러매고 저고리 소매를 몇 번 걷어 올리면 이것이 곧 노동복이며 작업복이 된다. 이러한 행주치마는 일을 할 때 옷매무새를 간편하게 해 주고 치마 앞을 깨끗하게도 해 준다. 노인들은 '행기치마', '행기쵸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시집올 때 혼수품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행주치마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때 행주幸州에서의 싸움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1593년(선조 26) 2월 행주산성에서 권율權慄 장군이 왜병을 맞아 싸울 때 성안의 부녀자들까지 합세하여 치마에 돌을 날라 병사들에게 공급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당시 부녀자들의 공적을 기리는 뜻에서 치마의 명칭에 행주라는 지명을 따서 행주치마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517년(중종 12)에 발간된 『사성통해四聲通解』에 'ᄒᆞᆼᄌᆞ쵸마', 1527년 『훈몽자회訓蒙字會』에 '호扈'를 'ᄒᆞᆼᄌᆞ쵸마 호'로 풀이하고 있으며, 17세기 『역어



행주치마 두른 여인 | 신윤복 | 정변야화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유해譯語類解』에는 한자 '호군자扈裙子'를 'ᄒᆞᆼᄌᆞ치마'로 언해하고 있어 어원의 시기는 임진왜란 이전인 1517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원에 관해 또 다른 설은 본래 행주란 그릇을 훔치거나 씻을 때 쓰는 헝겊을 말하는데, 행주치마는 이러한 용도도 겸하였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견해도 있다.

행주치마는 손을 닦거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 주며, 거추장스런 치마를 걷어 추슬러 주는 일 등에 쓰였다. 그런가 하면 추운 날 손이 시리면 허리 춤 끈에 손을 집어넣어 시린 손을 녹이는 방한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걸을 때나 일할 때에는 치마가 늘어지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위를 걷어 올리고 허리띠로 매고 그 위에 행주치마를 둘렀다. 행주치마를 입고 일을 하다가도 웃어른 앞에 나설 때에는 반드시 이를 벗는 것이 법도였다.

특징 및 의의 행주치마의 길이는 치마보다 짧게 하고, 너비는 치마의 반 폭 정도로 만들어 뒤가 휩싸이지 않게 하여 허리에 둘렀다. 여자가 흰 행주치마 두른 모습은 깔끔하고 부지런한 인상을 주었다. 원래 행주치마는 치마 위에 두르는 것이었으나 몸빼 위에도 둘렀다.

일반적으로 행주치마는 흰색의 감이며 옷감을 옥양목, 광목, 굵은 모시, 삼베, 당목, 목아사 등으로 한다. 행주치마를 만들 때는 보통 70㎝ 너비의 감을 2폭으로 하고 삼베나 모시면 4~5폭으로 하여 솔기를 잇는다. 허리 부분에는 주름을 잡아 허리둘레의 2/3 정도 둘러지도록 하여 허리말기에 붙이고 말기 양쪽 끝에 끈을 단다.

참고문헌 경기민속지4-의·식·주(경기도박물관, 2001), 한국민속종합자료보고서17-의식주(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한국민속종합자료보고서-충남(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필자 금종숙(琴鍾淑)

향갑
香匣

정의 향을 담는 갑匣 또는 작은 상자.

내용 향갑香匣, 향낭香囊(향주머니) 외에도 향을 담았던 그릇인 향합, 향유를 담았던 향유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를 향집이라고 한다. 향갑과 향낭은 여러 향집 중에서 향을 넣어 만든 장신구인 노리개 역할을 하는 품목이다. 주로 사향麝香을 넣어 만든 향갑과 향낭 외에 한충향漢沖香 덩어리 자체를 노리개 형태로 만든 발향·줄향· 조각향이 있다.

향갑은 향을 담은 갑이며 속에서 홍갑사紅甲紗를 한 겹 곱게 바르고, 그 속에 향을 끼우게 되어 있다. 갑의 겉은 금은·비취·산호·옥·마노·밀화·도금 등으로 당초무늬, 십장생무늬 등 각종 길상문吉祥文을 투각하여 만들었다. 향갑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표면이 딱딱하고 네모 반듯한 상자 형태의 각형과 둥근 형태의 원형이 있으며, 나비·박쥐·매미 등의 동물형, 석류·천도 등의 식물형, 낭, 투호投壺, 화준花罇, 서각犀角 등의 기타 형태가 있다.

향갑은 상하에 작은 고리가 있어 매듭의 상하단을 따로 맺고 향갑 속으로는 다회多繪(끈)가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하단부가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향갑은 삼작노리개로 차거나 삼작노리개의 하나인 단작노리개로도 애용하였다.

향갑노리개는 재료나 형태, 만드는 기법에 따라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그 예로는 도금니사로 엮은 속에 구급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용향이 들어 있는 도금니사鍍金泥絲 각향갑노리개, 파란을 올린 약용향이 들어 있는 은향집으로 은니사銀泥絲 각향갑노리개, 은투조와 니사로 정교하게 엮은 은투조銀透彫 원형 향갑노리개, 나이 어린 공주나 옹주가 사용한 은 바탕 위에 파란으로 봉황무늬를 새긴 은銀 파란 원형 향갑노리개, 비단에 국화를 수놓아 만든 수繡 각향갑노리개, 길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옥玉 향갑노리개, 여름철 경사스러울 때 사용하는 마미馬尾 각향갑노리개 등이 있다.

향낭은 주로 공단貢緞, 금단錦緞 등에 향을 넣어 주머니를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향과 구급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면에서 따로 만들어 차게 된 것이 장식화되어 실용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갖춘 노리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향낭은 의복의 색채와 어울리도록 공들여 꾸민 노리개 형태의 자수향낭과 평상시에도 몸에 지니는 소형의 별 장식 없는 귀주머니, 두루주머니로 접은 홍갑사 민주머니 등의 사향낭으로 구별된다. 이때 자수향낭은 겉옷 위에 차고 사향낭은 겉옷 안에 찼다.

색채는 초록·분홍·다홍·유청·옥색 등을 사용하여 호화롭고 아름다웠으며, 형태와 문양은 나비·박쥐·석류·매미·화준花罇·연화·서각犀角·천도天桃 등의 형태를 수놓아 장식미를 더했다. 「궁중발기宮中撥記」에는 '연화향낭'·'오색듕 연화향낭(갖가지 벌레의 문양을 수놓고 그 위에 연꽃 문양이 새겨진 형태)'·'서각'·'자라줌치'·'오방낭자' 등의 기록이 있어 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궁중 향낭 중에는 수놓은 자수향낭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져 비빈妃嬪만이 찼던 진주낭자眞珠娘子, 금박을 한 부금낭付金囊이 있다.

특징 및 의의 향갑 안에 실용적 측면에서 넣었던 향은 단순히 향을 낼 수 있는 향료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 구급약으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적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자연의 위협과 악령, 질병 등으로부터 보



향집노리개 | 길이 29



은삼작노리개 | 술길이 37

향갑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호하기 위해 향갑(향낭)의 형태·문양·색채·재료·향취 등에서 주술적 성향을 띠었다.

참고문헌 이조시대 문양을 중심으로 한 자수노리개의 연구(백영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한국 복식문화의 흐름(백영자·최정, 경춘사, 2014), 한국생활문화 100년(백영자 외, 도서출판 장원, 1995), 향집에 관한 연구(이미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국립고궁박물관(gogung.go.kr),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museum.dankook.ac.kr).

필자 백영자(白英子)

혁대
革帶

정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의 총칭으로 조선시대 상복常服과 조복·제복 등을 입을 때 관리가 착용하던 대帶.

역사 상고시대에는 혁대를 많이 사용했으나 점차 사대絲帶·포대布帶 등을 쓰면서 혁대革帶는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또 혁대는 금속대의 모대母帶로 사용하고, 금·은·옥 등으로 장식하는 화려한 혁대로 바뀌었다. 고구려의 띠 가운데 백피소대白皮小帶와 소피대素皮帶는 순수한 혁대이고, 은대와 금구혁대金釦革帶는 혁대를 금은으로 장식한 화려한 띠로 추측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색복조色服條와 『당서唐書』 백제조百濟條에 의하면, 백제왕은 고구려 귀족과 같이 소피대를 띠었다고 하는데, 이 소피대가 바로 혁대이다. 신라·통일신라는 혁대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이 없다. 고려시대에는 각종 복식제도에 따라 해당 혁대를 사용하였고, 그 장식 방법과 양식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고려 말기에는 다시 복식제도가 개혁·제정되었다. 이때의 띠는 품대品帶가 중심이 되었고, 혁대류는 점차 사라졌다. 조선시대 복식 제도에서는 품대가 중심이라 혁대는 중요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식대式帶가 있었고, 군대를 동원할 때 쓰인 녹비[鹿皮]로 만든 발병부대發兵符帶, 선전패宣傳牌를 넣은 주머니를 차기 위한 송화색 녹비로 만든 선전패가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나타난 품대의 규정을 살펴보면 1품은 조복朝服·제복祭服·상복常服에 서대犀帶(물소뿔로 장식된 띠)를 띠고, 사복私服에는 홍조아[紅條兒, 紅絲帶]를 띤다. 정2품은 조복·제복·상복에 삽금대鈒金帶(조각한 장식물을 붙인 금색 띠)를, 종2품은 소금대素金帶(조각의 장식이 없는 금색 띠)를 띠고 공복에는 정·종2품 모두 여지금대[枝金帶](금색에 진홍점을 찍은 장식물의 띠)를 띤다. 정3품은 조복·제복·상복에 삽금대를, 종3품은 소금대를 띠고, 공복에 정3품은 여지금대를, 종3품은 흑각대黑角帶를 띠며, 사복에는 정·종3품 모두 홍조아를 띤다. 4품은 조복·제복·상복에 소은대素銀帶를 띠고, 공복에는 흑각대를 띤다. 5~9품은 조복·제복·공복·상복에 흑각대를 띤다. 녹사錄事·제학생도諸學生徒·서리書吏·별감別監·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나장羅將·조례隷는 조아條兒를 띠고, 향리는 공복에 흑각대를, 상복에 조아를 띤다.



각대 | 가로 45 세로 30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우리나라의 혁대 문화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에 따라 변천하면서 발달해 왔다. 그런데 상고시대에는 혁대의 사용이 많았으나, 점차 사대·포대 등을 사용함으로써 혁대는 희소해졌다.

혁대는 왕 이하 문무관리들의 조복·제복에 사용하던 대로 조선시대는 왕의 면복부터 조복·제복에 이르기까지 혁대를 매었다. 혁대는 구조상 패옥 및 폐슬을 걸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문무관리들은 품계에 따라 장식에 구별이 있었으니, 조복에 사용된 혁대는 1품 서대, 정2품 삽금대, 종2품 소금대, 정3품 삽은대鈒銀帶, 종3품 소은대, 4품 소은대, 5품에서 9품까지는 흑각대였다. 서대는 무소뿔로 장식한 띠로 옥대玉帶 다음으로 귀했다. 삽금대는 일명 금띠라 하며 조각한 금색 장식물을 붙인 띠다. 띠의 장식에는 보상화문이나 당초문, 조류를 새기며 띠돈(조복의 띠에 붙이던 납작한 장식)은 방형판方形板이나 원판圓板에 모란·국화·난초 등을 새겨넣었다. 소금대는 무늬를 세공하지 않은 금판으로

장식한 혁대이다. 삽은대는 일명 은띠라 하며 세공한 은으로 장식한 혁대이다. 소은대는 세공하지 않은 은판으로 장식한 혁대이다. 흑각대는 검은색 무소뿔로 장식하여 만든 혁대이다. 공복에는 1품 서대, 2품 여지금대, 정3품 여지금대, 종3품 흑각대, 4품~9품은 흑각대를 띠었다. 여지금대란 여지 모양의 장식을 단 대이며, 금색의 장식물로 그 위에 진홍색 점을 찍어 여지 속의 붉은색을 나타냈다.

특징 및 의의 혁대는 왕 이하 문무백관들이 허리에 매던 관복의 대로 무늬와 재질에 따라 품계를 달리하여 사용하던 띠이다. 혁대의 종류로는 서대·삽금대·삽은대·소금대·소은대·여지금대·흑각대 등 재료와 사용된 장식에 따라 종류가 많았으며, 품계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가 달랐다.

참고문헌 우리 옷 이천 년(유희경 외, 미술문화, 2001), 조선시대 품대에 관한 연구(도보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복식 2천년(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문화사(김문자·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안명숙(安明淑)

협힐
夾纈

정의 두 개의 판에 같은 문양을 대칭되게 투각하거나 조각한 후, 양면판에 염료 흡입 구멍을 뚫어 그 사이에 천을 접어 끼워 염액을 칠하여 염색하는 방법.

내용 협힐夾纈은 두 개의 판에 투각하거나 조각한 후 양쪽에 나무판을 사용하여 파여진 부분에 염료를 부어 염색하는 방법이다. 이를 판묶기염 또는 판체염板締染 이라고 한다. 협힐은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시작해 중국·한국·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한다. 고구려 쌍영총 주실 북벽 벽화에 부부가 착용한 주색 바탕에 종선縱線 문양이 들어간 주색지종선문朱色地縱線紋포는 협힐에 의한 염색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통일신라 흥덕왕 복식금제에는 육두품 여성의 의상에 협힐 사용을 금하였고, 오두품 여성의 단의短衣·내상內裳·고袴·상裳·배당褙襠에 협힐 사용을 금하였다. 이를 통해 협힐은 진골 여성 이상의 계급에만 허용된 고급 문양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유물로는 1302년 아미타불복장에서 출현한 염직물 중에는 협힐염 기법으로 염색한 염직물이 있다. 당대의 염색 기법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협힐 유물이다. 협힐 염주 문양의 섬세한 소화문小花紋은 간혹 중간무늬와 큰무늬인 여의두문을 배치하여 홍화염색을 분홍으로 물들였으며 이에 대한 유물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협힐은 당나라 유첩여劉婕妤의 동생이 발견한 염색 방법으로, 무늬가 대칭으로 찍히는 것이 특징이다. 협힐은 두 장의 판에 각각 문양을 방염防染하려는 부분을 볼록[凸]하게 파서 어긋나지 않게 대칭형으로 조각한다. 조각한 면面 사이에 생지를 끼워서 딱 맞추어 노끈이나 바이스로 두 장의 판을 견고하게 묶는다. 그리고 미리 한쪽 판에 조각한 문양의 오목[凹]한 부분에 통하도록 뚫은 구멍에서 염료액을 흘러 보내 염색한 것이다. 무늬가 좌우대칭으로 된 것을 유물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너비나 길이를 접어서 염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협힐 문양의 제작은 삼힐 중에서 최고로 난해한 기법이다. 협힐은 천을 두 겹 및 그 이상으로 접어서 두 장의 목판 사이에 끼어 염색하는 것이다. 단색뿐만 아니라 여러 색채가 사용되었다.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보존·전승된 협힐판은 양편 판의 섬세한 문양이 완전히 합쳐져 간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협힐염은 협힐 염색장을 중심으로 박달나무, 돌배나무 등의 목재 조각장이 제휴하여 생산하는



협힐 홍화염 | 자연염색박물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협힐판의 조각 방법은 문양 가장자리에 흰색으로 된 부분을 두 장의 목판으로 조각한다. 그 주위를 둘러싼 문양마다 판의 뒤에서부터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다. 협힐 기법의 원리는 한 장의 천布에 다른 색의 문양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염료액이 혼합되지 않게 각 색마다 문양의 둘레에 염료액이 스미지 않고 윤곽輪郭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문양을 생각한다. 이후 염료액이 충분히 순환하도록 오목한 부분을 깊이 조각하고 각각의 윤곽에 염료를 넣는 구멍을 뚫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자연염색에 의한 삼힐 문양 연구(김지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한국복식 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필자 김지희(金芝希)



운혜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혜
鞋

정의 신목이 없고 운두(신울)가 낮은 신.

내용 일반적으로 혜鞋는 신울이 낮은 형태로, 초草나 마麻, 나무[木]를 제외한 신의 총칭인데 주로 상류층의 신을 의미한다. 재료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며 신코 부분의 형태로 남녀용으로 구분된다. 주된 재료나 꾸밈새에 따라 명칭이 달라서 피혁皮革, 포백布帛, 유鍮 등으로 구분된다. 종류에는 태사혜, 삽금혜, 삽혜, 제혜, 녹피혜, 흑피혜, 흑혜, 유혜, 분투혜, 피초혜, 사피혜, 당혜, 운혜 등이 있는데, 성별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신었다. 왕실 유물로는 영친왕비의 당혜 두 점과 왕손이 신던 태사혜 한 점이 있다.

문헌의 도설에 나와 있는 혜의 형태를 보면 『고종임인진연의궤高宗壬寅進宴儀軌』에서의 초록혜草綠鞋,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처용관복處容冠服과 여기女妓 복식의 혜가 있으며 발등을 많이 덮지 않는다. 이 중 처용의 관복에 신는 혜에는 끈이 달려 있고, 초록혜는 신코에 술이 달려 있는 것을 제외하면 장식이 거의 없다.

유물로 전해지는 것은 조선 후기와 말기의 출토유물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유물의 시대적 한계를 문헌자료와 비교하면 남녀의 혼용, 명칭의 혼란 등 차이를 보인다.

조선 말기 유물에서는 운혜와 당혜는 여성용 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말기에 나타난 현상이며, 문헌기록에서는 남녀 공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남성용 신을 대표하는 태사혜는 19세기 말 「궁중발기宮中撥記」에서 한 건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가죽신에 쓰이는 재료로는 노란색 소가죽인 흡피, 노루 가죽인 쟁피[獐皮], 사슴 가죽인 녹피가 신울로 쓰였고, 왕실에서는 흑담비, 고라니, 곰, 당나귀, 양 등의 귀한 가죽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백마白馬의 볼기 가죽이 도리(신 입구의 둘레 부분)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채찍에 많이 단련된 질긴 엉덩이 부분 가죽을 사용하여 여러 번 착용해도 신 입구가 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자료 중 복식 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기록된 『미암일기眉巖日記』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고 생소한 가죽의 종류가 보인다. 서피鼠皮, 백록피, 인록피모人鹿皮毛, 녹피, 흑록피, 문피文皮, 구피狗皮, 흑서피黑黍皮, 어피魚皮, 황피黃皮, 황광피黃狂皮, 초피貂皮, 장피獐皮, 호피虎皮 등으로, 이 중에는 정확히 파악이 힘든 것도 있다. 내피용으로는 짐승 털을 누른 '담毯' 등을 사용하였다. 신울로 사용되는 천으로는 숙고사, 생고사, 삼팔, 무명 등이 여름용으로 사용되었고, 공단, 양단 등이 겨울용으로 사용되어 신의 재료도 의복의 재료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혜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구성은 표(겉감), 내공(안감), 근, 회이, 창, 과피, 휘, 백비, 실, 금전지 등이다. 그 외 보수를 위해 모직물로 만든 혜전鞋氈 또는 모전毛氈이 있다. 어저귀 풀의 털을 풀에 섞어 길이와 너비가 반 발쯤 되게 만들어 걸어놓았다가 신이 닳아 밑창이 떨어지면 베어서 신발 밑바닥에 대어 신는다.

남자의 혜는 신울의 높이에 따라 왼마상(온마상), 반마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왼마상은 울이 높고 신코가 길며 우뚝하며 왕, 내시, 노인들이 많이 착용하였다. 반마상은 울이 낮고 보통 솜버선에 맞게 된 일반용 신이다. 여자의 혜는 왼궁혜(온궁혜), 반궁혜, 계혜, 기혜로 분류한다. 왼궁혜는 노인용으로 울이 높고 발이 편하여 버선에 솜을 두어 신는다. 반궁혜는 신울이 얕고 맵시가 있으며 발볼이 좁고 버선에 솜을 두어 신는다. 계혜는 볼 넓은 여자나 여염집 부인용으로 맵시가 별로 없는 신이며, 기혜는 기생들의 신으로 신울이 아주 얕고 불편하나 맵시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혜의 신울이 높고 낮음에 따라 맵시와 발의 편안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문헌에 있는 혜의 기록은 삽혜, 온혜, 운혜, 피혜, 흑혜 등이 있다.

삽혜는 남혜男鞋로 왕의 어리御履를 말한다. 삽혜는 유생과 천인들의 금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왕실을 비롯하여 사대부 상류 계급에서 착용하였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 나와 있는 흑웅피삽혜를 보면 겉은 흑색의 곰 가죽, 안은 백색 사슴 가죽으로 하며 뒤꿈치 안쪽으로 자색의 사피 근을 대었다. 백색 개 가죽으로 도리를 두르고 대홍색과 초록색 비단으로 휘(솔기에 넣는 장식선)를 돌려 화려하게 꾸민 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진상품으로 화와 함께 갖춰 올리는 것으로 보아 삽혜는 임금 이하 왕실 남자들의 신으로, 평상시에 신는 일반 피혜의 형태로 생각된다.

온혜溫鞋는 온혜韞鞋라고도 하며, 안창에 융이나 담을 대어 따뜻하게 만든 것이다. 『상방정례』에 있는 왕실의 흑웅피온혜는 흑웅피삽혜와 동일한 검은색 곰 가죽으로 만든 것이며 휘의 재료를 초록 남필단을 사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온혜는 삽혜와 구조가 같고 재료도 비슷하며, 진상품으로 왕비 이하 여관들이 신는 왕실 여자용 신이다. 또 다른 왕실 여자용 신으로 흑웅피결화온혜黑熊皮結花溫鞋, 흑당피결화온혜黑唐皮結花溫鞋는 온혜에 꽃을 단 것인데, 곰 가죽, 당나귀 가죽 이외에 색색의 천과 실, 금종이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아 화려했음이 짐작된다. 의궤에도 중궁의 생신에 검은 당나귀 가죽으로 만든 온혜에 꽃을 단 흑당피화온혜를 선물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결화온혜는 화온혜를 말한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도 상궁, 유모, 시녀, 기행나인, 보행나인, 본궁나인의 흑웅피온혜와 「궁중발기」에는 임오년(1882년) 가례 시 순정효황후의 자적향직온혜, 다홍백로봉채금단온혜, 빈궁의 유청온혜가 있으며 계사년(1893년) 의친왕 부인(군부인)의 자적향직온혜와 명성황후의 흑당피온혜의 기록(1890년)이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1864년(고종 1) 각 전과 궁에 진상하는 온혜의 봉진에 흑당피온혜 대신 백피로 만든 신발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피초혜皮草鞋는 대왕대비전의 백당피초혜와 중궁전, 빈궁의 백당피초혜가 있다. 모두 신울의 겉과 안감으로 흰당나귀 가죽을 사용하고 도리는 흑사피를 사용하지만, 그 외 부분에 색색비단을 사용한 재료가 달라 중궁전과 빈궁의 피초혜가 대왕대비의 것보다 더 화려했음을 알 수 있다. 삽혜와 온혜에는 피초혜와 달리 뒤꿈치 안쪽에 근을 덧대는 공정이 더 있어서, 한 가지 가죽이 더 사용되어 공들여 제작된다.

이외에 외코신은 아무 장식이 없는 신으로 첩과 기녀들이 신었으며 비혜鼻鞋라고도 한다. 외코신의 재료를 보면 흰색, 옥색, 검정색, 회색 등의 비단을 사용하거나 검정색의 노루 가죽, 회색의 가죽을 사용하였다. 흰 말의 볼기짝 가죽으로 도리를 둘렀으며 여기에 눈을 놓지 않고 앞코와 뒤축에만 흰 실을 걸었다. 신코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장식이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 말의 온혜도 외코신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녹피혜도 사슴 가죽으로 만들고 장식이 없다. 궁궐의 잔치에서 기녀들이 신는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신은 혜아鞋兒, 혜자鞋子라고도 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악학궤범』에는 양반 부녀자와 여기女妓는 사라능단으로 만든 비단 혜를 사용하게 하였다.

수초혜繡草鞋는 조선시대 궁중 무용인 망선문望仙門을 출 때 신던 여자 신이다. 녹색 전氈으로 신울을 대고 꽃무늬를 수놓았으며, 신의 코와 뒤축에 구름무늬를 수

놓고 코에는 붉은 상모를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고 끈을 달았다. 의궤에 나오는 기녀들의 혜의 명칭을 보면 백피혜白皮鞋, 수초혜, 초록혜草綠鞋, 홍수혜紅繡鞋 등 다양하다.

여성용 마른신 중 특히 비단에 수를 놓은 수혜는 꽃신, 수꽃신이라고도 한다. 가죽이나 베를 여러 겹 붙인 위에 청홍색의 무늬 있는 비단 또는 공단 등을 두르고 다시 비단 색깔과 반대되는 색실로 매화, 대나무, 나비 등을 수놓은 것으로, 주로 젊은 부녀자들이 사용하였다. 신울 좌우 앞부분에 평수와 이음수로 화문을 수놓고 신코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초록색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선조 때 허난설헌의 한시 구절에 수혜가 있어, 당시 양반가 부녀자들의 치장으로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혜祭鞋는 제복에 착용하며, 가죽이나 무명을 사용하고, 신코 부분에 백색의 넓은 선 장식이 있다. 이 밖에도 승혜僧鞋는 승려들의 마른신으로 융을 재료로 하여 푹신하다.

형태가 특이한 발막신 또한 마른신의 한 가지로 상류층 노인들이 주로 신었으며, 뒤축과 신코에 꿰맨 솔기가 없고 코끝이 넓적하다. 발막신은 뒷발막과 앞발막이 있는데, 뒷발막은 검정 가죽에 백마 도리를 두르고 뒤꿈치가 통으로 솔기가 없다. 앞발막은 외코신의 모양으로 뒷발막과 같으나 신코 위에 백마피로 원형圓形을 펴서 대고 경분輕粉을 칠했다.

흑혜黑鞋는 외피를 검은색 모직, 검은색 녹피 또는 자색 우단으로 하고 내피는 백피로 되어 있다. 주로 검정색의 가죽으로 만들며 장식이 없는 단순한 것이다.



흑피혜·녹피혜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흰색 사슴 가죽으로 도리와 근피를 둘렀고 안창은 담이 깔려 있다. 앞코에 코실과 뒤축에 칙실로 마무리한다. 울이 낮은 것은 젊은 층이 선호하였고, 신울이 비교적 높은 것은 노년층에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착용하나, 그 형태의 차이가 있다. 남자의 것은 신코가 넓고 뒤축이 높은 신으로 조선 말기에 유생들이 신었다. 여성용은 신코가 뾰족하고 높은 형태로 되어 있다.

흑피혜黑皮鞋는 조선시대 백관의 조복과 제복에 착용한 신이다. 『사례집요四禮輯要』를 보면 흑피혜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죽으로 만든 혜, 가죽을 사용한다. 덧대는 바닥은 발의 모양에 따른다. 혹은 징을 붙이기도 한다. 네 변은 난간을 둘러서 이어지게 한다. 코는 구형句形으로 하여 발 앞부분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흑혜와 흑피혜는 장식이 없는 것이 유사하지만, 흑피혜는 가죽으로 만들고 흑혜는 천이나 가죽을 검정색으로 염색하거나 붉은색, 파란색의 우단으로 만든다. 또 앞축과 뒤축 중심에 흰 실로 코실과 칙실을 만들어, 이 두 가지 형태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마혜麻鞋는 생삼生麻이나 삼, 닥나무를 소금물에 담갔다 엮어 만들어 '승혜繩鞋', '삼신'이라고 부르며, 곱게 만든 것이 많아 '미투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시대 양반들을 비롯해 중인 계급까지 광범위하게 착용되었다. 미투리는 형태가 매우 날씬하며, 신코가 길고 독특하게 짜여 있고, 신바닥이나 총이 조밀하게 되어 있다. 중인 계급이 가장 많이 신었던 미투리는 총을 대략 50~60개를 세워 만든다. 미투리의 주재료는 닥나무인데 경상북도 월성의 닥이 특히 유명했다고 한다. 지혜紙鞋는 종이로 노를 꼬아 만들고 마와 함께 삼기도 하는데, 곱게 짜서 만들기 때문에 지총미투리라고도 한다.

특징 및 의의 혜와 함께 목이 없는 신의 명칭으로 '리履'가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조선시대에는 목이 없는 신을 혜로 통칭하여 부르게 되었다. 리는 혜보다 이른 시기에 중국 문헌에 가죽신[革履], 짚신[草履]의 기록으로 등장한다. 중국 『설문통훈정성說文通訓定聲』의 기록에 보면 '구屨'가 가장 이른 명칭이고, 한나라 이후에는 리라 했고, 뒤이어 혜라 부른 것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조선 이후

리는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점차 혜로 바뀌어 목이 없는 신의 통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설에 나와 있는 리의 형태는 『악학궤범』의 오피리烏皮履, 『세종실록世宗實錄』 왕세자관복의 흑리黑履, 『춘관통고春官通考』 문무관 관복의 리,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의 리 등이 있다. 이들은 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는데, 대체로 발등을 많이 감싸는 오늘날 발목 양말 형태였다. 여기에 신코 장식으로 구름무늬 장식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 말기의 리는 서민용 초리草履와 정교하게 짠 미투리가 대부분이었다. 초리는 '짚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코가 짧고 엉성하게 짜인 것이 많다. 왕골 짚신, 부들 짚신 등이 있는데, 특히 왕골[莞草]과 부들[香蒲] 등을 가늘게 꼬아서 촘촘히 삼은 고운 짚신도 있다. 골풀로 만들어 상제喪制가 초상 때부터 졸곡卒哭 때까지 신는 엄짚신[菅履, 菅屨]도 있다.

참고문헌 萬機要覽, 眉巖日記, 上方定例, 樂學軌範,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 2(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우리나라 신에 관한 연구(김지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조선시대 남자용 혁·포제 신에 관한 연구(곽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의 자수(허동화, 삼성출판사, 1978), 한국장신구미술연구(황호근, 일지사, 1976), 화장(예용해,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5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화혜장(조선희, 민속원, 2007).

필자 조선희(趙鮮姬)

호건
虎巾

정의 머리에 쓰는 남자 아이용 건巾으로 호랑이 모습으로 장식한 복건.

내용 호건虎巾은 조선 말기와 개화기 때부터 반가班家의 남자 아이들이 썼던 쓰개의 한 종류로 복건과 비슷한 형태이나 호랑이 얼굴의 모양이 나도록 장식한 특징이 있다.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돌 등에 남자 아이에게 두루마기와 전복 또는 사규삼을 입히고 호건을 씌웠는데, 보통 5~6세 정도까지 쓴다.

남자 아이에게 호건을 씌우는 것에는 호랑이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는 호랑이가 많아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나 풍습들이 많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호랑이는 많은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 경외와 공포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호랑이는 십이지十二支 중에서 세 번째인 인寅에 해당하고 정월을 상징하는데, 설날에 벽이나 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 벽사辟邪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구한말 외국인의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호랑이 꿈을 길몽으로 여겼다. 호랑이 꿈을 꾸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성장하여 무관으로 출세한다거나, '虎'라는 글자가 '好'자로 변해 만사에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믿었다.

호랑이가 사악한 기운을 막아 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 호랑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하기도했다. 부적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 넣거나, 여성들은 호랑이 발톱으로 만든 노리개를 만들어 패용했다. 호박은 호랑이의 혼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여 단추나 장신구 등 각종 복식의 소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 밖에 선비의 소품인 필통·연적·벼루뿐 아니라 밥그릇과 빨랫방망이에도 호랑이 문양을 그려 넣었다. 특히 아이들은 각종 질병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아이들의 수호부적으로 호랑이 발톱노리개를 채우거나 조끼 같은 어린이의 의복이나 굴레, 호건 등의 소품에도 호랑이 문양을 수놓아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호건의 겉감은 주로 검정색 사紗나 주紬로 하고 안쪽에 남색이나 홍색의 안감을 댄다. 조선 말기 유물 중에는 감청색의 겉감 안에 소색의 안감을 넣어 만든 것도 있다. 호건의 이마 부분에는 흰색과 붉은 계열의 실로 호랑이의 눈썹·눈·수염·이빨을 수놓고 코 부분에는 흰



호건 | 길이 50 지름 19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호건 쓴 아이들 | 일제강점기

색 자수실로 술장식을 달아 준다. 정수리 부분에는 두 귀를 만들어 다는데 귀의 안감 색상은 좌우 양쪽을 홍색으로 하기도 하고, 홍색과 황색으로 한쪽씩 만들어 달기도 한다. 만드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호랑이의 표정이 개성 있게 표현되며, 볼 부분을 따로 만들고 끈을 달아 복건과 같이 머리 뒤편에서 묶어준다. 호건의 가장자리와 끈에는 인仁·의義·예禮·지智·효孝·제弟·충忠·신信 등의 덕담이나 수명장수壽命長壽를 기원하는 길상어문吉祥語文을 금박하기도 했다.

특징 및 의의 호건은 복건과 유사한 형태의 쓰개 중 하나로 머리에 씌워지는 부분을 호랑이 모양으로 장식하였는데, 돌쟁이부터 5~6세까지 남아들에게 많이 씌웠다. 호랑이처럼 지혜롭고 용감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수놓거나 길상어문을 금박으로 장식하였는데, 집안에 따라 호랑이의 표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조선 후기 이후에도 일부 반가의 남아들이 착용하였고, 오늘날에는 남자 아이의 돌복에 함께 착용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김정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박은정, 온지논총53, 온지학회, 2016), 조선상식(최남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조선상식문답(최남선, 동명사, 1946), 한국복식문화사전(김용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김정아(金廷兒)

호박단
琥珀緞

정의 굵기가 다른 견사를 경사와 위사로 배열하여 직물 바탕에 가로 방향의 이랑이 나타나는 견직물.

내용 호박단琥珀緞은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견직물이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江戶時代 초기 천화연간天和年間(1681~1684)에 처음으로 제직되었으며, 1917~1918년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상류층에서만 사용하는 고급품이었지만 사치품에 대한 관세법을 실시한 후 현저하게 그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47년경부터 조선견직朝鮮絹織 주식



호박단 | 국립민속박물관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하였다. 특히 1947~1960년경에 많이 생산되어 치마저고리의 한복 옷감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얇은 호박단은 '태피터taffeta'라고 부르기도 하며, 최근에는 합성 섬유로도 만들어져서 드레스, 블라우스 안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경사로는 정련한 꼬임이 있는 견사를 가늘고 조밀하게 배열하고, 위사에는 정련한 굵은 꼬임 견사를 배열하여 바탕 조직을 평직으로 제직한 견직물이다. 따라서 직물의 바탕에 가로 방향으로 뚜렷한 이랑이 나타나며, 질 좋은 실을 사용하여 꼬임이 있으면서도 광택이 우수한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중반에 한복 옷감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색상은 다양하고 한 폭의 포폭은 72㎝ 내외, 한 폭의 길이는 15m 내외이며, 문양이 없는 것도 있지만 줄무늬·원형·꽃무늬가 있는 것도 있다.

참고문헌 20세기 전반기의 한국 견직물 연구(장현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피복재료학(김성련, 교문사, 2000), 絹の科學(皆川基, 關西衣生活研究會, 1986), 內地に於ける鮮人向絹織物の生産に就て(稅田谷五郎, 朝鮮總督府, 1925), 日本の織物(北村哲郎, 原流社, 1988).

필자 장현주(張賢珠)

호슬
護膝

정의 왕실 및 반가의 남자들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매는 무릎 보호대.

내용 호슬[護膝, 膝甲]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말을 타

고 원행遠行할 때 무릎에 매어 보호대로 사용하였으며, 겨울철에는 방한용도 겸하였다.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특히 동절기에는 얼음이나 눈 위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낙마의 위험이 많았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관리들이 낙마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기록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그러나 호슬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많지 않으며 유물도 매우 귀하다.

호슬은 비단과 가죽, 심감으로 털이나 솜으로 만들었으며,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 한어 학습서로 알려진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 처음 보이는데 슬갑膝甲으로 언해되어 있다. 호슬은 명녹색明綠色 저사紵絲나 아청 단자에 만자교滿刺嬌가 있는 것, 명녹색에 사계화四季花를 자수한 것이 있으며 심감으로 전氈, 낙타모 등의 상세한 기록이 보인다. 저사는 단자緞子를 말하며 만자교는 연꽃, 연잎, 원앙, 벌, 나비 등의 문양을 오색실로 자수 또는 채색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 매우 화려한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조선과 명明의 사신들에게 호슬을 선물한 기록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도 왕실에서 하사한 기록이 있다. 1417년(태종 17) 명 사신에게 내린 호슬은 초피리홍단자貂皮裏紅段子로서 홍색 비단에 초피로 안을 대어 만들었다. 세종 대에는 양국 사신들에게 누차에 걸쳐 선물한 기록이 있다. 1423년(세종 5)에는 명 사신이 요청한 녹피鹿皮호슬을 내려주었고, 1429년(세종 11) 1월에는 명 사신이 가져온 금錦호슬을 세종에게 올렸으며, 12월에는 표문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서원군瑞原君에게 호슬을 하사하였다. 이외에도 1430년(세종 12) 7월에는 6대언代言(승지)에게 호슬을 하사하였다. 1436년(세종 18)에는 세자빈 봉씨가 호슬, 주머니 등을 만들어 환자宦者들에게 주었는데, 막상 세자 생신에 올려야 할 호슬이 없자 오래 전에 만들었던 것을 새것처럼 속여서 올렸다는 기록도 있다.

또한 당시 수입 비단 사용 등 사치로 인한 폐단이 심각해지자 1446년(세종 28) 의정부에서 신분에 따른 복색상정服色詳定 조건을 올렸다. 1449년(세종 31)에는 구체적 조항이 하달되었는데 호슬이 포함되었다. 사라능단이나 채견 등 고급 직물로 만든 주머니와 호슬은 유품조사流品朝士와 의관자제衣冠子弟, 국왕을 호위하는 성중관成重官 이외에는 착용을 불허하였다. 이후 호슬 기록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성종 대에 이르러 자수 호슬이 보인다. 1472년(성종 3)에 하직하는 종정국宗貞國 사신에게 많은 물품과 함께 대홍단자수호슬大紅段子繡護膝을 내려 주었고, 1476년(성종 7)에도 명 사신에게 동일한 호슬을 주었다. 1489년(성종 20)에는 인수대비가 어가를 수행한 종친과 재상들에게 호슬을 내려 주었다. 이와 같이 초기의 호슬은 대홍색의 비단과 초피, 녹피 등의 가죽을 대어 만들었으며 점차 자수한 호슬까지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왕실의 국혼 기록에서 확인되며 점차 재료도 소박해졌다. 인조와 장렬왕후 가례(1638)에는 주紬호슬로 간략하게 기록된 반면 현종 명성후 가례(1651), 숙종 인경후 가례(1671), 진종 효순후 가례(1727), 장조 헌경후 가례(1744) 등 왕세자 가례에는 필단수匹段繡호슬의 기록이 보이나 감減한다는 부표가 있다. 이후 『국혼정례國婚定例』(1749), 『상방정례尙方定例』(1752)에서 대군 가례 시에는 겉감과 안감이 모두 백수주白水紬이며 보공용 삭면화槊綿花가 있다. 1870년(고종 7) 『길례요람吉禮要覽』에서 대군의 호슬도 백수주였으며, 이는 바지저고리 감과 동일하다. 이는 전기보다 꾸밈없이 실용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유물은 현재까지 미공개 자료 한 점이 있을 뿐이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된 미발표 호슬은 16세기 추정 출토유물이다. 농담색의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으며 겉감 바탕은 문양 확인이 어려운 비단이고, 주위는 농갈색 소화문단小花紋緞으로 둘러주고 사뜨기로 마무리하였다. 안감과 끈은 소색의 면주이다. 속에는 한지와 털이 들어 있으며 중심에 넓은 끈이 달려 있다. 호슬의 형태는 작은 사다리꼴 모양 두 장을 동일하게 만들어 아랫변을 사뜨기로 이어준 모양이며 중심선의 위쪽은 곡선으로 마무리하고 작은 트임을 주었다. 너비 24㎝, 높이 17.5㎝이다. 한편 중국 명나라 실록에는 1395년(홍무 28), 1622년(천계 2) 등 호슬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공개된 유물은 원나라 출토유물에서 확인된다. 미국 클리브랜드박물관 소장 자수호슬과 하북성 융화隆化박물관 소장 녹색의 자수호슬을 볼 수 있다. 중국 산서성 명나라 보영사寶寧寺벽화 중에서 호슬을 착용한 인물이 확인된다.

특징 및 의의 호슬은 무릎을 보호하는 보호대로서 남자들이 말을 타고 원행할 때 필요한 보호대이다. 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통 수단이었으며 낙마는 빈번하게 발생하여 위험 부담이 많아 호슬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였다. 호슬에 대한 기록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보이나 현재까지 유물은 단 한 점만 볼 수 있고, 중국에도 원나라 유물 일부만이 남아 있다. 현대에도 어린아이들이나 일부 운동선수들도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만큼 호슬에 대한 역사성과 인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國婚定例, 吉禮要覽, 尙方定例,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역주 박통사언해(류재원·왕하·최재영 역, 학고방, 2012), 絲綢之路與元代藝術(趙豐·尙剛, 中國絲綢博物館·淸華大學美術學院, 2005).

필자 박성실(朴聖實)

혼례복
婚禮服

정의 혼례할 때 신랑과 신부가 입는 예복.

역사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복은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원삼이나 활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항과 함께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신식 혼례에 신랑은 서양식 예복을 입고 신부는 흰색 한복에 면사포를 쓰는 혼례복이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에는 신식 혼례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세기 후반들어 웨딩드레스를 입는 신부가 증가하여 1970~1980년대 이후로는 신랑신부 모두 서구식 예복을 입고 혼례를 치루고 전통 혼례복은 폐백을 드릴 때만 착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내용 혼례는 인륜지대사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 전기에도 어떠한 혼례복을 입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혼례복도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왕실에서는 혼례를 가례嘉禮라고 했는데, 왕실의 혼례복은 착용자의 신분은 물론 절차에 따라 정해진 복식이 있었다. 조선 후기 민간에서 혼례 절차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네 단계로 간소화한 것과 달리 왕실에서는 계속해서 육례六禮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절차에 따른 착용복식이 모든 가례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숙종과 인현왕후의 가례를 일례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이 가례에서 신랑의 최고 예복인 법복法服을 입는 절차는 혼인의 뜻을 전하는 의식인 납채의納采儀와 혼인날짜를 알려주는 의식인 고기의告期儀 그리고 친영의親迎儀와 동뢰의同牢儀가 있었다.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예물을 보내는 납징納徵과 신부를 국왕과 동일한 신분인 비로 책봉冊封하는 의식인 책비의冊妃儀에서는 한단계 격을 낮추어 원유관遠遊冠에 강사포絳紗袍를 착용하였다. 반면 혼례의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의와 신랑 신부가 서로 절한 후 술잔을 나누는 의식인 동뢰의에서는 왕이 다시 면복을 입었다. 동뢰의를 마친 후에는 면복을 벗고 곤룡포袞龍袍를 입었다. 즉, 연회에서는 법복을 벗고 상복常服을 착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부인 왕비의 복식이 기록된 의례는 책비의와 친영의, 동뢰의이다. 이때에는 왕비의 법복인 적의翟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하였다.

왕세자의 가례에서 왕세자와 왕세자빈도 왕과 왕비에 준한 예복을 착용하였다. 다만 면복은 무늬와 장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적의도 왕비와 세자빈의 것은 색상과 무늬에 차이가 있었다.

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들과 공주, 옹주 등의 가례 복식 역시 반가의 예복과는 차이가 있었다. 왕자王子와 의빈儀賓은 모두 공복公服인 단령團領을 입고 복두幞頭를 착용하였고, 군부인郡夫人과 공주公主, 옹주翁主 등도 모두 노의露衣와 홍장삼紅長衫을 착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왕의 후궁인 숙의淑儀 역시 가례에 대홍 노의와 대홍 겹 장삼을 준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반 백성은 혼례에 한해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는 옷차림도 허용되었다. 즉 벼슬이 없어도 공주와 부마의 예복에 해당되는 옷을 혼례에 입는 것이 허락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 혼례복은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고 신부는 활옷에 화관花冠을 쓰거나 원삼圓衫에 족두리簇頭里를 착용하는 것이다. 사모관대란 조선

시대 관리의 상복常服 차림을 말한다. 즉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단령團領을 입으며 목화木靴를 신는데 관리의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과 대帶를 차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랑은 직품職品은 물론 벼슬 여부와 관계없이 흉배와 각대角帶를 찼다. 초례청에 들어갈 때 신랑은 차선遮扇을 두 손으로 들어 얼굴을 가렸다. 차선은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네모난 부채이다. 신부의 옷차림을 흔히 녹의홍상綠衣紅裳이라고 하듯이 다홍치마에 속적삼과 분홍 속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녹색 저고리, 혹은 노란 저고리를 착용한 다음 원삼이나 활옷과 같은 혼례예복을 입는다. 다홍치마를 입는 것을 일정하나 노란저고리와 녹색저고리, 원삼과 활옷, 족두리와 화관 중 무엇을 착용하는지는 집안마다 달랐다.

서민층에서는 이 중 한 가지 혼례 예복을 갖추기도 어려운 반면 상류층에서는 혼례 시 사치가 심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두 가지 예복을 다 준비하여 그중 하나는 친영에 다른 하나는 현구고見舅姑에 입기도 하였다.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에 따르면 친영에는 염의衽衣, 현구고례에는 소의宵衣를 입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삼과 활옷이 일반적인 신부의 혼례복이었다. 염의와 소의는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혼례사치가 심하자 당시 유행하던 홍장삼紅長衫 대신 제안했던 예복이지만 널리 상용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토주해 사례편람懸吐註解 四禮便覽』에서는 대례와 현구고례를 치룰 때 활옷[衽衣]을 입고 현구고례가 끝난 후에는 녹의綠衣(속칭 당의)를 입는다고 하여 대례복과 현구고례복이 동일하고, 현구고례가 끝난 이후에 다른 예복으로 갈아입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입든 혼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칠보단장이다. 혼인을 앞둔 신부는 성적成赤이라 하여 피부의 솜털을 제거하고 백분白粉을 바른 후 입술연지를 바르고 양뺨과 이마에 연지와 곤지를 찍는다. 머리치장으로는 가체加髢를 하거나 쪽머리를 한 후 도금鍍金 용잠龍簪이나 매죽잠을 꽂았다. 비녀의 양쪽으로 앞댕기를 드리우고 머리 위에는 족두리 또는 화관을 얹은 후 뒤로는 큰댕기를 길게 드리워 장식하였다. 격식을 갖추어 초례에는 낭자쌍계娘子雙髻를 하고 첫날밤을 지낸 후 쪽을 찌기도 하였다. 신부는 벌꿀에 참기름을 섞어서 만든 밀기름을 속눈썹에 발라 눈을 크게 뜨지 못하도록 했다.

혼례복은 신랑집에서 마련해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신부 집안의 것을 사용하거나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신부의 혼례복으로 가장 대표적인 옷은 원삼, 그 중에서도 공주의 예복에 해당되는 녹색 원삼이다. 무릎을 덮어 내리는 긴 길이에 앞길은 짧고 뒷길은 길며, 양 옆선은 무가 없이 트여 있다. 소매가 매우 넓고 소매 끝에는 색동과 백색 한삼이 달려있다. 앞여밈은 섶이 없이 서로 맞대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은·칠보로 장식한 원삼 단추나 작은 끈 고름을 달아서 여며 입었다. 궁중 원삼이 옷 크기가 크고 직금織金이나 금박金箔을 장식하여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었던 것과 달리 민간에서 입던 혼례용 원삼은 크기와 재료가 소박하지만 소매에 여러 색의 색동을 달아 화려하게 꾸몄다. 만드는 방식이 지역 및 집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앞길과 뒷길의 길이가 같은 것도 있고, 깃의 색을 길과 다르게 홍색으로 한 것도 있다. 혼례 시 원삼을 입을 때는 대개 족두리를 썼다.

또 다른 혼례복인 활옷은 다홍색 바탕에 각종 자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구조는 원삼과 비슷하여 앞길이보다 뒷길이가 길며, 무가 없이 옆선이 트이고 앞은 마주 여미도록 되어 있다. 자수무늬는 장수長壽와 길상吉祥을 의미하는 물결·바위·불로초不老草·구봉九鳳·나비·연꽃·모란꽃·동자童子 등의 무늬 이외에 이성지합二姓之合·만복지원萬福之原·수여산壽如山·부여해富如海 등의 문자文字무늬가 애용되었다. 앞면보다 뒷면에 더 많은 수를 놓았다.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활옷은 조선시대 공주·옹주 혹은 대군의 부인의 예복이었던 홍장삼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문헌에서 발견되는 화의華衣, 화의花衣, 활의豁衣 등의 용어는 모두 활옷을 한자화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크다는 의미의 '활'과 '옷'이 결합하여 큰옷을 의미하는 '활옷'이 생겨났다고 보기도 한다. 원삼과 활옷 모두 수구에는 흰색의 한삼을 달았으며, 홍색의 대대大帶를 띠었다.

이밖에도 지방 혹은 가풍에 따라 다양한 혼례복이 있었다. 평양 지방의 혼례식에는 원삼을 입지만 초례를 마친 후 잔치에서는 치마저고리 차림에 털배자를 입고, 손에 백색 한삼汗衫을 끼고 머리에 화관과 고이댕기

를 착용하였다. 개성 원삼도 앞뒷길의 가장자리와 수구에 붉은 색 장식 선을 겉에 두른 것이 다르며, 큰댕기가 아닌 진주댕기를 드린다. 족두리와 화관도 다른 지방의 것과 차이가 있다. 제주에서는 장옷을 혼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개항과 함께 서구식 혼례식이 대도시의 지식인층과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신랑은 연미복과 같은 서구식 예복을 입고 신부는 흰색 치마저고리에 베일을 착용하는 절충식이지만 이를 신식 혼례복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며 궁핍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예복을 갖추기 힘들 경우 치마저고리에 한삼 대신 흰 수건만을 손에 두르고 예를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제 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1960년대 대도시에서는 전통혼례가 줄어들고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르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혼례복으로는 신랑은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양복을 입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하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전통혼례나 흰 치마저고리를 입는 절충식이 지속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혼례에 전통복식의 착용이 더욱 줄어들어 신부의 약혼복으로 분홍색 한복, 신랑·신부의 관례벗김(관대벗김)용 한복을 준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20세기 중반 약혼 예복으로 신랑은 양복을 입고 신부는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 혼례는 서구식 예복을 입고 치룬 다음 혼례식장에마련된 방에서 시댁 어른들께 폐백幣帛을 드렸다.

1970년대 이후 예식장에 폐백실을 갖추고 폐백용 예복을 대여하게 되면서, 신랑은 폐백 드릴 때 사모관대를 입는 것 외에는 혼례 전 과정에서 한복을 거의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양복 위에 사모와 단령을 입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현구고례 때 신랑 신부가 혼례예복을 갖추어 입을지라도, 신랑 신부의 취향이나 안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구비한 것을 착용하다 보니, 지방이나 가풍에 따른 차이는 사라졌다. 예식장에서 구비한 혼례복은 사극 의상의 화려한 색상과 장식을 모방한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의상들은 낮은 가격대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강렬한 원색 배색과 조악한 기계 자수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혼례복

전통적인 혼례 예복의 원형에서는 멀어진 것들이었다.

20세기 말부터는 약혼식을 생략하고, 사진 촬영과 폐백을 위해서 입는 혼례복도 대여복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여하는 예복은 이전에 비해 디자인이 매우 다양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 의상을 모방한 화려한 예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양반가 예복보다는 드라마를 통해 선보인 왕비의 대례복이나 궁중예복이 선호되고 있다.

서구화된 신랑 예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혼례복으로 서양복을 받아들인 초기에는 모닝코트, 연미복 등의 예복이었다. 이후 서양식 혼례가 일반화되면서 일반 양복의 형태로 변화되어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시 턱시도, 모닝코트, 연미복 등 다양한 서양 예복이 나타나게 되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도 20세기 후반부터는 A라인, X라인, H라인 등 실루엣은 물론 소재와 장식 등의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세계적인 패션 경향을 따르고 있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웨딩드레스와 같이 해외의 유명인 혹은 국내의 유명 연예인의 웨딩드레스도 일반인의 혼례복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국내의 웨딩드레스만이 아니라 해외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혼례복과 혼례식의 형식은 혼례 절차 중 서구 영향을 받아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외래 문물의 영향과 산업화·도시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전통 생활 문화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변질되거나 소멸되었다.

또한 전통 혼례복에서 절충식 그리고 서구식 웨딩드레스로 서서히 변모한 신부의 혼례복과 달리 신랑의 예복은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서양식 예복인 모닝코트, 연미복 등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남성복식과 관복이 외래 문물의 영향을 받은 반면에 여성복식은 전통복식 구조를 유지하여 복식의 이중 구조를 나타내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20세기 전통혼례복 변천과정과 앞으로의 전망(홍나영, 혼례 전통 속 혼례복의 어제와 오늘, 유희경 복식문화원, 2007),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홍나영·신혜성·이은진, 교문사, 2011), 숙종인현왕후 가례 복식의 특징 및 의미(이민주, 정신문화연구4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조선시대 관혼상제1-관례·혼례(문옥표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혼례(국립민속박물관, 2012).

필자 홍나영(洪那英)

홀
笏

정의 관위官位에 있는 문무관리들이 임금을 알현할 때 관복을 입고 손에 쥐던 물건.

역사 홀笏은 신라시대에 당에 사신으로 갔던 김춘추金春秋가 당풍 의복을 수입하면서 도입되었다. 백제 고이왕 대에 사색공복四色公服을 제정하면서 아홀牙笏이 있었다고 하나 믿기는 어렵고, 신라가 당제唐制의 관복을 입은 후에 비로소 홀은 한말에 이르기까지 관직에 있는 자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한다. 649년(진덕여왕 3)에 처음으로 의관을 모두 당풍으로 바꾸게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진골眞骨로서 조회에 나오는 자는 모두 아홀牙笏을 들도록 하였다고 한다. 발해 또한 당풍 의복을 수용해, 5품 이상은 상아象牙로 만든 아홀을, 6품부터 8품까지는 나무로 만든 목홀을 들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원년 공복 제정 시에 홀의 사용이 규정되어 4품 이상은 상아홀, 5품 이하는 목홀을 사용하였다. 홀은 약간 굽은 것으로 손으로 잡는 밑부분은 비단으로 쌌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의하면 1~4품까지는 조복·제복·공복에 상아홀象牙笏, 5~9품까지는 목홀, 향리는 공복에만 목홀을 사용하게 하였다. 홀은 보통 보관할 때, 홀대笏袋라고 하여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었다.

내용 원래는 임금 앞에서 교명敎命이 있거나 아뢸 것이 있으면 홀 위에 써서 비망備忘으로 삼았던 것인데 후세


① 길이 84


②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상

홀 | ①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조선 | 경기도박물관

에는 다만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왕은 규圭를 잡고 대부大夫나 사士는 홀을 들었다.

그 길이는 대개 한 자이나 고려 때 습용한 송제宋制는 더 길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상아나 나무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어수문죽魚須文竹으로 하였다. 당나라 때에는 홀은 짧고 두껍기 때문에 사람을 칠 수 있었다 하고, "송나라 철종은 눈병이 있어서 여러 신하들이 보는 것을 싫어하여 신하들이 홀의 변을 넓게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홀은 5품 이하의 관리는 나무로 만든 홀을 썼으며, 그 위의 상급 관리는 상아로 만든 홀을 썼다. 재질은 상아, 옥, 나무 등 다양했으나 신분과 직책, 계급에 따라 재질이 달랐다. 홀의 재질에 대해 『예기禮記』 옥조玉藻에는 천자天子는 구옥球玉으로, 제후는 상아로, 대부大夫는 어수문죽, 사士는 대나무로 제작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대나무로 만들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동물의 뼈나 뿔, 옥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홀판의 길이는 두 자 여섯 치로 정해져 있었다. 홀은 관료가 군주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홀에 적거나 군주에게서 받은 명을 홀에 적기도 하는 등, 일종의 메모장과 비슷한 역할을 했으며, 귀하고 천한 신분을 규정하는 최고 지위의 상징이었다.

특징 및 의의 관복은 조복朝服, 제복祭服, 공복公服, 상복常服의 구분이 있는데 홀은 상복을 제외한 모든 관복에 착용하였다. 상복은 일상적인 집무 시에 착용하였으므로 의례적인 용도인 홀은 들지 않았다.

문무백관의 품계에 따라 홀의 재질도 차이가 있었다. 군주의 홀은 특별히 규圭라고 불렸다. 규는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네모진 형태로 옥으로 된 기물 가운데 동방을 상징했다. 천자의 규는 진규鎭圭라 불리며, 강산을 손에 쥐고 사방을 안정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芝峰類說,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필자 안명숙(安明淑)

홍화
紅花

정의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홍색으로 염색하는 홍염의 대표적 염료.

역사 홍화의 산지는 이디오피아, 이집트, 인도 등지이다. 한나라 때 장건에 의해 중국에 전해졌고 신라에서는 514년 법흥왕 대에 설치된 홍전紅典과 소방전蘇芳典에서 모육명母六名에 의해 왕실과 문무백관에게 홍색 염직물을 충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도염서都染署의 전문장인에 의해 자색의 염색술이 우수하였다. 이에 비색緋色을 포함하여, 남藍, 녹綠, 담황주황淡黃朱黃, 자단紫丹의 염색직물을 생산하여 왕실 및 문무백관, 교역에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홍염은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전문장인에 의해 생산되었다. 상의원尙衣院과 제용감濟用監에 홍염장紅染匠이 각각 10명 있었고 우수한 염직물을 생산하였다. 1402년(태종 2) 명으로부터 훈회상纁繪裳, 홍수훈회폐슬紅繡纁繪蔽膝 비석緋潟 등을 하사받아 홍색계의 복식이 왕실에서 사용되었다. 문무백관 조복에서도 일품一品에서 구품九品까지 적초의赤綃衣, 적상赤裳과 공복公服에서도 1품에서 9품까지 비포강사단의緋袍絳紗單衣가 착용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반가班家에서 어린 노비까지 홍紅치마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1750년대 「궁중의대宮中衣襨」를 보면 1,400여 건의 『상방정례尙方定例』 색의료色衣料 건수 중 홍계紅係가 915건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남藍, 자紫, 청靑, 녹綠으로 단연 조선에서 홍의 시대가 궁중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홍화 꽃잎에는 수용성인 황색 색소와 불용성인 적색 색소 카타민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황색과 홍색으로 염색되는 홍염의 대표적 염료이다.

정련, 표백, 오미자초 등이 준비되면 홍화를 자루에 넣어 황색소를 추출한다. 홍화를 자루에 담아 큰 독에 2~3일 불렸다가 주물러서 황색소를 제거한다. 자루에 일정한 양의 홍화를 담아야 회차별로 고른 염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오미자초의 양도 맞추기 쉽다. 황색소를 뺀다고 너무 오래 빼다 보면 홍화 꽃이 잘게 부스러

져 붉게 빠지는 경향도 있으니 적당히 해야 한다. 자루에서 빠지는 황색소의 양을 보고 다음 공정을 판단한다.

콩대나 홍화 대를 태운 잿물을 만든다. 홍화 대나 콩대 잿물은 부족하면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넉넉히 준비한다. 따뜻하게 물을 데워서 잿물을 내리면 홍색소를 추출하기 알맞은 온도의 잿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시루에서 내린 첫 잿물은 검은 빛의 재가 섞여 나오므로 2~3번 더 시루에 부어내리면 깨끗한 잿물을 사용할 수 있다. 손으로 만져 미끈미끈할 정도면 홍색소가 잘 우러난 것이다. 황색소를 뺀 자루에 만들어진 잿물을 부어 홍색소를 뺀다.

염색할 직물 양에 맞추어 염액을 맞추어야 하므로 직물이 큰 폭 10~15야드 정도면 중화 발색제 오미자 신국과 합쳐 한 동이 정도를 준비하면 좋다. 자루에 있는 홍화 색소가 다 빠질 때까지 보통 2~3시간 정도 작업한다. 색소를 거듭 염색할 수 있게 자루마다 색소를 빼서 준비하면 각각 고른 양의 염액으로 일정한 시간에 걸쳐 염색할 수 있어 작업 공정, 즉 재료·염액·염색시간을 계량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홍색소를 빼기 위한 공정이 끝나면 추출된 염액을 데운다. 40°C 미만의 약간 따뜻한 정도로 데운 염액에 준비해 둔 오미자 신국을 부으면 발색한다. 잿물의 알칼리 성분과 오미자 신국의 산성이 만나 중화되면서 흰 거품과 함께 홍색소가 엉긴 염액이 완성된다. 잘 섞이도록 저어 주고 난 후 정련, 표백이 잘 된 직물을 넣어 채가 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뒤집어 주면서 침염을 한다. 준비한 홍색소 염액에 오미자 신국을 연거푸 부으면 농색이 된다. 그럼으로써 염색자가 원하는 대로 색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처럼 염액은 많은 공정을 거쳐 귀하게 얻는다. 염색도 더운 날보다는 쌀쌀할 때 염색해야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꽃의 채취도 황색에서 붉은 기를 머금으려고 할 때가 적기이다. 자외선에 취약한 재료이므로 생화는 이틀 정도 볕에서 말린 후 통풍이 잘 되는 곳(반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홍떡 제조도 꽃잎 채취 후 물에 씻어 황색소를 빼 주고 발효시킨 좁쌀 물이나 쌀뜨물에 씻어 황색소를 제거하고 도꼬마리 잎이나 닥나무 잎을 덮은 후, 그 위에 약쑥을 덮어서 날씨가 좋은 날은 하룻밤을 재우고 흐린 날은 이틀 정도 재우면 효소



홍화밭



완성된 연지



① 콩대나 홍화대 잿물 내리기



② 황색소 추출



③ 잿물에서 색소 추출



④ 오미자신국을 넣어 중화발색



⑤ 발색된 염액에 염색작업



⑥ 다양한 직물에 회차를 더해 농색으로 염색

홍화를 이용한 염색과정 | 충북 단양 | 2009 | 김경열

에 의해 발효시킨 효과가 있다. 그 후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크지 않고 얇게 홍떡을 만들면 꽃으로 말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홍색소를 얻을 수 있다. 홍화 꽃은 유기물인 관계로 자외선과 곰팡이에 노출되거나 썩으면 색소가 없어진다. 또한 알칼리에서 추출되는 홍색소는 오미자 신국을 쳐서 발색시킨 후 시루에 한지를 여러 겹 깔아 물은 내리고 색소를 모은 것이 연지이다. 연지는 염색용 염료 및 화장용으로 사용되었다. 적색 계통은 명도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다. 한 번 염색하면 전縓, 두 번 염색하면 정楨, 세 번 염색하면 훈纁, 네 번 염색하면 주朱, 그리고 훈에 흑을 염색하면 현玄, 여섯 번째 염색한 것을 치緇라고 했다.

특징 및 의의 홍색은 원시사회에서는 주술적 의미로 몸에 피를 바르고 먹거나 뿌리는 행위에서 생명을 나타냈고 농경사회에서는 태양을 상징하는 색으로 인식되었으며 재액을 막거나 복을 염원하는 주술적 의미의 색채였다. 삼국시대 이후로는 권력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색채였으며 시대적 사상성을 내포하면서 회화, 공예, 궁궐, 사찰, 복식의 중심색이였다. 민족의 의식 속에 홍염은 상징성과 의미를 내포한 인식의 색채였다. 고문헌 속에서 적색을 지칭하는 색명만 30가지 이상이 되듯 우리 민족의 색채문화 속에 귀중한 색이었다. 훈纁, 강絳, 비緋, 적赤, 주朱, 홍紅, 대홍大紅, 다홍多紅, 진홍眞紅, 분홍粉紅, 도홍桃紅, 소홍小紅, 반홍磻紅, 복홍木紅, 담홍淡紅, 수홍水紅, 은홍銀紅, 천홍茜紅, 토홍土紅, 주홍朱紅, 심홍深紅, 연지臙脂, 규홍葵紅, 단丹, 선홍鮮紅, 정홍丁紅, 연홍連紅, 천홍淺紅, 자홍紫紅, 녹홍綠紅 등 위의 색들은 염재에 따르는 색명, 복합 염색에 의한 색명, 직물에 따르는 색명, 복식에 따르는 색명, 침염이나 날염에 따르는 색명, 농담에 따른 색명, 안료로서의 색명, 홍색을 지칭하는 색명으로 사용되었다.

우리 민족의 색채 문화는 고대·중세·근대로 이어져 왔다. 각 시대마다 추구하는 삶의 방법은 달랐지만 색채를 통해 추구하는 의미와 상징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색채는 직관적으로 의식의 표현이다. 색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이지만 집단성을 갖고 있다. 색 문화는 시대와 민족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가운데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색을 단순하게 색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방위를 연결시켜 자연의 질서를 표현하는 매체로 인식하였다. 홍색은 방위로는 남쪽, 풍수로는 주작, 오성五星은 화성火星, 오시五時는 여름, 오제五帝는 적제赤帝, 오상五常은 예禮, 오장五臟은 심장心臟이다.

그뿐 아니라 전통사회에서는 색을 통해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권력을 상징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홍색은 관복인 경우 왕세자와 당상관 이상만 착용하였고 왕의 조복도 대홍색으로 『상방정례』에 대전강사포大殿絳紗袍, 대홍숙초필大紅熟綃疋이라 하였다. 대홍색은 홍색 중에서도 가장 진한 색으로 왕실에서 주로 사용한 조선시대 최고의 색이였음을 상징한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三國史記, 燃藜室記述, 자연염색유물에 보이는 색의 재현(김지희, 자연염색박물관, 2007), 자연염색의 전승체계에 관한 고찰(김경열·이창경, 아시아민족조형학보6,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06), 전통염색공예(김영숙, 전통복식을 통해 본 색채 의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한국 전통 염직에 관한 문헌적 연구(소황옥,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한국 전통 홍화염색 연구(김경열,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1), 한국전통홍염연구(이양섭,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보고4,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980), 홍화씨 건강법(이인우·최진규, 태일, 1998).

필자 김경열(金炅烈)

화
靴

정의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관복에 착용한 목이 긴 신.

역사 고구려에는 자피화紫皮靴·오피화烏皮靴·말화袜靴 등의 기록이 있고, 신라에는 자피화·오피화 등이 있는데,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료에 따라 흑피화黑皮靴·흑화·전피화猠皮靴·기자화起子靴·협금화·백목화·백화白靴·화자·피화·목화木靴 등으로 명명되어 있다. 그 외에 방수용 수화자水靴子, 秀靴子가 있다.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신었으며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다르나 형태는 유사하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남자용 화의 재료로 자피紫皮, 오경추문자피烏麠皺紋紫皮를 쓰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색 가죽과 검은 사슴의 주름진 가죽으로 만든 화는 신분이 높은 귀족만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신분에 따라 무늬가 있는 백옥·검은 물소 뿔·철·놋·동 등으로 만

든 화대를 따로 달아 묶었다.

고려시대에 왕과 백관의 관복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복용 화가 제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문종의 공복 일습에 화가 포함되었던 기록이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도 공석에서 신는 신의 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실물 전래품으로는 안동 태사묘에 14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화靴 한 점이 있는데, 조선시대 화의 형태와 유사하다.

조선시대에는 백관들의 관복제도에 1품에서 9품까지 공복에 흑피화를 신고, 상복에는 1품에서 3품 당상관만 협금화를 신도록 하였다. 1430년(세종 12) 서인·상공·공사·천인이 신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후 조선 말기에는 관리들의 화가 목화로 통일되어 관복용으로 착용되었다. 목화는 19세기에 등장하는 명칭으로 '목이 있는 신'의 표음 용어로 해석된다.

내용 화는 재료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재료도 신분에 따라 다르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피화가 가장 많았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흑피로 만든다는 기록이 있으며, 사슴 가죽에서부터 고라니·담비·말·살쾡이 가죽에 이르기까지 온갖 동물의 가죽이 폭넓게 사용되었다. 또 화의 겉감과 안감을 각기 다른 가죽을 사용한 것도 많다. 신목은 흑색 천으로 만들고 털[氈]·가죽·융·금단 등으로 겉을 씌웠다. 솔기에는 색깔 있는 천이나 가죽으로 선[揮]을 둘렀다. 오늘날 벨벳과 같이 고운 털이 돋게 짠 우단이나 삼베 등을 소재로 쓰기도 하였으며, 검정색 무명을 누벼서 만든 누비화에 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전해지는 조선 말기 유물들은 대부분 융이나 우단·모직·무명 등의 포를 사용하였으며, 왕실용은 목 주위에 녹색 운문단 금衿을 달아 특별히 화려하게 만들었다. 『한주전서寒洲全書』에도 목화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두 겹 바닥은 혜와 같고, 혹은 나무 조각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위로 정강이의 반까지 싼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발목 위로 올라오는 신', 즉 '신목이 있는 신' 형태의 다른 기록과 일치한다.

화의 구성을 보면 말靺 부분과 혜鞋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여섯 조각이 봉제되어 육합화六合靴 형태이다. 여섯 조각으로 봉제된 솔기의 사이에는 '휘揮'라고 하는 흑색·자색·백색의 가느다란 가죽 선을 1~3줄 넣어 주었다. 신목의 입구에는 '도리[回伊]'를 둘러 마무리하는데 가죽이나 홍색·자색·녹색 모직 천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족의足衣 중 하나인 버선 형태의 '정精'을 화 속에 신기도 했다. 전해지는 유물 중에는 2~5조각으로 다양하게 봉제되어 만들어진 화가 많다. 뒤의 상단에는 5㎝ 정도의 트임이 있으며, 앞부분 상단에도 백피로 만든 짧은 고리 형태의 신끈이 달려 있다. 유물의 바닥은 가죽·무명·융으로 밑창과 중창, 안창을 하고 백색 분칠로 마무리되어 있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 기록된 왕의 화는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 흑사피화黑斜皮靴이다. 겉감 가죽은 흑궤자피나 흑사피로 만들고, 안감으로 백녹피를 사용해서 만든다. 여기에 동일 가죽인 흑궤자피 또는 흑사피로 신목 주위에 단[衿]과 도리를 둘렀다. 고라니나 담비 등의 고급 재료로 만들어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흑서피黑黍皮 또는 흑당피로 화로 만들어 신었다. 『국혼정례國婚定例』에도 대군의 가례에 담비 가죽으로 만든 검은 가죽신[黑斜皮靴]을 신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투혜[黑斜皮套鞋], 검은 곰 가죽으로 만든 삽혜[黑熊皮靸鞋]가 있다. 여기에 정精을 함께 갖췄다. 기록에 보면 정의 겉감은 백색 비단[白紡紬] 또는 백당피로 되어 있고, 목의 윗부분은 화와 같은 녹색 광직으로 만든 버선 형태이다. 「궁중발기宮中撥記」에도 화와 같이 진상된 정의 기록이 있으므로 왕실에서는 화와 정이 일습으로 화의 착용 시 함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는 조선시대 왕세손의 관례 때 청금포靑錦布를 입고 세조대細條帶(도포나 전복·창의에 착용하는 가느다란 띠)와 흑화자를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방 관아의 으뜸 벼슬[使]과 정사를 돕는 부사副使가 승선할 때, 또 관에 머무를 때 학창의鶴氅衣와 흑화자를 신는다고 하였다. 『국혼정례國婚定例』에도 왕비 가례 시 역시 정사와 부사, 주인도 검은 빛깔의 신, 흑화자를 신는다고 하였다. 또, 의궤에 나오는 악공들의 화는 오화烏靴·호화胡靴·수화자·흑피화·흑화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다.

화는 색깔에 따라 흑피화, 백피화 등으로도 구분하는데, 백피화는 문무백관들이 시복時服에 신는다고 하였다. 국상 시에는 백색 단령과 함께 신으며 백목화라

고도 부른다. 유물을 보면 백색 무명으로 만들고, 외피는 두껍게 하고 내피는 얇은 면을 사용하였다. 5조각으로 된 5합 목화로 봉제선 사이에는 백녹피로 도리와 선[揮]을 두었고, 가죽으로 된 밑창에는 앞과 뒤 끝부분에 세 개씩의 징이 박혀 있다. 초상화 가운데에도 상복 차림에 백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있다. 1778년(정조 2)과 1793년(정조 17)에 백화 착용과 사치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 만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분부한 내용으로 보아 멋을 부리는 관리들이 백화를 신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피화猥皮靴는 무두질한 양가죽으로 만든 화로 추정되며, 부드럽고 가벼운 양가죽 재질이 특징으로 봄과 여름에 착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화油靴는 유혜와 같이 기름을 먹인 가죽으로 만든 것이며, 조선 세조대에 흑사피유화黑斜皮油靴, 말가죽 유화[馬皮油靴]를 하사한 기록이 있다. 기름을 먹여 방수한 것으로 '수혜자水鞋子', '수화자'라고 하기도 하였다. 무관들이 전지에 나갈 때 활을 쏘거나 걷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신바닥에 기름을 먹인 면이나 피혁 또는 종이를 깔고 만든 것이 특징이다. 베를 접어서 만들기 때문에 매우 두껍고 단단하여 진흙 길을 걸어도 스며들어 젖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며, 오랜 시간 야외에서 행군을 했던 무관들에게 유용하였다.

1479년(성종 10)부터 1481년(성종 12)까지 매해 중국의 명나라 사신에게 백록피협금기자화白鹿皮挾金起子花를 하사한 기록이 확인된다. 화는 흑웅피黑熊皮로 만들고, 청색과 자색의 사피斜皮를 써서 꽃 그림을 새기고, 선線은 청사피靑斜皮로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꽃모양의 장식이 있는 화를 선물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금화는 '쇠를 끼운 화'라는 뜻으로 바닥에 특별히 징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 1465년(세조 11), 시중의 무리와 불량배들까지 협금화를 착용하므로 금제를 엄격히 내리도록 청한 기록과 예종대 당하관의 협금화 착용을 금한 기록이 있다.

분투혜分套鞋 또는 투혜套鞋는 방한용 및 방습용 덧신의 일종으로 추위를 막거나 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 위에 덧신었다. 추운 겨울날 백관들이 궁궐 뜰[殿庭]의 조회 때나 나다닐 때[行幸], 맞이하거나 보낼[迎送] 때 털로 만든 이엄과 분투혜 착용을 허용하였다. 이 밖에도 병이 있고 연로하여 신고자거나 궐문 밖에서 조회를 기다릴 때, 행차 중 길에서 대기[路次]할 때, 그리고 각 관아에서 우두머리가 일을 보기 위해 채비를 차릴[坐起] 때도 착용하게 하였는데, 형태는 평상용보다 크게 만들어 화 위에 신는 가죽신으로 추정된다.

특징 및 의의 화는 왕 이하 문무백관이 관복과 함께 착용하는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마른신이다. 겉은 사슴 가죽이나 아청색 공단 또는 융으로 만들고 안은 백공단으로 만들었다. 가장자리에 붉은색 선을 두르고, 바닥은 나무이며 신의 목은 검은 융으로 겉을 씌우고 솔기에는 홍색 선을 둘렀다. 신목이 길고 코끝은 넓적한 형태로, 처음에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으나 고급품은 신목 윗부분을 금단으로 꾸몄다. 본래 관원들의 신이었으나 궁중 악인들도 신었고, 조선 말 혼례 때에는 일반 백성도 사용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高麗史絶要, 國朝五禮儀補序例, 國婚定例, 樂學軌範, 寒洲全書, 국학도감(이훈종, 일조각, 1968),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장숙환·홍나영, 열화당, 2003), 한국복식문화사(김문자·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인의 신발, 화혜(최공호 외, 미진사, 2015), 한·몽 신문화에 관한 연구(조선희, 한복문화9-2, 한복문화학회, 2006), 화·혜·리(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화혜장(조선희, 민속원, 2007).

필자 조선희(趙鮮姬)

화관
花冠

정의 꽃·보석 등을 장식하여 아름답게 만든 쓰개로, 조선시대 여성이 의례용 또는 장식용으로 쓰던 관모의 하나.

내용 화관花冠, 華冠은 본래 꽃으로 장식한 관을 뜻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미적 표현으로 머리에 꽃을 꽂아 장식했던 삽화揷花의 풍습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꽃으로 장식한 화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유럽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발견되었다. 특히 중국 송대宋代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꽃을 꽂는 것이 유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화관이 성행하였다. 생화生花는 금방 시들기 때문에, 종이나 비단 또는 각종 귀금속류를 사용하여 만든 조화造花를 활용



높이 14 너비 16 | 20세기



높이 9 세로 14 가로 12 | 20세기

화관 | 국립민속박물관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전 포스터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하거나, 꽃모양으로 관을 장식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화관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록이 부족하여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나, 송대의 화관이나 삽화의 유행이 고려시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사高麗史』 권89 열전列傳에는 화관이 승려의 관모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고려 불화에서도 화관의 종류로 보이는 여성용 관모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남악男樂 정재呈才 관복 중에 부용관芙蓉冠의 기록이 있고, 『악학궤범樂學軌範』 무동관복 도설에는 회례연에서 사용한 부용관의 형태와 만드는 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부용관의 '부용'은 연꽃을 의미하므로, 이는 곧 화관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화관은 조선 말기까지 궁중정재宮中呈才 할 때 여령女伶·동기童妓·무동舞童의 수식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형태는 시기와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선시대 여성의 화관은 주로 경사나 혼례를 치를 때 대례복, 소례복과 함께 예장용으로 착용되었다. 이는 조선 영정조대에 가체 대용으로 족두리와 함께 화관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확산되었다. 『영조실록英祖實錄』 1736년(영조 12) 4월 기록을 보면, 예禮를 숭상하는 사대부가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화관華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윤봉구尹鳳九의 『병계집屛溪集』(1802년경)을 보면, 당시 화관에는 둥근 형태[圓形]와 각진 형태[方形] 두 가지가 있었다. 현전하는 화관 유물을 보면 유형이 더욱 다양하다. 대개 배접하여 만든 사각이나 육각, 혹은 팔각의 기본 틀 위에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많다. 금종이 또는 구슬 줄로 세로 선을 만들어 마치 남자의 양관梁冠을 연상하게 하는 형태도 있다. 앞 중심에 금전지로 싼 술 장식을 늘이기도 하였고, 궁중에서는 화관의 정수리에 옥으로 만든 새 모양 장식을 달기도 하였다. 평양 지방의 신부 혼례복에서는 색색의 조화를 꽂아서 장식한 화려한 모양의 화관을 사용하였다.

특징 및 의의 화관은 꽃으로 장식한 관을 뜻하지만, 꽃모양으로 장식하거나 각종 보석을 올려서 만들기도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동국부녀수식변증설東國婦女首飾辨證說에 따르면, 화관을 칠보로 장식한 여성의 쓰개라고 설명하였다. 즉 넓은 의미로 보면 실제로 꽃으로 꾸미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치장된 관을 지칭하였다. 혼례용 화관은 대체로 빳빳한 종이 위에 검정색의 비단을 붙여 배접하여 모체帽體를 만들었고, 그 위에 진주·산호·호박 등의 보석과 색색의 술을 달아 장식한 것이 많다. 궁중정재 때 여령이나 무동이 쓰는 화관은 혼례용 화관과 유사한 것도 있으나, 모체가 다양하고 조화를 장식한 것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혼례용 화관은 조선 후기 여성의 가체금지령 이후 가체의 대용으로 확산되었으며, 궁중 정재용 화관은 조선 전기부터 여령·동기·무동의 수식품으로 사용되었다. 화관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품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례용 관모였다.

참고문헌 樂學軌範,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신혜성·이은진·홍나영, 교문사, 2011), 조선시대 여성 예관에 관한 연구(김지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복식사전(강순제 외, 민속원, 2015), 화관에 관한 연구(홍나영, 복식 50-3, 한국복식학회, 2000).

필자 김지연(金知娟)

화장법
化粧法

정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화장품을 바르고 문질러 얼굴과 몸가짐을 꾸미는 방법.

내용 화장化粧은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행위로, 몸을 청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색조를 더해 화려하게 꾸미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얼굴을 중심으로 단장하는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화장법은 각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미적美的 기준, 화장품 생산, 화장 도구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문헌 기록과 벽화 등의 실물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의 화장법을 소급해보면, 수산리 벽화의 고구려 귀부인과 쌍영총 여관女官이 연지臙脂로 볼을 빨갛게 칠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일본의 화장법이 백제로부터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에서는 백분白粉과 더불어 연지, 미묵眉墨(눈썹먹), 향수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 부인들이 향유香油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분은 바르되 연지는 칠하지 않으며, 눈썹은 넓다고 묘사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화장법은 백분을 바르고 미묵으로 눈썹을 그린 뒤에 입술과 볼에 연지를 바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신분과 상황에 따라 각기 그 농도를 달리했다. 특히 유교를 국교로 삼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은 야용冶容이라 하여 기생이나 연회에 동원되는 의녀와 궁녀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덕무李德懋는 『사소절士小節』에서 "연지와 분을 짙게 바르면 만들어놓은 귀신과 무엇이 다르랴?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부인이 시체時體에 따라 단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웬만한 병에는 머리를 빗고 낯을 씻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그리고 "부인이 단정하고 정결함을 귀히 여긴다 함은 얼굴을 화장하여 남편을 기쁘게 함을 이름이 아니다. 화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는 사람은 요사스러운 여자요,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얼굴에 때가 있는 사람은 게으른 여자다"라며 꾸밈을 위한 화장보다 단정함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개화기 이후에는 중국과 일본, 서양에서 각종 화장품이 수입되면서 일간지와 잡지를 통해 서양 사람들의 화장법 등이 소개되었다. 1920년대 이후에는 계절과 상황, 연령과 직업에 따른 화장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사가 꾸준히 연재되었는데, 주로 분 바르는 법, 눈썹 그리는 법, 입술연지 바르는 법, 얼굴 작게 하는 법, 긴 턱 짧게 보이는 법, 작은 눈 크게 보이는 법 등 세밀하고 구체적인 화장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 한 예로 1925년 2월 20일 『동아일보』에 실린 「화장의 비결」이라는 기사에는 "얼굴이 긴 사람은 연지를 귀로부터 뺨까지 가로 넓게 바르고, 턱은 분을 연하게 바르고, 눈썹은 좌우로 길게 만든즉 얼굴이 동그스름하게 되어 보입니다. 둥근 얼굴을 길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연지를 뺨에 길이로 바르고, 눈썹은 짧게 하며, 턱은 분을 좀 진하게 바르면 됩니다. 눈 모양이 좀 처지고 패인 이는 눈썹을 내리쳐 만들고, 눈 아래에 연지를 살짝 바르면 좋습니다. 또 눈귀가 처진 이는 눈과 눈썹 사이의 둔덕에 연지를 바르면 좀 나아 보입니다. 코 모양이 뭉툭한 이는 콧방울에 분을 좀 더 바르면 나아 보이고, 코 길이가 짧고 콧구멍이 보이는 듯한 이는 콧구멍 옆에 분을 조금 바르면 좋습니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각종 매체에는 분 바를 때 얼굴 씻는 법, 바람에 튼 피부 정돈법, 살결을 건강하게 하는 법 등 기초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설명하거나 가루분 바른 후에 물솔질하는 법, 얼굴 검은 사람이 화장하는 법, 얼굴의 흠을 화장으로 감추는 비결을 설명하는 기사가 사회면의 가정란과 부인란 등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었다.

특징 및 의의 조선 시대 화장품의 종류와 화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문소설 『여용국전女容國傳』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소설에 나타난 여용국은 여자의 얼굴을 의미

하며, 거울과 경대, 빗과 참빗, 족집게, 수건과 세숫대야 등의 화장 도구가 모두 신하로 등장한다. 여기에 비누와 연지곤지, 면분과 납유 등의 화장품을 의인화하여 얼굴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나라 다스리는 치세治世이 비유했다. 여기서 화장은 단정한 몸, 게으르지 않게 가꾼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려한 꾸밈과는 거리가 있다.

조선 후기 빙허각憑虛閣 이씨가 쓴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화장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십미요十眉謠」와 「점순명點脣名」이 실려 있다. 「십미요」는 눈썹 모양 열 가지를 읊은 것으로, 눈썹과 이마의 모양을 원앙, 작은 산, 삼봉三峯, 다섯 말의 진주珍珠 등에 비유한 것이다. 「점순명」은 당나라 때 입술 연지 찍은 모양과 농도를 묘사한 열여섯 가지 이름을 나열한 내용이다.

화장의 정도를 일컫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담장淡粧'은 피부를 다듬는 정도의 은은한 상태를 말하며, '농장濃粧'은 색채를 가미한 정도를 의미한다. '염장艶粧'은 짙고 요염한 색채 화장을, '응장凝粧'은 혼례 등의 의례 때 하는 화장을 말한다. '야용'은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뚜렷하게 꾸미는, 사실상 분장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閨閤叢書, 士小節, 順菴集, 和漢三才圖會, 한국화장문화사(전완길, 열화당, 1994).

필자 조희진(趙熙眞)

화장재료

정의 낯빛을 다듬고 꾸미거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일체.

내용 화장재료化粧材料는 자연에서 얻은 것부터 인공적으로 만든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1920년대 이후 서양과 일본에서 화장품이 수입되고 공산품으로 생산한 것을 구입해 사용하는 관행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화장을 위한 재료는 주로 자연에서 채취한 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가공해서 활용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낯빛을 정돈해야 했는데, 이때 사용한 것이 미안수美顔水이다. 미안수는 주로 박과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진액이나 즙을 모아서 만들었다. 뿌리 가까운 곳의 굵은 줄기를 자르면 그 안에 스민 즙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모아 거르거나 끓여서 병에 담아 두었다가 사용했다. 미안수를 만들기 위해 흔히 사용한 재료 중 하나는 수세미이다. 수세미를 솥에 넣고 끓인 뒤에 그 물을 받아 식혀서 쓰거나 줄기를 잘라서 즙을 받아 발랐다. 그 밖에 오이와 참외, 수박 등 수분이 많은 열매의 즙도 미안수의 재료로 쓰였다. 무엇보다도 미안수의 가장 큰 효과는 피부에 수분을 더하고 모공을 수축시키는 수렴 작용과 약간의 미백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낯빛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것은 분粉이다. 백분白粉은 흰색을 낼 수 있는 돌가루에서부터 쌀가루, 꽃씨와 조개를 태운 가루, 납을 산화시켜 얻은 연분鉛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다. 대표적인 백분 재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분꽃 씨앗이다. 분꽃이 진 뒤 맺힌 씨앗을 말려서 깨뜨리면 검은 껍질 안쪽에서 흰 가루가 나오는데, 여기에 돌가루와 쌀가루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백분을 만들어 사용했다.

백분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역할을 했지만 얼굴에 펴 바르기 쉽지 않고 피부에 잘 흡착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그 때문에 가느다란 실 두 가닥으로 얼굴의 솜털을 뽑는 실 면도를 하고 물에 갠 백분을 얼굴에 바른 채 누워서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짧게 잠을 자야 했다. 잠을 자면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백분이 얼굴에 충분히 흡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납에 식초를 뿌려 가열한 뒤에 하얗게 피어나는 납꽃을 긁어 만든 연분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납중독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1920년대에 활발하게 생산·소비된 박가분류의 상품이 대표적인 연분으로, 시판된 분이 납중독은 물론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기피 대상이 되어 판매가 급감하고 생산이 중단되었다.

눈썹을 그릴 때 사용한 미묵眉墨은 송진이 많은 붉은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를 태워 얻은 그을음[油煙]을 모아 만들었다. 화장을 할 때는 검은 미묵을 기름에 조금씩



영친왕비 청화백자당초문 분합 | 지름 6.6 높이 2.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개어 눈썹에 발랐고, 소나무의 잔가지를 태워 목탄처럼 만든 후에 직접 들고 그리기도 했다.

연지와 주사朱砂는 입술과 볼, 눈두덩을 생기 있는 붉은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사용했다. 연지는 홍화紅花(잇꽃)를 따서 절구에 찧어 발효시킨 다음 여기에 잿물을 붓고 치대어 붉은 물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만들 수 있다. 그 물을 그대로 두었다가 침전물이 생기면 윗물을 따라내고 모아서 백지 위에 덩어리진 앙금을 올려 완전히 말린다. 이것을 걷어서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사용할 때마다 기름을 부어 섞었다. 연지 외에 입술이나 볼 화장을 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재료는 주사이다. 주사는 붉은색을 내는 광물성鑛物性 안료로 수은의 원료이기도 하다. 주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 단독丹毒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문제가 되었다.

특징 및 의의 개항 후 화학적 공법으로 제조된 서양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잡화점이 늘어나고, 1920년대 이후 크림과 화장수化粧水, 화장비누[石鹼], 구찌베니くちべに(입술연지) 등이 생산·유통되면서 과거와 같이 직접 만든 화장품을 사용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화장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와 쓰임새, 추출 방식 또한 과거와는 달라져서 이후 공장제 대량 생산·판매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한국화장문화사(전완길, 열화당, 1994).

필자 조희진(趙熙眞)

활옷

정의 홍색 바탕에 길상무늬를 가득 수놓아 꾸민 전통 여성 혼례복.

역사 조선시대 원삼과 함께 여성 혼례복으로 착용했던 활옷은 궁중 여성 혼례복 중 하나인 홍장삼紅長衫에서 유래한 자수복식이다. 박규수의 『거가잡복고居家雜服考』에 의하면 대군이나 왕자의 처인 외명부 1품의 혼례복인 홍삼紅衫을 민간여성의 혼례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풍속은 특별한 날에 높은 계급의 복식이나 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섭성攝盛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한편, 『거가잡복고』의 내복편內服篇에는 "홍장삼이라는 것이 있는데 붉은 비단을 바탕으로 하여 두루 연꽃을 가득히 수놓아"라고 하여, 홍색 바탕에 길상무늬를 가득 수놓아 장식하는 홍장삼과 활옷의 공통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 중에는 '홍장삼 수초 저동궁'이라는 묵서가 남아 있는 순조의 삼녀인 덕온공주(1822~1844)의 길례(1837)를 위해 제작된 활옷 수본이 있다. 덕온공주의 활옷 수본은 궁중 여성 혼례복 중 수를 놓아 장식한 홍장삼이 민간여성 혼례복인 활옷으로 허락된 복식임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

조선시대는 유교문화에 의해 어린이 복식을 제외한 화려한 자수복식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하지만 일생에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입는 혼례복만큼은 아름다운 길상무늬를 수놓은 활옷이 허락되었다.

활옷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화의花衣,華衣 등의 한자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근대 국문소설에서도 '할옷'이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크다[大]라는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인 '하'와 '옷'이 만나 '혼례라는 중요한 예식에 입는 큰 옷'을 의미하는 '할옷'라는 순우리말 명칭을 이루고 '할옷'이 이후에 '활옷'으로 변화된 것으로도 본다.

내용 활옷의 구성은 배자처럼 맞깃에 색동과 흰색 한 삼이 달린 넓은 소매를 달고 앞길 길이가 뒷길이보다 짧으며 무(윗옷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 대는 딴 폭) 없이



복온공주 활옷 재현품 | 길이 143 품 48 화장 109 | 20세기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활옷 | 길이 115 품 46 화장 99 | 1910 | 국립민속박물관

겨드랑이 아래로 트여 있는 원삼과 비슷한 형태이다. 자수복식인 활옷은 뒷길을 중심선에서 잇지 않고 하나로 마름질해 수를 놓고, 깃은 원삼과 같이 따로 재단해 달지 않고 몸판 부분 천은 안감 쪽으로 꺾어 넣으며, 뒷고대 부분만 옷감을 따로 덧대 막았다. 활옷도, 겉감은 홍색 비단, 안감은 청색 비단을 사용해 혼례를 통해 신랑과 신부가 인연을 맺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했다.

궁중 활옷인 복온공주 활옷은 좁은 동정을 달았지만 일반적인 활옷은 흰색 한지를 목둘레에 넓게 덧댄다. 특히 뒷고대 부분은 둥근 반원 모양으로 덧대는데 이것은 신부의 머리단장을 위해 바른 머릿기름으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길보다 20㎝ 정도 긴 뒷길의 끝자락에는 몸판과 같은 홍색 옷감으로 손잡이를 달아 준 활옷이 많다. 이는 혼례식 때 활옷의 옷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수모手母, 首母가 뒷자락을 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복식 전체를 수놓아 장식하는 혼례복인 활옷은 개인이 제작하기 힘든 예복으로 대부분 대여를 해서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여복의 특징들이 활옷에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신부를 단장하는 역할을 하는 수모는 활옷뿐 아니라 큰머리장식, 혼례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근대 혼례 사진에 나타난 왕족과 양반 그리고 민간 신부의 차림새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여풍속은 근대까지 이어져 근대 신문기사에 나타난 세물전 광고를 통해 활옷을 대여해 착용하는 풍속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복온공주 활옷은 심지를 따로 덧대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활옷은 대부분 옷감과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한

두꺼운 심지를 덧댄다. 이는 수가 놓인 옷감을 보강하여 무거운 수를 지지하고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하는 구성법이다. 소매부분에도 역시 배접한 심지를 대기 때문에 무거운 소매가 당겨지지 않도록 몸판과 이어지지 않는 진동 아래 부분 소매는 터놓는다. 복온공주 활옷에는 단추를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고 「궁중발기」의 기록에도 홍장삼용 단추의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활옷에는 동정 아래 양쪽으로 짧은 고름이 달려 있어 단추가 아닌 고름을 매어 옷을 여미는 경우가 더 많다. 활옷은 원삼과 같이 허리에 옷감으로 만든 대대를 매야 하는데, 활옷과 대대가 온전히 한 벌로 전해지는 유물은 적다.

다양한 종류의 길상무늬를 서로 어우러지게 회화풍의 충전구도로 수놓는 활옷은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으고 서 있는 신부의 자세를 고려하여 주로 밖으로 드러나는 뒷길과 소매의 뒷면에 자수무늬가 집중되어 있다. 앞길은 소매로 가려지지 않는 어깨부분과 아랫자락 부분에만 무늬를 수를 놓는다. 또한 소매 끝에 달리는 흰색 한삼의 아랫부분에도 수를 놓아 장식한 경우가 많다. 각종 꽃무늬와 보물무늬를 수놓은 복온공주 활옷 유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옷은 일반적으로 앞길 어깨 부분에는 연꽃을 든 동자상과 함께 '이성지합二姓之合', '백복지원百福之源' 등의 길상어문을 수놓았다. 활옷의 앞길 아래 자락 부분과 소매 한삼 뒷부분에는 화목한 가정을 상징하는 구봉무늬를 수놓는다. 활옷의 뒷길과 소매 부분에는 위쪽으로는 모란무늬를 아래쪽으로는 연꽃무늬를 수놓는다. 뒷길 모란무늬 위로 중심에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무늬를 수놓고, 모란무늬 가장자리와 사이사이에 길상어문이나 작은 새와 나비 등을 수놓는다. 뒷길 아래쪽 연꽃무늬 아래로는 흉배의 아래 부분에 수놓는 산을 중심으로 한 반원형의 물결무늬를 수놓고, 연꽃이 피어오르는 양쪽 가장자리에 백로 한 쌍을 수놓아 금슬 좋은 부부가 될 것을 기원한다.

특징 및 의의 궁중 홍장삼에서 비롯된 활옷은 궁중 활옷과 민간 활옷 두 종류로 나뉜다. 현재 전해지는 궁중 활옷은 두 가지이다. 순조의 차녀인 복온공주(1818~1832)가 1830년 길례 때 착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활옷이 있다. 1959년 창덕궁 화재로 소실된 궁중 활옷의 복제본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궁중 활옷은 자수와 전체적인 구성방법과 장식 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양한 꽃무늬와 보배무늬를 나란히 수놓고 원앙금원문 금박과 함께 장식한 복온공주 활옷과 비슷한 유형의 활옷 유물로는 시카고필드박물관 소장 활옷(no.33156)이 있다. 브루클린미술관 소장 활옷(no.27.977.4)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옷에는 복온공주 활옷의 꽃무늬와 같은 유형의 자수가 일부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덕온공주 활옷 수본을 포함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활옷 수본 일부에 복온공주 활옷과 비슷한 유형의 꽃무늬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몇몇 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활옷 유물은 창덕궁 활옷에 나타난 자수와 구성을 따르고 있다. 장식성이 강한 복온공주 활옷의 자수보다는 혼례와 관련된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한 창덕궁 활옷의 자수무늬를 더 선호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근대 이후 민간 활옷은 대부분 창덕궁 활옷 유형에 속하지만 정형화된 무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변형된 무늬를 수놓아 각자 다양한 개성을 드러냈다. 신랑 신부가 자식을 많이 낳아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오랫동안 회로하며 살기 바라는 무늬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활옷은 신부를 아름답게 꾸며 주는 옷이기도 하지만 신부의 새로운 삶에 축복을 기원하는 부적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 옷이다.

색상과 장식성에 있어서 궁중과 민간의 차이가 큰 원삼에 비해 활옷은 궁중과 민간 모두에서 홍색 바탕에 자수로 장식하는 같은 조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더 우월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신분에서 향유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여성복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복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활옷 유물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이 서구에 문호를 개방했던 1920년대 근대 초기 아름다운 자수복식이자 혼례복인 활옷을 해외 수집가들이 수집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居家雜服考, 국립고궁박물관 활옷 수본에 관한 연구(권혜진·홍나영, 한국의류학회지32-8, 한국의류학회, 2008),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소장 활옷의 조형성 연구(권혜진·김지연, 복식63-7, 한국복식학회, 2013), 시카고필드박물관 소장 활옷에 대한 연구(권혜진·홍나영, 복식59-6, 한국복식학회, 2009), 활옷의 역사와 조형성 연구(권혜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권혜진(權惠珍)

황련
黃連

정의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유황색騂黃色염색에 쓰이는 염료.

내용 황련黃連은 쌍떡잎식물로 학명은 Coptis chinesis Franch로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 상록 식물이다. 주성분은 베르베린으로 알칼로이드를 갖고 있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생약용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지 고산지대의 나무그늘에서 재배하기도 한다.

3~4월에 지름 약 10㎝로 자란 꽃줄기에 흰색 꽃이 두세 송이 핀다. 꽃에는 양성화와 수꽃이 있다. 줄기와 땅속줄기의 단면이 짙은 황색인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뿌리를 염료로 사용하며 황벽에 들어있지 않은 알카로이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황벽보다 귀한 약재이며, 해열, 진정, 소염 효과를 가져, 배앓이, 이질, 심장의 두근거림 증상을 치료하고 몸의 붓기를 내려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규합총서閨閤叢書』(1809)에는 두록염색할 경우 "왜황련이 으뜸이나 귀하여 많이 들이기 어려우니 황벽으로 물들이고 진한색을 원하면 황벽黃檗 염색한 후 심황을 상염하면 유청빛이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황련 |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기록에는 염재의 단색염과 우덮기(상염)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염료와 복합하면 침전을 일으키고 동물성 섬유에는 염착이 잘된다. 식물성 섬유에는 매염제로 탄닌산 탄산칼슘이나 잿물이나 명반을 사용한다. 고문헌 『규합총서』에 있듯이 황련이 너무 비싸 황벽에 심황을 우덮기(상염)하여 유사한 색을 내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황련으로 물들인 천은 오간색 중 유황색騂黃色으로 물들여지고 견뢰도가 높은 좋은 염재이다.

참고문헌 閨閤叢書, 本草綱目, 林園經濟志, 염료식물재배 및 염직물 제작에 관한 연구(김지희, 교육부지원 지역개발과제, 명인문화사, 1993), 한국전통식물염색(김지희, 영남 전통식물염색 보존회, 명인문화사, 1993).

필자 김지희(金芝希)

황벽
黃檗

정의 운향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황색계 염색에 쓰이는 염료.

내용 황벽黃檗의학명은 Phellodendron amurense이며 운향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나무의 황색 속껍질을 염료로 사용한다. 황색 계열이나 연둣빛이 섞인 노란색 염료이다. 나뭇잎에는 운향과 특유의 향기가 있다. 항균·방충의 기능이 있어 사경과 옛부터 배내옷 염재로 사용해왔다. 대표적인 색소성분은 베르베린berberine이며, 알카로이드계에 속한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기록에는 아황색鵝黃色 염색을 "황벽을 닳인 물에 염색하고 그 위에 쪽물로 들인다."라고 하였고, 두록색豆綠色 염색은 "황백물로 염색하고 그 위에 쪽으로 들인다. 근래에는 잎이 작은 쪽[小葉藍]을 닳여 사용하는데 두록색이라고 부르며 그 색이 아름답고 매우 선명하다."라고 기록하였다. 그것으로 보아 복합염색으로 상염했음을 알 수 있다.

황벽의 나무껍질은 두껍고 콜크층이 발달하여 골이 깊이 패어 있고 속껍질이 노란색을 띠므로 황경피나무라고 한다. 노란 속껍질은 한방약재로도 쓰인다.


황벽


황벽으로 염색한 종이

황벽 | 국립민속박물관

채취시기는 5~6월이 좋고 볕에 건조시켜 보관해야한다. 약재로는 살균작용, 위액분비촉진, 정장제, 혈압 강하, 소염의 효과가 있어, 위염, 피부병, 열성하리(이질), 장염, 골절, 화상, 안질의 약으로 효과가 있다. 동물성 섬유에는 염색이 잘 되는데, 식물성 섬유인 면, 삼베, 인견의 염색에는 매염제로 명반과 오배자, 도토리, 밤 등으로 선매염하면 염색이 잘 된다.

특징 및 의의 목면인 경우 염색이 되지 않아 명반으로 선매염을 하고 원하는 색상을 얻을 때 까지 반복 염색을 한다. 종이 염색은 6세기경 중국의 농업 기술서인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의하면 사경이나 호적에 사용할 한지를 황벽으로 물들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경염색과 고서장정에는 능화판 문양을 새겨 사용하였다. 황벽은 방충성이 있고 좀벌레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애용해왔다.

참고문헌 林園經濟志, 齊民要術, 염료식물재배 및 염직물 제작에 관한연구(김지희, 교육부지원 지역개발과제, 명인문화사, 1993), 한국전통식물염색(김지희, 영남 전통식물염색 보존회, 명인문화사, 1993).

필자 김지희(金芝希)

회염
繪染

정의 직물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무늬를 표현하는 염색 기법.

내용 회염은 가장 초기 형태의 염색 기법으로 붓과 염료染料 및 안료顔料를 이용하여 직물 위에 직접 채색하는 기법이다. '염회染繪'와 '채회彩繪'로 구분된다. 염회는 직물 위에 직접 염료로 그림을 그리는 염색법이다. 염회의 경우 염료 단독으로 그리거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염료에 찹쌀풀이나 우뭇가사리, 호료糊料를 넣어 그리기도 한다. 채회는 주로 안료를 사용하는데, 염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염료를 안료화시킨 후 그림이나 문양·단청·민화를 그리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된 염료로는 꼭두서니, 홍화의 연지, 쪽의 남藍 등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안료를 사용할 경우 콩즙이나 아교, 오동나무 기름을 넣어서 그린다. 이는 안료에 전착제를 이용하여 그림을 채색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예부터 군대의 깃발이나 보자기 등에 채색으로 문양을 표현하였고, 현재까지도 많은 유물이 전해지고 있다.

『삼국지三國志』 부여전夫餘傳에 "부여 사람들은 외국에 나갈 때 회繪·수繡·금錦·계罽 등으로 만든 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 구당서舊唐書에 백제의 관인들은 비색緋色의 그림을 그려 입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삼국시대 이전부터 회繪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사北史』에는 신라에서 소색의 옷감에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463년(개로왕 9)에도 백제의 화공인 사라아斯羅我가 일본에 건너가 직물에 한회韓繪를 했다는 사실로 보아 회염의 기법을 일본으로 전수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금은니金銀泥(금이나 은가루를 아교물에 개어 만든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직물뿐만 아니라 각종 회화, 불화, 병풍 등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면복의 현의



회염보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玄衣(조선시대 왕이 제복으로 입었던 검붉은 색의 겉옷)에는 십이장문十二藏紋 (일日·월月·성신星辰·용龍·산山·불火·조藻·분粉·미米·보黼·불黻·종이宗彝)을 회염 기법으로 그려 넣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현재 회염으로 무늬를 그린 옷감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 말기 고종황제의 곤복 일습에 그려진 구장무늬와 궁중에서 사용했던 무명, 모시 당채 보자기 유물이 여러 점 남아 있다. 조선시대 궁에서 사용하던 보자기[宮褓]나 깃발 중에는 안료를 사용하여 직접 그림을 그린 채회염의 직물이 많이 남아 있다. 궁에서 사용한 궁보는 다채로운 안료를 사용하여 화려하고 강렬하게 표현하였으며, 서민들이 사용하던 민보는 소박하고 민화적인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우리 그림의 색과 칠(정종미, 학고재, 2001), 우리나라 전통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전통색깔의 물들임과 무늬 넣기(김지희, 자연염색박물관, 2012), 한국복식문화사(유희경·김문자, 교문사, 1981), 한국직물 오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 2002).

필자 조미숙(曺美淑)

후수
後綬

정의 예복을 갖출 때 뒤허리에 매는 장식용 인끈.

내용 후수後綬는 한대漢代에 인장印章을 몸에 찰 때 쓰던 인끈, 즉 수綬가 후대에 예복의 장식으로 정착한 것이다. 한대에는 옆허리에 찼으나, 후대에 뒤허리에 차면서 '후수'라 부르게 된다. 한대의 수는 역繶·환環·수綬(전체를 칭하는 '수'와 그 수의 일부분을 칭하는 '수'가 있으나 여기서는 일부분을 칭한다.)로 구성되고 기다란 일자형이었다. 이 구성이 후대에 역이 소수小綬로 변하고, 수는 대수大綬로 변한다. 대수 형태는 후대에 직사각형이 되고, 그 위에 가는 끈인 소수 여섯 가닥을 드리우며, 소수의 끝에 옥환玉環을 관통시킨다.

고려·조선·대한제국에서 황제·황태자·왕·왕세자·왕세손의 면복冕服·통천관복通天冠服·원유관복遠遊冠服에 썼고, 관원의 면복(고려에 국한)·조복·제복에 썼다. 황후·황태자비·왕비·왕세자빈 등의 적의翟衣에도 썼다. 남녀의 후수는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다.



후수 | 길이 78 끈길이 4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에는 전기부터 후기까지 북경에서 무역을 통해 구비하다가, 1747년(영조 23) 영조가 상의원에서 직조하도록 명을 내리면서 국내 제작이 이루어진다. 이때 재질도 바뀐다. 전기에 왕과 왕세자는 홍화금紅花錦을 썼는데, 국내에서 직조하면서 세로줄 무늬 형태의 오색단五色緞으로 한다. 즉 적색·청색·검은색·옥색·녹색의 다섯 색을 세 번 반복해서 총 15줄이 되도록 몸판을 짜고 그 아래에 망수網綬를 드리우도록 했다. 후수는 왕·왕세자·왕세손이 모두 같은 제도였고, 대한제국 황제는 훈색 바탕에 황색·백색·적색·검은색, 옥색·녹색의 여섯 가지 색실을 섞어서 짜고, 황태자는 같은 훈색 바탕에 적색·백색·옥색·녹색의 네 가지 색실을 섞어서 짰다. 구체적인 형태와 직조법 등은 영친왕비 유물을 참고할 수 있다. 몸체는 각 색마다 일정한 너비로 바탕을 짜서 세로줄 무늬가 색색이 표현되도록 했다. 망수는 같은 색으로 편물을 짜서 아래에 붙였다. 여기에 둥근 고리 모양의 환環을 올려 장식한다. 조선의 왕, 왕세자 등은 금환金環 두 개를 썼고, 대한제국 황제는 참조할 사료가 없으나 명明나라의 제도를 참조하면 옥환玉環 세 개를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관원의 조복과 제복에 쓰는 후수는 품급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에는 품급별로 쓰는 색의 종류와 수, 무늬, 환의 재질 등을 차별화했다. 1~2품은 황·녹·적·자의 4색실로 운학雲鶴무늬를 직성織成해서 짜고

금환 두 개를 장식했고, 3품은 같은 4색실로 반조盤鳥무늬를 짜고 은환銀環 두 개를 장식했다. 4~6품은 황·녹·적 3색실로 연작練鵲무늬를 짜는데, 4품은 은환을 쓰고, 5품과 6품은 동환銅環을 썼다. 7~9품은 황·녹 2색실로 계칙瀡鷘무늬를 짜고 동환 두 개를 썼다. 몸판의 하단에는 모든 품급이 청색실로 짠 만수[靑絲網]를 드리웠다. 후기에는 무늬를 표현하는 방식이 직성에서 자수로 바뀌고, 조복과 제복을 착장할 수 있는 신분이 4품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후수 착용 신분도 줄어든다.

착장 방식은 본래 혁대革帶에 거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착용의 편의를 위해 대대大帶에 일체형으로 부착하게 된다.

특징 및 의의 후수는 중국 진秦나라와 한漢나라에서 신분에 따른 인장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장을 항상 몸에 차기 위해 몸에 부착되던 것이, 위진남북조 이후 점차 인장을 차지 않게 된 후에도 여전히 몸에 남은 것이다. 애초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차던 것을 '조상들의 생활 방식을 잊지 않는다.'라는 관념에 의해 예복의 장식물로 정착한 사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중국의 예복을 수용하면서 후수도 함께 사용하였고, 처음에는 중국에서 직조한 후수를 사다 쓰다가 영조 이후 사치를 억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하면서 한국 고유의 후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국속화된 후수는 대한제국시대까지 유지된다.

참고문헌 國朝續五禮儀補, 國朝五禮儀, 大韓禮典, 尙方定例, 朝鮮王朝實錄, 면복(최연우, 문학동네, 2015), 조선 후기 관원 조복의 구성과 형태 연구(최연우, 한복문화18-3, 한복문화학회, 2015), 중국 수에 관한 연구(최규순, 복식56-8, 한국복식학회, 2006) 한국의 복식문화사(최규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6).

필자 최연우(崔然宇)

휘양
揮揚

정의 조선시대 남성들이 착용하던 방한모로 머리를 중심으로 어깨까지 덮어서 추위를 피한 모자.

내용 휘양揮揚은 이암耳掩에서 비롯된 남성용 쓰개류로 휘항揮項·호항護項·풍령風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중국에서 조선으로 전해지면서 본래 명칭에서 다르게 불리면서 여러 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휘양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연유를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는 "호항은 이마를 두르는 털 머릿수건 같은 방한구로서 중국의 음으로는 '호'를 '휘'라 읽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와전되어 휘항으로 불렀다. 그 연원이 이미 오래전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래 호항이지 휘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귀한 사람은 담비 가죽 휘양[貂皮揮揚]을, 천한 사람은 족제비 가죽 휘양[鼠皮揮揚]을 착용하였다."라고 한다.

소재에 따라서 휘양은 모휘양毛揮揚·목휘양木揮揚·양휘양凉揮揚으로 구분한다. 모휘양은 겉을 검은색 공단으로 만들고, 안을 서피鼠皮 또는 초피貂皮로 댔다. 목휘양은 검은색 광목에 솜을 채우기도 하였다. 양휘양은 한지 형태에 맞게 재단하였고, 이마 윗부분에 검붉은 천을, 안팎으로 갑사甲紗를 대어서 만들었다. 이는 봄과 가을에 사용하는 휘양으로 방한 기능이 그리 크지 않으며, 강원도 원주 지방에서 수집된 사례가 있다.

모휘양은 상류층과 경제력이 나은 선비 집안 노인들이, 목휘양은 그 이하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은 찬바람과 추위에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방한모인 휘양을 착용하였다.

휘양은 일반적으로 정수리 부분을 둥글게 트지만, 이마 부위에 걸치게 하였다. 아랫부분은 얼굴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하고, 윗부분은 약간 작게 하였다. 뒤로는 뒤통수와 목을 두르고, 앞으로는 얼굴을 내놓게 되어 있다. 볼끼를 길게 배치해서 목덜미와 뺨을 싸고, 좌우에 달린 끈은 목에 매어서 찬바람을 막고 추위를 피하게 하였다. 볼끼에 끈을 달아 단단히 묶음으로써, 휘양은 찬바람이 얼굴 안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방한 효과를 높였다.

이보다 큰 휘양은 머리에서 어깨와 등까지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길이로 앞자락 좌우에 끈을 부착해서 앞가슴에서 여미도록 되어 있다. 이마 부분의 띠에는 꽃 문양을 자수하고, 옥나비와 구슬 등을 배치해서 실용성 못지않게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휘양은 상류층 노인이 애용하였지만, 재료를 달리 제작해서 군복軍僕이나 군병軍兵도 착용하였다. 무신은

공복으로 만선두리滿縕頭里를 착용하였다. 만선두리는 모휘양의 전후와 외연外沿을 초피로 선을 둘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휘양을 착용하고 그 위에 갓을 썼다. 휘양은 당시 남성들의 기품이 서려 있는 쓰개류이다.

조선 후기에는 선전線廛과 장인 간 이권 다툼이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의장毛衣匠이 선전으로부터 부당한 상행위로 당국에 고발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선전은 자신들이 취급하던 비단을 재료로 모의장들이 휘양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이는 선전이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이익을 독점하고자 하였던 전매권 유지에 모의장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특징 및 의의 휘양은 중국에서 전래된 남성 전용 쓰개류이다. 이 쓰개류는 겨울에 주로 노인들이 착용하였지만, 군복으로 착용하였다. 재질은 가죽과 천, 솜 등을 사용하였다. 계급과 가정 경제력에 따라서 재질을 달리해 제작하였다. 휘양은 남성들이 겨울에 찬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려고 착용하였기 때문에, 실용성을 중시하였고 장식은 많이 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雅言覺非, 조선시대의 관모(온양민속박물관, 1988),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박종민(朴鍾珉)

흉배
胸背

정의 조선시대에 왕·왕세자·왕세손의 곤룡포와 융복, 군복, 그리고 관리들의 흑단령, 왕비 이하 내외명부의 예복에 부착하여 신분과 품계를 드러내던 원형 또는 방형의 장식물.

내용 흉배胸背는 15세기 이후 왕실 남녀와 공주·옹주, 남편인 의빈, 종친과 부인, 백관과 부인 등이 예복에 사용하던 일종의 신분 상징물이었다. 그 외에 공인工人의 관복이나 서민들의 혼례복에도 사용되었으나 이는 신분의 표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장식물로 사용된 것이다. 왕세자빈 이상의 왕실 인물들은 가슴과 등에 장식하는 흉배와 좌우 어깨의 견화肩花까지 네 장의 원형 보補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용보龍補'이다. 왕이 용보를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단지 용흉배龍胷背 기록이 『세종실록世宗實錄』 권30, 1425년(세종 7) 11월 15일 기사에 보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실록』 권125, 1449년(세종 31) 9월 2일 기사를 보면 조선 초기 왕과 왕세자의 용보 정착 과정에 대한 전말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은 즉위 초 사조룡보를 사용하였다. 그 후 오조룡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마침 1444년 황제가 오조룡보를 보내옴으로써 왕의 오조룡보가 정착되었다. 5년 후인 1449년에는 왕세자가 비로소 사조룡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왕의 오조룡보와 왕세자의 사조룡보 제도는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용보의 바탕 색상은 곤룡포의 색상과 같이 하였으므로 왕의 오조룡보는 대홍색 바탕의 용보를 사용하였고 아청색 곤룡포를 착용하는 왕세자는 아청색 바탕의 용보를 사용하였다.



① 흉배판 | 19세기 말 ② 오조룡보판 | 1896

흉배 | ① 세로 19.5 가로 19.5 두께 2 | 국립민속박물관, ② 지름 19 두께 2.7 | 국립민속박물관

한편 왕실 여성의 흉배·견화 제도는 네 차례에 걸쳐 문양의 종류가 변화하였다. 제1기(15세기 중반~17세기 전반)에는 적계흉배翟雞胷背(적흉배翟胸背·작흉배雀胸背)를 사용하였다. 왕비 흉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1603년(선조 36) 명나라에서 보낸 예물 목록에서 보인다. '연암화저사철채수적계보자단삼緣暗花紵絲綴綵繡翟雞補子'과 '녹암화저사철채수적계보자협단삼綠暗花紵絲綴綵繡翟雞補子夾團衫'이라는 기록이다. '연緣'은 '녹綠'의 오기로 보인다. 왕비에게 보낸 단삼용 흉배는 왕의 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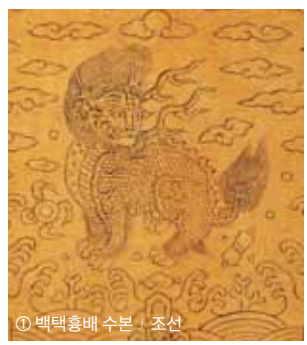
과는 달리 적계보자翟雞補子로 명시되어 있다. '적계翟雞'라는 문양은 1403년 하피문양霞帔紋樣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1450년의 배자문양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때는 왕과 왕세자의 흉배제도가 정비된 시기이므로 왕비는 적계흉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460년 빈씨嬪氏 집에 납징納徵한 예물 중에 금배견화대홍단자장삼金背肩花大紅段子長衫 기록이 보인다. 금흉배견화를 장식한 대홍단자장삼으로 짐작된다. 세자빈도 흉배·견화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흉배의 문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왕세자가 1449년에 비로소 사조룡보를 사용하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세자빈 역시 보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며 1460년 세자빈의 흉배 문양은 왕비의 것과 같은 적계흉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의 왕실 여성 보에는 직조나 자수를 사용하였다.

제2기(17세기)에는 적보자翟補子를 사용하였다. 1617년(광해군 9)에 명나라에서 보낸 사여복 중 녹암화저사철수적보자겹단삼綠暗花紵絲綴繡翟補子夾團衫에서 '적보자' 명칭이 확인된다. 1632년(인조 10)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仁穆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 기록된 인목왕후의 습의에는 작견화흉배雀肩花胸排를 갖춘 적의的衣가 있다. '작雀'은 '적翟'으로 짐작된다.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따르면 적계문翟雞紋은 군왕비의 며느리인 장자부인長子夫人의 문양인 반면, 적문翟紋은 군왕비의 문양이었다. 왕실 여성의 흉배 문양의 등급이 초기의 장자부인 문양에서 군왕비 문양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자수와 기화起畫 등으로 제작한 적흉배와 견화를 사용하였다.

제3기(18세기)는 인조와 장렬왕후의 가례가 있던 1638년(인조 16)부터 1751년(영조 27)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반포 이전 시기에 해당된다. 직금 또는 자수로 제작한 원형 봉보鳳補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의 마지막 봉흉배 기록은 1750년경의 『상방정례尙方定例』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왕대비 이하 왕세자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봉흉배·견화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봉문鳳紋은 명나라의 친왕비급에서 사용하던 문양이다.

제4기(18세기 말 이후)는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가 반포된 1751년 이후부터 대한제국까지이다. 이때 비로소 왕실 여성들은 왕실 남성들과 동일한, 금수원룡보金繡圓龍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용문은 황후의 문양이므로 이 시기부터는 최고 등급의 보를 사용하게 된다. 왕비는 국왕과 같은 오조룡문五爪龍紋을, 왕세자빈은 왕세자와 같은 사조룡문四爪龍紋을 사용하였다. 왕세자빈 이상은 원형의 용보를 흉배·견화 네 장의 보를 사용하였고 왕세손빈은 방형의 삼조룡三爪龍 흉배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왕의 후궁은 이전 시기에 왕실 여성이 사용하던 원형의 봉보를 사용하였고 공주와 옹주는 방형 봉흉배를 사용하였다. 원형과 방형, 용과 봉으로 왕실 여성의 신분을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실과 반가의 구별은 문양에도 있었으나 금사金絲 사용으로 철저하게 신분을 구별하였다.

특징 및 의의 한편 문무관의 흉배 사용에 대한 논의는 세종 대부터 있었으나 1454년(단종 2)에 비로소 정3품 당상관 이상만 단령 관복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 세조 대 이후 단령 중 흑단령에만 흉배를 다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왕실과는 달리, 방형 흉배만을 사용하였는데 명나라 문무관 흉배제도에서 이등을 낮추는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을 적용하여 조선의 1품은 명나라 3품의 흉배를 사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문관 1품은 공작孔雀, 2품은 운안雲雁, 무관 1품과 2품은 호표虎豹, 문관 3품은 백한白鷳, 무관 3품은 웅비熊羆, 대군은 기린麒麟, 대사헌은 해치獬豸, 도통사는 사자, 왕자와 군은 백택白澤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었다. 1505년(연산군 11)에 1품에서 9품까지 저猪·록鹿·아鵝·안雁 등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수개월 후 중종반정(1505)이 일어나 다시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복구되었다. 그


① 백택흉배 수본 | 조선


② 대삼원문 | 1638

흉배 | ① 가로 18.8 세로 20.6 | 국립고궁박물관, ②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 국립중앙박물관

러나 흉배제도는 변화를 거듭하여 변화해 갔다. 숙종 대에는 6품까지 흉배 사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1745년(영조 21)에는 9품까지 확대하면서 이를 이듬해인 1746년에 『속대전續大典』에 명시하였다. 또한 정조 대 이후 당상관과 당하관으로만 구분하는 흉배제도가 정착되어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왕실 인물 중 대군大君은 기린흉배를 사용하였다. 기린은 원래 오색의 화려한 빛깔의 털을 가지고 이마에는 기다란 뿔이 하나 또는 두 개가 있는 동물이다.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 말과 비슷한 발굽과 갈기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이다. 형태는 백택과 비슷하지만 말발굽과 같은 발을 가진 것이 차이점이다. 기린흉배 모습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초상화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에 소장 중인 기린흉배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자군은 백택흉배를 사용하였다. 백택은 인간의 말을 하며, 세상에 대해 모르는 일이 없다고 하는 신령스런 상상의 동물이다. 기린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발가락이 갈라져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1613년 익사공신翼社功臣 정원군定遠君의 초상화, 1714년 연잉군延礽君 초상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1882년 이후 거북흉배를 사용하였는데 그 모습은 흥선대원군의 사진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공주·옹주의 남편인 의빈儀賓은 금사로 수놓은 쌍학흉배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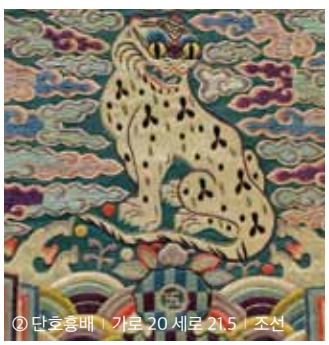
조선시대 문관 흉배는 새를 주문主紋으로 하는 '날짐승흉배'이다. 날짐승흉배의 등급은 날짐승의 크기에 의해 정해졌으며 역사상 네 단계로 변화했다. 제1기에는 공작흉배(1품)와 운안흉배(2품), 백한흉배(3품)가 사용되었다. 그들의 부인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제도에 등장하지 않는 노사흉배鷺鷥胸背가 부인 무덤에서 수의에 장식된 상태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공작흉배의 공작은 공작 특유의 관우와 화려한 꼬리털이 특징이다. 운안흉배의 운안은 갈색의 큰 새인데 머리와 꼬리에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그래서인지 날짐승흉배 중 가장 먼저 쇠퇴하였다. 백한흉배의 백한은 흰색 새로 관우가 있고 여러 가닥의 긴 꼬리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2기에는 기존의 공작, 운안과 백한흉배 외에 선학과 노사흉배가 추가되어 가장 많은 종류의 흉배가 사용되었다. 선학은 정수리의 단정丹頂이 특징이며 몸은 하얗고 꼬리는 뭉툭한 편인데 꼬리 좌우로 흑령黑翎이라고 하는 나뭇잎 모양의 깃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노사는 백한과 유사하지만 꼬리털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제3기의 당상관은 운학흉배, 당하관은 백한흉배를 사용하여 종류가 단순화되었으며 모두 흰 색으로 주문을 정리하였다. 제4기는 문관 당상관의 쌍학흉배, 당하관의 단학흉배로, 더욱 단순화되었으며 새의 마릿수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제도는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쌍학흉배와 단학흉배의 구분은 정조 대(1795)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대체적으로 이 시기 이후 학은 불로초를 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무관 흉배는 제정 당시 1·2품은 호표흉배虎豹胸背, 3품 당상관은 웅비흉배熊羆胸背를 사용하였다. 소위 '길짐승흉배'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1691년(숙종 17)과 1734년(영조 10)에 무관들이 문관용 학흉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금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실제 사용된 무관의 흉배 제도는 법전과는 달랐다.


① 단학흉배 | 가로 20 세로 21 | 조선


② 단호흉배 | 가로 20 세로 21.5 | 조선


③ 공작흉배 | 이존도 초상 중 부분 | 1740


④ 사자흉배 | 김중만 초상 중 부분 | 18세기

흉배 | ① 국립민속박물관, ② 국립민속박물관, ③ 충현박물관, ④ 경기도박물관

흉배에 사용된 길짐승무늬의 종류는 호랑이, 표범, 해치, 사자 등 4종이었다. 아직까지 웅비흉배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진왜란 전 무관의 흉배는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호표와 웅비, 두 종류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호표흉배만 확인되었다. 전傳 오자치吳自治 초상화에서 호표흉배를 볼 수 있고, 진주 류씨 부인 박씨 묘 출토 호표흉배가 있다. 16세기 후기에는 호표흉배가 호흉배虎胸背와 표흉배豹胸背로 나뉘어졌다. 임진왜란 후부터 18세기 후기 영조 말년까지 호흉배가 확인된다. 1604년의 선무공신宣武功臣 조경趙儆(1541~1609) 초상화와 1613년의 위성공신衛聖功臣 한천두 초상화, 1623년 정사공신 이원영 초상화 등에서 시작되어 영조 말 『등준시첩登俊試帖』(1774)까지 호흉배가 사용되었다. 17세기 초 호흉배에는 황색 호랑이가 묘사되었으나 18세기 영조 때는 백호白虎가 사용되었다. 1756년(영조 3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영조 대의 무관 1품 흉배가 사자흉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자흉배보다는 호랑이흉배를 즐겨 사용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해치흉배는 단종 대에 3품 대사헌大司憲의 흉배로 제정되었다. 해치는 선악을 구별하고 정의를 지키는 전설 속의 동물로, 몸 전체는 비늘로 덮여 있고, 머리에 뿔 하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진왜란 당시 해치흉배를 사용한 명나라 무관들의 영향으로 17세기 초부터 조선의 무관들도 해치흉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18세기 전기 영조 대까지 해치흉배 사용은 지속되었다. 대체로 무관 2품의 흉배로 사용되었다. 1609년 사망한 조경의 묘에서도 해치흉배 1점이 출토되었다. 이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해치흉배 유물이다. 그 후 1623년 정사공신靖社功臣 초상화와 1624년 진무공신振武功臣 초상화 등에서 해치흉배가 확인된다.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정사공신丁巳功臣 이중로李重老(1577~1624) 초상화(보물 제1174호)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일본 교토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조 초기 이봉상李鳳祥(1676~1728)의 초상화에서 마지막 해치흉배를 볼 수 있다.

사자흉배는 단종 대 흉배 제도에 따르면 도통사의 흉배이다. 16세기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별내면 무연고 여자 묘에서 출토된 직금흉배사자문 필단 치마 1점이 있기는 하지만 흉배로 사용된 사자흉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후기에는 인조 대의 흉배 유물에서부터 정조대의 초상화까지 사자흉배가 확인된다. 순조 초기까지도 사자흉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17세기 전기 정사공신 신경유申景裕(1581~1633) 초상화, 진무공신 김완金完(1577~1635) 초상화와 신경유 묘 사자흉배, 안동대학교박물관 소장의 현종 대 김여온의 사자흉배, 숙종 대의 인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무관 초상화 등이 있다. 정조 대까지 사자흉배를 사용한 무관 초상화가 남아 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18세기 중기 사자흉배를 비롯하여, 영조 말기의 『등준시첩』에서 영조 대의 사자흉배를 볼 수 있으며, 성균관대학교박물관의 신응주申應周(1747~1804) 초상화와 개인 소장의 이창운李昌運(1713~1791) 초상화를 통해 정조 대의 사자흉배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후기부터는 쌍호흉배와 단호흉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호랑이는 줄무늬의 호랑이가 아니라 청나라 무관 3품 흉배에 해당하는 표범무늬의 흉배이다.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조 대 이명준李命峻(1699~1774) 초상화에는 종2품 소금대素金帶에 표범 한 마리가 그려져 있고 정조 대(1784)의 이주국李柱國(1721~1798) 초상화에는 종2품 학정대에 표범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따라서 쌍호·단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표흉배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다. 한편 19세기의 신홍주申鴻周(1772~1829)와 신헌申櫶(1810~1888), 신정희申正熙(1833~1895) 등의 무관 초상화에서는 쌍호흉배가 확인된다. 그 외에 단호흉배 유물도 여러 점 현전하고 있다. 이렇듯, 무관의 흉배 제도는 문관의 흉배제도보다 단순한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법전에 나타나는 제도와 실제 사용된 흉배와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가 부인들도 예복에 흉배를 사용하였다. 16세기까지는 남자들과 같은 도안의 흉배를 사용하였다. 인천 석남동 무연고 여자 묘에서는 공작흉배가 출토되었으며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파평 윤씨 묘 흉배는 노사흉배이다. 연안 김씨 묘에서는 백한흉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진주 류씨의 배위 박씨 묘에서는 호표흉배가 출토되었으며 호흉배가 출토되었다. 경기도 용인 영덕동 여자묘에서는 직금호흉배필단으로 만든 여자

단령이 출토되었다. 17세기 중기 이후에는 수자흉배壽字胷背와 봉흉배 등이 등장하여 남자 흉배와 차별화되었다. 경기도박물관에는 사천 목씨(1657~1699) 묘에서는 목숨 수壽 자를 모란으로 둘러싼 '수자흉배'가 있고 충북대학교박물관에는 청송 심씨(1683~1718) 묘에서 출토된 '수자흉배'가 있다. 또 17세기 말 이단하李端夏(1625~1689) 부인 원삼에는 봉흉배가 장식되어 있다. 안동 권씨 묘에서는 당의에 부착된 봉흉배가 출토되었다. 공주·옹주와 대군부인과 군부인의 흉배는 봉흉배이기는 하지만 금사를 사용하였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덕온공주의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 전기의 금사 봉흉배가 소장되어 있다. 경기도박물관에는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淑善翁主(1793~1836) 묘에서 출토된 원삼용 금사 봉흉배가 있다. 반가 부인들의 봉흉배는 채색사로만 수를 놓았으나 왕실 인물들의 봉흉배는 봉을 금사로 수놓아서 차별화하였다. 19세기 이후 여성들의 흉배 사용은 감소된 듯하다. 혼례용 원삼에만 간혹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흉배의 크기는 후대로 갈수록 점차 축소되었다. 17세기까지는 30~40㎝ 정도의 큰 흉배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크기가 줄어들어 20세기 초에는 20㎝보다 작은 크기로 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 흉배는 남자 흉배보다 작은 편이다. 흉배의 표현 방식은 세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유물로 볼 때 시기별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기에는 흉배단자처럼 흉배가 직조된 옷감으로 옷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전기까지는 직조된 흉배를 잘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수를 놓은 자수흉배가 주로 사용되었다. 자수를 위한 흉배본은 유지에 만들었는데 국립고궁박물관에 여러 점의 흉배 자수본이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明會典,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날짐승흉배의 감정을 위한 기준 설명(이은주·하명은, 한복문화10-3, 한복문화학회, 2007),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온양민속박물관, 1996), 조선시대 무관의 길짐승흉배제도와 실제(이은주, 복식58-5, 한국복식학회, 2008), 조선시대 왕실여성의 흉배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김영선,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조선시대 초상화3(국립중앙박물관, 2009).

필자 이은주(李恩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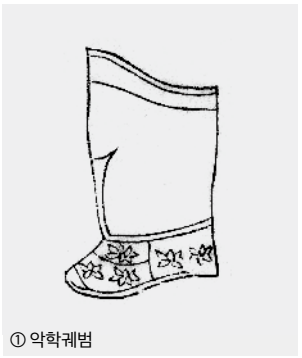
흑피화
黑皮靴

정의 조선시대 속악俗樂의 악사樂師와 가동歌童이 신었던 검은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발.

내용 속악이란 중국계의 아악과 당악에 대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궁중음악을 가리키는 말로 향악鄕樂이라고도 한다. 흑피화黑斜靴는 거문고, 피리, 젓대(대금) 등 속악에 쓰이는 악기를 연주하는 우방악사와 정재呈才(궁중에서 여령이나 무동, 지방 관아에서 기녀들이 공연했던 악·가·무의 종합 예술) 때 악장을 부르던 가동이 신던 신이다. 7품 이하의 악공은 음악을 연주할 때만 포를 입고 화를 신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신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리에 비해 격이 높은 신발이었다고 여겨진다. 임금이 봄과 가을에 사냥하던 의식과 궁궐 밖 혹은 도성 밖 행차할 때에도 가동이 신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의 무동 관복이 신는 목화는 흑색 곰 가죽으로 만들며, 청색이나 자색의 손질한 담비 가죽인 사피를 써서 꽃을 만들고, 선은 청사피를 써서 검은 가죽으로 만든 화에 선명한 색으로 꽃무늬와 선을 둘러 화려하게 입었다.

조선시대 악인은 양인 또는 천인 출신이었으므로, 이들의 기본 복식은 서민복을 입었고 특별히 연주할 때만 그 위에 관복을 덧입었는데, 악인의 분류와 의식, 시대에 따라 구조와 형태가 변하였다. 조선 초기 악인은 일반적인 관복 차림에 신은 오피리를 착용하던 것이 숙종 때부터 악사와 전악, 악공은 대부분 흑화를 신었다.

특징 및 의의 화는 재료에 따라 흑피화, 흑화로 부르기도 하여서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이 관복과 함께 신는 목화와 같은 의미로 여겨지기도 한다. 조복과 제복에 신는 오피리는 정조 때의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의 조복용 흑피화로 그 형태를 알 수 있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 기록된 왕의 화는 검은색 고라니 가죽으로 만드는 흑궤자피화黑麂子皮靴와 검은색 담비 가죽으로 만든 흑사피화黑斜皮靴이다. 겉감 가죽은 흑궤자피와 흑사피로 만들고 내공, 즉 안감으로 백색 사슴 가죽을 사용한다. 족제비과의 담비 가죽은 '초피貂皮', '돈피獤皮', '사피斜皮'라


① 악학궤범


② 흑피화를 신은 악사

흑피화 | 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② 오향친제반차도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고 부른다. 색채가 매우 아름답고 윤택이 나며, 털은 치밀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모피로 최상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나 방한용 모자인 이엄과 갖옷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됐다. 이에 비해 족제비의 가죽인 서피鼠皮는 질이 떨어지지만 이것도 인기가 높았다. 정약용은 사피가 잘못 옮겨져서 서피로 되어 장인들이 청서피, 백서피라 칭한다고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지적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의 대전의 탄일과 명절의 의대물목(왕과 비, 왕세자와 비의 의류 물목)에도 흑궤자피화와 흑서피화로 표기되어 있어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보면 사피로 만든 화 또는 혜는 공상, 천민들이 신지 못하게 하였다. 또 다른 재료로 쓰인 전피화는 무두질한 양 가죽으로 만든 화로 추정되며, 부드럽고 가벼운 양 가죽 재질의 특징으로 봄과 여름에 착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관의 상복에 착용한 협금화는 '쇠를 끼운 화'라는 뜻으로 바닥에 특별히 놋으로 된 징을 박은 것이 아닌가 한다.

재료와 색깔에 따라 흑피화, 백피화 등으로 구분한다. 백목화는 국상 시에 백관들이 신는 화이나 1793년(정조 17) 사치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 만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분부한 내용으로 보아 멋 부리는 양반은 백화 또는 백피화를 신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樂學軌範,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홍나영·장숙환, 열화당, 2003), 한국복신문화사(유희경, 교문사, 1981), 한국의 복식(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한국복식문화사전(김영숙, 미술문화, 1998), 화혜장(조선희, 민속원, 2007).

필자 조선희(趙鮮姬)

부록

Ⅰ. 분야별 도판　Ⅱ. 속담·관용구　Ⅲ. 색인　Ⅳ. 필자

모자
상의
하의
겉옷
속옷
대
신발
장신구
머리모양
화장
일습
염색
무늬
용어

분야별 도판

I

모자

가리마 *(20p.)*



신윤복 | 청금상련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갓 *(42p.)*



④



②



③



④



⑤

① 갓 쓴 양반들 | 김홍도 | 연광정연회도 중 부분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입영(갓끈)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입식(호수) | 길이 3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④ 흑립 | 높이 20.5 지름 72.3 | 19세기 초 | 국립민속박물관, ⑤ 갓집 | 높이 14 지름 41.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갈모 *(28p.)*



①



②

① 갈모와 갈모테 | 갈모 길이 38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갈모 쓴 우체부 | 영월책박물관

감투 *(36p.)*



채용신 | 최익현 초상 | 1905 | 국립중앙박물관

개두 *(48p.)*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상) | 1689 | 국립중앙박물관

건 *(56p.)*





① 흑건 | 덕흥리 고분 | 고구려, ② 머릿수건 | 각저총 | 고구려, ③ 조건 쓴 나장 | 신윤복 | 주사거배 중 부분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고깔 *(67p.)*



가로 30 세로 34 | 198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굴레 *(102p.)*



높이 18 길이 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너울 *(133p.)*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중 부분 | 1759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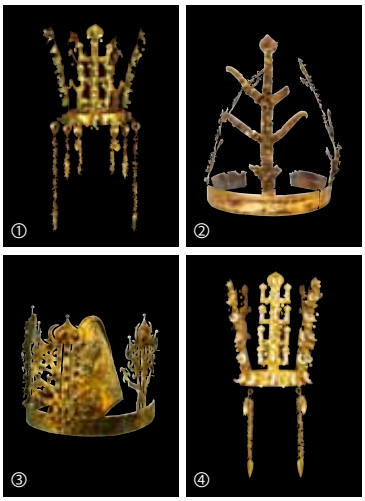
남바위 *(130p.)*





① 가로 18 세로 34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남바위 위에 제관을 쓴 관리 | 엘리자베스 키스 | 종묘제례관리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대륜식입식관 *(170p.)*



① 수목녹각형입식관 | 경북 경주 황남대총 북분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② 목형입식관 | 부산 동래 복천동 11호분 | 가야 | 국립김해박물관, ③ 금동관 전남 나주 신촌리 9호분 | 백제 | 국립나주박물관, ④ 수목녹각형입식관 | 경북 경주 천마총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동파관 *(196p.)*



윤두서 | 심득경 초상 | 1710 | 국립중앙박물관

마미두면 *(209p.)*



전 고종 갓 | 높이 13 지름 31.5 | 근대 | 세종대학교 박물관

망건 *(214p.)*



①



②

① 백은배 | 후원아집도 중 부분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54.5 너비 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면류관 *(2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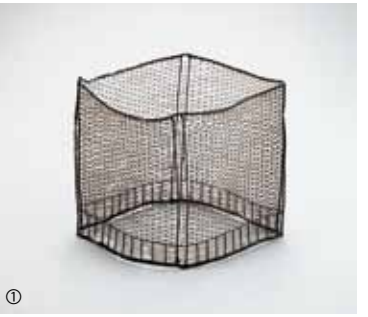
12류 면류관 재현품 | 2017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면사 *(226p.)*



면사 쓴 신부 | 1999 | 이길표

방건 *(282p.)*



①



②



③

① 가로 28 세로 17 | 1900년대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한평 | 이광사 초상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③ 방건 쓴 훈장 | 김홍도 | 서당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방립 *(283p.)*



①



②

① 높이 21.5 너비 51 | 1907 | 국립민속박물관, ② 상중 외출용 쓰개

백라관 *(292p.)*



안악 3호분 | 고구려

벙거지 *(296p.)*



①



②

① 높이 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평생도 중 부분 | 국립민속박물관

복건 *(30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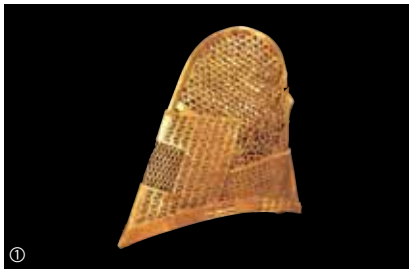
①



②

① 길이 52 둘레 43 | 국립민속박물관, ② 송시열 초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변형모 *(298p.)*



①



②



③

① 높이 19 | 경북 경주 천마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② 대안리 1호분 | 고구려, ③ 변형모 쓴 사람 얼굴무늬 토기 | 충남 부여 관북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복두 *(303p.)*



강민첨 초상 | 18세기 | 진주 강씨 백각공파 종친회

볼끼 *(307p.)*



①



②

① 길이 20 | 19세기 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엘리자베스 키스 보건 포스터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사모 *(43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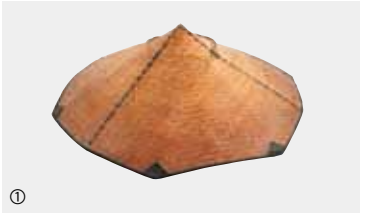






① 높이 16.5 지름 1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백사모 | 높이 16.5 지름 19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정몽주 초상 | 14세기 후반 | 경기도박물관, ④ 이돈상 초상 | 19세기 중반 | 경기도박물관

삿갓 *(443p.)*





① 높이 21.5 지름 63.7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② 삿갓 쓴 여인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상모 *(446p.)*





① 부포상모(김제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② 채상모(평택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상관 *(445p.)*





① 굴건 | 길이 48 너비 17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수질 | 길이 95.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송낙 *(478p.)*





① 승립(송낙) | 높이 18 | 185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김홍도 | 시주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상투관 *(455p.)*





① 높이 60 지름 5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임매 초상 | 1777 | 국립중앙박물관

쓰개치마 *(499p.)*



①



②

①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② 신윤복 | 월하정인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아얌 *(5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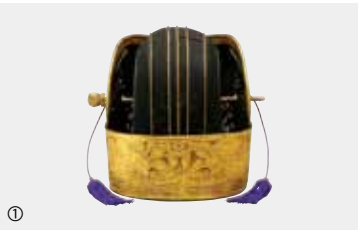
①



②

① 길이 132 너비 28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아얌을 쓴 어린 기생 | 1909 | 국립민속박물관

양관 *(507p.)*



①



②

① 금관 | 높이 20 지름 17.5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금관조복을 입은 관리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원유관 *(551p.)*



높이 21 지름 18 | 1900년대 |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유건 *(555p.)*



가로 24.8 세로 21.9 | 19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이엄 *(564p.)*



길이 42 너비 4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익선관 *(565p.)*



①



②



③

① 영친왕 익선관 | 높이 22 가로 20.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태조 어진 중 부분 | 1872 | 어진박물관, ③ 영조 어진 중 부분 | 1900 | 국립고궁박물관

장옷 *(582p.)*



①



②

① 길이 122.7 품 51.5 화장 78 | 1997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윤복 | 연소답청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전립 *(599p.)*



①



②

① 신윤복 | 쌍검대무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② 높이 9.5 지름 34.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전모 *(601p.)*



①



②

①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신윤복 | 전모 쓴 여인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정동벌립 *(605p.)*



①



②

① 높이 14 지름 48.5 | 21세기 | 국립제주박물관, ② 정동벌립과 도롱이를 쓴 농부 | 제주대학교박물관

정자관 *(606p.)*



①



②

① 높이 35 너비 26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이채 초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조바위 *(618p.)*





① 길이 34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민씨 가의 규수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조우관 *(622p.)*









① 수렵도 | 무용총 | 고구려, ② 충남 공주 수촌리 4호분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③ 금제관식 | 높이 40 | 경북 경주 금관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④ 금동제봉황형장식 | 높이 13.1 | 평북 운산 용호동 1호분 | 고구려 | 국립중앙박물관

족두리 *(62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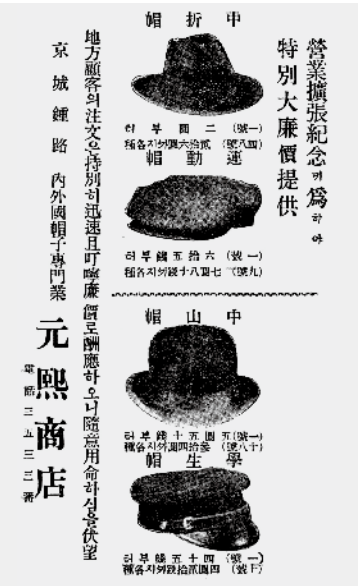


① 높이 8 너비 11 지름 9.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조반 부인 초상 중 부분 | 조선 초기 | 국립중앙박물관

주립 *(626p.)*



중산모 *(631p.)*



영업확장기념키 위하야 특별대염가제공 | 1921. 10. 21 | 동아일보

중절모 *(632p.)*



높이 13 너비 32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① 높이 14 지름 15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윤복 | 무녀신무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책 *(650p.)*





① 장하독 | 안악 3호분 | 고구려, ② 책 쓴 고관 | 덕흥리 고분 | 고구려, ③ 행렬도 | 안악 3호분 | 고구려

천의 *(653p.)*




① 길이 92 너비 153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790 너비 275 | 근대 | 온양민속박물관

초립 *(660p.)*




① 신윤복 | 주사거배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② 높이 12 지름 24.5 | 국립민속박물관

치포관 *(674p.)*



허전 초상 | 19세기 후반 | 경기도박물관

탕건 *(683p.)*




① 높이 14 너비 17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탕건 쓴 양반들 | 수갑계첩 중 부분 | 1814 | 국립중앙박물관

털벙것 *(686p.)*



털벌립 | 높이 11 너비 50 | 광복 이후 | 제주대학교 박물관

통천관 *(688p.)*



고종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패랭이 *(696p.)*



높이 12 지름 3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풍차 *(708p.)*



① 길이 38 너비 36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엘리자베스 키스 | 정월 초하루 나들이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화관 *(747p.)*



① 엘리자베스 키스 판화전 포스터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② 높이 14 너비 16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③ 높이 9 가로 12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호건 *(736p.)*



① 길이 50 지름 19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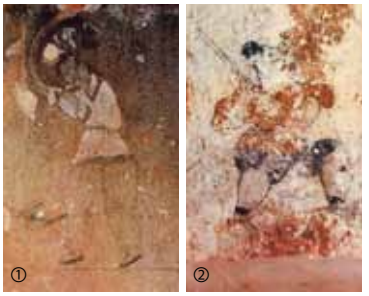


결마기 *(63p.)*



① 길이 67 품 72 화장 75 | 청주 한씨 묘 출토 | 16세기 추정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삼회장 저고리 | 길이 16 품 34 화장 53 | 1831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고 *(66p.)*



① 뿔나팔을 부는 사람 | 안악 3호분 | 고구려, ② 문지기 역사 | 약수리 고분 | 고구려

과두 *(82p.)*



남자 과두와 유사한 여자 요대 | 안동 김씨 묘 출토 | 18세기 | 경기도박물관

당의 *(164p.)*



① 친잠례 단체 사진 | 1911 | 국립고궁박물관, ② 광해군비 당의 | 길이 76 품 52 화장 90.5 | 17세기 초반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③ 영친왕비 운봉문직금단 두 벌 당의 | 길이 78 품 59 화장 69.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동의대 *(194p.)*



영친왕 별문숙고사 솜저고리 | 길이 56 품 52 화장 6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등거리 *(202p.)*



길이 43.5 너비 31.5 | 1946 | 국립민속박물관

배냇저고리 *(286p.)*



길이 28 품 26 화장 3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소고의 *(472p.)*



① 영친왕비 화문장미사 삼회장 저고리 | 길이 29 품 49.5 화장 69.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영친왕비 명주 속저고리 | 길이 28.5 품 48.5 화장 6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색동저고리 *(457p.)*



①



②

① 길이 17 화장 3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엘리자베스 키스 | 석가탄신일 | 1929 | 국립민속박물관

저고리 *(588p.)*



①



②

① 길이 62 품 52 화장 60 | 조선 초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33 품 45 화장 65.5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적삼 *(592p.)*



길이 39 품 50 화장 68 |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조끼 *(616p.)*



길이 47 품 47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최의 *(662p.)*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토시 *(687p.)*



①



②



③

① 신윤복 | 야금모행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② 길이 25 너비 14 | 국립민속박물관, ③ 길이 18 지름 11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거들치마 *(55p.)*



길이 135.6 폭 544.5 허리 99 | 남양 홍씨 묘 출토 | 140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두렁치마 *(198p.)*



길이 40 | 1880년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몸빼 *(254p.)*



부인들에게 몸빼를 입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도록 권하는 문서 | 1942 | 국립민속박물관

말군 *(211p.)*



①



②

① 신윤복 | 문종심사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② 길이 117 허리 63 | 인천 석남 | 15세기 추정 | 인천시립박물관

바지 *(275p.)*



①



②

① 길이 108 허리 91 | 변수 묘 출토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17.5 허리 126 | 신광헌 묘 출토 | 18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상 *(443p.)*



어양태수 | 덕흥리 고분 | 고구려

스란치마 *(485p.)*



영친왕비 화문단 부금 남스란치마 | 길이 133 허리 107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자락치마 *(568p.)*



덕혜옹주 별문숙고사 치마 | 길이 104 폭 266.3 허리 87.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잠방이 *(575p.)*



김홍도 | 경답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전행웃치마 *(603p.)*



영친왕비 길상문직금단 전행웃치마 | 길이 142 허리 9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조끼허리 *(617p.)*



길이 45 허리 5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최상 *(661p.)*



길이 69.5 허리 90 | 1941 | 국립민속박물관

치마 *(671p.)*





① 쌍영총 | 고구려, ② 치마저고리를 입은 왕실 여인들 | 1900년대 초

풍차바지 *(709p.)*



길이 49 허리 66 | 196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행전 *(728p.)*





① 영친왕 모시 행전 | 길이 22.8 너비 19.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행상 | 김홍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행주치마 *(729p.)*



신윤복 | 정변야화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가사 *(21p.)*



①



②

① 서산대사 진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② 2016 | 박춘화

강사포 *(46p.)*



고종황제 어진 | 1918년경 | 국립고궁박물관

까치두루마기 *(120p.)*



길이 58.5 품 35 화장 45 | 국립민속박물관

난삼 *(125p.)*



①



②

① 길이 132 품 30 화장 85 | 조선 후기 | 고려대학교박물관, ② 과가하는사람 | 기산풍속도 | 2002년 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곤룡포 *(73p.)*



①



②

① 영친왕 운보문사 홍룡포 | 길이 119.5 품 53 화장 90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고종 어진 | 20세기 초반 | 국립중앙박물관

단령 *(151p.)*



①



②

① 길이 137 품 58 화장 127.5 | 김확 묘 출토 | 17세기 초반 | 경기도박물관, ② 단령 입고 사모 쓴 남자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담복 *(161p.)*



천담복 | 길이 128 품 54 화장 95 | 186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답호 *(162p.)*



길이 136 품 59 화장 46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더그레 *(181p.)*



길이 119.5 품 59.5 화장 20.5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도롱이 *(182p.)*



①



②

① 길이 120 너비 6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도롱이 입고 삿갓 쓴 남성 | 1910 | 김영준

도포 *(186p.)*



이명기·김홍도 | 서직수 초상 | 1796 | 국립중앙박물관

동다리 *(192p.)*



①



②

① 길이 118 품 46 화장 84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대한제국동가도 중 부분 | 19세기 말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두루마기 *(199p.)*



① 길이 119 품 51 화장 70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③ 1930 | 국립민속박물관

사규삼(四褄衫) *(436p.)*



길이 51.5 품 32 화장 3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마고자 *(208p.)*





① 남자 마고자 | 길이 59.5 품 49.5 화장 69 | 1946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여자 마고자 | 길이 27 품 41 화장 62.5 | 1920 | 국립민속박물관

소창의 *(474p.)*



길이 128 품 58 화장 96 | 이진숭 묘 출토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액주름포 *(505p.)*



길이 104 품 66 화장 99 | 16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심의 *(496p.)*





① 길이 133.5 품 93 화장 132.5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이재 초상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배자 *(290p.)*





① 길이 44 품 32 진동 28.5 | 189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성협 | 투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원삼 *(549p.)*



①



②

① 동궁비 원삼 | 길이 145 품 44 화장 135 | 20세기 초반 | 세종대학교박물관, ② 순정효황후와 의친왕비의 원삼 착용 | 1900년대 초 | 서울대학교박물관

장삼 *(577p.)*



길이 140 품 78 화장 126 | 나부 부인 용인 이씨 묘 출토 | 16세기 | 대전시립박물관

중단 *(630p.)*



영친왕비 무문주 중단 | 길이 143 품 53 화장 10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중치막 *(634p.)*



①



②

① 길이 129 품 60 화장 119 | 18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신윤복 | 상춘야흥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전복 *(602p.)*



①



②

① 길이 128 품 47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52 품 36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적의 *(593p.)*



①



②

① 길이 155 품 53 화장 101 | 20세기 초반 | 세종대학교박물관, ② 순종 근현례식 기념 사진 | 1922 | 국립고궁박물관

직령 *(635p.)*



①



②

① 길이 138 품 74 화장 115 | 이언충 묘 출토 | 16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이조년 초상 | 성주 이씨 대종회

창의 *(648p.)*



길이 130 품 44 화장 118 | 남오성 묘 출토 | 18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철릭 *(657p.)*



①



②

① 요선철릭 | 길이 124 품 59 화장 113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18 품 62 화장 97 | 17세기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쾌자 *(676p.)*



영친왕 모란문갑사 쾌자 | 길이 119 품 51 어깨 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학창의 *(715p.)*



①



②

① 길이 125 품 50 화장 101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이한철·유숙 | 이하응 초상 와룡관학창의본 | 1869 | 서울역사박물관

활옷 *(751p.)*



복온공주 활옷 재현품 | 길이 143 품 48 화장 109 | 20세기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개짐 *(54p.)*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고의 *(71p.)*



길이 86 허리 10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고쟁이 *(72p.)*



①



②

① 길이 96.5 허리 98 | 1920 | 국립민속박물관, ② 살창고쟁이 | 길이 104 허리 90 | 국립민속박물관

다리속곳 *(148p.)*



길이 22.5 허리 55 | 21세기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단속곳 *(159p.)*



길이 93 허리 9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대슘치마 *(174p.)*



길이 118.5 허리 100.5 | 21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대자 *(176p.)*



영친왕비 명주 가슴가리개 | 길이 110 너비 30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무지기치마 *(262p.)*



길이 72 허리 103 | 21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속적삼 *(476p.)*



길이 33.5 화장 69 | 1940~1950년대 |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속치마 *477p.)*



①



②

① 길이 95 허리 9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영친왕비 진주사 속치마 | 길이 89.5 허리 87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한삼 *(7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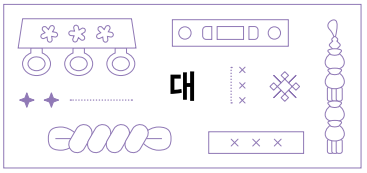


①



②

① 품 69 화장 104 | 16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여령의 오색 한삼 | 신축진찬도병풍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과대 *(81p.)*



①



②



③

① 은제 과대 | 공주 무령왕릉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② 금제 과대 | 경주 천마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③ 은제 과대 | 경산 임당동 고분 | 가야 | 영남대학교박물관

돌띠 *(188p.)*



이지영

세조대 *(469p.)*



①



②

① 조선 | 경기도박물관, ② 권기수 초상 | 1919 | 국립전주박물관

야자대 *(506p.)*



①



②

① 모란금대 | 길이 172 | 안동 태사묘 | 14세기 | 안동민속박물관, ② 악공이 착용한 야자대 | 무신진찬도병 중 부분 | 1848 | 국립중앙박물관

옥대 *(534p.)*



①



②

① 영친왕 옥대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영친왕비 옥대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대구 *(169p.)*



①



②

① 마형·호형대구 | 경북 영천 어은리 | 청동기시대 | 국립중앙박물관, ② 마형대구 | 충남 천안 청당동 | 원삼국 | 국립중앙박물관

요질 *(541p.)*



길이 126 | 국립민속박물관

전대 *(598p.)*



① 남전대 | 길이 234 너비 1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대화단 부금 전대 | 길이 220 너비 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혁대 *(731p.)*



각대 | 가로 45 세로 30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금동신발 *(110p.)*



①



② 길이 34.8 | 고구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전북 고창 봉덕리 1호분 | 백제 | 국립전주박물관

가죽버선 *(24p.)*



길이 28 너비 30 | 근대 | 제주대학교박물관

구두 *(98p.)*



①



② 고종 어진 | 1907 | 한미사진미술관, ② 회령의 기생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고무신 *(69p.)*



①



② 고무신 상인과 손님 | 일제강점기 | 김영준, ② 어른용 고무신 | 너비 65 길이 230~240 | 197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나막신 *(122p.)*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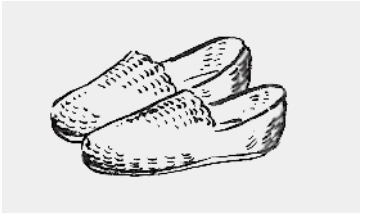
②



③

① 구유형 나막신 | 길이 16.5 너비 6.5 높이 6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곤돌라형 나막신 | 길이 25.5 너비 7.5 높이 16 | 국립민속박물관, ③ 전신윤복 | 대쾌도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노파리 *(138p.)*



국학도감 | 일조각

녹피혜 *(139p.)*



길이 26 너비 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당혜 *(166p.)*



길이 240 너비 7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멱신 *(220p.)*



멱신(동구니신) | 길이 26 너비 85 높이 13 | 1991 | 국립민속박물관

목화 *(252p.)*



길이 260 너비 70 높이 28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미투리 *(271p.)*



국립민속박물관

버선 *(29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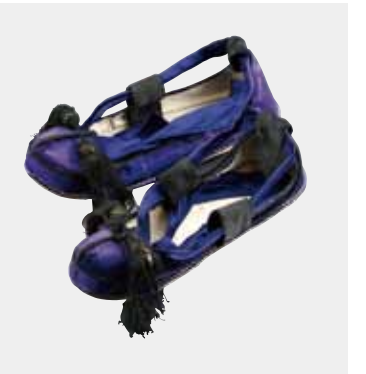
①



②

① 길이 26 높이 41 | 192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② 버선본집 | 가로 9.3~10.7 세로 8.1~10.2 | 국립민속박물관

석 *(464p.)*



영친왕비 청석 | 길이 25 높이 5.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설피 *(468p.)*



길이 42 너비 29.5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운혜 *(545p.)*



①



②

① 남자 운혜 | 길이 26 높이 5.5 | 18세기 후반 | 국립민속박물관, ② 여자 운혜 | 길이 18 너비 5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유혜 *(557p.)*



길이 28.5 너비 7.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장화 *(583p.)*



누비화 | 길이 32 높이 39 | 밀창군 이직 묘 출토 | 18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타래버선 *(679p.)*



①



②

① 길이 20.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길이 21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짚신 *(643p.)*



①

정 *(604p.)*



버선 | 전체길이 54.5 발길이 24.5 바닥지름 8 | 김확 묘 출토 | 1633 | 경기도박물관



② 김득신

① 길이 27 너비 8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득신 | 성하직구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태사혜 *(684p.)*





① 길이 18.3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유아용 태사혜 | 길이 15 너비 5.5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혜 *(733p.)*





① 운혜 | 195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② 흑피혜·녹피혜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흑피화 *(762p.)*



흑피화를 신은 악사 | 오향친제반차도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장신구

관자 *(88p.)*



지름 1.5~2.5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고이댕기 *(71p.)*



길이 270 폭 10 | 고려대학교박물관

귀고리 *(106p.)*



① 태환식 원추형 귀고리 | 길이 6 | 서울 광진구 능동 | 고구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다조식 귀고리 | 길이 8.3 | 충남 공주 무령왕릉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③ 태환식 귀고리 | 길이 8.7 지름 3.8 | 경북 경주 보문동 부부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④ 세환식 다조식 귀고리 | 길이 7.6 | 경남 합천 옥전 24호분 | 가야 | 합천박물관, ⑤ 은제 귀고리 | 길이 5.8 | 경기도 개성 부근 | 고려 | 국립중앙박물관, ⑥ 백제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⑦ 국립민속박물관

규 *(109p.)*



영친왕 규와 주머니 | 길이 17.3 너비 4.2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노리개 *(135p.)*



①



②



③

① 대삼작노리개 | 전체길이 4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괴불노리개 | 길이 13.5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③ 범발톱노리개 | 길이 15 | 20세기 초반 | 국립민속박물관

다회 *(148p.)*



다회틀 | 김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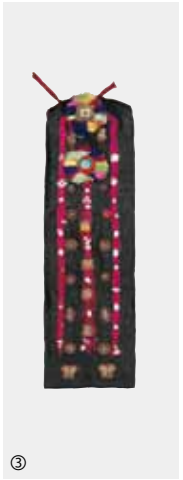
도투락댕기 *(184p.)*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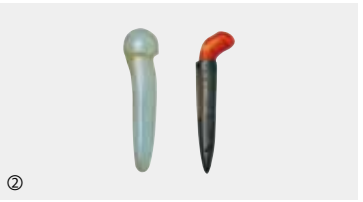
③

① 회흔례도 중 부분 | 18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114 너비 22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③ 길이 95.5 너비 30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동곳 *(191p.)*



①



②

① 은제 동곳 | 길이 5.1~9.6 | 고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길이 3.7~4.5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뒤꽂이 *(201p.)*



①



②

① 국화뒤꽂이 | 길이 7 너비 4.2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빗치개뒤꽂이 | 길이 18.4 너비 4.8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떠구지 *(204p.)*





① 가로 36.5 세로 23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영친왕비의 큰머리 후봉잠 | 길이 32.6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떨잠 *(206p.)*







① 영친왕비 백옥 꽃떨잠 | 길이 11.3 지름 8.2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영친왕비 백옥 나비떨잠 | 높이 9 폭 7.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③ 떨잠 꽂은 어여머리 | 권오창

말뚝댕기 *(213p.)*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목걸이 *(247p.)*







① 9절 목걸이 | 지름 16 | 충남 공주 무령왕릉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② 곡옥부 목걸이 | 경북 경주 노서동 | 길이 33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③ 경흥식 다수곡옥부 | 길이 64 | 경북 경주 천마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목도리 *(250p.)*



엘리자베스 키스 | 연날리기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목판댕기 *(251p.)*



목판댕기 하고 있는 여종 | 김홍도 | 후원유연 중 부분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반지 *(280p.)*







① 금반지 | 지름 1.5 | 경북 경주 금령총 | 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② 은제 반지 | 지름 2.1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③ 가락지 | 지름 3 두께 1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방심곡령 *(285p.)*



제복 | 길이 97 화장 84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배씨댕기 *(289p.)*



길이 3.5 | 19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비녀 *(311p.)*



①



②

① 길이 9~15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② 의기 계월향 초상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사선 *(4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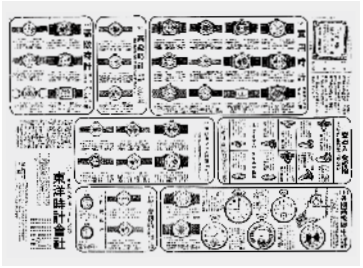
①



②

① 김홍도 | 노상파안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신랑전안 | 기산풍속도 | 조선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시계 *(488p.)*



동양시계회사 광고 | 1937. 12. 7 | 동아일보

안경 *(502p.)*



①

안경집 *(503p.)*



가로 15.5 세로 8 | 국립민속박물관



②

① 꺾기다리 안경 | 길이 13 지름 4.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득신 | 밀희투전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어사화 *(518p.)*



①



②

① 어사화 | 길이 165 | 19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홍도 | 담와 홍계희 평생도 중 부분 | 18세기 후반 | 국립중앙박물관

잠 *(573p.)*



①



②



③

① 용잠 | 길이 37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칠보매죽잠 | 길이 31.2 비녀머리 3.9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③ 죽절잠 | 길이 22 | 조선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장도 *(576p.)*



①



②

① 온양민속박물관, ② 미인도 | 근대 | 동아대학교박물관

제비부리댕기 *(615p.)*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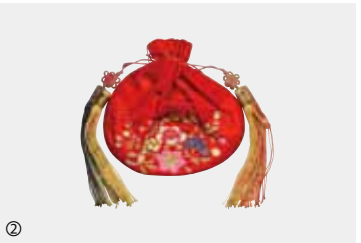
②

① 길이 53.3 너비 7 | 국립민속박물관, ② 길이 107 | 근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주머니 *(627p.)*



①



②



③

① 영친왕비 수복자문 자수 귀주머니 | 높이 14 너비 14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두루주머니 | 길이 10 너비1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이진 십장생문 자수 약주머니 | 높이 14 너비 14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첩지 *(658p.)*



길이 6.3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팔찌 *(693p.)*



① 은제 용문 팔찌 | 지름 8 | 충남 공주 무령왕릉 | 백제 | 국립공주박물관, ② 금제 톱니식 팔찌 | 지름 8 | 경북 경주 노서동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③ 금판환식 팔찌 | 너비 2.1 지름 7.2 | 경북 경주 황남대총 북분 |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④ 은도금 타출 꽃 새무늬 팔찌 | 지름 9 | 고려 | 국립중앙박물관

패옥 *(696p.)*



영친왕비 패옥 | 길이 77 너비 9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폐슬 *(700p.)*



영친왕비 폐슬 | 길이 54 너비 35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포선 *(705p.)*





① 성협 | 노상풍정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외출 중인 상제

하피 *(713p.)*



길이 49.5 너비 11 | 20세기 초반 | 세종대학교박물관

향갑 *(730p.)*



은삼작노리개 | 술길이 3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홀 *(742p.)*



① 길이 84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상 | 조선 | 경기도박물관

후수 *(756p.)*



길이 78 끈길이 4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흉배 *(758p.)*



① 흉배판 | 가로 19.5 세로 19.5 두께 2 | 19세기 말 | 국립민속박물관, ② 오조룡보판 | 지름 19 두께 2.7 | 1896 | 국립민속박물관, ③ 단학흉배 | 가로 20 세로 21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④ 단호흉배 | 가로 20 세로 21.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⑤ 공작흉배 | 이존도 초상 중 부분 | 1740 | 충현박물관, ⑥ 사자흉배 | 김중만 초상 중 부분 | 18세기 | 경기도박물관

머리모양

가체 *(25p.)*



① 미인도 | 조선 후기 | 해남 윤씨 종가, ② 가로 12 세로 1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건귁 *(57p.)*



① 묘주 부인의 시녀들 | 안악 3호분 | 고구려, ② 부엌에서 일하는 여인 | 안악 3호분 | 고구려

단발머리 *(157p.)*



여류음악가 박경희씨 귀국 | 1928. 10. 24 | 동아일보

대수 *(173p.)*



영친왕비 적의 차림 대수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땋은머리 *(203p.)*



명차는 모양 | 기산풍속도 | 2002년 복제 | 국립민속박물관

상투 *(453p.)*





① 윤집 초상 | 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② 김홍도 | 점심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새앙머리 *(456p.)*





① 185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나인복 | 권오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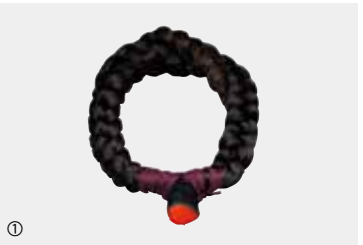
쌍계 *(498p.)*





① 덕흥리 고분 | 고구려 | 국립중앙박물관, ② 평생도 중 부분 | 20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어여머리 *(519p.)*





① 어염족두리 | 길이 31 | 19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② 예복 차림의 순정효황후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쪽머리 *(647p.)*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얹은머리 *(520p.)*





① 환계를 한 여인 | 안악 3호분 | 고구려, ② 신윤복 | 단오풍경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첩지머리 *(659p.)*



①



②

① 도금봉첩지 | 길이 5 | 조선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② 상류사회의 부인

큰머리 *(678p.)*



큰머리 올린 여인

하이칼라머리 *(711p.)*



석남 송석하 가족사진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경대 *(58p.)*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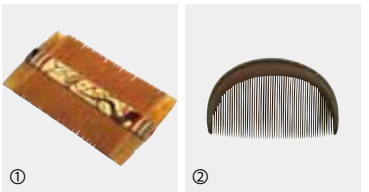
① 가로 13 세로 17 높이 12 | 조선 후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홍도 | 큰머리 여인 | 19세기 | 서울대학교박물관

박가분 *(277p.)*



가로 34.8 세로 34.8 높이 1.7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빗 *(313p.)*



① ②

① 참빗 | 길이 9 너비 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얼레빗 | 길이 11 너비 7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연지 *(526p.)*



지름 4 두께 1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화장재료 *(750p.)*



영친왕비 청화백자당초문 분합 | 지름 6.6 높이 2.8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일습

구군복 *(96p.)*





① 철종어진 |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② 권오창

궁녀복 *(103p.)*







① 화정능행도병풍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② 신축진찬도병풍 중 부분 | 국립고궁박물관, ③ 무신년진찬도 중 부분 | 국립중앙박물관

계례복 *(65p.)*



초례 | 경북 안동 | 1992 | 김시상

관례복 *(86p.)*



시가례 | 경북 안동 | 1992 | 김시상

교복 *(92p.)*





① 여자 여름 교복 | 1950년대 | 중앙여자고등학교,
② 남자 겨울 교복 | 1960년대 | 서울역사박물관

경찰복 *(61p.)*





① 구한말 순검의 경찰복, ② 경무관 복장

기녀복 *(112p.)*



신윤복 | 청루소일 | 조선 후기 | 간송미술문화재단

돌복 *(189p.)*



돌복과 돌상 | 1937 | 김영준

농악복식 *(139p.)*



① 걸궁패 | 1938 | 국립민속박물관, ② 구례잔수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③ 평택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④ 이리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⑤ 임실필봉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⑥ 진주삼천포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⑦ 강릉농악 | 국립민속박물관

면복 *(222p.)*





① 익종 어진(7장 면복) | 19세기 | 국립고궁박물관, ② 순종(12장 면복) | 순종실기 | 최연우

무복 *(259p.)*





① 바리공주 신장을 한 무녀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산마누라 신장을 한 무녀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문관대례복 *(263p.)*





① 광수 흑단령 | 길이 118 품 45 화장 91 | 조선 후기 | 고려대학교박물관, ② 동농 김가진 | 국립민속박물관

상복 *(447p.)*



경북 안동 | 학봉종택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백일옷 *(294p.)*



백쪽저고리와 바지 | 저고리길이 33 품 28 화장 33, 바지길이 43 허리 55 | 국립민속박물관

상복 *(450p.)*





① 상복 차림의 사대부들 | 기영회도 중 부분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② 남구만 초상 | 18세기 초반 | 국립중앙박물관

승복 *(486p.)*



권오창

시복 *(490p.)*



권응수 초상 | 1604 | 권경민

신식군복 *(493p.)*





① 1900년 이후 더블브레스티드 형태의 육군 예장 | 육군박물관, ② 1897년 제식의 늑골복 형태의 육군 예장

양복 *(510p.)*





①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최신 류행되는 남자의 가을 양복 | 1933. 9. 13 | 조선중앙일보

양장 *(514p.)*





① 첫 양장 여성 윤고라, ② 양장점 | 서울 서대문구 | 1960년대 | 서울역사박물관

원불교복 *(547p.)*



남자 법의 | 섶길이 83 품 23 소매길이 33 | 원불교 역사박물관

웨딩드레스 *(552p.)*





① 영친왕비 결혼 기념사진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② 1971 | 안우정

융복 *(558p.)*





① 권오창, ② 융복닙은모양 |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복 *(611p.)*



종묘대제 재현 | 서울 종로구 | 2009 | 서헌강

조복 *(619p.)*



이하응 초상 금관조복본 | 18~19세기 | 국립중앙박물관

천주교복 *(65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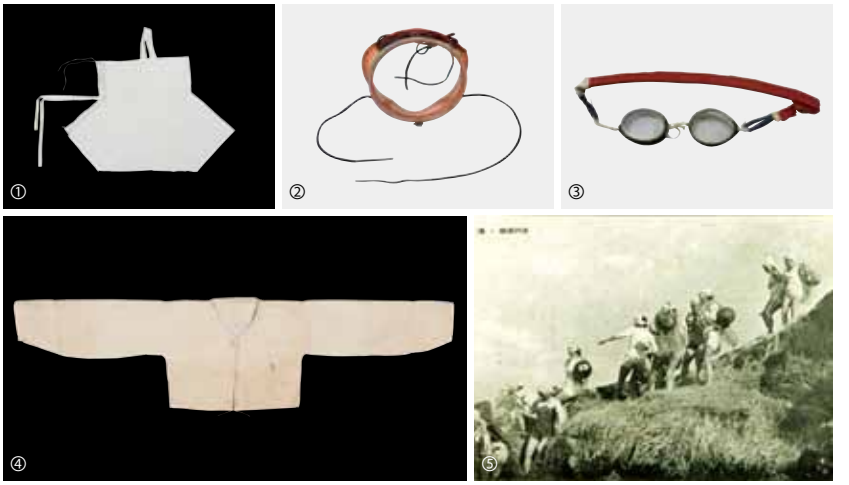
한국식 제의와 영대 |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탈춤복식 *(680p.)*



① 노장(봉산탈춤) | 국립민속박물관, ② 말뚝이(고성오광대) | 국립민속박물관, ③ 백정과 양반(하회별신굿탈놀이) | 국립민속박물관, ④ 영감과 덜머리집(봉산탈춤) | 국립민속박물관, ⑤ 초랭이와 이매(하회별신굿탈놀이)

해녀복 *(724p.)*



① 물소중이 | 길이 49 허리 72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② 왕눈 | 광복 이후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③ 족쇄눈 | 길이 12.5 너비 4.5 | 광복 이후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④ 물적삼 | 길이 35 품 44 화장 69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⑤ 제주 해녀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혼례복 *(739p.)*



① 일제강점기, ② 1933 | 국립민속박물관, ③ 1961 | 최은수

염색

꼭두서니 *(121p.)*



국립민속박물관

날염 *(127p.)*



날염보 | 봉황문인문보 | 국립고궁박물관

납힐 *(132p.)*



납힐 남염 | 자연염색박물관

도토리 *(184p.)*



국립민속박물관

소방목 *(473p.)*



국립민속박물관

오미자 *(533p.)*



국립민속박물관

오배자 *(534p.)*



국립민속박물관

울금 *(546p.)*



국립민속박물관

자초 *(572p.)*



국립민속박물관

쪽 *(645p.)*







쪽 염색 | 전남 나주 | 최은수
① 니람, ② 니람과 잿물 혼합, ③ 염색한 직물을 건조

협힐 *(732p.)*



협힐 홍화염 | 자연염색박물관

홍화 *(743p.)*


①


②


③


④

홍화염색 | 충북 단양 | 2009 | 김경열
① 잿물에서 색소 추출, ② 오미자신국을 넣어 중화 발색, ③ 발색된 염액에 염색작업, ④ 완성된 연지

황련 *(754p.)*



국립민속박물관

황벽 *(754p.)*



국립민속박물관

회염 *(755p.)*



회염보자기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무늬

과실무늬 *(83p.)*


①


②

① 석류와 석류꽃무늬 | 안동 권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18세기 전반 | 경기도박물관, ② 포도다람쥐무늬 | 안동 권씨 묘 출토 당의 중 부분 | 18세기 전반 | 경기도박물관

곤충무늬 *(7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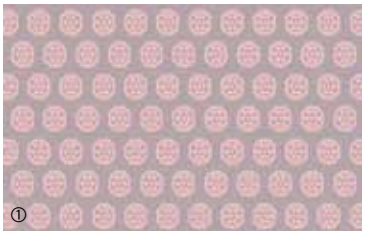

①


②


③

① 잠자리무늬 | 파평 윤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16세기 | 고려대학교박물관, ② 나비무늬 | 청송 심씨 묘 출토 습신 중 부분 | 18세기 | 충북대학교박물관, ③ 벌무늬 | 여흥 민씨 묘 출토 천금 중 부분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기하무늬 *(116p.)*


①


②

① 귀갑무늬 도식 | 아미타불복장 직물 중 부분 | 14세기 |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금무늬 도식 | 안동 권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18세기 | 국립문화재연구소

길짐승무늬 *(118p.)*







① 기린흉배 | 가로 25.5 세로 23.1 |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② 쌍호흉배 | 가로 21 세로 22.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③ 거북흉배 | 가로 21 세로 24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날짐승무늬 *(128p.)*







① 운안흉배 | 유순익 초상 중 부분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② 운학흉배 | 이세백 초상 중 부분 | 18세기 | 경기도박물관, ③ 꿩무늬 | 영친왕비 적의 중 부분 | 근대 | 국립고궁박물관

동자무늬 *(194p.)*





① 활옷 중 부분 | 20세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청주 한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16세기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문자무늬 *(267p.)*





① 영친왕 사규삼 | 근대 |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② 면사 중 문자무늬 | 고려대학교박물관

모란무늬 *(234p.)*



모란넝쿨무늬 | 장기 정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17세기경 | 안동대학교박물관

보배무늬 *(300p.)*



불가의 팔길상무늬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봉황무늬 *(309p.)*





① 동래 정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② 사천 목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사계절꽃무늬 *(433p.)*



사계절꽃넝쿨무늬 | 여흥 민씨 묘 출토 장옷 중 부분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사군자무늬 *(434p.)*



사군자와 모란무늬 | 안동 김씨 묘 출토 직물 중 부분 | 온양민속박물관

연꽃무늬 *(523p.)*





① 연안 김씨 묘 출토 치마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② 의원군 묘 출토 단령 중 부분 | 경기도박물관

용무늬 *(541p.)*





① 태조 어진 중 부분 | 1872 | 어진박물관, ② 순정효황후 원삼 중 부분 | 근대 | 세종대학교박물관

자연산수무늬 *(570p.)*







① 구름보배무늬 | 평양 이씨 묘 출토 저고리 중 부분 | 16세기 | 경기도박물관, ② 구름무늬 | 여흥 민씨 묘 출토 관덮개 중 부분 | 17세기 | 경기도박물관, ③ 산수무늬 | 흉배 중 부분 | 19세기 | 경기도박물관

용어

갈옷 *(32p.)*



남성 갈적삼·갈중이 | 2013 | 고부자

갈무리 *(30p.)*



다듬이질과 다리미질 | 국립민속박물관

다듬이질 *(145p.)*



다듬이질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다리미질 *(147p.)*



달님질허고 |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모던보이 *(233p.)*



모던보이의 산보 | 1928. 2. 7 | 조선일보

모던걸 *(230p.)*





① 꼬리피는공작 | 1928. 2. 9 | 조선일보, ② 여성 선전시대가 오면 | 1928. 2. 7 | 조선일보

미용실 *(2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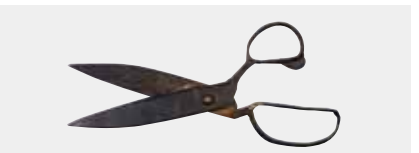


머리인두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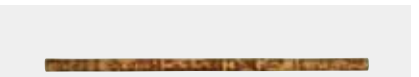
바느질 *(272p.)*



①



②



③



④



⑤



⑥

① 반짇고리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② 바느질 가위 | 길이 27 | 1950 | 국립민속박물관, ③ 바느질 자 | 길이 55.2 너비 2.2 두께 0.5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④ 실패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⑤ 골무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⑥ 침저허고 | 기산풍속도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백의 *(293p.)*



사월 초파일 | 1930년대 | 국립민속박물관

상장 *(452p.)*



경북 안동 학봉종택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색복장려운동 *(459p.)*



색복장려 깃발 | 일제강점기 | 국립여성사전시관

생활한복 *(462p.)*



① 까치 차림옷 | 20세기 | 우리들의 벗, ② 누비 두루마기·주름 치마 | 20세기 | 돌실나이

세탁 *(470p.)*



① 청계천 빨래터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김홍도 | 빨래 | 조선 후기 | 국립중앙박물관

양복점 *(513p.)*



종로 양복점 도구 모음 | 국립민속박물관

양태 *(517p.)*



지름 34.5 안지름 1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이발소 *(563p.)*



① 이발용 소도구 | 국립민속박물관, ② 교동이발관 | 인천 강화 | 2012 | 국립민속박물관

재봉 *(585p.)*



①



②

① 바느질 하는 여인들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② 재봉틀 전단지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포목점 *(703p.)*



독일양행포목부 광고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한복 *(717p.)*



2016 | 이지영

출토복식 *(665p.)*



①



②



③



④



⑤



⑥

출토복식 보존처리 과정 | 국립민속박물관
① 출토, ② 응급 세척, ③ 세척망 고정, ④ 분무로 헹구기, ⑤ 손다림질, ⑥ 보존처리 완료(대창의)

모자
상의
하의
겉옷
대
속옷
신발
장신구
머리모양
직물
화장
갈무리
바느질
옷

속담·관용구

II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가난한 상주 방갓 대가리 같다	1. 사람의 몰골이 허술하여 볼품없어 보임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2. 무슨 물건이 탐탁하지 못하고 어색해 보이며 값없어 보임을 이르는 말. 3. 머리가 모시처럼 희게 되었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말을 이르는 말.
2	가진 돈이 없으면 망건 꼴이 나쁘다	몸에 지닌 돈이 없으면 비록 망건을 썼어도 그 꼴이 하찮게 보인다는 뜻으로, 돈이 없으면 그만큼 겉모양도 허술해 보이고 마음도 떳떳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갈모 형제라	갈모의 모양이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은 데서, 아우가 형보다 나은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감나무 밑에 누워도 삿갓 미사리를 대어라	감나무 밑에 누워서 절로 떨어지는 감을 얻어먹으려 하여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삿갓 미사리를 입에 대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의당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르는 말.
5	감투를 쓰다	벼슬자리나 높은 지위에 오름을 속되게 이르는 말.
6	감투가 커도 귀가 짐작이라	귀를 가늠하여 감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어떤 사물의 내용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짐작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감투를 벗다	벼슬자리를 그만둠을 속되게 이르는 말.
8	감투를 씌우다	벼슬자리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만듦을 속되게 이르는 말.
9	갓 사러 갔다가 망건 산다	1. 사려고 하던 물건이 없어 그와 비슷하거나 전혀 쓰임이 다른 것을 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제 목적을 바꾸어 남의 권고에 따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갓 쓰고 구두 신기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차려입은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1	갓 쓰고 넥타이 매기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차려입은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2	갓 쓰고 망신한다	한껏 점잔을 빼고 있는데 뜻하지 아니한 망신을 당하여 더 무참하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갓 쓰고 박치기해도 제멋이다	갓 쓰고 박치기를 하여 갓이 망가지게 되는 것도 제멋으로 하는 짓이란 뜻으로, 남이 어떤 짓을 하거나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
14	갓 쓰고 자전거 타기[탄다]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차려입은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15	갓장이 헌 갓 쓰고 무당 남 빌려 굿하고	제가 제 것을 만들어 가지지 못하고 제가 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개 대가리에 관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개구멍에 망건 치기	남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막고 있다가 막던 그 물건까지 잃는다는 뜻으로, 되지도 아니할 일을 공연히 욕심만 내어 어리석게 시작하였다가 도리어 손해나 망신을 당함을 이르는 말.
18	개구멍으로 통량갓을 굴려 낼 놈	남을 속이는 데 놀랄 만큼 교묘한 사람을 비꼬는 말.
19	개에게 남바위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말을 이르는 말.
20	고깔 뒤의 군 헝겊	필요도 없는 것이 늘 붙어 다녀 귀찮게 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골이 상투 끝까지 나다	매우 화가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관 쓴 도둑놈이다	공금이나 국민들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관리라는 말을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3	권에 띄어[못 이겨] 방립 산다[쓴다]	남이 권하는 말이면 무엇이나 잘 듣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24	급하다고 갓 쓰고 똥 싸랴	아무리 급해도 예의는 지켜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급하면 나라님 감투끈 살 돈도 잘라쓴다	사정이 급하게 되면 임금의 감투끈을 살 돈까지도 잘라내다가 쓰게 된다는 뜻으로, '어쩔 수 없는 급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이러저러한 형편이나 사정을 가리게 되지 않음'을 비겨 이르던 말.
26	나라님 망건값도 쓴다	사람이 급할 때 어떤 돈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써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무릎에 망건 쓴다	자기 주견이 없이 남이 한다고 덩달아 따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8	너울 쓴 거지	배가 몹시 고파서 체면을 차릴 수 없게 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9	노닥노닥 기워도 마누라 장옷	지금은 낡았지만 처음에는 좋았다는 뜻으로, 본디 소중한 물건이었고 아직도 그전의 모습이나 가치가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30	누워먹는 팔자라도 삿갓 밑을 도려야 한다	의당 자기에게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르는 말.
31	달밤에 삿갓 쓰고 나온다	가뜩이나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2	뚫어진 벙거지에 우박 맞듯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구 쏟아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	망건 끝에 앉았다	어떤 일에 얽매여 꼼짝도 못 하게 됨을 이르는 말.
34	망건 쓰고 귀 안 빼는 사람 있느냐	망건을 쓰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귀를 내놓는다는 뜻으로, 돈 버는 일이나 먹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5	망건 쓰고 세수한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다음에 망건을 쓰는 법인데 망건을 먼저 쓰고 세수를 한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를 바꾸어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36	망건 쓰자 파장	준비를 하다가 그만 때를 놓쳐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7	망건 편자를 줍는다	아무 잘못도 없이 매를 맞고 의관을 찢기고도 호소할 데가 없어 남아 있는 망건 편자만 줍는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8	망건골에 앉았다	어떤 일에 얽매여 꼼짝도 못 하게 됨을 이르는 말.
39	못 먹는 잔치에 갓만 부순다	소득 없는 일에 손해만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0	못난 색시 달밤에 삿갓 쓰고 나선다	가뜩이나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1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망건값 달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음을 이르는 말.
42	미운 중놈이 고깔 모로 쓰고 이래도 밉소 한다	미워하는 중이 고깔을 바로 써도 미운데 오히려 모로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멋을 부렸는데도 미운가 하고 묻는다는 뜻으로, 미운 것이 더욱더 미운 짓만 골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3	밤에 패랭이 쓴 놈 보일라	저녁밥을 너무 일찍 먹으면 밤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패랭이 쓴 환상이 보이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4	벙거지 시울 만지는 소리	애매하고 모호해서 알 수 없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5	벙거지 시울을 만진다	말이 막히어 어색하고 무안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6	벙거지 조각에 콩가루 묻혀 먹을 놈	털로 만든 벙거지 조각에 아무리 콩가루를 묻혀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먹는다는 뜻으로, 못할 짓을 하여 재물을 남몰래 빼앗아 가는 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7	부서진 갓모자가 되었다	사람이 남에게 꾸지람을 듣고 무안을 당하였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8	부아가 상투 끝까지 치밀어 오르다	부아가 몹시 치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9	사내가 우비하고 거짓말은 가지고 다녀야 한다	남자가 비 올 때 쓸 우비와 급할 때 둘러댈 거짓말을 갖추고 다녀야 한다는 뜻으로, 남자가 처세하려면 거짓말도 필요함을 이르는 말.
50	사내자식 길 나설 때 갈모 하나 거짓말 하나는 가지고 나서야 한다	남자가 처세하려면 거짓말도 필요함을 이르는 말.
51	사모 바람에 거드럭거린다	나쁜 짓을 하고도 벼슬아치라는 배짱으로 도리어 남을 야단치고 뽐내며 횡포를 부린다는 말.
52	사모 쓴 도둑놈	갖가지 세금과 뇌물 따위로 남의 재물을 탐하는 벼슬아치나 양반을 욕하는 말.
53	사모에 갓끈[영자]	끈이 필요 없는 사모에 갓끈이나 영자를 달았다는 뜻으로, 차림새가 제격에 어울리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4	사주에 없는 관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	1. 타고난 운명에 없는 벼슬을 하면 이마가 벗어진다는 뜻으로, 제 분수에 넘치는 벼슬을 하게 되면 도리어 괴롭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억지로 이루어 놓으면 나중에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5	삿갓을 씌우다	손해를 입히거나 책임을 지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6	삿갓에 쇄자질	차림새가 제격에 어울리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7	상감님 망건 사러 가는 돈도 써야만 하겠다	감히 손댈 수 없는 임금의 망건 살 돈조차도 우선 쓰고 봐야 하겠다는 뜻으로, 나중에 어떤 벌을 받을지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여야 하겠다고 단정하여 이르는 말.
58	상투 위에 올라앉다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르는 행동을 이르는 말.
59	상투를 잡다	(속되게) 가장 높은 시세에 주식을 매입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0	상투를 틀다	총각이 장가들어 어른이 됨을 이르는 말.
61	상투밑을 치다	상투밑의 머리털을 돌려, 면도하듯 빡빡 밀어 깎는 것을 이르는 말.
62	아저씨 아니어도 망건이 동난다	1. 아저씨가 사지 않더라도 망건 사 갈 사람은 많다는 뜻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도 도와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탐난다는 말.
63	앉은뱅이의 망건 뜨기	궁상스럽고 옹색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4	어떻게 된 감투끈인지 모른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65	연주창 앓는 놈의 갓끈을 핥겠다	하는 짓이 몹시 인색하고 더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6	열없는 색시 달밤에 삿갓 쓴다	정신이 흐려져 망령된 짓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7	열이 상투 끝까지 오르다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8	영감의 상투	보잘것없이 작은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69	영감의 상투 굵어서는 무엇을 하나 당줄만 동이면 그만이지	실속 있게 적당하면 되지 그 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말.
70	영감의 상투가 커야 맛이냐	실속 있게 적당하면 되지 그 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말.
71	오뉴월 자주 감투도 팔아먹는다	1. 먹을 것이 궁한 때인 오뉴월에는 팔 수 없는 자주 감투까지 판다는 뜻으로, 물품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팖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집안 살림이 궁하여 도무지 무엇 하나 팔아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말.
72	오소리 감투가 둘이다	어떤 일에 주관하는 자가 둘이 있어 서로 다툼이 생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3	오입쟁이 헌 갓 쓰고 똥 누기는 예사다	방탕한 오입쟁이라 헌 갓을 쓰고 똥을 누는 따위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되지 못한 자가 못된 짓을 하여도 놀랄 것은 아니라는 말.
74	우장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제 정성	몸에 걸칠 것이 없어서 볏짚으로 엮은 우장을 입고 제사를 지내도 정성만 지극하면 된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임을 이르는 말.
75	이미 씌워 놓은 망건이라	남이 한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6	자비가 짚 벙거지	겉으로 자비로운 체하나 사실은 그렇지 못함을 이르는 말.
77	장옷 쓰고 엿 먹기	겉으로는 점잖고 얌전한 체하면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8	저 중 잘 달아난다 하니까 고깔 벗어 들고 달아난다	거짓으로 칭찬한 말을 곧이듣고 신이 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9	저모립 쓰고 물구나무를 서도 제멋이다	갓 쓰고 박치기를 하여 갓이 망가지게 되는 것도 제멋으로 하는 짓이란 뜻으로, 남이 어떤 짓을 해도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을 이르는 말.
80	주먹 맞은 감투라	1. 아주 쭈그러져서 다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된 모양을 이르는 말. 2.잘난 체하다가 핀잔을 듣고 무안하여 아무 말 없이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1	중놈은 장長이라도 죽으니 무덤이 있나 사니 상투가 있나	중의 우두머리라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조차 가지지 못한다고 중을 업신여겨 이르는 말.
82	중의 망건	몹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3	중의 망건 사러 가는 돈이라도	일이 궁박하면 염치를 돌보지 않고 무슨 방법이라도 하여 힘쓰겠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4	중의 망건값 안 모인다	필요 없는 지출을 아니 하면 돈이 모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아니하다는 말을 이르는 말.
85	중의 상투	몹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6	철 묵은 색시 가마[승교] 안에서 장옷 고름 단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작 일이 닥쳐서야 당황하여 다급히 서두르는 경우를 비꼬아 이르는 말.
87	초립둥이 장님을 보았다	길에서 장님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린 장님을 만나면 더욱 그렇다는 데서, 매우 불길한 경우를 이르는 말.
88	촌 영감 망건만 쓰면 어데 가냐고 묻는다	여간해서 옷을 차려입지 않는 촌사람이 망건만 써도 어디 나들이 나가느냐고 묻듯이, 색다르게 옷을 차려 입었다고 하여 바깥나들이 가는 줄로 여기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89	큰 벙거지 귀 짐작	벙거지가 아무리 커도 귀에는 걸려서 흘러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으로, 짐작으로 한 어떤 일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나 짐작으로 어떤 일을 대충 처리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0	탕건 쓰고 세수한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다음에 망건을 쓰는 법인데 망건을 먼저 쓰고 세수를 한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를 바꾸어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91	파총 벼슬에 감투 걱정한다	하찮은 파총 주제에 감투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별로 대단치 아니한 일을 맡고도 시끄럽게 자랑하고 다니며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2	패랭이에 숟가락 꽂고 산다	아주 가난하여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을 정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3	하라는 파총에 감투 걱정한다	대단하지 아니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공연히 지나친 걱정을 자랑삼아 한다는 말.
94	한더위에 털감투	1. 제철이 지나 쓸데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격에 맞지 아니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5	한집에 감투쟁이 셋이 변變	무슨 일에 나서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리어 일이 잘 안된다는 말.
96	할아버지 감투를 손자가 쓴 것 같다	의복 따위가 너무 커서 보기에 우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7	헌 갓 쓰고 똥 누기	체면을 세우기는 이미 글렀으니 좀 염치없는 짓을 한다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말.
98	후처에 감투 벗어지는 줄 모른다	후처에게 반하여서 체면도 돌보지 아니함을 비꼬는 말.

상의

1	개 발에 토시작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기생의 자릿저고리	1. 기생의 자릿저고리는 기름때가 묻고 분 냄새가 나는 더러워진 것이라는 뜻으로,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말씨가 간사스러운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2. 요란히 분 냄새가 풍기는 비단 저고리이기는 하나 낡고 꼬깃꼬깃해져 볼품이 없는 기생의 자릿저고리처럼, 이름은 요란하나 실상은 헌 넝마와 같이 전혀 쓸모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단삼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격에 맞지 않은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떡 삶은 물에 중의中衣 데치기	1.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겸하여 해치움을 이르는 말. 2. 버린 물건을 이용하여 소득을 봄을 이르는 말.
5	여름 난 중의中衣로군	여름내 입어 명색만 남은 중의처럼, 형편없이 됐으면서 장담만 남아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	격에 맞지 아니한 짓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중의中衣 벗고 환도 차는 격	군사가 복장을 다 갖추어 입은 다음에 겉에 환도를 차게 되어 있는데 벌거벗은 알몸에 환도를 차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매우 어색하게 보임을 이르는 말.
8	중의中衣 벗은 아이 마구 풀 끌어 넣듯	음식을 마구 먹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털토시를 끼고 게 구멍을 쑤셔도 제 재미라	좋은 털토시를 끼고 게 구멍을 쑤시는 궂은일을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면 그만이라는 뜻으로, 제 뜻대로 하는 일은 남이 참견할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홑중의에 겹 말	홑겹으로 만든 중의에 겹으로 된 말기를 단다는 뜻으로, 격에 맞지 아니하고 너무 지나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2	고의 가랑이를 뜯어 적삼을 꿰맨다	일이 급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하거나 행함을 이르는 말.
3	개 발싸개 같다	보잘것없이 허름하고 빈약한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4	곱다고 안아준 애기 바지에 똥싼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입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남의 다리에 행전 친다	1. 기껏 한 일이 결국 남 좋은 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남의 바지 입고 새 벤다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남의 바지 입고 춤 추기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남의 발에 감발한다	1. 기껏 한 일이 결국 남 좋은 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동지섣달에 베 잠방이를 입을망정 다듬이 소리는 듣기 싫다	1. 다듬이질 소리는 매우 듣기 싫은 소리임을 이르는 말. 2. 들볶이면서 대접을 받느니 고생스러워도 마음 편안히 지내는 것이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똥싼 누덕 바지 추키듯	남을 자꾸 추어주는 모양을 이르는 말.
11	물 묻은 치마에 땀 묻는 걸 꺼리랴	물이 묻어 젖은 치마에 땀방울이 묻는 것을 새삼스레 꺼리겠느냐는 뜻으로, 이왕 크게 잘못된 처지에서 소소하게 잘못된 것을 꺼릴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물 보기 전에 바지부터 벗는다	물도 보기 전에 물에 들어갈 채비로 바지를 벗는다는 뜻으로, 조급한 나머지 순서를 가리지 못하고 덤비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미친년의 치맛자락 같다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벌리고 다니는 미친 여자의 치맛자락과 같다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거두지 못하고 늘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사람의 옷차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바지 벗고 장도칼 차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15	바지가랭이에서 비파 소리가 난다	1. 어찌나 빠르게 걷는지 무릎을 꺾을 사이도 없이 마치 바짓가랑이에 자개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매우 빨리 걷는 모양을 이르는 말. 2. 매우 바삐 진행되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바지가랭이에서 자개바람이 인다	1. 어찌나 빠르게 걷는지 무릎을 꺾을 사이도 없이 마치 바짓가랑이에 자개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매우 빨리 걷는 모양을 이르는 말. 2. 매우 바삐 진행되거나 움직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바지까지 벗어 주다	도저히 내어 줄 수 없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줌을 이르는 말.
18	번연히 알면서 새 바지에 똥 싼다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새 바지에 똥 싼다	1. 염치없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잘된 것을 만져서 도리어 못 되게 그르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색시 그루는 다홍치마 적에 앉혀야 한다	1. 아내나 새 며느리를 길들이고 법도를 세우려면 다홍치마를 입는 새색시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 2. 못된 버릇을 고치고 좋은 버릇을 들이려면 못된 버릇을 처음부터 다잡아서 길들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생쥐 발싸개만 하다	물건이 아주 작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2	술독에 치마 두르듯	볼품없이 자꾸 덧감고 동인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아내 행실은 다홍치마 적부터 그루를 앉힌다	1. 아내나 새 며느리를 길들이고 법도를 세우려면 다홍치마를 입는 새색시 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 2. 못된 버릇을 고치고 좋은 버릇을 들이려면 못된 버릇을 처음부터 다잡아서 길들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얻는 것이 잠방이라	남에게 얻은 것이 그리 신통할 것이 없다는 말.
25	여름 솜바지저고리 생각하듯 한다	도와 줘야 할 사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26	열두 폭 말기를 달아 입었나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27	열두 폭 치마를 둘렀나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28	잠방이에 대님 치듯	어떤 일을 할 실력도 자신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경우를 비꼬는 말.
29	제 옷 벗어 남의 발에 감발 쳐 준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을 위한다고 내주거나, 남이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일에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0	좁은 입으로 말하고 넓은 치맛자락으로 못 막는다	말은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서 하라는 말.
31	짚신감발에 사립[사립짝] 쓰고 간다	어울리지 아니하고 어색하여 보기가 흉한 경우를 이르는 말.
32	치마 밑에 키운 자식	과부의 자식이라는 말.
33	치마가 열두 폭인가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34	치마에서 비파 소리가 난다	아주 바쁘게 싸대어 조금도 앉아 있을 겨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5	치마짜리가 똑똑하면 승전承傳막이 갈까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할 일 못할 일이 따로 있다는 말.
36	치마폭이 넓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37	치마폭이 스물네 폭이다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함을 비꼬는 말.
38	평양 병정의 발싸개 같다	물건이 더럽거나 행동이 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9	핫바지에 똥 싼 비위	비위가 매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0	헌 바지에 개 대가리 나오듯 한다	무슨 물건이나 사람의 얼굴이 삐죽이 내민 모양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41	황희 정승네 치마 하나 가지고 세 어이딸이 입듯	청빈한 황희 정승의 아내와 두 딸이 치마가 없어 치마 하나를 번갈아 입고 손님 앞에 인사하였다는 데서, 옷 하나를 여럿이 서로 번갈아 입음을 이르는 말.

겉옷

1	가진 놈의 겹철릭	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겹쳐서 가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거지 베 두루마기 해 입힌 셈 친다	1.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어 새 옷을 한 벌 입혀 준 셈 친다는 뜻으로,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줌을 이르는 말. 2.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거나,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았을 때 자기 위안 삼아 이르는 말.
3	남의 두루마기에 밤 주워 담는다	아무리 하여도 남 좋은 일만 한 결과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4	도포 입고 논 썰기	격에 맞지 않아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도포를 입고 논을 갈아도 제 멋이다	도포를 입고 진흙투성이인 논에 들어가 일을 해도 제가 좋아서 하면 그만 아니냐는 뜻으로, 사람은 저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
6	저 중 잘 뛴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뛴다	거짓으로 칭찬한 말을 곧이듣고 신이 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춘포 창옷 단벌 호사	춘포로 지은 옷 한 벌밖에 없어 입고 나가면 늘 호사한 것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허리띠가 길양식	길 가는 사람이 배가 고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다는 데서, 허리띠가 길 가는 데 양식을 대신한다는 말.
2	허리띠 속에 상고장上告狀 들었다	보기에는 허름한 베주머니에 기밀한 서류가 들었다는 뜻으로, 사람이나 물건이 외모를 보아서는 허름하고 못난 듯하나 실상은 비범한 가치와 훌륭한 재질을 지녔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옷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고쟁이를 열두 벌 입어도 보일 것은 다 보인다	1. 아무리 여러 번 감싸도 정작 가릴 것은 못 가렸다는 뜻으로, 요점을 얻지 못했다는 말. 2. 일을 서투르게 하면 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말.
2	그 속옷이 그 속옷이다	1.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명칭은 다르나 따져 보면 한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나 하는 일은 입쌀[흰 쌀] 한 말 들여 속곳[속옷] 하나에 풀하여도 풀이 안 선다	하는 일이 매사에 보람 없이 헛수고로 돌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베 걱정한다	머슴이 주제넘게 주인집 일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5	딸이 여럿이면 어미 속곳 벗는다	딸을 시집보내는 부담이 매우 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똥 묻은 속옷을 팔아서라도	일이 궁박하면 염치를 돌보지 않고 무슨 방법이라도 하여 힘쓰겠다는 말.
7	머슴보고 속곳 묻는다	1.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요긴한 일을 엉뚱하게 물어보나, 그가 알 리가 없다는 말. 2. 남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생소한 사람에게 자기만의 일을 말함을 이르는 말.
8	미친년의 속곳 가랑이 빠지듯	미친 여자가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고 하는 것을 단정하게 못하여 속곳이 겉으로 비어져 나온다는 뜻으로, 옷매무시가 단정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삼 년 묵은 새댁이 고쿨불에 속곳 밑 말려 입고 간다	어떤 일을 기다리기만 하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섣달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머슴이 주제넘게 주인집 일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11	세방살이군이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면서 제 옷도 변변히 못 입는 형편에 주인집 마누라의 속곳 마련할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주제넘게 남의 일에 대하여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2	속곳 벗고 은가락지 낀다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속곳 벗고 함지박에 들었다	속곳 벗고 알몸이 된 채 몸뚱이 하나 가릴 수 없는 함지박 속에 뛰어들었다는 뜻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낭패를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속곳 열둘 입어도 밑구멍은 밑구멍대로 다 나왔다	숨기려고 애를 써 보아도 숨길 수가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속옷까지 벗어 주다	1. 지나치게 선심을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상대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 될 구차한 형편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속저고리 벗고 은반지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시어미 속옷이나 며느리 속옷이나	모두 한 집안 식구의 것이라는 뜻으로, 구태여 내 것 네 것 가릴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	아이 낳는데 속옷 벗어 달란다	바쁘고 힘든 사람에게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첫날밤에 속곳 벗어 메고 신방에 들어간다	매사에 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염치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촌년이 늦바람 나면 속곳 밑에 단추 단다	어수룩한 사람이 어떤 일에 한번 혹하게 되면 도리어 정도를 지나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님 속곳 걱정한다	머슴이 주제넘게 주인집 일을 걱정한다는 뜻으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22	하룻저녁에 단속곳 셋 하는 여편네 속곳 벗고 산다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지내는 수가 많다는 말.

신발

1	가을에는 대부인 마누라도 나무 신짝 가지고 나온다	1. 가을걷이 때는 일이 많아서 누구나 바삐 나서서 거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는 것을 이르는 말.
2	갓 마흔에 첫 버선[보살]	오래 기다리던 일을 마침내 이루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개 발에 버선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	속되게 여자가 사귀던 남자와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과부의 버선목에는 은이 가득하고 홀아비의 버선목에는 이가 가득하다	과부는 살림살이가 알뜰하여 규모 있게 생활하므로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지만, 홀아비는 생활이 곤궁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구두 신고 발등 긁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꼴을 베어 신을 삼겠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갚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나막신 신고 대동선 쫓아간다	사람이 요량 없이 터무니없는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나막신 신고 돛단배 빠르다고 원망하듯	자기가 뒤떨어진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이 빨리 나아가는 것만 원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0	나올 적에 봤다면 짚신짝으로 틀어막을걸	저렇게 못난 사람이라면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짚신짝으로 틀어막을걸 잘못했다는 뜻으로, 지지리 못난 사람임을 핀잔하는 말.
11	남산골샌님은 뒤지하고 담뱃대만 들면 나막신을 신고도 동대문까지 간다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외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남의 발에 버선 신긴다	1. 기껏 한 일이 결국 남 좋은 일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른 채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남이야 삼승버선을 신고 못자리를 밟든 말든	남이야 무슨 짓을 하건 상관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냇물은 보이지도 않는데 신발부터 벗는다	하는 짓이 턱없이 성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노파리가 나다	노파리가 신인 것과 '신이 나다'의 신이 서로 소리가 같다는 데에서, 신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막 삼아도 짚신	아무렇게 해도 자기의 본바탕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됨을 비겨 이르는 말.
17	말 삼은 소 신[짚신]이라	말이 삼은 소의 짚신이라는 뜻으로, 일이 뒤죽박죽되어 못쓰게 되었다는 말.
18	말 태우고 버선 깁는다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임박해서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가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목화 신고 발등 긁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발이 편하려면 버선을 크게 짓고, 집안이 편하려면 계집을 하나 둬라	첩을 두면 집안이 편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버선 신고 발바닥 긁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버선목에 이 잡을 때 보아야 알지	지금은 모르더라도 장차 거지가 되어 버선목에서 이를 잡는 처지가 되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잘 산다고 너무 자랑하고 뽐내지 말라는 말.
24	버선목이라 오장을 뒤집어 보이지도 못하고	버선목처럼 뒤집어 보일 수도 없어 답답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상대편이 수긍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이나	버선목처럼 뒤집어 보일 수도 없어 답답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상대편이 수긍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6	비 오는 날 나막신 찾듯	몹시 아쉬워서 찾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뺨 잘 때리기는 나막신 신은 깍정이라	뺨 잘 때리기로는 나막신 신은 깍정이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되지 못하고 비열한 자가 도리어 잘난 체하며 남을 몹시 학대한다는 말.
28	살갑기는 평양 나막신	1. 신기에 편안한 평양 나막신처럼 붙임성이 있고 사근사근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안쪽이 넓은 평양 나막신처럼 몸은 작은데 음식은 남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을 비웃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29	색시 짚신에 구슬 감기가 웬일인고	1. 색시가 신는 하찮은 짚신에 구슬을 감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는 뜻으로, 격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많은 치장을 하면 도리어 보기에 어색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너무 과분하게 호사하게 된 경우를 비꼬는 말.
30	석새짚신에 구슬 감기	거칠게 만든 하찮은 물건에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나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1	세코짚신에는 제날이 좋다	짚신의 씨가 짚이면 날도 짚이 좋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분수에 알맞은 것이 가장 좋다는 말.
32	신 벗고 따라도 못 따른다	어떤 사람의 재주나 능력이 뛰어나서 아무리 힘을 써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	신 속에 똥을 담고 다니나 키도 잘 자란다	키가 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4	신 신고 발바닥 긁기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5	신발에 귀가 달렸다	쓸데없는 것이 덧붙어서 격에 맞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6	신을 거꾸로 신고	반가운 사람을 맞으러 허둥지둥 정신없이 행동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37	아무리 쫓겨도 신발 벗고 가랴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차릴 것은 차려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8	얼음 위에 나막신 신고 다니기	얼음판 위로 미끄러지기 쉬운 나막신을 신고 다닌다는 뜻으로, '어느 순간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를 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위태로운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9	연못 골 나막신을 신긴다	면전에 있는 사람을 치켜세움을 이르는 말.
40	오이 밭 지날 때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 지날 때 갓을 고쳐 쓰지 말라	남의 혐의를 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1	의주를 가려면서 신날도 안 꼬았다	큰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조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2	잘 되면 버선이 세 켤레고 못 되면 참밧줄이 세 개다	결혼 중매는 잘하게 되면 버선을 세 켤레 얻어 신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 참밧줄에 묶여서 매를 맞게 됨을 이르는 말.
43	지네 발에 신 신긴다	발 많은 지네 발에 신을 신기려면 힘이 드는 것처럼,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이 애를 쓴다는 말.
44	진날 나막신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찾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5	짚신도 제 날이 좋다	짚신의 씨가 짚이면 날도 짚이 좋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분수에 알맞은 것이 가장 좋다는 말.
46	짚신도 제짝이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짝이 있다는 말.
47	짚신에 국화 그리기	거칠게 만든 하찮은 물건에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나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8	짚신을 거꾸로 끌다	반가운 사람을 맞으려고 허둥지둥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9	짚신을 뒤집어 신는다	짚신을 오래 신기 위하여 골고루 해어뜨리려고 뒤집어서 신는다는 뜻으로, 몹시 인색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50	짚신장이 헌 신 신는다	어떠한 물건이 흔하게 있을 듯한 곳에 의외로 많지 않거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1	첫 사위가 오면 장모가 신을 거꾸로 신고 나간다	1. 처가에서 첫 사위를 대단히 반갑게 맞이함을 이르는 말. 2. 장모는 첫 사위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말.
52	촌년이 아전 서방을 하더니 초장에 길청 문밖에 와서 갖신 사 달라 한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 조그만 권력이라도 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잘난 체하며 몹시 아니꼽게 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3	털을 뽑아 신을 삼겠다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
54	피는 짚신 삼으면서 잡아야 다 잡는다	논의 피는 아무리 뽑아 버려도 한 없이 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다 없이 하려면 그 피를 뽑아 짚신을 삼으면서 자꾸 뽑아 내야 한다는 말.
55	헌 짚신도 제짝이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짝이 있다는 말.
56	헌신짝 버리듯	요긴하게 쓴 다음 아까울 것이 없이 내버리는 것을 이르는 말.

장신구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같은 값이면 은가락지 낀 손에 맞으랬다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을 경우라도 이왕이면 덕 있고 이름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개발에 주석 편자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1.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어떤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금관자 서슬에 큰 기침 한다	나쁜 짓을 하고도 벼슬아치라는 배짱으로 도리어 남을 야단치고 뽐내며 횡포를 부린다는 말.
5	남이 은장도 차니 나는 식칼을 낀다	자기 주견이 없이 남이 한다고 덩달아 따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닷새를 굶어도 풍잠 멋으로 굶는다	체면 때문에 곤란을 무릅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대모관자 같으면 되겠다	쓸모가 많아서 여러 방면에서 자주 찾아 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
8	대모관자 같으면 뛰겠다	대모관자라도 너무 자주 매었다 풀었다 하면 끊어지겠다는 뜻으로, 사람을 너무 자주 부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댕기 끝에 진주	매우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0	더벅머리 댕기 치레하듯	바탕이 좋지 않은 것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친 겉치레를 하여 오히려 더 흉하게 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동곳을 빼다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2	동정 못 다는 며느리 맹물 발라 머리 빗는다	일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멋만 부리는 밉살스러운 행동을 비꼬는 말.
13	돼지에 진주목걸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 아무 소용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4	되지 못한 풍잠이 갓 밖에 어른거린다	좋지 못한 물건이 흔히 잘 나타나 눈에 띄어 번쩍인다는 말.
15	망나니짓을 하여도 금관자 서슬에 큰기침한다	나쁜 짓을 하고도 벼슬아치라는 배짱으로 도리어 남을 야단치고 뽐내며 횡포를 부린다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6	머리 없는 놈 댕기 치레한다	본바탕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겉만 꾸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뺨을 맞아도 은가락지 낀 손에 맞는 것이 좋다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을 바에는 권위 있고 덕망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	성은 피가皮哥라도 옥관자 맛에 다닌다	성은 비록 양반이 못 되는 피씨 성을 가졌을지라도 옥관자를 망건에 단 멋에 우쭐대며 다닌다는 뜻으로, 본바탕은 변변치 않은 사람이 겉모양을 뽐내며 거들먹거리는 경우를 비꼬는 말.
19	중다버지는 댕기치레나 하지[한다]	자기의 모자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억지로 채우려 한다는 말.
20	중의 관자 구멍이다	중에게는 망건에 다는 관자 구멍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소용없게 된 물건이나 쓸데없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1, 정당한 근거와 원인을 밝히지 아니하고 제게 이로운 대로 이유를 붙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보는 입장에 따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포도군사 은동곳 물어 뽑는다	1. 도둑이 포졸에게 잡혀가면서도 포졸의 상투에 꽂힌 은동곳을 뽑는다는 뜻으로, 도둑질하는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도둑질하는 솜씨가 매우 날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포선 뒤에서 엿 먹는 것 같다	겉으로는 점잖고 얌전한 체하면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행사 후에 비녀 빼어 갈 놈	불량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머리모양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귀밑머리를 풀다	처녀 때 땋았던 귀밑머리를 푼다는 뜻으로, 여자가 시집감을 이르는 말.
2	귀밑머리 풀어 얹다	여자가 귀밑머리를 풀고 쪽 찌고 시집감을 이르는 말.
3	귀밑머리 풀어 준 남편	처녀로서 정식 결혼을 하여 맞은 남편을 이르는 말.

직물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가난도 비단 가난	아무리 가난하여도 몸을 함부로 가지지 않고, 본래의 지체와 체통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
2	가는베 낳겠다	가늘고 고운 베를 잘도 짜겠다는 뜻으로, 솜씨가 없고 무딤을 비웃는 말.
3	각전 시정 통비단 감듯	장사치가 솜씨 있게 통비단을 감듯 한다는 뜻으로, 무엇을 줄줄 익숙하게 잘 감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갖에서 좀 난다.	1. 가죽을 쏠아 먹는 좀이 가죽에서 생긴다는 뜻으로, 화근이 그 자체에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죽에 좀이 나서 가죽을 다 먹게 되면 결국 좀도 살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형제간이나 동류끼리의 싸움은 양편에 다 해로울 뿐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겨울에 베옷이다	추운 겨울에 삼베옷은 입어도 춥듯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말.
6	굵은베가 옷 없는 것보다 낫다	아주 없는 것보다는 하찮은 것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말.
7	굶으면 아낄 것 없어 통 비단도 한 끼다	1. 호화롭게 살다가도 구차하게 되면 아무리 귀중한 것도 밥 한 끼와 바꾸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한번 몰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8	노닥노닥해도 비단일세	지금은 낡았지만 처음에는 좋았다는 뜻으로, 본디 소중한 물건이었고 아직도 그전의 모습이나 가치가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9	닷 돈 보고 보리밭에 갔다가 명주 속옷 찢었다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도리어 큰 손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돈으로 비단을 살 수 있어도 사람은 살 수 없다	남녀 간의 참다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다는 것을 이르는 말.
11	명주 고름 같다	성질이 매우 곱고 보드랍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2	명주 자루에 개똥	겉치장은 그럴듯하나 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13	명주옷은 사촌까지 덥다	가까운 사람이 부귀한 몸이 되면 그 도움이 일가에까지 미침을 이르는 말.
14	모시 고르다 베 고른다	1. 처음에 뜻하던 바와는 전연 다른 결과에 이름을 이르는 말. 2. 좋은 것을 골라 가지려다가 도리어 좋지 못한 것을 차지하게 됨을 이르는 말.
15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 같이 고운 것 없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씨에 따라서 얼마든지 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6	비단 방석에 앉다	매우 훌륭하고 보람 있는 지위나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
17	비단 보자기를 씌우다	속은 보잘것없는데 겉만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는 말.
18	비단 올이 품을 추니 베 올도 춤을 춘다	자기는 도저히 할 만한 처지가 아닌데도 남이 하는 짓을 덩달아 흉내 내다가 웃음거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비단 한 필을 하루에 짜려 말고 한 식구를 줄여라	수입을 늘리려고 무리하게 일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뜻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현명한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	비단결 같다	매우 곱고 부드러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비단보에 개똥[똥 싼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번드르르하나 내용은 흉하거나 추잡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2	비단에 수결手決이라	광채가 있고 모양도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비단옷 속에 눈물이 괸다	겉으로 잘사는 것 같지만 이면에 눈물겨운 괴로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
24	비단옷 입고 밤길 가기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색이 나지 않는 공연한 일에 애쓰고도 보람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5	비단옷을 입었더니 사촌까지 뜨시다고 한다	비단옷은 촉감도 좋을 뿐 아니라 매우 따뜻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
26	비단이 한 끼라	1. 호화롭게 살다가도 구차하게 되면 아무리 귀중한 것도 밥 한 끼와 바꾸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한번 몰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비렁뱅이 비단 얻은 것[격]	1. 자기 몸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 거지가 건사하기 힘든 말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뜻으로, 괴로운 중에 더욱 괴로운 일이 생겼음을 이르는 말. 2.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얻어 가지고 자랑함을 비웃는 말.
28	석새베에 씨도 안 든다	일솜씨가 매우 거칠고 엉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9	석새베에 열새 바느질	1. 굵은 베천에 섬세하게 바느질을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허름한 것이라도 솜씨가 좋고 정성이 있으면 훌륭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솜씨는 좋은데 재료가 나빠 서로 어울리지 아니할 때에 솜씨가 아까움을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0	석새에서 한 새 빠진 소리 한다	석새에서 한 새가 빠졌으니 가운데가 비었다는 뜻으로,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31	없는 놈이 비단이 한 때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호화롭게 온몸을 감쌀 수 있는 비단조차도 그것을 팔아 한 때 끼니를 잇는 데에 불과하다는 말.
32	없어서 비단 치마	넉넉해서 좋은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귀중한 물건이지만 할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3	제 옷감을 제가 찢는다	자기 일을 스스로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화장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얼레빗 참빗 품에 품고 가도 제 복 입으면 잘산다	친정이 가난하여 입은 옷과 머리빗밖에는 가지고 간 것이 없지만 잘살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산다는 뜻으로, 예장禮裝을 많이 하여야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
2	절간에서 빗 찾기	사람 또는 물건 따위가 있을 수 없는 데에 가서 엉뚱하게 그것을 찾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란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만 탓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제 얼굴 못나서 거울만 깬다	자기 얼굴 못생긴 것은 생각지 못하고 못나 보이는 것이 거울 탓인 것처럼 여기면서 거울만 깨뜨린다는 뜻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엉뚱한 데 하면서 아까운 물건만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중의 빗	몹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참빗으로 훑듯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갈무리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눈 온 뒤에는 거지가 빨래를 한다	눈이 온 다음 날은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빨아 입을 만큼 따뜻하다는 말.
2	떡 삶은 물에 풀한다	1.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겸하여 해치움을 이르는 말. 2. 버린 물건을 이용하여 소득을 봄을 이르는 말.
3	바지랑대로 하늘 재기	빨랫줄을 받치는 바지랑대로 높은 하늘의 높이를 재려 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빨래 이웃은 안 한다	빨래할 때 가까이 있으면 구정물이나 튀지 좋은 일은 없다는 말.
5	상전의 빨래에 종의 발뒤축이 희다	상전의 빨래를 하여 주면 제 발뒤축이 깨끗하게 된다는 뜻으로, 하기 싫어 마지못해 하는 남의 일이라도 해 주고 나면 얼마간의 이득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십 리 강변에 빨래질 갔느냐	십 리나 되는 강변까지 갔다 오느라고 얼굴이 탔느냐는 뜻으로, 얼굴이 까맣게 그은 사람을 보고 이르는 말.

바느질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골무는 시어미 죽은 넋이라	바느질하다가 빼어 놓은 골무는 얼른 다시 찾아지지 않고, 일어서서 옷이나 일감을 털어야 나온다는 말.
2	급하면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밟아서 일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	딸의 시앗은 바늘방석에 앉히고 며느리 시앗은 꽃방석에 앉힌다	딸은 귀하게 여겨 어떻게 하든지 그 시앗을 없애려 하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며느리가 시앗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도리어 통쾌하게 여긴다는 말.
4	떡갈나무에 회초리 나고, 바늘 간 데 실이 따라간다	두 가지 사물의 관련성이 썩 긴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바늘보다 실이 굵다	바늘에 꿰야 할 실이 바늘보다 굵다는 뜻으로, 커야 할 것이 작고 작아야 할 것이 커서 사리에 어긋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상침을 놓다	박아서 지은 겹옷이나 보료, 방석 따위에 상침질하는 것을 이르는 말.
8	시누 하나에 바늘이 네 쌈	시누이가 올케에게 심하게 대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실 엉킨 것은 풀어도 노 엉킨 것은 못 푼다	작은 일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도 큰일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실이 와야 바늘이 가지	1. 베푸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조건이 성숙되어야 일이 성사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여복이 바늘귀를 꿴다	눈먼 여자 장님이 바늘에 실을 꿴다는 뜻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림치고 한 일이 우연히 잘 맞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조선 바늘에 되놈 실 꿰듯	섬세한 조선 바늘에 무딘 호인胡人의 손으로 실을 꿰려고 애쓴다는 뜻으로, 되지도 아니할 일을 애써 하는 경우를 비꼬는 말.

옷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1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가림은 있어야 의복이라 한다	가려야 할 데를 가려야 비로소 의복이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맡은 구실을 온전히 다 해야만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가마 타고 옷고름 단다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아서 임박해서야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개를 친하면 옷에 흙칠을 한다	못된 사람과 친하면 해로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거지 옷 해 입힌 셈 친다	1.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어 새 옷을 한 벌 입혀 준 셈 친다는 뜻으로,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줌을 이르는 말. 2.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거나,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았을 때 자기 위안 삼아 이르는 말.
6	군복을 벗다	군에서 제대함을 이르는 말.
7	군복을 입다	군에 입대함을 이르는 말.
8	남의 옷 얻어 입으면 걸렛감만 남고 남의 서방 얻어 가면 송장치레만 한다	남이 입던 헌옷을 얻어 입으면 얼마 안 가서 해어져 못 입게 되고 홀아비에게 개가하여 사노라면 얼마 안 가서 사별하게 된다는 뜻으로, 그런 일은 할 짓이 못 된다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9	누더기 속에서 영웅 난다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자라난 사람이 후에 영웅이 된다는 뜻으로, 가난하고 천한 집에서 인물이 나왔을 때 이르는 말.
10	당채련 바지저고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헌 옷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 하고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춘다	모든 일이 잘되려면 그 소재가 좋고 풍족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돼지 밥을 잇는 것이 네 옷을 대기보다 낫다	한참 장난이 심한 사내아이 옷이 못 입게 됨을 이르는 말.
13	딴 주머니를 차다	1. 다른 속셈을 가지거나 일을 꾀하는 것을 이르는 말. 2. 돈을 빼서 따로 보관하는 것을 이르는 말.
14	마음씨가 고우면 옷 앞섶이 아문다	아름다운 마음씨는 그의 겉모양에도 나타난다는 말.
15	물에 빠져도 주머니밖에 뜰 것 없다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말.
16	바지저고리만 다닌다앉았다	사람의 몸뚱이는 없고 바지저고리만 걸어 다닌다는 뜻으로, 사람이 아무 속이 없고 맺힌 데가 없이 행동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사람은 헌 사람이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사람은 헌[때 묻은] 사람이 좋고 옷은 새 옷이 좋음을 이르는 말.
18	소매 긴 김에 춤춘다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우는 것을 이르는 말.
19	소매 속에서 놀다	손으로 하는 동작이나 행위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이루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20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으면 장사를 잘한다	수단이나 밑천이 든든하면 성공하기 쉽다는 것을 이르는 말.
21	소매를 걷다	어떤 일에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르는 말.
22	소매를 두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23	아이를 예뻐하면 옷에 똥칠을 한다	못된 사람과 친하면 해로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	영감님 주머니 돈은 내 돈이요 아들 주머니 돈은 사돈네 돈이다	남편이 버는 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들이 버는 돈은 며느리가 주관하므로 어찌할 수 없다는 말.
25	오다가다 옷깃만 스쳐도 전세의 인연이다	인간이 살면서 부딪치는 사소한 만남이라도 불가에서 말하는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다는 뜻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
26	오지랖이 넓다	1.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면이 있음을 이르는 말. 2.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음을 이르는 말.
27	옷은 나이로 입는다	1. 옷차림 따위의 모든 일을 나이나 경우에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는 말. 2. 몸집은 좀 작더라도 나이 든 사람은 옷을 더 크게 입는다는 말.
28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오래 사귀어 서로를 잘 알고 정분이 두터워진 사람이 좋다는 말.
29	옷은 시집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옷은 시집올 때 가장 잘 입을 수 있고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잘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언제나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말.
30	옷을 격해 가려운 데를 긁는다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긁으나 마나라는 뜻으로, 요긴한 곳에 직접 미치지 못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번	속담·관용구	내용
31	옷이 날개고 밥이 분이다	옷을 잘 입어야 풍채가 좋아지고 밥을 잘 먹어야 신수가 좋아진다는 말.
32	의복이 날개라	옷을 잘 입으면 누구나 돋보인다는 말.
33	의붓자식 옷 해 준 셈	해 주어서 별 보람 없고 보답받지 못할 일을 남을 위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4	잣눈도 모르고 조복朝服을 마른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려고 함을 이르는 말.
35	주머니 끈을 조르다	돈을 몹시 절약하는 것을 이르는 말.
36	주머니 사정이 나쁘다	쓸 자금이나 돈의 형편이 좋지 않음을 이르는 말.
37	주머니 사정이 좋다	쓸 자금이나 돈의 형편이 넉넉함을 이르는 말.
38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	선하거나 악한 일은 숨겨지지 아니하고 자연히 드러남을 이르는 말.
39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없다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숨겨진 허점은 있다는 말.
40	주머니를 털다	1.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음을 이르는 말. 2. 강도질을 함을 이르는 말.
41	주머니가 가볍다	가지고 있는 돈이 적음을 이르는 말.
42	주머니가 넉넉하다[든든하다]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게 있음을 이르는 말.
43	주머니가 비다	가진 돈이 없음을 이르는 말.
44	주머닛돈이 쌈짓돈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말.
45	중이 미우면 가사도 밉다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에 딸린 사람까지도 밉게 보인다는 말.
46	체 보고 옷 짓고 꼴 보고 이름 짓는다	몸의 치수에 맞게 옷을 짓고 모양에 맞게 이름을 붙인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저마다 제격에 맞게 되도록 처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7	치수 맞춰 옷 마른다[짓는다]	앞뒤를 잘 살펴보고 빈틈없게 계획을 세운 다음 격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8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두텁고 깊어서 좋다는 말.
49	헌 옷 속에 옥 들었다	외양은 허술해도 속에는 귀중한 것을 지니고 있음을 이르는 말.
50	헌 옷이 있어야 새 옷이 있다	헌것이 있어야 새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색인

III

가락바퀴	638
가례	496, 662, 739
가례도감의궤	89, 226, 227
가례발기	176
가례집람	614
가르마	712
가리개	700
가리마	20, 104, 113, 601
가면극	680
가발	105
가사	21, 486
가슴띠	113
가죽	23
가죽감태	23
가죽감티	25
가죽버선	23, 24
가죽신	557, 583, 733
가체	25, 104, 307, 592, 624, 652
가체금지령	106
가체신금절목	647
각정	110
간단복	27
갈굴중이	32, 254
갈모	28, 242
갈몸뻬	254
갈무리	30
갈옷	32
갈적삼	32
갈중이	32
감물	34
감발	35
감신총	132
감투	36
갑사	37
갑신의제개혁	39
갑오개혁	50, 627, 628, 702
갑오의제개혁	40, 264, 609
갑주	98
갓	42, 86, 209, 696
갓끈	46
강령탈춤	680
강복	662
강사포	46, 285, 551, 611, 621, 688
강화도조약	716
갖신	100
개구리첩지	658
개구멍바지	709
개당고	213, 277, 475
개두	48, 133
개두포	656
개량복	49
개량한복	51
개량화	50
개신교복	52
개오기	53
개짐	54
개항	193
개화기	542
개화파	513, 537, 712
거가잡복고	106, 137, 175, 508
거들지	104
거들치마	55
거북무늬	119
거북흉배	119
건	56
건귁	57, 105
겉옷	255, 592, 698, 701
겨울철	139
격몽요결	614
격자무늬	116
견뢰도	92, 432, 463, 646, 676
견마기	63, 104, 112, 472, 589
견사	560
견직물	37, 207, 227, 228, 432, 440, 442, 461, 484, 559, 569, 638, 642, 711, 723, 737
결혼	553
경국대전	23, 88, 118, 125, 152, 167, 184, 215, 302, 304, 492, 506, 508, 517, 611, 621, 642, 657, 660, 661, 662
경대	58
경도잡지	166, 196, 467, 582, 607, 684

경사 60, 553, 570, 638, 723, 737
경성방직 89
경제화 545
경찰복 61, 608, 609
곁마기 63
계 65
계급장 495
계례 65
계례복 65
계림유사 237
고 66
고금 712
고깔 67, 298, 478, 681
고단 68
고려도경 78, 132, 135, 167, 226, 238, 240, 528
고려사 109, 167, 214, 241, 246, 296, 542, 625, 651
고무신 69, 583, 645, 690
고무옷 726
고분벽화 57, 116, 299, 310, 453, 487, 645, 651, 671, 717
고사 70
고의 71
고이댕기 71
고쟁이 72, 475, 672
곤룡포 73, 80, 450, 565, 649, 657, 702, 758
곤충무늬 76
골무 272
공단 77, 230, 250
공복 78, 304, 611, 743
공양사 716
공자가어 661
공작흉배 128
공정책 75, 80
과대 81
과두 82
과실무늬 83, 235
과판 82
관례 453, 556, 621
관례복 86, 304
관모 42, 197, 220, 239, 242, 437, 443, 453, 478, 556, 565, 624, 670, 674, 683, 747
관복 151, 252, 490, 593, 701, 713, 743, 745, 747
관사 87
관자 88, 215, 580
광고 509
광다회 136, 469, 559, 598, 657
광목 89, 115, 575, 641
광사 90
광수의 636
괘자 97, 602, 676
괴화 91
교구 82
교복 92, 610, 690
교염 96
교직물 638
교힐 96
구군복 61, 96, 599
구당서 105, 106, 207
구두 98, 232
구름무늬 301, 546, 570
구별짓기 95
구장복 630
국가정체성 609
국민복 94, 100, 254, 610
국사 101
국어학습도보 97
국조상례보편 49
국조오례의 168, 661
국조오례의서례 109
국학도감 97
국혼정례 90, 153, 226, 227, 688
국화 435
국화꽃무늬 101
군복 96, 598, 602, 608, 757, 758
굴갓 284
굴레 102, 619
굿 259
궁녀복 103
궁보 127

궁중발기 47, 89, 136, 160, 167, 175, 176, 191, 193, 201, 236, 258, 262, 295, 309, 432, 458, 472, 476, 546, 550, 642, 685, 687, 730, 746, 753
궁중복식 442
궁중정재 673
궤계 105
귀갑문 117
귀걸이 108
귀고리 106, 579
귀쇄문 117
규 109, 222, 552, 594, 743
규합총서 30, 53, 161, 273, 527, 529, 533, 547, 569, 587, 654, 684, 707, 750, 754
근대화 157, 517
금관 244, 621
금관조복 612, 621
금관총 82, 107, 623, 694
금기 147
금동신발 110
금령총 107, 111, 300
금박 310
금시계 233
금실 310
금우관 623
금조총 107
급제 518
기녀복 112
기녀복식 112
기린흉배 118, 760
기마민족 108
기모직물 558
기산풍속도 305
기생 99
기술 503
기저귀 115, 709
기하무늬 116, 629
길상무늬 434, 619, 753
길상어문 267
길짐승무늬 118
김홍도 230, 652
깃 589
까치두루마기 71, 120
까치설빔 120
꼬리치마 568
꼭두서니 121, 673
꽃무늬 642
꽃버선 679
꾸민족두리 624
꿩무늬 128

나은

나막신 122, 557, 606
나비무늬 76
나사 123
나인 103, 456
나일론 124, 297, 706
나장 57, 279
난삼 125
난초 435
난초무늬 435
날염 127, 568
날짐승무늬 128
날짐승흉배 760
남당초고 186
남바위 130, 307
남색 645
남성 233, 711
남전 131, 278
납방염 132
납염 132
납힐 132
낭도 576
내명부 103
내의 219
내의녀 20
너른바지 66, 276
너울 133, 227, 583, 661
넥타이 134
노걸대언해 121
노동복 32, 254

노리개 104, 135, 576, 580
노방주 137
노의 90, 630
노파리 138
녹원삼 104
녹피혜 139
놋신 557
농악 446
농악대 68
농악복식 139
누비치마 672
누에 229, 440
눌재집 159
뉴똥 143
늑골복 609
능 143
능목면 144
능직 638, 710
니람 131
니람법 645

디귿

다듬이질 145
다리 25, 106
다리미 272
다리미질 147
다리속곳 148
다회 136, 148, 469
단 150
단내의 90
단령 79, 98, 126, 151, 451, 490, 611, 637, 666, 667, 698, 702
단령삼 78
단령포 701
단발령 92, 155, 217, 455, 560, 563, 632, 712
단발머리 157, 231
단삼 158, 549
단속곳 66, 159, 276, 309, 475
단오빔 664
단원풍속도첩 643
단의 554
단직물 230
단체복 610
단추 616
단호 119
단호흉배 761
단화 99
달마티카 656
닭의장풀 160
담복 161
답호 162, 202, 279, 602, 657, 676, 698, 702
당고의 472
당서 180
당의 66, 104, 164, 482, 703
당초문 132
당항라 166, 724
당혜 114, 123, 166, 685
대 78, 167
대공 662
대구 169
대나무 435
대대 222, 552, 593, 596, 697
대동야승 669
대란치마 485
대렴금 482, 667
대례 220
대례복 42, 221, 263, 266, 437, 561, 603, 748
대륜식입식관 170, 299
대마 440
대명회전 73, 152, 508, 621
대비 464
대삼 173, 594
대선금구 82
대수 173, 579
대슘치마 174, 673
대의 579
대자 176
대전통편 302, 509
대전회통 98, 167, 184

대창 648
대쾌도 123
대한예전 109, 177, 508, 621
대한제국의제개혁 177
대한화사전 97
댓개비 626
댕기 179, 580, 616
댕기머리 231, 652
더그레 181, 602, 676, 682
더블브레스티드 609
더비해트 631
덕온공주 64, 687, 751
덕혜옹주 458
덧신 220, 468, 692
덧옷 290
데일리한복 720
도롱이 182, 606, 686
도사 716
도시화 514
도염 645
도인 716
도토리 184
도투락댕기 184, 713
도포 186, 282, 556, 611, 622, 631, 634, 650, 655, 666, 698
돌띠 120, 188
돌모 103
돌복 189, 303, 437, 619
돌옷 296
동경잡기 647
동곳 191
동국세시기 467
동국이상국집 622
동다리 97, 192, 303, 598, 599, 602
동동구리무 193
동사강목 237, 238
동의대 194
동의보감 533
동자무늬 194
동파관 196, 607
두건 86, 197, 556
두렁치마 198, 618, 673
두루마기 92, 120, 199, 303, 459, 582, 611, 656, 666, 676, 698, 702
두루주머니 628
둘레머리 653
둥구니신 220, 644
뒤꽂이 201, 574
드림댕기 619
등거리 202
디자인한복 720
딸깍발이 123
땋은머리 103, 203
떠구지 204, 678
떨잠 206, 574

리을

라 207, 724
라사 124
레이온 208, 297
립 681

미음

마고자 208, 617
마름질 273
마미두면 209
마전 211
마직물 638, 716
마포 638
마혜 735
막치 644
만기요람 101, 123, 547, 604, 625
말군 211
말뚝댕기 204, 213
말뚝이 682
말액 214, 651
말총 282, 626
망건 88, 214, 282, 580, 683
매듭 134, 149
매듭단추 291

매염제 216, 228, 544, 676, 754
매화 435
맥고모자 217, 606
머리모양 57, 453, 456, 498, 519, 520
머리쓰개 653
먹물 218
메리야스 219
메이지시대 711
멱목 482, 667
멱신 220
면관 209, 222
면류관 220
면복 109, 130, 222, 285, 464, 611, 621, 630, 756
면사 128, 226
면사포 226
면주 227
면직 674
면직물 257, 638, 705, 716
면포 638
명반 92, 228
명복 593
명주 227, 228, 674, 704, 707
모관 656
모단 230
모던걸 230
모던보이 233
모란 435
모란꽃 234
모란무늬 234, 435, 629, 753
모본단 236
모선 439
모슬린 236
모시 73, 237, 440, 704, 707
모자 239, 443, 555, 696, 757
모직물 65, 246, 638, 710
목걸이 247, 579
목공단 249
목도리 250
목판깃 637
목판댕기 204, 213, 251
목판염 132
목혜 122
목화 252, 258, 559, 599, 626, 657, 740
몸뻬 94, 100, 254
몽도리 256
몽두리 66, 255, 256
몽두의 255, 256
몽수 256
묘제 614
무관 599
무궁화무늬 609
무녀 260
무늬 433, 434
무늬염 127
무당 68
무당내력 259
무두질 228
무령왕릉 82, 107, 110, 694
무명 115, 257, 287, 440, 704, 707
무문사 432
무문하부다이 711
무문항라 724
무복 259, 722
무속인 260
무수리 20, 104
무예도보통지 36
무용수 149
무족이 262
무지기치마 262, 673
문공가례 497
문관대례복 263
문관복 609
문관복식 609
문관복장규칙 263, 265, 609
문무백관 285, 450, 612, 732, 743, 745, 747
문사 432
문자무늬 267, 629
문항라 724
문화 717
물결무늬 571
물소중이 725, 728
물옷 727
물적삼 727

물질	724
물푸레나무	269
미사리	443
미암일기	159, 309, 691
미용실	270
미투리	123, 271, 680
민저고리	590
민족두리	624
민항라	724
밀화	281

비읍

바느질	272, 585
바늘	272, 638
바늘집노리개	137
바지	211, 254, 275, 309, 575, 710
바지저고리	698
박가분	277
박쥐무늬	129
반가	164, 175, 522, 737
반물	278
반물법	645
반비	202, 279, 676
반지	280, 579
반회장저고리	71
받침옷	637
발기	64, 86, 461, 472, 484, 559, 569
볼긔	215, 484, 539
발립	43
발막신	123
방갓	284, 655
방건	282
방격문	116
방관	282
방립	283
방모직물	558, 710
방심곡령	222, 285, 612, 619
방아다리노리개	137
방염	127, 132, 286
방취제	228
방한모	130, 501, 618, 708, 757
방한용	139, 182, 250
방한용품	307
배내옷	288
배냇저고리	199, 286, 294
배두렁이	198
배싸개	82
배씨댕기	289
배자	66, 202, 290, 616
백라관	292
백립	626
백명주	227, 229
백반	293
백분	750
백사모	438
백의	70, 293
백의민족	293
백일옷	294
백피화	763
백한흉배	760
버선	222, 295, 465, 584, 605, 666
벌립	605, 686
벌무늬	76
법락	548
법복	221, 593, 713
법의	487, 548, 578
벙거지	97, 296, 681, 686
베일	226
베짜기	239
베틀	239
벨벳	297, 640, 690
벽사	188, 541
변형모	298
별기군	41
병와집	255
보공	277, 665
보배무늬	116, 300, 572
보부상	696
보석반지	233
보울러해트	631
보자기	226
보조무늬	301

보타이 134
보호대 738
복 558
복건 86, 120, 302, 459, 482, 666, 736
복두 78, 126, 214, 303, 437, 565
복식개량운동 70
복식금제 304, 305
복식제도 560
복온공주 129, 604, 752
복인 447
복장규칙 609
복장제식 609
본생경 118
본초강목 161, 541, 572, 674
볼끼 307, 708
볼싸개 308
봇뒤창옷 288
봉디 66
봉산탈춤 68, 680
봉지 66, 309
봉첩지 658
봉황 309
봉황무늬 309
봉흉배 759
부네 681
부녀자 26
부들신 644
부부총 107
부포상모 447
북사 180
불교복식 578
블라우스 124
비 700
비녀 204, 206, 311, 574, 579, 580, 592, 740
비단 674, 704
비로드 297
비취 281
빗 313, 579
빨래 31, 470
빨래터 472

사 432, 716
사계삼 86
사계절꽃무늬 235, 433
사군자무늬 235, 434
사규삼 303, 436, 736
사당제 614
사대부 532, 715
사라사 127
사례편람 65, 163, 176, 290, 303, 436, 452, 578, 614, 661, 662
사모 243, 305, 437, 490, 565, 666
사모관대 438, 739
사방건 674
사방관 282
사복변제절목 702
사색공복제도 78
사선 439
사시제 614
사신총 107
사자무늬 119
사제 655
사조룡보 758
사폭바지 71
삭모 97
산고모 632
산동주 440
산림경제 91
산업화 514, 531
산호 281
살롱화 100
살창고쟁이 72
삼국사기 65, 91, 96, 120, 214, 246, 304, 311, 585, 625, 664
삼국유사 91, 120, 222, 240, 304, 659
삼국지 638
삼다무늬 83
삼베 73, 284, 440, 441, 482, 575, 662, 674, 704
삼삼기 440
삼원무늬 83

삼작노리개 136
삼재도회 255, 296, 607, 657, 669
삼팔주 442, 641
삼회장저고리 112, 591, 682
삽혜 734
삿갓 284, 443, 601
상 443, 552, 596
상고머리 713
상관 445
상례 479, 662
상류층 139, 542
상모 446, 600
상민 696
상방정례 48, 89, 109, 133, 153, 159, 175, 210, 226, 230, 276, 535, 547, 559, 572, 578, 588, 598, 604, 625, 661, 691, 746
상변통고 606
상복 266, 437, 447, 450, 562, 655, 662, 743
상염 544
상의 222, 539, 588, 592
상의원 279, 517, 625, 642, 669
상제 696
상주 445, 447
상투 88, 214, 282, 453
상투관 455, 675
새무늬 128
새앙머리 103, 456
색동 116
색동저고리 120, 457
색동치마 457
색복장려운동 459
색의 459
생고사 70, 461
생냉이 441
생수 90
생원 125
생항라 724
생활한복 462, 720
샤머니즘 108
서구복식 562
서구식 177, 178
서구화 158, 514
서민 701
서양 525
서양사 463, 716
서양식 493, 510, 514, 537, 540
서양항라 724
석 222, 464
석류무늬 85
석회 216, 465
선매염 122, 216, 466, 573
선염 466, 706
선풍도골 716
선화봉사고려도경 180, 235, 627, 671
설빔 467, 664
설피 25, 468
섬유 567, 587, 597, 638, 706
성균관 125
성인식 66, 86
성직자 52, 655
성호사설 91, 186
섶 589
세조대 469
세종실록지리지 121
세탁 211, 470, 587, 706
소고의 472
소공 662
소렴금 482
소례복 266, 437, 442, 486, 561, 748
소매 722
소매배래 287
소모플라노 710
소방목 473
소비문화 234
소사 432
소사중단 593
소요건 80
소창의 194, 474, 588, 635
속곳 66, 672
속대전 153
속속곳 276, 475

속옷 148, 159, 176, 219, 475, 477, 617, 697
속잠방이 697
속저고리 475, 476, 721
속적삼 475, 476
속치마 262, 476, 477, 569, 618
솔기 287
솜족두리 624
솜치마 672
송낙 478
송남잡지 648, 691
송사 180
송연 218
송진 132
수 596
수교집록 306
수단 656
수대 656
수의 31, 441, 479, 665
수자조직 230, 236, 693
수자직 638
수자흉배 762
수초혜 734
수트 710
수화자 97, 252, 584, 604
수화주 483, 641
숙고사 70, 484
숙관사 87
숙성법 645
숙주 229
숙항라 724
순화궁첩초 137
스란단 485
스란치마 485, 672
스키타이계 169, 170, 247, 298, 554, 623, 693
스타킹 124
스트링타이 134
스파이크식 110
습신 482, 584
습의 82, 303, 479, 496
승려 21, 67, 478, 486, 701
승려복식 21
승립 478
승복 486
승정원일기 649
시경 125
시계 488
시뇽 652
시마 662
시보리 96
시복 437, 490
식리총 82
신 252, 545, 557
신목 112
신발 307
신분제도 610
신생활복 101
신선 716
신식군복 493
신여성 93, 99, 230, 232, 697
신울 734
신한복 720
실내화 138
심의 87, 125, 303, 482, 496, 607, 611, 666, 674, 698, 702
십장생무늬 118, 629
쌍계 498
쌍동계 75, 80
쌍영총 647
쌍호 119
쌍호흉배 761
쓰개 48, 67, 80, 226, 239, 243, 256, 445, 446, 499, 555, 564, 582, 601, 654, 669, 683, 747
쓰개치마 499, 601, 673

이응

아랑주 641
아얌 113, 501, 618
아언각비 629, 676
아크릴 125
아학 252

악수 482, 667
악학궤범 112, 197, 236, 305, 311, 506, 545, 573, 722, 736, 746, 748, 762
안경 502
안경집 503
안릉신영도 113
안악 3호분 721
안올림벙거지 297
암각화 116
앞댕기 72, 195
애스콧타이 134
액주름 698
액주름포 505
앵삼 126
야자대 506
약재 160
양관 507, 612
양관복 621
양말 509
양반 680
양반가 139, 166
양복 510, 710, 741
양복점 513
양사 716
양산 231, 232, 233
양장 231, 514, 691
양주별산대놀이 682
양태 517, 626
어깨허리 51, 476, 617, 672, 690, 709
어사화 304, 518
어여머리 104, 206, 312, 519, 647, 678
어여미 104
어영청등록 96
얹은머리 106, 312, 520, 573
얼레빗 313
엄짚신 644
여령 748
여립모 133
여성 713
여성복식 27
여우목도리 232
여유당전서 96, 687
여직 723
연거복 650, 674
연꽃넝쿨무늬 695
연꽃무늬 235, 301, 523, 753
연려실기술 626
연미복 263, 525
연암집 691
연원직지 504
연지 526, 745, 749
연화대 112
염료 293, 473, 526, 527, 532, 533, 534, 543, 546, 567, 572, 743, 754
염색 286, 306, 466, 527, 568, 573, 587, 706, 732, 755
염습구 482, 665
염습의 635, 649
염의 479, 532
염착 216
염포 482
영노 682
영대 655
영락 110
영친왕비 295
예관 624
예기 496
예기주소 496
예복 175, 187, 193, 311, 496, 525, 547, 549, 553, 556, 577, 578, 583, 592, 593, 603, 630, 700, 713, 722
예장용 185
오건 716
오광대 680
오낭 482, 667
오매 532
오목다리 679
오목이 679
오미자 216, 533, 744
오방색 681
오방장두루마기 120, 458
오배자 534
오복제도 661
오사모 78, 438

오얏무늬 609
오주연문장전산고 25, 88, 91, 105, 123, 186, 196, 502, 517, 522, 626, 642, 648, 660, 670, 708
오페라빽 232
옥 281, 696
옥대 534
옥양목 115, 536, 569, 642
옥판 109
옥팔찌 694
옥혁대 593
온혜 734
옷감 585, 703, 707
옷고름 287
와이셔츠 537
왕 464, 469, 758
왕골 284
왕골신 644
왕비 464, 472
왕세손 450, 464, 469, 758
왕세손빈 464
왕세자 450, 464, 469, 758
왕세자빈 464, 472
왕실 737
왕회도 107, 299, 623
왜바지 94
왜사 538
왜증 539
왜항라 724
외투 539
요대 83, 598
요람 279
요선철릭 658, 702
요질 452, 541
요패 82
용무늬 74, 541
용보 758
용잠 740
용재총화 519
우단 298
우덮기 543
우모 29
우장용 182
운동화 544
운두 112
운안흉배 128
운학흉배 129, 760
운혜 114, 545
울금 546
웃옷 286
웃치마 104
웅비흉배 760
원불교복 547
원삼 90, 104, 267, 311, 482, 549, 579, 603, 630, 667, 703, 739, 751
원앙무늬 128
원유관 48, 285, 551, 611
원유관복 47, 464, 630, 756
월경 54
월자 25
웨딩드레스 552, 741
웨이브 692
위령미사 657
위사 65, 553, 570, 638, 705, 723
윈저노트 135
유 554
유건 454, 555
유교 161, 500, 518, 532
유니폼 608, 710
유문항라 724
유생 125
유소 136, 149
유학생 230
유학자 303, 496
유혜 557
육군복 609
윤달 482
융 246, 558, 710
융복 98, 558, 598, 603, 626, 649, 657, 698, 758
은령총 111
은장도 576
은조사 559
을미개혁 459

을미의제개혁	99, 264, 560, 609
을사늑약	177, 265, 610
음양오행사상	116
음양오행설	306
응고제	228
의대발기	38, 90, 123, 175, 176, 479, 642, 687
의례	532, 701
의례복	558, 611
의복	662
의복금제	112
의복발기	90, 175, 176, 463, 616
의양단자	188
이등체강	177, 507
이발소	563
이불	653
이암	757
이엄	130, 564, 599
이응해	724
이중관	651
이중직	638
이화학당	617, 690
익냉이	441
익선관	73, 565, 649
익조직	71, 101, 432, 638, 643
인견	208, 566
인끈	756
인두	272
인디고	645
인염	127, 567
인조견	208, 567
일성록	693
임원경제지	161, 211, 239, 258, 474, 529, 572, 588, 607, 653, 674, 688, 754
임원십육지	186, 283
임하필기	20, 97, 122, 187, 192, 296, 306, 723
입식	46
입신양명	519
입양	43
입영	46
입자	443
입제	443

지읒

자락치마	568, 689
자립	626
자미사	569
자수무늬	753
자연산수무늬	570
자적항라	724
자초	572
작업복	724
잠	573
잠방이	575
잠수	724
잠옷	710
잠자리무늬	76
장갑	113, 575
장도	576
장도노리개	137
장백의	656
장삼	486, 577, 630
장식	696
장식물	700
장식품	251, 600
장신구	137, 191, 201, 247, 280, 311, 573, 577, 579, 658, 693
장악원	112
장옷	582, 741
장의	648
장화	583
재궁의대	163, 187
재단	585
재물보	228
재봉	585
재봉틀	272
재최	662
잿물	587, 646
쟁치마	672
저고리	194, 208, 287, 457, 472, 555, 588, 593, 616, 671, 722
저항라	724
적관	591
적삼	71, 592, 593

적석 464
적의 128, 311, 464, 591, 593, 594, 603, 630, 697, 713, 756
전 597
전각복두 304
전대 598, 602
전도부인 617
전례복 655
전립 97, 113, 259, 296, 446, 598, 599, 602, 606, 686
전모 601
전복 97, 303, 598, 599, 602, 631, 676, 736
전시체제 510, 512, 515
전통 717
전통식 177
전통한복 720
전행웃치마 603, 673
절기 164
절풍 298, 651
정 604
정동벌립 605
정복 662
정애식 692
정자관 196, 606, 674, 680
정재복 255
정창원 96, 218, 246, 527, 598
제갈량 716
제관 565
제복 61, 221, 548, 561, 608, 611, 630, 731, 743, 756
제비부리댕기 615
제용감 645
제의 656
제혜 735
조경일록 604
조관 565
조끼 202, 602, 616
조끼허리 617, 690, 709
조바위 308, 459, 618, 619
조복 46, 561, 611, 630, 731, 743, 756
조삼 87
조선상식 199, 214, 628, 635, 676
조선여속고 167
조선왕조실록 196, 226
조선재봉전서 71, 73, 102, 120, 616, 619, 654
조선휘보 101, 123, 137, 236, 569, 642
조우관 300, 622
조짐머리 104, 647
족두리 66, 104, 113, 312, 624, 647, 659, 739
종교개혁 655
종교복식 259, 577
종이기저귀 115
종종머리 289
주 625, 723
주교관 656
주립 626
주머니 576, 581, 627
주사 629
주술력 644
주역 498
주의 702
주자 496
주자가례 499, 614, 674
주자관 607
주작 310
주케토 656
주항 724
준 700
줄무늬 723
중국복식의관대사전 227
중단 222, 552, 612, 630
중매염 588
중머리 712
중묘조서연관사연도 722
중백의 656
중산모 217, 631
중의 630
중절모 217, 605, 632
중치막 474, 482, 634, 666
증보문헌비고 109, 179, 196, 508, 660
증보산림경제 131, 211
지봉유설 125, 133, 189, 502

지요 482
지치 572
지혈제 228
지환 280
직금 310
직령 611, 635, 666, 698, 702
직령교임식포 636
직물 228, 249, 440, 553, 569, 587, 638, 705
직물금제 306
직업복 610
진사 125
진사고모 266
진연의궤 253
진주사 642
진찬의궤 164, 253
징신 557
짚신 123, 643, 681
쪽 278, 466, 645
쪽머리 113, 201, 311, 573, 647, 653, 658

치읓

차선 705
차양머리 653
착수의 636, 702
참빗 313
참최 662
창옷 474, 635
창의 482, 622, 631, 634, 648, 666, 698, 715
채상모 447
채회염 127
책 650
챙머리 231, 651
처네 653
처용무 682
천공개물 91, 527, 533, 588
천금 482
천마총 82, 110, 300
천신 716
천의 653
천인 696
천주교복 655
천초 121
철경록 91
철릭 279, 559, 598, 603, 626, 657, 666, 698, 702
철매염 122
철사법 640
철장액 676
첨모직 638
첩지 580, 658
첩지머리 659
청금 92, 125
청동팔찌 694
청라관 292
청라의 619
청루소일 113
청말 465, 593
청삼 126
청색 645
청석 464, 593
청성잡기 296
청연군주 128, 665
청올치신 644
청장관전서 106, 296
초립 660, 661, 696
초산일기 635, 649
최상 661
최승희 231
최신전국대표직물 717
최의 662
추관지 306, 521
추상무늬 116
추석빔 664
축구화 112
축융 711
축음기 234
춘관통고 508, 535
출토복식 570, 582, 591, 665
출토유물 665
충이 482

충정관	196, 607, 669
치마	55, 443, 568, 603, 671, 729
치마저고리	291
치마허리	568
치자	92, 673
치포관	456, 674
칠장복	80
침염	675

ㅋ

칼깃	637
콩즙	676
쾌자	71, 202, 602, 676, 681
크라바트	134
크레이프	629
큰댕기	740
큰머리	204, 206, 678

ㅌ

타래버선	120, 679
탁지정례	314
탁지준절	68, 90, 101, 123, 137, 230, 529, 547, 559, 630, 723
탈춤복식	680
탐라순력도	725
탕건	683
탕건장	608, 684
태극무늬	609
태극성	89
태사감	685
태사혜	120, 123, 684, 733
털배자	291
털벙것	297, 686
테왁	725
토끼무늬	118
토수	576, 687
토시	687
토주	688
통영오광대놀이	681
통전	643
통천관	551, 688
통천관복	630, 756
통치마	51, 93, 230, 477, 617, 672, 689
투혜	691
트레머리	231, 652

ㅍ

파나마모자	218, 605
파라핀	132
파마	653
파마머리	231, 232, 270, 692
파수	650
판댕기	251
판염	567
팔길상무늬	301
팔닢댕기	103
팔리움	656
팔사단	693
팔선무늬	302
팔찌	579, 693
패	552
패랭이	241, 660, 696
패물	577
패영	559
패옥	222, 593, 696
팬티	476, 697
페도라	633
편복	209, 470, 606, 657, 698, 701, 715
편복관	242
편복포	648
편삼	577
편상화	99
평량자	681, 696
평상복	437
평조직	723
평직	536, 625, 638, 642, 710, 723
평직물	711
평천관	80, 220

폐면용 133, 499, 501
폐슬 222, 593, 612, 622, 700
폐양자 696
포 505, 698, 701
포구악 112
포대기 653
포도무늬 83
포목점 703
포선 439, 705
포인핸드 134
포플린 705
폴리에스테르 125, 297, 560, 706
표백 239
풀먹이기 706
풍차 130, 708
풍차바지 71, 120, 199, 618, 709
프록코트 266, 631
플라노 710
플란넬 710
플레어스커트 94

ㅎ ㅎㅎ

하부다이 137, 711
하상 222
하이칼라 633, 711
하이칼라머리 711
하이힐 231
하피 594, 713
학봉집 506
학생모 92
학생복 100
학창의 303, 631, 698, 715
학흉배 128
한랭사 716
한복 462, 717, 741
한산모시 238
한삼 476, 588, 590, 593, 721
한서 638
한양가 20, 86, 101, 123, 135, 484
한원 96, 106, 638
함박꽃 234
합당고 277, 475
합사 723
합사주 723
합성섬유 125
항라 723
해녀 725
해녀복 724
해동역사 179
해모수 622
해산물 724
해치흉배 119, 761
핸드백 231
햇빛가리개 606
행전 681, 728
행주치마 729
향갑 730
향낭 135, 730
향노리개 137
허리띠 149, 176, 280, 470, 506, 534, 731
허리말기 477
혁대 222, 621, 697, 731
협수 97, 598, 599, 602, 676
협힐 732
혜 733
혜원전신첩 643
호건 120, 459, 736
호랑이 736
호랑이무늬 118
호로무늬 83
호박단 737
호복고 169
호슬 737
호우총 694
호조낭관계회도 112
호표흉배 760
혼례 438, 439, 624, 705, 739, 748
혼례복 31, 50, 72, 550, 553, 665, 739, 751, 758
혼수품 587
혼인 739
홀 78

홀치기	96
홈질	287
홍광대	626
홍단령	491
홍떡	744
홍장삼	753
홍화	121
홑바지	71, 72
화	79, 252, 745
화관	66, 312, 659, 739, 747
화관궤계	106
화문사	432
화문주	570
화사주	641
화산양로연도	112
화신미용	692
화양건	716
화엄경	117
화장	58
화장대	60
화장법	749
화장재료	750
화장품	277, 750
활옷	195, 703, 739, 751
황남대총	107, 110, 300, 623, 694
황련	754
황벽	92, 754
황초삼	255
홰나무	92
회남자	169
회문	116
회별신굿탈놀이	680
회염	127, 755
회장저고리	104, 590
회화나무	91
후수	222, 593, 622, 756
후한서	105, 643
훈국등록	96
훈국총요	96
훈몽자회	604
휘갑치기	287
휘양	757
휘항	757
흉배	119, 572, 758
흑단령	87, 263, 490, 621, 758
흑령	125
흑립	42, 242, 559, 660
흑사모	438
흑석	464
흑원삼	104
흑피리	614
흑피혜	735
흑피화	622
흑혜	735
흑화	78, 253, 490, 604
흰옷	293
히사시가미	651
힐염	127

IV

강선정 姜先貞 화엄사 성보박물관

가사 21

강순제 姜淳弟 가톨릭대학교

갓 42
모자 239

고부자 高富子 단국대학교

가죽버선 24
갈옷 32
감물 34
까치두루마기 120
몸빼 254
배냇저고리 286
백의 293
색복장려운동 459
정동벌립 605
출토복식 665
털벙것 686
해녀복 724

곽경희 郭京熹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녹피혜 139
당혜 166
멱신 220
목화 252
투혜 691

권혜진 權惠珍 이화여자대학교

웨딩드레스 552
포선 705
활옷 751

금종숙 琴鍾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바느질 272
융복 558
잠방이 575
재봉 585
철릭 657
행주치마 729

김경실 金京實 한국궁중복식연구원

면류관 220
몽두리 255
한삼 721

김경열 金炅烈 홍염장

개오기 53
오미자 533
홍화 743

김명자 金明子 안동대학교

설빔 467
추석빔 664

김문자 金文子 수원대학교

건 56
과대 81
귀고리 106
금동신발 110
나막신 122
대구 169
대륜식입식관 170
목걸이 247
문자무늬 267
반비 279
백라관 292
변형모 298
복식금제 305
유 554
조우관 622
팔찌 693

김선영 金宣伶 국립고궁박물관

규 109
대수 173
옥대 534

김소현 金素賢 배화여자대학교

궁녀복 103
담복 161
염의 532
전행웃치마 603

김시덕 金時德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감발 35
계례복 65
관례복 86
유건 555
최상 661
최의 662

김용문 金容文 강릉원주대학교

땋은머리 203
상투 453
새앙머리 456
쌍계 498
얹은머리 520
쪽머리 647
첩지머리 659

김은영 金銀暎 매듭장

다회 148

김은정 金恩姘 가톨릭대학교

감투	36
공정책	80
동파관	196
방건	282
방립	283
전모	601
충정관	669
탕건	683

김은정 金垠呈 전남대학교

무복	259
액주름포	505
장삼	577
적삼	592

김정아 金廷兒 이화여자대학교

두렁치마	198
색동저고리	457
장갑	575
조끼	616
조끼허리	617
타래버선	679
풍차바지	709
호건	736

김지연 金知娟 이화여자대학교

개두	48
고깔	67
궤계	105
남바위	130
목도리	250
아얌	501
이엄	564
적관	591
풍차	708
화관	747

김지희 金芝希 자연염색박물관

교힐	96
납힐	132
매염	216
방염	286
선매염	466
선염	466
우덮기	543
치자	673
침염	675
협힐	732
황련	754
황벽	754

김현경 金炫京 원광대학교

단발머리	157
미용실	270
이발소	563
파마머리	692

김혜순 金惠順 김혜순한복

원불교복	547

남경미 南瓊美 원광대학교

간단복	27
국민복	100
단발령	155
맥고모자	217
메리야스	219
시계	488
양말	509
외투	539
운동화	544
중산모	631
중절모	632
하이칼라머리	711

노무라 미찌요 野村美千代 장안대학교

경찰복	61

노수정 盧洙正 국립민속박물관

스란치마	485
어사화	518
토시	687

박가영 朴嘉玲 숭의여자대학교

동다리	192
전대	598
전복	602
쾌자	676

박경자 朴京子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뉴똥	143
능목면	144
레이온	208
모슬린	236
벨벳	297
포플린	705
폴리에스테르	706
플란넬	710
하부다이	711
한랭사	716

박선희 朴宣姬 이화여자대학교

넥타이	134
양복점	513
포목점	703
학창의	715

박성실 朴聖實 단국대학교

강사포 46
소창의 474
적의 593
중치막 634
창의 648
하피 713
호슬 737

박윤미 朴允美 단국대학교

관사 87
광목 89
기하무늬 116
당항라 166
동자무늬 194
모시 237
목공단 249
옥양목 536
왜사 538
왜증 539
융 558

박종민 朴鍾珉 국립산악박물관

경대 58
빗 313
휘양 757

배영동 裵永東 안동대학교

삼베 440

백영자 白英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머니 627
향갑 730

소황옥 蘇晃玉 중앙대학교

도토리 184
떨잠 206
먹물 218
명반 228
물푸레나무 269
반물 278
백반 293
비녀 311
사선 439
석회 465
소방목 473
연지 526
오매 532
잿물 587

송미경 宋美京 서울여자대학교

단삼 158
답호 162
더그레 181
두루마기 199
등거리 202
배자 290
수의 479
저고리 588

심연옥 沈蓮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단 68
공단 77
능 143
단 150
라 207
모단 230
모본단 236
무명 257
팔사단 693
항라 723

안명숙 安明淑 광주대학교

대 167
세조대 469
혁대 731
홀 742

안애영 安愛英 난사전통복식 문화재연구소

단속곳 159
대슘치마 174
대자 176
무지기치마 262
버선 295
속적삼 476
속치마 477

연규홍 延圭鴻 한신대학교

개신교복 52

염정하 廉貞夏 전라북도문화컨텐츠 산업진흥원

구군복 96
벙거지 296

오선희 吳宣希 이화여자대학교

관자 88
노리개 135
동곳 191
뒤꽂이 201
반지 280
잠 573
장도 576
장신구 579
첩지 658

유효순 柳孝順 숙명여자대학교

사규삼 436
전립 599
주립 626

윤양노 尹良老 중부대학교

괴화 91
꼭두서니 121
염색 527
한복 717

윤을요 尹乙堯 동덕여자대학교

안경 502
안경집 503

윤지원 尹智媛 제이원랩

갈무리 30
다듬이질 145
다리미질 147
세탁 470
쓰개치마 499
탈춤복식 680
풀먹이기 706

이경미 李京美 한경대학교

고무신 69
문관대례복 263
문관복장규칙 265
신식군복 493
양복 510
연미복 525
와이셔츠 537
제복(制服) 608

이관호 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미투리 271
짚신 643

이명은 李明恩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가리마 20
과두 82
동의대 194
복건 302
봉지 309
소고의 472
조바위 618
천의 653

이민정 李旼靜 서울대학교박물관

교복 92
구두 98
양장 514
자락치마 568
챙머리 651
통치마 689

이민주 李民周 한국학중앙연구원

고 66
곤룡포 73
공복 78
난삼 125
방심곡령 285
원유관 551
익선관 565
제복(祭服) 611
통천관 688
편복 698

이은주 李恩珠 안동대학교

곁마기 63
도포 186
떠구지 204
볼끼 307
상복(常服) 450
시복 490
야자대 506
어여머리 519
장옷 582
정 604
큰머리 678
흉배 758

이은진 李銀眞 경상대학교

노방주 137
면주 227
명주 228
보배무늬 300
산동주 440
수화주 483
주 625
토주 688
합사주 723

이주영 李珠英 동명대학교

직령 635
포 701

이호정 李祜娗 성균관대학교

고이댕기 71
댕기 179
도투락댕기 184
말뚝댕기 213
목판댕기 251
배씨댕기 289
제비부리댕기 615

임경화 林炅花 창작 스튜디오 놀자

건귁 57
초립 660
패랭이 696

임린 任潾 전남대학교

삿갓 443
송낙 478
승복 486

장경희 張慶姬 한서대학교

마미두면 209
망건 214
양태 517
정자관 606

장정윤 張楨允 단국대학교

조복 619

장현주 張賢珠 제주대학교

가죽 23
계 65
나일론 124
모직물 246
삼팔주 442
인견 566
전 597
호박단 737

전현실 全炫室 가톨릭대학교

두건 197
말액 214
책 650

정관채 鄭官采 염색장

쪽 645
콩즙 676

정미숙 鄭美淑 경기도박물관

곤충무늬 76
굴레 102
길짐승무늬 118
날짐승무늬 128
너울 133
말군 211
봉황무늬 309
용무늬 541
자연산수무늬 570
족두리 624

정연학 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설피 468

정혜경 鄭惠敬 경남대학교

개량복 49
개량한복 51
생활한복 462
심의 496

조미숙 曺美淑 이화여자대학교

날염 127
남전 131
닭의장풀 160
마전 211
오배자 534
울금 546
인염 567
자초 572
회염 755

조선희 趙鮮姬 한서대학교

노파리 138
신발 491
운혜 545
유혜 557
장화 583
태사혜 684
혜 733
화 745
흑피화 762

조우현 趙又玄 성균관대학교

복두 303
사모 437
상관 445
상복(喪服) 447
상장 452
요질 541
천주교복 655
행전 728

조효숙 趙孝淑 가천대학교

갑사 37
경사 60
고사 70
과실무늬 83
광사 90
국사 101
나사 123
모란무늬 234
사 432
사계절꽃무늬 433
사군자무늬 434
생고사 461
서양사 463
숙고사 484
연꽃무늬 523
옥사 535
위사 553
은조사 559
자미사 569
주사 629
직물 638
진주사 642

조희진 趙熙眞 안동대학교

가체 25
개짐 54
고의 71
고쟁이 72
기저귀 115
다리속곳 148
돌띠 188
동동구리무 193
박가분 277
백일옷 294
속옷 475
팬티 697
화장법 749
화장재료 750

최연우 崔然宇 단국대학교

갑신의제개혁	39
갑오의제개혁	40
대한제국의제개혁	177
면복	222
상	443
상투관	455
석	464
을미의제개혁	560
중단	630
치포관	674
패옥	696
폐슬	700
후수	756

최은수 崔銀水 국립민속박물관

갈모	28
단령	151
도롱이	182
돌복	189
모던걸	230
모던보이	233
바지	275
양관	507

최정 崔楨 원광대학교

기녀복	112

추은희 秋銀姬 중부대학교

농악복식	139
상모	446

홍나영 洪那英 이화여자대학교

거들치마	55
당의	164
대삼	173
마고자	208
면사	226
몽수	256
원삼	549
치마	671
혼례복	739

관내자문 김영재
최은수

관외자문 고부자(단국대학교)
금기숙(홍익대학교)
김명자(안동대학교)
김문식(단국대학교)
김문자(수원대학교)
김시덕(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남경미(원광대학교)
박성실(단국대학교)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
윤양노(중부대학교)
이경미(한경대학교)
이문현(한국고전학연구소)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이은주(안동대학교)
장인우(인천대학교)
조효숙(가천대학교)

감수위원 강순제(가톨릭대학교)
박성실(단국대학교)
유송옥(성균관대학교)